

CBETA電子佛典集成

CBETA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
eBook


X84n1579

續指月錄

清 聶先編輯

財團
法人

佛教電子佛典基金會



目次

- [編輯說明](#)
- [章節目次](#)
 - [No._1579-A_序](#)
 - [No._1579-B_續指月錄序](#)
 - [No._1579-C_募刻續指月錄弁語](#)
 - [No._1579-D](#)
 - [No._1579-E_緣起](#)
 - [No._1579-F_孫孝則先生書問](#)
 - [續指月錄總目](#)
 - [續指月錄凡例二十則](#)
 - [No._1579-G_虎丘徑山二祖長少倫敘考](#)
 - [六祖下十六世](#)
 - [臨濟宗](#)
 - [平江虎丘雪庭元淨禪師](#)
 - [潭州福嚴文演禪師](#)
 - [衢州天寧訥堂梵思禪師](#)
 - [福州玄沙僧昭禪師](#)
 - [紹興東山覺禪師](#)
 - [岳州君山佛炤覺禪師](#)
 - [平江寶華顯禪師](#)
 - [台州天封覺禪師](#)
 - [成都正法建禪師](#)
 - [台州鴻福子文禪師](#)
 - [南康雲居宗振首座](#)
 - [祖氏覺庵道人](#)
 - [令人明室道人](#)
 - [台州瑞巖如勝佛燈禪師](#)
 - [韶州南華知晷禪師](#)
 - [慶元蓬萊卿禪師](#)
 - [隆興泐潭擇明禪師](#)
 - [台州寶藏本禪師](#)
 - [吉州大中祥符清海禪師](#)
 - [漳州淨眾佛直了燦禪師](#)
 - [隆興谷山海禪師](#)

- [撫州白楊法順禪師](#)
- [溫州淨居尼慧溫禪師](#)
- [潭州大漁月庵善果禪師](#)
- [潼川護聖愚丘居靜禪師](#)
- [簡州南巖勝禪師](#)
- [嘉州能仁默堂紹悟禪師](#)
- [彭州十溪智陀子言庵主](#)
- [劍門南修道者](#)
- [蘄州龍華高禪師](#)
- [饒州薦福常庵擇崇禪師](#)
- [胡文定公草庵居士](#)
- [福州普賢元素禪師](#)
- [福州鼓山山堂僧洵禪師](#)
- [福州鼓山別峰祖珍禪師](#)
- [慶元育王無示介謀禪師](#)
- [安吉道場普明慧琳禪師](#)
- [安吉道場無傳居慧禪師](#)
- [臨安顯寧松堂圓智禪師](#)
- [安吉烏回唯庵良範禪師](#)
- [溫州本寂靈光文觀禪師](#)
- [常德德山無諍慧初禪師](#)
- [廬山延慶叔禪師](#)
- [漣水萬壽夢庵普信禪師](#)
- [平江慧日默庵興道禪師](#)
- [廣德光孝果繁禪師](#)
- [福州雪峰球堂慧忠禪師](#)
- [慶元蓬萊圓禪師](#)
- [江州圓通密印守慧禪師](#)
- [洪州黃龍道觀禪師](#)
- [揚州石塔宣秘禮禪師](#)
- [峨嵋靈巖徽禪師](#)
- [湖南報慈淳禪師](#)
- [成都金繩文禪師](#)
- [曹洞宗](#)
 - [常州華藏明極慧祚禪師](#)
 - [明州雪竇足庵智鑒禪師](#)
 - [泰州廣福微庵道勤禪師](#)
 - [越州超化藻禪師](#)

- 雲門宗
 - 密州[山*耆]山寧禪師
 - 臨安五雲悟禪師
 - 臨安中竺癡禪元妙禪師
 - 撫州靈巖圓日禪師
 - 荊門玉泉思達禪師
- 六祖下十七世
 - 臨濟宗
 - 慶元天童應庵曇華禪師
 - 泉州教忠晦菴彌光禪師
 - 福州西禪懶菴鼎需禪師
 - 福州東禪蒙菴思岳禪師
 - 福州西禪此庵守淨禪師
 - 江州東林萬庵道顏禪師
 - 慶元育王佛照德光禪師
 - 常州華藏滌庵宗演禪師
 - 慶元天童無用淨全禪師
 - 建寧開善道謙禪師
 - 溫州鴈山能仁枯木祖元禪師
 - 臨安徑山了明禪師
 - 潭州大溈法寶禪師
 - 福州玉泉曇懿禪師
 - 饒州薦福悟本禪師
 - 慶元育王大圓遵璞禪師
 - 直州靈巖東庵了性禪師
 - 劍州萬壽白護禪師
 - 潭州大溈了庵景暈禪師
 - 臨安靈隱誰庵了演禪師
 - 泰州光孝致遠禪師
 - 建康蔣山一庵善直禪師
 - 福州雪峰普慈蘊聞禪師
 - 處州漣雲道能禪師
 - 臨安靈隱最庵道印禪師
 - 建寧竹原宗元庵主
 - 近禮侍者
 - 溫州淨居尼妙道禪師
 - 平江資壽尼無著妙總禪師
 - 侍郎無垢居十張九成

- [參政李邴居士](#)
- [寶學劉彥修居士](#)
- [提刑吳偉明居士](#)
- [門司黃彥節居士](#)
- [秦國夫人計氏](#)
- [福州清涼坦禪師](#)
- [臨安淨慈水庵師一禪師](#)
- [安吉州道場無庵法全禪師](#)
- [泉州延福寒巖慧升禪師](#)
- [福州支提道升禪師](#)
- [鎮江焦山或庵師體禪師](#)
- [台州國清簡堂行機禪師](#)
- [常州華藏湛堂智深禪師](#)
- [參政錢端禮居士](#)
- [慶元東山全庵齊己禪師](#)
- [臨安靈隱濟顛道濟禪師](#)
- [撫州疏山歸雲如本禪師](#)
- [日本叡山覺阿上人](#)
- [內翰雙開居士](#)
- [知府葛郟居士](#)
- [臨安徑山別峰寶印禪師](#)
- [浩州鳳棲慧觀禪師](#)
- [潭州楚安慧方禪師](#)
- [常德文殊思業禪師](#)
- [婺州雙林德用禪師](#)
- [台州萬年無著道閑禪師](#)
- [福州中際善能禪師](#)
- [南康雲居普雲白圓禪師](#)
- [成都信相戒修禪師](#)
- [袁州慈化普庵印肅禪師](#)
- [隨州大洪老衲祖證禪師](#)
- [潭州大溈行禪師](#)
- [荊門玉泉窮谷宗璉禪師](#)
- [潭州道林淵禪師](#)
- [隆興泐潭山堂德淳禪師](#)
- [常州宜興保安復庵可封禪師](#)
- [隆興野庵祖璿禪師](#)
- [潭州石霜宗鑒禪師](#)

- [南康雲居蓬庵德會禪師](#)
- [潭州慧通清日禪師](#)
- [澧州靈巖仲安禪師](#)
- [成都正法灝禪師](#)
- [成都昭覺辯禪師](#)
- [平江覺報清禪師](#)
- [安吉何山然首座](#)
- [義烏稠巖了譽禪師](#)
- [待制潘良貴居士](#)
- [漢州無為隨庵守緣禪師](#)
- [南康雲居頑庵德昇禪師](#)
- [通州狼山蘿庵慧溫禪師](#)
- [吉州青原如禪師](#)
- [太平隱靜圓極彥岑禪師](#)
- [鄂州報恩成禪師](#)
- [遂寧西禪希秀禪師](#)
- [饒州薦福退庵休禪師](#)
- [信州龜峰晦庵慧光禪師](#)
- [直州長蘆日庵守仁禪師](#)
- [溫州淨居尼無相法燈禪師](#)
- [台州萬年心聞曇賁禪師](#)
- [南劍西巖宗回禪師](#)
- [慶元天童慈航了朴禪師](#)
- [臨安龍華無住本禪師](#)
- [高麗坦然國師](#)
- [臨江東山吉禪師](#)
- [杭州靈隱懶庵道樞禪師](#)
- [廣德光孝悟初首座](#)
- [曹洞宗](#)
 - [慶元天童長翁如淨禪師](#)
 - [東谷光禪師](#)
- [雲門宗](#)
 - [溫州光孝已庵深禪師](#)
- [六祖下十八世](#)
 - [臨濟宗](#)
 - [慶元天童密庵咸傑禪師](#)
 - [衢州光孝百拙善登禪師](#)
 - [南書記](#)

- [侍郎李浩居士](#)
- [教授嚴康朝居士](#)
- [泉州法石中庵慧空禪師](#)
- [臨安淨慈混源曇密禪師](#)
- [吉州青原信庵唯禪禪師](#)
- [荊州公安遯庵祖珠禪師](#)
- [江州報恩法演禪師](#)
- [臨安淨慈肯堂彥充禪師](#)
- [婺州智者元庵直慈禪師](#)
- [成都昭覺紹淵禪師](#)
- [徽州簡上座](#)
- [福州鼓山本庵安永禪師](#)
- [溫州龍翔柏堂南雅禪師](#)
- [福州天王志清禪師](#)
- [南劍劍門安分庵主](#)
- [臨安靈隱妙峰之善禪師](#)
- [臨安淨慈退谷義雲禪師](#)
- [臨安北磻敬叟居簡禪師](#)
- [臨安徑山浙翁如琰禪師](#)
- [福州東禪性空智觀禪師](#)
- [湖州上方朴翁義銛禪師](#)
- [臨安靈隱鐵牛印禪師](#)
- [慶元育王空叟宗印禪師](#)
- [慶元育王秀崑師瑞禪師](#)
- [慶元天童無際了派禪師](#)
- [慶元天童海門師齊禪師](#)
- [江州雲居率庵梵琮禪師](#)
- [慶元育王孤雲權禪師](#)
- [石庵正珣禪師](#)
- [福州鼓山宗逮禪師](#)
- [臨安徑山德澗禪師](#)
- [福州鼓山石庵知珣禪師](#)
- [慶元育王笑翁妙堪禪師](#)
- [臨安靈隱石鼓希夷禪師](#)
- [幽州盤山思卓禪師](#)
- [慶元雪竇野雲處南禪師](#)
- [福州雪峰滅堂了宗禪師](#)
- [相國錢象祖居士](#)

- [臨州乾元宗穎禪師](#)
- [興化華嚴別峰雲禪師](#)
- [福州中濟無禪立才禪師](#)
- [湖州何山月窟慧清禪師](#)
- [建寧仙州山吳十三道人](#)
- [如如居士顏丙](#)
- [明州育王妙智從廓禪師](#)
- [慶元天童息庵達觀禪師](#)
- [袁州仰山簡庵嗣清禪師](#)
- [常州華藏伊庵有權禪師](#)
- [明州天童癡鈍智穎禪師](#)
- [鎮江金山退庵道奇禪師](#)
- [婺州三峰印禪師](#)
- [慶元徑山蒙庵元聰禪師](#)
- [平江萬壽月林師觀禪師](#)
- [常德德山子涓禪師](#)
- [萬松壩衲大璉禪師](#)
- [溫州龍鳴存庵賢禪師](#)
- [潭州大溈叟庵鑑禪師](#)
- [慶元瑞巖景蒙禪師](#)
- [慶元天童雪庵從瑾禪師](#)
- [曹洞宗](#)
 - [襄州鹿門覺禪師](#)
- [六祖下十九世](#)
 - [臨濟宗](#)
 - [夔州臥龍破庵祖先禪師](#)
 - [臨安靈隱松源崇嶽禪師](#)
 - [饒州薦福曹源道生禪師](#)
 - [慶元天童枯禪白鏡禪師](#)
 - [臨安淨慈潛庵慧光禪師](#)
 - [太平隱靜萬庵致柔禪師](#)
 - [臨安靈隱笑庵了悟禪師](#)
 - [金陵蔣山一翁慶如禪師](#)
 - [平江承天鐵鞭允韶禪師](#)
 - [學士張鉞居士](#)
 - [吉州青原淨居正庵宗廣禪師](#)
 - [臨安淨慈晦翁悟明禪師](#)
 - [臨安徑山藏叟善珍禪師](#)

- [臨安淨慈東叟仲穎禪師](#)
- [吉安龍濟友雲宗葵禪師](#)
- [慶元育王物初大觀禪師](#)
- [臨安淨慈優溪廣聞禪師](#)
- [臨安靈隱大川普濟禪師](#)
- [臨安徑山淮海原肇禪師](#)
- [婺州雙林介石朋禪師](#)
- [慶元天童弁山阡禪師](#)
- [平江虎丘枯椿曇禪師](#)
- [龍溪文禪師](#)
- [平江虎丘東山道源禪師](#)
- [慶元大慈芝岳慧洪禪師](#)
- [慶元壽國夢窗嗣清禪師](#)
- [湖州道場別浦法舟禪師](#)
- [無極觀禪師](#)
- [慶元瑞巖無量崇壽禪師](#)
- [慶元天寧無鏡徹禪師](#)
- [鰲峰定禪師](#)
- [饒州薦福無文燦禪師](#)
- [福州雪峰北山信禪師](#)
- [平江虎丘伽堂善濟禪師](#)
- [越州天衣嘯岳文蔚禪師](#)
- [柏岳凝禪師](#)
- [華藏純庵善淨禪師](#)
- [臨安徑山荊叟如珎禪師](#)
- [福州雪峰大夢德因禪師](#)
- [臨安靈隱高原祖泉禪師](#)
- [隆興黃龍無門慧開禪師](#)
- [興化囊山孤峰德秀禪師](#)
- [潭州石霜竹巖妙印禪師](#)
- [鼓山檜堂祖鑒禪師](#)
- [徽州黃山正因禪師](#)
- [曹洞宗](#)
 - [青州普照一辨禪師](#)
 - [慶元天童雲外岫禪師](#)
- [六祖下二十世](#)
 - [臨濟宗](#)
 - [臨安徑山無準師範禪師](#)

- [江州雲居即庵慈覺禪師](#)
- [慶元大慈獨庵道儔禪師](#)
- [臨安靈隱石田法薰禪師](#)
- [慶元天童滅翁天日文禮禪師](#)
- [溫州江心石巖希璉禪師](#)
- [台州瑞巖佛日雲巢巖禪師](#)
- [華藏無礙覺通禪師](#)
- [臨安淨慈谷源道禪師](#)
- [湖州道場北海悟心禪師](#)
- [慶元雪竇大歇仲謙禪師](#)
- [諾庵肇禪師](#)
- [湖州道場運庵普巖禪師](#)
- [蘇州虎丘蔭藜曇禪師](#)
- [台州瑞巖少室光睦禪師](#)
- [鎮江金山掩室善開禪師](#)
- [明州雪竇無相範禪師](#)
- [祕監陸游居士](#)
- [臨安徑山癡絕道冲禪師](#)
- [臨安淨慈清溪沅禪師](#)
- [荊州公安虎溪錫禪師](#)
- [福州西禪月潭圓禪師](#)
- [慶元育王寂窗有照禪師](#)
- [泉州法石愚谷元智禪師](#)
- [報恩太古先禪師](#)
- [毘翁淳禪師](#)
- [平江虎丘雙杉元禪師](#)
- [臨安徑山元叟行端禪師](#)
- [溫州江心一山了萬禪師](#)
- [慶元奉化岳林栴堂益禪師](#)
- [婺州雙林雲屋白閒禪師](#)
- [枯木榮禪師](#)
- [臨安徑山佛智晦機元熙禪師](#)
- [慶元徑山雲峰妙高禪師](#)
- [湖州何山鐵鏡至明禪師](#)
- [慶元天童止泓鑒禪師](#)
- [慶元天童石門來禪師](#)
- [慶元雪竇野翁炳同禪師](#)
- [臨安靈隱悅堂祖閏禪師](#)

- [廬山圓通雪溪逸禪師](#)
- [岳州灌溪昌禪師](#)
- [支提愚叟澄鑒禪師](#)
- [紹興大慶尼了庵智悟禪師](#)
- [寧波天童西江謀禪師](#)
- [福州雪峰石翁玉禪師](#)
- [臨安中竺空巖有禪師](#)
- [臨安淨慈千瀨善慶禪師](#)
- [婺州寶林無機和尚](#)
- [溫州華藏瞎驢無見禪師](#)
- [臨安慧雲無傳祖禪師](#)
- [杭州護國臬庵宗禪師](#)
- [放牛余居士](#)
- [福州鼓山皖山正凝禪師](#)
- [婺州雙林一衲介禪師](#)
- [葛廬覃禪師](#)
- [曹洞宗](#)
 - [磁州大明寶禪師](#)
 - [慈雲十身覺禪師](#)
 - [玉溪通玄圓通禪師](#)
 - [鄭州普照寶禪師](#)
 - [慶元雪竇無印大證禪師](#)
- [六祖下二十一世](#)
 - [臨濟宗](#)
 - [袁州仰山雪巖祖欽禪師](#)
 - [臨安淨慈斷橋妙倫禪師](#)
 - [台州國清靈叟源禪師](#)
 - [慶元天童別山祖智禪師](#)
 - [福州雪峰環溪一禪師](#)
 - [明州天童月坡明禪師](#)
 - [廬山東林指南直禪師](#)
 - [慶元雪竇希叟紹曇禪師](#)
 - [臨安靈隱退耕寧禪師](#)
 - [福州雪峰絕岸可湘禪師](#)
 - [慶元天童西巖了慧禪師](#)
 - [越州光孝石室輝禪師](#)
 - [杭州淨慈愚極慧禪師](#)
 - [臨安中竺雪屋珂禪師](#)

- [慶元育王橫川如珙禪師](#)
- [臨安淨慈石林行輦禪師](#)
- [嘉興天寧冰谷衍禪師](#)
- [平江虎丘雲岍靖禪師](#)
- [平江萬壽訥堂辯禪師](#)
- [平江虎丘清溪義禪師](#)
- [臨安徑山虎舟普度禪師](#)
- [平江萬壽高峰嶽禪師](#)
- [平江承天覺庵夢直禪師](#)
- [霍山昭禪師](#)
- [慧巖象潭泳禪師](#)
- [一關溥禪師](#)
- [台州國清溪西澤禪師](#)
- [臨安徑山虎堂智愚禪師](#)
- [明州天童石帆衍禪師](#)
- [臨安徑山石溪心月禪師](#)
- [福州神光北山隆禪師](#)
- [高臺此山應禪師](#)
- [慶元天童簡翁敬禪師](#)
- [湖州道場龍源介清禪師](#)
- [杭州靈隱性原慧朗禪師](#)
- [嘉興天寧楚石梵琦禪師](#)
- [杭州徑山愚庵以中智及禪師](#)
- [杭州靈隱樸隱天鏡元靜禪師](#)
- [蘇州萬壽行中至仁禪師](#)
- [象山瑞龍夢堂曇噩禪師](#)
- [杭州徑山復原福報禪師](#)
- [杭州徑山古鼎祖銘禪師](#)
- [杭州靈隱竹泉了幻法林禪師](#)
- [明州天寧歸庵仲猷祖闔禪師](#)
- [蘇州開元愚仲善如禪師](#)
- [杭州上竺我庵本無法師](#)
- [蘇州萬壽佛初智淳禪師](#)
- [報恩無方智普禪師](#)
- [南康雲居小隱師大禪師](#)
- [金陵集慶龍翔笑隱大訢禪師](#)
- [嘉興祥符梅屋念常禪師](#)
- [明州雪竇石室祖瑛祖師](#)

- [杭州中竺一關正達禪師](#)
- [寧波佛巖仲方天倫禪師](#)
- [越州天衣業海子清禪師](#)
- [杭州中竺一溪自如禪師](#)
- [江州東林古智喆禪師](#)
- [明州天童怪石奇禪師](#)
- [杭州徑山本源善達禪師](#)
- [龍巖直首座](#)
- [明州恭都寺](#)
- [雪竇竺田汝霖禪師](#)
- [湖州道場玉溪思珉禪師](#)
- [杭州徑山月江宗淨禪師](#)
- [江州東林無外宗廓禪師](#)
- [嘉興石門直覺元翁信禪師](#)
- [呂鐵船居士](#)
- [蘇州陽山金芝嶺鐵\[此/束\]念庵主](#)
- [松江澱山德異禪師](#)
- [舒州太湖普明無用寬禪師](#)
- [無為天寧無能教禪師](#)
- [北京慶壽海雲印簡禪師](#)
- [曹洞宗](#)
 - [太原王山體禪師](#)
 - [仁山恒禪師](#)
 - [燕京慶壽虞明教亨禪師](#)
- [六祖下二十二世](#)
 - [臨濟宗](#)
 - [杭州天目高峰原妙禪師](#)
 - [徑山虔谷希陵禪師](#)
 - [衡州靈雲鐵牛持定禪師](#)
 - [袁州慈化鐵山瓊禪師](#)
 - [建昌能仁天隱牧潛圓至禪師](#)
 - [竹屋簡禪師](#)
 - [絕象鑒禪師](#)
 - [台州瑞巖方山寶禪師](#)
 - [永宗本禪師](#)
 - [金陵蔣山月庭忠禪師](#)
 - [蘇州崑山薦嚴竺元妙道禪師](#)
 - [金陵保寧古林清茂禪師](#)

- [越州天衣斷江覺恩禪師](#)
- [杭州靈隱東嶼德海禪師](#)
- [嘉興天寧竺雲景曇禪師](#)
- [蘇州虎丘東山壽永禪師](#)
- [杭州徑山虎巖淨伏禪師](#)
- [寧波天童竺西坦禪師](#)
- [越州定水寶葉源禪師](#)
- [蘇州虎丘閒極雲禪師](#)
- [南叟茂禪師](#)
- [寧波育王東牛德明禪師](#)
- [杭州靈隱空叟忻悟禪師](#)
- [長洲廣孝斯道道衍禪師](#)
- [杭州徑山南石文琇禪師](#)
- [嘉興天寧西白力金禪師](#)
- [杭州徑山象源仁淑禪師](#)
- [金陵天界覺源慧曇禪師](#)
- [金陵天界善世全室宗泐禪師](#)
- [杭州中竺用彰癩翁廷俊禪師](#)
- [杭州靈隱介庵用直輔良禪師](#)
- [廬山圓通約之崇裕禪師](#)
- [杭州淨慈孤峰明德禪師](#)
- [福州天寶鐵關法樞禪師](#)
- [孤舟濟禪師](#)
- [宜興龍池一源永寧禪師](#)
- [杭州妙果竺源水盛禪師](#)
- [曹洞宗](#)
 - [磁州大明雪巖滿禪師](#)
 - [勝默光禪師](#)
 - [磁州大明詮禪師](#)
 - [鄭州大覺西溪弘相禪師](#)
- [六祖下二十三世](#)
 - [臨濟宗](#)
 - [杭州天目中峰明本禪師](#)
 - [杭州天目斷崖了義禪師](#)
 - [大覺布衲祖雍禪師](#)
 - [處州白雲空中假禪師](#)
 - [般若絕學世誠禪師](#)
 - [杭州徑山竺遠正源禪師](#)

- [婺州寶林桐江紹大禪師](#)
- [汝州香巖無聞思聰禪師](#)
- [湖州福源天湖石屋清珙禪師](#)
- [杭州淨慈平山處林禪師](#)
- [婺州羅山正覺石門至剛禪師](#)
- [杭州海門天真惟則禪師](#)
- [台州華頂無見先覩禪師](#)
- [慶元松巖秋江元湛禪師](#)
- [杭州鳳山一源靈禪師](#)
- [明州天童平石砥禪師](#)
- [日本夢窗智晞國師](#)
- [台州瑞巖空室恕中無慍禪師](#)
- [明州天童了堂一禪師](#)
- [徑山大宗興禪師](#)
- [蘇州靈巖南堂了庵清欲禪師](#)
- [蘇州定慧大方禪師](#)
- [明州瑞雲清涼寶庵松隱茂禪師](#)
- [溫州僊巖仲謀猷禪師](#)
- [越州龍華會翁海禪師](#)
- [慶元育王大千慧照禪師](#)
- [杭州徑山悅堂顏禪師](#)
- [明州育王雪窗悟光禪師](#)
- [杭州徑山月林鏡禪師](#)
- [建寧斗峰大圭正璋禪師](#)
- [榴塘明因天淵湛禪師](#)
- [三空道人](#)
- [金陵天界孚中懷信禪師](#)
- [天童舜田明牧禪師](#)
- [金陵蔣山曇芳忠禪師](#)
- [寧波育王月江正印禪師](#)
- [杭州徑山南楚悅禪師](#)
- [杭州徑山月江宗淨禪師](#)
- [金陵保寧敏機覺慧禪師](#)
- [杭州淨慈佛鑑簡庵希古師頤禪師](#)
- [金陵靈谷定巖淨戒禪師](#)
- [明州天童佛朗湛然白性禪師](#)
- [杭州靈隱無文本慧禪師](#)
- [衢州烏石傑峰世愚禪師](#)

- [杭州淨慈逆川智順禪師](#)
- [五臺壁峰寶金禪師](#)
- [曹洞宗](#)
 - [中都順天報恩萬松行秀禪師](#)
 - [竹林巨川海禪師](#)
- [六祖下二十四世](#)
 - [臨濟宗](#)
 - [婺州烏傷伏龍無明千巖元長禪師](#)
 - [蘇州師子林天如惟則禪師](#)
 - [日本建長古先印原禪師](#)
 - [建寧仰山古梅正友禪師](#)
 - [杭州淨慈德隱普仁禪師](#)
 - [杭州止庵德祥禪師](#)
 - [金陵天界同庵易道夷簡禪師](#)
 - [湖州弁山白蓮南極懶雲智安禪師](#)
 - [處州福林白雲智度禪師](#)
 - [明州天童元明原良禪師](#)
 - [杭州徑山杲庵敬中普莊禪師](#)
 - [溫州江心覺初慧恩禪師](#)
 - [慈谿定水見心來復禪師](#)
 - [杭州淨慈休庵無旨可授禪師](#)
 - [杭州普明立中成禪師](#)
 - [杭州淨慈照庵宗靜禪師](#)
 - [溫州瑞安護龍太初啟原禪師](#)
 - [金陵靈谷非幻無涯永禪師](#)
 - [曹洞宗](#)
 - [西京萬壽雪庭福裕禪師](#)
 - [燕京報恩林泉從倫禪師](#)
 - [吾捨從寬禪師](#)
 - [上都華嚴全一至溫禪師](#)
 - [丞相耶律楚材居士](#)
 - [屏山李純甫居士](#)
 - [順德天寧弘明虔照禪師](#)
- [六祖下二十五世](#)
 - [臨濟宗](#)
 - [蘇州鄧尉萬峰時蔚禪師](#)
 - [杭州天龍水庵無用守貴禪師](#)
 - [華亭松隱唯庵德然禪師](#)

- [婺州清隱蘭室德馨禪師](#)
- [金華華山明叟昌庵主](#)
- [京口金山慈舟濟禪師](#)
- [一峰寧禪師](#)
- [杭州正傳院祖庭空谷景隆禪師](#)
- [金陵天界古拙俊禪師](#)
- [曹洞宗](#)
 - [西京少室靈隱文泰禪師](#)
 - [太原報恩中林智泰禪師](#)
 - [泰安靈巖足庵淨肅禪師](#)
 - [和林北寺覺印禪師](#)
 - [成都昭覺仲慶禪師](#)
 - [安平守護禪師](#)
 - [弁州太子久善禪師](#)
 - [京兆華嚴覺印禪師](#)
 - [鞏昌廣嚴法興禪師](#)
 - [順德妙乘禪師](#)
 - [燕京鞍山月泉同新禪師](#)
 - [關中林禪師](#)
 - [十方進禪師](#)
 - [嵩山法王暉禪師](#)
 - [泰安州靈巖復禪師](#)
 - [護國圓禪師](#)
 - [崇孝普禪師](#)
 - [淨十里禪師](#)
 - [汝州寶應海禪師](#)
 - [順德天寧仲復子顏禪師](#)
 - [太保劉秉忠居士](#)
- [六祖下二十六世](#)
 - [臨濟宗](#)
 - [蘇州鄧尉寶藏普持禪師](#)
 - [武昌九峰無念勝學禪師](#)
 - [果林首座](#)
 - [建昌黃龍壽昌西竺本來禪師](#)
 - [東普無際明悟禪師](#)
 - [杭州虎跑性天如皎禪師](#)
 - [揚州素庵田居士](#)
 - [曹洞宗](#)

- [西京少室寶應還源福遇禪師](#)
- [濟南靈巖秋江潔禪師](#)
- [西京寶應月巖永達禪師](#)
- [封龍古巖普就禪師](#)
- [六祖下二十七世](#)
 - [臨濟宗](#)
 - [杭州東明虎白慧昂禪師](#)
 - [建寧天界雪骨會中禪師](#)
 - [金陵大岡月溪澄禪師](#)
 - [舒州投子楚山幻叟荆壁紹琦禪師](#)
 - [雲南古庭善堅禪師](#)
 - [佛跡頤庵直禪師](#)
 - [伏牛物外無念圓信禪師](#)
 - [曹洞宗](#)
 - [鄧州香巖淳拙文才禪師](#)
 - [熊耳空相珪禪師](#)
 - [嵩山龍潭深禪師](#)
 - [嵩山龍潭端禪師](#)
 - [洛陽天慶江禪師](#)
 - [嵩山永泰祥禪師](#)
 - [盤山遇禪師](#)
 - [太原斌禪師](#)
 - [金陵天界雪軒道成禪師](#)
 - [西京天慶息庵義讓禪師](#)
 - [泰山靈巖容禪師](#)
 - [晉寧心菴主](#)
 - [白茅春菴主](#)
- [六祖下二十八世](#)
 - [臨濟宗](#)
 - [金陵東山翼善海舟永慈禪師](#)
 - [杭州東明海舟普慈禪師](#)
 - [水心月汀覺淨禪師](#)
 - [邵武君峯大闡慧通禪師](#)
 - [金陵高座古溪覺澄禪師](#)
 - [襄陽大雲興禪師](#)
 - [涿州金山寶禪師](#)
 - [唐安湛淵齋禪師](#)
 - [石經海珠祖意禪師](#)

- [長松大心直源禪師](#)
- [松藩大悲崇善一天智中禪師](#)
- [石經豁堂祖裕禪師](#)
- [三池月光常慧禪師](#)
- [中溪隱山昌雲禪師](#)
- [翠微悟空禪師](#)
- [珪菴祖玠侍者](#)
- [五臺顯通大巍淨倫禪師](#)
- [夷峯寧禪師](#)
- [杭州天直毒峯本善禪師](#)
- [五臺普濟孤月淨澄禪師](#)
- [鳳陽楞山護國無用文全禪師](#)
- [崇福大慧覺華禪師](#)
- [處州白雲無量滄禪師](#)
- [明州用剛宗軟禪師](#)
- [黔中正法雪光禪師](#)
- [性空和尚](#)
- [曹洞宗](#)
 - [南陽萬安松庭子嚴禪師](#)
 - [佛巖稔禪師](#)
 - [登封嵩山竹庵子忍禪師](#)
 - [登封華嚴遇禪師](#)
 - [陝州熊耳登禪師](#)
 - [古蔡元禪師](#)
 - [天寧才禪師](#)
 - [南陽維摩懷禪師](#)
 - [雒陽天慶能禪師](#)
 - [韶陽雲門敦禪師](#)
 - [陝州安國仁禪師](#)
 - [大都天寧壽禪師](#)
 - [遼州定禪師](#)
 - [解州沿禪師](#)
 - [曜州顯禪師](#)
 - [金陵靈谷潔菴正映禪師](#)
 - [陝州熊耳松溪子定禪師](#)
 - [舜都宗禪師](#)
 - [空杏偉禪師](#)
 - [廣平實禪師](#)

- 六祖下二十九世
 - 臨濟宗
 - 杭州東明寶峯智瑄禪師
 - 廬山雲溪碧峯智瑛禪師
 - 邵武君峯清祥上座
 - 杭州徑山天才英禪師
 - 金陵碧峯天通顯禪師
 - 杭州天目寶芳進禪師
 - 荊州圓通夢菴懶牧湛覺禪師
 - 曹洞宗
 - 西京少室凝然了改禪師
- 六祖下三十世
 - 臨濟宗
 - 竟陵荊門天琦本瑞禪師
 - 匡山天池林隱淨菴智素禪師
 - 嘉興東塔野翁曉禪師
 - 嘉興天寧法舟道濟禪師
 - 湖州天池月泉玉芝法聚禪師
 - 建寧雙峰古音淨琴禪師
 - 杭州徑山萬松慧林禪師
 - 曹洞宗
 - 西京嵩山萬壽俱空契斌禪師
- 六祖下三十一世
 - 臨濟宗
 - 隋州龍泉無聞絕學正聰禪師
 - 沔州古巖濟禪師
 - 伏牛際庵大休實禪師
 - 襄陽大覺圓禪師
 - 嘉興無趣如空禪師
 - 隋州七尖大休宗隆禪師
 - 嘉興胥山雲谷法會禪師
 - 嘉興精嚴東谿方澤禪師
 - 浮峰普恩上座
 - 建寧斗峰天直道覺禪師
 - 曹洞宗
 - 西京定國無方可從禪師
- 六祖下三十二世
 - 臨濟宗

- [北京柳巷月心笑巖德寶禪師](#)
- [臺山龍樹寶應禪師](#)
- [臺山梵峰和尚](#)
- [玉堂和尚](#)
- [蘇州車溪無幻古湛性冲禪師](#)
- [嘉興祇園古卓性虔禪師](#)
- [曹洞宗](#)
 - [嵩山萬壽月舟文載禪師](#)
- [六祖下三十三世](#)
 - [臨濟宗](#)
 - [宜興龍池幻有正傳禪師](#)
 - [南陽靈谷曇芝禪師](#)
 - [五臺瑞峰三際廣通禪師](#)
 - [鳳陽正宗悟上座](#)
 - [京兆高菴傑上座](#)
 - [天台天常經上座](#)
 - [武林素菴智上座](#)
 - [嘉興天寧幻也佛慧禪師](#)
 - [嘉興南明慧廣禪師](#)
 - [曹洞宗](#)
 - [北京宗鏡小山宗書禪師](#)
 - [順德內丘金山德寶禪師](#)
- [六祖下三十四世](#)
 - [臨濟宗](#)
 - [寧波天童密雲圓悟禪師](#)
 - [常州磬山天隱圓修禪師](#)
 - [杭州徑山語風雪嶠圓信禪師](#)
 - [湖州淨名抱朴大蓮禪師](#)
 - [曹洞宗](#)
 - [西京萬壽幻休常潤禪師](#)
 - [建昌廬山蘊空常忠禪師](#)
 - [魏博大伾隱庵如進禪師](#)
 - [龍岡大方如遷禪師](#)
 - [鄴下古風通玄禪師](#)
 - [順德鵲山天然圓佐禪師](#)
- [六祖下三十五世](#)
 - [臨濟宗](#)
 - [潭州瀋山五峰如學禪師](#)

- [蘇州三峰漢月法藏禪師](#)
- [四川夔州破山海明禪師](#)
- [寧波天童費隱通容禪師](#)
- [嘉興金粟石車通乘禪師](#)
- [贛州寶華朝宗通忍禪師](#)
- [宜興龍池萬如通微禪師](#)
- [寧波天童山翁木陳道忞禪師](#)
- [寧波雪竇石奇通雲禪師](#)
- [嘉興古南牧雲通門禪師](#)
- [蘇州滌村報恩浮石通賢禪師](#)
- [台州通玄林野通奇禪師](#)
- [京口夾山林皋本豫禪師](#)
- [杭州南澗理安箬庵通問禪師](#)
- [湖州報恩玉林通琇禪師](#)
- [南嶽綠蘿山苾通際禪師](#)
- [陽山松際印中通授禪師](#)
- [福建建寧雲峰衡石鈞禪師](#)
- [曹洞宗](#)
 - [北京大覺慈舟方念禪師](#)
 - [嵩山少室無言正道禪師](#)
 - [內丘智空了睿禪師](#)
 - [上堂宗教鰲谷妙銀禪師](#)
 - [象城淨業無疑直信禪師](#)
 - [南宮令干鍾英居士](#)
 - [建昌黃龍壽昌無明慧經禪師](#)
- [續指月錄尊宿集](#)
 - [尊宿機緣](#)
 - [饒州薦福承古禪師](#)
 - [嘉興聖壽宣翁可觀禪師](#)
 - [臨安靈隱普覺涓明禪師](#)
 - [和州淨戒守密禪師](#)
 - [青州佛覺禪師](#)
 - [圓通善國師](#)
 - [燕山慶壽玄悟玉禪師](#)
 - [黃山趙文孺居士](#)
 - [高郵定禪師](#)
 - [瀋山太初禪師](#)
 - [中觀沼禪師](#)

- [雪峰樵隱悟逸禪師](#)
- [五臺鐵勒院子範慧洪大師](#)
- [建寧獎山慧空元模禪師](#)
- [鄭州普照佛光道悟禪師](#)
- [鴈山羅漢寺證首座](#)
- [溫州靈雲省菴思禪師](#)
- [文獻公黃潛居士](#)
- [塊北和尚](#)
- [奉化雪竇常藏主](#)
- [台州黃巖濠頭丁安人](#)
- [慶元育王勛侍者](#)
- [鑪工張德道者](#)
- [永福靈江浩首座](#)
- [天歷老素首座](#)
- [淨慈元菴會藏主](#)
- [杭州天目一山魁菴主](#)
- [溫州壽昌紹照輝禪師](#)
- [明州育王虔菴實首座](#)
- [明州天童幻菴住首座](#)
- [明州天童默中唯西堂](#)
- [佛隴官興可上座](#)
- [瑞州九峯壽首座](#)
- [天台雲峯無盡祖燈禪師](#)
- [徑山傑峯英禪師](#)
- [徑山敬菴莊禪師](#)
- [淮南祐上座](#)
- [佛妙禪師](#)
- [杭州仙林雪庭禪師](#)
- [吉州武功山白雲明星禪師](#)
- [杭州徑山月林鏡禪師](#)
- [金陵永寧古淵清禪師](#)
- [伏牛無礙明理禪師](#)
- [杭州雲棲蓮池祿宏禪師](#)
- [徑山紫柏達觀直可禪師](#)
- [瑞州黃檗無念深有禪師](#)
- [夔州白馬儀峰方彖禪師](#)
- [廬信鵝湖養庵心禪師](#)
- [杭州直寂聞谷廣印禪師](#)

- [海虞破山洞聞法乘禪師](#)
- [達澄受昭禪師](#)
- [江陰黃毓祺介子居士](#)
- [明州白雲延祥鹿門西師太](#)
- [青林如鑑老宿](#)
- [優曇頤和尚](#)
- [太史蔣超虎臣居士](#)
- [寧波天井天壽鏡宗新禪師](#)
- [明州天井秀峰敢禪師](#)
- [金陵紫竹林卉堂旋煥禪師](#)
- [江南興化蘆渡大威權禪師](#)
- [古徐州龍山容止量禪師](#)
- [卷目次](#)
 - [1a](#)
 - [1b](#)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贊助資訊](#)

編輯說明

- 本電子書以「CBETA 電子佛典集成 Version 2023.Q4」為資料來源。
- 漢字呈現以 Unicode 3.0 為基礎，不在此範圍的字則採用組字式表達。
- 梵文悉曇字及蘭札字均採用羅馬轉寫字，如無轉寫字則提供字型圖檔。
- CBETA 對底本所做的修訂用字以紅色字元表示。
- 若有發現任何問題，歡迎來函 service@cbeta.org 回報。
- 版權所有，歡迎自由流通，但禁止營利使用。

No. 1579-A 序

天下有可以言傳者。有不可以言傳者。有可以言傳而究不可以言傳者。其可以言傳者。理之顯焉者也。人得而指焉者也。其不可以言傳者。理之微焉者也。人莫得而指焉者也。其可以言傳而究不可以言傳者。其理至顯至微。若近而遠。若淺而深。將指以為有。不知於何而見以為有。將指以為無。不知於何而見以為無。嗟乎。難言之矣。余少涉獵經史。竊慨夫聖賢之言。洋洋灑灑。炳炳麟麟。若日月之麗天。江河之行地。何人不可見。亦何人不可指也。至其微言妙義。心解神會。則多在語言文字之外。嗟乎。是又烏可得而指耶。至於竺氏之言。余固未嘗涉其津涘。顧安所識其隻言片句。遂足以照耀今古哉。苟舍吾儒精實之理。而浸淫於彼虛無寂滅之宗。是猶舍康莊。而騁足於羊腸九折之坂也。不_已僻乎。吳門聶子樂讀者。研窮經史。復沈酣於宗門家言。繼瞿公幻寄指月錄。緝宋南渡後上下五百餘年宗乘微言。鉤索源流。詳核世派。彙為一書。名續指月。噫嘻。聶子之志可為勤矣。七八年前。聶子郵是編示予曰。佛祖慧命。不絕如綫。二派五宗。法輪所寄。願吾子為我了此弘願。余初不暇省。然竊笑所好之僻而志之勤也。去春來邗。吳蘭次先生介而造余曰。吾得夢徵。此書必待子而成。得毋非夙因乎。余矍然起曰。有是哉。子之好誠僻矣。余何敢辭。復有鍾山劉覺岸先生。秦郵孫孝則先生。參互考訂。於是廣募檀施。鳩工庀梓。亟為刊布。第吾聞竺氏之學。以一絲不掛為上乘。萬慮皆空為絕德。不立文字。不下注脚。如指月之後。話月聽月。皆以月為喻。嗟乎。其可以言傳耶。其不可以言傳耶。其可以言傳而究不可以言傳耶。余皆不可得而指也。後之覽者。倘即以余之所以笑聶子者還以笑余也。抑又何辭。

康熙十九年正月上元日古歙弟江湘拜題於廣陵之文選樓。

No. 1579-B 續指月錄序

魏公子無忌矯竊兵符。椎殺晉鄙。奪其兵救趙。李光弼為大將。御史崔眾犯軍法。勒兵欲斬之。適中丞之命至。光弼曰。為御史則斬御史。為中丞則斬中丞。竟斬之。而後以聞。有如此膽力。方可以辨綱宗之絕續也。韓信在漢。為治粟都尉。道亡。蕭何追之。言之。漢王。拜為大將。一軍皆驚。韓琦駐延安。有_刺客入帳行_刺。琦起坐。問曰。誰遣汝來攜吾首去。有如此識度。方可定綱宗之品位也。苻堅率兵百萬次於淮肥。謝玄入請。謝安了無懼容。曰。_已

別有旨。及玄破堅。安亦無喜色。曰。小兒輩遂已破賊。澶淵之役。寇準勸真宗渡河。真宗使人覘準何為。方閉門縱僮僕飲博歌呼。契丹懼而請盟。有如此襟器。方可分綱宗之語句也。嗚呼。豈不難哉。近世魔外盛行。宗風衰落。盲棒瞎喝。予聖自雄。究其所學。下者目不識丁。高者不過攜指月錄一部而已。以此誑人。實以自誑。以此欺人。實以自欺。惟誑與欺。不可以為人。而可以學道乎。不可以學道。而可以踞法王座。秉金剛劍。稱西來之嫡子。提如來之正印乎。故吾嘗以謂習儒者。不讀四庫七略之書。不覩經史典籍之大全。止以通鑑集要史斷史鈔為博古。遂自命曰通儒。猶之習禪者。不讀一大藏契經。不覩經論撰述之大全。止以指月錄一部為談柄。遂自命曰善知識。皆自誑自欺者也。故使從上綱宗源遠流長如水歸壑者。固瞿子之功。使盲棒瞎喝一知半解如螢竊火者。亦瞿子之過也。或者曰。然則聶子之續是錄也。功乎過乎。余應之曰。若聶子則有功而無過者也。何以言之。前錄迄南宋隆興而止。隆興以後。三十八世之宗派。上下五百年之慧燈。茫然無所知也。若無續錄以續佛慧命。則絕續不辨。品位不定。語句不分。習禪之人。如瞽無相。安能如猓國狼臙。閨中嗅金哉。故曰聶子有功而無過。且聶子竭三十年血力。手胼足胝而為此書。筆路藍縷以啟山林。范金鑄鼎而禦魑魅。如鵝王擇乳無有遺餘。如波斯識寶無有漏失。本隱以之顯。事半而功倍。吾故曰聶子有功而無過也。或又曰。聶子儒者也。而強與宗門之事。豈得為無過歟。余應之曰。是則聶子之過也。夫聶子固儒者也。乃不辭呵斥。不顧詬厲。犯眾怒。嬰大難。手胼足胝而為此書。譬程嬰公孫杵臼之立孤。南霽雲雷萬春之捍賊。但欲使隆興以後。三十八世之宗派。上下五百年之慧燈。瞭然明白。即遭明眼之呵斥。諸方之詬厲。亦怡然受之矣。況瞿子亦以為叔夜之鍛。遙集之屐。婆娑跌宕於鑪鞴火蠟之間。而自嗤其僻。聶子亦猶是耳。使是錄也。廣布叢林。流行法界。不識有如盤山所云心月孤懸光吞萬象者乎。古今人同不同未可知也。嗚呼。豈不難哉。

廣霞居士莆陽余懷撰於吳門之研山草堂。

No. 1579-C 募刻續指月錄弁語

松陽老人東吳哲。斑毫譜出禪家牒。一花五葉自分明。如月得指指見月。近今復有三耳生。賦詩銘物多能聲。續成此錄在患難。猿檻雞籠渾不驚。我於禪宗兩不曉。展讀是書嘗了了。百川同自岷江來。泰華還借兒孫繞。側聞曹濟分兩宗。東西聚議還相攻。那知今人有頓漸。總在拈花一笑中。爰以此編告同志。大法流傳卅(音輟)

八世。蜜分眾口不殊甘。穗結千畦均有利。願君同發歡喜心。琬琰
[鐫-儿]成益共深。不然請從閤中視。光生筆畫皆黃金。

如是居士 吳綺園次氏 拜書。

No. 1579-D

世間無上法。以佛為總持。四十九年中。所在建道場。垂衍祕密
諦。不獨顯文字。逮於東土祖。一葦渡海水。燈花燦五葉。分照諸
方所。心心妙相印。歷劫無遺漏。公案千八百。彈指悉真義。有不
見月者。虞山揭其旨。繼席正徧知。瀾淪四天下。迄今卅七世。孰
為輯其成。吳門聶居士。親承大法寶。以我性慧根。應現光明藏。
證明藉尊宿。徧參具眼人。考究不厭詳。鏤刻不厭工。功用詎易
集。廣及眾信善。善哉轉輪王。匪伊異人任。六種成就益。允資大
檀越。布在須黃金。雨花徵妙相。我實聞此語。天龍應聲諾。普願
諸大德。同發歡喜心。

靈巖學人 范國祿汝受 拜撰。

No. 1579-E 緣起

古人著一書。動關千古事。雖復歷艱虞。願力依然摯。所以成不
朽。述作垂千祀。今人能法古。乃可云無媿。禪源列五宗。縣亘歷
年紀。宗宗傳不窮。紛紛各樹幟。譬之曾玄孫。競言祖禰是。誰為
溯源流。俾勿相爭碁。吾鄉瞿先生。指月標世次。以彼居士心。作
為平等視。傳紀如列眉。衣拂明次第。西來祖庭燈。庶幾勿墜地。
宋元以後禪。續本罔與繼。懸阻痛中斷。聶子發長噫。慨然續茲
錄。旁搜奮勞勩。敘述闡微言。提唱宏宗旨。丁巳王正旦。纂集伊
維始。揮毫龍象臨。振筆獅猊萃。閱夏復經秋。刪輯罔知瘁。前追
隆杲禪。三十八代止。窮流并溯源。參訂靡有遺。靈巖昔曾言。茲
書有緣起。前編雙日生。(調瞿幻寄)後編三耳子。(調聶樂讀)耳目詮禪
源。人天共歡喜。豈期書未成。罡風生怖悸。聶子謂無傷。夙殃罔
與致。能以智慧力。含忍且謹毖。倉惶力疾書。亟求遂初志。嚙雪
復呵冰。哀稽忘寢食。園中放光明。花雨繽紛墜。事釋寧廣陵。觀
濤恣遊戲。流通賴明公。散金闡祕義。如以薪傳火。如以燈傳燧。
火窮薪不窮。燈傳燧傳矣。如以指見月。見月不見指。於指能得
月。見月即見指。我本塵鞅人。望道猶未至。大哉聶子書。研精復
覃思。千秋有定評。茲因庶無昧。

虞山海印學人 陳見龍 拜題。

No. 1579-F 孫孝則先生書問

昨於西關佇覓僊舟。竟不可得。悵然久之。正擬來朝發廣陵棹。奉晤台從於旌忠。乃接翰教欣然信未我遠也。即戒輿人。造請大教。盛使又謂烏覺他適。不獲相見。不得不却讀示編。知老道翁為佛祖慧命。不惜眉毛。良可讚歎。敢以管見上佐高明者。近日衲子家頗多漏見。牙齒又復尖利。吾輩必應使之帖然俛首。乃圖天下太平。如洞山近裔掀翻世派。其持論未嘗不堅。而濟上家各抱不平。多有向弟嘵嘵者。惟以蒼天蒼天一語答之。竊見大編詳於世裔。政可上接傳燈。而編名指月。顧名思義。指月重在法要。不在源流。倘以世裔為主。則須鑿然闢之。方塞其口。否則資之談柄。道我輩於指月二字。顛預了也。若據法要。其間詳略異同。首正尾正。止須竿頭商酌矣。及此棗梨初試。或仍傳燈之名可乎。惟高明喝正之。弟雖同諸方草草往來。初無所見。若謂脚根隨人。久無此心。或以點綴行墨。斷不敢落在誰家。蔣虎老不知於諸方亦有所向否。惟與弟晨夕間語。略見梗概。容書出另請法誨可也。文選樓良晤不遠。不盡欲言。弟宗彝頓首。

(近閱浙中諸刻。掀翻世次。自相互異。識者悲之。孝則先生乃當代法門尊宿。來書諄諄以傳燈世次為重。甚合樂讀著錄苦心。文字禪永為法護。諒佛祖龍天必同聲讚助云 濟陽江湘識)。

續指月錄總目

那羅延窟學人聶 先樂讀 編集

濟陽橙僊居士江 湘郢上 參訂

鍾山劉思敬覺岸授稿

珠湖孫宗彝孝則論定

序
弁語
總目
凡例
倫敘考
卷之首

六祖下十六世(瞿錄補遺集)

臨濟宗

平江虎丘元淨禪師 潭州福嚴文演禪師
衢州天寧梵思禪師 福州玄沙僧昭禪師
紹興東山覺禪師 岳州佛炤覺禪師
平江寶華顯禪師 台州天封覺禪師
成都正法建禪師 台州鴻福子文禪師
南康雲居宗振首座 祖氏覺庵道人
令人明室道人(已上十三人昭覺勤嗣)
台州瑞巖佛燈禪師(淨因成嗣)
韶州南華知曷禪師 慶元蓬萊卿禪師
隆興泐潭擇明禪師 台州寶藏本禪師
吉州大中清海禪師 漳州淨眾了燦禪師
隆興谷山海禪師(已上七人太平懃嗣)
撫州白楊法順禪師
溫州淨居尼溫禪師(已上二人龍門遠嗣)
潭州大溈善果禪師(開福寧嗣)
潼川護聖居靜禪師 簡州南巖勝禪師
嘉州能仁紹悟禪師 彭州土溪言庵主
劍門南修道者(已上五人大隨靜嗣)
蘄州龍華高禪師(五祖自嗣)
饒州薦福擇崇禪師(黃龍逢嗣)
文定公胡草庵居士(上封秀嗣)
福州普賢元素禪師 福州鼓山僧洵禪師
福州鼓山祖珍禪師(已上三人上封才嗣)
慶元育王介謚禪師 安吉道場慧琳禪師
安吉道場居慧禪師 臨安顯寧圓智禪師
安吉烏回良範禪師
溫州本寂文觀禪師(已上六人天寧卓嗣)
常德德山慧初禪師(黃龍震嗣)
廬山延慶叔禪師(祖庵主嗣) 漣水萬壽普信禪師
平江慧日興道禪師
廣德光孝懃禪師(已上三人勝因靜嗣)
福州雪峰慧忠禪師(雪峰需嗣)
慶元蓬萊圓禪師(天童交嗣) 江州圓通守慧禪師
洪州黃龍觀禪師(已上二人圓通旻嗣)
揚州石塔禮禪師(明招慧嗣) 峨嵋靈巖徽禪師(浮山真嗣)
湖南報慈淳禪師(祥符立嗣) 成都金繩文禪師(信相顯嗣)

曹洞宗

常州華藏慧祚禪師(淨慈暉嗣)

明州雪竇智鑒禪師(天童珙嗣)

泰州廣福道勤禪師(雪竇宗嗣)

越州超化藻禪師(善權智嗣)

雲門宗

密州[山*耆]山寧禪師(雪竇明嗣) 臨安五雲悟禪師(淨慈昌嗣)

臨安中竺元妙禪師(靈隱光嗣)

撫州靈巖圓日禪師(圓覺曇嗣)

荊門玉泉思達禪師(嶽麓海嗣)

卷之一

六祖下十七世

臨濟宗

慶元天童曇華禪師(虎丘隆嗣)

泉州教忠彌光禪師 福州西禪鼎需禪師

福州東禪思嶽禪師 福州西禪守淨禪師

江州東林道顏禪師 慶元育王德光禪師

常州華藏宗演禪師 慶元天童淨全禪師

建寧開善道謙禪師 溫州枯木祖元禪師

臨安徑山了明禪師 潭州大為法寶禪師

福州玉泉曇懿禪師 饒州薦福悟本禪師

慶元育王遵璞禪師 真州靈巖了性禪師

劍州萬壽自護禪師 潭州大為景暈禪師

臨安靈隱了演禪師 泰州光孝致遠禪師

建康蔣山善直禪師 福州雪峰蘊聞禪師

處州連雲道能禪師 臨安靈隱道印禪師

建寧竹原宗元庵主 近禮侍者

溫州淨居尼道禪師 平江資壽尼總禪師

侍郎張九成居士 參政李邴居士

寶學劉彥修居士 提刑吳偉明居士

門司黃彥節居士

秦國夫人計氏(已上三十四人大慧杲嗣)

福州清涼坦禪師 臨安淨慈師一禪師

安吉道場法全禪師 泉州延福慧升禪師

福州支提升禪師(已上五人育王裕祠)

鎮江焦山師體禪師 台州國清行機禪師

常州華藏智深禪師

參政錢端禮居士(已上四人護國元嗣)

慶元全庵齊己禪師 臨安靈隱道濟禪師
撫州疏山如本禪師 日本覺阿上人
內翰曾開居士
知府葛郊居士(已上六人靈隱遠嗣)
臨安徑山寶印禪師(華藏民嗣)
浩州鳳棲慧觀禪師(昭覺元嗣)
潭州楚安慧方禪師
常德文殊業禪師(已上二人文殊道嗣)
婺州雙林德用禪師 台州萬年道閑禪師
福州中際善能禪師
南康雲居圓禪師(已上四人雲居悟嗣)
成都信相戒修禪師
袁州普庵肅禪師(已上二人黃龍忠嗣)
隨州大洪祖證禪師 潭州大溈行禪師
荊門玉泉宗璉禪師 潭州道林淵禪師
隆興泐潭德漚禪師 常州宜興可封禪師
隆興野庵祖璿禪師
潭州石霜鑒禪師(已上八人大溈果嗣)
南康雲居德會禪師(石頭回嗣)
潭州慧通清旦禪師 澧州靈巖仲安禪師
成都正法灝禪師
成都昭覺辯禪師(已上四人佛性泰嗣)
平江覺報清禪師
安吉何山然首座(已上二人道場辨嗣)
義烏稠岩了贊禪師
侍制潘良貴居士(已上二人何山珣嗣)
漢州無為守緣禪師(泐潭明嗣)
南康雲居德昇禪師
通州狼山溫禪師(已上二人竹庵珪嗣)
青州青原如禪師(白楊順嗣) 太平隱靜彥岑禪師
鄂州報恩成禪師(已上二人雲居如嗣)
遂寧西禪希秀禪師(西禪璉嗣)
饒州薦福休禪師 信州晦庵慧光禪師
真州且庵守仁禪師(已上三人烏巨行嗣)
淨居尼法燈禪師(淨居溫嗣) 台州萬年曇贲禪師
南劍西巖宗回禪師 慶元天童了朴禪師
臨安龍華本禪師 高麗坦然國師
臨安東山吉禪師(已上六人育王諶嗣)

臨安靈隱道樞禪師(道場慧嗣)
悟初首座(光孝愍嗣)
曹洞宗
慶元天童如淨禪師(雪竇鑒嗣)
東谷光禪師(華藏祚嗣)
雲門宗
溫州光孝深禪師(中竺妙嗣)
卷之二
六祖下十八世
臨濟宗
天童密庵咸傑禪師 衢州光孝善登禪師
南書記 侍郎李浩居士
教授嚴康朝居士(已上五人天童華嗣)
泉州法石慧空禪師 臨安淨慈曇密禪師
吉安青原禪禪師(已上三人教忠光嗣)
荊州公安祖珠禪師 汀州報恩法演禪師
臨安淨慈彥充禪師 婺州智者真慈禪師
成都昭覺紹淵禪師 徽州簡上座(已上六人東林顏嗣)
福州鼓山安永禪師 溫州龍翔南雅禪師
福州天王志清禪師
南劍安分庵主(已上四人西禪需嗣)
臨安靈隱之善禪師 臨安淨慈義雲禪師
臨安北磻居簡禪師 臨安徑山如琰禪師
福州東禪智觀禪師 湖州上方義銛禪師
臨安鐵牛印禪師 慶元育王宗印禪師
慶元育王師瑞禪師 慶元天童了派禪師
慶元天童師齊禪師 江州雲居梵琮禪師
慶元孤雲權禪師
石庵正杲禪師(已上十四人育王光嗣)
福州鼓山宗逮禪師 臨安徑山德灝禪師
福州石庵知珫禪師(已上三人東禪嶽嗣)
慶元育王妙堪禪師 臨安靈隱希夷禪師
幽州盤山思卓禪師 慶元雪竇處南禪師
福州雪峰了宗禪師
相國錢象祖居士(已上六人天童全嗣)
福州乾元宗穎禪師 興化華嚴雲禪師
福州中濟才禪師(已上三人西禪淨嗣)
湖州何山慧清禪師(華藏演嗣)

仙州山吳十三道人(開善謙嗣)
如如居士顏丙(雪峯然嗣)
慶元育王從廓禪師(育王璞嗣)
慶元天童達觀禪師
仰山簡庵清禪師(已上二人淨慈一嗣)
常州華藏有權禪師(道場全嗣)
天童癡鈍智穎禪師(焦山體嗣)
鎮江金山道奇禪師(徑山印嗣)
婺州三峰印禪師(雙林用嗣)
慶元徑山元聰禪師(龜峯光嗣)
平江萬壽月林禪師(大洪證嗣)
常德德山子涓禪師(大滄行嗣)
萬松壤衲大璉禪師(雲居會嗣)
溫州龍鳴賢禪師 潭州大滄鑑禪師
慶元瑞巖景蒙禪師
慶元雪庵瑾禪師(已上四人萬年賁嗣)

曹洞宗

襄州鹿門覺禪師(天童淨嗣)

卷之三

六祖下十九世

臨濟宗

夔州臥龍祖先禪師 靈隱松源崇嶽禪師
饒州薦福道生禪師 天童枯禪白鏡禪師
臨安淨慈慧光禪師 太平隨靜致柔禪師
靈隱笑庵了悟禪師 金陵蔣山慶如禪師
平江承天允韶禪師
學士張鉉居士(已上十人天童傑嗣)
吉安青原宗廣禪師(青原裡嗣)
淨慈晦翁悟明禪師(鼓山永嗣)
徑山藏叟善珍禪師 淨慈東叟仲穎禪師
吉安龍濟宗鋆禪師(已上三人靈隱善嗣)
育王物初大觀禪師(北磻簡嗣)
淨慈偃溪廣聞禪師 靈隱大川普濟禪師
徑山淮海源肇禪師 婺州雙林石朋禪師
天童弁山阡禪師 平江虎丘曇禪師
龍溪文禪師 平江虎丘道源禪師
慶元大慈慧洪禪師
慶元壽國清禪師(已上十人徑山琰嗣)

湖州道場法舟禪師 無極觀禪師(已上二人育王印嗣)
慶元瑞巖崇壽禪師(育王瑞嗣)
慶元無鏡徹禪師 鰲峰定禪師(已上二人天童派嗣)
饒州薦福燦禪師(育王堪嗣) 福州雪峰信禪師(何山清嗣)
平江虎丘善濟禪師 越州天衣文蔚禪師
柏岩凝禪師
華藏純庵善淨禪師(已上四人天童觀嗣)
徑山荊叟如珏禪師
福州雪峰德因禪師(已上二人天童穎嗣)
靈隱高原祖泉禪師(金山奇嗣)
隆興齊龍慧開禪師 興化囊山德秀禪師
潭州石霜妙印禪師(已上三人萬壽觀嗣)
鼓山檜堂祖鑒禪師(乾元穎嗣)
徽州黃山正因禪師(育王廓嗣)
曹洞宗
青州普炤一辯禪師(鹿門覺嗣)
天童雲外岫禪師(直翁舉嗣舉嗣東谷光)
卷之四
六祖下二十世
臨濟宗
徑山無準師範禪師 江州雲居慈覺禪師
寧波大慈道儔禪師
靈隱石田薰禪師(已上四人臥龍先嗣)
天童滅翁文禮禪師 溫州江心希璉禪師
台州佛日巖禪師 華藏無礙覺通禪師
淨慈谷源道禪師 湖州道場悟心禪師
寧波雪竇仲謙禪師 諾庵肇禪師
湖州道場普巖禪師 蘇州虎丘曇禪師
台州瑞巖光睦禪師 鎮江金山善開禪師
雪竇無相範禪師
祕監陸游居士(已上十四人靈隱嶽嗣)
徑山癡絕道冲禪師(薦福生嗣)
淨慈清溪沅禪師 荊州公安錫禪師
福州西禪圓禪師 育王寂窗有照禪師
泉州法石元智禪師 報恩太古先禪師
岳翁淳禪師(已上七人天童鏡嗣) 平江虎丘元禪師(隱靜柔嗣)
徑山元叟行端禪師(徑山珍嗣)
溫州江心了萬禪師 奉化栴堂益禪師

婺州雙林閒禪師(已上三人淨慧穎嗣)
枯木榮禪師(無方安嗣)
徑山佛智元熙禪師(育王觀嗣)
徑山雲峰妙高禪師 湖州何山至明禪師
天童止翁鑒禪師(已上三人淨慈聞嗣)
天童石門來禪師
寧波雪竇同禪師(已上二人大川濟嗣)
靈隱悅堂祖閭禪師(雙林朋嗣)
廬山圓通逸禪師(弁山阡嗣) 岳州灌溪昌禪師(無鏡徹嗣)
福寧支提澄鑑禪師(薦福燦嗣)
大慶尼智悟禪師(雪峯信嗣) 天童西江謀禪師
福州雪峰玉禪師(已上二人華藏淨嗣)
杭州中竺有禪師
臨安淨慈慶禪師(已上二人徑山珏嗣)
婺州寶林無機和尚(靈隱泉嗣)
溫州瞎驢無見禪師 臨安無傳祖禪師
杭州護國宗禪師 放牛余居士(已上四人黃龍開嗣)
福州皖山正凝禪師
婺州雙林介禪師(已上二人孤峯秀嗣)
葛廬覃禪師(容庵海嗣)
曹洞宗
磁州大明寶禪師 慈雲十身覺禪師
玉溪通玄圓通禪師
鄭州普炤寶禪師(已上四人普炤辯嗣)
明州雪竇大證禪師(天童岫嗣)
卷之五
六祖下二十一世
臨濟宗
袁州仰山祖欽禪師 淨慈斷橋妙倫禪師
台州國清源禪師 天童別山祖智禪師
福州雪峰一禪師 天童月坡明禪師
廬山東林直禪師 雪竇希叟紹曇禪師
靈隱退耕寧禪師 福州雪峰可湘禪師
天童西巖了慧禪師
越州光孝輝禪師(已上十二人徑山範嗣)
杭州淨慈慧禪師
杭州中竺珂禪師(已上二人靈隱董嗣)
育王橫川如珙禪師 淨慈石林行鞏禪師

嘉興天寧衍禪師
平江虎丘靖禪師(已上四人天童禮嗣)
平江萬壽辯禪師
平江虎丘義禪師(已上二人雲巢岩嗣)
徑山虔舟普度禪師(華藏通嗣)
平山萬壽嶽禪師(淨慈道嗣) 平江承天夢真禪師
霍山昭禪師 慧巖象潭泳禪師
一關溥禪師
台州國清澤禪師(已上五人雪竇謙嗣)
徑山智愚禪師
天童石帆衍禪師(已上二人道場巖嗣)
杭州徑山心月禪師(金山開嗣)
福州神光隆禪師 高臺此山應禪師
天童簡翁敬禪師(已上三人徑山冲嗣)
湖州道場介清禪師(育王照嗣) 靈隱性原慧朗禪師
嘉興楚石梵琦禪師 徑山愚庵智及禪師
杭州天鏡元淨禪師 蘇州萬壽至仁禪師
寧波夢堂曇噩禪師 徑山復原福報禪師
徑山古鼎祖銘禪師 杭州靈隱法林禪師
天寧歸庵祖闡禪師 蘇州開元善如禪師
杭州上竺本無法師
蘇州萬壽智淳禪師(已上十三人徑山端嗣)
報恩無方智普禪師
南康雲居師大禪師(已上二人江心萬嗣)
金陵龍翔大訢禪師 嘉興祥符念常禪師
寧波雪竇祖瑛禪師 杭州中竺正達禪師
寧波佛巖天倫禪師
越州天衣子清禪師(已上六人徑山熙嗣)
杭州中竺自如禪師 江州東林喆禪師
明州天童奇禪師 徑山本源善達禪師
龍巖真首座(已上五人徑山高嗣) 恭都寺(何山明嗣)
明州雪竇汝霖禪師(天童鑑嗣) 湖州道場思珉禪師
徑山月江宗淨禪師
江州東林宗廓禪師(已上三人靈隱閒嗣)
石門元翁信禪師(中竺有嗣) 呂鐵般居士(風旛中嗣)
金芝嶺鐵[此/束]庵念主(華藏見嗣)
松江澱山德異禪師(皖山凝嗣) 舒州太湖寬禪師(金牛真嗣)
無為天寧教禪師(真翁圓嗣) 北京慶壽簡禪師(慶壽璋嗣)

曹洞宗

太原王山體禪師 仁山恒禪師(已上二人大明寶嗣)

燕京慶壽教亨禪師(普照寶嗣)

卷之六

六祖下二十二世

臨濟宗

杭州高峰原妙禪師 徑山虛谷希陵禪師

衡州鐵牛持定禪師 哀州鐵山瓊禪師

建昌牧潛圓至禪師(已上五人仰山欽嗣)

竹屋簡禪師 絕象鑒禪師

台州方山寶禪師 永宗本禪師(已上四人斷橋倫師)

蔣山忠禪師(無學元嗣) 崑山薦嚴妙道禪師

金陵古林清茂禪師

越州天衣覺恩禪師(已上三人育王珙師)

杭州靈隱德海禪師 嘉興天寧景曇禪師

蘇州虎丘永禪師(已上三人淨慈鞏嗣)

杭州徑山淨伏禪師

天童竹西坦禪師(已上二人徑山度嗣)

越州寶葉源禪師

蘇州虎丘雲禪師(已上二人徑山愚嗣)

南叟茂禪師(徑山月嗣)

育王東生德明禪師(育王彌嗣) 靈隱空叟忻悟禪師

少師斯道衍禪師(已上二人徑山及嗣)

徑山南石文琇禪師(萬壽仁嗣) 嘉興天寧力金禪師

徑山象源仁淑禪師(已上二人徑山銘嗣)

金陵天界慧曇禪師 金陵天界宗泐禪師

杭州中竺廷俊禪師 杭州靈隱輔良禪師

廬山圓通裕禪師(已上五人龍翔訴嗣)

淨慈孤峰明德禪師(雪竇霖嗣)

福州天寶法樞禪師(天池信嗣)

孤舟濟禪師(蒙山異嗣)

宜興龍池永寧禪師(太湖寬嗣)

杭州妙果水盛禪師(無能教嗣)

曹洞宗

磁州大明滿禪師 勝默光禪師(已上二人王山體嗣)

磁州大明詮禪師(仁山恒嗣)

鄭州西溪弘相禪師(慶壽亨嗣)

卷之七

六祖下二十三世

臨濟宗

天目中峰明本禪師 杭州斷崖了義禪師
大覺布衲祖雍禪師
處州空中假禪師(已上四人天目妙嗣)
般若絕學世誠禪師(靈雲定嗣)
徑山竺遠正源禪師
婺州寶林紹大禪師(已上二人徑山陵嗣)
汝州香巖思聰禪師(鐵山瓊嗣)
湖州石屋清珙禪師 淨慈平山處林禪師
婺州石門至剛禪師(已上三人道場信嗣)
海門天真惟則禪師(匡廬源嗣)
台州華頂先覩禪師 明州松巖元湛禪師
杭州鳳山靈禪師(已上三人瑞巖寶嗣)
天童平石砥禪師(東巖日嗣)
日本夢窗智晞國師(高峰日嗣)
台州瑞巖無慍禪師 天童了堂一禪師
徑山大宗興禪師(已上三人薦巖道嗣)
蘇州靈巖清欲禪師 蘇州定慧大方禪師
瑞雲松隱茂禪師 溫州仙巖猷禪師
越州龍華海禪師(已上五人保寧茂嗣)
育王大千慧照禪師 杭州徑山顏禪師
育王雪窗悟光禪師 徑山月林鏡禪師
建寧斗峰正璋禪師
明因湛禪師(已上六人靈隱海嗣) 三空道人(天寧曇嗣)
金陵天界懷信禪師
天童舞田牧禪師(已上二人天童坦嗣)
金陵蔣山忠禪師(玉山珍嗣) 育王月江正印禪師
徑山南楚悅禪師(已上二人徑山伏嗣)
徑山月江宗淨禪師(雙林闇嗣)
金陵保寧覺慧禪師(西白金嗣)
淨慈佛鑑師頤禪師(竺曇敷嗣)
金陵靈谷淨戒禪師(天界曇嗣)
天童佛朗自性禪師(天界泐嗣)
靈隱無文本袞禪師(淨慈德嗣)
衢州烏石世愚禪師(止巖成嗣)
淨慈逆川智順禪師(天寶樞嗣)
五臺壁峰寶金禪師(縉雲真嗣)

曹洞宗

燕京報恩行秀禪師

竹林巨川海禪師(已上二人雪巖滿嗣)

卷之八

六祖下二十四世

臨濟宗

婺州千巖元長禪師 蘇州天如惟則禪師

日本古先原禪師(已上三人天目本嗣)

建寧古梅正友禪師(般若誠嗣)

杭州淨慈普仁禪師(智者義嗣) 杭州止庵德祥禪師

天界夷簡禪師(已上二人淨慈林嗣)

湖州弁山智安禪師(海門則嗣)

處州白雲智度禪師(華頂睹嗣)

天童元明原良禪師(壽昌源嗣)

徑山敬中普莊禪師(天童一嗣)

溫州江心慧恩禪師(天界信嗣)

慈谿見心來復禪師(徑山悅嗣)

慈谿無旨可授禪師(靈隱明嗣)

杭州普明成禪師

淨慈照庵靜禪師(已上二人祖芳聯嗣)

瑞安太初敬原禪師

金陵非幻永禪師(已上二人烏石愚嗣)

曹洞宗

西京雪庭福裕禪師 燕京報恩從倫禪師

吾捨從寬禪師 華嚴全一至溫禪師

丞相耶律楚材居士

屏山李純甫居士(已上六人報恩秀嗣)

順德弘明虔照禪師(仙巖德嗣)

卷之九

六祖下二十五世

臨濟宗

蘇州萬峰時蔚禪師 杭州天龍守貴禪師

華亭松隱德然禪師 婺州蘭室德馨禪師

婺州明叟昌庵主(已上五人千岩長嗣)

潤州慈舟濟禪師

一峰寧禪師(已上二人古梅友嗣)

杭州空谷景隆禪師(弁山安嗣) 金陵天界俊禪師(福林度嗣)

曹洞宗

西京少室文泰禪師 太原中林智泰禪師
泰安足庵肅禪師 和林北寺覺印禪師
成都昭覺仲慶禪師 安平守讓禪師
弁州太子久善禪師 京兆華嚴覺印禪師
鞏昌廣嚴法興禪師
順德妙乘禪師(已上十人少室裕嗣)
燕京月泉同新禪師(林泉倫嗣)
關中林禪師 十方進禪師
嵩山法王暉禪師 泰安靈巖復禪師
護國圓禪師 崇孝普禪師
淨土里禪師
汝州寶應海禪師(已上八人復庵照嗣)
天寧仲復子顏禪師
太保劉秉忠居士(已上二人天寧照嗣)

卷之十

六祖下二十六世

臨濟宗

蘇州寶藏持禪師 瑞州無念勝學禪師
杲林首座(已上三人萬峯蔚嗣)
建昌黃龍本來禪師(金山濟嗣) 東普無際明悟禪師
杭州虎跑皎禪師(已上二人天界俊嗣)
揚州素庵田居士(何密庵太守嗣)

曹洞宗

西京寶應福遇禪師
濟南秋江潔禪師(已上二人少室泰嗣)
西京寶應永達禪師
封龍古巖就禪師(已上二人足庵肅嗣)

卷十一

六祖下二十七世

臨濟宗

杭州東明慧岳禪師(寶藏持嗣)
建寧天界會中禪師(福田來嗣)
金陵大岡澄禪師 舒州幻叟紹琦禪師
雲南古庭堅禪師(已上三人無際悟嗣)
佛跡頤庵真禪師(田素庵居士嗣)
伏牛物外信禪師(月幻法嗣)

曹洞宗

鄧州香嚴文才禪師 熊耳空相珪禪師

嵩山龍潭深禪師 嵩山龍潭端禪師
洛陽天慶江禪師
嵩山永泰祥禪師(已上六人少室遇嗣)
盤山遇禪師 太原斌禪師(已上二人寶應達嗣)
天界雪軒道成禪師(秋江潔嗣) 西京息庵義讓禪師
泰山靈巖容禪師 晉寧心庵主
白茅春庵主(已上四人封龍就嗣)

卷十二

六祖下二十八世

臨濟宗

金陵海舟永慈禪師 東明海舟普慈禪師
冰心月江覺淨禪師(已上三人東明岳嗣)
邵武君峰慧通禪師(天界中嗣)
金陵高座覺澄禪師 襄陽大雲興禪師
涿州金山寶禪師 唐安湛淵齋禪師
石經海珠祖意禪師 長松大心真源禪師
松藩崇善智中禪師 石經豁堂祖裕禪師
三池月光常慧禪師 中溪隱山昌雲禪師
翠微悟空禪師
珪庵祖玠侍者(已上十二人投子琦嗣)
五臺顯通淨倫禪師(雲南堅嗣) 夷峰寧禪師
杭州毒峰本善禪師
五臺孤月澄禪師(已上三人月溪澄嗣)
鳳陽槎山文全禪師
崇福大慧華禪師(已上二人廣善澄嗣)
處州白雲滄禪師(頤庵真嗣)
明州用剛宗軟禪師(和庵忠嗣)
黔中正法雪光禪師(潔空通嗣) 性空和尚(雪峰瑞嗣)

曹洞宗

南陽松庭子嚴禪師 佛巖稔禪師
登封竹庵子忍禪師 登封華嚴遇禪師
陝州熊耳登禪師 古蔡元禪師(已上六人香嚴才嗣)
天寧才禪師 維摩懷禪師
天慶能禪師 韶陽雲門愍禪師
陝州安國仁禪師 大都天寧壽禪師
遼州定禪師 解州沿禪師
曜州顯禪師(已上九人空相珪嗣)
金陵靈谷正映禪師(靈谷謙嗣)

陝州熊耳定禪師 舜都宗禪師
空杏偉禪師 廣平實禪師(已上四人天慶讓嗣)

卷十三

六祖下二十九世

臨濟宗

東明寶峰智瑄禪師
廬山碧峰瑛禪師(已上二人海舟慈嗣)
邵武君峰清祥上座(君峰通嗣) 徑山天才英禪師(天寧宣嗣)
南京碧峰顯禪師(東方裕嗣) 杭州寶芳進禪師(夷峰寧嗣)
荊州圓通湛覺禪師(性空法嗣)

曹洞宗

嵩山萬壽了改禪師(松庭嚴嗣)

卷十四

六祖下三十世

臨濟宗

荊門天琦本瑞禪師(寶峯瑄嗣)
匡山天池智素禪師(碧峯英嗣) 嘉興東塔曉禪師(寶芳進嗣)
嘉興天寧道濟禪師(古庵祚嗣)
湖州天池法聚禪師(天通顯嗣)
建寧古音淨琴禪師(壽堂松嗣)
杭州徑山慧林禪師(金臺覺嗣)

曹洞宗

嵩山萬壽契斌禪師(萬壽改嗣)

卷十五

六祖下三十一世

臨濟宗

隨州龍泉正聰禪師 沔州古巖濟禪師
伏牛大休實禪師(已上三人天琦瑞嗣)
襄陽大覺圓禪師(天池素嗣)
嘉興無趣如空禪師(野翁曉嗣) 大休宗隆禪師(無盡海嗣)
嘉興雲谷法會禪師
嘉興東谿澤禪師(已上二人天寧濟嗣)
浮峰普恩上座(天池聚嗣) 建寧斗峰覺禪師(雙峯琴嗣)

曹洞宗

西京無方可從禪師(萬壽斌嗣)

卷十六

六祖下三十二世

臨濟宗

北京笑巖德寶禪師(無聞聰嗣)
五臺龍樹寶應禪師 五臺山楚峰和尚
玉堂和尚(已上三人大川洪嗣) 蘇州車溪性冲禪師
嘉興祇園虔禪師(已上二人無趣空嗣)

曹洞宗

嵩山月舟文載禪師(定國從嗣)

卷十七

六祖下三十三世

臨濟宗

龍池幻有正傳禪師 金陵靈谷曇芝禪師
五臺三際廣通禪師 鳳陽正宗悟上座
京兆高庵傑上座 天台天常經上座
武林素庵智上座
嘉興幻也慧禪師(已上八人笑巖寶嗣)
嘉興南明慧廣禪師(車溪冲嗣)

曹洞宗

北京小山宗書禪師
順德金山寶禪師(已上二人少室載嗣)

卷十八

六祖下三十四世

臨濟宗

天童密雲圓悟禪師 磬山天隱圓修禪師
雲門雪嶠圓信禪師
湖州淨名蓮禪師(已上四人幻有傳嗣)

曹洞宗

西山大千常潤禪師 建昌廩山常忠禪師
大伾隱庵如進禪師 龍岡大方遷禪師
鄴下古風通玄禪師
順德天然佐禪師(已上六人宗鏡書嗣)

卷十九

六祖下三十五世

臨濟宗

為山五峰如學禪師 三峰漢月法藏禪師
四川破山海明禪師 徑山費隱通容禪師
金粟石車通乘禪師 巖州寶華通忍禪師
龍池萬如通微禪師 平陽木陳道忞禪師
雪竇石奇通雲禪師 古南牧雲通門禪師
遯村浮石通賢禪師

通玄林壑奇禪師(已上十二人天童悟嗣)
夾山林臯通豫禪師 南澗箬庵通問禪師
天目玉林通琇禪師 南嶽山茨通際禪師
陽山印中授禪師(已上五人天隱修嗣)
建寧衡石鈞禪師(駕湖用嗣)

卷二十

六祖下三十五世

曹洞宗

大覺慈舟方念禪師 少室無言正道禪師
內丘智空了睿禪師 宗教鰲谷妙銀禪師
象城無疑真信禪師
南宮令于居士(已上六人幻休潤嗣)
壽昌無明慧經禪師(廩山忠嗣)

尊宿集

茲則統名尊宿。自宋迄今。續入六十一人。謂之應化。謂之未詳皆得。

饒州薦福承古禪師 嘉興宣翁可觀禪師
臨安普覺淳朋禪師 和州淨戒守密禪師
青州佛覺禪師 圓通善國師
燕山玄悟玉禪師 黃山趙文孺居士
高郵定禪師 瀋山太初禪師
中觀沼禪師 雪峰樵隱悟逸禪師
五臺子範慧洪大師 建寧獎山元模禪師
鄭州佛光道悟禪師 鴈山證首座
溫州省庵思禪師 文獻公黃潛居士
塊北和尚 奉化雪竇常藏王
台州黃巖丁安人 慶元育王勉侍者
鑛工張德道者 永福靈江浩首座
老素首座 淨慈元庵會藏主
天目一山魁庵主 溫州壽昌輝禪師
育王虐庵實首座 天童幻庵住首座
天童默中唯西堂 佛隴宜興可上座
瑞州九峰壽首座 天台無盡祖燈禪師
徑山傑峰英禪師 徑山敬庵莊禪師
淮南祐上座 佛妙禪師
杭州仙林雪庭禪師 吉州白雲明星禪師
徑山月林鏡禪師 金陵古淵清禪師
伏牛無礙明理禪師 雲棲蓮池祿宏禪師

紫柏達觀真可禪師 黃蘗無念深秀禪師
夔州白馬方象禪師 鵝湖養庵心禪師
真寂聞谷廣印禪師 破山洞聞法乘禪師
達澄受昭禪師 介子黃毓祺居士
明州白雲西師太 青林如鑑老宿
優曇頤和尚 太史蔣超虎臣居士
寧波天壽新禪師 明州秀峰敢禪師
金陵紫竹林煥禪師 興化蘆渡權禪師
徐州龍山量禪師

續指月錄凡例二十則

- 虞山瞿幻寄先生指月錄一書。先是嚴天池先生。水月齋初刻。為禪林祕寶。海內盛行。板經數易。後如破山禪師。翻刻東塔禪堂。具德禪師。兩鐫天寧靈隱。甚至斗大茅庵。亦皆供奉。腰包衲子。無不肩攜。儒者談禪之書。未有盛於此本者也。但前錄自七佛起。至六祖以下。凡十六世而止。宋孝宗隆興年後。隆杲諸老以下無傳焉。茲刻以隆興二年為始。自十七世續起。迄今康熙十八年。三十八世而止。上下五百年。續佛慧命。靡敢或遺。惟現坐道場。無語錄傳紀塔銘者不錄。
- 瞿錄所載。惟十六世。限以軸終。不無遺漏。茲刻不欲輕遺一師。故於十六世。凡大藏現有機緣。一句一義可傳者。另成前錄補遺一卷。
- 瞿錄有應化聖賢。未詳法嗣等卷。茲刻自南宋以後。歷代祖師。凡有未表師承者。另列尊宿一卷。諸山召對機緣。另編奏對一卷（現存原本無此卷俟覓得補刊）。
- 古德祇有語句。見之舊本。並無悟道入室機緣。及姓氏生里者。祇載語句。不及備陳。
- 茲錄如二十世。玉溪玄通禪師。二十一世。慶壽教亨禪師。箬庵續燈存稿。俱載之。未詳法嗣。覺浪傳燈正宗。載通為洞宗普炤辯嗣。載亨為普炤寶嗣。覺公以洞上子孫。師承必有所本。當從傳燈正宗為是。餘可類推。
- 按傳燈正宗。五十五卷。萬年賁嗣三人。有瑞巖景蒙。無天童從瑾。續燈存稿。萬年賁嗣。亦止三人。有天童從瑾。無瑞巖景蒙。茲刻從正宗補蒙。從續燈補瑾。其餘嗣派。彙考諸刻。例此增補。難以枚舉。
- 按續燈未詳法嗣卷內。所載翁仙可觀禪師。於仙林雪庭禪師之後。查雪庭乃明英宗時人。可觀蓋宋高宗時人也。相隔二百餘

年。不宜次敘若此。謹為改正。

- 傳燈舊本。列大慧杲居虎丘隆先。續傳燈則虎丘隆居大慧杲先。遠公續略。則置洞宗諸祖於卷首。近如箬庵問。費隱容。覺浪盛。白巖符。遠門柱。所刻諸錄。各高等身。互陳青原南嶽前後伯仲之說。所謂各為一家言。以自尊其祖也。茲錄原承瞿先生以儒論禪。便於觀覽。並無人我。有滋法弊。讀者諒之。
- 五宗至宋季以後。海內止存臨濟曹洞兩宗。而濟宗法裔為盛。故錄中行布次第。臨濟先於曹洞。率由其舊。以便海內學者之觀覽無異云。
- 濟宗世次。悉從南澗續燈。南嶽單傳諸書。洞宗世次。悉遵洞宗續燈。洞宗世譜。傳燈正宗諸書。各有所自。並無冒濫。
- 西蜀有大慧杲一支。自鼓山永淨慈明以後。其法嗣燈燈相續。漢月藏公聞之。曾通書問。且近代有吹萬。鐵壁。巴掌。耳庵。諸公語錄。現入嘉興藏中流通。所謂承當有人。繼絕為重。極深瞻仰。愧未獲觀全錄。另俟後賢。詳為補入。
- 信史有闕疑之例。傳燈有並載之條。蓋以續佛慧命。重在師承。萬難以臆見刪削也。瞿錄並載兩天皇悟。因符碑丘碑。各承宗派。遂為千秋疑案。紛端久矣。茲錄有兩海舟慈。而昭然不疑者。有說焉。兩慈皆濟宗之人。有一家言可按也。一為金陵翼善開法之海舟永慈。一為杭州東明繼席之海舟普慈。其姓氏生里不同。其長幼年歲有別。其悟道機緣可證。其付授時日甚殊。普慈則有天童悟為之立傳。花城沈貫為之作拈頌序現在也。永慈則有南澗問之續燈存稿。靈巖之南嶽單傳錄現在也。惟續燈萬峰嗣下。削去海舟慈之沈貫問答一則。另詳註於二十八世普慈章之後。
- 三峰初傳。如橫山成。海門桀。顯寧垣。華嚴鴻。祥符鈺。安隱忍。高峰聖。皆不輕記人。而同門為之記。再傳如能仁光。興化宗。德山賦。亦不輕記人。而本師為之記。又如穹窿範。瑞光雲。燮雲璣。西林玄輩。皆為三峰許可。究不嗣三峰而嗣其子。此等高風。古今指不勝屈。其間恐多未詳。姑遵各有刻本可憑者。然後載入。
- 是書專在流通宗眼。以機緣為重。姓名出處。聊備查考。
- 諸師之名系於號。號系於寺院庵額。額系於郡邑。以便查考。此傳燈之定式也。如宋之平江。即今之蘇州。宋之臨安。即今之杭州。宋之慶元。即今之寧波。茲錄惟祖庭之名不易。而郡邑隨時以系之。如慶元天童。寧波天童。臨安靈隱。杭州靈隱之類。不可枚舉。

- 錄中惟稱禪師者為多。其稱國師。和尚。法師。西堂。藏主。庵主。上座。首座。大士。居士。道人之類。皆各承其舊。並無臆見。惟姚少師。係徑山及法嗣。出世普慶。遷天龍。唱道甚久。且其得官後。勵道益堅。仍從嗣法。稱少師斯道衍禪師云。
- 續燈不列章次者。亟為補之。如徑山範下斷橋倫一支。至二十七世。月溪澄。失載機緣。幾至源流無考之類。
- 嚴天池水月齋原刻瞿本。每葉用十一行二十一字。海內翻本。無不宗之。惟揚之天寧。杭之靈隱二刻。俱有句讀小圈。讀之甚便。且每葉板心。註每師名號三小字。更便查閱。茲刻遵之。
- 是錄也。海內名公尊宿共加參訂。其三十四世以前。凡有未經箸庵費隱覺浪白巖遠門所曾輯錄者。一字不敢纂入。其三十五世以下。因諸老未有成書。逐一商酌。凡有未經刊行語錄傳記塔銘。無可憑據者。一字不敢纂入。足稱考核精詳。源流有自。誠禪林之拱壁。法門之至寶也。
- 是錄起於丁巳春王。成於戊午長夏。鳩工始於嘉興楞嚴寺之藏經坊。終於維揚建隆寺之印經寮。繕稿於張劍園居士之般若閣。

聶先樂讀識。

No. 1579-G 虎丘徑山二祖長少倫敘考

五燈會元。載昭覺勤祖法嗣。徑山杲居首。而虎丘隆次之。蓋會元輯於大川濟公。係妙喜四世孫。推尊其祖。宜乎列徑山於虎丘之前也。但嚴統諸書。亦仍會元之舊文。先徑山而次虎丘。則不得不引虎丘塔碑。及大慧年譜。詳考二祖之年臘。著為說以辯正其倫敘焉。按塔碑隆祖遷化於高宗紹興六年。丙辰五月八日。住世六十年。坐四十五夏。則隆祖之示生。在神宗熙寧十年丁巳也。九歲去家。則元豐八年乙丑也。又六歲受具。則哲宗元祐六年辛未也。又五歲而行脚四方。首參長蘆淨照。次參湛堂。次參死心。最後從圓悟於夾山。當機契悟。參隨二十年。歸和州省親。四眾請開堂於城西開聖寺。以建炎之亂。南渡宣城。郡守李尚書光延居彰教四年。而遷虎丘。又三年而示寂。則住虎丘。當在紹興四年甲寅。住彰教當在建炎四年庚戌。而出世開聖。則在建炎二三年間也。會元諸書。皆載圓悟於建炎初遷金山。二年正月奉詔入對揚州。賜號圓悟禪師。今隆祖語錄第一會住開聖。開堂日拈香酬法乳。稱現住金山佛果圓悟禪師。是則正在佛果住金山入對賜號之時也。其參隨圓悟二十年。則當始於徽宗政和之初年也。會元載圓悟崇寧中。還里省親。開法六祖。更昭覺。政和

間。復出峽南遊。張無盡留居碧巖。復徙道林。而隆祖塔碑。謂趨夾山見圓悟。會圓悟移道林。師從焉。他書載僧問圓悟。如何是夾山境。悟答曰。猿抱子歸青嶂裏。鳥銜花落碧巖前。然則夾山者即碧巖也。參考羣籍。定其年甲。則隆祖之常隨圓悟。自政和而宣和。而靖康。而建炎。前後蓋二十年也。此則隆祖之始末。合會元諸書所紀。以證徐林所撰之塔碑。並無纖毫可疑者也。按年譜。大慧生於哲宗元祐四年己巳。則齒少於隆祖一十二年也。出家於徽宗崇寧三年甲申。則後於隆祖之脫白一十九年也。請具足戒於崇寧四年乙酉。則後於隆祖之得戒一十四年也。政和年間依湛堂於寶峰。至宣和七年乙巳。始參圓悟於天寧。則契機圓悟。亦在隆祖之後十餘年也。高宗建炎四年庚戌。始住海昏雲門庵。則正當隆祖住彰教之年。爾時隆祖先已出世於開聖也。此則悉依大慧門人祖詠宗演所修之年譜。其載筆諒無差謬者也。考諸塔碑年譜。以定二祖之倫敘。豈非虎丘為兄。而徑山為弟乎。年譜載大慧於建炎元年丁未。省侍圓悟於金山。偕隆藏主之吳門。少憩寶華。次虎丘。遂館於前資據塔碑。隆祖是時已住開聖。未住虎丘。意者二老。皆以省侍圓悟。相遇於金山。遂同遊吳門。館於虎丘耳。他書又載應庵華祖。先於彰教。親依隆祖。及隆祖遷住虎丘。則華祖為先馳。意者隆祖於建炎中。先已受虎丘之請。至紹興中。始來闡法。故華祖為前驅耳。不然。以著草鞋住院之華祖。豈其居學地時。曾為子夏之先耶。會元載應庵住歸宗日。大慧在梅陽。有僧傳師垂示語句。慧見之極口稱歎。後以偈寄曰。坐斷金輪第一峰。千妖百怪盡潛踪。年來又得真消息。報道楊岐正脈通。其歸重如此。年譜載大慧於紹興二十四年甲戌。以頌代書。答歸宗華侄長老。此之謂也。會元又載應庵於室中。能鍛鍊耆艾。故世稱大慧。與師居處。為二甘露門。又載應庵於虎丘忌日拈香。有二十年來坐曲条木之句。又載應庵於孝宗隆興改元。六月十三日。奄然而化。年譜載大慧。亦於是年八月十日。示寂於徑山明月堂。則知應庵弘法二十餘年。實與大慧同時行道也。諸書列徑山於虎丘之前。實為傳誤。久欲正其說。以徧告諸方具眼。適樂讀居士。從邗上歸。出其向日園中所編指月續錄見示。開卷便見虎丘法嗣。列在徑山法嗣之前。觀其伯仲昭然。頓使雁行成序。且載筆精妙。確有卓見高識。為功於傳燈無盡矣。敢抒管見以附不朽。名之曰。少長倫敘考云。康熙己未佛成道日。虎丘二十一世法孫。虞山檠巖本黃檗談拜書。予閱圓悟佛果禪師語錄。係宋平江府虎丘山門人紹隆等編。則知虎丘為圓悟首座也。又閱紫柏老人集。其序應庵和尚語錄云。臨濟正宗。大於楊岐會。盛於五祖演。至於圓悟嫡嗣曰虎丘。而虎

丘嫡嗣為應庵。則知虎丘為圓悟嫡嗣也。及閱五燈會元。昭覺禪師法嗣三十餘人。首徑山而次虎丘。則不能無疑。今閱槩公辯正一書。其考諸塔銘。按諸年譜。二祖之得法行化。年月次序。可謂詳矣。其有一事徑山在虎丘之先者乎。虎丘為兄。徑山為弟。斷然無疑也。夫兄弟之倫。儒釋一理。古人雖重嫡而輕庶。然庶為兄。嫡為弟。長幼之序。猶不可紊。況嫡本兄乎。庶本弟也。而可以顛倒其倫次耶。五燈會元。編於大慧之門人。而推崇其祖。是誠有之。如楚石為大慧五世孫。無相錢居士序其語錄云。圓悟之後。分為二宗。一為妙喜。一為虎丘。是亦先徑山而後虎丘者。謠傳日久。幾莫能辯。槩公得法於木陳老人。為虎丘二十一世孫。辯正二祖倫次。非為推崇其祖。實所以較正臨濟之正傳。訂定圓悟之宗派。公也。非私也。彤學識淺劣。於禪宗未窺一二。但宋文憲公。為文苑鉅公。所作禪林碑版之文甚多。若育王約之裕公生塔之碑。龍池佛心寧公舍利塔銘。詳載原委。未有不先虎丘而後徑山者。是可信也。敬書以弁於指月續錄之首。俾僧史之信從有本云。長洲念齋繆彤題。

續指月錄卷首

廬陵聶 先樂讀 編集

濟陽江 湘郢上 參訂

六祖下十六世(瞿本補遺)

臨濟宗

平江虎丘雪庭元淨禪師

吉安雙溪人。上堂。知有底人。過萬年如同一日。不知有者。過一日如同萬年。不見死心和尚道。山僧行脚二十餘年。以九十日為一夏。增一日也不得。減一日也不得。取不得。捨不得。處處當來見彌勒。且道彌勒在甚麼處。金風吹渭水。落葉滿長安○上堂。說得須是見得。見得又須說得。見得說不得。落在陰界。見解偏枯。說得見不得。落在時機。墮在毒海。若在翠雲門下。直饒說得見得。好與三十棒。說不得見不得。也好與三十棒。翠雲恁麼道。也好與三十棒。遂高聲召大眾曰嶮○僧問如何是到家一句。師曰。坐觀成敗。問不與萬法為侶者。是甚麼人。師曰。遠親不如近鄰。曰。待汝一口吸盡西江水。即向汝道。又作麼生。師曰。近鄰不如遠親。

問亡僧遷化。向甚麼處去。師曰。糞堆頭。曰意旨如何。師曰。築著磕著(昭覺勤嗣)。

潭州福嚴文演禪師

成都楊氏子。僧問如何是定林正主。師曰。坐斷天下人舌頭。曰。未審如何親近。師曰。覷著則瞎○上堂。當陽坐斷。凡聖跡絕。隨手放開。天回地轉。直得日月交互。虎嘯龍吟。頭頭物物。耳聞目視。安立諦上。是甚麼。還委悉麼。阿斯吽。咄(昭覺勤嗣)。

衢州天寧訥堂梵思禪師

蘇州朱氏子。上堂。趯翻生死海。踏倒涅槃岸。世上無活人。黃泉無死漢。遂拈拄杖曰。訥堂今日拄杖子有分付處也。還有承當得者麼。試出來擔荷看。有麼有麼。良久擲拄杖。下座○上堂。知有底也喫粥喫飯。不知有底也喫粥喫飯。如何直下驗得他。有之與無。是之與非。邪之與正。若驗不出。參學事大遠在。喝一喝。下座○上堂。山僧是楊岐四世孫。這老漢有箇三脚驢子弄蹄行公案。雖人人舉得。祇是不知落處。山僧不惜眉毛。為諸人下箇注脚。乃曰。八角磨盤空裏走(昭覺勤嗣)。

福州玄沙僧昭禪師

上堂。天上無彌勒。地下無彌勒。且道彌勒在甚麼處。良久曰。夜行莫踏白。不是水。便是石(昭覺勤嗣)。

紹興東山覺禪師

上堂。三通鼓罷。諸人各各上來。擬待理會祖師西來意。還知劍去久矣麼。設使直下悟去。也是斬頭覓活。東山事不獲已。且向第二頭鞠搵看。以手拍禪牀。下座○上堂。花爛熳。景暄妍。休說壺中別有天。百草頭邊如薦得。東高三丈。西闊八寸(昭覺勤嗣)。

岳州君山佛炤覺禪師

上堂。舉古者道。仰之彌高。鑽之彌堅。瞻之在前。忽焉在後。諸人還識得麼。若也不識。為你註破。仰之彌高。不隔絲毫。要津把斷。佛祖難逃。鑽之彌堅。真體自然。鳥啼華笑。在碧巖前。瞻之

在前。非正非偏。十方坐斷。威鎮大千。忽焉在後。一場漏逗。堪笑雲門。藏身北斗。咄(昭覺勤嗣)。

平江寶華顯禪師

本郡人。上堂。喫粥了也。頭上安頭。洗鉢盂去為蛇畫足。更問如何。自納敗闕。良久。高聲召大眾。眾舉首。師曰。歸堂喫茶○上堂。禪莫參。道休學。歇意忘機常廓落。現成公案早周遮。祇箇無心已穿鑿。直饒坐斷未生前。難透山僧錯錯錯(昭覺勤嗣)。

台州天封覺禪師

上堂。無生國裏。未是安居。萬仞崖頭。豈容駐足。且望空撒手。直下翻身一句。作麼生道。人逢喜事精神爽。入火真金色轉鮮(昭覺勤嗣)。

成都正法建禪師

上堂。兔馬有角。牛羊無角。絕毫絕釐。如山如嶽。針峰上獅子翻身。藕竅中大鵬展翼。等閑突過北俱盧。日月星辰一時黑(昭覺勤嗣)。

台州鴻福子文禪師

上堂。舉百丈脫野狐公案。頌曰。不昧不落作麼會。會得依前墮野狐。一夜涼風上畫角。滿船明月泛江湖(昭覺勤嗣)。

南康雲居宗振首座

丹丘人。依圓悟於雲居。一日仰瞻鐘閣。倏然契證。有詰之者。座酬以三偈。其後曰。我有一機。直下示伊。青天霹靂。電卷星馳。德山臨濟。棒喝徒施。不傳之妙。於汝何虧。悟見大悅。竟以節操自高。道望愈重。嘗書壁曰。住在千峰最上層。年將耳順任騰騰。免教名字挂人齒。甘作今朝百拙僧(昭覺勤嗣)。

祖氏覺庵道人

建寧游察院之侄女也。幼志不適。留心祖道。於圓悟示眾語下。了然明白。悟曰。更須颺卻所見。始得自由。氏答偈曰。露柱抽橫骨。虛空弄爪牙。直饒玄會得。猶是眼中沙。(昭覺勤嗣)。

令人明室道人

自機契圓悟。徧參名宿。皆蒙印可。紹興庚申二月。書三偈。寄呈草堂清。微露謝世之意。至旬末。別親里而終○草堂跋其偈。後為刊行。大慧亦嘗垂語發揚。偈曰。不識煩惱是菩提。若隨煩惱是愚癡。起滅之時須要會。鷄過新羅人不知。不識煩惱是菩提。淨妙蓮華生淤泥。人來問我若何為。喫粥喫飯洗鉢盂。莫管他。莫管他。終日癡憨弄海沙。要識本來真面目。便是祖師一木叉。道不得底又下死。道得底也又下死。畢竟如何。不許夜行。投明須到(昭覺勤嗣已上共十三人)。

台州瑞巖如勝佛燈禪師

上堂。人人領略釋迦。箇箇平欺達磨。及乎問著宗綱。束手盡云放過。放過即不無。祇如女子出定。趙州洗鉢盂。又作麼生話會。鶴有九臯難翥翼。馬無千里謾追風(淨因成嗣)。

韶州南華知曷禪師

蜀之永康人。上堂。日日說。時時舉。似地擎山爭幾許。隴西鸚鵡得人憐。大都祇為能言語。休思惟。帶伴侶。智者聊聞猛提取。更有一般也大奇。貓兒偏解捉老鼠○上堂。春光爛熳華爭發。子規啼落西山月。橋梵鉢提長吐舌。底事分明向誰說。噯○上堂。迷不自迷。對悟立迷。悟不自悟。因迷說悟。所以悟為迷之體。迷為悟之用。迷悟兩無從。箇中無別共。無別共。撥不動。祖師不將來。鼻孔千斤重(太平懃嗣)。

慶元蓬萊卿禪師

上堂。有句無句。如藤倚樹。且任諸方點頭。及乎樹倒藤枯。上無衝天之計。下無入地之謀。靈利漢。這裏著得一隻眼。便見七縱八橫。舉拂子曰。看看。一曲兩曲無人會。雨過夜塘秋水深○上堂。舉法眼道。識得凳子。周帀有餘。雲門道。識得凳子。天地懸殊。師曰。此二老人。一人向高高山頂立。一人向深深海底行。然雖如

是。一不是。二不成。落華流水裏啼鶯。閑亭雨歇夜將半。片月還從海底生(太平懃嗣)。

隆興泐潭擇明禪師

上堂。舉趙州訪茱萸探水因緣。師曰。趙老雲收山嶽露。茱萸雨過竹風清。誰家別館池塘裏。一對鴛鴦畫不成。又舉德山托鉢話。師曰。從來家富小兒嬌。偏向江頭弄畫橈。引得老爺把不住。又來船上助歌謠○上堂。永嘉道。一月普現一切水。一切水月一月攝。豎起拂子曰。看看。千江競注。萬派爭流。若也素善行舟。便諳水脈。可以優游性海。笑傲煙波。其或未然。且歸林下坐。更待月明時(太平懃嗣)。

台州寶藏本禪師

上堂。清明已過十餘日。華雨闌珊方寸深。春色惱人眠不得。黃鸝飛過綠楊陰。遂大笑下座(太平懃嗣)。

吉州大中祥符清海禪師

初見佛鑑。鑑問三世諸佛。一口吞盡。何處更有眾生可教化。此理如何。師擬進語。鑑喝之。師忽領旨。述偈曰。實際從來不受塵。箇中無舊亦無新。青山況是吾家物。不用尋家別問津。鑑曰。放下著。師禮拜而去(太平懃嗣)。

漳州淨眾佛真了燦禪師

泉南羅氏子。上堂。重陽九日菊花新。一句明明亘古今。楊廣橐駝無覓處。夜來足跡在松陰(太平懃嗣)。

隆興谷山海禪師

上堂。一舉不再說。已落二三。相見不揚眉。翻成造作。說使動絃別曲。告往知來。見鞭影便行。望剎竿回去。脚跟下好與三十棒。那堪更向這裏撮摩石火。收捉電光。工夫枉用渾閑事。笑倒西來碧眼胡。卓拄杖下座(太平懃嗣已上共七人)。

撫州白楊法順禪師

絳州文氏子。依止佛眼。聞普說。舉傳大士心王銘云。水中鹽味。色裏膠青。決定是有。不見其形。師於言下有省。後觀輪藏迅轉。頓明大法。趨丈室作禮。呈偈曰。頂有異峰雲冉冉。源無別派水冷冷。遊山未到山窮處。終被青山礙眼睛。眼笑而可之。住後上堂。好事堆堆疊疊來。不須造作與安排。落林黃葉水推去。橫谷白雲風卷回。寒鴈一聲情念斷。霜鐘纔動我山摧。白楊更有過人處。盡夜寒爐撥死灰。忽有箇衲僧出來道。長老少賣弄。得恁麼窮乞相。山僧祇向他道。却被你道著○上堂。我手何似佛手。天上南星北斗。我脚何似驢脚。往事都來忘却。人人盡有生緣。箇箇足方頂圓。大愚灘頭立處。孤月影射深灣。會不得。見還難。一曲漁歌過遠灘○示眾。染緣易就。道業難成。不了目前。萬緣差別。祇見境風浩浩。彫殘功德之林。心火炎炎。燒盡菩提之樹。道念若同情念。成佛多時。為眾一似為己。彼此事辦。不見他非我是。自然上敬下恭。佛法時時現前。煩惱塵塵解脫○因病示眾。久病未嘗推木枕。人來多是問如何。山僧據問隨緣對。窗外黃鸝口更多。祇如七尺之軀。甚處受病。眾中具眼者。試為山僧指出病源。眾下語。皆不契。師自拊掌一下。作嘔吐聲。又曰。好箇木枕头。師律身清苦。出入惟杖笠獨行。後示寂。闍維。收舍利目睛。齒舌數珠。同靈骨塔於寺西(龍門遠嗣)。

溫州淨居尼慧溫禪師

上堂。舉法眼示眾曰。三通鼓罷。簇簇上來。佛法人事。一時周畢。師曰。山僧道。三通鼓罷。簇簇上來。拄杖不在。苕帚柄。聊與三十(龍門遠嗣共二人)。

潭州大漚月庵善果禪師

信州余氏子。上堂。心生法亦生。心滅法亦滅。心法兩俱忘。烏龜喚作鼈。諸禪德。道得也未。若道得。道林與你拄杖子。其或未然。歸堂喫茶去○僧問。達磨面壁九年時如何。師曰。魚行水濁。曰二祖禮三拜。為甚麼却得其髓。師曰。地肥茄子大。曰祇如一華開五葉。結果自然成。明甚麼邊事。師曰。賊以贓為驗。曰有時乘月好。不覺過滄洲。師曰。闍黎無分(開福寧嗣)。

潼川護聖愚丘居靜禪師

成都楊氏子。年十四出家。謁南堂。堂舉香巖枯木裏龍吟話。往返酬詰。師於言下大悟。一日堂問曰。莫守寒巖異艸青。坐却白雲宗不妙。汝作麼生。師曰。直須揮劍。若不揮劍。漁父棲巢。堂矍然曰。這小廝兒。師珍重便行○住東巖上堂。月生一。東巖乍住增愁寂。紅塵世路有多端。米麪倉儲無顆粒。崖為畔。泉為匹。颯颯清風來入室。山王土地暗中忙。雲版鐘魚偷淚滴。世人莫道守空巖。亦有東籬打西壁(大隨靜嗣)。

簡州南巖勝禪師

上堂。召大眾曰。護生須是殺。殺盡始安居。會得箇中意。分明在半途。且道到家一句。又作麼生。釋迦彌勒沒量大。看來猶祇是他奴○僧問。放行五位即不問。把定三關事若何。師曰。橫按鎢錐全正令。曰把定三關蒙指示。放行五位事如何。師曰。太平寰宇斬癡頑。曰恁麼則南巖門下。土曠人稀。師曰。靈利衲僧。祇消一點。曰自古自今。同生同死時如何。師曰。家賊難防。曰今日學人小出大遇去也。師便打曰。須是老僧打你始得(大隨靜嗣)。

嘉州能仁默堂紹悟禪師

上堂。舉趙州訪二庵主公案。頌曰。一重山盡一重山。坐斷孤峰仔細看。霧捲雲收山嶽靜。楚天空闊一輪寒(大隨靜嗣)。

彭州土溪智陀子言庵主

緜州人也。初至大隨。聞舉石頭和尚示眾偈。倏然領旨。歸隱土溪。懸崖絕壑間。有石若蹲異獸。師鑿以為室。中發異泉。無涸溢。四眾訝之。居三十年。化風盛播。室成日作偈曰。一擊石庵全。縱橫得自然。清涼無暑氣。涓潔有甘泉。寬廓含沙界。寂寥絕眾緣。箇中無限意。風月一牀眠(大隨靜嗣)。

劍門南修道者

淳厚之士也。自大隨一語契投。服勤不怠。歸謁崇化贊禪師。坐次。贊以宗門三印問之。南曰。印空。印泥。印水。平地寒濤競起。假饒去就十分。也是靈龜曳尾(大隨靜嗣已上共五人)。

蘄州龍華高禪師

上堂。象王行。師子住。赤脚崑崙眉卓豎。寒山拾得笑呵呵。指點門前老松樹。且道他指點箇甚麼。忽然風吹倒時。好一堆柴(五祖自嗣)。

饒州薦福常庵擇崇禪師

寧國人。上堂。舉僧問古德。生死到來。如何免得。德曰。柴鳴竹爆驚人耳。僧曰。不會。德曰。家犬聲啼夜不休。師曰。諸人要會麼。柴鳴竹爆驚人耳。大洋海底紅塵起。家犬聲啼夜不休。陸地行船三萬里。堅牢地神笑呵呵。須彌山王眼觀鼻。把手東行却向西。南山聲應北山裏。千手大悲開眼看。無量慈悲是誰底。良久曰。頭長脚短。少喜多瞋○上堂。問侍者曰。還記得昨日因緣麼。曰記不得。復顧大眾曰。還記得麼。眾無對。豎起拂子曰。還記得麼。良久曰。也忘却了也。三處不成。一亦非有。諸人不會。方言露柱。且莫開口。以拂子擊禪牀。下座(黃龍逢嗣)。

胡文定公草庵居士

名安國。字康侯。久依上封秀和尚。得言外之旨。崇寧中。過藥山。有禪人舉南泉斬貓話。問公。公以偈答曰。手握乾坤殺活機。縱橫施設在臨時。玉堂兔馬非龍象。大用堂堂總不知。又寄上封秀偈曰。祝融峰似杜成天。萬古江山在目前。須信死心元不死。夜來秋月又同圓(上封秀嗣)。

福州普賢元素禪師

建寧人。上堂。兵隨印轉。三千里外絕煙塵。將逐符行。二六時中淨裸裸。不用鐵旗鐵鼓。自然草偃風行。何須七縱七擒。直得無思不服。所謂大丈夫秉慧劍。般若鋒兮金剛燄。非但能摧外道心。早曾落却天魔膽。正恁麼時。且道主將是恁麼人。喝一喝○上堂。南泉道。我十八上。便解作活計。囊無繫蟻之絲。廚乏聚蠅之糝。趙州道。我十八上。便解破家散宅。南頭買賤。北頭賣貴。點檢將來。好與三十棒。且放過一著。何故。曾為蕩子偏憐客。自若貪杯惜醉人○上堂。未開口時先分付。擬思量處隔千山。莫言佛法無多子。未透玄關也大難。祇如玄關作麼生透。喝一喝。下座(上封才嗣)。

福州鼓山山堂僧洵禪師

本郡阮氏子。上堂。黃檗手中六十棒。不會佛法的的大意。却較些子。大愚肋下築三拳。便道黃檗佛法無多子。鈍置殺人。須知有一人。大棒驀頭打他不回頭。老拳劈面鎚他亦不顧。且道是誰○上堂。朔風捲地卷黃葉。門外千峰凜寒色。夜半烏龜帶雪飛。石女溪邊皺兩眉。卓拄杖云。大家在這裏。且道天寒人寒。喝一喝曰。歸堂去(上封才嗣)。

福州鼓山別峰祖珍禪師

興化林氏子。僧問。趙州遶禪牀一帀。轉藏已竟。此理如何。師曰。畫龍看頭。畫蛇看尾。曰婆子道。比來請轉全藏。為甚麼祇轉得半藏。此意又且如何。師曰。人無遠慮。必有近憂。曰未審甚麼處。是轉半藏處。師曰。不是知音者。徒勞話歲寒○上堂。尋牛須訪跡。學道貴無心。跡在牛還在。無心道易尋。豎起拂子曰。這箇是跡。牛在甚麼處。直饒見得頭角分明。鼻孔也在法石手裏○上堂。向上一路。千聖不傳。卓拄杖曰。恁麼會得。十萬八千。畢竟如何。桃紅李白薔薇紫。問著東風總不知○示眾云。大道祇在目前。要且目前難覩。欲識大道真體。不離聲色言語。卓拄杖云。這箇是聲。豎起拄杖云。這箇是色。喚甚麼作大道真體。直饒向這裏見得。也是鄭州出曹門○示眾。若論此事。如人喫飯。飽則便休。若也不飽。必有思食之心。若也過飽。又有傷心之患。到這裏作麼生。得恰好去。良久云。且歸巖下宿。同看月明時(上封才嗣已上共三人)。

慶元育王無示介謚禪師

溫州張氏子。謝知事上堂。尺頭有寸。鑑者猶稀。秤尾無星。且莫錯認。是欲定古今輕重。較佛祖短長。但請於中著一隻眼。果能一尺還他十寸。八兩元是半斤。自然內外和平。家國無事。山僧今日已是兩手分付。汝等諸人。還肯信受奉行也無。尺量刀翦徧世間。誌公不是閑和尚○上堂。文殊智。普賢行。多年歷日。德山棒。臨濟喝。亂世英雄。汝等諸人。穿僧堂。入佛殿。還知嶮過鐵圍關麼。忽然踏著釋迦頂[寧*頁]。磕著聖僧額頭。不免一場禍事。師性剛毅。泣眾有古法。時以謚鐵面稱之(天寧卓嗣)。

安吉道場普明慧琳禪師

福州人。上堂。有漏箴籬。無漏木杓。庭白牡丹。檻紅芍藥。因思九年面壁人。到頭不識這一著。且道作麼生。是這一著。以拄杖擊禪牀。下座○上堂。一即多。多即一。毗盧頂上明如日。也無一。也無多。現成公案沒諠譌。拈起舊來氈拍板。明時共唱太平歌(天寧卓嗣)。

安吉道場無傳居慧禪師

本郡吳氏子。上堂。鍾馗醉裏唱涼州。小妹門前祇點頭。巡海夜叉相見後。大家拍手上高樓。大眾若會得去。鎖却天下人舌頭。若會不得。將謂老僧別有奇特○上堂。百尺竿頭弄影戲。不唯瞞你又瞞天。自笑平生岐路上。投老歸來沒一錢○上堂。舉臨濟示眾曰。一人在高高山頂。無出身之路。一人在十字街頭。亦無向背。且道那箇在前。那箇在後。師曰。更有一人。不在高高峰頂。亦不在十字街頭。臨濟老漢因甚不知。便下座(天寧卓嗣)。

臨安顯寧松堂圓智禪師

上堂。蘆花白。蓼花紅。溪邊脩竹碧煙籠。閑雲抱幽石。玉露滴巖叢。昨夜烏龜變作鼈。今朝水牯悟圓通。咄(天寧卓嗣)。

安吉烏回唯庵良範禪師

上堂。塵劫已前事。堂堂無背面。動靜莫能該。舒卷快如電。莫道凡不知。佛也覷不見。決定在何處。合取這兩片。薦不薦。更為諸人通一線。良久曰。天下太平。皇風永扇○上堂。舉僧問趙州。至道無難。唯嫌揀擇。是時人窠窟否。州曰。曾有人問老僧。直得五年分疏不下。師召眾曰。趙州具頂門眼。向擊石火裏分緇素。閃電光中明縱奪。為甚麼却五年分疏不下。還委悉麼。易分雪裏粉。難辨墨中煤(天寧卓嗣)。

溫州本寂靈光文觀禪師

郡之永嘉葉氏子。上堂。過去諸如來。斯門已成就。好事不如無。現在諸菩薩。今各入圓明。好事不如無。未來修學人。當依如是住。好事不如無。還知麼。除却華山陳處士。何人不帶是非行。參(天寧卓嗣已上共六人)。

常德德山無諍慧初禪師

靜江人。上堂。顧視大眾曰。見麼。在天成象。在地成形。在日月為晦為朔。在四時為寒為暑。鼓之以雷霆。潤之以風雨。且道在衲僧分上。又作麼生。一趯趯翻四大海。一拳拳倒須彌山。佛祖位中留不住。又吹漁笛汨羅灣○上堂。九月二十五。聚頭相共舉。瞎却正法眼。拈却雲門普。德山不會說禪。贏得村歌社舞。阿呵呵。邏囉哩。遂作舞。下座(黃龍震嗣)。

廬山延慶叔禪師

僧問多子塔前共談何事。師曰。一回相見一回老。能得幾時為弟兄。僧禮拜。師曰。唐興今日失利(祖庵主嗣)。

漣水萬壽夢庵普信禪師

上堂。殘雪既消盡。春風日漸多。若將時節會。佛法又如何。且道時節因緣。與佛法道理。是同是別。良久曰。無影樹栽人不見。開花結果自馨香(勝因靜嗣)。

平江慧日默庵興道禪師

上堂。同雲欲雪未雪。愛日似暉不暉。寒雀啾啾開籬落。朔風冽冽舞簾帷。要會韶陽親切句。今朝覲面為提撕。卓拄杖下座(勝因靜嗣)。

廣德光孝果慙禪師

桃源人。上堂。舉南泉斬貓兒話。乃曰。南泉提起下刀誅。六臂脩羅救得無。設使兩堂俱道得。也應流血滿街衢(勝因靜嗣已上三人)。

福州雪峰毬堂慧忠禪師

上堂。終日忙忙。那事無妨。作麼生是那事。良久曰。心不負人。面無慚色(雪峯需嗣)。

慶元蓬萊圓禪師

住山三十年。足不越閭。道俗尊仰之。師有偈曰。新縫紙被烘來煖。一覺安眠到五更。聞得上方鐘鼓動。又添一日在浮生(天童交嗣)。

江州圓通密印守慧禪師

上堂。但知今日復明日。不覺前秋與後秋。平步坦然歸故里。却乘好月過滄洲。咦。不是苦心人不知(圓通旻嗣)。

洪州黃龍道觀禪師

上堂。古人道。眼色耳聲。萬法成辨。你諸人為甚麼從朝至暮。諸法不相到。遂喝一喝曰。牽牛入你鼻孔。禍不入慎家之門(圓通旻嗣已上二人)。

揚州石塔宣秘禮禪師

僧問山河大地。與自己是同是別。師曰。長亭涼夜月。多為客鋪舒。曰謝師答話。師曰。網大難為鳥。綸稠始得魚。僧作舞歸眾。師曰。長江為硯墨。頻寫斷交書○上堂。舉百丈野狐話。乃曰。不是翻濤手。徒誇跨海鯨。由基方撚鏃。枝上眾猿驚○上堂。至座前。師擲一僧上法座。僧惴惶欲走。師遂指座曰。這棚子。若牽一頭驢上去。他亦須就土廁在。汝諸人因甚麼却不肯。以拄杖一時趕散。顧侍者曰嶮(明招慧嗣)。

峨嵋靈巖徽禪師

僧問文殊是七佛之師。未審誰是文殊之師。師曰。金沙灘頭馬郎婦(浮山真嗣)。

湖南報慈淳禪師

上堂。青眸一瞬。金色知歸。授手而來。如王寶劍。而今開張門戶。各說異端。可謂古路坦而荊棘生。法眼正而還自翳。孤負先聖。埋沒己靈。且道不埋沒。不孤負。正法眼藏。如何吐露。還有吐露得底麼。出來吐露看。如無。擔取詩書歸舊隱。野花啼鳥一般春(祥符立嗣)。

成都金繩文禪師

僧問如何是大道之源。師曰。黃河九曲。曰如何是不犯之令。師曰。鐵蛇鑽不入。僧擬議。師便打(信相顯嗣)。

曹洞宗

常州華藏明極慧祚禪師

頌洞山喫果子話曰。洞山果子誰無分。掇退臺盤妙轉機。今夜為君輕點破。牡丹花下睡貓兒(淨慈暉嗣)。

明州雪竇足庵智鑒禪師

滁州吳氏子。兒時母與洗手瘍。因曰。是甚麼。對曰。我手似佛手。長失恃怙。依真歇於長蘆。大休首眾。即器之。後遯象山。百怪不能惑。深夜開悟。求證於廷壽然曰。日來肚大無物可食。庵小無牀可臥。若能與食展庵則住。不然則去。然與師反覆問答。不能屈。因叩其所得。呈一頌。然喜曰。鑒公徹也。復見大休於岳林。試其機鋒辯才無礙。歎曰。佛祖不柰你何。因為行乞。擔二布囊。隨得即受。備歷艱勤○出世為大休燒香。上堂云。世尊有密語。迦葉不覆藏。一夜落花雨。滿城流水香(天童珙嗣)。

泰州廣福微庵道勤禪師

本郡俞氏子。上堂。舉僧問同安。如何是和尚家風。同安曰。金雞抱子歸霄漢。玉兔懷胎入紫微。曰忽遇客來。將何祇待。同安曰。金果早朝猿摘去。玉華晚後鳳銜來。師曰。廣福即不然。有問如何是和尚家風。祇向他道。翠竹叢邊歌欸乃。碧巖深處臥煙蘿。忽遇客來。將何祇待。沒底籃兒盛皓月。無心罈子貯清風(雪竇宗嗣)。

越州超化藻禪師

開爐上堂。雪滿寒窗。燒盡丹霞木佛。冰交野渡。凍殺陝府鐵牛。直得寒灰發燄。片雪不留。任運縱橫。現成受用。諸禪德。要會麼。衲帔蒙頭坐。冷暖了無知(善權智嗣)。

雲門宗

密州[山*耆]山寧禪師

上堂。有時孤峰頂上。嘯月眠雲。有時大洋海中。翻波走浪。有時十字街頭。七穿八穴。諸人還相委悉麼。樟樹花開盛。芭蕉葉最多(雪竇明嗣)。

臨安五雲悟禪師

苕溪人。上堂。月堂老漢道。行不見行。是箇甚麼。坐不見坐。是箇甚麼。著衣時不見著衣。是箇甚麼。喫飯時不見喫飯。是箇甚麼。山僧雖與他同牀打睡。要且各自做夢。何故。行見行。坐見坐。著衣時見著衣。喫飯時見喫飯。無有不見底道理。亦無箇是甚麼。諸人且道老漢底是。五雲底是。拈拄杖卓一下曰。桃紅李白薔薇紫。問著東風總不知(淨慈昌嗣)。

臨安中竺癡禪元妙禪師

婺州王氏子。僧問如何是截斷眾流句。師曰。佛祖開口無分。曰如何是函蓋乾坤句。師曰。匝地普天。曰如何是隨波逐浪句。師曰。有時入荒草。有時上孤峰○上堂。黃昏雞報曉。半夜日頭明。驚起雪師子。睜開紅眼睛○上堂。去年梅。今歲柳。顏色馨香。喝一喝。良久曰。若不得這一喝。幾乎道著依舊。且道道著後如何。眼睛突出(靈隱光嗣)。

撫州靈巖圓日禪師

上堂。悟無不悟。得無不得。九年面壁空勞力。三脚驢兒跳上天。泥牛入海無蹤跡。為甚如此。九九八十一(圓覺曇嗣)。

荊門玉泉思達禪師

僧問如何是一印印空。師曰。萬象收歸古鑑中。曰如何是一印印水。師曰。秋蟾影落千江裏。曰如何是一印印泥。曰細觀文彩未生時(嶽麓海嗣)。

續指月錄卷首

No. 1579

續指月錄卷一

廬陵聶 先樂讀 編集

濟陽江 湘郢上 參訂

六祖下十七世

臨濟宗

慶元天童應庵曇華禪師

蘄之黃梅江氏子。年十七。投邑之東禪出家。十八為大僧。首參隨州水南遂禪師。染指法味。徧歷江湖。所至與諸老宿激揚。無不投契。後上雲居謁圓悟勤老人。一見拊勞。痛與提策。迨勤入蜀。命師往依彰教隆和尚於宣。及隆移虎丘。師為先馳。未半載。通徹大法。頓悟圓悟為人處。機關深固。運用恢廓。言句超越。道洽叢林。未幾禮辭。遊戲諸方。初分座於處之連雲。處守以妙嚴。請師出世。歷住明果。薦福。東林蔣山。歸宗。天童。諸名剎○上堂。參禪人切忌錯用心。悟明見性是錯用心。成佛作祖是錯用心。看經講教是錯用心。行住坐臥是錯用心。喫粥喫飯是錯用心。屙屎撒尿是錯用心。一動一靜一往一來是錯用心。更有一處錯用心。歸宗不敢與諸人說破。何故。一字入公門。九牛車不出○上堂。九年面壁。壞却東土兒孫。隻履西歸。鈍置黃面老子。以拄杖畫一畫曰。石牛攔古路。一馬生三寅○上堂。見聞覺知無障礙。聲香味觸常三昧。眼見如盲。口說如瘡。蘇州人豢。常州人打野。大宋國裏只有兩箇僧。川僧。浙僧。其他盡是子。淮南子。江西子。廣南子。福建子。豈不見道父慈子孝。道在其中矣(山茨際云蓮葉何田田魚戲蓮葉間魚戲蓮葉東魚戲蓮葉西魚戲蓮葉南魚戲蓮葉北老僧仔細看不見東西少南北○碓庵青頌云蘇常川浙到淮南福建江西又廣南各路鄉談多打盡自家仍被舌頭謾)○上堂。臨濟在黃檗處。三度喫棒底意旨。你諸人還覷得透也未。直饒一咬便斷。也未是大丈夫漢。三世諸佛。口挂壁上。天下老和尚。將甚麼喫飯○上堂。十五日_巳前。水長船高。十五日_巳後。泥多佛大。正當十五日。東海鯉魚打一棒。雨似盆傾。直得三千大千世界。一切眾生。悉皆歡喜。謂言打這一棒。不妨應時應節。報恩不覺通身踊躍。遂作詩一首。舉似大眾。蜻蜓許是好蜻蜓。飛來飛去不曾停。被我捉來摘却兩邊翼。恰似一枚大鐵釘○上堂。趙州喫茶。我也怕他。若非債主。便是冤家。倚牆靠壁成羣隊。不知誰解辯龍蛇○虎丘隆諱曰。師設供拈香曰。平日沒興。撞著者無意智老和尚。

做盡伎倆。湊泊不得。從此卸却干戈。隨分著衣喫飯。二十年來。坐曲肱牀。懸羊頭。賣狗肉。知他有甚憑據。雖然。一年一度燒香日。千古令人恨轉深○師於室中能鍛鍊耆艾。故一時共稱大慧杲與師居處。為二甘露門。嘗誡徒眾云。衲僧家著草鞋住院。何啻如虺蛇戀窟乎○師住歸宗時。大慧杲在梅陽。有僧傳師垂示語句。杲見之。極口稱歎。後以偈寄師云。坐斷金輪第一峰。千妖百怪盡潛踪。年來又得真消息。報道楊岐正脈通。其望重如此○隆興改元六月十三日。師臨示寂。猶挂入室牌。鉗錘大眾。至夜分。區處院事。纖悉不遺。門人以辭世偈為請。師曰。吾常笑諸方所為。豈自為之耶。奄然趺坐而逝。塔全身於天童太白峰(虎丘隆嗣)。

泉州教忠晦菴彌光禪師

閩之李氏子。兒時寡言笑。聞梵唄則喜。十五圓頂。猶喜閱羣書。一日曰。既剃髮染衣。當期悟徹。豈醉於俗典耶。遂出嶺謁圓悟禪師於雲居。次參黃檗祥。高菴悟。機語皆契。以楚淮盜起。歸謁佛心。後參大慧杲和尚於廣因。得荷大法(機緣悟由備載瞿錄大慧杲章)○上堂。夢幻空花。何勞把捉。得失是非。一時放却。擲拂子曰。山僧今日已是放下了也。汝等諸人又作麼生。復曰。侍者收取拂子○僧問文殊為甚麼出女子定不得。師曰。山僧今日困。問罔明因甚麼却出得。師曰。令人疑著。曰恁麼則擘開華嶽千峰秀。放出黃河一派清。師曰。一任卜度(大慧杲嗣)。

福州西禪懶菴鼎需禪師

本郡林氏子。幼舉進士。年二十五。因讀遺教經。忽曰。幾為儒冠誤。欲出家。母以親迎難之。師絕之曰。夭桃紅杏。一時分付春風。翠竹黃花。此去永為道伴。竟依保壽為比丘。一錫湖湘。徧參名宿。法無異味。歸里結茅於羌峰絕頂。不下山者三年。因教忠光參大慧杲。(悟由詳載瞿錄大慧杲章)印以偈曰。頂門豎亞摩醯眼。肘後斜懸奪命符。瞎卻眼。卸卻符。趙州東壁挂葫蘆○住西禪上堂。句中意。意中句。須彌聳於巨川。句剗意。意剗句。烈士發乎狂矢。任待牙如劍樹。口似血盆。徒逞詞鋒。虛張意氣。所以淨名杜口。早涉繁詞。摩竭掩關。已揚家醜。自餘瓦棺老漢。巖頭大師。向羌峰頂上。拏風鼓浪。玩弄神變。脚跟下好與三十。且道過在甚麼處。良久曰。機關不是韓光作。莫把芻襟當等閒(大慧杲嗣)。

福州東禪蒙菴思岳禪師

江州人。上堂。達磨來時。此土皆知梵語。及乎去後。西天悉會唐言。若論直指人心。見性成佛。大似羚羊挂角。獵犬尋蹤。一意乖疏。萬言無用。可謂來時他笑我。不知去後我笑他。唐言梵語親分付。自古齋僧怕夜茶○上堂。啞卻我口。直須要道。塞却你耳。切忌蹉過。昨日有人從天台來。却道泗州大聖在洪州打坐。十字街頭賣行貨。是甚麼。斷跟草鞋。尖簷席帽(大慧杲嗣)。

福州西禪此庵守淨禪師

本州人。上堂。譚玄說妙。撒尿撒尿。行棒行喝。將鹽止渴。立主立賓。華壁宗乘。設或總不恁麼。又是鬼窟裏坐。到這裏山僧已是打退鼓。且道諸人尋常心憤憤。口悱悱。合作麼生。莫將閑學解。埋沒祖師心○上堂。若也單明自己。不悟目前。此人有眼無足。若也祇悟目前。不明自己。此人有足無眼。直得眼足相資。如車二輪。如鳥二翼。正好勘過了打○上堂。文殊普賢譚理事。臨濟德山行棒喝。東禪一覺到天明。偏愛風從涼處發。咄○上堂。閉卻口。時時說。截卻舌。無間歇。無間歇。最奇絕。最奇絕。眼中屑。既是奇絕。為甚麼却成眼中屑。了了了時無可了。玄玄玄處亦須呵(大慧杲嗣)。

江州東林萬庵道顏禪師

潼川人。族鮮于氏。久參圓悟。微有省發。泊悟還蜀。囑依大慧杲。仍以書致杲曰。顏川彩繪已畢。但欠點眼耳。他日嗣之。其後未可量也。杲居雲門及洋嶼。師皆在焉。朝夕質疑。方大悟○上堂。一葉落。天下秋。一塵起。大地收。鳥窠吹布毛。便有人悟去。今時學者。為甚麼却不識自己。良久曰。莫錯怪人好○僧問。香嚴上樹話。意旨如何。師曰。描不成。畫不就。曰李陵雖好手。爭柰陷番何。師曰。甚麼處去來(大慧杲嗣)。

慶元育王佛照德光禪師

臨江彭氏子。早入大慧杲室。杲問喚作竹篋則觸。不喚作竹篋則背。不得下語。不得無語。速道速道。師曰。杜撰長老。如麻似粟。杲曰。你是第幾箇。師曰。今日捉敗這老賊○次年佛涅槃日。師頂禮次。因念佛身常住。何有生滅。頭未至地。忽然契悟。遽以告杲。杲曰。你這回徹也。杲再主徑山。拉以偕往。後以偈并頂相付之曰。有德必有光。其光無間隔。名實要相稱。非青黃赤白○師

住靈隱日。孝宗宣問。釋迦佛入山修道六年。所成者何事。師對曰。將謂陛下忘却。嘗留宿內。又觀堂奏對機緣。備於本錄。後示寂。塔全身於鄮峰東庵(大慧杲嗣)。

常州華藏遯庵宗演禪師

福州鄭氏子。上堂。拈起拄杖曰。識得這箇。一生參學事畢。古人恁麼道。華藏則不然。識得這箇。更須買草鞋行脚。何也。到江吳地盡。隔岸越山多○上堂。舉南泉道。我十八上。便解作活計。趙州道。我十八上。便解破家散宅。師曰。南泉趙州。也是徐六擔板。祇見一邊。華藏也無活計可作。亦無家宅可破。逢人突出老拳。要伊直下便到。且道到後如何。三十六峰觀不足。却來平地倒騎驢(大慧杲嗣)。

慶元天童無用淨全禪師

越州翁氏子。上堂。靈山正派。達者猶迷。明來暗來。誰當辨的。雙收雙放。孰辨端倪。直饒千聖出來。也祇結舌有分。何故。人歸大國方為貴。水到瀟湘始得清。復曰。適來松源舉竹篋話。今天童納敗缺。諸人要知麼。聽取一頌。黑漆竹篋握起。迅雷不及掩耳。德山臨濟茫然。懵底如何插觜(大慧杲嗣)。

建寧開善道謙禪師

本郡人。(悟由詳載瞿錄大慧杲章)上堂。竺土大僊心。東西密相付。如何是密付底心。良久曰。八月秋。何處熱○上堂。去年也有箇六月十五。今年也有箇六月十五。去年六月十五。少却今年六月十五。今年六月十五。多却去年六月十五。多處不用減。少處不用添。既不用添。又不用減。則多處多用。少處少用。乃喝一喝曰。是多是少。良久曰。箇中消息子。能有幾人知(大慧杲嗣)。

溫州鴈山能仁枯木祖元禪師

閩之林氏子。依大慧於洋嶼庵。危坐終日。妙喜目為元枯木。因舉三世諸佛不知有話。徵詰再三。豁然領旨(悟由載瞿錄)○紹興乙巳春。出住能仁。上堂。有佛處不得住。踏著秤鎚硬似鐵。無佛處急走過。脚下草深三尺。三千里外逢人。不得錯舉。北斗挂須彌。恁麼則不去也。棒頭挑日月。摘楊花。摘楊花。眼裏瞳人著繡鞵。卓

拄杖下座○嘗居連江福嚴庵。食指猥眾。日食不給。庵有伽藍土偶頗眾。師揭偈於祠曰。小庵小食小叢林。土地何須八九人。若解輪番來打供。免教碎作一堆塵。是夕神致夢於山前檀越。悉如所誡(大慧杲嗣)。

臨安徑山了明禪師

身長八尺。腹大十圍。所至人必聚觀之。始大慧杲謫戍梅州。防送嚴戒。或以為禍在不測。師為荷枷以行。間關辛苦。未曾少怠。既至貶所。衲子追隨問道日眾。杲以齋飯不給。且慮禍。常勉之令去。師必不肯。以身任齋粥。每自肩拷棰行乞。到晚每聚眾數十人。為荷米麪薪蔬之屬。成列以歸。衲饒萬指。無不具足。如是者十七年如一日。杲法嗣多半在戍所接引。皆師之助也。杲被旨復僧衣。繼被旨住育王。師嘗在座下。及杲住徑山。師歸長蘆。杲送以偈曰。人言棒頭出孝子。我道憐兒不覺醜。長蘆長老恁麼來。妙喜空費一張口。從教四海妄流傳。野干能作師子吼。孰云無物贈伊行。喝下鐵圍山倒走。後奉詔住徑山。道望愈著。先是楊和王夢一異僧。長大皤腹緩行。言欲化蘇州一莊。覺而異之。未言也。翌旦師忽杖屨徒步而至。門者喝不止。以白王。王出見之。遙望師奇偉。與夢中見者無異。遽呼其眷屬出觀之。眷屬並炷香作禮。茶罷。師首言大王莊田至多。可施蘇州一莊。以為徑山供佛齋僧之利。王未有可否。因令辦齋。師飯罷便出。更無他語。時內外閤然。傳言和王以蘇州莊田。施徑山長老。遂達孝宗聖聽。會和王入朝。上為言聞卿將蘇州一莊。施捨徑山。朕當為蠲免稅賦。和王謝恩歸。次日以書致徑山。請師入城。而師於二日前。先已遷化矣。自是和王宴居寤寐之際。或少倦交睫。即見師在前語曰。六度之大。施度為先。善始善終。斯為究竟。王即以莊隸本山。此莊歲出十萬。犁牛舟車。解庫應用。百事具足。復有蠲賦之恩。久蒙其利。師於緇素有因緣。江淞兩湖。皆號之為布袋和尚再出云(大慧杲嗣)。

潭州大溈法寶禪師

福州人。上堂。喚作竹篋則觸。不喚作竹篋則背。直須師子咬人。莫學韓獪逐塊。阿呵呵。會不會。金剛脚下鐵崑崙。捉得明州憨布袋○上堂。千般言。萬種喻。祇要教君早回去。夜來一片黑雲生。莫教錯却山前路。咄(大慧杲嗣)。

福州玉泉曇懿禪師

本郡林氏子。久依圓悟。自謂不疑。紹興初。出住興化祥雲。法席頗盛。大慧杲和尚入閩。知其所見未穩。致書令來。師遲遲。杲小參。且痛斥。仍榜告四眾。師不得已。破夏謁之。杲鞫其所證。既而曰。汝恁麼見解。敢嗣圓悟老人耶。師即退院。親杲究心。一日入室。杲問我要箇不會禪的做國師。師曰。我做得國師去也。杲喝出。居無何。杲忽語之曰。香嚴悟處。不在擊竹邊。俱胝得處。不在指頭上。師乃頓悟。後住玉泉。為杲拈香。繼省杲於小溪。杲陞座。舉雲門一日拈拄杖示眾曰。凡夫實謂之有。二乘析謂之無。緣覺謂之幻有。菩薩當體即空。衲僧見拄杖子。但喚作拄杖子。行但行。坐但坐。總不得動著。杲曰。我不是雲門老人。將虛空剗窟窿。驀拈拄杖曰。拄杖子。不屬有。不屬無。不屬幻。不屬空。卓一下曰。凡夫二乘。緣覺菩薩。盡向這裏各隨根性。悉得受用。唯於衲僧分上為害為冤。要行不得行。要坐不得坐。進一步。則被拄杖子迷却路頭。退一步。則被拄杖子穿却鼻孔。即今莫有不甘底麼。試出來與拄杖子相見。如無。來年更有新條在。惱亂春風卒未休。正恁麼時。合作麼生。下座云。煩玉泉為眾拈出。師登座敘謝畢。遂舉前話曰。適來堂頭和尚。恁麼批判。大似困魚止瀨。病鳥棲蘆。若是玉泉則不然。拈拄杖曰。拄杖子能有能無。能幻能空。凡夫二乘。緣覺菩薩。卓一下曰。向這裏百雜碎。唯於衲僧分上。如龍得水。似虎靠山。要行便行。要坐便坐。進一步。則乾坤震動。退一步。則草偃風行。且道不進不退一句。作麼生道。良久曰。閑持經卷倚松立。笑問客從何處來(大慧杲嗣)。

饒州薦福悟本禪師

江州人。(悟由詳載瞿錄大慧杲章)住薦福上堂。釋迦掩室於摩竭。淨名杜口於毗耶。須菩提唱無說而顯道。釋梵絕視聽而雨華。大眾。這一隊不唧[口*留]漢。無端將祖父田園。私地結契。各據四至界分。方圍長短。一時花擘了也。致令後代兒孫。千載之下。上無片瓦蓋頭。下無卓錫之地。博山當時若見。十字路頭。掘箇無底深坑。喚來一時埋却。免見遞相鈍置。何謂如此。不見道。家肥生孝子。國霸有謀臣(大慧杲嗣)。

慶元育王大圓遵璞禪師

福州人。幼同玉泉懿問道圓悟昭覺勤數載。後還里。佐懿於莆中祥雲。紹興甲寅。杲居洋嶼。師往訊之。入室次。杲問三聖興化。出不出。為人不為人話。你道這兩箇老漢。還有出身處也無。師於杲膝上打一拳。杲曰。祇你這一拳。為三聖出氣。為興化出氣。速道速道。師擬議。杲便打。復謂曰。你第一不得忘了這一棒○後因杲室中問僧曰。德山見僧入門便棒。臨濟見僧入門便喝。雪峰見僧入門便道是恁麼。睦州見僧便道現成公案。放你三十棒。你道這四箇老漢。還有為人處也無。僧曰有。杲曰。筭。僧擬議。杲便喝。師聞遽領微旨。杲欣然許之(大慧杲嗣)。

真州靈巖東庵了性禪師

上堂。勘破了也。放過一著。是衲僧破草鞋。現脩羅相。作女人拜。是野狐精魅。打箇圓相。虛空裏下一點。是小兒伎倆。攔腮贈掌。拂袖便行。正是業識茫茫。無本可據。直饒向黑豆未生已前。一時坐斷。未有喫靈巖拄杖分。敢問大眾。且道為人節文在恁麼處。還相委悉麼。自從春色來嵩少。三十六峰青至今(大慧杲嗣)。

劍州萬壽自護禪師

上堂。古者道。若人識得心。大地無寸土。萬壽即不然。若人識得心。未是究竟處。且那裏是究竟處。拈拄杖卓一下曰。甜瓜徹蒂甜。苦瓠連根苦(大慧杲嗣)。

潭州大漚了庵景暈禪師

筠州人。上堂。雲門一曲。臘月二十五。瑞雪飄空。積滿江山塢。峻嶺寒梅花正吐。手把須彌搥。笑打虛空鼓。驚起憍梵鉢提。冷汗透身如雨。忿怒阿脩羅王。握拳當胷。問云。畢竟是何宗旨。咄。少室峰前亦曾錯舉(大慧杲嗣)。

臨安靈隱誰庵了演禪師

福州人。上堂。面門拶破。天地懸殊。打透牢關。白雲萬里。饒伊兩頭坐斷。別有轉身。三生六十劫。也未夢見在。喝一喝。下座(大慧杲嗣)。

泰州光孝致遠禪師

撫州許氏子。上堂。舉女子出定話。乃曰。從來打鼓弄琵琶。須是相逢兩會家。佩玉鳴鸞歌舞罷。門前依舊夕陽斜(大慧杲嗣)。

建康蔣山一庵善直禪師

德安雲夢人。(悟由機緣詳載瞿錄大慧杲章)出住保寧。上堂。諸佛不曾出世。人人鼻孔遼天。祖師不曾西來。箇箇壁立千仞。高揖釋迦。不拜彌勒。理合如斯。坐斷千聖路頭。獨步大千沙界。不為分外。若向諸佛出世處會得。祖師西來處承當。自救不了。一生用屈。莫有大丈夫。承當大丈夫事者麼。出來與保寧爭交。其或未然。不免拽破。便下座○一日留守陳丞相俊卿。會諸山茶話次。舉有句無句。如藤倚樹公案。令諸山批判。皆以奇語取勝。師最後曰。張打油。李打油。不打渾身只打頭。陳喜而瞻禮(大慧杲嗣)。

福州雪峰普慈蘊聞禪師

洪州沈氏子。示眾曰。旃檀叢林。旃檀回繞。師子叢林。師子圍繞。虎狼叢林。虎狼圍繞。荊棘叢林。荊棘圍繞。大眾。四種叢林。合向那一種叢林安居好。若也明得。九十日內。管取箇箇成佛作祖。其或未然。般若叢林歲歲彫。無明荒草年年長(大慧杲嗣)。

處州連雲道能禪師

漢川人。姓何氏。僧問鏡清六刮。意旨如何。師曰。穿却你鼻孔。曰學人有鼻孔即穿。無鼻孔又穿箇甚麼。師曰。抱賊叫屈(大慧杲嗣)。

臨安靈隱最庵道印禪師

漢州人。上堂。大雄山下虎。南山鼉鼻蛇等閒撞著。抱賞歸家。若也不惜好手。便與拔出重牙。有麼有麼○上堂。五五二十五。擊破虛空鼓。大地不容針。十方無寸土。春生夏長復何云。甜者甜兮苦者苦(大慧杲嗣)。

建寧竹原宗元庵主

郡之連氏子。久依大慧杲分座西禪。丞相張公浚帥三山。以數院迎師不就。歸舊里。結茆號眾妙園。宿衲士夫。交請開法。示眾。若

究此事。如失却鑰匙相似。祇管尋來尋去。忽然撞著。噫在這裏。開箇鑰了。便見自家庫藏。一切受用。無不具足。不假他求。別有甚麼事(大慧杲嗣)。

近禮侍者

三山人。久侍大慧杲。嘗默究竹篋話。無所入。一日入室罷。求指示。杲曰。你是福州人。我說箇喻向你。如將名品荔枝。和皮殼一時剝了。以手送在你口裏。祇是你不解吞。師不覺失笑曰。和尚吞却即禍事杲後又問曰。前日吞了底荔枝。祇是你不知滋味。師曰。若知滋味。轉見禍事(大慧杲嗣)。

溫州淨居尼妙道禪師

延平尚書黃公裳之女。開堂日乃曰。問話且止。直饒有傾湫之辯。倒嶽之機。衲僧門下一點用不著。且佛未出世時。一字全無。我祖西來。便有許多建立。列剎相望。星分派別。以至今日累及兒孫。遂使山僧於人天大眾前。無風起浪。向第二義門通箇消息。語默該不盡底。彌亘大方。言詮說不及處。徧周沙界。通身是眼。覲面當機。電卷星馳。如何湊泊。有時一喝。生殺全威。有時一喝。佛祖莫辨。有時一喝。八面受敵。有時一喝。自救不了。且道那一喝是生殺全威。那一喝是佛祖莫辨。那一喝是八面受敵。那一喝是自救不了。若向這裏薦得。堪報不報之恩。脫或未然。山僧無夢說夢去也。拈起拂子曰。還見麼。若見。被見刺所障。擊禪牀曰。還聞麼。若聞。被聲塵所惑。直饒離見絕聞。正是二乘小果。跳出一步。蓋色騎聲。全放全收。主賓互換。所以道。欲知佛性義。當觀時節因緣。敢問諸人。即今是甚麼時節。蕩蕩仁風扶聖化。熙熙和氣助昇平。擲拂子下座(大慧杲嗣)。

平江資壽尼無著妙總禪師(悟由詳載瞿錄大慧杲機緣章)

出家圓具。隨眾坐夏徑山。大慧杲禪師。欲激其遠到。但默而不顧。一日正危坐間。忽然大悟。洞見杲平日委曲相為處。不覺撫掌厲聲曰。這老賊。這老賊。遂呈頌曰。驀然觸著鼻孔。伎倆冰消瓦解。達磨何必西來。二祖枉施三拜。更問如何若何。一隊草賊大敗。杲亦印以偈曰。汝既悟活祖師意。一刀兩段直下了。臨機一任天真。世出世間無剩少。我作此偈為證明。四聖六凡盡驚擾。休

驚擾。碧眼胡兒猶未曉○宋孝宗乾道六年七月。集眾說偈畢。遂寂然不動。撼之則已化矣(大慧杲嗣)。

侍郎無垢居士張九成

紹興癸丑魁多士。歷官宗伯。深心參究。徧探耆宿。後謁大慧杲禪師。(悟由備載瞿錄大慧杲機緣章)徹證之日。杲特為陞座。舉昭覺勤為張昭遠為鐵剗禪。山僧却以無垢禪為神臂弓。遂授偈曰。神臂弓一發。透過千重甲。仔細拈來看。當甚臭皮靴○士頌黃龍三關曰。我手何似佛手。天下衲僧無口。縱饒撩起便行。也是鬼窟裏走○我脚何似驢脚。又被糞膠粘著。翻身直上兜率天。已是遭他老鼠藥○人人有箇生緣處。鐵圍山下幾千年。三災直上四禪天。這驢猶自在旁邊(大慧杲嗣)。

參政李邴居士

字漢老。參大慧杲。因舉柏樹子話。領悟大法。(悟由載瞿錄大慧杲章)士與教忠光禪師。在小谿雲門。有同參之契。因致光有三拜頓忘師弟子。一口吞盡佛眾生之句。為叢林傳誦。疾革。以偈寄光。倡和畢。怡然而寂(大慧杲嗣)。

寶學劉彥修居士

字子羽。出知永嘉。問道於大慧杲禪師。杲曰。僧問趙州。狗子還有佛性也無。趙州道無。但恁麼看。公後乃於柏樹子上發明。有頌曰。趙州柏樹太無端。境上追尋也不難。處處綠楊堪繫馬。家家門底透長安(大慧杲嗣)。

提刑吳偉明居士

字元昭。邵武人。久參真歇了禪師。得自受用三昧。後訪大慧杲於洋嶼庵。隨眾入室。杲舉狗子無佛性話問之。公擬答。杲以竹篋便打。公無對。遂留咨參。後因道次延平。倏然契悟。連書數頌寄杲。皆室中所問者。有曰。不是心不是佛不是物。通身一具金鎖骨。趙州親見老南泉。解道鎮州出蘿蔔。杲即說偈證之曰。通身一具金鎖骨。堪與人天為軌則。要識臨濟小廝兒。便是當年白拈賊(大慧杲嗣)。

門司黃彥節居士

字節夫。號妙德。於大慧杲一喝下疑情頓脫。杲以衣付之。嘗舉首山竹篋語。至葉縣近前奪得。拗折擲向階前曰。是甚麼。山曰瞎。士曰。妙德到這裏百色無能。但記得曾作蠟梅絕句曰。擬嚼枝頭蠟。驚香却尚蘭。前村深雪裏。莫作嶺梅看(大慧杲嗣)。

秦國夫人計氏

獨居寡處屏去紛華。常自蔬食。習有為法。因大慧杲遣謙禪者。致問其子魏公。公留謙以祖道誘之。氏一日問謙曰。徑山和尚。尋常如何為人。謙曰。和尚祇教人看狗子無佛性。及竹篋子話。祇是不得下語。不得思量。不得向舉起處會。不得向開口處承當。氏遂諦信。於是夜坐力究前話。忽爾洞然無滯。謙遂歸。氏親書入道槧略。作數偈呈杲。其一曰。逐日看經文。如逢舊識人。莫言頻有礙。一舉一回新(大慧杲嗣已上三十四人)。

福州清涼坦禪師

有僧舉大慧竹篋話請益。師示以偈曰。徑山有箇竹篋。直下別無道理。佛殿廚庫山門。穿過衲僧眼耳。其僧言下有省(育王裕嗣)。

臨安淨慈水庵師一禪師

婺州馬氏子。上堂。舉昭覺勤師翁道。參禪參到無參處。參到無參始徹頭。水庵則不然。參禪參到無參處。參到無參未徹頭。若也欲窮千里目。直須更上一層樓○上堂。凍雲欲雪未雪。普賢象駕崢嶸。嶺梅半含半開。少室風光漏泄。便恁麼去。猶是半提。作麼生是全提底事。無智人前莫說。打你頭破額裂○上堂。寂然不動。感而遂通。古人恁麼說話。大似預搔待癢。若教渠踏著衲僧關楨。管取別有生涯。喝一喝。卓拄杖下座(育王裕嗣)。

安吉州道場無庵法全禪師

姑蘇陳氏子。久依佛智。每入室。智以狗子無佛性話問之。師罔對。一日聞僧舉五祖頌。忽大悟。有偈曰。鼓吹轟轟祖半肩。龍樓香噴益州船。有時赤脚弄明月。踏破五湖波底天○上堂。拈拄杖曰。汝等諸人。箇箇頂天立地。肩橫榔栗。到處行脚。勘驗諸方。

更來這裏覓箇甚麼。纔輕輕拶著。便言天台普請。南嶽遊山。我且問你還曾收得大唐國裏寶刀麼。卓拄杖曰。切忌口銜羊角○僧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曰。天下無貧人。曰見後如何。師曰。四海無富漢○乾道己丑秋。將入寂。眾求偈。師瞪目下視。眾請益堅。遂書無無二字。棄筆而逝。火後舍利五色。塔於金斗峰(育王裕嗣)。

泉州延福寒巖慧升禪師

建寧人。上堂。喝一喝曰。盡十方世界。會十世古今。都盧在裏許。逼逼塞塞了也。若乃放開一鍼鋒許。則大海西流。巨嶽倒卓。鼃鼃魚龍。蝦蟹蚯蚓。盡向平地上涌出波瀾。游泳鼓舞。然雖如是。更須向百尺竿頭自進一步。則步步踏轉無盡藏輪。方知道鼻孔搭在上唇。眉毛不在眼下。還相委悉麼。復喝一喝曰。切忌轉喉觸諱(育王裕嗣)。

福州支提道升禪師

建安吳氏子。生有肉環。具在左乳。及出家肉環始隱。天資聰慧。十九披削。浩然有遊參志。遂至長樂。見佛智裕。入其室。言下頓悟。自是機鋒迅發。人不敢撓。泉州延以名剎。拂衣而還。作懶散歌以見志。李敦老師聞。延住支提。晚住鼓山。師持身以法。蒞眾精嚴。每見法門下衰。僧尚奔競。為之憂戚。常謂人曰。叢林荒寒。人物委靡。此事將如弓鞭節漸尖去矣○結夏後一日。忽問侍僧。今日何日。曰十六。師曰。是何日辰。曰辛卯。即入室坐脫(育王裕嗣已上五人)。

鎮江焦山或庵師體禪師

台州羅氏子。上堂。熱月須搖扇。寒來旋著衣。若言空過日。大似不知時。下座○師嘗舉苕帚柄問學者曰。依稀苕帚柄。髣髴赤斑蛇。眾皆下語不契。有僧請益。師示以頌曰。依稀髣髴。棒下無生忍。臨機不識爺○宋孝宗淳熙己亥。八月朔示微疾。染翰別郡守曾公。逮夜半。書偈辭眾曰。鐵樹開花。雄雞生卵。七十二年。搖籃繩斷。擲筆而逝(護國元嗣)。

台州國清簡堂行機禪師

本郡人。姓楊氏。風姿挺異。才壓儒林。年二十五。棄妻孥。學出世法。密有契證。獨住莞山。刀耕火種。一十七年。每謂人曰。某猶未穩在。豈以住山樂吾事耶。一日偶看斫樹倒地。忽然大悟。平昔礙膺之物。泮然冰釋。未幾有江州圓通之命。乃曰。吾道將行。即欣然曳杖而出○示眾云。觀色即空成大智。故不住生死。觀空即色成大悲。故不證涅槃。生死不住。涅槃不證。漢地不收。秦地不管。且道在甚麼處安身立命。莫是昭昭於心目之間。而相不可覩。晃晃於色塵之內。而理不可分麼。莫是起坐鎮相隨。語默同居止麼。若恁麼。總是觸體前敲磕。須知過量人。自有過量用。且作麼生是過量用。北斗藏身雖有語。出羣消息少人知(護國元嗣)。

常州華藏湛堂智深禪師

武林人。佛涅槃日上堂。兜率降生。雙林示滅。掘地討天。虛空釘橛。四十九年。播土揚塵。三百餘會。納盡敗缺。儘力布網張羅。未免喚龜作鼈。末後拘尸城畔。擲示雙趺。傍人冷眼看來。大似弄巧成拙。卓拄杖曰。若無這箇道理。千古之下。誰把口說。且道是甚麼道理。癡人面前。切忌漏泄(護國元嗣)。

參政錢端禮居士

字處和。號松窗。從此庵淨發明己事。淳熙丙申冬。簡堂機歸住平田。遂通往來○丁酉秋示疾。修書延機。及國清瑞巖主僧。有訣別之語。機與二禪詣榻次。公起趺坐。言笑移時而書曰。浮世虛幻。本無去來。四大五蘊。必歸終盡。雖佛祖具大威德力。亦不能免這一著子。天下老和尚。一切善知識。還有跳得過者無。蓋為地水火風。因緣和合。暫時湊泊。不可錯認為己。有大丈夫。磊磊落落。當用處把定。如順風使帆。上下水皆可。今吾如是。豈不快哉。塵勞外緣。一時掃盡。荷諸山垂顧。咸賜證明。伏惟珍重。置筆顧機曰。某坐去好。臥去好。堂曰。相公去便了。理會甚坐與臥耶。公笑曰。法兄當為祖道自愛。遂斂目而逝(護國元嗣已上四人)。

慶元東山全庵齊己禪師

邛州謝氏子。上堂。舉修山主偈曰。是柱不見柱。非柱不見柱。是非已去了。是非裏薦取。召大眾曰。薦得是。移華兼蝶至。薦得非。擔泉帶月歸。是也好。鄭州梨勝青州棗。非也好。象山路入蓬萊島。是亦沒交涉。踏著秤錘硬似鐵。非亦沒交涉。金剛寶劍當頭

截。阿呵呵。會也麼。知事少時煩惱少。識人多處是非多(靈隱遠嗣)。

臨安靈隱濟顛道濟禪師

浙江天台人。宋高宗李駙馬之後。父茂春。官春坊贊善。母王氏。夢吞日光而生。年甫十八。二親俱喪。投靈隱瞎堂遠公出家。得其密印。後居淨慈。放曠不羈。言行叵測。淫坊酒肆。不避譏嫌。時號為濟顛○臨終作偈曰。六十年來狼籍。東壁打倒西壁。於今收拾歸來。依舊水連天碧。入滅後數日。有僧遇於六和塔下。復附書歸。後有頌曰。看不著。錯認箆籬是木勺。昨夜三更月正西。麒麟撼斷黃金索。幼年曾到鴈門關。老去分明醉眼看。憶昔面前當一箭。至今猶自骨毛寒。祇因面目無人識。又往天台走一番(靈隱遠嗣)。

撫州疏山歸雲如本禪師

台城人也。上堂。久雨不晴。戊壬丙丁。通身泥水。露出眼睛。且道是甚麼眼睛。卓拄杖曰。林間泥滑滑。時叫兩三聲(靈隱遠嗣)。

日本叡山覺阿上人

族姓膝。年十四。於本國出家受具。習大小乘教有聲。二十九聞商者言中國禪宗之盛。阿航海來謁佛海遠禪師。遠問其來。阿輒書而對。復書曰。我國無禪宗。惟講五宗經論。國主無姓氏。今捨位出家。名行真。年四十四。王子七歲受位。已五載。度僧無進納。而講義高者賜之。某因仰服聖朝遠公禪師之名。特詣丈室。願傳心印。以度迷津。且如心佛及眾生。是三無差別。離相離言。假言顯之。禪師如何開示。遠曰。眾生虛妄見。見佛見世界。阿書曰。無明因何而有。遠便打。阿即請遠陞座決疑。明年秋。辭遊金陵。抵長蘆江岸。聞鼓聲。忽大悟。始知遠之垂手旨趣。旋靈隱。述五偈敘所見。辭遠東歸。其偈之首章曰。航海來探教外傳。要離知見絕蹄筌。諸方參徧草鞋破。水在澄潭月在天。遠稱善。書偈贈行。歸本國。住叡山寺。洎通嗣法書。而遠已入寂矣(靈隱遠嗣)。

內翰雙開居士

字天游。歷參昭覺勤大慧杲之門久矣。紹興中。佛海遠。補三衢光孝。士與超然居士趙公。訪之。問曰。如何是善知識。遠曰。燈籠露柱。貓兒狗子。士曰。為甚麼贊即歡喜。毀即煩惱。遠曰。侍郎曾見善知識否。士曰。某三十年參問。何言不見。遠曰。向歡喜處見。煩惱處見。士擬議。遠震聲便喝。士擬對。遠曰。開口底不是。士惘然。遠召曰。侍郎向甚麼處去也。士猛省。遂點頭說偈曰。咄哉瞎驢。叢林妖孽。震地一聲。天機漏泄。有人更問意如何。拈起拂子劈口截。遠曰。也祇得一橛(靈隱遠嗣)。

知府葛郊居士

字謙問。號信齋。少擢上第。留心禪悅。首謁無庵全禪師。求指南。全令究即心即佛。久無所契。請曰。師有何方便。使某得入。全曰。居士太無厭生。已而佛海遠居劍池。士因從遊。乃舉無庵所示之語。請為眾普說。遠發揮之曰。即心即佛眉拖地。非心非佛雙眼橫。蝴蝶夢中家萬里。子規枝上月三更。留旬日而後返。一日舉不是心不是佛不是物。豁然頓明。頌曰。非心非佛亦非物。五鳳樓前山突兀。艷陽影裏倒翻身。野狐跳入金毛窟。無庵肯之。即遣書頌呈佛海遠。遠曰。此事非紙筆可既。居士能過我。當有所聞矣。遂復至虎丘。遠迎之曰。居士見處。止可入佛境界。入魔境界。猶未得在。士加禮不已。遠正容曰。何不道金毛跳入野狐窟。士乃痛領法旨。一士嘗問諸禪者。夫婦二人相打。兒子作證。且道證父即是。證母即是。或庵體禪師著語曰。小出大遇○宋孝宗淳熙六年。守臨川有仁政。至八年感疾。一日忽索筆書偈曰。大洋海裏打鼓。須彌山上聞鐘。業鏡忽然撲破。翻身透出虛空。召僚屬示之曰。生之與死。如晝與夜。無足怪者。若以道論。安得生死。若作生死會。則去道遠矣。語畢端坐而化(靈隱遠嗣已上六人)。

臨安徑山別峰寶印禪師

嘉州李氏子。依密印於中峰。一日印舉僧問巖頭。起滅不停時如何。巖叱曰。是誰起滅。師契悟。印首肯。會圓悟勤歸昭覺。印遣師往省。因隨眾入室。勤問從上諸聖以何接人。師豎拳。勤曰。此是老僧用底。作麼生是從上諸聖用底。師以拳揮之。勤亦舉拳相交。大笑而止。後至徑山謁大慧杲。杲問甚處來。師曰。西川。杲曰。未出劍門關。與汝三十棒了也。師曰。不合起動和尚。杲忻然掃室延之○住保寧上堂。三世諸佛。以一句演百千萬億句。收百千萬億句祇在一句。祖師門下。半句也無。祇恁麼合喫多少痛棒。諸

仁者。且諸佛是。祖師是。若道佛是祖不是。祖是佛不是。取捨未忘。若道佛祖一時是。佛祖一時不是。顛預不少。且截斷葛藤一句。作麼生道。大虫裹紙帽。好笑又驚人○上堂。將心除妄妄難除。即妄明心道轉迂。桶底趯穿無忌諱。等閒一步一芙蓉○師住徑山。一日宋孝宗召對選德殿。稱旨。入對曰。賜肩輿於東華門內。上注圓覺經。遣使馳賜。命作序。師年邁。益厭住持。辭入山居○紹興元年十一月。師往辭交承智策禪師。與之言別。策問行日。師曰。水到渠成。索紙書十二月初七夜鷄鳴時九字。如期而化。奉蛻質返寺之法堂。留七日。顏色明潤。髮長頂溫。詔謚慈辨禪師。塔曰智光(華嚴民嗣)。

浩州鳳棲慧觀禪師

上堂。前村落葉盡。深院桂華殘。此夜初冬節。從茲特地寒。所以道。欲識佛性義。當觀時節因緣。時節若至。其理自彰。喝一喝。恁麼說話。成人者少。敗人者多(昭覺元嗣)。

潭州楚安慧方禪師

本郡許氏子。參道禪師於大別。未幾改寺為神霄宮。附商舟過湘南。舟中聞岸人操鄉音厲聲曰。叫那。由是有省。即說偈曰。沔水江心喚一聲。此時方得契平生。多年相別重相見。千聖同歸一路行○住後上堂。臨老方稱住持。全無些子玄機。開口十字九乖。問東便乃答西。如斯出世。討甚玄微。有時拈三放兩。有時就令而施。雖然如是。同道方知。且道知底事作麼生。直須打翻鼻孔始得(文殊道嗣)。

常德文殊思業禪師

世為屠宰。一日戮猪次。忽洞徹心源。即棄業為比丘。述偈曰。昨日夜叉心。今朝菩薩面。菩薩與夜叉。不隔一條線。往見文殊道禪師。道曰。你正殺猪時。見箇甚麼。便乃剃頭行脚。師遂作鼓刀勢。道喝曰。這屠兒。參堂去。師便下參堂○住文殊日上堂。舉趙州勘婆話。乃曰。勘破婆子。面青眼黑。趙州老漢。瞞我不得(文殊道嗣已上二人)。

婺州雙林德用禪師

本郡戴氏子。上堂曰。拈槌豎拂。祖師門下。將黃葉以止啼。說妙譚玄。衲僧面前。望梅林而止渴。際山今日。去却之乎者也。更不指東畫西。向三世諸佛命脈中。六代祖師骨髓裏。盡情傾倒。為諸人說破。良久曰。啼得血流無用處。不如緘口過殘春(雲居悟嗣)。

台州萬年無著道閑禪師

本郡洪氏子。上堂。全機敵勝。猶在半途。啐啄同時。白雲萬里。纔生朕兆。已落二三。不露鋒鋞。成何道理。且道從上來事。合作麼生。誣人之罪。以罪加之(雲居悟嗣)。

福州中際善能禪師

嚴陵人。往來龍門雲居有年。未有所證。一日普請次。高庵悟忽以貓兒擲師懷中。師擬議。悟攔胸踏倒。於是大事洞明○上堂。萬古長空。一朝風月。不可以一朝風月。昧却萬古長空。不可以萬古長空。不明一朝風月。且道如何是一朝風月。人皆畏炎熱。我愛夏日長。薰風自南來。殿閣生微涼。會與不會。切忌承當(雲居悟嗣)。

南康雲居普雲白圓禪師

緜州雍氏子。年十九。試經得度。後詣龍門。一日於廊廡間。覩繪胡人有省。夜白高庵悟。悟舉法眼偈曰。頭戴貂鼠帽。腰懸羊角錐。語不令人會。須得人譯之。復策火示之曰。我為汝譯了也。於是大法明了。呈偈曰。外國言音不可窮。起雲亭下一時通。口門廣大無邊際。吞盡楊岐栗棘蓬。悟遣師依佛眼。眼謂曰。吾道東矣○上堂。舉僧問雲門如何是透法身句。門曰。北斗裏藏身。師曰。南北東西萬萬千。乾坤上下兩無邊。相逢相見呵呵笑。屈指擡頭月半天(雲居悟嗣已上四人)。

成都信相戒修禪師

上堂。舉馬祖不安公案。乃曰。兩輪舉處煙塵起。電激星馳擬何止。目前不礙往來機。正令全施無表裏。丈夫意氣自衝天。我是我兮你是你。遂下座(黃龍忠嗣)。

袁州慈化普庵印肅禪師

宜春余氏子。母黃。生時祥光燭天。蓮生道路。或現阡陌。及長。夢僧點其胸曰。汝他日當自省。既寤白母。視胸有赤點如含桃。年十五。投壽隆賢公出家。賢授以法華。師曰。諸佛玄旨。貴悟於心。數墨循行。何益於道。賢大異之。俾服勤七載。始獲剃染圓具。尋謁牧庵於瀉山。問萬法歸一。一歸何處。庵豎拂示之。有省○師初受慈化請。雖乘願而出。濟物利生。猶日以所詣為未足。脇不沾席者十二年。一日閱華嚴合論。至達本情忘。知心體合。豁然大悟。述偈曰。捏不成團撥不開。何須南嶽又天台。六根門首無人用。惹得胡僧特地來。俄有僧稱道存。自蜀冒雪而來。師曰。此吾不請友也。遂相徵詰。棒喝交馳。心心密契。僧曰。師再來人也。大興吾道。非師而誰。因指雪書偈而別。自是異跡不可勝紀。或謂修何行業而得此。師當空畫一畫曰。會麼。曰不會。師曰。止止不須說。嘗自贊曰。蒼天蒼天。悟無生法。談不說禪。開兩片皮。括地談天。如何是佛。十萬八千○宋孝宗乾道五年。七月二十一日。書偈曰。乍雨乍晴寶象明。東西南北亂雲橫。失珠無限人遭劫。幻應權機為汝清。書畢坐逝。有語錄四卷。其釋談章。被諸絃管。用備梵唱。世稱普庵呪云(黃龍忠嗣已上二人)。

隨州大洪老衲祖證禪師

潭州潘氏子。上堂。萬象之中獨露身。如何說箇獨露底道理。豎起拂子曰。到江吳地盡。隔岸越山多○僧問雲門問僧。光明寂照徧河沙。豈不是張拙秀才語。僧云是。門云。話墮也。未審那裏是這僧話墮處。師曰。鮎魚上竹竿○問離却言句。請師直指。師豎拂子。僧曰。還有向上事也無。師曰有。僧曰。如何是向上事。師曰。速禮三拜(大滄果嗣)。

潭州大滄行禪師

上堂。橫拄杖曰。你等諸人。若向這裏會去。如紀信登九龍之輦。不向這裏會去。似項羽失千里烏騅。饒你總不恁麼。落在無事甲裏。若向這裏撥得一路。轉得身。吐得氣。山僧與你拄杖子。遂靠拄杖下座○上堂。不是心。不是佛。不是物。且道是箇甚麼。不在內。不在外。不在中間。畢竟在甚麼處。苦苦。有口說不得。無家何處歸(大滄果嗣)。

荊門玉泉窮谷宗璉禪師

合州董氏子。上堂。拈拄杖曰。破無明暗。截生死流。度三有城。泛無為海。須是識這箇始得。乃召大眾曰。喚作拄杖則觸。不喚作拄杖則背。若也識得。荊棘林中撒手。是非海裏橫身。脫或未然。普賢乘白象。土宿跨泥牛。參○上堂。舉一切數句非數句。與吾靈覺何交涉。師曰。永嘉恁麼道。大似含元殿上。更覺長安。殊不知有水皆含月。無山不帶雲。雖然如是。三十年後。趙婆酤醋(大滄果嗣)。

潭州道林淵禪師

僧問鐘未鳴。鼓未響。拓鉢向甚麼處去。德山便低頭歸方丈。意旨如何。師曰。奔電迸火。曰巖頭道。這老漢未會末後句在。又作麼生。師曰。相隨來也。曰巖頭密啟其意。未審那裏是他密啟處。師曰。萬年松在祝融峰。曰雖然如是。祇得三年。三年後果遷化。還端的也無。師曰。嚙呢嚙喇吽囉吽○師臨示寂。上堂。拈拄杖示眾曰。離却色聲言語。道將一句來。眾無對。師曰。動靜聲色外。時人不肯答。世間出世間。畢竟使誰會。言訖倚杖而逝(大滄果嗣)。

隆興泐潭山堂德淳禪師

上堂。俱胝一指頭。一毛拔九牛。華嶽連天碧。黃河徹底流。截却指。急回眸。青箬笠前無限事。綠蓑衣底一時休(大滄果嗣)。

常州宜興保安復庵可封禪師

福州林氏子。上堂。天寬地大。風清月白。此是海宇清平底時節。衲僧家等閑問著。十箇有五雙知有。祇如夜半華嚴池吞却楊子江。開明橋撞倒平山塔。是汝諸人還知麼。若也知去。試向非非想天。道將一句來。其或未知。擲下拂子曰。須是山僧拂子始得(大滄果嗣)。

隆興野庵祖璿禪師

上堂。喫粥了也未。趙州無忌諱。更令洗鉢盂。太煞沒巴鼻。悟去由來不丈夫。這僧那免受塗糊。有指示。無指云。韶石四楞渾塌地。入地獄如箭射。雲岫清風生大廈。相逢攜手上高山。作者應須辨真假。真假分。若為論。午夜寒蟾出海門(大滄果嗣)。

潭州石霜宗鑒禪師

上堂云。送舊年。迎新歲。動用不離光影內。澄輝湛湛夜堂寒。借問諸人會不會。若也會。增瑕類。若不會。依前昧。與君指箇截流機。白雲更在青山外(大滄果嗣已上八人)。

南康雲居蓬庵德會禪師

重慶府何氏子。上堂。舉教中道。若見諸相非相。即見如來。作麼生是非相底道理。佯走詐羞偷眼覷。竹門斜掩半枝華(石頭回嗣)。

潭州慧通清旦禪師

蓬州嚴氏子。初出關。至德山。值泰上堂。舉趙州曰。臺山婆子。已為汝勘破了也。且道意在恁麼處。良久曰。就地撮將黃葉去。入山推出白雲來。師聞釋然。翼日入室。泰問前百丈不落因果。因甚麼墮野狐。後百丈不昧因果。因甚麼脫野狐。師曰。好與一坑埋却。○師嘗頌酒糟話。荊棘林中宣妙義。蒺藜園裏放毫光。千言萬語無人會。又逐流鶯過短牆(佛性泰嗣)。

澧州靈巖仲安禪師

上堂。參禪不究淵源。觸途盡為留礙。所以守其靜默證寂虛閒。墮在毒海。以弱勝強。自是非他。立人我量。見處偏枯。遂致優劣不分。照不搆用。用不離窠。此乃學處不玄。盡為流俗。到這裏須知有殺中透脫。活處藏機。佛不可知。祖莫能測。所以古人道。有時先照後用。且要共你商量。有時先用後照。你須是箇漢始得。有時照用同時。你又作麼生抵當。有時照用不同時。你又向甚麼處湊泊。還知麼。穿楊箭與驚人句。不是臨時學得來(佛性泰嗣)。

成都正法灝禪師

上堂。舉永嘉到曹谿一宿因緣。乃曰。要識永嘉麼。掀翻海嶽求知己。要識祖師麼。撥動乾坤建太平。二老不知何處去。卓拄杖曰。宗風千古播嘉聲(佛性泰嗣)。

成都昭覺辯禪師

上堂。毫釐有差。天地懸隔。隔江人唱鷓鴣詞。錯認胡笳十八拍。要會麼。欲得現前。莫存順逆。五湖煙浪有誰爭。自是不歸歸便得(佛性泰嗣已上四人)。

平江覺報清禪師

上堂。舉僧問雲門。如何是諸佛出身處。門曰。東山水上行。師曰。諸佛出身處。東山水上行。石壓筍斜出。崖懸華倒生(道場辨嗣)。

安吉何山然首座

姑蘇人。侍正堂辨久之。入室次。辨問貓兒為甚麼偏愛捉老鼠。曰。物見主。眼卓豎。堂欣然。因命分座(道場辨嗣已上二人)。

義烏稠巖了贊禪師

上堂。舉趙州狗子無佛性話。乃曰。趙州狗子無佛性。萬疊青山藏古鏡。赤脚波斯入大唐。八臂那吒行正令。咄(何山珣嗣)。

待制潘良貴居士

字義榮。年四十。回心祖闡。所至挂鉢。隨眾參扣。在佛燈珣禪師座下。久參不契。後看南泉斬貓話問珣。言下有省。頌曰。自己貓兒。久已走失。別人家貓。問之可惜。落花流水。恁他唐突(何山珣嗣已上二人)。

漢州無為隨庵守緣禪師

本郡人。姓史氏。年十三病目。往依棲禪慧目能禪師。圓具出峽。至寶峰。值峰上堂。舉永嘉曰。一月普現一切水。一切水月一月攝。師聞釋然領悟○上堂。以一統萬。一月普現一切水。會萬歸一。一切水月一月攝。展則彌綸法界。收來毫髮不存。雖然收展殊途。此事本無異致。但能於根本上著得一隻眼去。方見三世諸佛。歷代祖師。盡從此中示現。三藏十二部。一切脩多羅。盡從此中流出。天地日月。萬象森羅。盡從此中出立。三界九地。七趣四生。盡從此中出沒。百千法門。無量妙義。乃至世間工巧諸伎藝。盡現行此事。所以世尊拈華。迦葉便乃微笑。達磨面壁。二祖於是安

心。桃華盛開。靈雲疑情盡淨。擊竹作響。香嚴頓忘所知。以至盤山於肉案頭悟道。彌勒向魚市裏接人。誠謂造次顛沛必如是。經行坐臥在其中。既有如是奇特。更有如是光輝。既有如是廣大。又有如是周徧。你輩諸人。因甚麼却有迷有悟。要知麼。幸無偏照處。剛有不明時(泐潭明嗣)。

南康雲居頑庵德昇禪師

漢州何氏子。二十得度。習講久之。棄謁文殊道禪師。問佛法省要。殊示偈曰。契丹打破波斯寨。奪得寶珠村裏賣。十字街頭窮乞兒。腰間掛箇風流袋。師擬對。殊曰。莫錯。師退參三年。方得旨趣。往見佛性機不投。入閩至鼓山禮覲。便問國師不跨石門句。意旨如何。竹庵應聲喝曰。閑言語。師即領悟○僧問應真不借三界高超即不問。如何是無位真人。師曰。聞時富貴。見後貧窮。曰擡頭須掩耳。側掌便翻身。師曰。無位真人。在甚麼處。曰老大宗師。話頭也不識。師曰。放你三十棒(竹庵珪嗣)。

通州狼山蘿庵慧溫禪師

福州人。姓鄭氏。參竹庵於東林。未幾會庵徙閩之乾元。師往省次。庵問情生智隔。想變體殊。不用停囚長智。道將一句來。師乃釋然。述偈曰。拶出通身是口。何妨罵雨訶風。昨夜前村猛虎。咬殺南山大虫。庵首肯。住後上堂。釋迦老子。四十九年。坐籌帷幄。彌勒大士。九十一劫。帶水拖泥。凡情聖量。不能剷除。理炤覺知。猶存露布。佛意祖意。如將魚目作明珠。大乘小乘。似認橘皮為猛火。諸人須是豁開胷襟寶藏。運出自己家珍。向十字街頭。普施貧乏。眾中忽有箇靈利漢出來道。美食不中飽人喫。山僧祇向他道。幽州猶自可。最苦是新羅(竹庵珪嗣已上二人)。

吉州青原如禪師

僧問達磨未來時如何。師曰。生鐵鑄崑崙。曰來後如何。師曰。五彩畫門神(白楊順嗣)。

太平隱靜圓極彥岑禪師

台城人。上堂。舉正堂辨和尚。室中問學者。蚯蚓為甚麼化為百合。師曰。客舍并州已十霜。歸心日夜憶咸陽。無端更度桑乾水。

却望并州是故鄉(雲居如嗣)。

鄂州報恩成禪師

上堂。秋雨乍寒。汝等諸人。青州布衫成就也未。良久喝曰雲溪今日冷處著一把火。便下座(雲居如嗣已上二人)。

遂寧西禪希秀禪師

上堂。秋光將半。暑氣漸消。鴻鴈橫空。點破碧天似水。猿猱挂樹。撼翻玉露如珠。直饒對此明機。未免認龜作鼈。且道應時應節一句。作麼生道。野色併來三島月。溪光分破五湖秋(西禪璉嗣)。

饒州薦福退庵休禪師

上堂。風動邪。旛動邪。風鳴邪。鈴鳴邪。非風鈴鳴。非風旛動。此土與西天。一隊黑漆桶。誑惑世間人。看看滅胡種。山僧不柰何。趁後也打闕。瓠子曲彎彎。冬瓜值儻侗(烏巨行嗣)。

信州龜峰晦庵慧光禪師

建寧人。上堂。數日暑氣如焚。一箇渾身無處安著。思量得也是煩惱人。這箇未是煩惱。更有己躬下事不明。便是煩惱。所以達磨大師煩惱。要為諸人吞却。又被咽喉小。要為諸人吐却。又被牙齒礙。取不得。捨不得。煩惱九年。若不得二祖不惜性命。往往轉身無路。煩惱教死。所謂祖禰不了。殃及兒孫。後來蓮華庵主。到這裏煩惱不肯。住南嶽思大。到這裏煩惱不肯下山。更有臨濟德山。用盡自己查梨。煩惱鉢盂無柄。龜峰今日為他閑事長無明。為你諸人從頭點破。卓拄杖一下曰。一人腦後露腮。一人當門無齒。更有數人鼻孔沒半邊。不勞再勘。你諸人休向這裏立地瞌睡。殊不知家中飯籬鍋子。一時失却了也。你若不信。但歸家檢點看(烏巨行嗣)。

真州長蘆且庵守仁禪師

越之上虞人。依烏巨行禪師。聞普說曰。今之兄弟做工夫。正如習射。先安其足。後習其法。後雖無心。以久習故。箭發皆中。喝一喝云。祇今箭發也。看看。師不覺倒身作避箭勢。忽大悟○上堂。

百千三昧。無量妙門。今日且庵不惜窮性命。祇做一句子說與諸人。乃卓拄杖下座(烏巨行嗣已上三人)。

溫州淨居尼無相法燈禪師

上堂。拈拄杖卓曰。觀音出。普賢入。文殊水上穿靴立。擡頭鷄子過新羅。石火電光追不及。咄(淨居溫嗣)。

台州萬年心聞曇賁禪師

永嘉人。住江心。病起上堂。維摩病。說盡道理。龍翔病。咳[口*敕]不已。咳[口*敕]不已。說盡道理。說盡道理。咳[口*敕]不已。汝等諸人。還識得其中意旨也未。本是長江湊風冷。却教露柱患頭風○四明太守。以雪竇延師主之。師辭以偈曰。開籃方喜得抽頭。退鼓而今打未休。莫把乳峰千丈雪。重來換我一雙眸(育王謚嗣)。

南劍西巖宗回禪師

婺州人。久依無示。深得法忍。因寺僧以茶禁聞有司。吏捕知事。師謂眾曰。此事不直之。則罪坐於我。若自直。彼復得罪。不忍為也。令擊鼓陞座說偈曰。縣吏追呼不暫停。爭如長往事分明。從前有箇無生曲。且喜今朝調已成。言訖坐逝(育王謚嗣)。

慶元天童慈航了朴禪師

福州人。上堂。酷暑如焚不易禁。炎炎赫赫欲流金。夜明簾外無人到。靈木迢然轉綠陰○上堂。德山入門便棒。臨濟入門便喝。臨濟喝處。德山棒頭耳聾。德山棒時。臨濟喝下眼瞎。雖然一搥一擡。就中全生全殺。遂喝一喝。卓拄杖一下云。敢問諸人。是生是殺。良久曰。君子可入(育王謚嗣)。

臨安龍華無住本禪師

廣德人。上堂。舉雲門大師拈起胡餅曰。我祇供養兩淞人。不供養向北人。眾無語。門自代曰。天寒日短。兩日人共一碗。師曰。韶陽老漢。言中有響。痛處著錐。檢點將來。翻成毒藥。諸人要會

麼。半在河南半河北。一片虛凝似墨黑。冷地思量愁殺人。叵耐雲門者老賊。賊賊。下座。更不巡堂(育王謚嗣)。

高麗坦然國師

少嗣王位。欽向宗乘。因海商方景仁抵四明。錄無示謚語歸。師閱之契悟。即棄位圓顱。作書以語要及四威儀偈。令景仁寄呈謚。謚答曰。佛祖出興於世。無一法與人。實使其自信自悟。自證自到。具大知見。如所見而說。如所說而行。山河大地。草木叢林。相與證明。其來久矣(育王謚嗣)。

臨江東山吉禪師

因李朝請問家賊惱人時如何。師曰。誰是家賊。李豎起拳。師曰。賊身已露。李曰。莫茶糊人好。師曰。賊證現在。李無語。師示以偈曰。家賊惱人孰奈何。千聖回機祇為他。徧界徧空無影跡。無依無住絕籠羅。賊賊。猛將雄兵收不得。疑殺天下老禪和。笑倒寺中古彌勒。休休。不用將心向外求。回頭瞥耳賊身露。和賊捉獲世無儔。真可仰。從茲不復誇伎倆。怙怙安家樂業時。萬象森羅齊撫掌(育王謚嗣已上六人)。

杭州靈隱懶庵道樞禪師

吳興四安徐氏子。初住何山。次移華藏。隆興初。詔居靈隱。孝宗召至內殿。問禪道之要。師答曰。此事在陛下堂堂日用應機處。本無知見起滅之分。聖凡迷悟之別。第護正念。則與道相應。上為之首肯。後退居明教水安蘭若。逍遙自適。嘗有偈題於壁上。雪裏梅花春信悉。池中月色夜精神。年來可是無佳趣。莫把家風舉似人○淳熙丙申八月示微疾。書偈而逝。塔於永安(道場慧嗣)。

廣德光孝悟初首座

分座日示眾。舉風旛話至仁者心動處。乃曰。祖師恁麼道。賺殺一船人。今時衲僧也不可恁麼會。既不恁麼會。畢竟作麼生。良久曰。六月好合醬。切忌著鹽多(光孝愍嗣)。

曹洞宗

慶元天童長翁如淨禪師

生而岐嶷。不類常童。長學出世法。參足庵鑑公於雪竇。看庭前柏樹子話有省。呈頌曰。西來祖意庭前柏。鼻孔寥寥對眼睛。落地枯枝纔[跳-兆+孛]跳。松蘿亮鬲笑掀騰。鑑頷之。出世屢主名剎。勅住天童。開爐上堂。召眾打圓相曰。箇是天童火爐。近前則燒殺。退後則凍殺。忽有箇漢出來道。合作麼生因。火爐動也。便下座○上堂。霜風號肅殺。霜葉隨蕭[颭-台+(癸-天+虫)]。舉拂曰。看。惟有玲瓏巖。崔嵬望轉高。所謂天童滯貨。今朝短販一遭。莫有酬價底麼。下座巡寮○上堂。外不放入。內不放出。痛下一槌。萬事了畢。如何太白峰前令斬新。內外紀綱俱委悉○上堂。陸修靜。陶淵明。文殊普賢。作圓相曰。咦。一款具呈。且道憑誰批判。若是孔夫子。吾無隱乎爾○師六坐道場。未言稟承。眾有是請。師曰。我待涅槃堂裏拈出。臨終果拈香曰。如淨行脚四十餘年。首到乳峰。失脚墮於陷穽。此香今不免拈出。鈍置我住雪竇足庵大和尚。并書辭世頌曰。六十六年。罪犯彌天。打箇[跳-兆+孛]跳。活陷黃泉。咦從來死生不相干。擲筆而逝。塔全身於本山(雪竇鑒嗣)。

東谷光禪師

上堂。舉船子覆舟因緣。頌曰。藏身處沒蹤跡。無影樹頭靈鳥宅。沒蹤跡處莫藏身。不萌枝上春花坼有來由。誰辨的。天曉西風拂拂吹。松釵一徑爭拋擲○拈僧問曹山靈衣不挂時如何。山曰。曹山今日孝滿。曰孝滿後如何。曰曹山好顛酒。頌曰。曹山顛酒有誰諳。醉語誑言不自慚。夜半日頭當午照。騎牛背面著靴衫○頌韶國師問龍牙。天不能蓋。地不能載。曰大海心中泛鐵船。隨波逐浪浪滔天。順風到岸無人識。江北從來使鐵錢(華藏祚嗣)。

雲門宗

溫州光孝已庵深禪師

本郡人。上堂。龍生龍。鳳生鳳。老鼠養兒沿屋棟。達磨大師不會禪。歷魏遊梁乾打閨○上堂。一九二九。相逢不出手。三九二十七。籬頭吹鬻栗。翻憶小釋迦。雙手抱屈膝。知不知。實不實。摩訶般若波羅蜜。維摩默然。普賢廣說。歷代聖人。互呈醜拙。君不見落花三月子規啼。一聲聲是一點血○上堂。風蕭蕭。葉飄飄。雲片片。水茫茫。江干獨立向誰說。天外飛鴻三兩行○師品行高卓。

每與同參靈隱蘊衷禪師。往來酬唱。深歎末法。難乎其人。勘驗諸方。並無當意衲子。遂不付法嗣。雲門一宗。自師而止矣。(中竺妙嗣)。

續指月錄卷一

續指月錄卷二

六祖下十八世

臨濟宗

慶元天童密庵咸傑禪師

閩之福州人。族姓鄭。母夢廬山老僧入舍而生。自幼穎悟。出家後究心禪理。不憚遊行。徧參知識。後謁應庵華和尚於衢之明果。華孤硬難入。屢遭訶。一日華問如何是正法眼。師遽答曰。破沙盆。華領之。未幾辭回省親。華送以偈曰。大徹投機句。當陽廓頂門。相從今四載。徵詰洞無痕。雖未付鉢袋。氣宇吞乾坤。却把正法眼。喚作破沙盆。此行將省覲。切忌便垛根。吾有末後句。待歸要汝遵(玉林琇頌云踢過眼生盲棒來頭裂破迅鷁趁生禽癡廬敲枯骨○堯峯月函潛頌云千金蕩盡一無存衣食終朝取別人不是五陵真俠骨回頭猶戀舊頭巾)○上堂。牛頭橫說豎說。不知有向上關楨子。有般漆桶輩。東西不辨。南北不分。便問如何是向上關楨子。何異是開眼尿牀。華藏有一轉語。不在向上向下。千手大悲。摸索不著。雨寒無處曬眼。今日普請布施大眾。良久曰。達磨大師。無當門齒○上堂。舉婆子燒庵話。師曰。者箇公案。叢林中少有拈提者。今日傑上座裂破面皮。不免納敗闕一上。也要諸方簡點。乃召大眾。者婆子洞房深穩。水洩不通。偏向枯木上糝花。寒灰中發燄。箇僧孤身迴迴。慣入洪濤。等閑坐斷潑天潮。到底身無涓滴水。子細簡點將來。敲枷打鎖。則不無二人若是佛法未夢見在烏巨與麼提持。畢竟意歸何處。良久曰。一把柳絲收不得。和煙搭在玉欄杆○上堂。盡乾坤大地喚作一句子。擔枷帶鎖。不喚作一句子。業識茫茫。兩頭俱透脫。淨僂僂。赤灑灑。沒可把達磨一宗。掃土而盡。所以雲門大師道。盡乾坤大地。無纖毫過患。猶是轉句。不見一法。始是半提。更須知有全提底時節。大小雲門。劍去久矣。方乃刻舟○上堂。一箇葫蘆纔倒地。滿地葫蘆盡傾倒。欲識單傳直指禪。今日鬪湊得恰好○僧問虛空消殞事如何。師曰。罪不重科○師晚年退居天童之太白峰。鉗錘訓誨。學者雲集。後無疾坐逝。門人建塔於山之中峰(天童華嗣)。

衢州光孝百拙善登禪師

和州烏江閔氏子。上堂。白日開浩浩。夜後靜悄悄。長廊走波波。步步無欠少。不識主人翁。全身入荒草。撞著傅大士。問訊維摩

老。臥疾毗耶城。幾箇知天曉。若是過量人。不向那邊討。為作麼如此。喝一喝。下坡不走。快便難逢(天童華嗣)。

南書記

福州人。久依應庵華禪師。於趙州狗子無佛性話參歷有年豁然契悟。偈曰。狗子無佛性羅喉星入命。不是打殺人。被人打殺定。華稱其脫略。紹興初。示寂於歸宗(天童華嗣)。

侍郎李浩居士

字德遠。號正信。幼閱楞嚴。如遊舊國。志而不忘。後造明果。投誠入室。應庵華禪師提其胸曰。侍郎死後。向甚麼處去。士駭然汗下。華喝出。士退參。不旬日。徑躋堂奧。華深許可。以偈寄同參嚴康朝曰。門有孫臏舖。家存甘贄妻。夜眠還早起。誰悟復誰迷○有鬻胭脂者。亦久參華。頗自負。士贈之偈曰。不塗紅粉自風流。往往禪徒到此休。透過古今圈襪後。却來者裏喫拳頭(天童華嗣)。

教授嚴康朝居士

湖州長興人。見應庵華得旨。頌曰。趙州狗子無佛性。我道狗子佛性有。驀然言下自知歸。從茲不信趙州口。著精神。自抖擻。隨人背後無好手。騎牛覓牛笑殺人。如今始覺從前謬(天童華嗣已上五人)。

泉州法石中庵慧空禪師

贛州蔡氏子。立春日。上堂。拈拄杖卓一下曰。先打春牛頭。又卓一下曰。後打春牛尾。驚起虛空。入藕絲裏。釋迦無路潛蹤。彌勒急走千里。文殊却知落處。拊掌大笑歡喜。且道歡喜箇甚麼。春風昨夜入門來。便見千華生碓碁○上堂。千家樓閣。一霎秋風。祇知襟袖涼生。不覺園林葉落。於期薦得。觸處全真。其或未然。且作寒溫相見○上堂。舉金剛經佛告須菩提。爾所國土中。所有眾生若干種心。如來悉知。何以故。如來說諸心。皆為非心。是名為心。要會麼。春風得意馬蹄疾。一日看盡長安花○僧問先佛垂範。禁足安居。未審是何宗旨。師曰。瑠璃鉢內拓須彌。僧便喝。師便打(教忠光嗣)。

臨安淨慈混源曇密禪師

天台盧氏子。十六圓具。習台教棄去。參大慧杲於徑山。復叩泉州教忠光和尚。一日光舉香巖擊竹因緣。豁然契悟。述偈呈光。光舉玄沙未徹話詰之。無滯。光乃囑曰。子今可見妙喜矣。師秉命即往梅陽。服勤四載○住淨慈上堂。諸佛出世。打劫殺人。祖師西來。吹風放火。古今善知識。佛口蛇心。天下衲僧。自投籠檻。眾中莫有天然氣槩。特達丈夫。為宗門出一隻手。主張佛法者麼。良久曰。設有也須斬為三段○上堂。舉雲門問僧光明寂照徧河沙因緣。師曰。平地撈魚蝦。遼天射飛鶚。跛足老雲門。千錯與萬錯(教忠光嗣)。

吉州青原信庵唯禪禪師

福之長樂李氏子。年十有一歲。出閩依盱江禪悅廣公為童子。閱五白。始獲僧服。一日廣以佛國白公五十三知識頌。授諸維那。師侍其傍。聞止住林。有時要見十方佛。無事閒觀一片心之句。便得要領。廣異其根利。俾還閩謁佛心才。及東禪果西禪需諸老。時晦庵光住龜山。師往叩。一日夜半摸索淨巾次。恍然大徹。黎明趨方丈通其所證。呈偈曰。業識茫茫。本無所據。昨日三更。回頭一覷。一段靈光。本來獨露。光不覺解顏頷之○復出嶺見萬庵顏於番陽薦福。入室次。應對敏捷。顏厲聲曰。者福州子。被人教壞了也。一眾駭愕○復往梅陽見大慧杲。杲曰。如何是佛。師曰。覲面相逢。更無別法。杲曰。如何保任。師曰。飢來喫飯。困來打眠。既而隨杲北還。杲一日問曰。許多人入室。幾人道得著。幾人道不著。師曰。唯禪只管看。杲忽展手曰。我手何似佛手。師曰。天寒。且請和尚通袖。杲據打一竹篋曰。且道是賞你罰你。師遂以頌發揮佛祖機緣十數則。呈杲。其世尊初生頌曰。撞出頭來早自錯。那堪開口更稱尊。當時若解深藏舌。免得閒愁到子孫。杲為之擊節○紹熙三年壬子。五月十九日示疾。書偈曰。末後一句。覲面分付。擬議思量。世諦流布。遂跏趺而逝(教忠光嗣已上三人)。

荊州公安遯庵祖珠禪師

南平人。上堂。不是心。不是佛。不是物。瀝盡野狐涎。趯翻山鬼窟。平田淺草裏。露出焦尾大虫。太虛寥廓中。放出遼天俊鶻。阿呵呵。露風骨。等閒拈出眾人前。分明是何物。咄咄○上堂。玉露垂青草。金風動白蘋。一聲寒雁叫。喚起未惺人(東林顏嗣)。

汀州報恩法演禪師

果州人。上堂。舉俱胝豎指因緣。師曰。佳人睡起懶梳頭。把得金釵插便休。大抵還他肌骨好。不塗紅粉也風流(東林顏嗣)。

臨安淨慈肯堂彥充禪師

於潛盛氏子。首參大愚大圓諸老。後聞東林應庵顏禪師。嘗謂眾曰。我此間別無玄妙。祇有木扎羹。鐵釘飯。任你齧嚼。師竊喜之。造謁陳所見。顏曰。據汝見處。正坐在鑒覺中。師於是憤然。將從前所得底。一時颺下。一日聞僧舉南泉時人見此一株華。如夢相似。默有所契。乃曰。打草祇要驚蛇耳。次日入室。顏問那裏是巖頭密啟其意處。師曰。今日捉敗者老賊。顏曰。達磨大師性命在汝手裏。師擬開口。驀被攔胸一拳。忽大悟。直得汗流浹背。點首自謂曰。臨濟道黃檗佛法無多子。豈虛語耶。遂述頌曰。為人須為徹。殺人須見血。德山與巖頭。萬里一條鐵。顏然之○上堂。世尊不說說。迦葉不聞聞。卓拄杖曰。水流黃葉來何處。帶寒鴉過遠村○上堂。舉雪峰示眾曰。盡大地是箇解脫門。把手拽不入。師曰。大小雪峰。話作兩橛。盡大地是箇解脫門。用拽作麼○上堂。一向與麼去。法堂前草深一丈。一向與麼來。脚跟下泥深三尺。且道如何即是。三年逢一閏。鷄向五更啼(東林顏嗣)。

婺州智者元庵真慈禪師

潼川人。姓李氏。出家圓具。後遊講肆。聽講圓覺。至四大各離。今者妄身。當在何處。畢竟無體。實同幻化。因而有省。作頌曰。一顆明珠。在我者裏。撥著動著。放光動地。以呈諸講主。無能曉之者。因南游。至廬山圓通挂搭。時元庵顏禪師為西堂。為眾入室。舉僧問雲門撥塵見佛時如何。門曰。佛亦是塵。師隨聲便喝。以手指胷曰。佛亦是塵。問了答了。直下翻身。勸君更盡一杯酒。西出陽關無故人。顏深領之○頌塵塵三昧曰。鉢裏飯。桶裏水。別寶崑崙坐潭底。一塵塵上走須彌。明眼波斯笑彈指。笑彈指珊瑚枝上清風起(東林顏嗣)。

成都昭覺紹淵禪師

上堂。鎔瓶盤釵釧作一金。攪酥酪醞醐成一味。如是賓主道合。內外安和。五位君臣齊透。四種料揀一串。放行。則細雨濛濛。秋風颯颯。把住。則空空如也。誰敢正眼覷著。且道放行為人好。把住為人好。等閒一似秋風至。無意涼人人自涼(東林顏嗣)。

徽州簡上座

參大慧杲於徑山。時已庵顏禪師為首座。一日為眾入室。顏問曰。一二三四五六七。明眼衲僧數不出。你試數看。師便喝。顏曰。七六五四三二一。你又作麼生。師擬對。顏便打出曰。你且莫亂道。師於言下有省。遽呈偈曰。你且莫亂道。皮毛卓豎寒。只知梅子熟。不覺鼻頭酸○頌狗子無佛性話曰。趙州老漢。渾無面目。言下乖宗。神號鬼哭(東林顏嗣已上六人)。

福州鼓山木庵安永禪師

閩縣吳氏子。弱冠為僧。未幾謁懶庵需於雲門。一日入室次。需曰。不問有言。不問無言。世尊良久。不得向良久處會。隨後便喝。師當下契悟。作禮曰。不因今日問。爭喪目前機。顏許可之。住後上堂。拈拄杖。臨濟小廝兒。未曾當面道著。木庵今日全身放憨。也要諸人知有。擲拄杖下座○僧問須彌頂上。翻身倒卓時如何。師曰。未曾見毛頭星現。曰恁麼則傾湫倒嶽去也。師曰。莫亂做。僧便喝。師曰。雷聲浩大。雨點全無(西禪需嗣)。

溫州龍翔柏堂南雅禪師

上堂。瑞峰頂上。棲鳳亭邊。一杯淡粥相依。百病蒙頭打坐。二祖禮三拜。依位而坐。已是周遮。達磨老臊胡。分盡髓皮。一場狼籍。其餘之輩。何足道哉。柏堂恁麼道。還免諸方簡責也無。拍繩牀。不合停囚長智(西禪需嗣)。

福州天王志清禪師

上堂。豎起拂子云。者箇。天不能蓋。地不能載。徧界徧空。成團成塊。到者裏。三世諸佛向甚麼處摸索。六代祖師向甚麼處提持。天下衲僧向甚麼處名邈。除非自得自證。便乃敲唱雙行。雖然如是。未是衲僧行履處。作麼生是衲僧行履處。是非海裏橫身入。豺虎叢中縱步行(西禪需嗣)。

南劍劍門安分庵主

謁徑山大慧。行次江干。仰瞻宮闕。聞街司喝侍郎來。釋然大悟。作偈曰。幾年箇事挂胷懷。問盡諸方眼不開。肝膽此時俱裂破。一

聲江上侍郎來。遂仍返西禪。懶庵迎之。付僧伽黎。後庵居劍門。化被嶺表(西禪需嗣已上四人)。

臨安靈隱妙峰之善禪師

吳興劉氏子。高曾祖父。皆登膺仕。師生紈綺中。資性高潔。年十三。即辭家祝髮。經論一見。輒了大意。參佛照光於鄖山。以風旛話契旨。印之以偈。有今日與君通一線。斬釘截鐵起吾宗之句。復遊衡湘。還入匡廬。卓錫妙高峰下。面壁十年。學者尊之曰。妙峰禪師。後分座於鴈山能仁。晚居靈隱。密邇行闕。輪蹄湊集。師掩戶無所將迎。公卿貴人。一或見之。寒溫而已。會天童虐席。時鄭清之秉鈞軸。具疏勸請。勉師必赴。師曰。老僧年踰耄矣。尚夜行不休乎。辭弗就。靈隱上堂。舉雲門普請搬柴次。乃拋下柴片曰。一大藏教。祇說者箇。大小雲門。只見錐頭利。不見鑿頭方。示眾。久參高士。眼空四海。鼻孔撩天。見也見得親。說也說得親。行也行得親。用也用得親。只是未識老僧拄杖子在。何故。將成九仞之山。不進一簣之土。端平二年。師將示寂。澡身趺坐。書偈曰。來也如是。去也如是。來去一如。清風萬里。書畢而逝。壽八十四。臘七十一。火浴獲舍利不可數計。瘞於靈隱之西岡(育王光嗣)。

臨安淨慈退谷義雲禪師

福州黃氏子。幼業儒。既冠。遊國學。因讀中庸有所悟入。祝髮具戒後。佛照光為之印可。住淨慈上堂。奔流度刃。疾飮過風。啐啄同時。崖州萬里。有底道。如人學射。久習則巧。殊不知未穀已前中的。早涉迂回了也。趙州到茱萸。靠却拄杖即且置。只如孚上座道。聖箭折也。意作麼生。喝一喝。若不同牀睡。焉知被底穿。上堂。舉首山拈竹篋示眾曰。喚作竹篋則觸。不喚作竹篋則背。汝等諸人。喚作甚麼。葉縣省近前掣竹篋拗作兩橛。拋向階下。却曰是甚麼。山曰瞎。省便禮拜。師曰。臨濟一宗。掃土而盡。開禧二年五月示寂(育王光嗣)。

臨安北磻敬叟居簡禪師

潼川王氏子。閱卅庵語有省。後參佛照光禪師。機契。追隨甚久。出世天台報恩光孝。退居飛來峰之陰。大參真西山。時為江東部使者。以東林雲居力致之。師高臥不起。後奉旨遷淨慈。上堂。識者

一。萬事畢。了事衲僧。一字不識。直饒恁麼。未稱全提。禹力不到處。河聲流向西○上堂。舉趙州一日入僧堂曰。有賊有賊。見一僧便捉住曰。賊在者裏僧曰不是。某甲。州托開曰。是即是。祇是你不宜承當師曰。趙州收處太危。放去太急。淨慈則不然。家賊難防。家財必喪。卓拄杖。只可錯捉。不可錯放○頌世尊初生話曰。一聲哇地便吒哩。突出如斯大闡提。此土西天起殃害。堂堂洗土不成泥淳祐丙午春示疾。索筆書偈。紙尾復書四月一日珍重六字。至期。假寤寐而逝。壽八十三。臘六十二。葬全身於月堂昌禪師塔側。遵遺命也。有北磻集十九卷行世(育王光嗣)。

臨安徑山浙翁如琰禪師

台州周氏子。上堂。拈拄杖。蔣山喚者箇作拄杖子。諸人亦喚者箇作拄杖子。還有緇素也無。闌干雖共倚。山色不同觀○維摩贊曰。毗耶示疾放憨癡。添得時人滿肚疑。不是文殊親勘破。者些毛病有誰知(育王光嗣)。

福州東禪性空智觀禪師

上堂。舉鹽官國師因僧問如何是本身盧舍那。國曰。與老僧過淨瓶來。僧將淨瓶至。國曰。却安舊處著。僧再問。國曰。古佛過去久矣。師曰。盲者難以與乎文彩。瞶者難以與乎音聲。者僧既不薦來機。國師只成空設。雲門道。無朕迹。扶國師不起。雪竇曰。直得一手指天。一手指地。爭得扶也扶國師不起。以拂子畫一畫。前來葛藤。一時畫斷。且道如何是本身盧舍那。擲拂子下座(育王光嗣)。

湖州上方朴翁義銛禪師

上堂。舉趙州因僧問狗子還有佛性也無。州曰無。師頌曰。狗子佛性無。還他大丈夫。是非雖入耳。壁上挂葫蘆○贊達磨像曰。一言已出駟難追。賴得君王放過伊。楊子江心航折葦。浪頭何似問頭危(育王光嗣)。

臨安靈隱鐵牛印禪師

上堂。舉南泉示眾曰。王老師自小養一頭水牯牛。擬向溪東放。不免食他國王水草。向溪西放。亦不免食他國王水草。不如隨分納些

些。總不見得。頌曰。不如隨分納些些。喚作平常事已差。綠草溪邊頭角露。一蓑煙雨屬誰家(育王光嗣)。

慶元育王空叟宗印禪師

西蜀人。上堂。據虎頭。收虎尾。第一句下明宗旨。直饒句下宗旨明。拈來猶較十萬里。何故。大慧祖師於此懸羊頭。賣狗肉。佛照老人於此冒姓名。佃官田。小比丘來坐斷芳塵。畢竟如何施設。拈拄杖。平生無所有。只此一枝藤○上堂。大道坦然。離名離相。剷除則失旨。建立則乖宗。從上佛祖。古今知識。顯大機。彰大用。盡是關空鎖夢。過犯彌天。印上座裂破面皮。還免得麼。良久拍禪牀曰。不入驚人浪。難逢稱意魚(育王光嗣)。

慶元育王秀崑師瑞禪師

上堂。舉道吾和尚曰。高不在絕頂。富不在福嚴。樂不在天堂。苦不在地獄。相識滿天下。知心能幾人。大慧和尚曰。高在絕頂。富在福嚴。樂在天堂。苦在地獄。誰知蓆帽下。元是舊時人。大眾。二大老隨機應用即不無。若是衲僧門下。未夢見在。且道衲僧門下作麼生。良久云。不是知音者。徒勞話歲寒○上堂。舉灌溪參臨濟。濟搗住灌溪。溪曰。領領。濟乃托開。師頌曰。雨散雲收後。崔嵬數十峰。倚闌頻顧望。回首與誰同○上堂。舉演化大師問報慈。如何是真如佛性。慈曰。誰無。化不契。復請益護國。國曰。誰有。師曰。誰無誰有全機道。言下翻身不唧[口*留]。直饒未舉已先行。錯認簸箕作熨斗。阿呵呵。若人自解倒騎驢。一生不著隨人後(育王光嗣)。

慶元天童無際了派禪師

上堂。三五十五。月圓當戶。然雖匝地普天。要且秋毫不露。對景憑誰話此心。令人翻憶寒山子○上堂。諸人十二時中。上來下去。折旋俯仰。起居問訊。瞞崇恩一點不得。只今坐立儼然。賓主交參。面面相覷。崇恩亦瞞諸人一點不得。既然彼此不相瞞。為什麼自作障礙。喝一喝。因風吹火。用力不多○上堂。釋迦老子。昔向今辰。入大寂定。堪笑天下叢林。刻舟求劍。二千餘年。區區不已。崇恩今日不動神機。捩轉瞿曇鼻孔。不圖打草驚蛇。只要大家相見。汝等諸人。各宜仔細觀瞻。莫教錯過。遂合掌曰。不審不審(育王光嗣)。

慶元天童海門師齊禪師

嘗口誦華嚴。詣各殿堂行香。及回方丈。已畢全部。行香告眾。眾皆不信。師乃令八十一人。各執一卷。師陞座誦一卷畢。其八十一人。各聞誦自所執經。始知師為華嚴菩薩應世云(育王光嗣)。

江州雲居率庵梵琮禪師

上堂。舉百丈野狐話。頌曰。百丈野狐。石女無夫。一回淚出。滄海乾枯○浴佛上堂。且喜今朝降獨尊。率庵無物慶生辰。只將一霎薔薇露。洗出湖山淨法身(育王光嗣)。

慶元育王孤雲權禪師

上堂。舉僧問雪峰。古礪寒泉時如何。峰曰。瞪目不見底。僧曰。飲者如何。峰曰。不從口入。又問趙州古礪寒泉時如何。州曰苦。僧曰。飲者如何。州曰死。師曰。一人隨波逐浪。一人截斷眾流。檢點將來。總欠會在。今日有問育王。古礪寒泉時如何。祇對他道。須是親見雪峰。飲者如何。問取趙州(育王光嗣)。

石庵正杲禪師

得法於育王。後歸湖上。偈曰。鳥不驚飛水不流。碧潭空闊冷涵秋。一絲頭上無香餌。風輓蘆花落釣舟(育王光嗣共十四人)。

福州鼓山宗逮禪師

上堂。世尊道。應如是知。如是見。如是信解。不生法相。喝一喝。玉本無瑕却有瑕(東禪嶽嗣)。

臨安徑山德灝禪師

號寓庵。興化人。初住徑山。至山門彈指一下。便入(東禪嶽嗣)。

福州鼓山石庵知昭禪師

僧問坐斷雲山事已彰。可憐雲水自茫茫。今日石門通一線。端然衣錦便還鄉。還鄉一曲作麼生唱。師曰。罕遇知音。曰祇如未跨石門

一句。作麼生道。師曰。百雜碎。曰已跨石門。又作麼生。師曰。依舊却囑圖。曰直得大頂峰點頭。鼓山劣崩震動。師曰。未為分外。曰祇今晏國師。撫掌呵呵大笑曰。幸得與老師相見去也。師曰。不是冤家不聚頭。僧禮拜。師曰。放汝三十棒○上堂。語是謗。默是誑。不語不默。轉增虛妄。喝一喝。春風吹落桃李華。淡煙疏雨籠青嶂(東禪嶽嗣已上三人)。

慶元育王笑翁妙堪禪師

慈谿毛氏子。參無用全禪師於天童。全問曰。行脚僧。遊山僧。師曰。行脚僧。全曰。如何是行脚事。師以坐具便搥。全曰。此僧敢來者裏捋虎鬚。俾參堂去○用室中每示狗子無佛性話。一日師擬開口。全以竹篋劈口便[翟*支]。師應聲呈偈曰。大塗毒鼓。轟天震地。轉腦回頭橫屍萬里。全領之。即命侍香。已而報恩約公至。請師分座。太守程公。請出住妙勝。未幾詔住靈隱。衛王以大慈完美。請師開山。及王薨。師庵居上柏。台州使君陳公。以瑞巖邀師。無何江心牒至。監丞史公強之乃起。淨慈詔下。丐辭不允。大參余公書來。不可重違君命○明年荊湖總臣。奏令僧道買紫衣師號。俾以師號住持。師謂若是。則千金之子。皆可主法。我道殆矣。奏疏殿陛。上書廟堂。其議遂寢○詔徙天童。力辭。東歸翠巖。築室。奉先世香火○育王虛席。復有旨起師。再辭不許。乃奉詔。上堂。膏雨及時。江山如洗。幽鳥語喬林。殘紅隨流水。可憐盲聾瘡痂人。不識此方真教體○後天童除書再至。大參趙公。復請主淨慈。悉謝之。示疾書遺表。作寺丞張公書。請主後事。通守永嘉曹公來問疾。從容敘世契。移頃書偈曰。業鏡高懸。七十二年。一槌擊碎。大道坦然。置筆泊然而逝(天童全嗣)。

臨安靈隱石鼓希夷禪師

上堂。舉瑯琊覺法華舉相見公案。頌曰。聞名不如見面。見面不如聞名。此地無金二兩。俗人沽酒三升○上堂。舉南泉曰。文殊普賢。昨夜三更。起佛見法見。每人與三十棒。趁出院也。趙州曰。和尚棒。教誰喫。南泉曰。且道王老師過在甚麼處。趙州禮拜而出。頌曰。春風吹落碧桃華。一片流經十萬家。誰在畫樓沽酒處。相邀來喫趙州茶(天童全嗣)。

幽州盤山思卓禪師

上堂。拈拄杖曰。登山涉水。全藉者人。擲拄杖曰。相見易得好。共住難為人○上堂。寂寂惺惺。有氣死人。惺惺寂寂。無用頑石。嘻。下載清風付與誰(天童全嗣)。

慶元雪竇野雲處南禪師

上堂。百計推尋。永不見面。一時休去。在處逢渠。長連牀上。喫粥喫飯。取飽為期。我且問你。常住一粒米。是幾番過手○上堂。斬釘截鐵。特地乖張。就下平高。衲僧笑具。皇覺到此。有理難伸未審諸公如何理論(天童全嗣)。

福州雪峰滅堂了宗禪師

上堂。空索索。冷冰冰。清虛之理。畢竟無身。為什麼却有許多煙雨。會得麼。若會得。七種供養諸人。若會不得。滴水難消(天童全嗣)。

相國錢象祖居士

初守金陵。嘗遊保寧。問道於無用全公。有所契入。後於鄉里建接待十所。皆以淨土極樂名之。創止庵為棲息之所。自左相辭歸。精修淨業○嘉定二年。閏二月得微疾。有問起居者。則曰不貪生。不怖死。不生天上。不生人中。惟當往生淨土耳。言訖。趺坐而化(天童全嗣已上六人)。

臨州乾元宗穎禪師

上堂。卓拄杖。性燥漢。祇在一槌。靠拄杖。伶俐人。不勞再舉。而今莫有伶俐底麼。良久曰。比擬張麟。免亦不遇(西禪淨嗣)。

興化華嚴別峰雲禪師

西禪印證後。初住福州支提。遷福泉華嚴。上堂。千種言。萬般解。只要教君長不昧且道不昧箇什麼。喚作竹篋則觸。不喚作竹篋則背。○上堂。彌勒大士。朝入伽藍。暮成正覺。總似者般鈍漢。有甚用處。直饒隔山望見支提雙童峰。便回去。脚跟下好與三十(西禪淨嗣)。

福州中濟無禪立才禪師

上堂。舉趙州和尚喫茶去話。頌曰。趙州逢人喫茶。誰知事急出家。翻手作雲作雨。順風撒土撒沙。引得洞山無意智。問佛也道三斤麻○讀此庵語錄偈曰。南海波斯持密呪。千言萬語少人知。春風一陣來何處。吹落桃華三四枝(西禪淨嗣已上三人)。

湖州何山月窟慧清禪師

上堂。舉天台韶國師初參法眼。因僧問法眼。如何是曹源一滴水。眼曰。是曹源一滴水。韶聞豁然開悟。頌曰。曹源一滴水。相罵饒接[此/束]。鷄省空啾啾。驊騮已千里(華藏演嗣)。

建寧仙州山吳十三道人

每以已事叩諸禪伯。茫無入路。及參開善謙得法。後結茅於其左。遂往給侍○紹興庚申三月八日夜。釋然啟悟。呈偈曰。元來無縫罅。觸著便光輝。既是千金寶。何須彈雀兒。善答曰。啐地折時真慶快。死生凡聖盡平沈。仙州山下呵呵笑。不負相期宿昔心(開善謙嗣)。

如如居士顏丙

有僧舉南泉有主沙彌話問。士以頌答之曰。解把一莖茅草。喚作丈六金身。會得頭頭皆是道。眼中瞳子面前人○頌子湖狗話曰。貧家無所有。只養一隻狗。便是佛出來。也須遭一口(雪峯然嗣)。

明州育王妙智從廓禪師

閩之長溪林氏子。幼穎悟。喜聞出世法。十五祝髮受具。時閩中多有道之士。悉往從之遊。後依大圓。圓門風孤峻。始齟齬。久之豁然有得。服勤數載。大圓撫之。以為類已。後出世育王。孝宗詔舍利入禁中供養。親覩殊勝。召對碧琳堂。帝問舍利從何發現。師奏曰。從陛下聖心發現。上大悅○晚年建庵於烏石。杜門不與世接。示微恙而逝(育王璞嗣)。

慶元天童息庵達觀禪師

義烏趙氏子也。初參應庵。次見無庵於道場。後於淨慈水庵室中。明得二老垂手處。一語破的而返。至龍翔柏堂分第一座○後閱四剎。被旨陞靈隱。上堂。舉二祖問達磨安心公案。頌曰。長安深夜雪漫漫。欲覓心安轉不安。總使言前開活眼。那知已被老胡謾(淨慈一嗣)。

袁州仰山簡庵嗣清禪師

上堂。舉達磨大師一日謂門人曰。時將至矣。汝等盍各言所得乎。最後慧可出禮三拜。依位而立。磨曰。汝得吾髓。師頌曰。捏目生華立問端。得他皮髓被他謾。者般瞎漢能多事。六月無霜也道寒(淨慈一嗣已上二人)。

常州華藏伊庵有權禪師

臨安昌化祁氏子。年十四得度。十八歲參禮佛智裕於靈隱。時無庵全居第一座。室中以從無住本。建一切法問之。師久而有省。答曰。暗裏穿鍼。耳中出氣。庵可之。遂密付心印。嘗夜坐達旦。行粥者至。忘展鉢。鄰僧以手觸之。師感悟。說偈曰。黑漆崑崙把釣竿。古帆高挂下驚湍。蘆花影裏弄明月。引得盲龜上釣船○佛智嘗問心包太虛。量廓沙界時如何。師曰。大海不宿死屍。智撫其座曰。此子他日。當據此座。呵佛罵祖去在。師益自韜晦。復見應庵華於歸宗。參大慧杲於徑山。泊無庵全禪師住道場。命師分座○上堂。今朝結却布袋口。明眼衲僧莫亂走。心行滅處解翻身。噴嚏也成獅子吼。旃檀林。任馳驟。剔起眉毛頂上生。剝肉成瘡露家醜○淳熙庚子秋。示微疾。書偈趺坐而逝。茶毗齒舌不壞。獲五色舍利無數。葬於橫山。餘骸塔萬年寺左(道場全嗣)。

明州天童癡鈍智穎禪師

舉達磨見武帝因緣。頌曰。提起須彌第一鎚。玉關金鎖擊難開。重施背踏空勞力。應悔迢迢萬里來(焦山體嗣)。

鎮江金山退庵道奇禪師

僧問雪峰道。望州亭與汝相見了也。意旨如何。師曰。左眼半斤。曰烏石嶺與汝相見了也。作麼生。師曰。右眼八兩。曰僧堂前與汝相見了也。又且如何。師曰。鼻孔大頭向下。曰只如鵝湖驟步入方

丈。保福入僧堂。此意又作麼生。師曰。水向石邊流出冷。風從華裏過來香(徑山印嗣)。

婺州三峰印禪師

上堂。舉百丈野狐話。頌曰。不落不昧。誣人之罪。不昧不落。無繩自縛。可憐柳絮隨春風。有時自西還自東(雙林用嗣)。

慶元徑山蒙庵元聰禪師

福州朱氏子。晦庵會中得心要。眾推為高弟。慶元三年。自福之雪峰。被旨遷徑山。上堂。舉藥山首造石頭之室。便問三乘十二分教。某甲麤知。嘗聞南方直指人心。見性成佛。實未明了。伏望指示。頌曰。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總不得。子作麼生。山罔措。頭曰。子因緣不在此。且往馬大師處去。山稟命禮馬祖。仍申前問。祖曰。我有時教伊揚眉瞋目。有時不教伊揚眉瞋目。有時揚眉瞋目者是。有時揚眉瞋目者不是。汝作麼生。山於言下契悟。便禮拜。祖曰。汝見甚麼道理。便禮拜。山曰。某甲在石頭。如蚊子上鐵牛。祖曰。汝既如是。善自護持。師頌曰。倒腹傾腸說向伊。不知何故尚遲疑。只今便好猛提取。莫待天明失却雞○上堂。舉玄沙見僧禮拜次。乃曰。因我得禮你。頌曰。因我得禮你。莫放屁撒尿。帶累天下人。錯認自家底(龜峯光嗣)。

平江萬壽月林師觀禪師

俗姓黃。福州侯官人。僧問三聖道。逢人則出。出則不為人。意作麼生。師曰錯。曰興化道。逢人則不出。出則便為人。意作麼生。師曰錯。僧曰。興化旗鎗倒卓。三聖肝膽齊傾。師曰。引不著。曰只如今日和尚作麼生為人。師曰。一棒一條痕(大洪證嗣)。

常德德山子涓禪師

潼川人也。上堂。見見之時。見非是見。見猶離見。見不能及。喝一喝。鯨吞海水盡。露出珊瑚枝。眾中忽有箇衲僧出來道。長老休寐語。却許伊具一隻眼(大滄行嗣)。

萬松壞衲大璉禪師

讚出山相偈曰。行滿功圓徹骨窮。不勝羸瘦髮鬢鬆。彌天罪過今無數。毗舍耶中一款供(雲居會嗣)。

溫州龍鳴在庵賢禪師

上堂。舉崇壽示眾曰。識得凳子。周匝有餘。雲門道。識得凳子。天地懸殊。師曰。崇壽老漢。坐殺天下人。雲門大師。走殺天下人。龍鳴則不然。識得凳子。四脚著地。要坐便坐。要起便起(萬年賁嗣)。

潭州大洩唌庵鑑禪師

會稽人。上堂。木落霜空。天寒水冷。釋迦老子。無處藏身。折東籬。補西壁。撞著不空見菩薩。請示念佛三昧。也甚奇怪。却向道。金色光明雲。參退喫茶去○上堂。舉蜀賓國王問師子尊者蘊空公案。頌曰。尊者何曾得蘊空。蜀賓徒自斬春風。桃華雨後已零落。染得一谿流水紅(萬年賁嗣)。

慶元瑞巖景蒙禪師

溫之平陽邵氏子。年十三祝髮。習台教。知名相之學。不足了大事。去參育王裕。裕問師鄉里。師曰。永嘉。曰還識永嘉大師否。師未及答。批頰而出。寢食不安者累月。忽聞鐘聲而悟。即造室中。裕復理前問。師曰。即日恭惟和尚尊體。起居萬福。裕曰。如何是向上事。師擬對被逐。次日再造室次。裕方發問。師抗聲曰。老漢今日敗關也。一拍而出。裕歎曰。俊哉○因省母歸里。龍翔賁一見深器之。問曰。言無展事話不投機承言者喪滯句者迷祇如言詮不及處。如何通箇消息。師以左手畫一圓相。賁以拂子擊左。師又畫以右手。賁以拂子擊右。師又畫於手中。以兩手拓呈。賁以拂子當中畫一畫。師禮拜而立。賁大笑曰。三十年揀苗。今日得此烏喙。遂令執侍。盡揭底蘊(萬年賁嗣)。

慶元天童雪庵從瑾禪師

永嘉楠溪人。俗姓鄭。禮普安院子回落髮。謁心聞賁於瑞巖。一日入室。賁舉紅爐片雪問。師擬答。忽領旨。留侍三年。入閩。見佛智於西禪。問甚處來。師曰。四明。智曰。曾見憨布袋麼。師便喝。智便打。師接住拳曰。和尚不得草草。智曰。瞎漢過者邊立。

時賁主江心。師歸省。命充維那。一日問師。一喝分賓主。照用一時行。如何是一喝分賓主。師便喝。賁曰。者一喝是賓是主。師曰。賓則始終賓。主則始終主。賁笑曰。汝又眼花了。師即呈偈曰。一喝分賓主。依然又眼花。倒翻筋斗去。踏殺死蝦蟆○慶元六年七月二十三日。索浴更衣。書偈投筆而寂。壽八十四。臘七十。全身葬心聞賁禪師塔右(萬年賁嗣○已上四人○此據箬庵存稿補入又查覺浪所著禪燈正宗所載直翁淨嗣亦同名同號機緣一則附刊備考○雪庵從瑾禪師僧請益倩女離魂話師示以頌曰南枝向暖北枝寒何事 春風有兩般憑杖高樓莫吹笛大家留取倚闌干)。

曹洞宗

襄州鹿門覺禪師

參長翁淨禪師。值淨上堂。舉靈雲見桃花悟道因緣。頌曰。一箇烏梅似本形。蜘蛛結網打蜻蜓。蜻蜓落了兩邊翅。堪笑烏梅齧鐵釘。師不覺失笑曰。早知燈是火。飯熟幾多時。後承印記。出住鹿門。示眾曰。盡大地是學人一卷經。盡乾坤是學人一隻眼。以這箇眼。讀如是經。千萬億劫。常無間斷。諸人還看讀得麼。如看讀得。老僧請他喫箇無米油糍○嘗作五位正偏頌曰。正中偏。月黑雲籠午夜天。佛祖無踪凡聖盡。箇中誰辨往來源○偏中正。金井玉盤秋水冷。海天紅日已生東。餘輝不照毗盧頂○正中來戴角披毛知幾回。應物轉身全得妙。雲收終不露崔嵬○兼中至。覲面誰能容擬議。手提妙印不當風。大用繁興豈凝滯○兼中到。無舌童兒方會道。撥塵何處得逢渠。撒手回途還得妙(天童淨嗣○近有位中符禪師博極羣書。查有鹿門覺親見芙蓉楷機緣云。覺問。筌筌曲子。不墮五音。韻出青霄。請師吹唱。楷曰。木雞啼夜半。鐵鳳叫天明。覺曰。恁麼則一句。曲含千古韻。滿堂雲水盡知音。楷曰。無舌童兒能繼和。覺曰。作家宗師人天眼目。楷曰。禁取兩片皮。覺從此契悟。位中所著大統竟削去傳燈丹霞真歇宗珏足庵如淨五世。但傳燈入藏已久。指月盛行於世。即位中向年所刻洞宗續燈及拈頌諸本皆遞代相承並未改削。一旦以北直僧塌來青州塔記忽翻舊案。謂天童淨下鹿門覺。即是芙蓉楷下淨因覺。夫淨因嗣芙蓉。五燈中自有列傳。及上堂法語與鹿門何涉。誤併兩人為一人。不知有何所據。紊亂世次。余深痛之。近讀鼓山霈和尚辨謬一書。知位中所據青州塔記其偽有三。夫塔記既是自敘。何以略於問道機緣而詳於出處。歲月無他。不過以歲月為辨論張本是其所長耳。其偽一也。又敘得法原由。而於本師師翁師伯皆直叱其名曰。政和間參襄州鹿門自覺。覺使見芙蓉楷。道經鄧州得謁丹霞淳迹。此數語乃是老師大衲為後生晚輩作傳口氣。豈是自敘之詞。不過以見芙蓉丹霞為改鹿門為淨因之張本耳。其偽二也。又敘示寂顛末云。皇統九年臘八親書塔記十二亥刻示寂。試問此

數語為是未死之先預為敘耶。抑亦死後復起再敘耶。其偽三也。有此三偽。乃欲據削從上五代世系。位中欲借以欺人而不知實自欺耳。蓋代人草創潤色是位中平日手段。如青州辨無機緣便作出一段機緣。鹿門覺上堂語便安入淨因章中。安知其不能改塔記乎。若塔記果是恁麼說話。則此記亦不足信矣。何況彼之謬書乎。是編也。悉從傳燈世系指月定本相次而成。並不譎譎。讀者其識諸)。

續指月錄卷二

六祖下十九世

臨濟宗

夔州臥龍破庵祖先禪師

蜀之廣安王氏子。從羅漢院德祥出家。聞緣老宿住昭覺。往參扣語契。令奉圓悟香火。一日從方丈前過。緣問庵頭有人麼。師云。無人。語未竟。緣劈胸與一拳云。你甞。師忽有省。出峽依澧州德山涓公祝髮受具。徧叩諸方。抵蘇之萬壽。值雪夜坐。自念行脚數年。未得悟徹。正悶悶間。忽見鐘動趨後架。舉首見照堂二字。疑情頓釋。既而見水庵一於雙林。水曰。師子尊者。被罽賓斬却頭且置。你道西天胡子。為什麼無鬚。師曰。非雙林不舉此話。水曰。作家禪客。師曰。心不負人。面無慚色。水遂以手拓開。師曰。勘破了也。迨水庵謝事。往參密庵傑和尚。傑即命師典客。一日傑對旁僧舉不是風動。不是旛動語。師聞豁然大悟。次日傑遇師於寮前。謂師曰。總不得作伎倆。試露箇消息來。師應聲曰。方丈裏有客。傑呵呵大笑○傑遷蔣山。師侍行。親炙凡五載。盡得旨要。辭還蜀。傑送以偈曰。萬里南來川蘿苴。奔流度刃叩玄關。頂門[翟*支]瞎金剛眼。去住還同珠走盤○師至夔州。尚書楊公輔以臥龍請。未幾辭去。復遊吳中。首眾於徑山靈隱。後住常州薦福。真州靈巖。蘇州秀峰穹窿。楊和王請住湖州資福。最後約齋張公鉉。請師於慧雲開山。凡六坐道場○師首眾靈隱。時有道者。請益胡孫子捉不住。願垂開示。師曰。用捉他作什麼。如風吹水。自然成文。時無準侍傍大悟。(木陳忞頌云至仁天子調玉燭宇宙風清八百州寸刃不施王化徧一人端拱坐龍樓○箬庵問頌云人居大國方知貴水到瀟湘一樣清鷲地江湖風浩蕩一時吹徹渙春冰)上堂。舉楊岐乍住屋壁疏。滿牀盡撒雪珍珠。縮却項。暗嗟吁。翻憶古人樹下居。師曰。楊岐鬪勝不鬪劣。秀峰鬪劣不鬪勝。秀峰乍住沒親疏。箇箇盡懷滄海珠。滿眼湖山看不足。釋迦彌勒是他奴○上堂。舉東山和尚道。如何是禪。閻浮樹在海南邊。近則不離方寸。遠則十萬八千。畢竟如何。禪禪。師云。穹窿也有箇道處。如何是禪。閻浮樹在海南邊。撐天拄地。拄地撐天。巧說不得。只要心傳。畢竟如何。禪禪(堯峰潛曰吹火長尖嘴)○上堂。十五日已前明似鏡。十五日已後黑似漆。正當十五日又且如何。鶯遷喬木頻頻語。蝶戀芳叢對對飛○嘉定四年六月九日。師將示寂。作手書別交游。復書偈曰。末後一句。已成忒怛。寫出人前。千錯萬錯。

書訖端坐而逝。時客寓徑山。遺命散骨林間。住持石橋。建塔於別峰塔之右。壽七十六。臘四十九(天童傑嗣)。

臨安靈隱松源崇嶽禪師

處州之龍泉吳氏子。自幼卓犖不凡。早歲慕出世法。年二十三。棄家參學。繼見大慧杲於徑山。杲陞堂。稱蔣山應庵華。為人徑捷。師聞之不待旦而行。既至。入室。朝夕咨請。一日華問世尊有密語。迦葉不覆藏。汝作麼生。師曰。鈍置和尚。華厲聲一喝。師有省。華大喜。以為法器。說偈勸使祝髮○隆興初。得度於臨安白蓮精舍。自是徧參諸大老。罕當其意者。迺入閩見木庵永。一日辭永。永舉有句無句。如藤倚樹。師曰。裂破。永曰。瑯琊道。好一堆爛柴。師曰。矢上加尖。永曰。永兄下語。老僧不能過。其如未在。他日拂柄在手。為人不得。驗人不得。師曰。為人者。使博地凡夫。一超入聖固難矣。驗人者。打向面前過。不待開口。已知渠骨髓。何難之有。永舉手曰。明明向道。開口不在舌頭上。後當自知。逾年。見密庵於衢州之西山。隨問即答。傑微笑而已。師切於究竟。至忘寢食。傑移蔣山。華藏。徑山。師皆從之○一日傑挂牌為眾入室次。問僧不是心。不是佛。不是物。師侍側。豁然大悟。乃曰。今日方會木庵和尚道。開口不在舌頭上也。自是機辯縱橫。傑遷靈隱。師遂分座。旋出世於平江澄照。徙江陰之光孝。無為之冶父。饒之薦福明之香山。平江之虎丘○慶元三年。靈隱虛席。被旨補處。上堂。大凡扶豎宗乘。須具頂門正眼。懸肘後靈符。只如保壽開堂。三聖推出一僧。保壽擲下拄杖。便歸方丈。二尊宿。等閒一挨一拶。便乃發明臨濟心髓。殊不知性命總在者僧手裏。還有檢點得出者麼。昔年覓火和煙得。今日擔泉帶月歸○居靈隱六年。法道益盛。得法者眾。忽退居東庵。示微疾。作手書別諸公卿。且垂二語。以驗來學曰。有力量人。因甚擡脚不起。開口不在舌頭上。辭世日示眾。久聚正路行者。有只不能用黑豆法。難以荷負正宗。臨濟佛法。到此平沈。痛哉痛哉(雲居莊拈云松源老祖壓良為賤若是黑豆法用得甚奇特直須將斷貫索穿過從上佛祖鼻孔方有自由分時有僧問斷貫 索莫在和尚手中麼莊云者瞎漢拈拄杖便打)。

遺書嗣法香山睦。雲居開。囑以珍重大法。復書偈曰。來無所來。去無所去。瞥轉玄關。佛祖罔措。跏趺而逝。放翁陸游銘其塔(天童傑嗣)。

饒州薦福曹源道生禪師

南劍人。分座雲居。出世妙果。徙龜峰。上堂。雨雪落紛紛。簷頭水滴滴。良哉觀世音。草裏跳不出。也大屈。水底烏龜鑽鐵壁。咄○上堂。平旦清晨三月朝。南山蒼翠插雲霄。不須更覓西來意。門外數聲婆餅焦。拍膝一下曰。好大哥○詠靈巖石偈曰。雲去雲來非有意。雲來雲去亦無心。有無截斷靈何在。突兀一峰青到今。後住薦福。逾月示疾(天童傑嗣)。

慶元天童枯禪自鏡禪師

福州高氏子。謁密庵傑於靈隱。鍼芥相契。遂荷印記○寶慶元年。被旨於靈隱。上堂。有句無句。如藤倚樹。樹倒藤枯。句歸何處。良久曰。長憶江南三月裏。鷓鴣啼處百花香○上堂。一拽石。二搬土。夜半日輪正卓午。老安曾牧瀉山牛。南泉不打鹽官鼓。報君知。莫莽鹵。火裏蜚螻吞却虎○上堂。舉鶴林因僧叩門。林曰。阿誰。僧曰。行脚僧。林曰非但行脚僧。我這裏佛來也不著。僧曰。因甚佛來也不著。林曰。無他棲泊處。師曰。天童則不然。若有人扣門。即大開了。待他人來。便攔胸搗住曰。道道。若擬開口。便與劈胸一拳。若向者裏轉得身。吐得氣。便請明窗下安排向上(天童傑嗣)。

臨安淨慈潛庵慧光禪師

化鹽偈曰。合水和泥一處烹。水乾泥淨雪花生。乘時索起撩天價。公驗分明孰敢爭(天童傑嗣)。

太平隱靜萬庵致柔禪師

潮州陳氏子。母黃。妙喜杲和尚南遷。道經於潮。師祖父暹延禮甚謹。其母夢僧入室。遂懷妊。及誕。父母誓不以俗累羈之。芟染完具。參密庵傑於蔣山。一日入室次。傑舉釋迦彌勒。猶是他奴。且道他是阿誰。師曰。無地頭漢。傑曰。千聞不如一見。師便毆一拳。傑擒住厲聲曰。者小鬼子。見箇什麼。胡打亂打。師曰。更要喫一拳在。傑連揮兩拳曰。打者無地頭漢。師豁然大悟。遂辭去(法音[沆-几+桀]頌云虛空處處著拳頭這漢何曾沒地頭四五百條花柳巷二三千座管絃樓)○出住太平隱靜。上堂。起道樹。詣鹿苑。不是向上機。傳少室。續曹溪。未為性燥漢。直得無依無欲。無一法當情。猶落第二見。放過一著。卷舒在我。縱奪臨時。於把住處放行。露柱燈籠活潑潑。於放行處把住。釋迦彌勒是他奴。卓拄杖。且道是放行耶。

是把住耶。一氣不言含有象。萬靈何處謝無私○上堂。東山和尚道。空門有路人皆到。到者方知旨趣長。心地不生閒草木。自然身放白毫光。師曰。東山只解無中覓有。不解有裏尋無。隱靜則不然。空門有路人皆到。到者方知礙處通。石上栽華還結果。到頭元不假春風○師臨終集眾囑曰。老僧生平無長物。只依海眾常例。安寢堂兩日足矣。復書偈端坐而化。越三日寺燬。眾悟遺言。若有旨也(天童傑嗣)。

臨安靈隱笑庵了悟禪師

姑蘇人。上堂。舉睦州因僧問以一重去一重即不問。不以一重去一重時如何。州曰。昨日栽茄子。今日種東瓜。頌曰。昨日栽茄子。今日種東瓜。一聲河滿子。和月落誰家(天童傑嗣)。

金陵蔣山一翁慶如禪師

姓范氏。福州長樂人。上堂。春雨如膏。春雲似鶴。春鳥關關。春泉濯濯。揭開觀音腦蓋。踢倒慈氏樓閣。切莫將錯就錯。拍禪牀曰參○上堂。過去諸如來。斯門已成就。一盲引眾盲。現在諸菩薩。今各入圓明。鰕跳不出斗。未來修學人。當依如是法。賺殺一船人(天童傑嗣)。

平江承天鐵鞭允韶禪師

參密庵傑。記荊後住承天。佛涅槃日上堂。老漢當年臘月八。三更半夜顛狂發。剛把長釘釘眼睛。直至如今未能拔。山僧今日下毒手。為他拔一拔看。便下座(天童傑嗣)。

學士張鉉居士

字功甫。別號約齋。聞鐘聲悟道。述偈曰。鐘一擊。耳根塞。赤肉團邊去箇賊。有人問我解何宗。舜若多神面目黑。後捨宅建寺。曰慧雲。請破庵先禪師開山。疏曰。捨林居為阿蘭若。夫豈小緣。請宗師據曲条牀。只因大事。幾度徧參。遭密庵打失鼻孔。一朝拈出。向冷泉掙下面皮。不謂馨香。奚煩鄭重。辭青松於北澗。穿幾重出岫之雲。對綠水於南湖。祝萬歲如山之壽。嘉定五年。公復清滅翁文禮禪師。相繼闡法。今有專祠於慧雲(天童傑嗣已上十人)。

吉州青原淨居正庵宗廣禪師

上堂。不用愛聖。聖是假名。不用厭凡。凡是妄立。但得聖凡情盡。自然物我雙忘。正恁麼時。憑誰委悉。石女穿鍼山色秀。木人牽線海雲生(青原裡嗣)。

臨安淨慈晦翁悟明禪師

福州人。上堂。舉夾山會下一僧到高亭。纔禮拜。亭便打。僧曰。特來禮拜。師何打。又拜。亭又打趁出。僧回舉似夾山。山曰。會麼。曰不會。山曰。賴汝不會。汝若會。即夾山口啞去。應庵華拈曰。高亭一期忍俊不禁。爭柰拄杖放行太速。者僧當時若是箇漢。莫道高亭夾山。便是達磨大師出來。也斬為三段。何故。家肥生孝子。國霸有謀臣。師曰。高亭夾山。門庭施設。各得其宜。但中間一人較些子。應庵和尚與麼道。也是鞏縣茶瓶。師嘗纂修聯燈會要。傳於叢林(鼓山永嗣○蜀中佛道無價刊載明之嗣為苦口益益嗣筏渡慈慈嗣一言顯顯嗣小庵密密嗣二仰欽欽嗣無念有有嗣荊山寶寶嗣鐵牛遠遠嗣朝陽以迄聚雲諸法嗣為大慧杲繼絕大盛錦江俟求機語補入因嘉興續藏止有中興諸師語錄並無苦口諸師事實耳繼燈功德最大諸方幸勿吝教)。

臨安徑山藏叟善珍禪師

泉州南安呂氏子也。示眾云。古者道。知之一字。眾妙之門。又有道。知之一字。眾禍之門。只者二門。入得更須出得。三世諸佛出不得。六代祖師出不得。天下老和尚出不得。何故。變鐵成金易。變金成鐵難○據室。者裏是問訊燒香了來。老僧身邊。立地底所在麼。猷子。你自鈍置猶可。莫來鈍置老僧○自題其像曰。參禪無悟。識字有數。眼三角似燕山愁胡。面百摺如趙婆呷酢。一著高出諸方。敢道飯是米做(靈隱善嗣)。

臨安淨慈東叟仲穎禪師

上堂曰。切忌隨他覓。無勞向己求。縱橫活鱗鱗。有放還有收。是甚麼。一葉落。天下秋○上堂。上不在天。下不在地。中不在人。喝一喝。且道者一喝落在甚麼處。若也知得。也有賓。也有主。也有照。也有用。若也不知。參退巡堂喫飯○上堂。行者行。坐者坐。左之右之。無可不可。甘露園中蒺藜。黃檗樹頭蜜果。纔與麼不與麼。不與麼却與麼。善賈之家。不停滯貨(靈隱善嗣)。

吉安龍濟友雲宗鑒禪師

廬陵王氏子。幼喜趺坐。年十二出家。十九薙髮受具。二十二參方。首謁妙峰。值佛涅槃日。峰上堂。拈拄杖曰。釋迦老子來也。諸人還見麼。微妙淨法身。具相三十二。放下拄杖曰。見你諸人不會入涅槃去也。師於言下豁然契悟。尋登吉水之東山佛頂。得修山主故址。木食澗飲。影不出山○嘗自咏曰。山僧有分住煙蘿。無米無錢莫管他。水似瑠璃山似玉。眼前儘有許來多。後峰以法衣竹篋。并自題肖像寄師曰。妙峰孤頂草離離。橫按竹篋三尺鐵。只許佛頂龍濟知。父子不傳真祕訣○至元丁亥。忽示疾。集眾囑後事。彈指一聲曰。只此是別眾語也。眾請偈。師不答。將二鼓。復索筆書曰。一燈在望。更無言說。大地平沈。虛空迸裂。書畢泊然而寂(靈隱善嗣已上三人)。

慶元育王物初大觀禪師

鄞縣橫溪陸氏子。參北磻於淨慈。悟旨。命典文翰。後住育王。上堂。一冬二冬。你儂我儂。暗中偷笑。當面脫空。雖是尋常茶飯。誰知米裏有虫。夜來好風。吹折門前一株松(北磻簡嗣)。

臨安淨慈偃溪廣聞禪師

侯官林氏子。十八得度受具。歷見鐵牛印。少室睦。無際派。諸老。後參浙翁琰於天童。鍼芥雖投。自知未穩。及再參於雙徑。琰笑而問曰。汝來耶。一夕坐簷間。聞更三轉。入堂曳履而蹶。如夢忽醒。翌朝造室。琰舉趙州洗鉢盂話。師將啟吻。琰遽以拳止之。疑情當下冰釋○紹定戊子。四明制閩胡公。以小淨慈致之。歷住香山萬壽雪竇育王淨慈靈隱徑塢等山○開爐上堂。舉趙州示眾曰。老僧三十年前。在南方火爐頭。有箇無賓主話。直至如今無人舉著。師曰。森羅萬象。明暗色空。日夜舉揚。趙州古佛。不是不知。只為貪程太速○上堂。楊岐眼裏睛。臨濟頂中髓。一不成。二不是。點著不來。白雲萬里(徑山琰嗣)。

臨安靈隱大川普濟禪師

明州奉化人。上堂。舉睦州和尚。因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州曰。一隊衲僧來。一隊衲僧去。頌曰。一隊衲僧來。一隊衲僧去。打破睦州關。大地無寸土○題世尊出山相。龍章鳳質出王宮。肘露

衣穿下雪峰。智願必空諸有界。不知諸有幾時空。師嘗纂修五燈會元行世(徑山琰嗣)。

臨安徑山淮海原肇禪師

通州靜海潘氏子。年十九薙染受具。參浙翁琰於徑山。琰問汝何處人。師曰。淮東。琰曰。泗州大聖。為什麼在揚州出現師曰今日又在杭州撞著。琰曰。且喜沒交涉。師曰。自遠趨風。琰以師警敏。欲大激發。未許參堂。纔見便曰。下一轉話來。擬開口即喝出。師以書上。又以頌呈。末句曰。空教回首望長安。琰曰。者裏是什麼所在。師曰。謝和尚挂搭。於是密就入室之列。命掌記室。琰既示寂。四明育王虛席。廟堂奏師補處。復遷杭之淨慈露隱徑山。其住徑山。值歉餘逋券山積。僧殘屋老。未幾樓閣轟霄。雲衲踵至。不減浙翁全盛氣象。俄示疾。囑其徒曰。為吾祔一穴於東澗。見生死不忘奉師之意。六月初十日。浴訖書偈而逝(徑山琰嗣)。

婺州雙林介石朋禪師

上堂。舉明招謙禪師。一日天寒上堂。眾纔集。招曰。風頭稍硬。且歸煖處商量。便歸方丈。眾隨至立定。招曰。纔到暖室。便見瞌睡。以拄杖一時趁下。頌曰。稍硬風頭早已乖。更將暖處自沈埋。反令千古成踪跡。枉喫羅山白飯來(徑山琰嗣)。

慶元天童弁山阡禪師

舉李翱參藥山因緣。頌曰。貴耳而賤目。背手抽金鏃。仰面看青天。箭過新羅國○僧歸鄉偈曰。奮志南方問正因。正因一字不曾聞。七零八落袈裟角。惹得凌霄幾片雲○觀音大士偈曰。螺髻屈蟠春島碧。綠衣零亂曉雲寒。尋聲只麼隨流去。說甚真觀清淨觀(徑山琰嗣)。

平江虎丘枯椿曇禪師

上堂。舉大梅常禪師。問馬祖如何是佛。祖曰。即心是佛。師曰。要知馬祖落處麼。水向石邊流出冷。風從花裏過來香(徑山琰嗣)。

龍溪文禪師

示眾。無相無形本寂寥。擬擡眸處轉迢遙。蒲團靜倚無餘事。窗外一聲婆餅焦(徑山琰嗣)。

平江虎丘東山道源禪師

福建連江黃氏子。肄業郡之白雲。游歷兩浙。末後到蔣山。見浙翁琰禪師。室中舉即心即佛話有省。出世奉化清涼。遷蘇州虎丘。上堂。拈拄杖曰。德山棒。臨濟喝。總是用過了底閒家潑具。且道虎丘將什麼為人。卓拄杖。不假鉗鎚烹佛祖。慣將筋折攪滄溟。擲拄杖下座。建安徐直翁帥三山。以雪峰起師。至建寧光孝寺。遺偈而化(徑山琰嗣)。

慶元大慈芝岳慧洪禪師

越州新昌人。姓朱。誕時。母夢前石佛高禪師入臥內。寤而生。師年十六。從石佛淨因薙染。謁徑山浙翁琰。琰問曰。汝何處人。師曰越州。琰曰。近離甚處。師曰淨慈。琰曰。如何是行脚事。師擬議。琰色莊曰。汝前來答我。一一分曉。問著行脚事。則茫然為何所礙。師曰。今日來見和尚。琰曰。念汝新到。參堂去。琰遷天童。師再參。室中舉不是心不是佛不是物。師曰。毒龍行處草不生。琰曰。且喜沒交涉。師曰。入水見長人。琰便喝○忠獻越王。請住崇報。上堂。住山懶慢。百事無成。教為剩語。禪亦強名。擊拂子曰。夜來春睡重。一覺到天明○住石佛上堂。紅塵堆裏四經秋。驗盡諸方盃脫丘。忽地船頭輕撥轉。却來屋裏販揚州。襴衫翻著。曲唱還鄉。坐斷千差。壁立萬仞。直得韶光溢目。故園桃李爭妍。瑞氣騰空。本地風光顯現。若也頓開千眼。何妨把手同歸。其或未然。善財一去無消息。樓閣門開竟日閒○臨終書偈曰。六十三年前。六十三年後。臘月火燒山。虛空俱出醜。跏趺而逝(徑山琰嗣)。

慶元壽國夢窗嗣清禪師

山陰于氏子。佛涅槃上堂。佛真法身。猶若虛空。因甚二月十五日。却向雙林樹下。做盡死模樣。良久曰。竹影掃階塵不動。月輪穿海水無痕○上堂。歸宗斬蛇。祕魔擎叉。禾山打鼓。趙州喫茶。十字街頭開鋪席。見錢買賣且無賒(徑山琰嗣共十人)。

湖州道場別浦法舟禪師

嘗有魚籃觀音讚曰。月眉斜印海門孤。逐浪隨波不丈夫。雙手向人提掇處。却將魚目換明珠(育王印嗣)。

無極觀禪師

得法於育王印禪師。題世尊出山像曰。王宮不住箇癡獸。半夜逾城真怪哉。苦行六年誰采你。計窮只得出山來(育王印嗣已上二人)。

慶元瑞巖無量崇壽禪師

上堂。舉烏窠和尚。因白侍郎問佛法大意。烏窠曰。諸惡莫作。眾善奉行。侍郎曰。三歲孩兒也解道。烏窠曰。三歲孩兒雖道得。八十老人行不得。頌曰。惡無相貌善無形。皆自心田長養成。不露鋒銚輕點破。菩提煩惱等空平(育王瑞嗣)。

慶元天寧無鏡徹禪師

上堂。舉巖頭和尚因僧問。浩浩塵中。如何辦主。頭曰。銅沙鑼裏滿盛油。頌曰。百萬雄兵入漢關。威如猛虎陣如山。單刀直取顏良首。不是關公也大難(天童派嗣)。

鼇峰定禪師

讚玄沙和尚偈曰。青蓑不肯換金章。千古風流屬謝郎。釣得錦鱗人不薦。夜寒沙上聽鳴榔(天童派嗣已上二人)。

饒州薦福無文燦禪師

從育王堪得法。(增集續燈悞入無準範嗣)寶慶三年六月。受請住薦福。次遷開先。五年復還薦福。據室。山僧今日開地獄門。普請盡大地人。造地獄業。證地獄果。若有一人成佛作祖。我誓不成正覺○上堂。天高地厚。日盈月昃。全提半提。天地懸隔。燦上座平生只會著衣喫飯。聞人說佛法二字。如風過樹頭。如水澆頑石。今日裂破面門。喚作長老。也欲與諸人論說一上。無端冒五六月大熱。行二千里脩途。一時打失了也。雖然賴有拄杖子在。拈拄杖曰。拄杖子試說看。卓一下。清平世界。切忌譌言○結夏上堂。百不知。百不會。飽喫飯。熟打睡。要得剋期取證。須證如是三昧○師嘗與其友知無聞書曰。住院何足道哉。近年勅差堂除者何眼。可挂齒牙者能

幾人。使吾有口。可以吞三世諸佛。則曲彖牀。終身不坐又何嫌。無聞以為何如。某昔者入眾。見識字人。多不修細行。遂決意不作書記。諸老據位稱師者。又多看不上眼。遂無意出世。今皆不遂其初矣。住院十年。名為長老。只是舊時燦上座。飲食起居。與堂僧無異。相從衲子。歲不下百數十人。遇五日搥鼓陞堂。以平時在諸老間。所得細大法門。隨分東語西話。斷不敢以脫空話籠罩學者。亦不敢以過頭語欺謾學者。說到無巴鼻無滋味處。欣然自笑。聽者不必解笑也。士大夫多相知。然所知者。不過謂其讀書也。能文也。解起廢也。硬脊梁也。蓋膽毛幾莖。則知者鮮矣(育王堪嗣)。

福州雪峰北山信禪師

頌佛成道曰。六年凍得眼無光。一見明星雪後霜。擔水出山頻喚賣。不知江海白茫茫(何山清嗣)。

平江虎丘伽堂善濟禪師

題魚籃觀音像讚曰。雲鬚濃粧苦強顏。為他閒事入塵寰。攜來活底無人買。只作尋常死貨看(天童觀嗣)。

越州天衣嘯岳文蔚禪師

上堂。舉雲門和尚示眾曰。人人盡有光明在。看時不見暗昏昏。踢倒山門無厨庫。此時明暗自然分(天童觀嗣)。

柏岳凝禪師

作破衲頌曰。零零落落幾經年。信手拈來搭半肩。午夜定回和束倒。箇中消息許誰傳(天童觀嗣)。

華藏純庵善淨禪師

上堂。舉六祖風旛話頌曰。不是風兮不是旛。白雲盡處見青山。可憐無限英雄漢。開眼堂堂入死關(天童觀嗣已上四人)。

臨安徑山荊叟如珏禪師

婺州人。依侍癡鈍穎和尚。一日室中垂語。如何是佛。師遽曰。爛東瓜。侍呈頌曰。如何是佛爛東瓜。齧著冰霜透齒牙。根蒂雖然無窖子。一年一度一開花。嘗作偈寄呈穎曰。鍾山白刃赤身挨。幾度曾經被活埋。一自人亡家破後。了知無位可安排○歲旦上堂。新歲擊新鼓。普施新法雨。萬物盡從新。一一就規矩。普賢大士忻歡。乘時打開門戶。放出白象王。徧地無尋處。拈拄杖。惟有者個。不屬故新。等閒開口。吞却法身。擲下拄杖。是什麼。千年桃核裏。元是舊時仁(天童穎嗣)。

福州雪峰大夢德因禪師

作布袋和尚贊曰。杖挑布袋走紅塵。底事何曾見得親。業識茫茫無本據。不知開口笑何人(天童穎嗣已上二人)。

臨安靈隱高原祖泉禪師

舉鏡清在雪峰。一日普請次。峰曰。為山道。見色便是心。還有過也無。清曰。古人為什麼事。峰曰。雖然如是。我要共你商量。清曰。若與麼。不如某甲鋤地去。師拈曰。雪峰探竿在手。影草隨身。若不是鏡清普請。幾乎狼藉。又舉伏馱密多尊者。問佛馱難提尊者。父母非我親。誰是最親者。諸佛非我道。誰是最道者。頌曰。父母分明非我親。祖師肝膽向人傾。直下若能親薦得。優曇花發火中春(金山奇嗣)。

隆興黃龍無門慧開禪師

杭州梁渚人。族姓梁。參月林觀禪師。觀令看無字話。經六年。迴無入處。乃奮志自誓曰。若去睡眠。爛却我身。每至困時。廊下行道。以頭向露柱磕。一日在法座邊。忽聞齋鼓聲有省。述偈曰。青天白日一聲雷。大地羣生眼豁開。萬象森羅齊稽首。須彌[跳-兆+孛]跳舞三臺。次日入室。欲通所得。觀遽曰。何處見神見鬼了也。師便喝。觀亦喝。師又喝。自此機用脗合○淳祐六年。奉旨開山護國仁皇寺。上堂。若人識得心。大地無寸土。古人恁麼道。黃龍即不然。若人識得心。大地盡是土○上堂。是非長短耳邊風。切莫於中覓異同。要得八風吹不動。放教心地等閒空。慈受老人。只解順水張帆。不能逆風把舵。黃龍又且不然。是非都去了。是非裏薦取。何故。幾度黑風翻大浪。未曾聞道釣舟傾○師晚年倦於槌

拂。庵居西湖之上。參學者猶眾。理宗召入選德殿說法。祈雨感應。勅賜金襴法衣佛眼之號(萬壽觀嗣)。

興化囊山孤峰德秀禪師

福州連江陳氏子。於蘇之寒山祝髮。上堂。舉僧問雪峰如何是第一句。峰良久。僧舉似長生。生曰。此是第二句。雪峰令僧問生。如何是第一句。生曰。蒼天蒼天。師曰。二大老與麼淚出痛腸。若是第一句。要且未夢見在。忽有人問怡山如何是第一句。只向他道劍去久矣○上堂。舉真淨和尚曰。頭陀石被莓苔裹。擲筆峰遭薛荔纏。羅漢寺裏。一年度三箇行者。歸宗寺裏。參退喫茶。大眾要會麼。聽取一頌。天晴日頭出。雨落地濕。盡情都說了。只恐信不及(萬壽觀嗣)。

潭州石霜竹巖妙印禪師

進賢人。族萬氏。謁月林觀禪師。一日入室次。觀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老鼠齧破燈盞。觀領之。歷住數刹。後移石霜。作對月看經偈曰。未動舌頭文彩露。五千餘卷一時周。若言待月重開卷。敢保驢年未徹頭○師晚年築庵。曰紫霞。丞相趙公葵。燕居里第。嘗延師問道。寶祐三年示寂。書偈曰。六十九年。一場大夢。歸去來兮。珍重珍重。書畢泊然而逝。塔於紫霞(萬壽觀嗣已上三人)。

鼓山檜堂祖鑒(續傳燈誤作宗鑒)禪師

徐氏子也。禮鍾山真菴度。往依瞎堂遠。服勤五載。及歸閩。參乾元穎禪師。始得大事了畢。出世滁之瑯琊。無何徙真之北山。復主資福。泉守程公。延至承天。遷光孝○帥府葉公。請住鼓山。凡七載○開禧乙丑謝事。明年五月。師將順世。乃說偈曰。平生患語多。臨終更何說。盡力舉似人。紅爐一片雪(乾元穎嗣)。

徽州黃山正因禪師

仁和俞氏子。參育王。一夕聞霹靂聲。通身汗下。拊掌大笑曰。如是如是○元世祖請說法。稱旨。授圓明通應之號。一日謂弟子曰。吾二十七日去矣。至期而逝(育王廓嗣)。

曹洞宗

青州普炤一辨禪師

精究內典。貫通宗乘。及參鹿門覺。問如何是盡乾坤。是學人一隻眼。覺曰。汝被一卷經遮却也。師擬對。覺搖手曰。不快漆桶去。師言下有省。出住青州。普炤遷東都萬壽。當是時燕秦齊晉之間。參宗之士。皆其後學○師於青州室中。嘗設百問。勘驗學者。一問聲前薦得。落在今時。句後承當。迷頭認影。作麼生是空劫已前自己(愚庵孟拈云道即不難恐落今時旁僧云請和尚道看孟打一擲云羞也不識要稱禪客)○龍唐柱拈云青州老人秉洞上宗綱為天下歸仰大開東閣迎賓不忘重闥禁殿要識空劫已前自己(麼良久云從來無位次誰敢強安排)○又問二邊純莫立。中道不須安。且道甚麼處相見。得箇端的(百丈源拈云和尚口乾叫侍者過茶來)○又問回途轉位。直須戴角披毛。喚作畜生得麼(愚庵孟拈云媧女不知亡國恨隔江猶唱後庭花)○又問念念釋迦出世。步步彌勒下生。為甚麼擬心即錯。動念即乖(愚庵孟拈云富嫌千口少貧恨一身多)○又問有口讚不盡。無言心自明。是則裂破虛空。不是則鬼家活計。上人端的處。道將一句來(百丈源拈云莫裝聾好)○頌浮山示投子十六題。一識自宗。問答休將句偈酬。到頭佛祖一齊收。九年面壁已多事。立雪神光亦強求○二死中活。今時及盡更何親。雲鎖幽巖凍瑣津。堪羨嶺頭增意氣。雪中獨綻一枝香○三活中死。合頭相似喜人情。水月空花鏡象榮。荒徑客迷芳草渡。擬將石火當天明○四不落死活。到頭採汲不虛施。運水搬柴自合時。燕語未歸簾幕靜。晚鶯啼處綠楊垂○五背捨。三峰華嶽總平治。雪壓寒林折凍枝。一念不生全體現。纖毫纔動落階墀○六不背捨。路闊巖高碧澗流。山花開徧接雲樓。雨餘何處金鶯囀。不顧春殘語未休○七活人劍。耳聽無妨眼見聞。南山下雨北山雲。動容舉止方圓異。大賞將軍不語勳○八殺人刀。凜凜霜風刮地生。千山冰雪路難行。未萌已落威音際。纔擬玄微墜穽坑○九平嘗。春來幽谷水泠泠。策杖優遊傍釣汀。好是太平無事客。汨羅未必獨醒醒○十利道拔生。少室靈山事宛然。不曾談說不安禪。回光一句超今古。大丈夫兒誰後先○十一言無過失。默時似說說時無。迷悟剛令與道疏。莫謂人根有利鈍。麤言細語不關渠○十二透脫。雪後風和曉霽天。鶯吟花笑柳含煙。鳳樓不宿桃源客。半夜穿靴入市廛○十三透脫不透脫。劈箭機鋒著眼看。當陽趁妙晒傍觀。雲橫谷口迷巢鳥。雪擁柴門去路寒○十四稱揚。寒潭不與月為期。萬古松聲韻不移。眼聽耳觀如會得。方知佛祖密傳持○十五降句。當臺明鏡影難藏。露柱燈籠自舉揚。千聖不曾留半偈。少林已是不相當○十六方入圓。攜琴玉女夜歸時。鳳轉丹霄入紫薇。香霧噴花煙靄重。汀洲漁棹月依稀○五位頌曰。正中偏。斗柄初橫半夜前。密室不然龍鳳燭。廣寒宮殿月當天。偏中正。木女手攜無字印。失

曉崑崙暗皺眉。自然羞看秦時鏡。正中來。劍樹刀山也自摧。玉馬嘶聲離月殿。九重依舊鎖蒼苔。兼中至。大用縱橫無巧智。漁歌樵唱謁金門。太平不是將軍致。兼中到。頭角完全無異號。脫珍著弊入塵來。縱橫踏破今時道○賓主頌。其賓中賓曰。天涯奔走幾經春。負學論功日轉貧。行海淵深須徧涉。義天空闊不容塵。賓中主曰。衣穿瘦骨露無餘。獨鎮寰區暉大初。三尺匣中誅佞劍。百囊篋裏薦賢書。主中賓曰。丹墀鞭靜九宮開。萬里江山絕點埃。脫却襴衫戴席帽。聲聲只道那邊來。主中主曰。重巖幽邃鎖煙岑。古洞龍吟霧氣深。石女唱歸紅燄裏。木人運步覓知音(鹿門覺嗣)。

慶元天童雲外岫禪師

昌國衛人。身材眇小。精悍有餘。師事直翁舉公剃落。究明洞宗。盡其源底。出世慈溪石門。歷象山智門。陞住天童寺。上堂。鬧市紅塵裏。有鬧市紅塵裏佛法。深山巖崖中。有深山巖崖中佛法。山僧昨日出城門。鬧市紅塵裏佛法。一時忘却了也。行到二十里便見深山巖崖中佛法。大眾且道如何是深山巖崖中佛法。良久曰。白雲淡泞。出沒太虛之中。青蘿夤緣。直上寒松之頂(龍唐柱拈云深山佛法雲外一一發洩了也且道如何是鬧市紅塵裏佛法樓連湖野梅花弄霽雪之天樂作行營鼓吹雜胡笳之曲)○謝首座書記藏主。上堂。以拂子打圓相曰。摩訶衍法。離四句。絕百非。又打一圓相曰。禮之用。和為貴。先王之道。斯為美。又打一圓相曰。摩尼珠。人不識。如來藏裏親收得。諸人還見麼。所見不同。互有得失。天童這裏毋固毋必○師不倨傲。不貪積。不私食。得施利隨與人見後生益敬之。二時粥飯。必同眾赴堂。一日問無印證曰。天童今日大死去也。汝作麼生救。證曰。請和尚喫飯。師曰。天童今日大死去也。汝不要相救。證曰。救他作麼。師又曰。天童今日大死去也。阿誰與我同行。證曰。和尚先行。某甲隨後。師呵呵大笑。遂示寂(龍唐柱拈云可惜放過天童者漢我若在待云今日大死去也阿誰與我同行即與挑起鉢囊橫擔榔[木*栗]看者漢去得去不得若去不得便與推倒方丈纔見真獅子兒豈不俊哉)○塔全身於本山之麓(東谷光下直翁舉嗣)。

續指月錄卷三

續指月錄卷四

六祖下二十世

臨濟宗

臨安徑山無準師範禪師

生於蜀之梓潼雍氏。九歲出家。長遊成都坐夏。請益坐禪之法於老宿堯首座。座曰。禪是何物。坐底是誰。師晝夜體究。一日如廁。提前話有省。明年往謁佛照光於育王。光問曰。何處人。師曰。劍州。光曰。帶得劍來麼。師隨聲便喝。光笑曰。者烏頭子也亂做。貧甚無貲剃髮。人皆以烏頭子呼之。久之復至靈隱。時破庵居第一座。同游石筍庵。庵之道者請益曰。胡孫子捉不住。願垂開示。先曰。用捉他作甚麼。如風吹水。自然成紋。師侍傍有省(牧雲門頌云城門失火臭煙熏殃及池魚尾盡焚無處更求三尺水直看振鬣上青雲○箬庵問頌云氣飲長虹已食牛血漫漫地照人愁因風吹火無多力春滿皇都四百州)○破庵先和尚過天童掃塔。師偕往。至瑞巖雲巢。留師分座。夜夢偉衣冠者。持把茅見受。翌日明州清涼專使至。師受請入院。見所謂伽藍神姓茅。衣冠狀貌。與疇昔所夢無異。陞堂開法。大闡宗風。繼遷焦山雪竇。被勅移育王。又三年嵩少林散席。以朝命主徑山。有旨召入內庭。師奏對詳明。上為色動。賜金襴僧伽黎。復宣詣慈明殿陞座說法。理宗垂簾而聽。賜佛鑑禪師號。師居徑山二十年。海眾雲騰。信施豐積。雖寺兩遭火厄。乃旋復旋興。為東南法席第一○師於寺前四十里。築室百楹。接待雲水。頌曰萬年正續。正續西數百步。結庵一區為歸藏。建閣以藏後先所賜御翰。東西供奉祖師與先世香火。遇始生日為飯僧佛事。以贊冥福。蓋蜀亂。師之先祀遂絕。祠奉以旌孝慕。上聞嘉歎○上堂。靈山指月。曹溪話月。遞代相傳。證龜成鼈。範上座。尋常一張口。挂在壁上。今日無端入者行戶。未免拈出多年歷日。說似諸人。且要郭大李二鄧四張三。知得江南兩浙。春寒秋熱○上堂。若論箇事。直是省要。柰何諸人自作艱難。自作障礙。所以尋常西廊東廊。見諸人和南問訊。山僧便乃低頭相接。其實無他。只要諸人識得長老。是西川隆慶府人氏。若也識得。便與諸人打些鄉談。說些鄉話。如今且未說你識得長老。且各自知得自家鄉貫也得。還知麼○淳祐戊申秋。師築室明月池上。榜曰退耕。三月旦日。陞堂示眾曰。山僧既老且病。無力得與諸人東語西話。今日勉強出來。將從前所說不到底。盡情向諸人面前抖擻去也。遂起身抖衣曰。是多少。便歸方丈。十五日集兩序區畫後

事。親書遺表。言笑如平時。其徒以遺偈為請。乃執筆疾書曰。來時空索索去也赤條條。更要問端的。天台有石橋。移傾而逝。停龕二七日。上遣中使降香賜幣。奉全身葬於正續之側。塔曰圓照(臥龍先嗣)。

江州雲居即庵慈覺禪師

蜀人也。上堂。舉雪峰因閩王問。擬欲蓋一所佛殿去時如何。峰曰。大王何不蓋取一所空王殿。王曰。請師樣子。峰展兩手。雲門曰。一舉四十九。師頌曰。空王殿樣子。雪峰展兩手。添得老韶陽。一舉四十九。總是面南看北斗○讚船子和尚偈曰。三十餘年在藥山。鬼家活計豈能傳。當時不得夾山老。你且柰煩撐破船○師始登雲居。先一夕宿瑤田莊。夢伽藍安樂神告曰。師於此山。只有一粥之緣。明日午後到山。晚參罷。值堂中二僧相毆。以新到例遭擯逐。師竊訝之。後數年。雲居虛席。請師補處。師忻然承命。且徵前夢。至瑤田莊而寂(臥龍先嗣)。

慶元大慈獨庵道儔禪師

贈製鞋匠偈曰。透底工夫做已圓。須知密處自心傳。脚跟著地隨他轉。踏到驢年也未穿(臥龍先嗣)。

臨安靈隱石田法薰禪師

眉山彭氏子。初游石霜。禮雷遷塔。述偈曰。一念慈容元不隔。何須特地肆乖張。平高就下婆心切。惱得雷公一夜忙。師名由是大著。聞穹窿先道望。遂往叩。先一見知為法器。室中舉世尊拈華。迦葉微笑話。師曰。焦磚打著連底凍。赤眼撞著火柴頭。先異之。每於日用語默。不少假借。師於是決志依棲。與無準範。日相激礪。久乃辭去。復徧遊諸老門庭。咸稱賞之○後出世蘇之高峰。次遷寒山。鍾山虛席。廟堂奏師補處。寶慶初。遷淨慈。端平二年。復遷靈隱。上堂。一徑直。二周徧。衲僧會得。萬別千差。庭前閒縱目。春盡尚餘華。老胡不合過流沙。拍膝一下。便下座○淳祐甲辰三月望。示眾曰。但得本。莫愁末。喚什麼作本。喚什麼作末。松柏千年青。不入時人意。牡丹一日紅。滿城公子醉。山僧恁麼道。若有不肯底。是我同參。弟子師俊。繪師像求贊。有曰。末後一句。分付廚山。眾訝之。明日忽示疾。退歸寶壽。訣眾而逝。窆全身於院後(臥龍先嗣已上二人)。

慶元天童滅翁天目文禮禪師

杭之臨安人。姓阮氏。六歲攜籃隨母採桑。俄念攜之者誰邪。遂有出家志。年十六剃落。謁育王佛照光和尚。問恁麼來者。那箇是汝主人公。師豁然領肯。一日光問是風動。是旛動。者僧如何。師曰。物見主。眼卓豎。光曰。不是風動。不是旛動。甚處見祖師。師曰。揭却腦蓋。光喜其俊邁。命典書記。久之返浙西。聽一心三觀於上天竺。時松源嶽唱道饒之薦福。室中問僧。不是風動。不是旛動。擬議即棒出。師聞之頓忘知解。遂往見之。蒙印可。得盡其旨。辭去。徧禮江淮間祖塔。時浙翁琰主蔣山。挽師分座○嘉定五年。約齋張公鉉。請師開法臨安。慧雲節齋趙公。慕師高行。微服過訪。師亦不問其姓名。與語終日而去。翌日奏請師住持淨慈。室中每舉南山筆筍。東海烏鰂話。學者擬議。師便打。莫有湊泊之者。僧問和尚見佛照時如何。師曰。石中有玉。曰見松源後如何。師曰。沙裏無油○有來上座入方丈曰。某甲有狀投和尚。師曰。對頭在那裏。來曰。和尚便是。師曰。老僧與汝有甚麼冤讐。來無語。師捉住曰。冤家冤家○新到僧至。師問汝名甚麼。僧曰智虎。師退身作怕勢。僧擬議。師便歸方丈(石杖鞏頌云白浪堆中下一鉤錦鱗紅尾尚悠悠漁翁不計竿頭事笑入蘆花萬頃秋)○師尤邃於易。諸儒大闡道學。師與之遊。直示心法。朱晦庵問毋不敬。師叉手示之。楊慈湖問不欺之力。師答以偈曰。此力分明在不欺。不欺能有幾人知。要明象兔全提句。看取升階正笏時○師將入寂。謂侍者曰。誰與我造箇無縫塔。者曰。請師塔樣。師良久曰。盡力畫不出。遂怡然而去。闍維。弟子收舍利并遺骨。祔葬於應庵塔左。壽八十四(靈隱嶽嗣)。

溫州江心石巖希璉禪師

潮陽馬氏子。僧問昔日佛照光禪師。因宋孝宗宣問釋迦佛入山六年。所成何事。光曰。將謂陛下忘却。此意如何。師答以頌曰。大根大器大熏修。瞥轉機輪向上頭。萬億斯年惟一佛。雪山元不隔龍樓(靈隱嶽嗣)。

台州瑞巖佛日雲巢巖禪師

作經題八字偈曰。以字不成八字非。當陽拈起大家知。釋迦老子舌無骨。黃葉將來嚇小兒○頌靈雲見桃華話曰。三月桃華爛熳紅。靈雲打失主人翁。隨邪逐惡玄沙老。半是真情半脫空(靈隱嶽嗣)。

華藏無礙覺通禪師

青苗會上堂。破一微塵出大經。鳶飛魚躍更分明。不將眼看將心看。**已**是重敲火裏冰。淹黑豆。昧平生。直須劫外話豐登。綠成白雪桑重綠。割盡黃雲稻正青(靈隱嶽嗣)。

臨安淨慈谷源道禪師

舉丹霞然初參石頭。剗佛殿前草公案。頌曰。石頭剗草驗英豪。懵懂丹霞眼不高。若解轉身行活路。至今應不累兒曹(靈隱嶽嗣)。

湖州道場北海悟心禪師

舉黃檗在鹽官殿上禮佛次。時唐宣宗為沙彌問曰。不著佛求。不著法求。不著僧求。長老禮拜。當何所求。檗曰。不著佛求。不著法求。不著僧求。常禮如是事。彌曰。用禮何為。檗便掌。彌曰。太麤生。檗曰。者裏是什麼所在。說麤說細。隨後又掌。頌曰。曾施三掌觸君王。佛法何曾有寸長。麤行沙門封斷際。至今無地著慚惶。舉唐文宗蛤蜊因緣頌曰。合水和泥底事忙。被渠點破大乖張。雖然契得君王意。爭柰全身入鑊湯(靈隱嶽嗣)。

慶元雪竇大歇仲謙禪師

義烏應氏子。幼見傳大士心王銘。矢志出家。初參息庵。庵器而抑之曰。汝儒者習氣不除。焉能學道。要到大休大歇田地。如木偶人去。師蒙激發。益自奮勵。朝夕不解。一日忽然有省。遂以大歇自名。後參松源嶽。一日室中舉祕魔擎義話。師豁然大悟○上堂。舉應庵華和尚。問密庵傑。如何是正法眼。傑曰。破沙盆。華領之。頌曰。白玉琢成泥彈子。黃金鑄就鐵崑崙。千年滯貨無人買。未免如今累子孫(靈隱嶽嗣)。

諾庵肇禪師

華亭懷古偈曰。活計都盧一釣舟。錦鱗入手便抽頭。我來不覩師親訓。柳岸依依蘸碧流(靈隱嶽嗣)。

湖州道場運庵普巖禪師

題趙州像贊曰。無端提起七斤衫。多少禪人著意參。盡向青州做窠窟。不知春色在江南(靈隱嶽嗣)。

蘇州虎丘蒺藜曇禪師

初住四明延慶。遷蘇之穹窿。後至虎丘。上堂。舉僧問香林。如何是衲衣下事。林曰。臘月火燒山。師曰。兔子何曾離得窟。若有人問延慶如何是衲衣下事。只對他道。就船買得魚偏美。踏雪沽來酒倍香○上堂。念念釋迦出世。時時彌勒下生。頓超天地未分之前。不歷階梯。掀翻寶所。便恁麼去。可以開無量法門。可以演百千妙義。驀拈拄杖卓一下曰。無量法門。百千妙義。盡向者裏百雜碎了也。還知虎丘落處麼。靠拄杖。祖禰不了。殃及子孫(靈隱嶽嗣)。

台州瑞巖少室光睦禪師

上堂。舉曹山霞禪師。因僧侍立次。山曰。道者可煞熱。曰是。山曰。祇如熱向甚麼處回避。曰向鑊湯爐炭裏回避。山曰。祇如鑊湯爐炭裏。又作麼生回避。曰眾苦不能到。師頌曰。瞎却頂門三隻眼。鑊湯爐炭裏優遊。若言眾苦不能到。端的何曾有地頭(靈隱嶽嗣)。

鎮江金山掩室善開禪師

上堂。舉密庵破沙盆話。頌曰。法眼拈來早自謾。無端錯對破沙盆。而今徧界難遮掩。殃害叢林及子孫(靈隱嶽嗣)。

明州雪竇無相範禪師

上堂。舉趙州和尚曰。纔有是非。紛然失心。還有答話分也無。僧舉似洛浦。浦扣齒。又舉似雲居。居曰。何必。僧回舉似趙州。州曰。南方大有人喪身失命。僧曰。請和尚舉。趙州方舉前話。僧指旁僧曰。者箇師僧喫却飯了。作恁麼語話。師頌曰。坐底見立底。立底見坐底。咄哉老趙州。白日眼見鬼(靈隱嶽嗣)。

祕監陸游居士

字務觀。號放翁。山陰人。常謁松源嶽和尚於靈隱。從容問曰。心傳之學。可得聞乎。嶽曰。既是心傳。豈從聞得。士點首默契。遂

呈謁曰。幾度驅車入帝京。逢僧一例眼雙青。今朝始見宗門別。說有無言要眼聽(靈隱嶽嗣共十四人)。

臨安徑山癡絕道冲禪師

武信長江荀氏子。母郭。生而豐上短下。資性絕人。稍長以進士業應詔不第。遂出家。遊歷講肆。習經論。紹熙壬子。出峽回翔荆楚間。時曹源生出世妙果。師造見。聆入門語有省。參堂俾侍香。朝夕老拳痛棒不少貸。平生知見。至是多無影響。生徙龜峰。師侍行。又三年。以偈辭游浙。有尚餘窮相一雙手。西向諸方痒處爬之句。初應嘉禾光孝。道聞於朝。忠獻衛王以堂帖除蔣山。蔣山諸莊。皆瀕江易澇。下田多無收。師忍飢鳴道。行乞養士。居十有三載無倦色○嘉熙己亥。侍郎東畎曹公鹵帥閩。聞師道望。以鼓山來聘未行。雪峰牒至。領事半年。而天童詔下。眾集如海。育王虛席。攝住持事。往來兩山○上堂。天童用底來。育王用不著。育王用底歸。天童用不著。雖然如是用不著。不著處用有餘。一箭雙鷗隨手落○結夏上堂。圓覺伽藍。塵塵有路。坐斷去來。頓空今古。那裏十三。者邊十五。後先不差毫髮許。堪笑黃面瞿曇。至今不知落處○遷徑山。一日忽陞座辭眾。舉世尊臨入涅槃。告眾曰。汝等善觀吾紫磨金色之身。瞻仰取足。毋令後悔。今日即有。明日即無。師曰。世尊四十九年。作盡伎倆。及至臨行之際。求生不得。求死不得。山僧今日要行便行。要去便去。八臂那吒攔不住。至夜分起坐。移傾而逝。壽八十二。茶毗舍利五色無數。遵遺命奉骨歸葬金陵玉山庵。學者分其半塔於菖蒲田(薦福生嗣)。

臨安淨慈清溪沅禪師

上堂。達磨西來。一坐具地。被他神光禮了三拜。一時占了。致令後代兒孫。各自分疆列界。衲僧家撥草瞻風。朝吳暮越。南天台。北五臺。拄杖頭。草鞋底。還曾踏著也未。良久曰。切忌踏著(天童鏡嗣)。

荊州公安虎溪錫禪師

上堂。心心淺處實甚深。道道幽遠無人到。急行踏不著。緩行成錯過。少林幾坐華木春。卻憶西來胡達磨(天童鏡嗣)。

福州西禪月潭圓禪師

開爐上堂。人人盡守甕中天。地覆天翻我不然。直下一槌星火迸。
螺江燒卻謝郎船○讚豬頭和尚曰。血淋淋。古佛心。幾回提起。誰
是知音(天童鏡嗣)。

慶元育王寂窗有照禪師

福之閩縣鄧氏子。時枯禪鏡唱道怡山。師往見之。一日鏡問曰。自
從一見桃華後。直至如今更不疑。那裏是他不疑處。師大笑趨出。
鏡深肯之。鏡遷靈隱。師掌內記。以老母歸省。閩帥趙公汝愚。請
師開法東山大乘。移福之黃檗○朝命補江心。後遷玉几。適災變。
竭力興建。聞奏朝廷。降金帛鼎建舍利寶塔。上堂。六塵不惡。還
同正覺。鷓鴣鳴鷓鴣。鵲噪鵲鵲。江北江南。潮生潮落。春風三月華
草香。善財何處尋樓閣。喝(天童鏡嗣)。

泉州法石愚谷元智禪師

長溪薛氏子。參天童有省。呈山居偈曰。栗色伽黎千百結。倚松捫
腹看雲飛。有人問我居山趣。向道春深筍蕨肥○咸淳丙寅正月。跌
坐書偈而逝。塔全身於鼓山南院(天童鏡嗣)。

報恩太古先禪師

上堂。若論此事。不涉心思意想。非干默照忘懷。要得洞然明白。
須是汗下一回。且道汗下後如何。驀喚侍者。將扇子來○上堂。衲
僧家游方行脚。撥草瞻風。第一須識路徑始得。路徑不錯。東西南
北。到處為家。稍涉迂回。五里單牌。十里雙堠。那裏更在那裏。
擲下拄杖云。看脚下(天童鏡嗣)。

岳翁淳禪師

久參鏡和尚得契。佛誕日偈曰。毗嵐毒種毒華開。添得雲門醉後
杯。今日河風橋色惡。淡煙疎雨洗黃梅(雜毒海載此偈是西岳作未知何據
○天童鏡嗣已上七人)。

平江虎丘雙杉元禪師

舉宋太宗夢神人勸發菩提心。次日問廷臣。菩提心作麼生發。羣臣
無對。雪竇代曰。實為今古罕聞。別峰印代曰。王言如絲。其出如

綸。師頌曰。萬里謳歌聖化成。條風塊雨樂樵耕。不因嵩嶽三呼後。無象誰知真太平○冷泉兩廊畫壁頌曰。一一塵中堅密身。改頭換面轉精神。誰知東壁打西壁。總是靈山會上人(隱靜柔嗣)。

臨安徑山元叟行端禪師

臨海之何氏子。世業儒。母陳。師生而秀拔。幼不茹葷。十二出家。十八受具。一切文字。不由師授。初參藏叟珍於徑山。珍問甚處人。師曰台州。珍便喝。師展坐具。珍又喝。師收坐具。珍曰。放汝三十棒。參堂去。師於言下豁然頓悟○一日侍立次。珍曰。吾泉南無僧。師曰。和尚響。珍便棒。師接住曰。莫道無僧好。珍領之。命入侍司。洎珍告寂。師至淨慈。嘗自稱寒拾里人。徑山請居第一座○大德庚子。特旨賜號慧文正辨禪師○皇慶壬子。遷靈隱。有旨設水陸大會於金山。命師陞座說法。事竣入覲。加賜佛日普照。陞辭南歸。養靜於梁渚之西丘○至治壬戌。徑山虛席。請師補處。師三被金襴之賜。二十年來。足不越閭。而慕其道者鱗集。至無所容。師嘗勘一新到曰。何方聖者。甚處靈祇。僧曰。臨朕碁。師曰。杜撰禪和。如麻似粟。參堂去○又勘一僧曰。棋盤石。研破你腦門。盃盂池。浸爛你脚板。僧擬答。師便喝○又勘一僧曰。擘開華嶽連天秀。放出黃河徹底清。即且置。平實地上道將一句來。僧擬開口。師便打。師以呵叱怒罵為慈誘之誨。以不近人情。行大公之道。師之利他皆陰為之。沒齒不言○至正辛巳八月四日。示微疾。問侍者曰。呼之曾已休。吸之尚未捨。寄語諸苦源。來者不來者。如何是來者不來者。侍無語。師良久曰。後五日看。至期沐浴更衣。書偈訣眾曰。本無生滅。焉有去來。冰河發燄。鐵樹華開。投筆垂一足而化。留龕七日。顏色如生。全身葬於寂照塔院(徑山珍嗣)。

溫州江心一山了萬禪師

族臨川金氏。貌瘠而弱。年十五。業文有聲。祝髮日。芝產戶樞。及游方。值東叟領南屏。命師掌記。偶經神祠。見紙灰旋起。脫然忘所證。亟以白叟。叟詰之。遂蒙印可。遊天台。眾請開法寒巖。瓣香嗣東叟。踰三年。遷仙居紫籜。又十年遷疏山。又十年住江心。少不適意。輒棄去。寺眾數百。懇留涕泣而莫之留。會廬山月澗明公。遣舟迎師歸東溪。明公示寂。開先之眾。復以請。師力却之○上堂。拈拄杖。此拄杖子。西天四七。東土二三。天下老和尚拈弄不出。今日落在開先手裏。無頭無尾。能放能收。離相離名。

能縱能奪。雖然如是。也只為中下之機。忽遇上上人來時如何。以拄杖畫一畫。放過一著○皇慶元年。邁疾危坐。不近醫藥。閱七日。命具浴更衣。書訣眾語。泊然而逝。闍維收五色舍利如菽。目睛不燼。鎔以烈燄。益晶瑩。齒牙頂骨。錚然有聲。時改作豫章烏遮塔。江西行省丞相幹赤。命以舊藏世尊舍利奉於中。而遣使分師之目睛舍利。貯之銀盒陪葬焉。餘髑舍利。分葬東溪(淨慈穎嗣)。

慶元奉化岳林栢堂益禪師

溫州人。上堂。古者道。我者裏無法與人。只是據款結案。彰聖者裏亦無法與人。亦不據款結案。拈拄杖。如何是佛。赤脚踏蓮華。如何是佛向上事。雕梁畫棟。擲下拄杖。便歸方丈○上堂。五千四十八卷。只作一句道卻。遂起身曰。立地待諸人搆取。便下座○臨終偈曰。八十三年。什麼巴鼻。柏樹成佛。虛空落地。茶毗舍利瑩然。齒牙數珠不壞。(淨慈穎嗣)。

婺州雙林雲屋自閒禪師

括蒼葉氏子。烏巨行禪師之九世孫也。初參荊叟珏於靈隱。次謁東叟穎於淨慈。掌記室。一日因撰佛成道疏曰。發見精於午夜。叟曰。何不道泯見精於午夜。師不覺股栗汗下。如發蒙郛。徹見叟垂手為人處。後出世雙林。遷智者。皇慶壬子十月二十五日。與客語笑次。忽命侍僧取筆書偈而逝(淨慈穎嗣已上三人)。

枯木榮禪師

讚三祖偈曰。夙恙纏身世莫醫。家貧遭劫更堪悲。誰知覓罪了無處。正是賊歸空屋時(無方安嗣)。

臨安徑山佛智晦機元熙禪師

豫章唐氏子。師與兄元齡。俱習進士業。元齡既登第。師從西山明公祝髮。將遊方。其母具白金為裝。師謂財足喪志。即善言辭之。聞物初觀闡化玉几。往依之。觀與語驚異。留侍左右○至元間總統楊璉真如。奉旨取育王舍利。躬詣師求記述舍利始末。因招與俱。師曰。我有老母。兵後存亡不可知。遂辭歸江西。元齡先以臨江通判。從文丞相起兵死難。獨母在堂。師奉之以孝聞○元貞二年。出主百丈。居十有二載。至大初。應淨慈請入院日行中書省。行宣政

院官屬。悉迎請發揚宗旨。四方英衲。一時輻輳○上堂。獨坐大雄峰。寒灰撥不紅。一星螢火出。孤鶴過遼東○結制上堂。以手作結布袋勢曰。南山今日結卻布袋口了也。汝等諸人。各各於其中身心安居。平等性智。忽有箇衝開碧落。撞倒須彌底。莫道結子不堅密。良久曰。漫天網子百千重○居七載。復遷徑山。已而策杖歸南屏山下。百丈大仰之徒。聞師退閒。爭來迎請。師不獲已遂返仰山。居三年。將示寂。手書辭所與遊者。復書偈訣眾擲筆而化。世壽八十二。奉全身座於金鷄石下。弟子在杭者。分爪髮塔於淨慈西隱(育王觀嗣)。

慶元徑山雲峰妙高禪師

福之長溪人。世業儒。母阮。夢池上嬰兒。合爪坐蓮華中。手捧得之。覺而生師。因名夢池。神彩秀徹。嗜書力學。尤耽釋典。固請學出世法。薙染受具。上育王見偃溪聞禪師。機鋒相契。命掌藏鑰。一日聞舉譬如牛過窗櫺。頭角四蹄都過了。因甚尾巴過不得。師劃然大省。乃曰。鯨吞海水盡。露出珊瑚枝。聞遂許可。蔣山盧席。奉朝命居歷十有三載。眾踰五千指。德祐乙亥。寺被兵。軍士以刃擬師。師延頸曰。欲殺即殺。吾頭非汝礪刀石。辭色了無怖畏。軍士感化。棄刀而去○至元十七年。遷徑山。寺罹回祿。師住後頓還舊觀○示眾。前念是凡。後念是聖。一刀兩段。更莫遲疑。是以涅槃會上。廣額屠兒。放下屠刀。便言我是千佛一數。然雖如是。若無舉鼎拔山力。千里烏騅不易騎○京師有譖毀禪宗者。師曰。此法門大事。吾當忍死爭之。遂詣闕。被旨集諸宗徒廷辯○元世祖問。禪以何為宗。師奏淨智妙圓。體本空寂。非見聞覺知。思慮分別所能到。宣問再三。師歷舉西天東土諸祖。以至德山臨濟棒喝因緣。餘二千言。又宣進榻前。與譖者反復論難。譖者辭屈。世祖大悅○師陞辭南歸。示眾曰。我本深藏巖竇。隱遯過時。不謂日照天臨。難逃至化。又曰。衲被蒙頭萬事休。此時山僧都不會。徑山復災。師謂眾曰。吾宿負此山債耳。復竭力營建。匯殿坡為池。他屋以次落成○至元三十年六月十七日。書偈而逝。後建塔於寺之西麓(淨慈聞嗣)。

湖州何山鐵鏡至明禪師

福唐長溪王氏子。見偃溪聞於淨慈。朝參暮叩。久之始獲印證。至元辛巳。出世何山。移大梅。元大德庚子。復請歸何山○上堂。今朝八月二十五。記得洞山離杳渡。落在雲門網子中。有屈至今無處

訴。豎起拂子曰。看。雲門大師來也。合喫何山手中棒。且道過在什麼處。不合鼓弄人家男女○延祐乙卯。十一月初五日。呼其徒囑後事。索紙大書曰。絕羅籠。沒回互。大海波澄。虛空獨露。擲筆翛然而逝(淨慈聞嗣)。

慶元天童止泓鑒禪師

初住慶元真如。移天童。上堂。諸佛不真實。說法度群生。菩薩有智慧。見性不分明。白雲無心意。灑為世間雨。大地不含情。能長諸草木。古德與麼提唱。於四諦法中。開鑿人天。不妨善巧。若據衲僧分上。何啻白雲萬里○上堂。拈拄杖。一有多種。二無兩般。枯桑知天風。海水知天寒。拄杖子聞與麼道。不覺忻忻笑曰。出身猶可易。脫體道應難。擲下拄杖下座(淨慈聞嗣已上三人)。

慶元天童石門來禪師

嘗作剪刀頌曰。渾鋼打就冷光浮。兩刃交鋒未肯休。直截當機為人處。何曾動著一絲頭(大川濟嗣)。

慶元雪竇野翁炳同禪師

新昌張氏子。參大川濟。一日入室次。濟舉臘月火燒山話。師擬開口。濟遽枯竹篋拄之。師豁然省旨。後縛茅仗錫峰。日扃戶書法華。嘗有老來非厭客。靜裏欲書經之句(大川濟嗣已上二人)。

臨安靈隱悅堂祖閻禪師

南康周氏子。年十三。告辭父母。薙髮出家。一日閱華嚴經。至惟一堅密身。一切塵中現。忽有省。即往見別山智於蔣山。問近離何處。師曰。江西。智曰。馬大師安樂否。師叉手進前曰。起居和尚。智俾入侍司。未幾至杭。見斷橋倫於淨慈。問臨濟三遭黃檗痛棒是否。師曰是。倫曰。因甚大愚肋下築三拳。師曰。得人一牛。還人一馬。倫領之。倫逝。而介石朋補處。一日朋室中舉庭前柏樹子話。師擬議。朋抗聲曰。何不道黃鶴樓前鸚鵡洲。師言下頓悟。即命侍香○元貞初。奉詔赴闕。入對稱旨。賜璽書通慧禪師號。并金襴法衣○大德九年。住靈隱。一僧新到。師問何處來。僧曰。閩中。師曰。彼處如何住持。僧曰。飢即喫飯。困即打眠。師曰錯。僧曰。未審和尚此間如何住持。師拂袖歸方丈○居四載示疾。訣眾

偈曰。緣會而來。緣散而去。撞倒須彌。虛空獨露。偈畢乃跏趺而化(雙林朋嗣)。

廬山圓通雪溪逸禪師

讚興化和尚偈曰。中原一寶有來由。得拶君王引幞頭。到此若無青白眼。當機誰敢謾輕酬(弁山阡嗣)。

岳州灌溪昌禪師

山居偈曰。閒來石上玩長松。百衲禪衣破又縫。今日不憂明日事。生涯只在盂盂中(無鏡徹嗣)。

支提愚叟澄鑒禪師

寧德張氏子。參無文於薦福。遂許入室。至元二十年。世祖勅住支提。賜號通悟明印大師。後將示寂。沐浴更衣。書偈曰。八十二年。落賺世緣。躍翻筋斗。應跡西乾。擲筆危坐而逝(薦福燦嗣)。

紹興大慶尼了庵智悟禪師

福州王氏女。幼孤。年十一。白母願出家。因誦維摩經。至諸佛國土。亦復皆空。豁然頓悟○往參雲峰信。信問曰。上座什麼處住。師曰。不住南臺江邊。信曰。畢竟住在什麼處。師不審便行。信叱曰。走作什麼。合喫山僧手中棒。師面熱汗下。次日復往請益曰。某甲昨日祇對和尚。有什麼過。信厲聲曰。更來者裏覓過在。師釋然曰。月明照見夜行人。信顧旁僧曰。看渠根器不凡。遂印以偈。有相逢若問其中事。風攪螺江浪拍天之句○上堂。拈拄杖。天垂十二闌干角。風滿三千世界中。熱惱變成清淨境。禪心頓覺悟真空。靠拄杖。有甚共語處○上堂。大陽門下。日日三秋。明月堂前。時時九夏。古人甚麼道。未免坐在者裏。大慶即不然。山轉疑無路。溪回別有村○上堂。柳絮颺風。杏華沐雨。好箇生機。快須薦取。以拂子擊禪牀曰。咄。三十年後。不得錯舉(雪峰信嗣)。

寧波天童西江謀禪師

被勅住天童。歷四十年。貌枯色瘁。泣眾孤峻。機語峭拔。音如洪鐘。理宗朝。三被寵錫。其示眾曰。春日晴。黃鸝鳴。最親切。誰

解聽。一日將入滅。顧侍僧曰。一笑翻身。日面月面。遂逝(華藏淨嗣)。

福州雪峰石翁玉禪師

禮雪峰塔偈曰。入閩早是四旬餘。象骨崖前縛屋居。誰道開平年代後。春疇煙雨幾鋤犁(華藏淨嗣)。

臨安中竺空巖有禪師

室中垂語曰。黃金鑄就鐵真人○東海涌頌曰。錦衣公子醉田家。熟睡柴牀日未斜。熱渴呼漿無所得。便將玉帶換甌茶(徑山珙嗣)。

臨安淨慈千瀨善慶禪師

嚴陵鼓氏子。卅歲而孤。萍蹤無寄。聞荆叟珙主淨慈。遂往親依。一日聞舉洞山麻三斤話。遂得大悟。出住宜興之保安。遷嘉禾之天寧。後主淨慈。嘗著扶宗顯正論。進仁宗覽而嘉之。賜金襴袈裟。徽號慧光普照文明通辯禪師(徑山珙嗣已上二人)。

婺州寶林無機和尚

上堂。蘆華對蓼紅。木落山露骨。彷彿揚州。依希越國。拈拄杖卓一下曰。為君卓破精靈窟。無位真人赤骨律(靈隱泉嗣)。

溫州華藏瞎驢無見禪師

舉興化打克賓頌曰。興化打克賓。言親語不親。棒頭如雨點。敲出玉麒麟(黃龍開嗣)。

臨安慧雲無傳祖禪師

上堂。佛佛廣說。大智莫能知。祖祖相傳。凡情詎能測。先天後地。成壞長存。入死出生。去來不變。於斯薦得。已涉支離。其或未然。山僧更為下箇註脚。以拂子擊禪牀曰。啼得血流無用處。不如緘口過殘春(黃龍開嗣)。

杭州護國臭庵宗禪師

上堂。舉豐干謂寒山拾得曰。你與我去遊五臺。便是我同流。寒山曰。你去遊五臺作麼。干曰。禮拜文殊。山曰。你不是我同流。師曰。豐干開口。不在舌頭上。寒山同坑無異土。檢點將來。兩箇駝子廝撞著。世上應無直底人(黃龍開嗣)。

放牛余居士

參無門開禪師。凡有所問。被開劈面截住曰。不是不是。一日向同參臭庵宗問曰。吾師甚麼見解。敢對人天顛倒是非。宗曰。我在無門座下。無法可得。無道可傳。只得兩箇字。士曰。兩字如何。宗曰。不是不是。士言下頓悟無門為人處○安吉州沈道婆問。是非關有幾句。士曰。有四句。婆曰。四句作麼舉。士曰。第一句。有是有非則不可。第二句。無是無非又不可。第三句。是是非非也不可。第四句。非是是非亦不可。若離得此四句。始見本地風光。曰我離得否。士曰。汝離不得。曰人人有分。我何離不得。士曰。嫁雞逐雞飛。嫁狗逐狗走。曰如何是本地風光。士曰。月子彎彎照九州。幾人歡喜幾人愁。曰不問這箇本地風光。士曰。問那箇本地風光。曰無男女相底。士曰。既無男女相。問甚是非關。曰別有向上事也無。士曰有。曰如何是向上事。士曰。馬蝗丁住鷺鷥脚。你上天時我上天(黃龍開嗣已上四人)。

福州鼓山皖山正凝禪師

龍舒太湖人。入閩禮孤峰秀和尚。秀舉狗子無佛性話。師不能答。踰半載。得臻閩奧。乃頌曰。趙州道無。箭不虛發。築著磕著。全活全殺。秀曰。你也得。只是未在○一日秀舉德山見龍潭話。問那裏是德山親到處。師以手掩秀口。即說頌曰。潭不見。龍不現。全身已在空王殿。夢回忽聽曉鶯啼。春風落盡桃華片。秀曰。汝今日方知泗洲大聖。不在揚州出現。善自護持。遂俾侍香。久之太傅賈平章魏國公。筭請住鼓山。上堂。入院方三日。迫陪人事忙。燈籠與露柱。密密細商量。且道商量箇什麼。拍禪牀。昨夜碧天風浪靜。一輪明月映螺江○上堂。六月旦。夏巳中。荷華開水面。荔子映山紅。無位真人處處相逢。擬議雲山千萬重○師化緣將畢。集兩序示遺誡。索筆書偈曰。八十四年。一夢相似。夢破還空。也無些事。端坐而逝(孤峰秀嗣)。

婺州雙林一衲介禪師

讚傳大士偈曰。非儒非道亦非禪。杜撰修行忒可憐。擔閣一身三不了。至今八百有餘年(孤峰秀嗣已上二人)。

葛廬覃禪師

舉僧問石溪和尚。如何是佛。溪曰。矮子看戲。頌曰。巍巍丈六紫金容。百戲場中有變通。矮子看來眉卓豎。鐵鎚無孔舞春風(容庵海嗣)。

曹洞宗

磁州大明寶禪師

參普照辨。問離四句。絕百非。請師直指西來意。辨曰。昨日有人恁麼問。被打出去也。師曰。今日又如何。辨曰。你得恁麼不識痛癢。師禮拜。辨曰。可惜許。棒折也。師直得汗下。忽然猛省。住大明上堂。僧問如何是轉功就位。師曰。用盡鑊頭力。放下臥清風。曰如何是轉位就功。師曰。不居無影谷。曳杖入煙村。曰如何是功位齊彰。師曰。掌上擎日月。運照自無私。曰如何是功位俱隱。師曰。石人同木女。相邀入海中。曰此是今時事。如何是那邊事。師曰。待汝盡卻今時。即向汝道○上堂。若論此事。如人作針線。針針相似。忽見人來。不覺失卻針。祇見線。這邊尋也不見。那邊尋也不見。卻自曰。近處尚不見。遠處那裏得來。多時尋不得。心煩不好。昏悶打睡。拽衣就枕。方就枕時。驀然一箇曰。原來祇在這裏(南庵依頌云百城煙水苦飄樓閣門門開未許通只有善財親得見德雲不在妙高峰○位中符云為惜明珠冀掃堆婆心曲盡幾多回精光撥動由人取蛟宅無須費打開)○五位頌曰。正中偏。月鎖深宮午夜前。燭香人靜丹墀冷。一片虛明照碧天○偏中正。曉天不挂秦臺鏡。金烏纔擬出扶桑。依稀還被輕煙映○正中來。深夜寒梅雪裏開。馥馥清香無間斷。頭頭觸處絕纖埃○兼中至。大用全彰無忌諱。攜手相將賀太平。熙熙風物從來異○兼中到。妙盡功忘非善巧。枯木龍吟大地春。靈根秀出寒巖草(普照辨嗣)。

慈雲十身覺禪師

普照室中。推為上座。辨垂百問。以驗學者。一時鮮有契機。惟師所答。有同水乳。略舉七則。以見其槩○問曰。聲前薦得。落在今時。句後承當。迷頭認影。作麼生是空劫已前自己。師曰。半夜石

人無影像。縱橫誰辨往來源○問曰。不見一法。猶是半提。作麼生是全提底道理。師曰。石馬驟千山○問曰。喫飯忘其飢。力克忘其飽。作麼生是力克底人。師曰。巨靈擡手無多子。分破華山千萬重○問曰。直得不恁麼來者。猶是兒孫邊事。如何是向上人。師曰。半夜烏鷄雪裏啼○問曰。行玄體妙。落在今時。究理窮源。關山萬里。只如未知有底人。如何趣向。師曰。牀窄先臥○問曰。迷時千卷少。悟後一言多。且道悟了底人。如何履踐。師曰。出不由戶。坐不當堂○問曰。岸如欲止先停棹。車若不行須打牛。如今打牛也。車行也未。師曰。下載清風付與誰(普照辨嗣)。

玉溪通玄圓通禪師

嘗著百問。激勵學徒。其略曰。沒底船子。為甚麼無漏堅固。豎起拂子曰。為你說禪了也。作麼生會。又拈起拄杖曰。還有向拄杖頭上。下得一轉語底麼。又畫一圓相曰。三世諸佛。六代祖師。總在裏許。作麼生會。復以手空中點一點曰。且道者一點。明甚麼邊事。豎起一指曰。俱胝和尚。向這裏放大光明。轉大法輪。諸人還見麼。又曰。折脚鐺兒為活計。穿心椀子作生涯。通玄庵內安然坐。不管山前事似麻。且道安然坐底。是甚麼人(普照辨嗣)。

鄭州普照寶禪師

磁州武氏子。於滏陽造仰山寺。忽有題詩柱上者曰。人道斑鳩拙。我道斑鳩巧。一根兩根柴。便是家緣了。師見之大悟。即入西山結茅以居。徧參諸山。遂入青州之室。後住洪峪寶巖寺。一夕大風震地。宴坐而逝(普照辨嗣已上四人)。

慶元雪竇無印大證禪師

鄱陽史氏子。幼穎異。年十四。薙落受具。出遊。謁荊石琰思庵審諸老。不契。聞雲外岫和尚唱道天童。師往依之。入室有省。遂命典藏○至治間。詔天下善書者。以金書藏經。師應詔。竣事。上賜以織金屈昫之衣○宋寧宗泰定初。南還江淞。丞相脫歡公領行宣政院事。起師主衢之南禪。繼領光孝。既而洪之翠巖。饒之芝山。俱以行院檄請。師以疾固辭○元至正十五年。遷雪竇。上堂。千說萬說。不若覲面一見。昨日二十九。今朝七月一。報你參玄人。光陰如箭疾。娘生兩隻眼。箇箇黑如漆。急急急。回頭看取天真佛。良久曰。是何面目。下座巡堂喫飯○上堂。妙不妙。衲僧鼻孔多無

竅。玄不玄。剎竿頭上無青天。志士寧容袖手。良馬豈待揮鞭。全
超棒喝。不落蹄筌。百鳥不來春又去。巖房贏得日高眠。居四年。
退居定水之圓明庵。次年示寂。闍維牙齒數珠不壞。舍利明瑩。門
人建塔圓明庵後(天童岫嗣)。

續指月錄卷四

續指月錄卷五

六祖下二十一世

臨濟宗

袁州仰山雪巖祖欽禪師

婺州人。(續燈存藁作閩之漳州人)初參天目禮。令看臨濟三頓痛棒話。一日纔上蒲團。忽覺有省。後參無準範和尚於徑山。因鑄鐘令著語。師呈偈曰。通身只是一張口。百煉爐中輒出來。斷送夕陽歸去後。又催明月上樓臺。準即俾居侍司。每遇入室。舉起衲僧巴鼻。佛祖爪牙。更無下口處。經十年。偶佛殿前行。擡眸見一枝古柏。觸著向來所得境界。和底一時颺下。方始見無準老人立地處。後舉示人曰。正好與三十拄杖(箬庵問頌云大虫無齒爪牙危未透玄關只暗疑不是脚跟親點地此心能有幾人知)○上堂。純清絕點。正是真常流注。打破鏡來。未免一場狼藉。不若遇飯喫飯。遇茶喫茶。曉來獨立空庭外。閒對寒梅幾樹花○上堂。海水不可斗量。虛空不可尺度。淨地不可撒沙。爛泥不可著脚。這四轉語。轉轉有落處。且道落在什麼處。東京大相國寺裏。有樹芭蕉。風吹雨打。一似破袈裟○上堂。有句無句。如藤倚樹。白鷺下田千點雪。黃鸝上樹一枝花。三千里外。賣卻布單。不遠而來。因甚放下泥盤。呵呵大笑。毗婆尸佛早留心。直至如今不得妙○上堂。禪。樹上叫喧喧。道。門前風浩浩。冷地思量真可笑。笑什麼。等閒拾得蘇州梨。看來却是青州棗○上堂。箇事本成現。覓則不可見。白珪本無瑕。琢磨乃成玷。執之以實法。空中生閃電。視之似等閒。脚下添紅線。若是學道人。好好看方便。作麼生。莫看仙人手中扇○準老人忌日拈香曰。盡道先師今日死。誰知今日是生朝。不知却有何憑據。紫柏黃檀一處燒○僧問如何是五家宗旨。師曰。有口祇堪喫飯。曰若不借問。爭達本源。師曰。未敢相許。曰如何是為仰宗。師曰。父慈子孝。曰如何是臨濟宗。師曰。迅雷不及掩耳。曰如何是曹洞宗。師曰。三更不借夜明簾。曰如何是雲門宗。師曰。體露金風。曰如何是法眼宗。師曰。山自清。水自綠。曰五家宗乘蒙師指。向上宗乘事若何。師曰。頭頂天。脚踏地○師住袁州仰山。世稱法窟第一。咸淳己巳。元帝賜賚尊禮○至元丁亥。寄竹篋塵拂。及綠水青山。一同授記與高峰原妙。以讚示曰。上大今已無人。雪巖可知禮也。虛名塞破乾坤。分付原妙侍者(徑山範嗣)。

臨安淨慈斷橋妙倫禪師

台州黃巖徐氏子。母劉。夢月而孕。年十八落髮。見谷源道於瑞巖。聞三斤麻之話疑之。徧叩諸方。一日於雲居見山堂。閱楞伽。至蚊虫螻蛄。無有言說而能辦事。頓然有省○參無準範和尚。準以狗子因何有業識。令下語。凡三十轉。皆不契。師云。可無方便乎。準乃舉真淨頌曰。言有業識在。誰云竟不深。海枯終見底。人死不知心示之。師悚然良久。忽聞板聲大悟(介庵進頌云漏屋恰逢連夜雨夏多愁霧鎖柴門忽然雲靜紅輪擁疊疊青山插遠村○一初元頌曰頂門一擊汗如油捉敗當年老趙州自是黃河連底濁一翻驟雨一翻愁)○上堂。荊山有玉。獲得者。不在荊山。赤水有珠。拾得者。不在赤水。衲僧有無位真人。證得者。出入不在面門。驀拈拄杖橫按。會麼。幽州江口石人蹲○上堂。舉慈明室中安一盆水。盆上橫一柄劍。劍上安一緇草鞋。凡見僧來便指。擬議便打。師頌曰。百花叢裏躍鞭過。逸逸風流有許多。未第儒生偷眼覷。滿懷無奈舊愁何○上堂。德山低頭。夾山點頭。俱低豎起手指頭。玄沙築破脚指頭。提起拄杖云。都來不出山僧拄杖頭。何以見得。卓拄杖云。一葉落。天下秋(牧公謙頌云千奇與百怪只在一毫端拈却毫端看霜花六月寒)○上堂。舉達觀頌示眾云。七佛是性隸。萬法是心奴。且道主人翁在甚麼處。自喝云。七佛已下出頭。又自諾云。各自祇候。師云。喚七佛為性隸。指萬法是心奴。達觀自謂有出身路。及乎自喝自諾。又是奴隸邊事。主人翁何曾夢見在。大眾要見麼。以拂拂一拂云。曉來一陣春風動。開徧園林百樣花○師將示寂。與眾入室罷。索筆作書辭諸山。及魏國公。公饋藥不受。又使人問曰。師生天台。因甚死淨慈。師答曰。日出東方夜落西。遂書偈而化(徑山範嗣)。

台州國清靈叟源禪師

上堂。舉僧問趙州。真如凡聖。皆是夢言。如何是真言。州曰。俺部臨[口*發]。師曰。趙州禪只在口皮邊。看他與麼。也是喚鐘作甕。忽有問靈叟。却向他道。飢時但喫飯。且道與古人是同是別。西天梵語。此土唐言○上堂。炎自炎。涼自涼。法無二法。不用商量。只如人人鼻孔在面上。則固是知有我。更問你別沼荷香。何似深村稻香(徑山範嗣)。

慶元天童別山祖智禪師

姓楊氏。蜀之順慶人。年十四得度。初聞僧誦華嚴經。彌勒樓閣。入已還閉。恍如夢覺。見無準於雪竇。範知是法器。待之彌峻。時或棒喝交下。一語不少貸。師擬對輒噤不能發。由是知解都喪。曰吾平生伎倆。皆死法也。今見此翁。始行活路。既而範移徑山。命師分座。天童燬。州帥吳公奏師道行。師被旨攜一囊一鉢。縛茆以居。寧郡久不雨。師禱之輒應。由是人情奔湊。不三年。盡還舊觀。一日忽示眾曰。雲澹月華新。木脫山露骨。有天有地來。幾箇眼睛活。有省問者。師曰。不及相見。各自努力。越十日。夜分。呼侍者囑後事。叉手而寂(徑山範嗣)。

福州雪峰環溪一禪師

題布袋和尚讚曰。逢人乞一文。袋裏敵國富。不是下生遲。嫌佛不肯做。舉即心即佛頌曰。即心即佛。砒霜狼毒。起死回生。不消一服(徑山範嗣)。

明州天童月坡明禪師

得法後陞住天童。舉僧問雲門。久雨不晴時如何。門曰筍。師頌曰。雲門者一筍。吹毛光透匣。若不是張華。徒勞眼眨眨。舉良遂參麻谷因緣頌曰。攜鋤不顧。便好回去。誰人敢道。你是座主(徑山範嗣)。

廬山東林指南直禪師

送僧還成都偈曰。智不到處道一句。一句當機便到家。宿鷺亭前風擺柳。錦官城畔雨催華(徑山範嗣)。

慶元雪竇希叟紹曇禪師

西蜀人。上堂。發得一機活。出得一言當。萬里無片雲。青天合喫棒。不待春風著意開。暗香已在梅花上。舉僧問南泉。師居方丈。將何指示。南泉曰。昨夜三更失却牛。天明起來失却火。頌曰。奴顏婢膝走人間。羞見羊裘七里灘。文叔雖為天子貴。子陵元作故人看。寄天童和尚偈曰。翁翁八十再生牙。爛嚼虛空吐出查。撒向玲瓏巖畔樹。枝枝葉葉是曇華(徑山範嗣)。

臨安靈隱退耕寧禪師

初住嘉興崇聖。次遷杭之靈隱。舉僧問趙州。和尚姓甚麼。州曰。常州有。曰甲子多少。州曰。蘇州有。頌曰。蘇州有。常州有。三月江南啼鷓鴣。堪笑有年無德漢。被人拶著強分疏(徑山範嗣)。

福州雪峰絕岸可湘禪師

台州寧海葛氏子。舉僧問曹山。雪覆千山。為甚孤峰不白。山曰。須知有異中異。曰如何是異中異。山曰。不墮諸山色。頌曰。言中彼此帶幽玄。盡向言中辨正偏。孤負一條官驛路。芒芒沈在月明前(徑山範嗣)。

慶元天童西巖了慧禪師

蓬州羅氏子。垂髫與羣兒戲。必搏泥沙為佛塔像。既長遂出家。見無準範。自陳來歷。範呵曰。熟睡去。既而令充不釐務侍者。一日範謂師曰。覷不透處。只在鼻尖路。道不著處。不離唇皮上。討之則千里萬里。師抗聲曰。將謂有多少。準遷育王。師侍行。從容承稟。乃盡其要。逮範移徑山。師居第二座。自是聲動叢林。節齋趙觀文作牧蘇州。舉師開法定慧寺。佛涅槃上堂。拈拄杖召大眾。黃面瞿曇。乃竺乾猛將。以慈悲為弓矢。以智慧為戈矛。統百萬雄兵。勇不可當。布三百餘陣。勢不可敵。如是四十九年。演出五千餘卷兵書。雖流落人間。而未嘗有一字漏泄。因與生死魔軍。為冤為對。遂於跋提河邊。築一巨城。名為涅槃。於其城中。先以紫磨金軀。犒賞諸兵。令其瞻仰取足。再三撫諭。而又散以八斛四斗珍珠。其謀意無他。必欲打破生死牢關。普與盡大地眾生。共行通天活路。得到大安隱。大解脫之場而後已。豈謂二千餘載。猶未遂其志。未奏其功。山僧既知其力盡計窮。不免拔劍相助去也。以拄杖畫一畫。四海浪平龍睡穩。九天雲淨鶴飛高○師嘗題靈隱兩廊畫壁曰。幸是十方無壁落。誰將五彩畫虛空。善財眼裏生華鬘。去却一重又一重○晚年退居幻智庵。將終。誡執事已。問曰。今何時。對曰。二鼓矣。遂放身而逮(徑山範嗣)。

越州光孝石室輝禪師

上堂。舉城東老姥。與佛同生。不欲見佛。每見佛來。即便回避。雖然如此回顧。東西總皆是佛。遂以手掩面。十指掌中亦總是佛。師頌曰。平生不願佛相逢。十指尖頭現紺容。夾路桃華風雨後。馬蹄何處避殘紅(徑山範嗣共十二人)。

杭州淨慈愚極慧禪師

參石田薰於靈隱。一日室中舉雲門念七話。連舉十數轉。無人下語。忽有一僧纔跨門。薰遽曰。雪峰覬毬。師侍傍。聳耳而聽。豁然領悟。衝口說偈曰。雲門念七。雪峰覬毬。白頻紅蓼。明月孤舟。薰領之○送寧禪人偈曰。心未寧時為汝安。落花小雨釀春寒。斷橋流水孤山路。楊柳絲絲拂畫欄(靈隱薰嗣)。

臨安中竺雪屋珂禪師

上堂。枯桑知天風。海水知天寒。且道衲僧知箇甚麼。知道飯是米做。直饒恁麼。閻羅老子索飯錢有日在○師以宋鼎既遷。即謝寺事。時金山默庵雅禪師。尊師道行○元兵下江南。默庵被總兵伯顏脇置幕中。從至武林。默庵言於伯顏。請師住靈隱。親持請疏扣門。師抽關露半面問曰。汝為誰。默庵曰。和尚故人某甲也。師落關曰。我不識你。蓋師雖處世外。而以忠節自持。故不屑靈隱之命○斷江恩有詩曰。雪屋今亡四十年。高風凜凜尚依然。伯顏丞相拜牀下。不肯為渠來冷泉(靈隱薰嗣已上二人)。

慶元育王橫川如珙禪師

永嘉人。姓林氏。始孩不肉食。年十五出家。後祝髮受具。登太白。謁天目禮。咨決所疑。禮舉南山筌筍東海烏賊話。師擬對。禮便打。豁然有省○被旨住育王。僧問如何是教外別傳底句。師曰。不落玄妙。僧曰。恁麼則一超直入如來地。師曰。且緩緩。問如何是學人行履處。師曰。你適纔從甚處上來。僧曰。如何報得四恩去。師曰。你且從適纔路下去。問如何是聞復賢根除。師曰。一不成。二不是。曰如何是塵消覺圓淨。師曰。漏木杓。破筢籬○上堂。地大水大火大風大。若一念無疑。地不能礙。若一念無愛。水不能溺。若一念無瞋。火不能燒。若一念無喜。風不能飄。如此即是無依道人。佛從無依生。若悟無依。佛亦無得○晚參。少室無門戶。如何便得通。夜深寧耐立。聽我說西東(保寧茂拈云也有權也有實也有照也有用只是不得恁麼會珍重)○一日謂眾曰。病叟今年六十六。死日將至。火化好。土化好。西堂唯庵曰。山前有片荒地。師即命疊石為塔。復自銘曰。天生一穴。藏吾枯骨。骨朽成土。土能生物。結箇葫蘆。挂趙州壁。永脫輪迴。超三世佛○將示寂。書訣眾語而化。所著有三會語錄(天童禮嗣)。

臨安淨慈石林行鞏禪師

初住安吉上方。後住淨慈。上堂。三家村裏。牛動尾巴。搖拂子。與者箇相去多少。擲拂子。泊合停囚長智○上堂。雪峰�毬。禾山打鼓。祕魔擎叉。道吾作舞。一切賢聖。皆以無為法而有差別。喝一喝下座(天童禮嗣)。

嘉興天寧冰谷衍禪師

上堂。朔風何蕭蕭。吹彼巖下衣。家業久荒蕪。遊子胡不歸。人生百歲豈長保。昨日少年今已老。翻憶寒山子。十年歸不得。忘却來時道(天童禮嗣)。

平江虎丘雲峴靖禪師

上堂。山僧若真正舉揚。河步亭無汝著脚分。且抑下威光。隨汝根器。未說超宗異日。若知得虎丘山高一百三十尺。舍利塔是隨朝建立。也許汝有箇入處。甘心下劣。又爭怪得老僧○上堂。古人道。依經解義。三世佛冤。離經一字。還同魔說。依與離。既不可得。畢竟如何。卓拄杖。漁人只看絲綸上。不見蘆華對蓼紅(天童禮嗣已上四人)。

平江萬壽訥堂辯禪師

上堂。我若與你說破。將後必須罵我。我若不與你說破。又恐你因循蹉過。忽有箇漢出來道。長老話墮了也。只向他道。老僧罪過。悼雲巢和尚偈曰。人傳師死已多時。我獨躊躇未決疑。既是巢空雲又散。春深猶有子規啼(雲巢巖嗣)。

平江虎丘清溪義禪師

送僧偈曰。台山萬疊入眉青。途路同行各奔程。清曉雞啼茅店月。是誰先起喚師兄(雲巢巖嗣已上二人)。

臨安徑山虛舟普度禪師

維揚江都人。姓史氏。稍長。無處俗意。母識其志。俾依郡之天寧出家。奮志參方。初見鐵牛印於靈隱。已而江東西。湖南北。悉徧

歷焉。淳祐初。制府趙信庵以金陵半山。請師出世○景定間。太傅賈魏公。奏補中天竺。復請旨陞靈隱○至元丁丑。詔住徑山。上堂。邪人說正法。正法悉皆邪。正人說邪法。邪法悉皆正。卓拄杖一下。邪耶。正耶。又卓一下。說耶。不說耶。向者裏揀辨得出。黃金為屋未為貴。玉食錦衣何足榮○臨終示微疾。索筆大書曰。八十二。年駕無底船。踏翻歸去。明月一天。擲筆而逝。塔於本山(華藏通嗣)。

平江萬壽高峰嶽禪師

讚初祖偈曰。開旗展陣入梁邦未覩天顏早已降。縱有神通難展歟。翩翩一葦渡長江(淨慈道嗣)。

平江承天覺庵夢真禪師

宣州人。八歲為僧。十九受具。二十行脚。多見尊宿。不能了決。慕無準道風。遂登徑山叩見。每到室中戰怖。話頭也不記得。自此不去入室。晝夜只是坐禪。一日廊下行。聞火板鳴有省。私自歡喜。遂入室。準問你是喫粥喫飯僧。參禪學道僧。師抗聲曰。喫粥喫飯僧。準曰。更須飽喫始得。師曰。謝和尚供養。自此只是看狗子無佛性話。無入作處。乃過雪竇見大歇。歇問作麼生是生死底事。師曰。眉毛安眼上。歇曰。眉毛因甚安眼上。師曰。說著令人轉不堪。歇又問。汝甚處來。師曰。徑山來。歇曰。火後事作麼生。師曰。五峰依舊插天高。歇曰。那事還曾壞麼。師叉手向前曰。幸喜不曾動著。遂挂塔歸堂。師自知未穩。心下常熱閏閏地。一夜更深。舉首見瑠璃燈。豁然大悟。從前所得。一時冰消瓦解。次日入室。歇舉如何是佛。三脚驢子弄蹄行。聲未絕。師曰。一任[跳-兆+孛]跳。歇曰。甚處與楊岐相見。師曰。當面蹉過○承天上堂。將心學佛。攝入魔宮。擬心參禪。墮在陰界。直饒嫌佛不肯做。被拄杖子穿過髑髏。若恁麼看來。直是無用心處。卓拄杖。攜取詩書歸舊隱。野華啼鳥一般春○至元間。有賢首宗講主。奏請江南兩浙名刹。易為華嚴教寺。奉旨剖析諸師論解。纖微若指諸掌。講主悔悟。遂禮師回奏(雪竇謙嗣)。

霍山昭禪師

上堂。即心即佛。嘉眉果閭。懷裏有狀。非心非佛。筠袁虔吉。頭上插筆。不是心。不是佛。不是物。漳泉福建。頭匾似扇。只可聞

名。不可見面(雪竇謙嗣)。

慧巖象潭泳禪師

上堂。舉無著和尚至五臺。師老翁喫茶次。翁拈起玻璃盞問曰。南方還有者箇麼。著曰無。翁曰。尋常將甚麼喫茶。著無對。師頌曰。五臺凝望思遲遲。白日青天被鬼迷。最苦一般難理會。玻璃盞子。喫茶時(雪竇謙嗣)。

一關溥禪師

舉馬祖令僧問大梅曰。和尚見馬大師。得箇甚麼。便住此山。梅曰。大師道。即心即佛。我便向者裏住。頌曰。只將馬祖鉛刀子。裂破漫天鐵網羅。碧沼夜敲荷葉雨。至今貧恨一身多(雪竇謙嗣)。

台州國清溪西澤禪師

普說略曰。參玄上士。行脚高流。撥草瞻風。到一處所。便乃供下入門口欵。謂之生死事大。無常迅速眾兄弟。生死若有。從古至今。無有一人能免。生死若是無。爭奈目前生死何。生死亦有亦無。不有不無當恁麼時。還有漏網底麼。既是走透無門。臘月三十日撞到面前。畢竟如何支準。若是踏破草鞋。歲月飄忽。不可把玩。要須窮教去處分明。與前來入門口欵相應始得(雪竇謙嗣已上五人)。

臨安徑山虛堂智愚禪師

四明人。室中垂語曰。己眼未明底。因甚將虛空作布袴著。畫地為牢。因甚透者箇不過。入海算沙底。因甚向鍼鋒頭上翹足○師年八十。住淨慈入院日。參徒問答次。忽天使傳旨。問趙州因甚八十行脚。虛堂因甚八十住山。師乃舉趙州行脚到臨濟話。頌曰。趙州八十方行脚。虛堂八十再住山。別有一機恢佛祖。九重城裏動龍顏。天使以頌回奏。上大悅。特賜米五百石。絹百疋。後住育王徑山。亦賜資優渥○師嘗舉東寺示眾曰。心不是佛。智不是道。劍去久矣。爾方刻舟。頌曰。昨日因過竹院西。鄰家穉子隔溪啼。山寒水肅半黃落。無數歸鴉卜樹棲○師示寂。塔於徑山直嶺下。昔高麗國嘗請師供養國王聞逝。遣法嗣到山掃塔(道場巖嗣)。

明州天童石帆衍禪師

舉陸亘大夫。問南泉師姓甚麼。泉曰。姓王。曰還有眷屬麼。泉曰。四臣不昧。曰王居何位。泉曰。玉殿苔生。曰玉殿苔生時如何。泉曰。不居正位。師頌曰。金鴨香銷更漏深。沈沈玉殿紫苔生。高空有月千門照。大道無人獨自行。舉大顛擯首座因緣。頌曰。一串摩尼。覲面當機。賺殺首座。疑殺昌黎。弄盡許多窮伎倆。春秋元自不曾知(道場巖嗣已上二人)。

臨安徑山石溪心月禪師

眉州人。上堂。舉僧問九峰。如何是學人自己。峰曰。更問阿誰。僧曰。便怎麼承當時如何。峰曰。須彌還更戴須彌。頌曰。自家冷暖自家知。祖意西來更問誰。全體承當全體是。須彌頂上戴須彌○舉晦堂與黃山谷。問答木樨花香因緣。頌曰。渠儂家住白雲鄉。南北東西路渺茫。幾度欲歸歸未得。忽聞巖桂送幽香○舉龐居士有男不婚。有女不嫁。頌曰。收拾山雲海月情。團圞鼻直眼眉橫。龜毛拂子兔角杖。敲得虛空曝曝聲(金山開嗣)。

福州神光北山隆禪師

示眾曰。即心即佛。有水有竹屋便好。非心非佛。不襪不冠身自由。不是心。不是佛。不是物。閒倚闌干立清曉。紅芭蕉引碧牽牛(徑山沖嗣)。

高臺此山應禪師

上堂。舉大隨庵側有一龜。僧問一切眾生皮裏骨。者箇眾生。因甚骨裏皮。隨拈草履覆龜背上。僧無語。師頌曰。休將皮骨強分張。得六藏時且六藏。隻履盡情都蓋了。者僧無事可思量(徑山沖嗣)。

慶元天童簡翁敬禪師(增集續傳燈誤入二十世無準範下)

上堂。舉大梅即心即佛話。頌曰。郎心葉薄妾冰清。郎說黃金妾不應。假使偶然通一笑。半生誰信守孤燈○舉文殊問庵提遮女。生以何為義話。頌曰。問處分明答處端。當機覲面不相謾。死生生死元無際。月上青山玉一團(徑山沖嗣已上三人)。

湖州道場龍源介清禪師

福州長溪王氏子。得度於義興法藏齊禪師。往育王謁寂窗照和尚。入室契旨。俾為侍者。復掌藏鑰。出世四明壽國。遷開壽道場。上堂。三春云暮。綠暗紅稀。動為境轉。靜為法迷。不以色蓋。不以聲騎。風前閑聽杜鵑啼(育王照嗣)。

杭州靈隱性原慧朗禪師

別號幻隱。台州黃巖項氏子。出家首參竺元道於仙居。繼詣徑山謁元叟。叟問東嶺來。師指脚下草鞋曰。者三文錢買得。叟曰。未在更道。師曰。某甲只恁麼。未審和尚作麼生。叟曰。念汝遠來。放汝三十棒。師乃悟旨。久之盡其底蘊。曰纔涉思惟。皆為剩法。佛涅槃日上堂。涅槃生死。等是空華。佛及眾生。皆為剩語。諸人到者裏作麼生會。良久拍禪牀。但見落花隨水去。不知流出洞中春。室中垂語曰。昨夜蓮花峰。被蜉游食却半邊。你因甚麼不知。又曰。冷泉亭吞却壑雷亭。即不問。南高峰與北高峰鬪額。是第幾機。眾莫有契者。洪武十九年夏。師被誣。將逮。或勸師早自為計。師不顧。怡然詣有司。未鞫。即廡下說偈。端坐而逝(徑山端嗣)。

嘉興天寧楚石梵琦禪師

象山人。姓朱氏。生在襁褓。有神僧見而謂其父曰。此佛日也。他日必當振揚佛法。十六為僧。趙魏公見而器之。為鬻僧牒。得度受具。一日閱楞嚴有省入。歷覽羣籍。恍如宿契。往參元叟端和尚。端震威一喝。師愕然。一夕睡起。聞鼓聲。豁然大悟。汗如雨下。拊几笑曰。徑山鼻孔。今日吾入手矣。因成偈曰。崇天門外鼓騰騰。驀箇虛空就地崩。拾得紅爐一點雪。却是黃河六月冰。端迎笑曰。且喜大事了畢。以第二座。參叩者。多令就師決擇。出住杭州報國。一日高右丞問禪分五派。教列三乘。教則不問。如何是禪。師曰。正值歲朝公讌。丞曰。達磨西來。不立文字。直指人心。見性成佛。佛在什麼處。師曰。管絃雜遝。朱紫熒煌。丞曰。莫便是和尚見處麼。師曰。不敢。丞曰。容在別日說話。師諾諾。一日座主參。師問講甚麼經。主曰。法華。師曰。經中道。是真精進。是真法供養如來。是否。曰是。師曰。供養即不無。如何是真法。曰具在藥王品。師曰。將謂是金毛師子。元來是野犴眷屬。主却問如何是真法。師曰。汝豈不從天台來。主曰。是。師曰。天台山高

一萬八千丈。頂上著得幾人。主無語。師曰。喫茶去○上堂。俱胝豎一箇指頭。雪峰輓三箇木毬。石鞏張弓架箭。華亭短棹孤舟。鳳山無法可說。不妨坐斷杭州。就中却有箇好處。好在什麼處。四五百條花柳巷。二三千座管絃樓○上堂。大事未明。如喪考妣。大事已明。如喪考妣。你道有成禪。無成禪。常因送客處。憶得別家時○上堂。聞聲悟道。塞却你耳根。見色明心。換却你眼睛。薄團上端坐。鍼眼裏穿線西風一陣來。落葉兩三片○至正丁亥。帝師錫號佛日普照慧辨禪師。適符昔日神僧之言。尋退歸天寧。上堂曰。一毫吞却山河大地則易。山河大地吞却一毫則難。也不難。也不易。鋪箇破席日裏睡。料想上方兜率宮。也無如此日炙背○洪武元年秋九月。詔江南大浮屠十餘人。於蔣山建大法會。命師陞座說法。上大悅。二年春。復用元年故事。召師說法。賜齋文樓下。親承顧問。師行。出內府白金以賜○三年秋。上以鬼神情狀。幽微難測。意遺經當有明文。召僧中博通三藏者問焉。於是師與夢堂噩行中仁等。應詔至京。館於大天界寺。上命禮部勞之。又命膳部頒賜薪米。旋命以所問條晰入告。師援據經論。成書將進。忽示微疾。越四日。趣左右具浴更衣。索筆書偈曰。真性圓明。本無生滅。木馬夜鳴。西方日出。書畢。謂夢堂曰。我去矣。堂曰。何處去。師曰。西方去。堂曰。西方有佛。東方無佛耶。師乃震聲一喝而逝。時辛亥七月二十六日也。上聞嗟悼久之。時禁火葬。以師故。特從闍維例。火餘齒舌數珠不壞。舍利五色。紛綴遺骼。弟子文晟。奉骼及諸不壞者。歸師所築西齋建塔。文憲宋公濂為之銘(徑山端嗣)。

杭州徑山愚庵以中智及禪師

蘇州吳縣之顧氏子也。自幼出家於穹窿海雲院。祝髮受具。聽賢宗法師講華嚴法界觀。未終篇。輒笑曰。一真法界。圓同太虛。但涉言詞。即成賸法。縱獲天雨寶華。於我奚益哉。遂謁笑隱於建業。隱文章道德。傾動一世。師微露文彩。一時交相延譽。有同參嶼公見師訶曰。子才若此。不思擔荷正法。乃甘作騷壇奴隸乎。無盡燈偈。所謂黃葉飄飄者。不知作何見解。師舌噤不能答。旋歸海雲。胸襟礙塞。目不交睫者踰月。一日忽見秋葉墜庭。豁然有省。謁元叟端於徑山。遂得法焉○江浙行省丞相達識帖穆兒。請住徑山。上堂。冬至月頭。賣被買牛。冬至月尾。賣牛買被。一年三十六旬有六日。以閏月定四時成歲。移易一絲毫不得。東頭買貴。西頭賣賤。三十年破後草鞋。向甚處著○上堂。時維三月。節屆清明。不寒不暖。半陰半晴。落花啼鳥一聲聲。驀拈拄杖。穿却解空鼻孔。[翟*支]瞎達摩眼睛。踏破草鞋赤脚走。好山猶在最高層○善權通

長老書到。上堂。自從胡亂後。三十年不少鹽醬。雪後始知松柏操。任汝非心非佛。我只管即心即佛。事難方見丈夫心。有底便道。江西信息通也。大梅梅子熟也。善權方便。固當如是。只如石頭道。書亦不達。信亦不通。諸人如何話會。直下道得。鋤斧子未到你在○師一日入園。見典座割瓜。師問割得幾箇祖師頭。座曰。三十箇。師曰。那箇皮下有血。座曰。和尚何得重重相戲。師曰。好心不得好報○上堂。齧破鐵酸餡。百味具足。演出大藏教。一句該通。三脚驢子弄蹄行。萬里無寸草○上堂。拈拄杖。十地驚心。二乘罔測。卓拄杖。子承父業。賺殺多少人。靠拄杖。下座○有亡賴男子瞿範者。日餐盤餐。執事者譏之致忿。誣師以^闍味之。事詣。部使者不滿意。文致其罪。師竟不與之辯。亦毫無愠色。踰年。省憲白師冤。復筭請再住徑山。師入院拈筭曰。前佛性命。後佛紀綱。總在者裏。凜然如朽索之馭六馬。危乎猶一髮之引千鈞。若非大丞相赤手提持。全肩擔荷。何處更有今日。諸人還委悉麼。車不橫推。理無曲斷。陞座酬唱畢。復曰。去日應須償宿債。回時宿債本來空。山上鯉魚打[跳-兆+孛]跳。一國之師展笑容。帝師錫號明辨正宗廣慧禪師○洪武癸丑。詔有道浮屠十人。集大天界寺師居首。以病不及召對。賜還穹窿。戊午九月。索筆書偈而逝。茶毗火燄五色。香氣襲人。齒牙數珠皆不壞遺骨紺澤。如青瑠璃。舍利交綴。塔於所居之陰。復分爪髮塔於徑山(徑山端嗣)。

杭州靈隱樸隱天鏡元淨禪師

越州會稽人。姓倪氏。從弘教大師立公祝髮。參元叟端和尚。入門。端厲聲一喝。聲若雷霆。師黏縛盡脫。遽稽首作禮。遂命居侍司。尋掌記室。追隨久之。得蒙印可○師應召入京。從容問道。賜食而退。會靈隱虛席。諸山交致堅請。上堂。聲不是聲。觀音三昧。色不是色。文殊法門。聲色無礙。普賢境界。拈拄杖畫一畫。大鵬展翅蓋十洲。籬邊燕雀空啾啾○上堂。即心即佛。嘉州牛喫禾。非心非佛。益州馬腹腹。不是心。不是佛。天下覓醫人。灸豬左膊上。良久曰。啼得血流無用處。不如緘口過殘春。未幾被逮謫陝西。途次寶應寧國寺。忽合掌端坐而逝(徑山端嗣)。

蘇州萬壽行中至仁禪師

族姓吳。番陽人。父仲華。為江州廣文。師生五歲。俾從州之報恩寺。真牧純公受業。七歲得度。完具後。參元叟端和尚。端視師軒渠一笑。師罔措。遂失。展尼師壇。端叱曰。參堂去。一日端見師

問何處人。師曰。番陽。端曰。番陽湖闊多少。師展手作量勢。端曰。不是不是。師曰。合取臭口。遂命侍香。尋掌記室。端嘗謂眾曰。仁書記虎而翼者也○上堂。禪性無生。離生禪想。禪性無住。離住禪寂。五臺山上雲烝飯。佛殿階前狗尿天。剎竿頭上煎鑊子。三箇猢猻夜簸錢○洪武初。上以鬼神之事召師。師以佛旨撰書而對。上大悅○蒲圻魏公觀為蘇郡守。見萬壽廢址。戚然有意興復。聞師寓虎丘。遣使致書幣。凡三往返而應○洪武十五年三月望示疾。十九日同參如愚仲訊候曰。師行矣。諸子在旁。盍賜一言。為末後訓乎。師曰。十方薄伽梵。一路涅槃門。曰與師締交五十秋矣。此別直詣淨土相見。師厲聲曰。盡大千界是箇淨土。何處不相見。良久素筆書偈。泊然而逝(徑山端嗣)。

象山瑞龍夢堂曇噩禪師

慈溪王氏子。祖父皆名宦。母周氏。師自幼有遠志。稍長博通經史。藻思濬發。年二十三。白母出家。往從雪庭於長蘆。遂薙髮受具。教相諸宗。靡不研究。久之雪庭遷住靈隱。師復往依侍。踰年雪庭示寂。寂照端禪師。來補其處。一見肫契○住象山瑞龍。上堂。豎拂子。只者箇。在臨濟則大機大用。卷舒擒縱。殺活自由。在雲門則孤危聳峻。格外提持。言前定奪。在曹洞則家風緜密。金鍼玉綫。明投暗合。在為仰則父慈子孝。用劒刃事。施陷虎機。在法眼則箭鋒相拄。心空法了。情盡見除。五家提唱。雖則金聲玉振。邁古超今然而總是門庭施設。直截一句不曾道著。且道作麼生是直截一句。高聲曰。看脚下○師日惟一食。終夜凝坐達旦。一日忽戒浴易衣。出器物分遺交友。集眾說偈曰。吾有一物。無背無面。要得分明。涅槃後看。言畢。危坐而逝。有重修歷代高僧傳行世(徑山端嗣)。

杭州徑山復原福報禪師

台之寧海人。族姓方。母張氏。出家杭之梁渚崇福。時石湖美公主淨慈。師往見。湖器之。遂為祝髮受具。參徑山元叟端。問近離甚處。師曰。淨慈。端曰。來作什麼。師曰。久慕道風。特來禮拜。端曰。趙州見南泉作麼生。師曰。頭頂天。腳踏地。端曰。見後如何。師曰。飢來喫飯。困來打眠。端曰。何處學得者盧頭來。師曰。今日親見和尚。端領之○洪武初。聘召道行沙門。師赴京。館天界寺。屢入內庭。應對稱旨。留三年。仍賜還。後住徑山。上堂。一葉落。天下秋。一塵起。大地收。誰謂北鬱單越。不是南瞻

部洲。剛自騎牛更覓牛○上堂。語是謗。默是誑。還有二俱不涉者麼。拍禪牀。泊合停囚長智○一日得疾甚篤。侍者請偈。師叱曰。吾世壽尚有三年。已而果然。及化之日。忽拍手曰。阿呵呵。大眾是什麼看取。竟寂(徑山端嗣)。

杭州徑山古鼎祖銘禪師

奉化應氏子。元叟住靈隱。師往參。一日入室叩黃龍見慈明因緣。端詰曰。只如趙州道。臺山婆子。被我勘破。慈明笑曰。是罵耶。你道二老漢用處。是同是別。師曰。一對無孔鐵鎚。端曰。黃龍直下悟去又如何。師曰。也是病眼見空華。端曰。是不是。師擬進語。端便喝。師當下廓然。至正七年。元帝錫號慧性文敏宏覺普濟禪師○至正戊戌。將遷寂。遺書囑丞相外護。復書偈曰。生死純真。太虛純滿。七十九年。搖籃繩斷。擲筆而逝。茶毗舌根數珠皆不壞。舍利無算。於徑山隆教寶陀分建塔焉(徑山端嗣)。

杭州靈隱竹泉了幻法林禪師

族姓黃。台之寧海人。因看睦州語有省。參元叟端和尚。端問何處來。師曰。天台。叟曰。曾見寒山拾得麼。師叉手向前曰。今日親見和尚。叟曰。脫空謾語漢。參堂去○一日看經次。端曰。看經那。師曰是。端曰。將甚麼看。師曰。將眼看。端豎起拳曰。何不道將者箇看。師曰。放下拳頭。將什麼看。端微笑○師居淨慈蒙堂。不出戶者九年。行省左丞相脫歡公。請主萬壽。遷中竺。至佛殿曰。撥塵見佛。誰知佛亦是塵。罕逢穿耳客。多見刻舟人○上堂。法是常法。道是常道。拶破面門。點即不到。雪峰朝夕。只輓三箇木毬。趙州見人。只道喫茶去。中峰居常見兄弟相訪。只是敘通寒溫。燒香叉手。若是金毛師子子。三千里外定誚譌○遷靈隱上堂。舉僧問趙州萬法歸一話。師曰。趙州雖則善用太阿。截斷者僧舌頭。未免自揚家醜。靈隱則不然。忽有僧問萬法歸一。一歸何處。只向他道。今日熱如昨日○上堂。古杭管內。靈隱名山。肇建於東晉咸和。慧理法師為第一祖。今日上元令節。諸處放燈。知事直歲。各各照管風燭。便下座○至正十五年春。感微疾。二月二日。集眾。敘平生行脚本末。且誡之曰。佛法下衰。無甚於今。宜各努力。索筆書偈曰。七十二年。虛空釘橛。末後一句。不說不說。遂化。葬全身於松源塔西。其時塔前古桂。當春吐華。清香滿路。見者歎異(徑山端嗣)。

明州天寧歸庵仲猷祖闡禪師

族陳氏。鄞人也。從佛智匡禪師剃染。參寂照端於徑山。得旨。上堂。若論第一句。三世諸佛道不得。六代祖師道不得。天下老和尚道不得。山僧道不得。大眾道不得。拈拄杖。拄杖子道得麼。道得也是第二句○上堂。即心即佛。非心非佛。不是心。不是佛。五臺山上雲蒸飯。佛殿階前狗尿天。剎竿頭上煎鎚子。三箇猢猻夜簸錢○元宵上堂。十五日^已前。脚頭脚尾黃金蓮。十五日^已後。白牯狸奴成隊走。正當十五日。樓臺上下火照火。車馬往來人看人。好大眾。且道好在什麼處。眾眼難謾(徑山端嗣)。

蘇州開元愚仲善如禪師

吳江人。上堂。佛身充滿於法界。普現一切羣生前。為甚麼滬瀆居民黃老之流。迎之而風濤駭吐。像即沈沒。吳縣朱膺東。靈帛尼。請之而靈相峩峩雙泛。試就提捧。忽爾升舟。今開元寺所奉維衛迦葉二石像是也。豈非隨緣赴感靡不周。而恒處此菩提座。然雖如是。若作恁麼會。大虫看水磨。不作恁麼會。真州望長蘆。恁麼不恁麼總拈却。又作麼生。清平世界。不用譌言○師晚年嘗居葑門直指庵。人稱曰直指和尚。將終。呼諸子訣別。趺坐泊然而逝(徑山端嗣)。

杭州上竺我庵本無法師

黃巖人。依寂照於中竺。掌綱維。有舅氏教庠老成。挽之更宗。於是參湛堂於演福。研精教部。寂照惜其去。作偈寄之曰。從教入禪今古有。從禪入教古今無。一心三觀門雖別。水滿千江月自孤。後出世既為湛堂嗣。仍爇一香報寂照。不以跡異而二其心。寂照示寂時。遺書囑其力弘教乘宗趣。餘無他言○師於祭筵拈香曰。妙喜五傳最光燄。寂照一代甘露門。等閒觸著肝腦裂。冰霜忽作陽春溫。我思打失鼻孔日。是何氣息今猶存。天風北來歲云暮。掣電討甚空中痕。臨終無疾坐脫(徑山端嗣)。

蘇州萬壽佛初智淳禪師

送忠侍者偈曰。鳥窠吹起布毛。侍者當下悟去。一對無孔鐵鎚。賣弄鬼家活計。若是靈利阿師。別有天然氣宇。恢張本地風光。顯出

衲僧巴鼻。以大千攝入毫端。將須彌納向芥子。直踏毗盧頂上行。
千手大悲攔不住(徑山端嗣共十三人)。

報恩無方智普禪師

桂陽人。族姓龍。上堂。六月行人口吐煙。區區只為利名牽。爭如
林下無心客。一覺和衣到曉眠。拍禪牀。乾明不惜口業。為你說
破。臘月三十日到來。閻老子要問你索飯錢在(江心萬嗣)。

南康雲居小隱師。大禪師

嘗有示信禪人偈曰。信是道元功德母。藥如有驗不消多。上人直下
承當得。佛祖安能柰爾何(江心萬嗣已上二人)。

金陵集慶龍翔笑隱大訢禪師

九江義門陳氏子。參晦機。機一見器重。命掌記室。一日問曰。黃
龍既得旨於泐潭。領徒游方。及見慈明。氣索汗下。過在什麼處。
師抗聲曰。千年桃核裏。覓甚舊時仁。機一日舉百丈野狐話詰曰。
不落因果。便墮野狐身。不昧因果。便脫野狐身。且道利害在什麼
處。師擬答。機遽震威一喝。師當下渙然冰釋○天歷元年。文宗以
潛邸為大龍翔集慶寺。簡集名德開山。師首膺其選。賜號廣智全悟
大禪師。復驛召赴闕。見上奎章閣。賜坐。咨問法要。及順帝御
極。待遇益隆。後以老病求退。優詔不許。勅外臺護視。使安居終
老○上堂。安養國中。水鳥樹林。悉皆念佛。知足天上。樹相撐
觸。演說苦空。豎拂子。山僧拂子。穿却汝諸鼻孔。諸人向甚處出
氣○師一日問僧甚處來。僧曰。遊山來。師曰。笠子下搗破洛浦。
徧參底作麼生。僧曰。未入門時已呈似和尚了也。師曰。即今為什
麼不拈出。僧擬議。師便打○至正四年甲申五月。示微疾。作手書
別交游。囑其徒以兩朝所賜金幣。作萬佛閣。上報國恩。二十二
日。書偈趺坐而寂。黃文憲公潛撰塔銘。虞文靖公集著行道紀。師
著有禪林清規。及四會語錄。蒲室集。行世(徑山熙嗣)。

嘉興祥符梅屋念常禪師

俗姓黃。華亭人。年十二出家。十四薙髮受具。佛智晦機自江西百
丈。遷杭之淨慈。師往參承。值佛智上堂。舉太原孚上座。聞角聲
悟道因緣。頌曰。琴生入滄海。太史遊名山。從此揚州城外路。令

嚴不許早開關。師於言下豁然有省。投丈室呈所解。佛智領之。俾掌記室。迨智遷徑山。師職後版。表率一眾。後奉旨選召出世祥符。所著有佛祖通載二十二卷(徑山熙嗣)。

明州雪竇石室祖瑛祖師

吳江陳氏子。年十五祝髮受具。後即策杖遊方。初從盧谷陵於仰山。聞徑山晦機道望。亟往投之。一見契合。遂留掌記○謝天童平石砥問疾偈曰。是身無我病根深。慚愧文殊遠訪臨。自有巖華談不二。青燈相對笑吟吟。法身徧在一切處。嚙飯嚙空得自由。太白鄮峰煙雨裏。筍輿來往亦風流○晚年得痿痺疾。造一龕曰。木襪。日坐其中。不涉世事。至正癸未三月。見一衰衣婦人。扣頭請師應身為國王。師曰。吾不願生天王家。逾十七日。趺坐而化。臨終偈曰。五十三年。弄巧成拙。踏破虛空赤脚行。萬象森羅笑不輟(徑山熙嗣)。

杭州中竺一關正達禪師

番陽人。族方氏。參晦機於淨慈。機問甚處人。師曰。番陽。機曰。番陽湖水深多少。師曰。瞪目不見底。機曰。怎麼則浸爛衲僧鼻孔也。師曰。終不借和尚鼻孔出氣。機曰。畢竟借誰鼻孔出氣。師曰。恭惟和尚萬福。機肯之。命充侍者。逾二年。參中峰於天目。復謁徑山元叟。時笑隱主中竺。俾師分座。出世金陵崇因。帝師授以佛日普照之號(徑山熙嗣)。

寧波佛巖仲方天倫禪師

象山張氏子。參晦機於淨慈。纔入門。機曰。湖山靄靄。湖水漾漾。浸爛你鼻孔。塞破你眼睛。因甚不知。師曰。通身無影象。步步絕形蹤。機曰。未在更道。師拂袖便出。機俾居侍司。復掌藏鑰。師憚其繁。歎曰。世降道衰。人根浮薄。宿師碩德。具大知見。猶不為學者信服。無他。蓋表裏不純故也。自是必欲剷踪削跡。聞吳興桃花塢僻遠。乃往縛茆。一日灌園次。忽四山雲暝。驟雨疾風。摧折林木。霹靂一聲。胸中疑礙頓釋。乃頌曰。大奇大奇也大奇。掇轉虛空顛倒騎。蟪蛄吞却五須彌。曩於南屏室中。屢叩老和尚。終不肯為我說。使當時說破。安有今日耶○上堂。舉雲門因僧問久雨不晴時如何。門曰。筍。師曰。雲門一筍。猿啼巴峽。熊耳峰高。石頭路滑○師晚年卜築於鳳臺之西。曰新庵。將終。謂

淨覺曇曰。欲以後事相洩。今日何日。覺曰。二十九月。師曰。月窮日。不宜去。明日五月一。吾行矣。至晨。召門人付囑。舉手作別。端坐而逝(徑山熙嗣)。

越州天衣業海子清禪師

年八十六。出住天衣。因同參至上堂。颯颯涼風景。同人訪寂寥。煮茶山水下。燒鼎洞中樵。古人將常住物。作自己人情。天衣則不然。供佛懶拈華。延賓不煮茶。莫嫌無禮數。冷淡是僧家(徑山熙嗣已上六人)。

杭州中竺一溪自如禪師

閩人。元兵下閩。遭遊卒挾師至臨安。遺之而去。富民胡氏收養之。令伴子讀書。師隅立默識無所失。胡氏因子之。既長。俾師隸里中無相寺為僧。參雲峰高於徑山得法。天歷初。中竺笑隱訢奉詔開山。龍翔因舉代住者三人。御筆點師名。宣政院具疏請師居焉(徑山高嗣)。

江州東林古智喆禪師

都昌人。族巢氏。上堂。過去諸佛已說。未來諸佛當說。現在諸佛今說。且道畢竟說箇甚麼。卓拄杖下座(徑山高嗣)。

明州天童怪石奇禪師

普說其略曰。參禪本無難易。只要具大信根。有決烈志。萬機休罷。千聖不攜。坐斷諸緣。不存一法。如大虛空。了無朕迹。如須彌盧。屹然不動。無上真乘。方可希冀。又曰。此事如人飢渴。說飲說食。豈能救療。直須自飲水。自喫飯。方有實効(徑山高嗣)。

杭州徑山本源善達禪師

仙居柴氏子。居常不設臥榻。夜則焚香燃燭。端坐達旦。率以為常。又體所稟與人異。遇嚴寒則衣絺絰。大熱則衣繒絮。嘗以益資建大圓院於東路半山。接待雲侶。一日自知時至。會眾敘平生行脚事畢端坐而寂(徑山高嗣)。

龍巖真首座

樂閒歌曰。即心是佛。無心是道。萬事但隨緣。自覺身心好。院子從來不要住。便是佛也不要。律亦不曾持。戒亦不曾破。放行把住總由人。執法修行驢拽磨。要行便行。要坐便坐。也不精進。也不懶惰。一卷三字經。逐日為工課。有時深深海底行。有時高高山頂臥。幾生修得做閒人。肯為虛名被羈鎖。我不輕汝等。從他當面唾。百年能得幾光陰。何必強分人與我。貧也不須憂。富也休裝大。閻王相請無親疏。盡付一堆紅燄火。自家作得主宰。終不隨風倒柁。補破遮寒暖即休。淡飯粗茶隨分過。我作樂閒歌。自歌還自和。不是閒人不肯閒。世上閒人能幾箇(徑山高嗣已上五人)。

明州恭都寺

廉介自持。日誦法華。因聆鐵鏡上堂語。遂得心要。嘗夜坐有偈曰。點盡山窗一盞油。地爐無火冷啾啾。話頭留向明朝舉。道者敲鐘又上樓。鐵鏡因陞堂特稱賞之。臨終無疾。更衣坐逝。闍維舌根不壞(何山明嗣)。

雪竇竺田汝霖禪師

昌國王氏子。從梅澗福公祝髮受具。聞天童鑑公道化。往參。命為侍者。一日室中舉趙州狗子無佛性話。師豁然有省。已而見悅堂闍於靈隱。堂器之。命典記室。後游百丈。謁晦機。遂命分座。出世雪竇。晚主萬壽。至元五年示微疾。更衣書偈而逝。茶毗設利五色(天童鑑嗣)。

湖州道場玉溪思珉禪師

象山張氏子。參靈隱闍和尚。即蒙印可。後出住大梅保福。帝師賜佛心明妙之號。至順三年。廣教府聘主雙林。元統二年。行省選住道場。示眾。此事如鐵壁銀山。如大火聚。湊泊不得。回避不得。你輩合作麼生。直饒脚不點地。別有通霄活路。也是不快漆桶。上堂。依經解義。三世佛冤。離經一字。即同魔說。拈拄杖。卓一下。六月不熱。五穀不結。遂下座(靈隱闍嗣)。

杭州徑山月江宗淨禪師

金華倪氏子。自幼聰慧絕倫。年十七。因誦楞嚴。如人以手指月。是人因指。應當見月。豁然開悟。遂謁悅堂。問黃檗打臨濟。你作麼生會。師曰。按牛頭喫草。堂奇之。後出世徑山。玄風遠播。晚歲退居東堂。示眾曰。坐斷陵霄已十年。匡宗論道只隨緣。於今休去便休去。嘯月吟風樂自然○元統壬戌十月三日。示微疾。當午集眾說偈曰。祖師門下客。開口論無生。老我百不會。日午打三更。語畢。乃趺坐而逝(靈隱間嗣)。

江州東林無外宗廓禪師

南昌人。魏姓。久依悅堂。一日室中舉溪聲盡是廣長舌因緣。機契。遂授記荊。出世雲居。晚遷東林。送僧之東吳。偈曰。佛是西天老比丘。何緣臥倒在蘇州。憑君此去輕扶起。問取二千年話頭○臨終。集眾說偈曰。吾年七十一。世緣今已畢。挨倒五須彌。夜半日頭出。語畢而逝(靈隱間嗣已上三人)。

嘉興石門真覺元翁信禪師

開山日上堂。向上一機。末後一訣。佛祖不傳。千聖結舌。莫有轉身吐氣者麼。出來通箇消息看○小參。建法幢。立宗旨。明明佛勅曹溪是。大眾。建法幢則固然。如何是立宗旨。莫是三轉五轉。豎拳下喝麼。莫是默然據座。拂袖便行麼。莫是語言文字。確古論今麼。莫是灰頭土面。長坐不臥麼。切須仔細。若是正眼不明。盡墮偏邪執滯。所以道。醍醐上味。為世所珍。遇斯等人。翻成毒藥。據我祖師門下。盡十方世界。是箇無縫鐵壁。達磨不識。盡十方世界。是箇無孔鐵鎚。迦葉不知。無汝擬議處。無汝承當處。旋天轉地。換斗移星。雙放雙收。透頂透底。還會麼。龍袖拂開全體現。象王行處絕狐踪(中竺有嗣)。

呂鐵船居士

母夢佑禪師至舍而生。弱冠時參空山。一日山問曰。曾見趙州麼。士厲聲曰。無。山休去。每稱於人曰。再來人也。士嘗任江淮都總管。於蘇州嘉定建永壽寺以延雲水。達磨忌日。拈香曰。西來不稱梁王旨。西去空攜一隻履。若言妙用與神通。真正衲僧誰數你。九年面壁尋出場。接得一人又無臂。衣盂連累到盧能。從此葛藤生不已。罪過有彌天。源流無滴水。今朝七百八十六年逢忌辰。那箇兒

孫不痛徹骨髓。一爐香篆一甌茶。報恩却是孤恩底。欲把拳頭舉似伊。憐渠已沒當門齒(風旛中嗣)。

蘇州陽山金芝嶺鐵[此/束]念庵主

頌舍利弗入城。月上女出城話曰。出城入廓兩相逢。來去誰云路不同。回首涅槃臺上望。九州四海一家風(華藏見嗣)。

松江澱山德異禪師

高安盧氏子。謁虔舟。舟問雪覆千山。為甚麼孤峰不白。師曰。別是一乾坤。舟大稱賞。勸謁皖山凝和尚。凝問光明寂照徧河沙。豈不是張拙秀才語。師擬答。凝震威一喝。師當下釋然。一日凝舉臥雲深處不朝天。因甚到者裏。師曰。邦有道則見。凝深肯之○出世澱山。上堂。昨日十四。今日十五。靈利衲僧。吞却佛祖。從教謝三郎。月下自搖舫。阿呵呵。莫莽鹵。甜瓜徹蒂甜。苦瓠連根苦(皖山凝嗣)。

舒州太湖普明無用寬禪師

結夏上堂。諸方結制。有甚巴鼻。太湖梁山。冷冰冰地。二百箇鐵額銅頭無用。分作兩處。提起放下。吞聲飲氣。擬議之間。頂門著地。卓拄杖下座○中峰和尚至。上堂。明明百草頭。明明祖師意。天目山古佛。輝天并鑒地。虎齧大虫。蛇吞鼈鼻。擲拄杖曰。直下來也。急著眼觀。大眾懷香。拜請幻住大和尚慈悲開示。便下座(金牛真嗣)。

無為天寧無能教禪師

於門首懸一牌云。謹防惡犬。竺源盛參。纔跨門便曰。老和尚為我趕狗。師便入去。智首座出迎。同坐須臾。師從面前過。智起白曰。此上人得得來見和尚。師曰。已相見了也(真翁圓嗣)。

北京慶壽海雲印簡禪師

寧遠宋氏子。生而神悟。七歲。父授讀孝經。開宗明義章。師曰。開者何宗。明者何義。父驚異。於是俾從中觀沼禪師受業。納具戒。一日侍沼行。沼曰。法燈禪師道。看他家事忙。且道承誰力。

汝作麼生會。師將沼手一掣。沼曰。者野狐精。師喏喏。沼曰。更須別參始得。年十八。元兵破寧遠。四眾逃散。師侍沼如故。沼曰。吾迫桑榆。汝方富有春秋。何當玉石俱焚。宜自遠遁。師泣曰。因果有差。死生有命。安可離師苟免乎。沼察其誠。囑曰。子向去朔漠。有大因緣。吾將與子北渡。經年至赤城。書偈曰。七十三年如掣電。臨行為君通一綫。泥牛飛過海東來。天上人間尋不見。偈畢。忽無疾而逝。闍維收頂骨舍利。師為乞緣造塔供奉。一夕聞空中呼師名。師瞥然有省。復聞人告曰。大事將成。毋滯於此。黎明遂策杖之燕。過松舖。值雨。宿崖下。因擊火乃悟曰。今日始知眉橫鼻直。信道天下老和尚不寐語。明日至景州。見本無玄。玄問從何所來。師曰。雲收幽谷。玄曰。何處去。師曰。月照長松。玄曰。孟八郎漢便恁麼去也。師諾諾趨出。初沼臨終。師問某甲當依何人。了此大事。沼曰。賀八十去。迨入燕。至大慶壽寺。乃省前讖。於是謁璋。璋先一夕夢異僧策杖。徑趨方丈踞座。天明璋謂知客曰。今日但有僧過。當令來見老僧。及晚師至。璋笑曰。此夜來所夢者。師問不來而來。作麼生相見。璋曰。參須實參。悟須實悟。莫打野樵。(音齋)師曰。某甲因擊火迸散。乃知眉橫鼻直。璋曰。吾此處別。師曰。如何表信。璋曰。牙是一口骨。耳是兩片皮。師曰。將謂別有。璋曰。錯。師喝曰。草賊大敗。璋休去。次日璋舉臨濟兩堂首座齊下喝。僧問還有賓主也無。濟曰。賓主歷然。汝作麼生會。師曰。打破秦時鏡。磨尖上古錐。龍飛霄漢外。何勞更下槌。璋曰。途路之樂。終未到家。師曰。精靈千載野狐魅。看破如今不值錢。璋曰。如是如是。師拂袖便出。遂命掌記。一日璋謂師曰。汝今已到大安樂田地。宜善護持。吾有如來正法眼藏。涅槃妙心。密付於汝。毋令湮沒。師掩耳而出(師住慶壽孔子之後元措者渡河謁師請復曲阜廟祀師微言之乃復襲封)○師兩主慶壽。年五十六。忽患風症。呼侍者囑後事。乃集眾說偈畢。遂泊然而逝。茶毗獲舍利無算。諡佛曰圓明大師(慶壽璋嗣)。

曹洞宗

太原王山體禪師

初參大明寶為侍者。偶於出生臺見雀捨食。雀見手飛去。寶在師背上打一掌。師驚顧。寶曰。還是雀子孤負你。你孤負我。師罔措。寶曰。自可憐生。却乃互相孤負去。師豁然有省。從此執侍十年。祕重深嚴。不見參學。一旦抽單。罔不疑怪。或問寶云。侍者何往。寶曰。諸方來。諸方去。何介意哉。又問參學何似。寶曰。道

有參學。栽他頭角。道無參學。減他威光。一眾方知已蒙印記○師久隱太原西山。當道請住王山。創建禪席。嘗曰。師子有三種。第一超宗異日。第二齊肩共躡。第三影響不真。若超宗異日者。見過於師。堪為種草。若齊肩共躡者。減師半德。落在今時。若影響不真者。狐狂猥勢。羊質虎皮○師嘗發明洞上宗旨。曰既有尊貴之位。須明尊貴底人。須知尊貴底人。不處尊貴之位。方明尊貴。不落階級(寶壽方拈云太原與麼提持要明尊貴一路尚欠在為什麼不見道方外誰敢論量○愚庵孟拈云如何黑漆屏風上更寫盧仝月蝕詩)○五位頌曰。正中偏。夜深古殿鎖輕煙。寂寂苔封臣不立。密密光輝未兆前○偏中正。玉人不覩臨臺鏡。子夜星河霧氣濃。依舊青山不露頂○正中來。木人攜杖火中回。趁起泥牛耕練色。放教石馬步蒼苔○兼中至。轉側相逢全意氣。交輝終不犯鋒鋌。大用縱橫無變異○兼中到。明暗盡時光不照。石女有智妙難窮。解栽絕頂無根草○上堂。還有衝流度刃者麼。僧從東過西。從西過東。師曰。未得一場榮。先刖兩脛足。曰也知和尚慣用此機。師曰。罪不重科。僧擬議。師便打。僧吐舌。師曰。棺材裏瞠眼。僧珍重便出。師曰。似這等行脚。有甚麼交涉。乃曰。同安老祖道。孤峰迴秀。不挂煙蘿。片月行空。白雲自異。衲僧家到者裏。劍甲未施。賊身已敗。豈不屈辱先宗。山僧今日若不捉敗此僧。則我達磨一宗。幾至掃地。喝一喝曰。逢人不得錯舉(大明寶嗣)。

仁山恒禪師

久侍大明寶和尚。深入堂奧。寶付以衣法。師曰。某甲不是恁麼人。寶曰。不是恁麼人。自不殃及伊。師以法乳情深。俛仰而受。寶囑曰。汝既如是。第一不得容易出世。若躁進輕脫。中間必有坎坷。晚住仁山。僧問洞山邈雲巖真。因甚到覩影始悟。師曰。不是深心人不知。曰如何是深心人。師曰。十八女兒不繫裙。(破山明舉示呂大器器曰全體畢露○法音[沆-几+桀]頌云滿江風雨夜行船鮮血淋淋濺碧天二十四莖生鐵肋和衣脫出淚潸然)復示頌云。柳底黃鶯送好音。輕輕喚著愈傷心。欄杆倚徧無聊賴。夢裏如何許我尋。無路尋。怨殺月明花下影。依稀拂斷枕頭琴(大明寶嗣已上二人)。

燕京慶壽盧明教亨禪師

濟川任城王氏子。先是汴京慈濟寺僧福安者。山居任城有年。一日於芒山村倚樹而化。夢求託宿。師果生焉。拳右拇指。同住僧往問曰。安公無恙。師熟視良久。伸指而笑。七歲出家。十五游方。聞

鄭州普照寶禪師。法席之勝。遂往謁。朝夕參叩。未有所入。他日以事往睢陽。宿趙渡。忽於馬上憶擊板因緣有省。疑情不散。將抵河津。同行警曰。師兄。此河津也。師下馬。悲喜交集。至於隕涕。歸以語寶。寶曰。如僵臥人似欲轉動。示以日面佛公案。師笑曰。兒時已見得也。寶曰。我只教人參諸方掉下底禪。但再參去。後聞板聲。霍然親證。呈頌曰。日面月面。星流電轉。若更遲疑。面門著箭。咄。寶遂印可曰。吾瞞汝不得也○師五坐道場。復駐錫濟州之普照。方丈後叢樹蓊鬱中。有一株高丈餘。羣鴉以次來巢。上下一十二級。如浮屠狀。見者賀曰。和尚佛法。將大振矣。不數日奉章廟旨。主慶壽○興定己卯七月十日。索筆書頌。其末句曰。咦。一二三四五六七。堅坐不動而逝。茶毗燄如蓮花開合。牙齒目睛不壞。舍利無算(普照寶嗣)。

續指月錄卷五

續指月錄卷六

六祖下二十二世

臨濟宗

杭州天目高峰原妙禪師

蘇之吳江人。姓徐氏。母夢僧乘舟投宿而生。離襁褓。輒喜趺坐。遇僧入門。輒愛戀欲從之。年十五。懇請父母出家嘉禾密印寺。十六薙髮。十七受具。十八習天台教。二十入淨慈立三年死限學禪。二十五請益斷橋倫和尚。令參生從何來。死從何去話。於是脅不至席。口體俱忘。雪巖欽和尚寓北磻。師懷香往謁。方問訊。即被打出。閉却門。再往。始得親近。令看無字。自此參叩無虛日。後凡入門。欽便問阿誰與你拖箇死屍來。聲未絕便打。如是者不知其幾。後值欽赴南明。師上雙徑。參堂方半月。偶夢中忽憶斷橋室中所舉。萬法歸一。一歸何處話。疑情頓發。三晝夜目不交睫。值少林忌。隨眾詣三塔。諷經次。擡頭忽覩五祖和尚真讚曰。百年三萬六千朝。返覆元來是這漢。驀然打破拖死屍之疑。時年二十四矣。解夏。詣南明。欽一見。便問阿誰與你拖箇死屍到者裏。師便喝。欽拈棒。師把住曰。今日打某甲不得。曰為甚打不得。師拂袖便出。翌日欽問萬法歸一。一歸何處。師曰。狗舐熱油鑊。欽曰。你那裏學者盧頭來。師曰。正要和尚疑著。欽休去。自是機鋒不讓。次年江心度夏。過雪竇見希叟曇。問那裏來。師拖下蒲團。曇曰。狗子無佛性。上座作麼生。師曰。拖出大家看。曇乃自送歸堂。暨欽挂牌於道場。開法於天寧。師皆隨侍服勞。一日欽問日間浩浩時。還作得主麼。師曰。作得主。又問睡夢中作得主麼。師曰。作得主。復問正睡著時。無夢無想。無見無聞。主在甚麼處。師無語。欽囑曰。從今日去。也不要你學佛學法。也不要你窮古窮今。但只飢來喫飯。困來打眠。纔眠覺來。却抖擻精神。我者一覺。主人公。畢竟在甚麼處安身立命。師遂奮志入臨安龍鬚。自誓曰。拌一生做箇癡獃漢。決要者一著子明白。越五載。因同宿道友推枕墮地作聲。廓然大徹。自謂如往泗州見大聖。遠客還故鄉。元來只是舊時人。不改舊時行履處(雪嶠信頌云南北無門路不通分毫有主賊來攻直饒主客都星散大似楊花逐曉風○朝宗忍頌云月落霜天夜正寒錦鱗透網潑天瀾枕頭落地何時悟遮覺從前被悟瞞)○住龍鬚九年。縛柴為龕。風穿日炙。冬夏一衲。不扇不爐。日搗松和糜。延息而已○德祐丙子春。大兵至雙髻。師掩關危坐自若。事定。戶履紛至。師腰包宵遁。直入西天目

之師子巖。巖拔地千仞。崖石林立。師即洞營小室丈許。榜曰死關。悉屏給侍服用。破甕為鐺。併日一食。洞梯山以升。雖弟子亦罕得見。共築師子院請師開堂。適雪巖欽於大仰。寄師竹篋拂子。遂拈香上堂。僧問十方同聚會。箇箇學無為。此是選佛場。心空及第歸。龐居士恁麼道。還有為人處也無。師曰。有。曰畢竟在那一句。師曰。從頭問將來。曰如何是十方同聚會。師曰。龍蛇混雜。凡聖交參。曰如何是箇箇學無為。師曰。口吞佛祖。眼蓋乾坤。曰如何是選佛場。師曰。東西十萬。南北八千。曰如何是心空及第歸。曰動容揚古路。不墮悄然機。曰恁麼則言言見諦。句句朝宗。師曰。你甚處見得。僧喝。師曰。也是掉棒打月。曰此事且止。只如西峰今日十方聚會。選佛場開。畢竟有何祥瑞。師曰。山河大地。萬象森然。情與無情。悉皆成佛。曰既皆成佛。因甚學人不成佛。師曰。你若成佛。爭教大地成佛。曰畢竟學人過在甚麼處。師曰。湘之南。潭之北。曰還許學人懺悔也無。師曰。禮拜著。僧禮拜。師曰。師子齧人。韓獹逐塊○上堂。無邊刹境。自他不隔於毫端。十世古今。始終不離於當念。只如山僧每日在張公洞裏。橫眠豎眠。或歌或咏。諸人還知麼。諸人每日在選佛場中。東行西行。或瞋或喜。山僧還知麼。若也彼此知得。不免分身碓搗。拔舌犁耕。若也彼此不知。管取釋迦拱手。彌勒歸依。因甚如此。不見道。知之一字。眾禍之門○上堂。盡十方世界。是箇盂孟。汝等諸人。喫粥喫飯。也在裏許。屙屎放尿。也在裏許。行住坐臥。乃至一動一靜。總在裏許。若也識得。達磨大師。只與你做得箇洗脚奴子。若也不識。二時粥飯。將甚麼喫。參○示眾。海底泥牛銜月走。巖前石虎抱兒眠。鐵蛇鑽入金剛眼。崑崙騎象鷺鷥牽。此四句內。有一句能縱能奪。能殺能活。若人檢辨得出。一生參學事畢(古南門云。山僧亦有四句。五更撞鐘脚落地。三更接板狗子吠。二時粥飯濕匙筋。半夜放參霜點被。此四句中。有一句全用。有一句全體。有一句全體即用。有一句全用即體。有一句體用雙忘。騰騰任運。任運騰騰。若人檢點得出。便請歸家穩坐)○示眾。百千諸佛。歷代祖師。乃至天下老和尚。以拂子擊禪牀一下。總向這裏墮坑落塹。還有跳得出底麼。又擊一下。三生六十劫○師嘗示室中垂問六則。一曰。大徹底人。本脫生死。因甚命根不斷。二曰。佛祖公案。只是一箇道理。因甚有明與不明。三曰。大修行人。當遵佛行。因甚不守毗尼。四曰。杲日當空。無所不照。因甚被片雲遮却。五曰。人人有箇影子。寸步不離。因甚踏不著。六曰。盡大地是火坑。得何三昧。不被燒却。倘下語不契。閉門弗接。自非具透關眼者。鮮不望崖而退○鶴沙瞿提舉到山瞻禮。施巨莊瞻眾。師固辭不受。瞿請於官。乃於蓮華峰。別營禪刹。曰大覺。議以歲入給常住。請嗣法祖雍領寺事○師患胃疾已久。適雍

來省。師囑以後事。元貞乙未十二月朔。黎明陞座辭眾曰。西峰三十年。妄談般若。罪犯彌天。末後有一句子。不敢累及諸人。自領去也。眾中還有知落處者麼。良久曰。毫釐有差。天地懸隔。辰巳間復說偈曰。來不入死關。去不出死關。鐵蛇鑽入海。撞倒須彌山。泊然而寂(仰山欽嗣)。

徑山盧谷希陵禪師

字西白。義烏何氏子。家貧而苦學。志求仕進。一夕夢入淨慈羅漢堂。至東南隅。忽尊者指楣梁間詩示師曰。一室寥寥絕頂開。數峰如畫碧於苔。等閒翻罷貝多葉。百衲袈裟自翦裁。由是有出俗志。年十九落髮。後參徑山雲峰高禪師。機語契合。高甚敬之。命掌藏鑰。尋命分座說法。出世歷遷至仰山。元世祖召見。說法稱旨。賜號佛鑑○成宗加號大圓。詔住徑山。仁宗又加號慧照。轉藏經上堂。僧問過去心不可得。現在心不可得。未來心不可得。是如何。師曰。親不相贈。僧禮拜。師曰。過去諸如來。斯門已成就。現在諸菩薩。今各入圓明。未來修學人。當依如是法。只如過去心不可得。現在心不可得。未來心不可得。三世既不可得。作麼生依。若向這裏知歸。出息不涉眾緣。入息不居陰界。常轉如是經。百千萬億卷。祇如今日檀越請徑山一千七百萬眾。所轉者還在百千萬億卷中也無。若在其中。即取法相。若不在其中。即取非法相。故經云。若取法相。即著我人眾生壽者。若取非法相。即著我人眾生壽者。正當甚麼時。還有定奪得出者麼。若定奪不出。明日來向汝說○至正壬戌四月十二日。手書付囑說偈而逝。諡大辨。塔曰寶華。有瀑巖集。及語錄行世(仰山欽嗣)。

衡州靈雲鐵牛持定禪師

太和礪溪王氏子。故宋尚書贇九世孫也。自幼清苦剛介。有塵外志。年三十。謁西峰肯菴翦髮。得聞別傳之旨。尋依雪巖欽。居槽廠。服杜多行。一日欽示眾曰。兄弟家做工夫。若也七晝夜一念無間。無箇入處。斫取老僧頭做𩚑屎杓。師默領。勵精奮發。因患痢。藥石漿飲皆禁絕。單持正念。目不交睫者七日。至夜半。忽覺山河大地徧界如雪。堂堂一身。乾坤包不得。有頃聞擊木聲。豁然開悟。徧體汗流。其疾亦愈。旦詣方丈舉似欽。反覆詰之。遂命為僧○一日欽上堂。舉亡僧死了燒了。向甚麼處去。自代曰。山河及大地。全露法王身。師於言下疑情蕩盡。即出眾作禮曰。適來和尚舉揚般若。驚得法堂前石獅子笑舞不已。欽曰。試道看。師曰。劫

外春回萬物枯。山河大地一塵無。法身超出如何舉。笑倒西天碧眼胡。欽敲卓子曰。山河大地一塵無。者箇是什麼。師作掀倒勢。欽笑曰。一彩兩賽○欽巡堂次。師以楮被裹身而臥。欽召至方丈。厲聲曰。我巡堂。汝打睡。若道得。即放過。道不得。即趁下山。師隨口答曰。鐵牛無力懶耕田。帶索和犁就雪眠。大地白銀都蓋覆。德山無處下金鞭。欽曰。好箇鐵牛也。因以為號。一時行輩。靡不推服○大德壬寅將寂。侍僧求別語。師曰。吾別久矣。恬然坐逝。龕全身於陶具。越三年顏貌如生。爪髮俱長。後塔於寺北沙潭(仰山欽嗣○其徒別流涇走浙江謁虞文靖公集求師塔銘虞問先有鐵耶先有牛耶涇曰先師親見仰山來虞點首笑曰吾試為汝模畫之天如和尚頌曰鐵牛誰後復誰先口永開時欠一拳好本弄成模畫去牽犁拽耙錯流傳)。

袁州慈化鐵山瓊禪師

十八出家。首參雪巖欽和尚。一日室中舉那吒太子。析骨還父。析肉還母因緣。有省。述偈曰。一莖草上現瓊樓。識破古今閑話頭。拈起集雲峰頂月。人前拋作百華毬。欽深然之○謁東巖。東問心不是佛。智不是道。上座作麼生會。師曰。抱贓叫屈。東曰。不是心。不是佛。不是物。是甚麼。師曰。眉間迸出遼天鶻○上堂。冬在月頭。賣被買牛。冬在月尾。賣牛買被。卓拄杖。者裏無尾無頭。中道齊休。行也休休。坐也休休。住也休休。臥也休休。睡眼豁開。五雲現瑞。光風霽月。無處不週。梅綻枯枝古渡頭。風前時復暗香浮。雖然到此。向上一路。萬里崖州。何以見得。靠拄杖。休休。後示寂。塔於觀音閣後(仰山欽嗣)。

建昌能仁天隱牧潛圓至禪師

高安人。姚姓。父兄皆名進士。師志慕空宗。十九芟染。元貞間。出住能仁。與高峰妙同秉仰山記莚。所著有牧潛集。其送妙智上人入浙序略曰。昔龍安悅公。既首眾於洞山。猶以己道。為未至。更匿其名。潛出求之於食飲笑談之間。聞素公一言之異。則虛己自降。踴躍為咨詢禮。不以貶名為嫌。卒能於立談之頃。獲其終身之所欲。豈獨雲庵之道。恃以不墜。使素公不賴悅以見於世。世亦不識其為何如人矣。蓋名者道之表也。古之人。有其表。則求其實以應之。而今之士。反以表害實。一居其名。則崇高之勢。傲然不可復屈。雖內揆其不嫌。亦安肯降心以求其所未至耶。噫。此古今所以異。道之所以衰歟○大德三年戊戌。示寂於廬山(仰山欽嗣已上人)。

竹屋簡禪師

舉孚上座聖箭因緣頌曰。青絲雙勒玉驄嘶。淡白春衫綠帶圍。夜半歸來華底月。金鞭敲落亂紅飛○又曰。九重城裏本非遙。射折重重箭倍饒。忽遇三軍圍繞處。分明有路直通霄。舉臨濟訪平田公案。頌曰。目前條路平如砥。何不堂堂掉臂行。撩撥老婆牛性發。赤身挨棒可憐生(斷橋倫嗣)。

絕象鑒禪師

示眾。舉洞山不安。令沙彌到雲居處傳語。乃囑曰。他若問和尚安樂否。汝但道雲巖路相次絕也。汝下此語。須遠避立。恐他打汝。沙彌領旨去。傳語聲未絕。早被雲居打一棒。頌曰。洞山有路透雲巖。絕處教通到者難。拄杖頭邊開活眼。方知不隔一毫端○示眾。舉投子和尚。問僧連日好雨。且道雨從何處來。僧無對。後閱華嚴經有省。頌曰。陌路遊人競採芳。不知眼底度春光。夜來一陣落花雨。一百十城流水香(斷橋倫嗣)。

台州瑞巖方山寶禪師

一日為眾挂牌入室。垂語曰。南泉斬却猫兒時如何。眾下語皆不喫適有一僕在旁曰。老鼠做大。師笑曰。好一轉語。只是不合從你口裏出○鍼工丁生者。久依座下。冀明本分。一日剔琉璃燈有省。述偈呈師曰。提起提起。放下放下。者點光明。照天照地。師喜其行業淳素。乃印許之○示無見偈曰。道人得得出山來。盡把胸襟對我開。坦坦平平如鏡面。澄澄湛湛絕纖埃。忽然得箇轉身句。衲捲寒雲便歸去。萬八千丈華頂峰。一笑裂開鐵面具。家山到後絕思惟。拗折枯藤拄竹扉。冀土埋中消息好。芋香便是道香時(斷橋倫嗣)。

永宗本禪師

上堂。舉夾山參船子和尚公案。頌曰。笑中棄却竹林寺。將謂華亭有許多。窮性命於橈下喪。看來成敗自蕭何(斷橋倫嗣已上四人)。

金陵蔣山月庭忠禪師

舉僧問白雲。舊歲已去。新歲到來。如何是不遷義。雲曰。眉毛在眼上。頌曰。罷釣歸來不繫船。江村月落正堪眠。縱饒一夜風吹

去。只在蘆花淺水邊。落葉已隨流水去。春風未放百花開。青山面目依然在。盡日橫陳對落暉(無學元嗣)。

蘇州崑山薦嚴竺元妙道禪師

寧海陳氏子。幼患右目。母攜禱於觀音像。師仰見像之右目。有小蛛窠。乃為揭去。目患遂愈。父母以為於佛有緣。俾投杭之六和正嚴得度。嚴令學百法論。師曰。一法不學。學百法乎。謁育王珙和尚。聞舉乾屎橛話。豁然大悟。即說偈曰。雲門乾屎橛。光明照十方。鄮峰纔發足。五日到錢塘。珙驚異。顧謂眾曰。此子再來人也。○至元乙丑。出主邑之慈源。遷崑山薦嚴。一晚與眾會茶。舉東坡居士訪蔣山泉禪師。山問大儒高姓。士曰。姓秤。山曰。是甚麼秤。士曰。稱天下長老舌頭底秤。泉便喝一喝曰。且道者一喝重多少。士無語。師命眾代語。時別源遽起翦燭。師笑曰。源藏主翦燭。一侍者咳[口*敕]。一僧請師自代。師曰。洎不過此○仁宗詔住黃巖鴻福。賜號定慧圓明。淨慈靈隱兩刹爭欲致之。俱不就。年逾七十。懷紫籙之幽絕。乃往終焉(育王珙嗣)。

金陵保寧古林清茂禪師

年十三為大僧。聆老宿舉高庵和尚勵僧語。不覺涕淚交下。乃知有出生死。超聖凡一著子。淬志參訪。徧歷門庭。橫川居育王。師往叩。得法。住金陵保寧。上堂。僧問毛吞巨海。芥納須彌。是衲僧分上事。不是衲僧分上事。師曰。拈却門前大案山。曰鯨吞海水盡。露出珊瑚枝。師曰。金剛腦後鐵蒺藜。曰只如教中道。我得無諍三昧人中最為第一。如何是無諍三昧。師曰。放你三十棒。僧曰。仁義盡從貧處斷。世情偏向有錢家。師曰。知恩者少。負恩者多○上堂。若說佛法供養大眾。未免鬚眉墮落。若說世法供養大眾。入地獄如箭射。去此二途。畢竟說箇什麼。三寸頭舌無用處。一雙空手不成拳○上堂。舉洞山冬夜喫菓子次。問泰首座曰。有一物。上拄天。下拄地。黑似漆。常在動用中。動用中收不得。過在什麼處。泰曰。過在動用中。山遂喚侍者。掇退菓子桌。師曰。者箇說話。在今諸方。每至冬夜。未嘗不拈出註解一上。然於正文。未曾道著一句。有底道。洞山只見錐頭利。不見鑿頭方。抑屈人作麼。有底道。泰首座不得菓子喫。要且在大地人。皆不得喫。成人者少。敗人者多。殊不知洞山有偏正回互。不犯底手脚。直饒泰首座道。不在動用中。也不得他菓子喫在。良久。水流黃葉來何處。牛帶寒鴉過別村○除夕小參。今夜年盡月盡日盡。世事悠悠。何時

是盡。明朝年新月新日新。千變萬化。又見重新。所以道。窮則變。變則通。垂鉤四海。只釣鯢龍。三千威儀。八萬細行。諸人固是不知。若得聲和響順。各守祖父田園。知道飯是米做。免向瞎驢邊滅却吾宗。卓拄杖。從前汗馬無人識。只要重論蓋代功○師著有續宗門統要行世。後示寂於保寧(育王珙嗣)。

越州天衣斷江覺恩禪師

族慈溪顧氏。幼依雲門廣孝祝髮。從延慶聞法師習四教儀。七日貫通。聞驚訝歎異。往參育王。室中機契○一日室中眾侍立次。忽扶杖而言曰。老僧嵌空倚杖藜。分明畫出須菩提。顧左右曰。會麼。良久。擲下拄杖。倚蒲團而逝(育王珙嗣已上四人)。

杭州靈隱東嶼德海禪師

台州臨海陳氏子。年十四出家。參石林鞏於承天。鞏問如何是汝自己。師擬議。鞏便推出。師即懷疑。一日入室次。鞏問盡大地是金剛正體。何處著上座。師擬對。鞏便打。從此徹證。鞏遷淨慈。命居侍司。一日室中舉國師三喚侍者話。師曰。不是失却猫兒。定是失却狗子。鞏曰。是孤負。是不孤負。師曰。瞞人自瞞。鞏以竹篋擊之曰。亢吾宗者。海子也○至元二十七年。出世天台寒巖。遷姑蘇寒山。崑山東禪。勅賜金襴法衣○延祐二年。詔主淨慈。至山門曰。清淨慈門。一湖秋水。入得入不得。虎齧大虫。蛇吞鼈鼻。喝云。咄○室中垂語曰。手握利刀劍。因甚胡獼子不死。嚙破鐵酸餡。因甚路上有飢人。波斯去帽。蔗咬甜頭。魚以水為命。因甚死在水中。眾答皆不契○泰定二年。復遷靈隱。四年丁卯。九月示微疾。召弟子付囑訖。跏趺而化。賜號明宗慧忍禪師。有六會語錄。塔於育王後山之麓(淨慈鞏嗣)。

嘉興天寧竺雲景曇禪師

浦江嚴氏子。久依石林。後住婺之治平。蘇之北禪。禾之天寧。上堂。金烏東上。玉兔西沈。伶俐衲子。東討西尋。忽然撞破虛空。曠劫只在如今。卓拄杖下座(淨慈鞏嗣)。

蘇州虎丘東山壽永禪師

送僧偈曰。動靜何曾涉蓋纏。何須更透未生前。故園千里今歸去。陸有征途水有船○約齋居士張鉉入道話頌曰。一棒鐘聲到耳根。三千剎海一時昏。賊從赤肉團邊去。明日依然不離門(淨慈鞏嗣已上人)。

杭州徑山虎巖淨伏禪師

淮安人。至元間。嘗召見。有偈進上。其略曰。過去諸如來。安住祕密藏。現在十方佛。成道轉法輪。未來諸世尊。一切眾生是。由妄相執著。結煩惱蓋纏。迷成六道身。枉受三途苦。惟念過現佛。不敬未來尊。與佛結冤仇。或烹宰殺害。不了眾生相。全是法性身。昔有常不輕。禮拜於一切。言我不輕汝。汝等當作佛。若能念自他。同是未來佛。現世增福壽。生生佛國。上覽畢大悅。問從上帝皇。有戒殺者否。師曰。昔宋仁宗。一日語羣臣曰。朕夜來飢甚。思欲燒羊。因慮後來。遂為常例。寧耐一時之飢。不忍啟無窮之殺。羣臣皆呼萬歲。上嘉納。即受帝師戒(徑山度嗣)。

寧波天童竺西坦禪師

僧參。師問從何方來。曰金鵝。師曰。金鵝山高多少。僧曰。不見頂。師呵斥之。一日陞座。舉世尊拈華公案。其僧言下有省(徑山度嗣已上人)。

越州定水寶葉源禪師

上堂。舉張拙秀才參石霜。霜問高姓。曰弟子張拙。霜曰。者裏覓巧。了不可得。拙自何來。拙言下大悟。頌曰。進前峭壁三千丈。退後懸崖十萬重。珍重大唐張拙老。鐵鎚無縫舞春風(徑山愚嗣)。

蘇州虎丘閒極雲禪師

久依虛堂於徑山。居第一座。一日寶葉源問虛堂愚。德山末後句。若謂之有。德山焉得不會。若謂之無。巖頭又道德山未會。乞和尚慈悲指示。愚曰。我不會。汝去問首座。源詣師。值師遊山歸。索水濯足。源亟進水。復委身為師摩捋。因仰面舉前話叩之。師乃掇水澆潑曰。有甚麼末後句。源不契。復上見愚。愚曰。首座如何向汝道。源舉似前話。愚曰。那那。我向你道。他會得。源乃釋然領

旨○舉興化和尚與唐莊宗酬價因緣頌曰。君王寶自難酬價。興化何曾敢借看。天地既無私蓋載。至今留得鎮中原(徑山愚嗣已上二人)。

南叟茂禪師

嘗舉巖頭和尚。於鄂渚湖邊作渡子。兩岸各挂一板。有人過渡。打板一下。巖問誰。或曰。要過那邊。巖便舞棹迎之。一日有婆子抱一孩兒。乃曰。呈撓舞棹即不問。且道婆手中兒。甚處得來。巖便打。婆曰。婆生七子。六箇不遇知音。只者一箇。也不消得。便拋向水中。頌曰。鄂渚渡邊窮鬼子。全機錯在扣舷時。何如別下一轉語。救取婆婆第七兒○舉夾山參船子和尚話頌曰。無相無瑕便倒戈。只因輕信智頭陀。若還不到華亭上。鐵鑄船撓柁汝何○舉龐居士賣擔籬。下橋喫撲。靈照見。亦去爺邊倒。士曰。作甚麼。女曰。見爺倒地。某甲相扶。士曰。賴是無人見。頌曰。孝順藏忤逆。人前醜莫遮。今生親骨肉。宿世惡冤家(徑山月嗣)。

寧波育王東生德明禪師

甬東劉氏子。十六祝髮受具。參頑極彌。彌舉文殊是七佛之師。因甚出女子定不得。罔明因甚出得。師曰。春色無高下。華枝自短長。彌器之。命掌藏鑰。出世育王。錫號佛日普光○頌船子公案曰。清世悠悠據要津。一撓活計重千鈞。朱涇路上行人少。滄海難同方寸深。後示寂。瘞洞雲塔(育王彌嗣)。

杭州靈隱空叟忻悟禪師

蘇之吳縣鈕氏子。九歲。入郡城龍興寺祝髮。後參愚菴及和尚。及詰曰。如何是永明旨。師曰。某甲新到。只見一湖水。及可之。遂容入室○臨終。書偈曰。我年五十五。踏斷死生關。夜半日卓午。茶毗。舌根數珠不壞。建塔靈隱東岡(徑山及嗣)。

長洲廣孝斯道道衍禪師

蘇之相城人。族姓姚。乳名天禧。年十四。出家於里之妙智庵。參徑山愚庵及和尚。咨叩禪要。盡得心髓。掌內記三年。出世普慶。遷天龍。嘗自題肖像曰。看破芭蕉拄杖子。等閑徹骨露風流。有時搖動龜毛拂。直得虛空笑點頭○洪武中。宗泐禪師薦於朝。侍文皇於燕邸○永樂中。以佐命功。上官之。不可。一日召見。上潛令人

以冠服被體。進爵太子少師。亟命宣謝。不得已拜命。終不肯蓄髮。嘗賜二宮人。不能辭。逾月。猶處子也。乃召還之。不復強。蓄一大鷄。每鷄一號。即起朗然誦經○後師復以使事出還。於道得疾。抵城門不入。命其下為幄曰。上將來視已。而駕果至。撫勞備至。賜金唾盂。且問有何言。師以手加額曰。出家人復何所道。遂示寂。封榮國公。諡恭靖。後配享太宗廟庭。遷供大興隆寺。世壽八十五。所著有道餘錄行世(徑山及嗣已上二人)。

杭州徑山南石文琇禪師

崑山李氏子。出家於紹隆庵。行中仁住雲頂。師往從之。鍼芥相契。初住蘇州普門。次遷靈巖。後住徑山。上堂。十方無異路。為甚麼南尋天台。北尋五臺。目前無異草。為甚麼桃花紅。李花白。良久。打破祖師關。都是自家底○靈巖上堂。盡大地是自己。森羅萬象。從何而有。會不得底三十拄杖。會得底亦與三十拄杖。諸方盡是。粥罷上堂。靈巖寺裏。參退喫茶○上堂。今朝七月初一。門前金風淅淅。特地打鼓陞堂。一字也道不出。露柱禮拜釋迦。燈籠問訊智積。獨有無事衲僧。依然眼橫鼻直。敢問大眾。那箇是無事衲僧。良久曰。長三尺○上堂。馬大師道。自從胡亂後。三十年不少鹽醬。此地無金二兩。俗人沽酒三升○居士問如何是衲僧門下事。師曰。你俗人。如何曉得衲僧門下事。又問如何是宗門下事。師曰。今日忙。無暇與汝說宗門下事。士擬議。師喝出○師纔見僧入門。便曰。你者踏州縣漢。脚跟下好與三十棒。僧曰。某甲話也未問。便蒙賜棒。師曰。待你開口。堪作甚麼。僧擬議。師便喝出○僧參。展坐具。師曰。我者裏無殘羹餽飯。不用使破炊巾。僧曰。和尚慈悲。師曰。笑倒門前青石幢○師七十餘示寂。門人建窆塔於寂照塔左。著有增集續傳燈四卷行世(萬壽仁嗣)。

嘉興天寧西白力金禪師

蘇之姚氏子。參古鼎銘和尚。舉德山見龍潭因緣示師。久而有契。出世瑞光。帝師授圓通普濟號。師幼孤。母老無依。築室城東奉養焉。一日忽謂侍僧曰。我有宿因未了。當償之。遂示疾而逝。塔於嘉興城西(徑山銘嗣)。

杭州徑山象源仁淑禪師

台州人。一日趨入門大叫曰。殺來了。殺來了。作麼生迴避。遂坐脫(徑山銘嗣已上二人)。

金陵天界覺源慧曇禪師

天台人。族楊氏。年十六為僧。受具。聞笑隱訢和尚主中竺。師往參叩。備陳求道之切。訢斥曰。從門入者。即非家珍。道在自_己。奚向人求耶。師退而有省。一日聞舉百丈野狐話。豁然大悟曰。佛法落吾手矣。只為分明極翻令所得遲。訢曰。汝見何道理。師展兩手曰。不值半文錢。訢頷之○一日師入門。訢問何處來。師曰。遊山來。訢曰。笠子下搗破洛浦。徧參底作麼生。師曰。未入門時。呈似和尚了也。訢曰。即今因甚不拈出。師擬議。訢便喝。師從此脫然○又一日訢展兩手示師曰。八字打開了也。因甚不肯承當。師曰。休來鈍置。訢曰。近前來。為汝說。師掩耳而出○住牛首祖堂。上堂。一句子。墨漆黑。無把柄。有準則。良久曰。會麼。碓搗東南。磨推西北○上堂。經有經師。論有論師。龍河今日放一綫道。分科列段去也。拈拄杖卓一下。且道是何章句○上堂。者箇現成公案。眾中領解者極多。錯會者亦不少。所以金鑰不辨。玉石不分。龍河者裏直下分辨去也。張上座。李上座。一箇手臂長。一箇眼睛大。總似今日達磨一宗。教甚麼人擔荷。良久噓一聲。下座○洪武初。師謁上於轅門。上一見。歎曰。真福德僧也命主蔣山。踰年。改龍翔為大天界寺。詔師主之。設廣薦法會。命師陞座說法。車駕幸臨。恩數優洽。御書天下第一禪林○洪武元年。賜紫衣。及金襴方袍。御制誥命。授演梵善世利國崇教大禪師號。住持大天界寺。統諸山釋教事○三年夏。廷議西域未臣伏。上以彼國敦尚佛乘。特詔師往。師承命。即日登途。自閩之洋。凡歷國邑。莫不聞風來歸○四年。秋七月。至合刺國。布宣天子威德。館於佛山寺。其王待以師禮。寅夜參承。合國士民。悉皆瞻仰。九月師示微疾。王臣咸來相慰。須臾沐浴更衣。謂左右曰。某幻緣已盡。不能復命矣。跏趺而逝。踰五日。顏色如生。王大敬歎。斲香為龕。築壇而茶毗之。王與百僚親送壇下。薪火滅盡。舍利無算。舌根齒牙不壞。收舍利靈骨。及不壞者。祔葬其國之世尊舍利塔中。七年九月。同行還奏。上嗟悼之。勅天界蔣山。二寺住持宗泐等。奉師衣鉢。建塔於雨花臺之左。有五會法語行世(龍翔訢嗣)。

金陵天界善世全室宗泐禪師

台之臨海周氏子。十四薙髮。二十具戒。依中竺訢。一日訢問。國師三喚侍者。侍者三應。汝意如何。師曰。何得剝肉作瘡。訢曰。將謂汝奇特。元來無所得。師喝一喝。訢擬拈棒。師拂袖便出○上堂。金剛王劍橫揮千妖屏跡。燦迦羅眼洞照。萬物潛形。到者裏卷舒在我。殺活臨時。直得千歲巖中天[跳-兆+孛]跳。錢塘水東海逆流。諸人還知有也無。舉拂子庭前石筍抽條。也會見高枝宿鳳凰○詔徵江南有道十人。詣京。就太平興國寺。建廣薦法會。列師居首。上齋戒。御製章疏。車駕親臨。用皮弁服。搢玉珪。北面禮佛。羣臣各衣法服以從。先是上命師撰獻佛樂曲。進呈御署。曲凡八章。曰善世。昭信。延慈。法喜。禪悅。徧應。妙濟。善成。勅太常歌舞以節奏之。復命師陞座說法。窮理盡性。徹果法因。顯密淺深。無機不被。上大悅。命師主天界。嘗欲命師蓄鬚髮以官之。師再懇得免○師以胡黨坐罪。遣鳳陽槎峰建寺。三年召還。上賜詩。有泐翁去此問誰禪。朝夕常思在目前之句。高皇后薨。臨葬。忽風雨雷電暴作。帝不樂。召師問曰。今太后將就壙。為朕宣偈送之。師應聲曰。雨落天垂淚。雷鳴地舉哀。西天諸佛子。同送馬如來。上意稍解。賜白金百兩。後以老求退。賜歸槎峰。渡江示寂於江浦石佛寺。謂左右曰。人之生滅。如水一漚。漚生漚滅。復歸於水。何處非寂滅之地耶。言訖。復顧侍者曰。者箇聲。者茫然。師曰。苦。遂寂。闍維舍利無算。塔於笑隱訢翠堵波之右(龍翔訢嗣)。

杭州中竺用彰懶翁廷俊禪師

據室。拈拄杖。室中若無棒頭取證底。我拄杖子誓不喚作拄杖子。有麼。勅點飛龍馬。跛鼈出頭來○佛涅槃日上堂。古德道。涅槃後有大人相。釋迦老子涅槃了也。大人相在什麼處。以拂子打圓相曰。還見麼。容顏甚奇妙。光明照十方。我適曾供養。今復還親覲○上堂。近來眾中兄弟。聰敏者多。徹到者亦不少。莫不自謂得之於心。應之於手。臨機見境。踢將出來。活潑潑地。不費纖毫氣力。到龍峰門下。正好從頭按過。拈拄杖卓一下。譬如油蠟作燈燭。不以火點終不明○洪武建元。寓鍾山。端坐而逝。荼毗舍利無數。塔於杭之南屏(龍翔訢嗣)。

杭州靈隱介庵用真輔良禪師

蘇之吳縣人。范文正公十葉孫也。示眾。達磨一宗。陵夷殆盡。汝等努力。如救頭然。百千法門。無量妙義。於一毫端。可以周知。如知之。變大地為黃金。受之當無所讓。否則素餐之愧。咎將誰

歸。歲月流電。向上事請各急著眼○洪武四年。正月十五日。親理後事。謂左右曰。翌日巳時吾逝矣。及期。澡浴端坐。書偈而寂。闍維齒牙舌根不壞。設剎無算。瘞歸雲塔中(龍翔訢嗣)。

廬山圓通約之崇裕禪師

毗陵陳氏子。參笑隱。舉無位真人話詰之。師不覺釋然下拜。訢曰。汝何所見而作禮。師曰。更無第二人。訢曰。從門入者。不是家珍。師曰。和尚慎毋壓良為賤○後住南禪。次遷圓通育王。洪武五年秋。召高僧建大會於鍾山。師應詔。至便殿。上問佛法大意。師以偈酬之。上大悅。賜食上前。師或假寐。鼻息作聲。鄰坐引踞覺之。上笑曰。此老人無機心。真善知識也。後示寂。塔於石耳峰(龍翔訢嗣已上五人)。

杭州淨慈孤峰明德禪師

族朱氏。年十七。得度為大僧。杖錫遊方。首謁竺西坦。聆上堂語有省。復造淨慈見晦機。機問什麼物。恁麼來。師曰。胡張三。黑李四。機拈棒。師拂袖竟出。復抵雙林。見明極俊。會日本遣使迎俊。師送至海濱。適晤竺田霖和尚於明州。霖挽師歸雪竇。處以第一座○一日霖上堂。舉隱山泥牛入海公案。音聲如雷。師不覺羣疑頓釋。述偈呈方丈。霖曰。人天眼目。儼然猶在○後師示微疾。戒飭其徒曰。汝等一真圓性。與如來等。世相起滅無異。石火電光。晝夜勤行。毋生退轉。吾沒後當遵佛制。依法茶毗。勿令衣麻而哭也。言畢書偈。泊然而逝(雪竇霖嗣)。

福州天寶鐵關法樞禪師

溫之平陽林氏子。聞元翁主秀之石門。造而諮叩。翁示以南泉三不是話。經三年。一日大悟。述頌曰。不是心佛物。拶出虛空骨。金毛獅子兒。豈戀野狐窟。喝一喝。咄咄咄。即詣方丈。翁問作甚麼。師曰。南泉被我捉敗了也。翁曰。不是心。不是佛。不是物。是箇什麼。師曰。牙齒一具骨。耳朵兩片皮。翁曰。不是不是。別道將來。師曰。鶯啼燕語。鵲噪鴉鳴。翁曰。錯。師亦曰。錯。翁曰。南泉即今在什麼處。師便喝。翁曰。離却者一喝。南泉畢竟在什麼處。師拂袖便出○見虛谷陵於大仰。不契。謁海印如于饒之薦福。纔上方丈。印問誰。師曰。暫到相看。印曰。什麼處來。師曰。江西。印曰。江西近日有甚麼事。師曰。集雲峰下藤條。被人

拗折子也。印曰。莫亂統。師曰。不因亂統。爭得到者裏。印曰。且道者裏事作麼生。師叉手進前曰。即日恭惟堂頭和尚。尊候起居萬福。印曰。不沙泥水一句作麼生。師喝一喝曰。風從虎。雲從龍。印曰。一喝不作一喝用。是如何。師曰。兩箇泥牛鬪入海。直至如今無消息。印曰。錯。師亦曰。錯。印喚侍者點茶來。師曰。不受供養。印曰。不受者供養。受那箇供養。師曰。謝和尚供養。印曰。曾見甚麼人來。師曰。不曾見人。印曰。既不曾見人。那裏得者箇消息來。師曰。若見人。即無者箇消息。於是服勤為淨頭。印嘗謂眾曰。永嘉樞侍者。是煨了底金○復遊東林。參澤山咸。值開室。為眾舉竹篋因緣。聲未絕。師奪却竹篋。過左邊立。曰喚作甚麼即得。咸曰。掠虛漢。師以竹篋打一下。拗折而出。次日咸復開室。舉泗洲大聖。因甚在揚州出現。曰南山起雲。北山下雨。師又捉住竹篋曰。南山起雲。北山下雨。意旨如何。咸喝一喝。師曰。者是鬼窟裏活計。畢竟意旨如何。咸曰。掠虛漢。師以竹篋一送曰。見說洛陽花似錦。拂袖而出○後復歸石門。信纔見。便曰。南泉向什麼處去也。師曰。說甚南泉。釋迦老子來也。翁曰。不是心。不是佛。不是物。是什麼。師曰。劍去久矣。信曰。趙州無聲。師曰。龍生金鳳子。衝破碧瑠璃。信曰。古人與麼。道道道。師喝一喝。信曰。錯。師又喝。信曰。錯錯。師遂禮拜。信曰。放汝三十棒。迺囑曰。善自護持。師又潛眾十五年。至延祐戊午。出世闡之天寶。帝師錫寺額。加號妙覺真空大師○至元六年八月示微疾。作手書。邀諸所與遊者入山。期而畢至。求法施者。隨其所欲。了無倦色。正午。沐浴端坐。書偈曰。本無來去。一句全提。紅霞穿碧落。白日遶須彌。擲筆而逝(天池信嗣)。

孤舟濟禪師

月庭忠公居蔣山。師為第一座。時竺源參月庭。至首座寮。師問源曰。蒙山嘗言栽松道者。不具二緣而生。達磨葬熊耳。後隻履西歸。為復是神通妙用。是法爾如然。源曰。形神俱妙。師叱之曰。不然。子他日當自知之。源後參無能。舉師語。能曰。為汝不解故也。源釋然大悟(蒙山異嗣)。

宜興龍池一源永寧禪師

別號虛幻子。族姓朱。淮東通州人。至淮西太湖。謁無用寬。寬門庭嚴峻。師方入門。厲聲叱之。師作禮於門外。久之乃許入見。問曰。何處人。師曰。通州。曰淮海近日盈虛若何。師曰。沃日滔

天。不存涓滴。用便喝出。師退徹夜不寐。一日聞寬舉雲門須彌山話。聲未絕而有省。急趨前。寬便打曰。趙州無字作麼生。師遽曰。趙州狗子無佛性。萬象森羅齊乞命。無底籃兒盛死蛇。多添少減無虛剩。寬嗒然。由是執侍左右者三年。寬始以斷崖義所贊已像。親署書授師曰。汝緣在南。逢龍即住。遇池便居。師遂受命南還。至治癸亥。宜興龍池疏請。師以名符懸記。欣然赴之。先是山巔有池。其深叵測。龍出每大水。居民苦之。師授龍三皈戒。遂不復出。居久。復至絕巘築室。壁立如削。斲木為棧。棲板空中。足不越限者三年○帝師稔師道行。降號弘教普濟禪師。尋召入京。宣命龍光殿陞座說法。上大悅。賜金襴法衣。加號佛心了悟。庚子出領善權○洪武己酉。夏六月示微疾。囑弟子裁紙製内外衣。且曰。吾將逝矣。命移龕至絕巘。索筆書偈曰。七十八年守拙。明明一場敗闕。泥牛海底翻身。六月炎天飛雪。書畢吉祥而逝。先一月池水忽竭。及師順寂。噴涌異常。時黑白戀慕。至有然頂灼臂以供養者。茶毗現五色光。齒牙舌輪皆不壞。設利無算。門人分餘骨與不壞者。就龍池太平齊山紫雲麻蕪五所。建塔藏焉(太湖寬嗣)。

杭州妙果竺源水盛禪師

饒之樂平人。范姓。謁無能。盡脫玄妙知解。歷觀從前所悟。宛如一夢。能撫師背曰。子後當大弘吾宗也。辭能東遊。隱居南巢○天歷己巳。出世西湖之妙果。嘗示眾曰。凡學道人。當洞明諸佛心宗。行解相應。歲久月深。具大無畏。如透水月華。萬浪千波。觸之不散。方始不被生死陰魔所惑。故槌拂之下。懸崖壁立。務期實證實悟而後已。未幾復還南巢○至正丁亥。戒飭徒眾。且曰。世尊有言。我今背痛。將入涅槃。吾其時矣。師揮叱曰。何以偈為。端坐而逝(無能教嗣)。

曹洞宗

磁州大明雪巖滿禪師

初參普照寶。照曰。兄弟年後正宜叩參老僧。當年念念常以佛法為事。師避席進曰。和尚而今如何。照曰。如生冤家相似。師曰。若不得此語。幾乎枉行千里。照下禪牀。握師手曰。作家那(伴我侶頌云作家相見事紛拏佛法何如眼裏沙藥病頓忘無一物踏翻雲月復何家○位中符頌云搗得磁州立地尿銛銛牙爪羨年少倒握王山夢裏符熨斗煎茶別有銚)○師與勝默同參。嘗跪受呵斥。或問其故。師曰。今諸方師資法屬。諍訟招譏。

師虫自食身中肉也。某雖不肖。敢復蹈覆轍耶。後造王山體舉洞山觀影因緣。師大疑。體曰。不疑言句。是為大病。子今既疑。則病發也。子知此病。即子藥麼。師一日讀五位頌。至折合終歸炭裏坐。忽然悟曰。今日方知病是藥也。去呈體。體曰。料掉沒交涉。師曰。老和尚這回瞞我不得也(天界盛云草頭方子撞采醫得一箇也拈拄杖云還有要識者草頭方子者麼卓一卓云料掉沒交涉)○上堂。舉洞山解夏云。夏末秋初。兄弟或東去西去。直須向萬里無寸草處。良久曰。祇如萬里無寸草處。又作麼生去。石霜曰。出門便是草。太陽曰。直饒不出門。亦是草漫漫地。師曰。三箇老漢。雖然異口同音。未免撞頭磕腦。何也。一人大開口了合不得。一人高擡脚了放不下。一人緊閉門了出不去王山即不然。徧十方界非外。全在一微塵。在一微塵非內。徧十方界祇者一微塵許也。須極盡不可得。向那裏安門。甚處入草。還會麼。休侵洞口初秋草。請看疏山臘月蓮○僧問高郵定和尚。透網金鱗。以何為食。定曰。乾屎橛。師聞之曰。謝供養(法音[沆-几+桀]拈云是什麼人草草坐地)○五位頌曰。正中偏。邃洞沈沈鎖翠煙。午夜碧空清似鏡。一輪明月上層巔。偏中正。欲曉雲濃封野景。雪屋靈明夢未醒。冥然又若寒宵永。正中來。木人攜錫下崔嵬。縱橫不履今時地。石徑祥蓮襯足開。兼中至。懶提妙印無真偽。碧莎叢裏恣情眠。一任岩前花雨墜。兼中到。突兀三光曾未炤。夢手敲空聽者稀。迴然不墮宮商調(王山體嗣)。

勝默光禪師

上堂。僧問如何是祖意教意。師曰。針頭削鐵。佛面剝金。曰此與雞寒上樹。鴨寒下水。是同是別。師曰。傳言送語過猶輕。曰恁麼謝師賞罰分明也。師曰。亂統漢。乃曰。我宗無語句。亦無實法與人。德山老齒不關風。作這敗闕。欲識綱宗。須先識句。岩頭老腦後見腮。莫與往來。此是他父子提唱。我石頭和尚明暗相對處。且如何是回互不回互的意。今日尋思去。靈龜夜裏來○嘗舉九峰不肯公案。頌曰。元座徒亡一炷煙。九峰不是抑高賢。若將一色為承紹。辜負先師不借緣○示眾。舉麻谷振錫話曰。是無可是。非無可非。是非無主。萬善同歸。梟雞晝夜。徒自支離。我無三寸。鼈得喚龜。迦葉不肯。一任攢眉○五位頌。正中偏。沈沈祕殿瑞雲攢。夜央秋水羣鷺息。碧月寥寥朗炤寒。偏中正。江堦曉霽煙籠景。蘆花深處白頭翁。紅日三竿眠未醒。正中來。玉龍初躍一聲雷。十方齊和無私化。石筍穿開古路苔。兼中至。邊方無令清平世。耕夫釣叟恣謳歌。溪月籠雲同意氣。兼中到。無功轉盡通身妙。華冠拈却異中行。消落太虛不得號(王山體嗣已上二人)。

磁州大明詮禪師

久參仁山恒和尚。而性好詼諧談笑。山囑定侍者常拘檢之。師曰。人生一夢。快樂一世。是好夢。拘檢一世。是惡夢。我寧作好夢。次日侍者抽單去。住後徒單二。駙馬赴南京任。道過磁州大明。入堂見僧面壁而坐。駙馬曰。一箇好淡漢。師曰。淡中有味。曰恁麼味。師曰。今日被公著鹽醬也(仁山恒嗣)。

鄭州大覺西溪弘相禪師

訖州王氏子。參慶壽亨。十年乃佩其印記。初住大覺。晚住清涼。一日雪後路峻石滑。師年已老。力不持足。一跌翻墜巨壑中。同行者失聲。莫能救。直下數十尺。礙大樹而止。眾驚問。師神色不變。徐曰。學禪四十年。脚跟乃為石頭所勘。聞者皆驚笑。有文集語錄傳世(慶壽亨嗣)。
續指月錄卷六

續指月錄卷七

六祖下二十三世

臨濟宗

杭州天目中峰明本禪師

錢塘孫氏子。母夢無門開老人。持燈籠至家而生。纔離襁褓。便跏趺坐。能言即歌贊梵唄。凡嬉戲必為佛事。九歲喪母。年十五。求出家。閱傳燈錄。至庵摩羅女問曼殊。明知生是不生之理。為甚麼却被生死之所流轉。有疑。往參高峰妙和尚。妙孤峻嚴冷。不假人辭色。一見師懽然。許為祝髮。誦金剛經至荷擔如來處。恍然開發。後觀流泉有省。詣妙求證。妙為打趁出。既而民間偽傳選童男女。師問忽有人來要和尚討童男女時如何。妙曰。我但度竹篋子與他師於言下洞徹法源。妙乃自題真贊付師曰。我相不思議。佛祖莫能識。獨許不肖兒。得見半邊鼻。(牧雲門頌云訛言日出古風沈一問當前意自深却笑作家無眼力真鍮換去好黃金)○或問妙諸弟子優劣。妙曰。如義首座。固是莖老竹。其如七曲八曲。惟本維那。却是竿上林新篁。他日成材未易量也○師居無定所。或船或庵。咸名幻住。僧俗爭相瞻禮。稱江南古佛○仁宗聘召不至。賜金襴袈裟。并佛慈圓照廣慧禪師號○師每斥學者但尚言說。不求實悟。乃曰。今之參禪。不靈驗者。第一無古人真實志氣。第二不把生死無常。當做一件大事。第三拌捨積劫以來積習不下。又不具久遠不退轉身心。畢竟病在於何。其實不識生死根本故也。凡見學者輒問曰。汝喚甚麼作生死。或者茫然無對。或者謂生不知來。死不知去。是生死。師曰。直饒知得亦生死。所知亦生死。又或指一念忽起是生。一念忽滅是死。師曰。離一念起滅。亦生死也。是說皆枝葉耳。非根本也。夫根本者。性真圓明。本無生滅去來之相。良由不覺。瞥起妄心。迷失本源。虛受輪轉。以故道迷之則生死始。悟之則輪迴息。當知山河大地。明暗色空。五陰四大。至於動不動法。皆是生死根本。若不曾向真實法中。脫然超悟。更於悟外別立生涯。不存窠臼。豈堪向生死岸畔筍脚。或纖毫不盡。未免復為勝妙境緣。惑在那邊。起諸異想。雖曰曉了。其實未然。惟有痛以生死大事為己重任者。死盡偷心。方堪湊泊直下。儻存毫髮許善惡取捨愛憎斷續之見。則枝葉生矣。可不慎乎○示眾。慧劍單提日用中。天然元不犯磨礱。神號鬼哭喪魂膽。徧埜橫尸不露鋒。古人與麼說話。已是自傷己命了也。殊不知我王庫內。無如是刀○佛成道日示眾。玄玄絕待。妙妙無

依。獨露真常。全彰至體。名不得。狀不得。雪老冰枯。理無礙。事無礙。天荒地迴。萬里雲收午夜。四方星燦長空。揭開威音那畔腦門。圓陀陀。光燦燦。擲瞎髑髏背後眼光。淨裸裸。赤條條。勒回三萬劫。風飛雷厲之威機。突出五千軸。海涌雲屯之竊語。大眾。釋迦老子來也。即今在諸人眼睛裏仰見明星。頂[寧*頁]上成正覺。你諸人還覺眉毛動也無。如其未委。各請歸堂○與大覺長老書曰。古人於法嗣嫡傳。所以深明宗系者。大法原委。不可誣也。世漓俗薄。奉金請拂。以院易嗣者有之。某嘗痛心於此。夫大覺雖先師開山。然十方叢林。儘有尊宿。捨彼不取。而必欲某尸之。何識量之不廣也。某非畏住持。實畏嗣法於開山也。故退避力辭而舉足下。以足下自師一山禪師。豈可徇世俗而易其所師哉。或欲徇俗易嗣。則某斷然不敢與足下一日相聚也(大覺泰定叟也皇慶間請師住大覺師力辭舉定叟應命叟嘗印證於一山萬和尚後復參師乃拈香欲嗣師師以是書却之令嗣一山)○至治癸亥八月十五。說偈辭眾曰。我有一句。分付大眾。更問如何。無本可據。置筆安坐而逝。建塔於本山之西岡○天歷二年。勅諡智覺。塔曰法雲。勅虞文靖公集為之銘○元統二年。賜廣錄三十卷入藏。號普應國師(高峯妙嗣)。

杭州天目斷崖了義禪師

德清湯氏子。年十七。聞禪者誦高峰妙上堂。舉欲窮千里目。更上一層樓語。乃曰。此大善知識。必能為人拔釘去楔。遂往參謁。侍妙於死關。妙令看萬法歸一話。因名從一。他日妙為眾舉牛過窗櫺話。師聞益疑。日夕體究。偶過盂孟塘。見松枝墜雪有省。詣妙呈頌曰。不問南北與東西。大地山河一片雪。聲未絕。妙痛棒打出。不覺隕身崖下。崖懸壁立。人意其必死。同學捫蘿接磴以救之。師若不知。乃立誓七日取證。未至期。豁然大悟。復馳至死關。大呼曰。老和尚今日瞞我不得也。復說偈曰。大地山河一片雪。太陽一照便無蹤。自此不疑諸佛祖。更無南北與西東。妙乃上堂曰。山僧二十餘年。布漫天網子。打鳳羅龍。不曾遇得一蝦一蟹。今日有箇螭螟虫。撞入網中。固是不堪上眼。三十年後。向孤峰絕頂。揚聲大叫。且道叫箇甚麼。舉拂子曰。大地山河一片雪○師謂同學曰。盡大地有一人。發真歸元。從一皆知之。妙聞。歎其俊快○尋回省親。乃奉母入武康上柏。結茅以居。人見其混俗。罔測其意。後還山見妙。妙曰。大有人見你拖泥帶水。師曰。兩眼對兩眼。遂為薙落。改名了義。妙既示寂。師益韜晦。頽然居下版。四眾累請。勉住師子正宗禪寺○元統元年歲除日。謂侍者曰。有一件事天來大。你還委悉麼。良久曰。明日是年朝。正月六日。詣法雲塔西。指空

地曰。更好立箇無縫塔。其夕與禪者談笑如平時。至夜分。乃曰。老僧明日天台去也。者曰。某甲隨師去。師曰。你走馬也趁我不及。翌旦跣趺而化。化之日。雷砰雨射。白晝晦冥。及葬。雪華繽紛。林木縞素。送葬者數千人。悲動山谷。初中峰示寂。會葬齋次。師謂眾曰。後十二年。更為老僧一會。眾未深信。至是始驗○勅諡佛慧圓明正覺普度禪師(天目妙嗣)。

大覺布衲祖雍禪師

寧海人。侍高峰妙最久。躬自舂爨。貌甚黑瘠。戇而少文。後首眾。提唱超卓。迨妙遷化。眾請中峰本居大覺。本力辭。推師主之○山居偈曰。就樹縛茅成屋住。拾荆編戶傍溪開。是他癩癩無靈驗。惹得天書三度來。後於中竺桂子堂書偈。跣趺而逝(天目妙嗣)。

處州白雲空中假禪師

得法高峰。棲白雲山。四方禪衲聞風來赴。屨滿戶外。至元丙子夏。一日援筆書偈曰。地水火風先佛記。掘地深埋第一義。既免檀那幾片柴。又省人言無舍利。書畢坐化(天目妙嗣已上四人)。

般若絕學世誠禪師

示眾曰。有志之士。趁眾中柴乾水便。僧堂溫暖。發願三年不出門。決定有大受用。有等纔作工夫。覺得胸次輕安。目前清淨。便一時放下。作偈作頌口快舌便。將謂是大了當。悞了一生。可惜前來許多心機。中途而廢。三寸氣斷。將何保任。眾兄弟。若欲出離生死。參須實參。悟須實悟始得(靈雲定嗣)。

杭州徑山竺遠正源禪師

毘陽文忠公之裔。世居南康。年二十七。薙染受具參方。首謁廬谷陵。陵舉龍潭吹滅紙燭話。師曰。焦石可破層冰。陵曰。破後如何。師曰。探索乃知。陵曰。所知者何事。師擬對。陵劈脊便打。師悚然喻旨。住徑山。賜號佛慧慈照普應禪師(徑山陵嗣)。

婺州寶林桐江紹大禪師

嚴州吳氏子。世居桐江。因以為號。參虛谷於徑山。佩服心印。徧遊江湖。一日慨然歎曰。吾今而後。乃知法無異味也。遂罷參。手翻大藏凡三過。內外學咸通其旨○至順壬申。出住郡之烏龍。後遷雲黃寶林。一時法會。號稱極盛。一日示疾。鳴鐘集眾敘謝眾請偈。師接筆擲地曰。縱書到彌勒下生。寧復離此。翛然坐化。闍維舍利如紺珠。齒牙不壞(徑山陵嗣已上二人)。

汝州香巖無聞思聰禪師

香山人。初參獨峰。次見淮西無能教。示無字話。一日晤同參敬上座。敬問你六七年來。有甚見處。師曰。每日只是目前無一物。敬曰。你者一絡索。從甚處來。師罔然。問曰。畢竟明此大事應作麼生敬曰不見道要知端的意。北斗面南看。說了便去。師被一拶。直得行不知行。坐不知坐。五七日間。不提無字。倒只看要知端的意。北斗面南看。偶到淨頭寮。與眾同坐。疑情不解。有飯食頃。頓覺胸次輕清。情想破裂。目前人物。一切不見。省來通身汗流。遂見敬。敬舉扇曰。速道速道。師遽曰。舉起分明也妙哉。清風匝匝透人懷。箇中消息無多子。直得通身歡喜來。自此下語作頌。都無滯礙。及至向上一路。又不得灑落。乃入香巖山過夏。單提無字。一日不覺身心如一座屋。倒却四壁一般。無一法可當情。值鐵山瓊和尚。從高麗回至石霜。師往見。瓊問何處人。師曰。汝州。山曰。風穴祖師面目如何。師將二十年工夫。通說一徧。瓊把定咽喉問如何是無字。師曰。近從潭州來。不得湖北信。瓊曰。未在。更道。師曰。和尚幾時離高麗。瓊曰。未在。更道。師喝一喝。拂袖便出。瓊曰。者兄弟都好。只一件大病。我發明了。師聞而感激。因求決擇。復入光州山中。前後十七年。方得穎脫○示眾。法無定相。遇緣即宗。秉金剛劍。吞栗棘蓬。截斷衲僧舌頭。坐却毗盧頂[寧*頁]。豎一莖草。作丈六金身。將丈六金身。作一莖草。直教寸絲不挂。月冷秋空。寒灰發燄。到者裏喚作佛法。入地獄如箭射。不喚作佛法。亦入地獄如箭射。諸仁者。畢竟作麼生會。不見船子和尚道。藏身處沒蹤跡。沒蹤跡處莫藏身。雖然恁麼。正眼觀來。盡是閒家具。衲僧分上。料掉沒交涉(鐵山瓊嗣)。

湖州福源天湖石屋清珙禪師

蘇州常熟人。族姓溫。首參高峰。示萬法歸一話。服勤三年。無所發明。因至建陽庵。參信和尚。問何來。師曰。天目。信曰。有何指示。師曰。參萬法歸一話。信曰。汝作麼生會。師無語。信曰。

此是死句。什麼害熱病底。教汝與麼。師拜求指的。信曰。有佛處不得住。無佛處急走過。意旨如何。師不契。信曰。者也是死句。師不覺悚栗汗下○一日入室。信再理前話。師曰。上馬見路。信呵曰。汝在此幾多時。猶作者箇見解。師發憤而去。中途忽舉首見風亭。豁然有省。遂返。語信曰。某甲今日會得活句也。信曰。汝作麼生會。師曰。清明時節雨初晴。黃鶯枝上語分明。庵領之。後辭去。信門送之曰。他日與汝同龕○廣教府馳檄請住當湖福源。師堅臥不起。往返至再。師勉就。入院上堂。把住也鋒鋌不露。放行也十字縱橫。水雲深處相逢。却在千峰頂上。千峰頂上相逢。却在水雲深處。今朝福源寺裏。開堂演法。昨日天湖庵畔。墾土耕煙。所以道法無定相。遇緣即宗。可傳真寂之風。仰助無為之化。正與麼時如何。拈拄杖卓一下。九萬里鵬纔展翼。十千年鶴便翱翔○上堂。一身清淨。則多身清淨。一世界清淨。則多世界清淨。東司頭臭氣。佛殿裏篷塵。且道從什麼處得來。以手掩鼻曰。又是一點也○上堂。所聞不可聞所見不可見。昨夜五更風。吹落桃華片。蒼苔面上生紅霞。百鳥不來春爛熳○至正間。朝廷降香幣。皇后賜金襴法衣。有聞天湖之風。吟天湖之詩者。莫不心爽神慕。以為真得古先德遺型○一日示微疾。遂集眾訣。眾請後事。師索筆書偈曰。青山不著臭屍骸。死了何須掘土埋。顧我也無三昧火。光前絕後一堆柴。書畢。擲筆而逝。闍維舍利五色。塔於天湖之源。及菴塔右麓。果符同龕之讖○高麗國師大古愚公。嘗侍師得旨。王聞欽渴。表達朝廷。勅諡佛慈慧照禪師。仍乞移文浙江。請師舍利歸國供養(道場信嗣)。

杭州淨慈平山處林禪師

本郡仁和王氏子。十七受具。辭母參方。母為治裝。越數日復還。母誡之曰。大凡學道。當持不退轉心。何趑趄乃爾耶。師遂痛自警策。溯濤江。謁及庵信於金華。信一見器之。留居侍司。一夕。信撚紙沁膏以代燭。舉示師曰。龍潭吹滅。汝作麼生。師方擬答。信遽以手掩其口。從此悟入。信遷道場。命典藏鑰。未幾秉拂陞座。機如餅瀉。眾咸慴伏○洎信示寂。往依虛谷陵於仰山。居第二座○臨終。更衣沐浴。集眾說偈而化。勅諡普慧性悟禪師(道場信嗣)。

婺州羅山正覺石門至剛禪師

世居山麓。得法於及庵信和尚。遊歷罷歸里。里人即其地營建寶坊。文其楣曰。正覺○小參。踏翻生死海。涓滴不留。推倒涅槃

城。纖塵不立。且是不勞餘力。如壯士揮戈。鋒鋌不犯。如人善射。毫髮無差。自然處處逢源。頭頭合轍。不假修證。本自圓成。盡大地是勝妙覺場。徧法界是真如實地。悟取人人有分。了知箇箇無虧。一念不生。入三摩地。一塵不動。轉大法輪。自利利他。俱登彼岸。全身放下。總得自由。到者裏說甚涅槃生死。真如佛性。了無一法當情。直得十方坐斷。擊拂子。見徹本來無隱蔽。紛紛桂子散天香○臨終訣眾偈曰。七十六年。了然寬廓。拶破虛空。須彌倒卓(道場信嗣已上三人)。

杭州海門天真惟則禪師

吳興費氏子。謁楚石千巖無見無聞諸大尊宿。因緣不契。後之匡廬。遇無極源和尚。親炙之。源終日不語。無所啟發。一日值源如廁。師急趨前問曰。如何是祖師西來意。源擒住曰。道道。師豁然頓悟○洪武初。詔徵天下高僧赴京。天界住持西白金公。首以師名薦。俄以足疾請歸。一日侵晨告眾。瞑目而逝。茶毗獲舍利無數。頂骨牙齒舌根不壞(匡廬源嗣)。

台州華頂無見先覩禪師

本郡仙居葉氏子。因白雲度問西來密意。未審如何。師云。待娑羅峰點頭。即向汝道。(介庵進頌曰小姑臨嫁索根由嫂對歸時向汝訓待到歸來問端的半含笑語半含羞)示眾。風冷冷。日杲杲。薔薇華開滿路香。池塘一夜生春草。堪悲堪笑老瞿曇四十九年說不到。阿呵呵。拍禪牀下座○示眾。若論此事。一大藏教。詮註不及。天下老和尚。拈提不起。直饒有傾湫之辯。倒嶽之機。到者裏一點也用不著。諸仁者。飢則喫飯。困則打眠。熱則乘涼。寒則向火。一一天真。一一明妙。何得踏步向前。論禪論道。將魚目為珠。認橘皮作火。不見道大機須透徹。大用須直截。不識東家孔丘翁。却向他邦尋禮樂。卓拄杖下座○元統甲戌五月望日。遺書謝道侶。說偈跏趺而逝。闍維白乳如注。舍利凝結。成五色彩。瘞於所居之西。勅號真覺。塔曰寂光(瑞巖寶嗣)。

慶元松巖秋江元湛禪師(傳燈正宗誤入未詳卷)

久從龍象遊。後參瑞巖寶和尚得旨。後遊松巖。愛其清勝。不忍去。遂趺坐石上。俄有二虎踞坐其側。若護衛狀。師命之伏。枕其背熟睡。山民異之。即其處剏精藍以居之○將化別眾。就龕說偈

曰。洗浴著衣生祭了。跏趺晏坐入龕藏。華開鐵樹泥牛吼。一月長輝天地光○復謂眾曰。十五年後寺當火。啟龕則火可止。至期果然。眾亟開龕。師神色如生。爪髮俱長(瑞巖寶嗣○恕中和尚禮塔偈曰活葬松巖二十年眼睛鼻孔尚依然我來欲起那伽定石火光中話別傳)。

杭州鳳山一源靈禪師

寧海人。參瑞巖充堂司。一日入室請益趙州勘婆話。山曰。維那你試下一語看。師曰。盡大地人無柰者婆子何。山曰。山僧則不然。盡大地人無柰趙州何。師當下如病得汗○住鳳山上堂。舉昔世尊陞座文殊白椎公案。師曰。世尊已_巳是錯說。文殊已_巳是錯傳。新鳳山已_巳是錯舉。會麼。字經三寫。烏焉成馬(瑞巖寶嗣已_巳上三人)。

明州天童平石砥禪師

送慍藏主。省徑山元叟和尚偈曰。山頭老漢八十一。如此東南大法城。雙鬢又添新歲白。片言能使古風清。為人不用擊虎術。養子寧忘舐犢情。明月堂前坐深夜。餘光分得到長庚(東巖日嗣)。

日本夢窗智曜國師

姓源氏。本國勢州人。字多天王九世孫也。九歲出家。十八歲為大僧。每夢遊中國。乃決志參方。初見一山寧。備陳求法之誠。山曰。我宗無語句。亦無一法與人。師曰。豈無方便乎。山曰。本來廓然。是大方便。師疑悶不輟。復謁高峰日和尚。日曰。一山有何指示。師述前語。日厲聲喝曰。何不道和尚漏逗不少。師於言下有省。益自奮勵。一夕坐久。忽倚壁身踣。豁然大悟。作偈有等閒擊破虛空骨之句。呈似日。日為印可。乃出無學元公淵源以[田/升]之。後於本國大弘宗教。賜號普濟國師(徑山範下無學元元下高峰日嗣)。

台州瑞巖空室恕中無慍禪師

本郡臨海陳氏子。從徑山寂照薙落參方。首謁靈石於淨慈。後參竺元道。纔擬開口問無字話。被道一喝。師豁然大悟。直得通身汗下。遂呈頌曰。狗子佛性無。春色滿皇都。趙州東院裏。壁上挂葫蘆。道笑曰。恁麼會又爭得。師拂袖便出。由茲感激語同參曰。此事如人飲水。冷暖自知。決不在言語文字上。我輩若不遇者老和尚。幾被知解埋沒一生。他日設有把茅蓋頭。當不忘所自○初住象

山之靈巖。復主黃巖之瑞巖。時夢堂噩居瑞龍。覬師為寂照嗣師曰。素志有在。不可奪也。開堂日拈香曰。古人出世拈香。酬法乳也。今人出世拈香。酬世恩也。慍上座總不然。昔年行脚到紫籜山中。參箇老布衲。彼亦無法可授。我亦無法可受。只向無授受中。拈出供養。前住崑山薦巖禪寺。竺元道和尚。不圖報德酬恩。只要大家知委○上堂。心如工伎兒。意如和伎者。五識為伴侶。妄相觀眾伎。大眾還識得心也未。若識得心。便識得意。識得意。便識得諸識。識得諸識。便識得妄想。妄想滅則諸識滅。諸識滅則意滅。意滅則心滅。心滅則一切滅。所以道。心生種種法生。心滅種種法滅。喝一喝。山河大地。日月星辰。有什麼過。下座○上堂。趙州與文遠。鬪劣不鬪勝。老大不識羞。相席還打令。致使明眼人。無由辯邪正。邪正既不辯。展轉成毛病。瑞巖百不能。愛用無星秤。稱起太虛空。錙銖無欠剩。以此為瑞為祥。以此為坑為穿。斷衲僧之咽喉。續佛祖之慧命○室中垂語曰。穩坐家堂。主人翁因甚不識。掀翻大海。擗碎須彌。平地上因甚擡脚不起。眼光爍破四天下。自家眉毛落盡。因甚不見前後。下語多不契。其機鋒峻拔。學者莫能擬議。一日謝事。入松巖。巖為秋江湛公隱處。萬山之巔。人跡罕至。師悉遣徒御。嶄然獨處。眾涕泣哀請。堅拒不出○洪武七年夏。日本國遣使入貢。嚮師道風。奏請師化其國。以水晶數珠。峩山石硯為贄。上召至闕。師以老病辭。上憫而不遣。留處天界。全室泐公。延致丈室。時宋景濂方在翰林。詣師劇談道妙。是年冬。奉詔東還。住鄞之翠山。四方叩謁者無虛日。金齒大理僧至京。特入翠山。五十餘人拜牀下。各求偈語而去○洪武丙寅七月示微疾。諄諄勉眾。以祖道自重。索筆書偈曰。七十八年。無法可說。末後一句。露柱饒舌。咄。書畢。端坐而逝。遺命闍維煅骨。散水竹間。弟子居頂等不敢遵。乃於唐鑿之原。奉骨瘞焉。著有二會語錄。并山庵雜錄。淨土詩。行世(薦巖道嗣)。

明州天童了堂一禪師

至正二年住台之紫籜。次遷天童。上堂。最初一句。末後一機。直下觀得。燈籠露柱。動地放光。其或未然。竹山今日失利○示眾。樵歌來疊嶂。帆影落汀洲。猢猻戴席帽。直上樹梢頭。七星劍。五雲樓。毬打人兮人打毬。萬事難把玩。魚吞水面漚○上堂。長[此/束]鳥。芳樹不棲。摩斯迦。滄溟不入。龍泉與鋤斧同鐵。利鈍懸殊。良驥與駑駘同途。遲速有異。以拂子畫一畫。花須連夜發。莫待曉風吹(薦巖道嗣)。

徑山大宗興禪師

台州人。嘗與恕中木庵三人結伴參方罷。遊紫籜。累歷名剎。後遷徑山。臨終。忽歎曰。夫三十。婦六齡。畢竟偶不成。遂坐脫去(薦嚴道嗣已上三人)。

蘇州靈巖南堂了庵清欲禪師

族朱氏。台州臨海人。得法於古林。初出世中山之開福。繼遷本覺。三主靈巖。上堂。釋迦老子道。一人發真歸元。十方虛空。悉皆消殞。五祖和尚道。一人發真歸元。十方虛空。築著磕著。若向築著磕著處會得。只會得祖師禪。不會如來禪。若向悉皆消殞處會得。只會得如來禪。要且未會祖師禪。山僧道。一人發真歸元。十方虛空。性相平等。且道是如來禪。是祖師禪。喝一喝。一釋迦。二元和。三佛陀。其餘是什麼○上堂。一大藏教。束之高閣。長期短期。無繩自縛。莫更紛紛紜紜。直須灑灑落落。楊岐一頭驢。只有三隻脚。潘閬倒騎歸。擲殺黃番綽。五味拈來饌秤錘。別有香風滿寥廓。喝(保寧茂嗣)。

蘇州定慧大方禪師

住定慧日。因兵占住佛屋。緇徒戚戚。師曰。何不休去歇去。語默跌宕。不可測識。一日忽謝院事。僑居靈巖華首座寮。盛稱總管周侯義卿之賢。且曰。我將火化。須侯作證明。十八年九月八日。侯以郡事登靈巖。師聞欣然出迎。陪侯夜話曰。某將此月十四日。即此山火化。侯其為我證明。兼吾教下衰。幸念佛法。付囑國王大臣。為法外護。慎無忘此言。至十三日。復以偈寄侯曰。昨日巖前拾得薪。今朝幻質化為塵。慇懃寄語賢侯道。碧落雲收月一痕。侯未深信。師復以偈別眾。是夜與華乞燥薪。疊高棚。仍借一龕坐去。華謂薪當從命。龕則無有。師指其牀曰。此亦足矣。翌晨登殿。與眾僧別。乃升柴棚。得火即烈燄熾然。於大火聚中祝香曰。靈苗不屬陰陽種。根本元從劫外來。不是休居親說破。如何移向火中栽。於烈熾中度數珠與華曰。聊當記憶。於是四眾始驚信拜禮。煙燄所至。多得舍利。且聞異香。薪盡火滅。不壞者二。舌根。齒牙。侯聞驚但不已。復為建塔於靈巖。別眾偈曰。前身元是石橋僧。故向人間供愛憎。憎愛盡時全體現。鐵蛇火裏嚼寒冰(保寧茂嗣)。

明州瑞雲清凉實庵松隱茂禪師

族鄭氏。奉化人。自幼喜習禪。趺坐輒達旦。年十八出家。奮志參方。謁古林茂於保寧。茂問來作什麼。師曰。生死事大。特求出離。茂曰。明知四大五蘊。是生死根本。何緣入此革囊。師擬對。茂便打。師豁然悟入。茂器之。逾年回浙中。月江印延師分座說法。一日有僧問答未竟。以手拍地而笑。師曰。滯貨。何煩拈出。僧噓一聲。師厲聲便喝。一住十五年。後退隱東堂○一日示微疾。集眾訣別。眾請偈。師舉手自指曰。此中廓然。何偈之為。端坐憑几。握右手為拳。枕頤而逝。火葬有天華之祥。舍利無數。塔於瑞雲西岡。世壽八十五(保寧茂嗣)。

溫州僊巖仲謀猷禪師

謝藏主侍者上堂。一默相酬。雷轟電激。三呼領旨。玉轉珠回。七十三。八十四。築著磕著。礙塞煞人。拈拄杖。昨夜西風枕簟秋。無數蟬聲噪高樹(保寧茂嗣)。

越州龍華會翁海禪師

台之臨海人。年十三。棄家投徑山虎巖祝髮。初詣旃檀林挂搭。或見其舉止山野。譏誚之。師發憤即往天目。參中峰求開示。於是寢食皆廢。久之無所入。時東州居虎丘。古林居開元。東嶼居寒山。師出入三老之門有年。後住龍華。法嗣古林。年九十三。住育王。守橫川祖塔。偶損左足。艱於步履。日牀坐。每至清夜。朗吟古人偈語。其徒文渙曰。和尚一生參學。至此不能受用。託吟詠自遣。師笑而言曰。不見大慧和尚。因病呻吟。左右曰。生平呵佛罵祖。今乃爾。大慧曰。癡子。呻吟便不是耶。渙便禮拜(保寧茂嗣已上五人)。

慶元育王大千慧照禪師

永嘉麻氏子。初謁晦機於淨慈。一日閱真淨語。頭陀石被莓苔裹。擲筆峰遭^薛荔纏。默識懸解。遂謁東嶼於薦巖。嶼問東奔西走。將欲何為。師曰。特來參禮。嶼曰。天無四壁。地絕八荒。汝向什麼處措足。師拍案而退。嶼復召至。返覆勘辨。遂留執侍。得法後出住樂清之明慶。嘗示眾曰。佛法欲得現前。莫存知解。參禪看教。皆為障礙。何如一法不立。而起居自在乎。德山棒。臨濟喝。亦有

大不得已爾○洪武六年。沐浴更衣。索紙書偈。恬然坐逝。茶毗牙齒目睛不壞。舍利五色。塔於夢庵之後(靈隱海嗣)。

杭州徑山悅堂顏禪師

出家於婺之寶林。得法東嶼。初住崑山之東禪。次遷萬壽。陞淨慈。後主徑山。上堂。世尊不說說。迦葉不聞聞。今日人天眾前。山僧舉揚箇事。汝等聞麼。若是聞。山僧畢竟不曾說。若是說。汝等畢竟不曾聞。各自參取。毋勞耳目。璽書錫金襴法衣(靈隱海嗣)。

明州育王雪窗悟光禪師

姓楊氏。蜀人也。虞文靖公集。嘗問道至山中。師曰。老僧這裏。無道可談。若欲求道。須自往參取。公退而歎曰。佛果一枝。師其鳳毛麟角乎○宋文憲公濂。敘師四會語錄行世(靈隱海嗣)。

杭州徑山月林鏡禪師

本郡人。因參本來人有省。述偈曰。本來人。本來人。無腦無頭作麼尋。驀然揪著箇鼻孔。試勘元來是白丁。時有老宿睨視曰。可是。師與一擲。由是名振叢林(靈隱海嗣)。

建寧斗峰大圭正璋禪師

福州福清人。參東嶼海。聞海頌俱胝豎指話。言下頓悟。遂上方丈。呈所得。海曰。作麼。師曰。古今現成事。何必涉思惟。海曰。既不涉思惟。汝來者裏作麼。師曰。請和尚證明。海曰。證明箇什麼。師便喝。海俾頌狗子無佛性話。師遽曰。狗子佛性無。覷者眼睛枯。瞥爾翻身轉。唵悉哩蘇嚧。海撫而印之○臨終偈曰。生本不生。滅亦無滅。幻化去來。何用分別。大眾珍重。不在言說。合掌而逝(靈隱海嗣)。

榴塘明因天淵湛禪師

得法於東嶼。嘗依鳳山一源。分座說法。一日呈秉拂語曰。翔鳳山前。行看白雲。乍舒乍捲。禹泉亭畔。坐聽流水。或抑或揚。眼處作耳處佛事。耳處作眼處佛事。便見非唯觀世音。我亦從中證。鳳山指便見兩字曰。有此二字。便是別人說話。師不覺解顏點首。禮

謝而退。出語人曰。還丹一粒。點鐵成金。堂頭老漢之謂也(靈隱海嗣已上六人)。

三空道人

自幼具丈夫志。不為富貴所奪。見竺雲曇禪師。示趙州無字話。閱數年。一日復見曇。問曰。生死到來時如何。曇曰。生是誰耶。死是誰耶。空乃低頭問訊。曇覺其異於常時。再以前話徵之。空又低頭問訊。曇呵之曰。切忌死在者裏。空拈起榼子曰。數珠一百八。不數日示微疾。說偈而化(天寧曇嗣)。

金陵天界孚中懷信禪師

奉化人。姓姜氏。年十五出家。參天童坦和尚。一日室中舉興化打克賓因緣。師曰。俊哉獅子兒。坦頷之。俾掌維那。後出世補陀。詔賜廣慧妙悟智寶弘教禪師○至正間。住天童。御史臺奉疏命主大龍翔集慶寺。及明兵下金陵。僧徒竄散。師宴坐一室。高皇帝親幸嘉之。勅龍翔為大天界寺。一日晨興。沐浴更衣趺坐。謂左右曰。吾歸去矣。遂瞑目。侍僧撼之。請說偈。師瞋目叱之。復哀請。遂握筆書曰。平生為人列挈。七十八年漏洩。今朝撒手便行。萬里晴空片雪。書畢復瞑。時帝統兵江陰。夢師謁見。問師來作為。對曰。將西歸告別耳。帝還。聞師遷化。與夢符異。詔出內府帛幣助喪。且命卜藏龕之地於伏牛。舉龕之日。帝親致奠。送出都門。茶毗舍利如菽。貯以寶瓶。光發瓶外(天童坦嗣)。

天童舜田明牧禪師

台之黃巖人。聞天童竺西坦公道望。往見之。坦問達磨不來東土。二祖不往西天。意旨如何。師曰。金不博金。水不洗水。坦異之。謂左右曰。此法門爪牙也(天童坦嗣已上二人)。

金陵蔣山曇芳忠禪師

南康人。寺菑。翌日梁王登山。謂師曰。興復若何。師曰。賴有大檀越在。王曰。寺既燬矣。佛依何住。師曰。古佛過去。今佛再來。王大喜。復笑而言曰。衲子所謂蔣薄粥者何也。師曰。將謂殿下忘却了也(玉山珍嗣)。

寧波育王月江正印禪師

郡之慈水劉氏子。年十三。體月溪受業。後參虎巖伏。機緣相契。蒙印可。赴育王。上堂。挖犁拽耙幾經年。鼻孔撩天不受穿。業債依然逃不得。又吹鐵笛過鄞川○臘八上堂。我觀大地眾生。具有如來智慧德相。但以妄想執著而不能證得。釋迦老子與麼道。大似螻蛄虫。向蚊子眼睫上作窠。向十字街頭揚聲大叫道。土曠人稀。相逢者少。簡點將來。也是噇酒糟漢○結夏小參。瑯琊點出五病。西院商量兩錯。井蛙不足以語東海。夏虫不可以語冰霜。若是搯空俊鶻。便合乘時止灤。困魚徒勞激浪。是故從上若佛若祖。天下老和尚。莫不向刀山劍樹上。鑊湯爐炭中。成等正覺。拔濟有情。若約山僧看來。也是秤錘蘸酢。喝一喝。下座○至正間。奉旨金山建水陸大會。命師陞座說法。特降御香綵緞。晚年庵居。榜曰松月。自號松月翁(徑山伏嗣)。

杭州徑山南楚悅禪師

隆興人。上堂。聞聲悟道。見色明心。驀拈拄杖。者箇是色。卓一下。者箇是聲。諸人總見總聞。且道那箇是明底心。那箇是悟底道。喝一喝。貪他一粒米。失却半年糧○師將寂。上疏辭世。如期坐逝。勅諡佛慈法喜禪師(徑山伏嗣已上二人)。

杭州徑山月江宗淨禪師

蘭谿倪氏子。誦楞嚴至如標月指。豁然有省。參雙林正庵闇。闇問黃檗打臨濟。你作麼生會。師曰。按羊頭喫草。後出住徑山。臨示寂。書偈曰。祖師門下客。開口論無生。老我百不會。日午打三更。泊然而逝(雙林闇嗣)。

金陵保寧敏機覺慧禪師

吳興人。看無字話。得法西白金公。出世嘉禾之祥符。復分座於天界。尋主保寧。與宋濂友善。著彌勒頌曰。彌勒真彌勒。人人苦不識。倒轉布袋來。有無一時悉(西白金嗣)。

杭州淨慈佛鑑簡庵希古師頤禪師

嘉禾李氏子。參時庵敷和尚。敷問那裏來。師曰。江西。敷曰。曾見馬大師頂相否。師曰。千年桃核裏。覓甚舊時仁。敷頷之。後因狗子無佛性話有疑。請益。敷曰。待冷泉逆流。即向汝道。忽一日有省。詣方丈曰。冷泉逆流也。敷曰。見什麼來。師曰。千峰勢倒嶽邊止。萬派聲歸海上消。敷喝曰。脫空謾語漢。三十年後落節去在。師拂袖便出。永樂中。徵修大典。師應詔。事竣。勅主淨慈。宣德王子。忽語眾曰。吾行矣。命浴更衣。書偈曰。須彌一拳。大海一口。海竭山崩。鳥飛兔走。危坐而寂(時庵敷嗣)。

金陵靈谷定巖淨戒禪師

吳興人。參覺原於天界。原舉桶箍爆因緣問之。師擬議。原厲聲曰。早遲八刻了也。師言下大悟○洪武初。詔住靈谷。示眾。舉長慶道。總似今日老胡有望。保福道。總似今日老胡絕望。師頌曰。平展機籌不用誇。抑揚元屬當行家。曹溪波浪如相似。那得兒孫若稻麻。有續刻聯珠頌古。行於叢林(天界曇嗣)。

明州天童佛朗湛然自性禪師

雲陽韓氏子。出家禮慧海為師。一日海問父母未生前。那箇是你本來面目。自此懷疑。蘊襟七年。時與草庵一幻生福友善。切磨激發。往謁天界全室泐和尚。師曰。某昔年曾問一師友。祖意教意。是同是別。他道秋樹飄黃葉。寒天掘地爐。今日請和尚決斷。室曰。病翁年來腕無力。拄杖牀頭且靠壁。師曰。有人不肯。和尚與麼道。泐拈拄杖打曰。待他露柱眼自開。鐵蒺藜槌當面擲。師便禮拜。後出住里之普光。復被旨遷天童。上堂。去年今日居楞伽山。彼四眾喜此處少一人。今年此日居佛國山。此四眾喜彼處少一人。擊拂子。一身為無量身。無量身為一身。行則普天普地行。坐則一切坐。說甚麼東西南北。他方此界。檢點將來。猶在化城。且道寶所一句。作麼生。便下座○上堂。貪瞋癡。戒定慧。戒定慧。貪瞋癡。無明解脫知見。解脫知見無明。一切眾生諸佛諸佛一切眾生。月落山無影。風來樹有聲。大千無對待。露柱鬧縱橫。喝一喝。下座(天界泐嗣)。

杭州靈隱無文本褰禪師

四明定海人。姓謝氏。一日示微疾。蒙室範堂洪候問。值師氣喘。洪曰。趙州道諸人被十二時辰使。老僧使得十二時辰。和尚作麼

生。師竦身曰。喚甚麼作十二時辰。洪曰。爭柰氣急乎。師震聲一喝。問左右今朝是幾。曰。二月二十七日。乃索筆書偈曰。吾年七十有五。涅槃生死不墮。虛空背上翻身。靠倒飛來小朵。擲筆泊然而化(淨慈德嗣)。

衢州烏石傑峰世愚禪師

郡之西安余氏子。謁古崖石門斷崖中峰諸大老。佩受法訓。棲止南屏。三年不踰戶限。時止巖成和尚。倡道大慈。師復往謁。成舉南泉不是心。不是佛。不是物。是甚麼。師茫然。於是仍返南屏。一夕聞鄰僧誦證道歌。至不除妄想不求真。豁然如釋重負。乃曰。佛法元在目前。人自遠之耳。即述偈曰。時時覲面不相逢。喫盡孃生氣力窮。夜半忽然忘月指。虛空迸出日輪紅。走謁成。入方丈。成纔見便喝曰。何處見神見鬼來。師曰。今日捉了賊也。成曰。賊在何處。師便喝。成曰。開口合口。都不是。向上道將一句來。師曰。徧界明明不覆藏。成拈竹篋。師便掀倒禪牀。成曰。敢來者裏捋虎鬚。連打三下。即命為侍者○後出世里之烏石。遷廣德石谿。開堂日。僧問遠離烏石嶺。來赴石谿山。開示人天路。如何透祖關。師曰。龍生金鳳子。衝破碧瑠璃。曰與麼則覲面不相識。千里可同風。師曰。重疊關山路。曰達磨西來。不立文字。直指人心。見性成佛。既然不立文字。何得流傳至今。師曰。官不容鍼。私通車馬。曰直指人心。指那箇心。師曰。開口不在舌頭上。曰見性成佛。性在甚麼處。師曰。太湖三萬六千頃。夜夜波心月色明。曰記得傳大士道。空手把鋤頭。步行騎水牛。人從橋上過。橋流水不流。此意如何。師曰。切忌當面蹉過。曰與麼則有意氣時添意氣。不風流處也風流。師曰。毫釐有差。天地懸隔。曰此事且止。記得經中道。大富長者。即是如來。為復是累劫中來。為復是今生契證。師曰。澗深華落遠。山高樹影長。曰今日直心居士。捐貲營建石谿道場。請和尚居住。是同耶。是別耶。師曰。師子吼時芳草綠。象王行處百花紅。曰既然如是。得何果報。師曰。生生歸佛地。世世樂人天○洪武三年十二月。示微疾。書偈曰。生本不生。滅本不滅。撒手便行。一天明月。擲筆而逝(止巖成嗣)。

杭州淨慈逆川智順禪師

溫之瑞安陳氏子。入閩參天寶鐵關樞和尚。究參踰月。因如廁覩園中匏瓜觸發。頓覺大地平沈。見樞求證。樞曰。此纔入門耳。向上一著。則千里萬里。又踰半載。一日忽勵聲告樞曰。南泉敗闕。今

已見矣。樞曰。不是心。不是佛。不是物。是甚麼。師曰。地上輒鋪。屋上瓦覆。樞曰。南泉即今在甚麼處。師曰。鷄子過新羅。樞曰。錯。師亦曰。錯。樞曰。錯錯。師禮拜而退。樞趨寂。師繼領院事。未幾棄去。朝廷賜金襴袈裟。號佛性圓辨禪師○洪武初。詔徵有道高僧十人。於鍾山建會。師應詔。命陞座說法。上幸臨。慰勞備至。南還陞主淨慈。六年復召入京。俄示微疾。沐浴說偈坐逝(天寶樞嗣)。

五臺壁峰寶金禪師

世稱金壁峰。乾州永壽人。族姓石。六歲出家薙染。後徧歷講肆。忽歎曰。三藏之學。皆標月指耳。遂更衣謁如海真公於縉雲。晝夜精勤。偶攜筐擷蔬。忽凝坐不動。歷三時方寤。真曰。入定耶。師曰。然。真曰。何所見。師曰。有所悟。真曰。悟處如何。師舉筐示之。真曰。不是。師置筐於地。拱手而立。真又曰。不是。師便喝。真攔胸擒住曰。道道。師捏拳便築。真曰。未在。此塵勞暫息耳。必使心路絕。祖關透。然後大法可明。師由是脅不霑席者三年。一日聞伐木聲。汗下如雨。乃曰。古人道大悟一十八徧。小悟無數。豈欺我哉。未生前事。今日方知。亟見真求證。真不諾。師掀倒禪牀而出。翌日復見真。真於地上畫一圓相。師以袖拂去。真復畫一圓相。師於圓相中畫一畫。又拂去。真再畫一圓相師於圓相中畫十字又拂去真復畫如前。師於十字隅。作卍字。又拂去。真總畫三十圓相。師一一具答。真大笑曰。參學悟者。世豈無之。能明大機用。寧復幾人。遂授記莚。命往朔方。道當大行。先是師於定中。見一山秀麗。重樓傑閣。金碧絢爛。諸菩薩行道其中。有招師者曰。此祕魔巖也。爾修道其中。何遽忘之。後師遊臺山。道逢蓬首女子。身被五彩弊衣。赤足徐行。一黑獒隨後。師問何之。答曰。入山。師曰。入山何為。答曰。一切不為。言訖而沒。叩同行者。皆不見。或為文殊化身云。師因就山建靈鷲庵。以待方來。僧俗聞風。千里趨赴。常至萬指○至正間。召入內廷。值大雪夜。有紅光自師室中直透霄漢。上驚歎。賜金襴伽黎。明年禱雨輒應。來賜寂照圓明大禪師號。詔住海印寺○洪武初。詔師至京。住大天界寺。問法稱旨。御翰賜詩。寵賚優渥○壬子六月。沐浴更衣。集眾言別。弟子請偈。師曰。三藏十二部。尚為故紙。吾言何為端坐而逝。茶毗舍利成五色。齒舌不壞(縉雲真嗣)。

曹洞宗

中都順天報恩萬松行秀禪師

姓蔡氏。古河內之解人也。年十有五。懇求出家。父母不能奪其志。禮邢臺淨土贊公為師。後受具戒。挑囊抵燕。歷潭柘。過慶壽。次謁萬壽。參勝默光禪師。教看長沙轉自己。歸山河大地話。半載全無入由。光曰。我願你遲會。師一日有省。復看玄沙未徹語。請益雪巖滿於磁之大明。纔廿七日。不覺伎倆已盡。滿曰。你但行裏坐裏。心念未起時。猛提起覷見即便見。不見且却拈放一邊。恁麼做工夫。休歇也不礙參學。參學也不礙休歇。遂留記室○潭柘亨和尚過大明。師夜扣其門。告侍者燒香請益。亨便放相見。師問如何是活句。如何是死句。亨曰。書記若會。死句也是活句。若不會。活句也是死句。師自此參究益力。一日見雞飛。乃大悟曰。今日不惟捉敗沙老虎。亦乃捉敗岑大虫也。走見滿。滿可之。乃付衣偈。自是兩河三晉。皆欽師名。構萬松庵以自適。耆宿敦請開法。師應之。次住中都萬壽○金章宗皇帝詔入禁庭陞座。帝躬自迎禮。聞法感悟。賜錦綺大僧伽衣。承安丁巳。詔往大都仰山棲隱寺。次移錫報恩洪濟○元太宗二年庚寅。復奉勅主中都之萬壽。晚年退居從容庵。數遷巨剎。大振洞上安風。上堂。蓮宮特作梵宮修。聖鏡還須聖駕遊。雨過水澄禽汎子。霞明山靜錦蒙頭。成湯也展恢天網。呂望稀垂釣月鉤。試問風光甚時節。黃金世界桂花秋○小參。昔有跨驢人。問眾僧何往。僧曰。道場去。人曰。何處不是道場。僧以拳毆之。曰這漢沒道理。向道場裏跨驢不下。其人無語。師曰。人人盡道這漢有頭無尾。能做不能當。殊不知却是這僧前言不副後語。汝既知舉足下足。皆是道場。何不悟騎驢跨馬。無非佛事。萬松要斷這不平公案。更與花判曰。喫拳沒興漢。茆廣杜禪和。早是不剋己。那堪錯怪他。道場惟有一。佛法本無多。留與闍黎道。戶掩薩哩嚩○閏四月旦日上堂。所謂道人者。不知月之大小。不知歲之餘閏。梵僧即不然。今年三百八十四日。前月大盡。此月小盡。即今閏四月一日。辰末巳初。忽有箇出來道。通疏伶俐。知時按節。要且無道人氣息。梵僧以手掩鼻道。退後退後。為什麼響。道人氣息。太殺熏人○問洞山道。龍吟枯木。異響難聞。如何是異響。曰不會。師曰。善解龍吟。瞎○全真問某甲三十年來。打疊妄心不下。乞師方便。師曰。汝妄心有來多少時也。未審本來有妄心否。祇如妄心作麼生斷。只者妄心斷即是。不斷即是。真聞廓然。作禮而去○問諸佛不出世。為甚麼却向王宮生。師答曰。青山常舉足。問亦無有涅槃。為甚麼却向雙林滅。師答曰。白日不移輪○問撒手那邊底人。為甚麼不居正位。師答曰。大功不宰。問回頭這畔底人。為甚麼不墮偏方。師答曰。至化無為(白巖符

云芳花叢裏不措一足萬年牀上嬾去安眠獨許萬松箇漢盡大地人無敢論量雖然你若作正偏回互會墮拔舌犁耕地獄有日在)○問明與無明。其性無二。如何是無二之性。師答曰。天曉不露○問向道莫去歸來背父。如何得不背父去。師答曰。切忌回頭○問心心放下難。如何是放下底人。師答曰。擔取去○問是處是慈氏。無門無善財。為甚麼道瑠璃殿上無知識。師答曰。折殿了相見○晚住報恩。退居從容庵。示眾。機輪轉處。智眼猶迷。寶鏡開時。纖塵不度。開拳不落地。應物善知時。兩刃相逢時。如何回互(愚庵孟云偏身綺羅者不是養蠶人)○示眾。去即留住。住即遣去。不去不住。渠無國土。何處逢渠。在在處處。且道是甚麼物。得恁麼奇特(愚庵孟云秤錘醯醋)○示眾。動則埋身千丈。不動則當處生苗。直須兩頭撒開。中間放下。更買草鞋行脚始得(愚庵孟云曾經三峽猿啼處不是愁人也斷腸)○示眾。踢翻滄海。大地塵飛。喝散白雲。虛空粉碎。嚴行正令。猶是半提。大用全彰。如何施設(愚庵孟云瑠璃殿上無知識)○示眾。向上一機。鶴冲霄漢。當陽一路。鶴過新羅。直饒眼似流星。未免口如匾擔。且道是何宗旨(愚庵孟云閉眼食蝸牛一場酸澁苦○龍唐柱云措大漢子隨人語脈裏去不識轉身一路待云祇考箇更別有便縮却指頭不惟與俱抵相見亦乃使天下人摸索不著○崇先奇云報恩老人雖別音響怎奈欠一著在者僧善解龍吟只是不知時節仔細看來也是別寶遇著瞎波斯)○師於孔老莊周百家之學。無不俱通。三閱藏教。恒業華嚴。得法者一百二十人。束髮奉拜。執弟子禮者。不可勝紀。編祖燈錄六十二卷。又撰淨土。仰山。洪濟。萬壽。從容。請益等錄。及文集偈頌。釋氏新聞。鳴道集。辨宗說。心經風鳴。禪悅法喜集。並行於世。丙師於四月五日示疾。七日書偈曰。八十一年。只此一語。珍重諸人。切莫錯舉。侍者驚報大眾。足甫及門。已圓寂矣。壽八十一。茶毗於通玄門外。舍利無數。諸方門人。各分建塔(雪巖滿嗣)。

竹林巨川海禪師

頌風鈴曰。銅唇鐵舌太尖新。樓角懸來不記春。言外百千三昧法。因風說與箇中人。陳秀玉學士。嘗問萬松。彌勒菩薩。為甚麼不修禪定。不斷煩惱。萬松道。真心本靜。故不修禪定。妄想本空。故不斷煩惱。士復問香山大潤和尚。潤曰。禪心已定。不須更修。斷盡煩惱。不須更斷。復問師。師曰。本無禪定煩惱。士曰。惟此為快耳(雪巖滿嗣已上二人)。

續指月錄卷七

六祖下二十四世

臨濟宗

婺州烏傷伏龍無明千巖元長禪師

蕭山人。族姓董。年十九。薙髮受具。會行丞相府飯僧。師隨眾入。中峰本和尚適在座。遙見師呼而問曰。汝日用若何。師曰。念佛。本曰。佛今何在。師擬議。本厲聲叱之。師作禮求示法要。本以狗子無佛性話授之。縛茅靈隱。脅不沾席者三年。一日聞雀聲有省。亟往見本。具陳悟由。本復叱之。師憤然歸。中夜忽鼠翻食貓器。墮地作聲。恍然開悟。即往質本。本曰。趙州何故云無。師曰。鼠餐貓食。本曰。未也。師曰。飯器破矣。本曰。破後如何。師曰。築碎方壁。本乃微笑。囑曰。善自護持。時節若至。其理自彰。師受囑。隱天龍之東庵。諸山爭相勸請。師逸至烏傷之伏龍山。卓錫巖際。誓曰。山有水。吾將止焉。俄山泉溢出。作白乳色。師遂依大樹以居。初山有禪寺。名聖壽。荒廢已久。當師入山。鄉民咸獲夢異。遂相率披蒙茸以訪。見師晏坐不動。各獻飲食。共營起建。尋因舊號。成大伽藍。朝廷三遣重臣降香。錫號佛慧圓鑒普濟大禪師。并錫金襴法衣○上堂。僧問如何是第一句。師曰。有口如啞。曰如何是第二句。師曰。有眼如盲。曰如何是第三句。師曰。棒折也未放你在。乃擲下拂子曰。此是老僧第二句。如何是第一句。便下座○上堂。僧問如何是奪人不奪境。師曰。日照山河影動搖。曰如何是奪境不奪人。師曰。背水陣圓增勇健。曰如何是人境俱奪。師曰。任是鋒刃常坦坦。假饒毒藥也閒閒。曰如何是人境俱不奪。師曰。野老不知堯舜力。鼕鼕打鼓祭江神。僧禮拜。師曰。有麝自然香。何用當風立○示眾。舉德山拓鉢因緣。拈曰。末後句子。德山巖頭雪峰。總跳不出。乃喝一喝。大丈夫當為真王。何以假為○示眾。良久曰。大眾會麼。會則事同一家。不會則萬別千差。臨濟和尚道。我在黃檗喫六十痛棒。如蒿枝拂相似。如今更思量一頓喫。不知誰為下手。時有僧出曰。某甲下手。濟度杖與僧。僧擬接。濟便打。看他的的顯示者些子。無你諸人近傍處。豈常情之所能測。老僧尋常痛口罵你。痛棒打你。你不作無明會。便作佛法會。又何曾夢見我先祖門風。所以古人云。臨濟之道。將墜於地。痛哉。正與麼時。合作麼生。超羣須是英靈漢。敵勝還他師子兒○示眾。今年臘月二十五。雲門一曲曾無譜。爭似無

明調轉高。等閒唱出千山舞。大地為琴。虛空為鼓。拍拍相隨。聲聲相助。汝諸人須聽取。白雪陽春何足數。箇中端的孰知音寥寥永夜松風度○示眾。舉瑯琊覺禪師曰。有句無句。如藤倚樹。樹倒藤枯。好一堆爛柴。大慧和尚拈曰。作賊人心虛。雖然如是。恩大難酬。師曰。一人作佛法商量。一人作世諦流布。簡點將來。總欠悟在。無明見處。也要諸人共知有句無句。如藤倚樹枝。樹倒藤枯響○示眾。舉文殊普賢起佛見法見。還免得貶向二鐵圍山麼。世尊也是憐兒不覺醜○示眾。江月照。松風吹。面面青山展笑眉。經有經師。論有論師。莫怪老僧無法說。勞汝諸人立片時○示眾。舉調達謗佛。生身陷入地獄。佛令阿難傳旨。汝在獄中安否。達曰。我雖在獄中。如受三禪天樂。阿難曰。汝還求出否。達曰。我待世尊來便出。阿難曰。世尊是三界大師。豈有人地獄分。達曰。我豈有出地獄分。師曰。臨危不悚。真大丈夫○日本國請法衣上堂。舉石門聰曰。西天二十八祖。盡得傳衣付法。東土六祖之後。得道者多。只傳其法。不傳其衣。無明則不然。衣以表法。故謂之法衣。人能弘道。故謂之法身。無處不徧。無處不明。故謂之法眼。高峰老祖。法衣一頂。今春對眾。請與高麗國金剛山供養去也。幻住先師法衣一頂。我得來三十年矣。如今大拙首座。又要請歸供養。雖然如是。從上諸祖。各各有三十棒分。無明亦有三十棒分。眾中莫有下得者般毒手者麼。有則出來下手看。如無。他時後日。不得向背地裏叫苦叫屈。擊拂子下座○僧參。師問甚處來。僧曰。浙西。師曰。此間無飯喫。來作什麼。僧曰。求和尚佛法。師喚僧近前。乃打一拳云。會麼。僧云。不會。師曰。呆子拳頭也不識(石車乘拈曰若是箇伶俐衲僧撥著便知來處既然不會累千巖老漢更打一拳我當時若見擬議連棒趁去何故不入虎穴爭得虎子○法音[沆-凡+桀]曰青山孤月近趺坐意如何要會拳頭旨千山盡懣懣)○學士宋景濂謁次。師問。聞公閱盡一大藏教。有諸。士曰。然。師曰。公耳閱乎。目觀也。士曰。亦目觀爾。師曰。使目之能觀者。公為誰耶。士揚眉向之。師於是相視一笑(山茨際頌曰林下尋師叩板扉揚眉相向頗依稀作家手眼天然別笑殺全韜殺活機)○至正丁酉六月十四日。示微疾。沐浴更衣。集眾說偈曰。平生饒舌。今日敗闕。一句轟天。正法眼滅。投筆而逝。弟子用陶龕奉全身瘞於青松庵(中峰本嗣)。

蘇州師子林天如惟則禪師

吉安廬陵人。族譚氏。受業禾山。得法中峰。僧問佛佛授手。祖祖相傳。畢竟傳箇甚麼。師曰。脚未跨門。與你三十棒了也○僧問如來一音說法。眾生隨類各解。未審和尚如何為人。師曰。蝦蟆[跳-

兆+孛]跳上天。蚯蚓騫過東海。曰恁麼則超佛越祖去也。師曰。你向那裏見得。曰今古應無墜。分明在目前。師曰。杜撰禪和○華嚴會僧問。無邊剎境。自他不隔於毫端。既有自他。如何不隔。師曰。懷州牛喫禾。益州馬腹脹。曰十世古今。始終不離於當念。既有始終。如何不離。師曰。天下覓醫人。灸猪左膊上。曰此會翻宣教典。毋勞說禪。且望和尚直譚教文。師曰。山僧無兩箇舌頭。曰一真法界。十種玄門。還有自他終始也無。師喝曰。那得許多骨董來。曰既無許多骨董。畢竟華嚴所說何義。師曰。說華嚴。曰離却法界玄門。華嚴經在甚處。師曰。在你諸人手裏。曰與麼則信。受奉行去也。師曰。贈你三文買草鞋○問德山小參不答話。問話者三十棒。意作麼生。師曰。我者裏不行。有問即答。曰無法可說。是名說法。又作麼生。師拈棒。僧便走。師曰。作賊人心虛○問禪門一派。分為五宗。其間還有優劣也無。師曰。五五二十五。曰臨濟一宗。兒孫徧地。他有何長處。師曰。細魚咬斷鷗鷺脚。白鷺鷥飛上樹梢。曰涅槃心易曉。差別智難明。五宗異同。請師開示。師曰。退身三步○師不住山。居恒隨機開導。行省平章。咸稽顙執弟子禮。屢起江浙諸名山。堅却不赴。遁跡吳淞間。弟子就吳中搆地結屋。名師子林○至正十四年。帝師錫以佛心普濟文慧大辯禪師號。兼賜金襴法衣。示寂後。塔於水西源(中峰本嗣)。

日本建長古先印原禪師

國之相州人。姓藤氏。藤為日本貴族。師生有異徵。年十三。父母頓捨出家。剃染受具。慨然航海南詢。初謁無見於天台。見指往天目。參本和尚。本命給侍。師屢呈見解。本呵之曰。根塵不斷。如纏縛何。師退而悲泣。食寢俱廢。本憐其誠。因語之曰。此心包羅萬象。迷則生死。悟則涅槃。生死之迷。固是未易驅斥。涅槃之悟。猶是入眼金塵。當知般若如大火聚。近之則焦首爛額。惟存不退轉一念。生與同生。死與同死。自然與道相符。脫使未悟之際。千釋迦。萬慈氏。傾出四大海水。入汝耳根。總是虛妄塵勞。皆非究竟。師聞不覺悚然汗下。一日有省。趨告本。曰印原撞入銀山鐵壁去也。本曰。既入銀山鐵壁。來此何為。師釋然領解。本因囑曰。善自護持○一日示疾。謂侍者曰。時至矣。可持觚翰來。乃曰吾塔已成。未書額耳。大書心印二字。端坐而逝。初門人欲畫師像。預索讚語。師作一圓相。題其上曰。妙相圓明。如如不動。觸處相逢。是何面孔(中峰本嗣已上三人)。

建寧仰山古梅正友禪師

貴溪丁氏子。參絕學誠。發明宗旨。流寓江淮。垂三十年。思得佳山水結茅歸隱。慕武夷幽勝。遂入閩。建陽簿蔣德懋。泊長者陳益宗。捨園作庵。迎師開山。勅額大覺妙智。室中每舉狗子無佛性話。鉗錘勘驗。不少假借○結制上堂。仰山結制。尋常活計。眼裏放光。鼻孔斟(他口切)氣。遇飢而餐。遇困即睡。諸方撒土揚沙。仰山心空及第○上堂。九旬禁足。又過一半。心地未明。如牽火鑽。光陰莫虛度。了却閑公案。平地無端捉得賊。老僧出來為汝斷○解夏上堂。九旬禁足。特地成錯。三月安居。無繩自縛。布袋解開。乾坤寥廓。放去若龜毛。收來懸兔角。試將兩眼挂虛空。一陣涼風生殿角○小參。日落山頭慘。雲橫谷口陰。欲明生死事。直見本來人。還有會得本來人底麼。良久曰。夜靜不勞重借月。玉蟾常挂太虛中(般若誠嗣)。

杭州淨慈德隱普仁禪師

婺之蘭谿趙氏子。十四祝髮。二十參方。時了然義禪師。弘大辨之道於智者寺。師往叩。機鋒觸發。遂受記莚○洪武初。高帝親帥六師至婺州。幸智者寺。詔師主之。後遷淨慈○一日示微疾。屈指計曰。今夏五月矣。左右曰。然。師曰。八月八日最良。吾將逝矣。至期。整衣端坐而逝(智者義嗣)。

杭州止庵德祥禪師

本郡人。與同庵俱為平山嗣。德業風雅。為時賢所重。一日將涅槃。眾請說偈。師忽倚座曰。者一隊噉酒糟漢。我爭如你何。竟趨寂(淨慈林嗣)。

金陵天界同庵易道夷簡禪師

主南屏淨慈。福緣日甚。勅主天界。進院日上堂。毗盧遮那佛。願力周沙界。一切國土中。恒轉無上輪。者無上輪。如何轉去。卓拄杖云。轉也。轉也。遂下座(淨慈林嗣已上二人)。

湖州弁山白蓮南極懶雲智安禪師

嘉興沈氏子。示眾。萬法歸一。無孔鐵鎚當面擲。一歸何處。抹過西天并此土。青州布衫重七斤。寒巖古木瑤華春。仁者勤慙問端

的。孃生鼻孔從來直。倘然言下解知歸。九九方明八十一(海門則嗣)。

處州福林白雲智度禪師

郡之麗水人。族吳氏。聞無見覩和尚說法華頂。往叩之曰。西來密意。未審何如。覩曰。待娑羅峰點頭。却與你道。師擬進語。覩便喝。師曰。娑羅峰頂。白浪滔天。花開芒種後。葉落立秋前。覩曰。我這裏無殘羹餽飯。師曰。此非殘羹餽飯而何。覩領之。遂服勤數載。辭去日覩囑曰。昔南嶽受太鑑記莂。後得馬祖授以心法。針芥相契。不在多言。勿掉三寸舌誑人。須真正見解。著於行履。方為報佛深恩耳○洪武己酉。詔徵天下高僧。建法會於蔣山。師應詔後。還至杭。杭人奉居虎跑。秋趨華頂。明年春示微疾。仍回福林。沐浴更衣。索筆書偈曰。無世可辭。有眾可別。太虛空中。何必釘櫬。擲筆而逝。闍維舍利五色。齒牙數珠皆不壞。建塔瘞於院西(華頂睹嗣)。

明州天童元明原良禪師

寧海周氏子。掃洞宗宏智禪師塔曰。嗚呼。山不讓塵。故能成其高。海不讓流。故能成其深。師非宿備六度萬行之願輪。則曷由樹大法於古今(壽昌源嗣)。

杭州徑山杲庵敬中普莊禪師

台之仙居袁氏子。參了堂於天寧。堂問何來。師曰。天童。堂曰。冒雨衝寒。著甚死急。師曰。正為生死事急。堂曰。如何是生死事。師以坐具作撼勢。堂曰。敢來者裏捋虎鬚。參堂去。一日室中舉庭前柏樹子話。師擬開口。堂劈口便掌。從此悟入。初出世撫州北禪。後遷雲居徑山。洪武初。師應詔說法稱旨。後銜命祀廬山禮成○上堂。老僧開荒時。於法堂基上。掘得一箇鋤斧子。久聚兄弟。若有用得著者。兩手分付。若是荷負不去。老僧收得來。著甚死急。不如颺向攬[打-丁+(天/韭)]堆裏。從他日炙風吹去也。驀拈拄杖卓一下。鞭起鐵牛耕大地。誰能井底種林檎○冬至上堂。舉洞山冬夜與泰首座吃果子次。問曰。有一物明如日。黑如漆。常在動用中。動用中收不得。過在甚麼處。座曰。過在動用中。洞山令侍者掇退果桌。師曰。當斷不斷。反招其亂。若是徑山見他道過在甚麼處。便與掀翻果桌。亦使洞山知有宗門向上爪牙。今日兒孫不

致寂寥。雖然。也須腳踏實地始得。拈拄杖。不向藍田射石虎。何人知是李將軍。卓拄杖下座○浴佛日上堂。舉藥山因遵布衲作殿主浴佛次。乃問曰。汝只浴得者箇。還浴得那箇麼。遵曰。把將那箇來。山休去。師曰。藥山能縱不能奪。布衲能奪不能縱。總未具超宗眼在。黃龍南禪師曰。二尊宿一出一入。未見輸贏。三十年後不得錯舉。早是錯下名言。徑山見處。也要諸人共知。今日殿中普請浴佛。者箇那箇。不得動著。杓柄到手。更莫顛預。擊拂子。將此深心奉塵刹。是則名為報佛恩○僧問如何是雲居境。師曰。路轉溪迴空院靜。曰如何是鏡中人。師曰。太平時代自由身。曰人境已蒙師指示。願聞一句接初機。師曰。無毛鷄子貼天食○僧問路逢達道人。不將語默對時如何。師曰。達道者方知。曰和尚何得干戈相待。師曰。捉賊不如嚇賊。曰明眼人瞞他一點不得。師曰。情知你不是好心○師鑿草次。僧問者片田地。幾時剗得乾淨。師舉起鋤頭曰。未審上座喚作甚麼。僧無語。師拋下鋤頭曰。者片田地。幾時剗得乾淨○僧問騎虎頭。收虎尾。中間事作麼生。師曰。渠儂得自由。曰只如古人道。我也弄不出。意旨如何。師曰。入水見長人○示眾。夫為宗師者。不得已垂示一言半句。無非為學者抽釘拔楔。解粘去縛。譬如善舞太阿。自然不傷其手。近代據師位。訓學徒。記持文字。崇飾語言。誇耀後來。增長惡習。不知有自己出身之路。如衣壞絮。行棘林中。不能自由。少林直指之宗。於此墜地。良可痛傷。汝輩行脚。各須帶眼。莫教墮他網中。出頭不得。只如古人道。入此門來。莫存知解。若約山僧見處。直饒知解頓忘。猶是門外漢。到者裏須辨緇素始得。珍重○永樂元年十月二十三日。示寂於不動軒。闍維煙燄所至。舍利如貫珠。塔於凌霄之陽(天童一嗣)。

溫州江心覺初慧恩禪師

久依孚中信分座說法。凡見人參叩。便高聲示之曰。休去歇去有再問。則以棒趁出(天界信嗣)。

慈谿定水見心來復禪師

南昌豐城人。姓王氏。謁南楚於雙徑。久之乃得證入。命掌內記。無何避兵會稽。遂住慈谿定水○示眾。舉文殊維摩。各說不二法門。頌曰。妙喜文中問疾過。機先勘破老維摩。刹塵常說虛空聽。一默相酬早是多○文殊令善財採藥。頌曰。是。藥拈來會得麼。神方不必問耆婆。若言殺活全工巧。大地羣生病轉多○百丈侍馬祖遊

山。野鴨子飛過。頌曰。野鴨羣飛過去忙。馬師見處只尋常。直饒
扭得鼻頭破。也是喪車後藥囊○洪武元年。以高僧徵召至京。賜食
內庭慰勞優渥。適建鍾山大會。勅師陞座說法。復命蜀王椿從師問
道。師答蜀王問參禪法要曰。禪宗正脈。以心傳心。單提徑示。直
接上根。不涉言詮。不存知解。如擊石火。似閃電光。見即便見。
了即便了。得即永得。一聞千悟。獲大總持。用而無盡。體不可
窮。若乃展轉思量。取捨分別。悉屬邪禪邪道。非菩提智。生死到
來。總用不著。是則參須實參。悟須實悟良由自證。匪假他求。昔
閩王請羅山閑禪師開堂。閑陞座。方收斂僧伽黎。乃曰珍重。便下
座。閩王近前執閑手曰。靈山一會。何異今日。看他羅山作家。不
假言說。而閩王天鑒。自出常情。後來洞山聰曰。羅山忍俊不能
禁。大展家風吼一音。紙墨如山書莫盡。衲僧休向義中尋。此古人
直捷指示處。宗眼明白。與眾不同。貧僧恁麼忉怛。早是畫蛇添
足。冒瀆睿聰。然蒙賜問。不容緘默。冀國政之暇。少加垂覽○復
答晉王問禪要曰。殿下以菩薩應身。乘願再來。弘護佛法。善世利
生。於統理國務之暇。常切究竟佛祖一大事因緣。此實不忘本願故
也。但於日用放捨諸緣。休息萬念。念起即覺。常覺不昧。行住坐
臥。飲食起居。應事接物。看得力不得力。勿隨事物轉。涉他機
境。蓋世間萬事萬理。皆出於心。心若了時。無法不了。所以曰。
心生則種種法生。心滅則種種法滅。故知心無自性。緣起即空。不
用多工。最為省要。法華經曰。治世語言資生業等。皆與實相不相
違背。華嚴經曰。不壞世間相。而成出世間法。先德曰。一切善
惡。都莫思量。自然得入清淨心體。此乃佛祖直指示人處。若日用
工夫。目前事物。莫管他是善是惡。是逆是順。是淨是穢。譬如寶
鑑當臺。洞照妍醜。物來即應。物去不留。不要起一念分別揀擇
心。亦不要問他靜時鬧時苦時。樂時儘與盡力真實做去。若到無理
會處。却是好消息。便與一時放下。忽然知解兩忘。人法雙泯。即
是大休歇大自在大安樂時節也。昔有國王問波羅提尊者曰。何者是
佛。尊者曰。見性是佛。王曰。師見性否。尊者曰。我見佛性。王
曰。性在何所。尊者曰。性在作用。王曰。若當用時。幾處出現。
尊者曰。若出現時。當有其八。王曰。其八出現。當為我說。尊者
即曰。在胎曰身。處世名人。在眼曰見。在耳曰聞。在鼻嗅香。在
舌談論。在手執捉。在足運奔。徧現俱該沙界。收攝在一微塵。識
者知是佛性。不識喚作精魂。此便是究明白性底榜樣。殿下宿具般
若種智。必能照了。奚俟鄙言○師年七十餘。因坐胡黨被逮。臨刑
時怡然自適。所著有蒲庵集行世(徑山悅嗣)。

杭州淨慈休庵無旨可授禪師

台之臨海李氏子。參普覺於靈隱。問答之頃。疑情頓釋。住中竺將辭。淨慈諸勤舊爭迎。屢却不聽。強居二載。撾鼓告退○一日示疾。召左右曰。吾逝矣。左右進觚翰。師麾去曰。吾宗本無言說。泊然而寂。火浴齒牙貫珠不壞。設利光瑩。色如金晶。其徒斂諸不壞并遺骸。歸龍華塔而藏焉(靈隱明嗣)。

杭州普明立中成禪師

郡之錢塘人。姓孫氏。年十三。投慈光若山出家。首謁祖芳聯禪師。一日室中舉臘月火燒山話。師呈頌曰。白雲迷却舊行踪。臘月燒山火正紅。忽地慈風來扇發。冷冰冰處暖烘烘。聯器之。後於北郭建普明寺。以接方來○正統辛未。六月十三日。上堂說偈曰。今年八十一。老病隨緣且遣日。今年記著後年事。後年記著今年日。至癸酉。如期坐化。壽八十三。茶毗舍利無算。建塔於普明(祖芳聯嗣)。

杭州淨慈照庵宗靜禪師

郡之高氏子。自幼薙落本山。適祖芳聯領院事。師依之。久乃得旨。旋典藏鑰○永樂中應選。出主護國。尋遷雪竇。後淨慈虛席。舉師補之。朝廷頒賜大藏。師詣闕謝恩。止於彌陀寺。示微疾。謂左右曰。吾緣止矣。沐浴更衣。危坐而寂。塔於藕華之祖丘。有三會語錄(祖芳聯嗣已上二人)。

溫州瑞安護龍太初啟原禪師

日本國人。姓源氏。九歲入建長寺出家。十八請告南詢。歷三年。抵福州時。吳元之丙午二月進京。貢上表物。受齋襯畢。勅見季潭泐公。指令徧參。後謁烏石愚禪師。一日愚上堂曰。雪覆千山。因甚麼孤峰不白。師示眾曰。雷聲隱隱。雨點全無。峰曰。草庵上蓋琉璃瓦。石室中藏瑪瑙瓶。師曰。大蟲騎却南山虎。愚曰。虎生七子。阿那箇無尾巴。師曰。第七箇。愚曰。且放汝三十棒。由是許師入室○後結茅廬阜。復移石龍。出世廣度。遷羅陽三峰。再遷護龍。嘗垂三關語。舜若多神。因甚麼向平地上拖泥帶水。金翅鳥王劈海取龍吞。因甚麼被泥鯁吞却。三世諸佛說不得。因甚麼狸奴白牯念摩訶○一日集眾說偈曰。生也鐵面皮。死也鐵面皮。一擊百雜碎。白日繞圍。擲筆坐逝(烏石愚嗣)。

金陵靈谷非幻無涯永禪師

衡之西安人。年十二。投烏石傑峰愚和尚出家。愚問何處來。師應聲曰。虛空無向背。愚指鐘示師。師信口成頌曰。百鍊爐中滾出來。虛空元不惹塵埃。如今挂在人頭上。觸著洪音徧九垓。愚奇之。旋為祝髮。居下版。服勤積久。疑滯盡釋。得無礙辯。愚為印可○永樂間。擢為僧錄右闡教。勅住靈谷。會朝廷建大齋壇。禮官董事甚嚴。師若不經意者。左右怪問之。師曰。自家有一大事甚緊。無暇他及。沐浴更衣。趺坐書偈曰。生死悠悠絕世緣。蒙恩永樂太平年。者回撒手歸空去。雪霽雲消月正圓。投筆而逝。上聞。遣中官致祭。茶毗舍利徧布(烏石愚嗣已上二人)。

曹洞宗

西京萬壽雪庭福裕禪師

太原文水張氏子。師五齡解語。日了千言。九歲入學。一目十行。遭亂喪家。道逢老僧。令師出家。曰汝能誦得法華經。則一生事畢。師曰。佛法止此乎。莫更有向上消息否。老僧異之。遂偕謁休林古佛於仙巖曰。此子龍象種也。得奉巾瓶。他日必成大器。林欣納之。乃為祝髮受具。遂與雙溪廣公同參者七年。次參萬松秀禪師。一見便許入室。問子從何得箇消息。便恁麼來。師曰。老老大大。向學人納敗闕作麼。秀曰。老僧過在何處。師曰。學人且禮拜。暫為和尚蓋覆却。秀大喜。遂為印可(法音[沆-几+桀]曰且道蓋覆箇什麼咄千年田八百主)○從此親炙十年。值壬辰之變。祖剎荒蕪。朝命以師補之。尋承萬松海雲。重以尺牘相招。遂應朝命。世祖潛邸。命師作資戒會○憲宗詔詣帳殿。奏對稱旨。俾總領釋教○世祖即祚。因論辨偽經。馳驛以聞。火其書。賜光宗正法之號。命師故里剏建精舍。曰報恩。給田若物以飯眾。時萬壽祖席乏人。眾請師主之。師姿穎悟。三閱藏教而成誦。透掖後學無勑色。通羣書。善翰墨吟咏。其上堂普說。幾十萬言。播在叢林。門人請梓之。師聞而叱之曰。此吾一時游戲所發。安可以形跡為哉。既老勑於接納。歸棲嵩陽○僧問如何是西來意。師曰。待乳峰點頭。即向汝道(龍唐柱云有問如何是西來意即向他道直待乳峰點頭亦不向汝道)○問如何是向上尊貴一路。師曰。漁歌驚起沙汀鷺。飛出蘆花不見踪(三宜孟公一字入公門九牛拔不出)○問九年面壁時如何。師曰。官不容針。曰一花五葉時如何。曰私通車馬。曰恁麼新豐一曲。因師唱出也。師曰。誰買黃

金鑄子期○至元乙亥秋。示微疾。書偈告終。塔於寺之西隅(報恩秀嗣)。

燕京報恩林泉從倫禪師

參萬松見阿那律。得聞天眼因緣。忽有省曰。設使五眼俱瞎。又能開我向上眼矣。因舉似萬松秀。秀問如何是向上眼。師曰。瞎秀曰。真箇瞎。師復曰。瞎瞎。秀領之。初住萬壽。上堂。禪禪。非正非偏。無意路。有玄淵。超今返古。絕後光先。但能忘影迹。何必守蹄筌。直指人心見性。須憑祖意通玄。九年面壁真消息。端的其中有祕傳○元世祖至元九年。詔入內殿。從容問辨。薄暮將退。帝曰。在先有問。皆言無說。今何却有說耶。師曰。理本無說。今且約事而言。帝曰。何故理無言說。師曰。理與神會。如人食蜜。中邊皆甜。若問蜜之色相。紫白可言。若論味之形容。實難訴說○示眾。北斗似杓。南斗似瓢。任伊斟酌。暖日涼飈。冬至寒食一百五。須知氣節不相饒。到此莫有解吞吐者麼○僧問法眼道。我二十年只作境會。既不作境會。合作麼生會。師曰。猿抱子歸青嶂後。鳥啼花落碧巖前○示眾。若論此事。如丹鳳冲霄。不留其跡。良由性空寥廓。慧日精明。照五蘊之皆空。使萬緣之俱泯。直得星攢碧落。月浸丹墀。翡翠簾垂。燭香人靜。當此之際。那容喘息。寧許窺窬。密室不通風。玄門難措足。雖然如是。一點靈明通宇宙。那拘西竺與曹溪○示眾。妙用縱橫。智體不動。子雖依倚。父全不知。撒乾蓋而本自無心。踞坤輿而端然有力。此亦寂而不動。感而遂通之朕兆也。於此半遮半露。似晦似明。葦竹猗猗。有裴君子。孰能於是了別心佛之根莖枝葉者耶。雖倚蒲危坐。虛室生白。心月孤圓。秋天獨迴。猶須轉身不居一色。直得雁迴北塞。聲噎南樓。木女初聞。石人遙聽。祇知日午是三更。那信天明方半夜。何也。月滿猶虧半。烏沈始是圓○示眾。黃河九曲。誰能直下承當。白浪千尋。孰解其間薦得。透與不透。儘自瀾翻。將心用心。休教蹉過。直須知有雲外立千峰。不可言無巖前分萬壑。靈松帶露。怪柏欺霜。傲四時而莫可彫零。超萬象而敢為主宰。憑何道理。便乃如斯。天得一清。地得一寧。衲僧得一。鼻直眼橫。怕汝不信。試摸索看○示眾。語忌十成。正雖正而不應居正。機貴回互。偏雖偏而莫滯於偏。所以道澄源湛水。尚棹孤舟。古佛道場。猶乘車子。爭肯教伊向死水裏作活計。到此地面。活潑潑。轉輾輾。方有少分相應。雖則水澄月滿。一念萬年。正是道人可愁慮處。何也。有德非為德。無功始是功。直得妙盡無依。功成不處。萬類千般。莫能收管。有時橫身劫外。有時垂手塵中。正去偏來。

無非兼帶。這邊那畔。不滯有無。祇此建化玄門。便是抄直要路。若也於斯灑灑落落。了了明明。不枉不向響山中。善通音耗。未萌枝上。能辨春秋。咦。還達此意麼。若解無中能唱出。方知元不住宮商○至元辛巳。十月二十日。奉旨就大都憫忠寺。焚燒道藏偽經。除道德經外。盡行燒燬。命師下火。師陞座。以火炬打一圓相曰。諸仁者。祇如三洞靈文。還能證此火光三昧也無。若也於斯會得。家有北斗經。人口保安寧。其或未然。從此灰飛煙滅盡。任伊到處覓天尊。急著眼看(報恩秀嗣)。

吾捨從寬禪師

臨終。問其次兄曰。佛祖父母。我今一箭射殺。二哥以為何如。隨整襟坐脫(報恩秀嗣)。

上都華嚴全一至溫禪師

邢州郝氏子。幼聰慧異常兒。六歲祝髮。參萬松秀和尚。秀命為侍者。凡秀偈頌法語。一聞輒了。遂得法焉。常以侍者代應對。機鋒不可犯。太保文貞公劉秉忠。薦師有經世才。世祖召見。與語大悅。留內庭三載。多有贊益。將授以官。堅辭還山。錫號曰。佛國普安大禪師○至元丁卯五月示疾。右脇而逝。異香三日。荼毗舍利無數(報恩秀嗣)。

丞相耶律楚材居士

遼人也。別號湛然居士。因金滅遼。公歸金。改稱移剌。時京師禪伯甚多。公獨重聖安澄和尚。常訪以祖道。屢舉古尊宿語錄中所得叩之。澄間有許可。公自以為得。及遭憂患。求道愈亟。遂再以前所得訪澄。澄為大翻前案。不然所見。公甚惑焉。問其故。澄從容謂公曰。昔公居要地。又儒者多不諦信佛書。惟搜摘語錄。以資譚柄。故予不敢苦加鉗錘耳。今揣公心。果為本分事。子豈得不為苦口。然予老矣。有萬松老人者。宗說精通。宗門大匠。公能見之。自當了公大事。公唯唯。往謁萬松。甚有契合。杜絕人跡。苦心力究者三年。乃獲印證。先是元世祖將西征。有司奏五臺等處僧徒。有能呪術武略。及有膂力者。為部兵扈從西征。公言於上曰。釋氏之高行者。必守不殺戒。奉慈忍行。故有危身不證鵝珠。守死不拔生草者。法王法令。拳拳奉行。雖死不犯。用之從兵。豈其宜哉。

其不循法律者。必無志行。在彼既違佛旨。在此豈忠王事。故皆不可以從王師也。帝從之(報恩秀嗣)。

屏山李純甫居士

初恃文譽。好排釋老。偶遇萬松秀和尚於邢臺。一言之下。遂獲契證。乃盡翻內典。徧究禪宗。注金剛楞嚴等經。序輔教原教等論。嘗著少室面壁庵記略曰。達磨大師西來。孤唱教外別傳之旨。豈吾佛教外。復有所傳乎。特不泥於名相耳。真傳教者。非別傳也。自師之至。其子孫徧天下。漸於義學沙門。以及學士大夫。潛符密契。不可勝數。其著而成書者。清涼得之以疏華嚴。圭峰得之以鈔圓覺。無盡得之以解法華。穎濱得之以釋老子。吉甫得之以論周易。伊川兄弟得之以訓詩書。東萊得之以議左氏。無垢得之以說語孟。使聖人之道。不墮於寂滅。不死於虛無。不縛於形器。相為表裏。如符券然。雖狂夫愚婦。可以立悟於便旋顧盼之間。如分餘燈。以燭冥室。顧不快哉。士著述甚多。開發後學。大有功於宗乘。臨終無疾。趺坐合掌面西而逝(報恩秀嗣已上六人)。

順德天寧弘明虛照禪師

遼州申氏子。參仙巖。因默坐聞磬聲。豁然有省。乃振錫燕之歸義。值太保劉文正公向道有契。付囑畢。乃沐浴更衣。索筆書偈云。四大無常。名為幻身擺手便行。入無生滅。汝當善自珍重。趺坐而逝。荼毗得舍利百顆。劉文正公入奏。塔舍利於天寧。嗣法門人子顏子淇等。二十有八人。皆堅苦特立之士。洞上一宗。斯為盛焉(仙巖德嗣)。

續指月錄卷八

六祖下二十五世

臨濟宗

蘇州鄧尉萬峰時蔚禪師

溫州樂清金氏子。襁褓中見僧輒微笑合掌。年十三。從演慶昇法師受業。便知向上宗乘。至杭受具戒。參虎跑止岩。示不是心不是佛不是物話。遂往明州達蓬山。佛趾寺側卓庵。晝夜力參。一日聞寺主舉瀉山踢倒淨瓶公案。驀地觸發。說偈曰。顛顛倒倒老南泉。累我工夫却半年。當下若還親薦得。如何不進劈胸拳。聞伏龍千巖長禪師直造丈室。長曰。將甚麼來與老僧相見。師豎起拳曰。者裏與和尚相見。長曰。死了燒了。向何處安身立命。師曰。漚生漚滅水還在。風息波平月印潭。長曰。莫要請益受戒麼。師掩耳而出。明日普請砍松次。師拈圓石作獻珠狀曰。請和尚酬價。長曰。不值半文錢。師曰。瞎長曰。我也瞎。你也瞎。師曰。瞎瞎。即呈偈曰。龍宮女子將珠獻。價值三千與大千。却被旁觀人決破。誰知不值半文錢。長謂左右曰。蔚山主頗有衲僧氣息。遂命居第一座○一日長陞座。舉無風荷葉動。決定有魚行。師出眾震聲一喝。拂袖便出。遂卓庵於蘭溪之嵩山。凡九載。長嘗寄偈曰。鬱鬱黃華滿目秋。白雲端坐碧峰頭。無賓主句輕拈出。一喝千江水逆流。三為手書招之。愛重彌至。旋付以法衣頂相○上堂。僧問如何是嵩山境。師曰。四面好山擎日月。一湖秋水浸青天。曰如何是境中人。師曰。三仙描不就。終不與君傳。問如何是目前事。師曰。眉毛眼上橫。曰。莫是他安身立命處也無。師曰。錯認定盤星(石車乘拈曰此僧乘虛接響但見錐頭利不見鑿頭方)○開堂拈香畢。乃曰。千聖難明不了因。遞代相傳古到今。今日嵩山重舉似。鐵樹華開別是春。向無影樹下打眠。宏開飯店於虛空背上經行。大闡宗乘。塵塵剎剎全彰。物物頭頭合徹。斷送衲子命根。不作奇特商量。不作玄妙解會。直得淨名杜口。共贊昇平。巖頭密啟。咸宣至化。正與麼時。祝聖報恩一句。作麼生道。一片定光輝宇宙。直教萬國奉君恩○上堂。舒兩手曰。大開方便門。便從者裏入。復握拳曰。閉却牢關。說家裏話。且道不開不閉一句。又作麼生。良久。斂僧伽黎下座○上堂。三世諸佛如是說。歷代祖師如是說。天下老和尚如是說。嵩山亦如是說。若有不如是說者。與他三十棒。若有如是說者。亦與他三十棒。何故。卓拄杖。嵩山門下。令不虛行○上堂。月頭是初一。光

明漸漸出。月尾是三十。光明何處覓。假饒老釋迦。也道拈不出。拈道出。萬事畢。有人道得。出來道看。如無嵩山與諸人露箇消息。我見燈明佛。本光瑞如此○解制上堂云。一葉落。天下秋。一塵起。大地收。解開布袋口。衲僧得自由。脚頭脚底風雲起。撒土揚沙輥入流。逼塞虛空無影像。啼鶯元在柳梢頭。畢竟作麼生取用。喝○示眾。舉古德云。溪聲便是廣長舌。山色無非淨法身。堪笑古人猶在聲色裏作活計。要見清淨法身太遠在。既不在聲色裏。畢竟在甚麼處。會麼。良久云。須知更在青山外○中夏示眾云。達磨的的西來。直指人心。見性成佛。且道性作麼生。一喝。於此直下死團百雜碎。便見青青翠竹顯真如。柳綠花紅明皎潔。風生虎嘯石龍吟。燕語鶯啼為汝決。衲僧家。活潑潑。滿懷撒出夜明珠。獻寶波斯難辨別。放倒和衣打覺眠。一任天崩與地裂。其或未然。參○示眾。大凡參禪做工夫者。不得安然靜坐。忘形死心。澄空守寂。昏沈散亂。須是抖擻精神。猛著精彩。急下手脚。剔起眉毛。咬定牙關。提起話頭。立地要知。分曉不得。今日也恁麼。明日也恁麼。便就萬法歸一。一歸何處上。大起疑情。疑箇一歸何處。即將此一則公案。盡平生氣力。提在手中。如一柄鐵掃帚相似。佛來也掃。魔來也掃。邪來也掃。正來也掃。是也掃。非也掃。有也掃。無也掃。掃來掃去。掃到無下手處。無著力處。正好著力。無掃蕩處。正好掃蕩。忽然掃破虛空。突出一箇荅帚柄來。因。元來却在這裏。在這裏。依前即是箇張上座。一翻翻轉山河大地。明暗色空。盡是自家珍寶。草木砂礫。盡是自己法身。到這裏說甚麼一歸何處。只這一柄鐵掃帚。亦乃和身放下。坐斷常寂光。超出無生界。喚作無為無事人也。若是打不徹。透不過。切莫怱怱草草道。我會禪會道。不用參疑。我問你臘月三十日到來。從前會得底道禪。用得著麼。所以參須實參。悟須實悟。不可弄虛頭。認光影。不求正悟。須向遮裏將本參公案。三百六十骨節。八萬四千毫竅。併作一箇疑團。頓在眉毛眼睫上。看定通身是箇萬法歸一。一歸何處。行也如是參。坐也如是參。靜也如是參。動也如是參。參來參去。通身是箇話頭。物我俱忘。心識路絕。澄澄湛湛。寂靜無為。驀然疑團子。爆地一聲。直得須彌粉碎。大地平沈。迸出一輪杲日。照耀山川。遮藏不得。那時却來嵩山門下喫痛棒○警策云。大凡參學做工夫者。先將平日所知所見。人我利名。盡情掃却。然後將本參話頭。頓在目前。行住坐臥時也參。著衣喫飯時也參。屙屎送尿時也參。靜閒閒忙時也參。喜怒哀樂時也參。但於十二時中。心心無間。念念相續。不忘這箇話頭。須是大起疑情。大疑即大悟。不疑即不悟。悟即悟自本心。明即明白本性。古人云。佛見法見。是二種鐵圍山。若有所見。盡成其障。所以證道歌云。心是

根。法是塵。兩種猶如鏡上痕。痕垢盡除光始現。心法雙忘性即真。此事不論根性利鈍。只要信得及。行得切。時節到來。忽然觸著磕著。洞明大事。祖師云。我本求心不求佛。法界元來無一物。佛者覺也。如何是覺。因。呵呵。方知此語。實無妄也。且道笑箇什麼。經云。心生大歡喜。自知當作佛。然雖如是。須經大善知識。爐煅煉將來。方可續佛慧命。謹參謹參。西來直指正單傳。自念參疑意廓然。今古上乘無別法。盡皆心悟未生前○後遊姑蘇鄧尉。喜其山水盤結。遂駐錫焉。未幾四眾咸集。成大伽藍。名曰聖恩○洪武十四年辛酉。正月二十九日。忽集眾曰。老僧時節至矣。即說偈曰。七十九年。一味杜田。懸崖撒手。杲日當天。語畢。泊然而寂。門人奉全身瘞於山之西岡(千巖長嗣)。

杭州天龍水庵無用守貴禪師

婺之甄氏子。十八歲往投里之康侯山芟染。後游浙西。適千巖長禪師居龍華。師叩之。默有所契。復謁中峰本和尚。羣疑頓釋。旋退居嘉禾○一日忽索筆書偈曰。一蝸臭殼。內外穢惡。撒手便行。虛空振鐸。天龍一指令猶昨。擲筆而逝。築慈濟塔院於天龍西岡。師生平不畜長物。寒暑一衲。律身甚嚴。嘗墮一齒。弟子輩藏之函櫃中。生舍利五色(千巖長嗣)。

華亭松隱唯庵德然禪師

里之張氏子。祝髮受具。徧叩諸方。未有所契。後於千巖會中。聞上堂語。豁然悟入。嘗參石屋珙。謂師曰。子緣當在華亭。因書松隱二字授之。師遵懸記。歸里築室於郭匯之陽。遂名松隱。足不踰閭者三載。嘗刺血書華嚴。有天華庭滿之異感。居民為建寶坊。泊千巖遷化。眾請師繼席○上堂。僧問遠離松水。來據龍峰。海眾臨筵。請師祝聖。師曰。萬年松在祝融峰。曰祝聖已蒙師指示。列祖家風事若何。師曰。冬到寒食一百五。曰莫便是和尚為人處也無。師曰。斧頭是鐵作。曰恁麼則龍門無宿客也。師曰。早已點額。曰若不登樓望。焉知滄海深。師曰。你道老。僧眉毛有幾莖。曰一堂風冷澹。千古意分明。師曰。蹉過不少。曰承師有言。向上一路。千聖不傳。還端的也無。師曰。那裏得者消息來。曰賣金須遇買金人。師便喝曰。金屑雖貴。落眼成瞋。又作麼生。師曰。好向繡湖湖上看。月明夜夜散金波。曰三十年後。此話大行。師曰杜撰禪和。如麻似粟。僧曰。大眾證明。學人禮拜。師乃曰。山僧數年。搓得一條龜毛索子。今日拈來。將三世諸佛。西天四七。東土二

三。天下老和尚鼻孔。一串穿却了也。且道山河大地。草木叢林。森羅萬象。有情無情。甚處得來。良久。莫將閒學解。埋沒祖師心。復舉三聖道。我逢人則不出。出則便為人。興化道我逢人則出。出則不為人。師曰。者兩箇老漢。同門出入。宿世冤家。一人向孤峰頂上。臥月眠雲。一人向十字街頭。揚塵簸土。點檢將來。二俱漏逗。各與三十拄杖。且道新龍峰與麼提持。是賞渠。是罰渠。驀拈拄杖卓一卓。天上有星皆拱北。人間無水不朝東○上堂。日可冷。月可熱。眾魔不能壞。真說有來由。無途轍。六月炎炎撒冰雪。文殊無處著渾身。普賢特地呈醜拙。是真說。非真說。若無閒事挂心頭。便是人間好時節。喝一喝。卓拄杖○謝藏主維那上堂。天無門。地無戶。俊快衲僧。一任來去。藏裏摩尼。照徹十方。洞裏桃花。千葩競吐。假劫外之春風。應今時之律呂。海神夜半看鮫珠。眼光挂在扶桑國。喝一喝○結制上堂。煖氣相接。正在斯時。深深冷灰裏。撥著星兒之火。向死柴頭上發機。燎起亘天烈焰。燒却舜若多神面皮。敢問諸人作麼生回避。擲拄杖下座○上堂。今朝是初一。龍象如稻麻。有事與無事。歸堂去喫茶○上堂。達磨西來。不立文字。直指人心。見性成佛。大眾作麼生。說箇見性成佛底道理。良久。幸是無瘡。勿傷之也○結制上堂。蠟人為驗。始於今日。九十日中。推功辨的。黃面老瞿曇。結住布袋頭。百萬人天。咸皆受屈。松隱結制。總不恁麼。以手作搖櫓勢曰。山僧即今駕無底鐵船。普請大眾。同入大圓覺海。遊戲去也。喝一喝。看取定南鍼○歲旦上堂。元正啟祚。萬物咸亨。驀拈拄杖曰。拄杖子。昨夜抽條。今朝吐蘂。華開五葉。香徧大千。且道還當得新年頭佛法也無。卓拄杖一下。喝一喝○臘八上堂。明星一見出山來。剛道娘生兩眼開。不是觸髅乾得淨。爭知春色上桃腮○上堂。德山棒。臨濟喝拈放一邊。諸人脚跟下。道將一句來。以拄杖畫一畫。毗婆尸佛早留心。直至如今不得妙○示眾。佛是眾生界中了事漢。眾生是佛界中不了事人。若欲決了此事。但向十二時中。四威儀內。折旋俯仰。與人酬應處。看是什麼道理。忽爾妄想滅。知見忘。究出自家一段光明。洞徹十虛。無絲毫隔礙。始知佛與眾生。本性平等。一身清淨。多身清淨。一世界清淨。多世界清淨。無一塵不是真如境界。無一剎不是解脫道場。所以永嘉大師曰。一月普現一切水。一切水月一月攝。諸佛法身入我性。我性同共如來合。斯言豈欺我哉○示醫士。話頭一則耆婆藥。大藏諸經和劑方。抹過二途開口笑。不勞鍼砭起膏肓○化燈油。劫初一點光明種。猛裂工夫拶出來。瀉入碧瑠璃裏去。三千諸佛笑顏開○坐禪銘。參禪的的非細事。貴在當人發真志。真志不發願不堅。決定茫茫墮生死。古德垂慈何太切。教人參禪要直截。話頭一則重千鈞。盡力提持須猛

裂。進前退後知幾回。恰似冰爐煉生鐵。冰爐爛鐵真箇難。竭盡精神豈容歇。驀然一撈火星飛。面門簷破通身熱。鉗鎚妙密始見。真手兮眼兮用處親。就中煉出吹毛利。干將鑢錐爭比倫。耿耿寒光耀空碧。在在處處興家國。外道天魔盡喪魂。鐵額銅頭俱失色。古今庫藏無此珍。天上人間何處覓。殷勤為報參玄人。趁此後生須努力(千巖長嗣)。

婺州清隱蘭室德馨禪師

義烏方氏子。年二十四。投伏龍祝髮。執侍數載。復力抵諸方。久之歸覲。會千巖遷化。乃結茅城西。榜曰清隱。後聖壽虐席。四眾請師主之。蘇平仲嘗過訪。師寒溫之外。不措一辭。蘇曰。千巖老師見客。口如懸河。娓娓不倦。師今默然。何也。師曰。道無隱顯。焉有默然。昔吾先師。未嘗不言。然而未嘗言。今吾未嘗言。然而未嘗不言也。蘇乃擊節稱賞○洪武壬子十一月十四日。示微疾。集眾訣別。端坐而逝。留龕七日。顏色如生。荼毗五色舍利無數(千巖長嗣)。

金華華山明叟昌庵主

本郡浦江人。縛茅於里之華山。往謁千巖。示以入道旨要。旋歸。晝夜孳孳不怠○洪武丙辰十月三日。忽辭眾。說偈曰。生本無生。滅亦無滅。撒手便行。虛空片月。語畢。端坐而逝(千巖長嗣已上五人)。

京口金山慈舟濟禪師

西竺作禮曰。某甲拏得賊來。請和尚決斷。師曰。賊在甚麼處。竺拍案一下。師往復徵詰。復曰。諸佛不說。列祖不傳。除却搖唇鼓舌。瞋目揚眉。還我到家一句來。竺默然。師曰。去聖時遙。尚有此子。善自護持(古梅友嗣)。

一峰寧禪師

西竺呈見解。師為勘驗。示偈曰。青山疊疊雨濛濛。師子金毛撥不通。我也自知時未至。十回放箭九回空(古梅友嗣已上二人)。

杭州正傳院祖庭空谷景隆禪師

姑蘇洞庭鼇山陳氏子。初見懶雲。開示法要。後於虎丘。禮石庵祝髮。會庵遷靈隱。師相隨七載。因往天目。禮高峰祖塔。憩錫歲餘。忽有省入。徑造懶雲安求證。安為助喜○後住碧巖。僧問如何是佛法的大意。師曰。此問最親切。曰覲露堂堂時如何。師曰。途路未為真。曰南人如問雪。我道是楊花。師曰。喚鐘作甕又爭得○晚年於西湖修吉山。卜地為生墳。築室以居。名曰正傳塔院○復自製塔銘。其略曰。嗚呼。死生一夢。骨塔奚為。蓋表佛法流芳。靈蹤不斷。即幻明真。以致佛祖命脈。源遠流長矣。幻身雖滅。佛性不遷。後之來者。見翠堵峻嶒。峰巒蒼翠。鳥鳴喬木。泉瀉幽岩。不馳外境。不執內心。盡忘愛惡。陶然泰和。始知法界為身。虛空為口。萬象為舌。晝夜說法。未嘗間歇。於此見得明。透得徹。如醉忽醒。廓然領悟。便見佛祖不曾涅槃。老僧不曾圓寂。大圓鏡中。覲面相見。西來祖意。兩手分付。如古師嗣雲門。青師嗣大陽。無前後。無去來。大千沙界。自他不隔於毫端。十世古今。始終不離於當念。懶雲和尚。是景隆受業師之受業師。景隆心法。受印可於懶雲。即南極安禪師也。得臨濟正傳二十世。上泝天真。則無極源。雪巖欽。前後嗣法。亦無定規。前嗣後者。阿難嗣迦葉。後嗣前者。興化嗣臨濟。理貫古今。詣實為主。銘曰。廓周法界。空蕩無涯。羣靈昇墜。恒無已時。佛祖垂應。為導為師。宿膺為幸。值師化儀。不善弘道。隨力所宜。卒於武林。骨窆山崖。翠堵奠安。山同壽期。以幻歸幻。有為無為。成住壞空。斯道坦夷○師所著有空谷集尚直尚理編行世(弁山安嗣)。

金陵天界古拙俊禪師

姑蘇之吳江人。祝髮受具。首謁石屋珙。次見三衢懶牧。得禪定工夫。復往叩古梅於高仰。禮拜起。即依實供通。打趁出。如是三度被打。遂結伴歸里。立限壁觀九年。每三年。撚一指。歷燃三指。一日忽然瞥地。乃往參福林。法戰相契。遂留首眾。時年二十八矣。眾推主席。師遁跡而去。留偈曰。半載相依唱祖機。幾番談道奉嚴威。出山便說歸時路。又是重添眼上眉。韜光巖壑。三十餘年。有平生最愛隈岩谷。三十年來懶送迎之句○洪武間。奉旨剃度千僧。至繁昌。眾請東廬山開堂。普說示眾。禪之一字。亦是強名。云何曰參。在信而已。擬議即乖。開口即錯。若是發心不真。志不猛利。者邊經冬。那邊過夏。今日進前。明日退後。久久摸索不著。便道佛法無靈驗。却向外邊記一肚。抄一部。如臭糟甕相似。是者般野狐精。直饒到彌勒下生。有甚交涉。真正道流。若要脫生死。須透祖師關。祖關透。生死脫。不是說了便休。要將從上

諸祖做箇樣子趙州老人。四十餘年不雜用心。為甚麼事。長慶稜公。坐破蒲團七箇。為甚麼事。香林老師。四十年方成一片。為甚麼事。乃至歷代真實履踐。剋苦用心。為甚麼事。山僧今日口喃喃地。引古驗今。為甚麼事。諸禪德。既有從上不惜身命。積功累德。妙悟親證的樣子。何不發大勇猛。起大精進。對三寶前。深發重願。若生死不明。祖關不透。誓不下山。如是發願之後。截斷千差路頭。不與萬法為侶。向長連牀上。七尺單前。高挂鉢囊。壁立千仞。寬立限期。急下手脚。盡此一生。做教徹去。若辦此心。決不相賺。我今為汝。保任此事。終不虛也○永樂丁亥。復奉旨延師於天界寺終老焉(福林度嗣)。

曹洞宗

西京少室靈隱文泰禪師

太原汾州陽城魏氏子。禮本鄉智禪師。薙染受業。精修僧事。服勤有年。辭師遊學。獨邁太行。經入東魯。初習教乘。於演三藏德律師法席。麤領大義。次扣禪關。廣參知識。始參濟下宗師。依雲峰恒和尚。參請累年。親蒙授記。仍付衣頌。次參曹洞宗師。後造太原深和尚丈室。復蒙印證。後詣燕京大萬壽寺。參雪庭和尚。庭問當機一句。試拈出看。師擬開口。庭曰。家產被人籍沒了也。還在這裏叫屈。師撫掌曰。誰柰我何。庭曰。這風顛漢。曰仁義道中。且與一拜。於是侍錫十載。受囑開堂少林祖剎(雪庭之門時稱二泰一肅師乃首推也)○上堂。塵劫來事。只在於今。河沙妙德。總在心源。試教伊覲面相呈。便不解當風拈出。且道過在甚麼處。卓拄杖曰。祇為分明極。翻令所得遲(愚庵孟云只如靈隱還拈得出麼若拈得出何不略借一觀若拈不出河沙妙德向何處去也隔牆恩怨如何說獨抱琵琶月下彈○龍唐柱云大小靈隱將奇珍異寶撒出當陽供養諸人了也拈拄杖云看看見之不取思之千里)○僧參。提坐具欲展拜。師曰。天網恢恢。疏而不漏。曰本欲禮拜。被和尚撐住。拜不下時如何。師曰。撐汝飯袋子到骨出。有甚麼用。曰也須將錯就錯。禮拜去也。師曰。當得甚麼碗。僧無語。師曰。有頭無尾漢○元世祖至元己丑正月。示微疾。謂門人曰。古人坐脫立化即不無。於衲僧分上。皆餘事也。言畢。遂掩息右脇而逝(少室裕嗣)。

太原報恩中林智泰禪師

汾陽魚城溫氏子。剃髮於華嚴。耑事經律。一日喟然歎曰。大丈夫當體究大事。焉能區區於此耶。時雪庭主萬壽。師往依數載。一日

論執事。以語觸庭。庭曰。有頭無尾東西。有甚交涉。師愈出語不遜。庭曰。不但無尾。師生平疑礙。一時冰釋。遂受囑累。溫研久之。乃奉詔宣任報恩○僧問如何是萬里無寸草處。師曰。不是闍黎踐履之境。如何是出門便是草。師曰。纔動即乖。曰如何是不出門。亦是草漫漫地。師曰。住著即錯。曰如何得不涉動靜去。師曰。徧界絕紅塵。通身無影像○一日示疾。集眾曰。吾緣止於此日。汝等善自護持。當惜寸陰。勿令虛度。聞者咸相感泣。乃書偈。怡然而逝(少室裕嗣)。

泰安靈巖足庵淨肅禪師

保定永平張氏子。究心二十餘年。參請知識十餘輩。皆不明了。最後依雪庭淘汰有年。付以衣偈○初主萬壽。次少室靈巖。後退席香山。上堂。白露橫江。黃花滿圃。砧聲敲夜月。蛩語泣秋風。蟬聯岸邊之樹。葉辭檻外之柯。色色現海印三昧。聲聲轉根本法輪。諸仁者。若能於斯會得。則如面對鏡。眉目分明。方可喚作半箇衲僧。猶有俗氣在。若能打破鏡來。便好與你相見。祇如相見後。又作麼生。更有三十棒。且待別時來○僧問胡來胡現。漢來漢現。胡漢不來時如何。師曰。桃花歲歲皆相似。人貌年年大不同。曰此意如何。師曰。不因你來問。山中太寂寥。且喫一頓了去。便打○一日集眾告辭。右脇而逝。中林泰禪師為之銘曰。撩天鼻孔。點地脚跟。心明眼正。行古顏溫。其事愈大。其志愈敦。諸方老宿。徧叩其門。受雪庭嗣。為萬松孫。機輪迅速。電掣雷奔。高標覺樹。密固靈根。慧燈朗耀。銷鑠羣昏。全機大用。搖蕩乾坤。掀翻渤澥。踢倒崑崙。三世諸佛。一口渾吞。二邊不滯。中道寧論。三居大剎。四眾咸尊。去來絕朕。動靜亡痕。虛空爛壞。斯道常存(少室裕嗣)。

和林北寺覺印禪師

上堂。良久曰。會麼。若道我有說。須無却我舌。若道我無說。須有却我舌。金剛推倒一堆泥。踏著秤鎚不是鐵。且道是有說無說。良久云。等閒失却手中橈。只為貪觀天上月○僧參。師問會見我雪庭老師麼。曰不曾見。師曰。瞎漢。亂走作麼。曰也知和尚有此一機。師曰。拾馬糞。當飯喫。有甚好腸胃。出去(少室裕嗣)。

成都昭覺仲慶禪師

上堂。良久云。喫鹽添得渴。便下座。僧攔問。喫鹽添得渴時如何。師曰。吠影狗子無屎喫(少室裕嗣)。

安平守讓禪師

示眾。殺人刀。活人劍。是上古風規。我者裏不費磨礱。用得恰好。且道此箇把柄。從何處得來。嵩山千丈雪。熊耳一輪月(少室裕嗣)。

弁州太子久善禪師

上堂。舉僧問大龍色身敗壞。如何是堅固法身。龍云。山花開似錦。澗水湛如藍。師云。大龍恁麼道。山僧則不然。若有箇色身敗壞。如何是堅固法身。向他道山花瞎人眼。澗水毒人耳。雀不戀幽巢。龍不藏死水(少室裕嗣)。

京兆華嚴覺印禪師

上堂。古人皆稱我是達磨兒孫。却道神光依位而立。是得髓。只這些子。便是做臭皮鞋底塵垢。也做不得。何故。迷逢者少。負恩者多(少室裕嗣)。

鞏昌廣嚴法興禪師

因同參印和尚過訪。師曰。許久不相見。眉毛作麼生。印曰。將謂老兄忘却。師曰。彼中快活法。還可舉似故人麼。印曰。愁人莫對愁人說。師曰。恁麼則同條不共命也。印曰。笑倒寒山子。師曰。謝老兄光重(少室裕嗣)。

順德妙乘禪師

垂語曰。石頭和尚。不識好惡。說甚明中有暗。洞山老漢。被他語脈轉。說甚五位正偏。牽得後世子孫。落在這等葛藤裏。擺脫不去。僧問和尚何不斬此葛藤。別開一路。師曰。幽州猶自可。最苦是新羅(少室裕嗣已上十人)。

燕京鞍山月泉同新禪師

從鞍山堅公剃落。能以苦行事眾。忽一日聰慧頓發。與同行人敘所得。眾雜笑之。師憤甚。以偈書壁而去。偈曰。氣宇衝霄大丈夫。尋常溝瀆豈能拘。手提三尺吹毛劍。直取驪龍頷下珠○師謁清安方公。方問欲窮千里。一步為初。如何是最初一步。師進前叉手立。方曰。爭柰脚跟不點地何。師拂袖便出。次參林泉倫公。遂承印記。尋受請靈巖。倫為引座。師一音纔唱。萬眾歡呼。能於言下得旨者甚眾○示寂說偈曰。來無所從。去亦無方。驀豎拳云。且道者箇。還有窒礙也無。放拳曰。撒手縱橫。雲天蒼蒼。瞑目而逝(林泉倫嗣)。

關中林禪師

僧問如何是正中偏。師曰。木人夜半打鞦韆。曰如何是偏中正。師曰。羣僚怕見秦臺鏡。曰如何是正中來。師曰。木童土偶笑哈哈。曰如何是兼中至。師曰。忿怒那吒擎八臂。曰如何是兼中到。師曰。拄杖風前還自靠(報恩秀下復庵照嗣後同)。

十方進禪師

僧問逢橋拆橋時如何。師曰。那討這般人。曰師意如何。師曰。從來好手不彰名(復庵照嗣)。

嵩山法王暉禪師

僧問如何是法王境。師曰。五乳峰前雪氣深。曰如何是法王人。師曰。嵩山頂上撩天鼻。曰人境交參時如何。師曰。看取令行時(復庵照嗣)。

泰安州靈巖復禪師

示眾。三十年後。大有人疑著。僧問如今便疑著時如何。師曰。平地無因得喫交(復庵照嗣)。

護國圓禪師

僧問國如何護。師曰。寰中天子勅。曰佛法何在。師曰。端坐受供養(復庵照嗣)。

崇孝普禪師

見山門因雷雨。乃呵呵大笑曰。痛快平生在此日。奴兒婢子共殷勤
(復庵照嗣)。

淨土里禪師

僧問如何是清淨佛土。師曰。莫作穢汙。曰如何是穢汙佛土。師曰。徒自分疏。曰師意如何。師曰。鐵樹花開不識春(復庵照嗣)。

汝州寶應海禪師

一日病起。僧問日面佛。月面佛。意旨如何。師曰。山益高兮水益深。進曰。覓起處不得時如何。師曰。良醫拱手處。法身別有源(復庵照嗣已上八人)。

順德天寧仲復子顏禪師

別號虛舟。寧津人。姓楊氏。禮天寧虛照禪師下髮。參悟得旨。名重廟廷。元世祖欲及之。師堅執不從。錫寶書開堂本寺○僧參。師退身便入曰。外面有賊。僧禮三拜。師復顧曰。作賊人心虛參堂去(天寧照嗣)。

太保劉秉忠居士

瑞州人。字仲晦。初名侃。法號子聰。年十七。為邢臺節度使府令史。以養其親。居常鬱鬱不樂。一日投筆歎曰。吾家累世衣冠。乃汨沒刀筆吏耶。既棄去。隱武安山。投天寧照禪師為僧。力參有省。俾掌書記。元世祖征雲南。渡江攻鄂。每贊以不殺為德。凡克城擒敵。全活無算。雖位極人臣。而猶齋居蔬食。不改舊服。一時通稱為聰書記○至元十一年八月。索筆書偈曰。吾不負世。世不負我。吾之於世。如水中月。如空中花。花沈月落。是箇甚麼。咄。擲筆趺坐而逝(天寧照嗣已上二人)。
續指月錄卷九

續指月錄卷十

六祖下二十六世

臨濟宗

蘇州鄧尉寶藏普持禪師

參萬峰蔚和尚。徹證大法。蔚付以偈曰。大愚肋下痛還拳。三要三玄絕正偏。臨濟窟中師子子。燈燈續燄古今傳○僧慧岳參。具述悟由。師斥之曰。佛法如大海相似。轉入轉深。那裏泊在者裏(石車乘拈曰寶藏禪師雖用惡辣鉗錘祇是臭氣深重若是金粟待他眉毛動定劈脊便棒直使赤灑灑地快活平生)○一日室中。慧岳侍立。師問心不是佛。智不是道。汝云何會。岳向前問訊。叉手而立。師呵曰。汝在此許多時。猶作者般見解。岳遂發憤力參。至第二夜。驀然徹證。詣呈方丈。師視而笑曰。然雖如是。也須善自護持。時節若至。其理自影。岳既受囑。師以偈送之住山。偈曰。見得分明不是禪。竿頭進步絕言詮。發揚祖道吾宗旨。更入山中二十年(萬峰蔚嗣)。

武昌九峰無念勝學禪師

隨州應山人。族姓陳。年九歲。從本郡寶林無極緣公出家。剃染後一字不識。執苦經年。又自覺大事未明。義學無益。往謁無聞示萬法歸一。一歸何處話。遂入嵩山住靜。苦心研究。一日有省。述偈曰。數載東山昏霧濛。凭欄終日待晴空。夜來忽起霜天月。萬象全彰一鏡中。由是奮志徧參。後抵姑蘇。見萬峰於鄧尉。頓於喝下領旨。蔚即付以偈曰。五派傳來臨濟宗。入門一喝露全鋒。老婆心切能容易。試看泥蛇化作龍○一日蔚舉牛過窗櫺公案令頌看。師曰。頭角崢嶸四足蹄。通身過隙月沈西。當機若解翻身去。哮吼一聲更不疑。蔚亦以偈證之○後回寶林。道風遐著。繼住九峰。洪武十五年。孝慈皇后賓天。楚王延聘諸山名衲。集於洪山。見師道容。驚異。特留邸館。深談法奧。請叩彌篤。遂建剎。延師居之○上堂。師問眾如何是達磨西來直指一句。眾無語。師代曰。五乳峰前談少室○洪武十七年。高皇帝欽師道範。召見便殿。賜坐。應對稱旨。禮遇優渥。欲留主京剎。師立辭。命中官送還九峰○二十九年。高皇帝親製懷僧無念詩文一軸。并緘松實松花。復命中官齎送山中。踰慰諄切。勅曰。前者僧無念。戒行精於皎月。定慧穩若巍山。暫來一見。此去常懷。懷之不已。茲特遣人就見。齎有松實松花之

供。兼以詩文勞之。師亦以偈進曰。萬機之下究真玄。百草頭邊佛祖禪。毛孔徧含塵刹土。毫端現出性中天。定回坐看雲橫谷。行樂閒觀石涌泉。林下衲僧何以報。祝延聖壽萬斯年中官回奏。上大悅。○永樂三年。三月二十九日。集眾說偈曰。世尊七十九。無念八十年。踏翻華藏海。依舊水連天。泊然而逝。奉全身塔於師子巖。諡清福廣慧禪師。遣官致帛。命詞臣撰塔銘(萬峰蔚嗣)。

果林首座

僧參次。師擲下蒲團。汝試道看。僧曰。只此消息。本無言說。破蒲團上。地迸天裂。師曰。且道裂箇甚麼。僧擬議。師便打(萬峰蔚嗣已上三人)。

建昌黃龍壽昌西竺本來禪師

撫州崇仁裴氏子。七歲出家。十三參一峰寧。切究己躬大事。一日頓覺身若虛空。心絕邊表。行住坐臥。不知是誰。忽聞人誦清淨經云。內觀其心。心無其心。豁然有省。作偈曰。幾年外走喪真魂。今日相逢迴不倫。身伴金毛石獅子。回頭吞却鐵崑崙。乃再參寧。寧垂語曰。僧堂有箇首座也。無道却說有道。師曰。如何說。寧曰。空手把鋤頭。云云。師曰。某甲却曉得。寧曰。如何是佛。師曰。空手把鋤頭。寧喝曰。此了事人話。你敢胡說。乃扭住曰。你祇今還悟得麼。師曰。天然之道。豈有悟乎。寧曰。且去。晚下普集。為汝決斷及晚眾集。寧厲聲曰。今老僧舉話如何。師曰。舉起甚分明。不與和尚道。寧喝曰。既分明。因甚不道。師曰。與和尚道了。寧乃痛打。師推倒寧。拂袖而去。次日復見。寧曰。老僧棒下。有一步工夫。你若分曉。佛祖也不柰你何。你好生諦當去。用心若不得此。從生至死。也祇恁麼。復示偈曰。青山疊疊雨濛濛。獅子金毛撥不通。我也自知時未至。十回放箭九回空。師遂往貴溪江東。卓庵以居。七年方得發明。時寧已示寂。乃往金山見慈舟濟。濟曰。聞你當初法嗣一峰。師曰。是喫他三十痛棒。文書久已到手。今日特來和尚處討箇印子。舟指瓶花。俾作頌曰。當機拶破乾坤骨。撒髓漫空瑩絕瑕。驚得淨瓶開口笑。常敷劫外四時花。濟曰。諸佛不說。諸祖不傳。除却搖唇鼓舌。瞬目揚眉。舉手動足。還我到家語來。師乃默然。濟曰。去聖時遙。賢聖隱伏。尚有此子。龍天為我大作證明。從此向去。真實操持。還他末後。得大受用。若是輕自暴殄。孤我付囑。龍天為我翦除。師拜起曰。謹遵嚴命。濟又曰。古人到這般田地。深入巖谷。保養聖胎。三十年不許

開口。直得嘴邊生白醜。人天推出。不得已說一言半句。扶持末運。師乃珍重而去○歸隱劍江壽聖。後寧王聞師道邁。遣使三請。師不赴。又呈偈問道。師答以進修之要○永樂四年。住新城壽昌。上堂。天日高明暑漸隆。榴花噴火耀庭中。衲僧眼裏真機露。無位真人覲面逢。直下知端的。擬議隔千重。要達已躬事。黃龍最上峰○上堂。花燦爛。日輪紅。心法昭彰觸處通。衲僧鼻孔尖頭下。浩氣騰騰宇宙中。眼空四海無家計。祇這拄杖子在手裏。要西便西。要東便東。卓拄杖下座○小參。了了了。一片長空光皎皎。休休休。雲自高飛水自流。豁眼通身無向背。十方沙界任遨遊○後杉關福田寺廢。請師重興。工將畢。一日焚香趺坐。索筆書偈曰。這箇老乞兒。教化何時了。顛顛倒倒任隨流。是聖是凡人不曉。咄。來來來。去去去。海湛澄空。風清月皎。擲筆而逝。門人奉全身於法堂。仍塔爪髮於壽昌西北之禪基嶺(金山濟嗣)。

東普無際明悟禪師

蜀之安岳通賢鎮莫氏子。年二十棄家。初未遇人。習坐禪入定工夫。後住樓山。訪清菩薩。清舉趙州無字話。師於當下有省。自此靠箇無字。如一座須彌山相似。行住坐臥。常在定中。一日坐次。忽然光明洞照。無一毫可得。占偈有虛空包不住。大地載不起之句。參古拙俊和尚。禮拜次。俊謂侍者曰。者僧有福德相。拈拄杖靠椅坐。命師供說行脚。師為直敘。俊曰。你且去。我不知你者樣工夫。一日復上方丈。俊震聲一喝。拈拄杖作打勢。師呈身就棒。俊曰。我棒頭有眼。不打者般死漢。拽拄杖便出。師拱立不動。俊復還坐。驀筇問曰。大地平沈。你在甚麼處。師曰。全露法王身。俊曰。萬法歸一。一歸何處。速道速道。師曰。不道。俊曰。因甚不道。師曰。亘古亘今。俊曰。亘古亘今。即且置。你在西川。什麼物。恁麼來。師不語。良久。俊曰。啞子得夢向誰說。一日俊為更號無際。師曰。恁麼則無際亦未在。天下老和尚盡向者裏成道。歷代祖師。盡向者裏成佛。即今有說佛說祖底出來。盡教遣出門去。不如某甲者裏齁齁打睡。俊笑曰。者漢此後不受人瞞去也○師嘗有走馬燈偈曰。團團馳走不停留。無箇明人指路頭。滅却心中些子火。刀鎗人馬一齊休○僧善堅參。自陳行脚工夫。做到理窮情盡。十方坐斷。凡聖不容。心同太玄。了無一法。即如來清淨覺地。是則和尚證明。不是求和尚開示。師云。那箇是如來清淨覺地。僧近前叉手云。某甲自性。師云。我難與你證明。僧云。我是。和尚道未是。和尚悞我。我未是。和尚道是。亦為和尚悞我。師云。何不別處去。僧云。天下有過我者。我不踏老和尚門戶。師

云。子實我到家徒弟。僧正目不顧。師云。許你許你。僧亦不顧。師云。我道許你。更疑什麼。子亦如是。吾亦如是。僧近前。大展三拜。師云。子將從前做工夫處。舉似一徧。供養大眾。僧乃供說如上做工夫。至見諦處。叉手默然。師云。子見諦如何與我不同。僧以兩手大展云。者箇非別。師云。者箇還著言句也無。僧云。實無一字。師云。只此無一字處。吾為汝證明已竟。子可深山茆蓬下。飢餐渴飲。任意逍遙。為子安號古庭。庭乃禮別。師云。子別到恁處去。庭云。佛祖行不到處。師云。還許人來否。庭云。坦然無礙。師云。從上古人。阿誰有超祖之智。庭云黃檗。師云。子見黃檗麼。庭云。縱是黃檗。也須擯出。師云。敢在我這裏說大話。庭云。正眼無私。師云。觀子之見智過於師。今付汝袈裟拂子。珍重珍重。庭掩耳而出(天界俊嗣)。

杭州虎跑性天如皎禪師

四明周氏子。七歲患腸癰。醫剝生蟾蜍以治。師見。惕然曰。物我皆命。柰何害之。奪而縱去。父母奇之。曰必佛種也。乃命出家。後謁古拙俊和尚。因推簾見月有省。乃曰。元來恁麼。翌旦趨見俊。便震聲一喝。俊曰。如貧得寶耶。師曰。寶既不得。得即非寶。俊曰。憑何如是。師趨前問訊。叉手而立。俊曰。還我向上一句來。師便掩耳而出。復呈偈曰。午夜推簾月一灣。輕輕踏破上頭關。不須向外從他覓。只麼怡怡展笑顏。俊為助喜○後住武林虎跑。臨終示眾曰。文章佛法空中色。名相身心柳上煙。惟有死生真大事。殷勤了辦莫遷延。大眾。且道如何了辦。良久曰。吾今無暇為君說。聽取松風澗水聲。語畢。怡然而逝(天界俊嗣已上二人)。

揚州素庵田居士

世為江都名族。以弟子員屢試不第。遂一意空宗。猛力參究。時何密庵太守。唱道東南。士為入室高弟。鉗錘久之。頓付心印。士乃手握竹篋。勘驗僧徒。四方來學。無不仰素庵為現在古佛。通國稱田大士而不名○示眾。近來篤志參禪者少。纔提箇話頭。便被昏散二魔纏縛。殊不知昏散與疑情。正相對治。信心重則疑情必重。疑情重則昏散自無○示眾。大海不宿死屍。虛空不著五色。火聚不藏蚊蚋。無住法中。不立迷悟。如今參禪的。將光影門頭。自相覆却。入地獄如箭射○示眾。舉張九成居士謁善權清禪師。問曰。此事人人本具。箇箇圓成。是否。清曰。然。士曰。因甚某甲無箇入處。清出袖中素珠示之。士俯仰無對。清復袖之曰。是汝底。拈取

去。纔涉思惟。即不是汝底。士悚然。一夕如側。究柏樹子話。忽聞蛙聲。即有契入。今日舉揚箇事。汝諸參學人。切莫作談玄說妙會。亦莫作思維卜度會。到那及時及節去處。是然因地去也。且道時節一句。又作麼道○僧參。問補陀路向什麼門出。士曰。上座。即今從什麼門入。僧曰。抑勒人作麼。士曰。看脚下。僧擡頭進前三步。士曰。錯。僧便退後三步。士曰。且道是你錯。是我錯。僧曰。未舉已前。早知錯了也。士曰。正好喫棒在。僧無語。士曰。若到諸方。分明舉似○僧誦經次。士問誦什麼經。僧云。法華。士云。法華經六萬字。那箇字有眼。僧罔措。士便打○僧入門便拜。士喝快走。僧再拜。士云。你討甚麼碗。僧喝。士便掌○士居城之田家巷。以宅為庵。四方參扣之士。日擁座下。一日與眾禪人茶話。忽然擲盞合掌。別眾而逝(何太守嗣○法嗣和庵忠四明堪頤庵真共三人皆各演化一方而真公法裔最盛燈傳五世代出偉人嘉隆以前臨濟有揚州田大士一宗盛行大江南北云)。

曹洞宗

西京少室寶應還源福遇禪師

霍州靈石王氏子。依邑之兜率菴落。徧遊講肆。雄辨如流。聞少室泰禪師道眼圓明。投依參究。泰曰。我舉拂子。你便向拂子上會。我纔良久。你便向良久處會。如何透得本分事。師面熱汗下。一日聞泰上堂。舉切忌從他覓。迢迢與我疏語。師穎悟。即承印可。密付衣頌○僧問如何是祖師西來的大意。師曰。風送泉聲來枕畔。月移花影到窗前。曰此猶是聲色門頭事。師咄曰。賣私鹽漢○問如何是誕生王子。師曰雖有尊貴分。不是尊貴人。曰如何是朝生王子。師曰。不同金榜貴。終是老朝臣。曰如何是末生王子。師曰。歷盡艱辛苦。方得覲堯天。曰如何是化生王子。師曰。與父無異體。權操閫外機。曰如何是內生王子。師曰。長在深宮內。咫尺面龍顏。曰向上一路。又且如何。師曰。沒弦琴有韻。人天那得聞○仁宗皇慶癸丑十月。師無疾而化。門人奉全身塔於少室祖塋(少室泰嗣)。

濟南靈巖秋江潔禪師

僧雪軒成參。師問何處來。成曰。青州來。師曰。帶得青州布衫來麼。成曰。呈似和尚了也。師曰。三十棒且待來時。成拂袖出。師曰。此子得證悟矣。俾參堂去○一日成遽造丈室。師望而喜曰。金

鎖玄關。打開了也。成曰。千年桃核裏。覓甚舊時仁。師囑曰。是汝本有之事。善自護持。他日能弘吾道者。必汝也(少室泰嗣已上二人)。

西京寶應月巖永達禪師

汾州劉氏子。祝髮於州之天寧。每以出生死為策勵。南詢參扣。聞靈巖肅和尚法雷遠震。乃往依侍。肅一見器重。親炙積久。遂入閭奧。乃曰。發語由師。行之在己。遂之泰安閉關。道俗堅請。不得已而起住寶應。上堂。鹿門老人道。盡大地是學人一卷經。盡乾坤是學人一隻眼。以如是眼。看如是經。千萬億劫。無有間斷。後萬松老直得計窮力盡。道箇看不易。諸人還看讀得麼。須知這一卷經。阿誰不具。這一隻眼。誰人不圓。要長則十萬億劫難盡。要短則一剎那頃便周。寶應今日不惜眉毛。為諸人拈出。乃彈指一下曰。看讀了也。諸人切莫錯過。良久。擊拂子曰。自是不歸歸便得。五湖煙景有誰爭乃擲拂子下座(足庵肅嗣)。

封龍古巖普就禪師

潯陽劉氏子。參靈巖肅和尚。肅以本分鉗錘。重加煅煉。付以大法。封龍堅請出世。師勉受焉○僧問如何是類墮。師曰。不是披毛帶角底。曰如何是隨墮。師曰。不是聞聲見色底。曰如何是尊貴墮。師曰。不是斷聲色底。曰恁麼則如何名墮。師曰鴈過長空。影沈寒水。曰古人道。三墮是了事人病。既是了事人。如何有病。師曰。祇為了事。曰此病何時得愈。師曰。直待無身。此病即除。因示頌曰。重重金鎖早敲開。三處悠然獨往來。鴈過長空無繫著。影沈寒水任渠猜○後歸隱靈棲。未幾示寂。大德六年。賜妙巖弘法大禪師之號。塔於封龍之陽(足庵肅嗣已上二人)。

續指月錄卷十

續指月錄卷十一

六祖下二十七世

臨濟宗

杭州東明盧白慧岳禪師

族王氏。祖貫湖廣。父為丹陽稅課副使。遂家焉。幼穎悟。不類常兒。年十四。往從妙覺湛然受業。一日作務次。然問汝在此作什麼。師曰。切蘿蔔。然曰。你只會切蘿蔔。師曰。也會殺人。然引頸。師曰。降將不斬。然異之。會然遷撫之疏山。師聞唯菴唱道松隱。將往叩其心印。至一小菴。自誓曰。我今若不徹證。決不復回。遂禪定六日。方出定。舉首睹松。豁然有省。自此晝夜危坐。端如鐵幢。故諸方號之為岳鐵脊。後抵姑蘇鄧尉。謁果林首座。座指令參寶藏持和尚。發憤咨參。寢食俱廢。一夕驀然徹證。述偈曰。一拳打破大虛空。百億須彌不露踪。借問箇中誰是主。扶桑涌出一輪紅。持笑曰。然雖如是。也須善自護持。時節若至。其理自彰。師受囑辭去。於天目之平山堂。結侶坐千日長期。期滿至昭慶受具。一日至安溪古道山。見峯巒秀拔。遂有終焉之志。一住三十載。影不出山。道風遠播。宿衲爭趨座下。拓基營繕。成大精藍。宣德乙卯。賜額東明禪寺。復命度僧。以奉香火。檀施委積。師復損餘貲。往修淨慈大殿。正統六年辛酉。六月二十七日。忽集眾敘謝訣別。眾請偈。師曰。一大藏教無人看著。爭用得者幾句閒言語。至二十九日辰時。跏趺而逝。荼毗舍利無數。塔於東塢(寶藏持嗣)。

建寧天界雪骨會中禪師

僧參次。師問從何處來。僧曰。逼塞虛空。都無來去。師曰。既無來去。阿誰掇皮袋到者裏。僧曰。內外俱空。皮袋何有。師曰。如何是祖師西來意。曰西來豈有意耶。師曰。臘月三十日到來。向何處安身立命。曰信脚踏翻。乾坤獨露。師乃示以偈曰。的是金毛親出窟。法輪掉轉入廬來。一聲驀地遙空吼。野犴聞之腦裂開(福田來嗣)。

金陵大岡月溪澄禪師

參東普無際悟和尚有省。悟臨寂有付法偈曰。我無法可付。汝無心可受。無付無受心。何人不成就○師繼席東普。有僧本善。向師求證。師曰。佛法不是鮮魚怕爛却那。日惟東敲西擊。暗垂勘驗而已。善一日侍師園中坐次。師曰。你向來看甚麼話頭。善曰。無字。師曰。如何是無字。善曰。如今看來。恰似口金剛王寶劍。師曰。如何是金剛王寶劍。善曰。寒光燄燄。耀古騰今。師曰。還我劍來。善曰。擬動則犯他鋒鋌。師曰。橫按當軒時如何。善曰。佛來也殺。祖來也殺。師曰。老僧來擡。善曰。亦不相饒。師曰。殺後如何。善曰。且喜天下太平。師曰。畢竟如何是無字意。善曰。賊賊分明。師曰。賊即且置。還我賊來。善曰。六六三十六。師曰。未在更道。善曰。夜短睡不足。日長飢有餘。師曰。牛過窗櫺。頭角四蹄都過了。因甚尾巴過不得。善曰。了無一法當情。瞥爾通身露地。師曰。你即今向甚麼處安身立命。善曰。何處不稱尊（無際悟嗣）。

舒州投子楚山幻叟荊璧紹琦禪師

蜀之唐安雷氏子。年九歲。從玄極通受業。首參無際。一日聞板聲有省。復徧叩月溪海舟諸老。咸稱賞之○正統六年再參無際。際問數年以來。在什麼處住。師曰。廓然無定。際曰。有何所得。師曰。本自無失。何得之有。際曰。者是學得來底。師曰。一法不有。學自何來。際曰。莫落空耶。師曰。我尚非我。誰落誰空。際曰。畢竟是作麼生。師曰。水落石出。雨霽雲收。際曰。莫亂道。只如佛祖來。也不許。縱爾橫吞藏海。現百千神通。到者裏更是不許。師曰。和尚雖則把住要津。其柰勞神不少。際拍膝一下。師便喝。際曰。克家須是破家兒。恁麼幹蠱也省力。師掩耳而出。至晚復召師詰曰。汝將平昔次第發明處說來看。師從實具對。際曰。還我無字義來。師呈偈曰。者僧問處偏多事。趙老何曾涉所思。信口一言都吐露。翻成特地使人疑。際曰。如何是汝不疑處。師曰。青山綠水。燕語鶯啼。歷歷分明。更疑何事。際曰。未在更道。師曰。頭頂虛空。腳踏實地。際乃鳴鐘集眾。[田/升]以袈裟拂子○後出世天柱。僧問如何是天柱境。師曰。澗濶雲歸晚。山高日出遲。曰如何是境中人。師曰。額下眉遮眼。腮邊耳搭肩。曰如何是天柱家風。師曰。雲甌炊松粉。冰鑑煮月團。曰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海神撒出夜明珠。曰學人不會。師曰。文殊失却玻瓈盞。問如何是佛。師曰。生鐵秤鎚。曰如何是法。師曰。石頭土塊。曰如何是僧。師曰。黑漆拄杖○景泰五年遷投子。上堂。僧問遠離皖山。來據投子。海眾臨筵。請師祝聖。師曰。鼎內長生篆。峯頭不老

松。曰祝聖已蒙師的旨。投子家風事若何。師曰。提瓶穿市過。不過賣油翁。曰只如祖師道。不許夜行。投明須到。還端的也無。師曰。雖然眼裏有筋。爭柰舌頭無骨。曰趙州道我早猴白。渠更猴黑。意作麼生。師曰。不因弓矢盡。未肯豎降旗。問和尚今日陞座說法。未審有何祥瑞。師曰。麒麟步驟丹青外。優鉢華開烈焰中。曰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雪消山頂露。風過樹頭搖。問寶劍未出匣時如何。師曰。神號鬼哭。曰出匣後如何。師曰。佛祖吞聲。曰出與未出時如何。師曰。無鬢鎖子兩頭搖。僧提起坐具。師便喝。僧擬議。師便打。乃曰。毒蛇頭上揩痒。猛虎口裏橫身。也須是恁般人始得。適來者僧。大似一員戰將。敢來者裏奪鼓攙旗。惜乎龍頭蛇尾。死在棒下。若解轉身活路。自然不犯鋒鏑。所以道。弄蛇須是弄蛇手。不會弄蛇蛇齧殺○舉法燈示眾。山僧本欲深藏岩穴。隱遁過時。蓋為清涼老人有未了公案。不免出來為渠了却。時有僧問。未審清涼老人有甚不了公案。燈拈拄杖便打曰。祖禰不及。殃及兒孫。僧曰。過在甚麼處。燈曰。過在我。殃及你。師曰。大凡宗師出世。先要拈出已見。然後方可定斷古今。看他法燈如此作略。美則美矣。了則未了。幻叟今日。亦為蠶骨老人有未了公案。出來為渠了却。若有問蠶骨老人。有甚不了公案。應聲便喝。眼目定動。連棒打出。大眾。山僧恁麼提持。且道與法燈用處。還有優劣也無。若緇素得出。許他是箇同參○上堂。眾集。師斂衣就座。良久曰。大眾分明記取。便下座○師到菜園見冬瓜。問園頭者箇無口。因甚長得如許大。頭曰。某甲不曾怠惰一時。師曰。主人公還替你出些力氣也無。頭曰。全承渠力。師曰。請來與老僧相見。頭便禮拜。師曰。者猶是奴兒婢子在。頭轉身拈箴縛架。師乃呵呵大笑。回顧侍者曰。菜園裏有蟲○天順間。由匡廬歸蜀。韓都候於方山。迎師住持○成化九年三月望。將示寂。眾請末後句。師展兩手曰。會麼。復曰。今年今日。推車撞壁。撞破虛空。青天霹靂。阿呵呵。泥牛吞却老龍珠。澄澄性海漚華息。泊然而逝(無際悟嗣)。

雲南古庭善堅禪師

本郡昆明人。首參無際悟和尚。示萬法歸一。一歸何處話。苦心窮究。十載方得透脫。後於隆恩求悟印證。悟曰。子見處。如何與老僧不同。師展兩手曰。者箇非別。悟領之。一日辭悟。悟曰。甚處去。師曰。十字街頭訶佛罵祖去。悟曰。子還來否。師曰。不違和尚尊顏。禮拜便行。初遊金臺。止大容山。復南還住金陵天界。遷皖桐浮山。示眾。舉汾陽無業禪師曰。古德道。人得意後。茅茨石

室。向折脚鐺。煮飯喫。過二三十年。名利不干懷。財寶不為念。大忘人世。隱跡岩叢。君王召而不來。諸侯請而不赴。豈同吾輩貪利愛名。泊沒世途。如短販之有少希求而忘大果。師曰。誠哉是言。我等惟掠虛頭。妄自尊大。無明三毒。潛結於心。逆惡境緣。知無解脫。據實而論。且莫管你是知識非知識。除却一切施為動靜語默文字。生死到來。畢竟作麼生脫去。不得認著箇死搭搭。向良久處妄想。不得執著箇轉轆轤。向活脫處狂蕩。但有絲毫差別見覺。直饒脊梁生鐵鑄就。機辯懸河瀉水。未免閻老子。打入阿波波阿吒吒。八寒八熱。萬死萬生。灼然灼然。擊拂子。昨夜蟪蛄吞六合。虛空撲碎落岩前。復召大眾珍重○示眾。若論向上一著。了無別說。惟當人本自具足。文字經論。且無放處。近來諸方學者。盡被古人舌根埋沒。不能決志透脫。開口處情塵知見。學解聰明。於自受用中。確無的實。似者等豈非自喪己靈。爾若不信。有日病來。將所學所抱抵將不去。那時方悔錯用心力。學者既是實為生死行脚。豈可高心執見。聞恁麼說。便憤志決透去。乃思前算後。便拌此生。大捨身命。做大休歇工夫。當知此非小因緣。必猛利方能入筭。且諸方諸宿說做工夫。於自究竟處。或一年半月一月。或三年五載。有些見解。所聞師家舉似。或看冊子。便認著業識做模樣。生大我慢。便效古人行棒下喝。瞬目揚眉。學者不知被他惑了。此箇樣子正是生死無明。若或真參實證。却不恁麼。要向本分中懸懸密密。下死志做將去。莫論年久歲深。一念子撥之不開。蕩之不散。時節到來。豈爆冷灰。天翻地轉。打破疑團。虛空粉碎。方是自己大光明寶藏。大受用處。自然頭頭無礙。物物全彰。了無一法可當情。說者邊那畔。通明透徹。凡情聖解。宛爾一如。盡十方世界。森羅萬象。總諸佛清淨無礙三昧。到恁麼田地。說甚麼文字情解。根根塵塵。悉是大光明寶所有時攝。十方諸佛光明。入一微塵光明。一微塵光明。現十方世界諸佛。諸佛非來。我亦非動。寂寂如如。無彼無此。諸佛具大清淨無礙三昧。大解空寂滅三昧。大不思議海種種三昧。乃至不可說微塵剎數。剎塵塵剎。一一具足。十方諸佛定慧三昧。於一毫不從外來。嗟夫。學者於初立志處。擔肯一担經書。字句口耳。傳習為其己見。認為古人用處。古人却不如此。語默動用。別有生機。豈等閑共與卜度。須是具大根器者。聞必敬信。生難遭想。其或我慢矜高。退之遠之。珍重○師既老。乃歸昆明之古庭示寂。一時古庭與盤龍南北並峙。至今二大士之肉身存焉。門人一貫。編師語錄并山雲水石集行世(無際悟嗣已上三人)。

佛跡頤庵真禪師

遊歷諸方。多所契入。後參揚州田素庵居士。為入室上首。得獲付囑○住後示眾。青山疊疊。綠水滔滔。於斯會得。獨步高超。雖然也是尋常茶飯。古人道。欲窮千里目。更上一層樓。機不離位。墮在毒海。語不驚羣。陷於流俗。若向擊石火裏辨緇素。掣電光中明殺活。可以坐斷千差。壁立萬仞。諸兄弟還知有恁麼時節也無。今時諸方說禪浩浩。盡謂脚跟點地。鼻孔撩天。究竟具正眼者。落落罕聞。所以偏正不一。各立異端。堅執己解。弗通實理。所謂正法難扶。邪說競興。古人道。信有十分。則疑有十分。疑有十分。則悟有十分。可將盡平生眼裏所見。耳裏所聞。惡知惡解。奇言妙句。禪道佛法。貢高我慢等心。徹底傾瀉。莫存毫末。只就未明未了公案上。距定脚跟。豎起脊梁。無分晝夜。無參處參。無疑處疑。直得東西不辨。南北不分。默椿椿地。却如箇有氣底死人相似。心隨境化。觸著還知。打破觸體。不從他得。豈不慶快平生者哉(田素庵居士嗣)。

伏牛物外無念圓信禪師

金臺高氏子。九歲出家。長而受具。首見無際悟於隆恩。有省。歸而牛山結茅。復詣繁昌參月幻。幻問何處來。師曰。牛山。幻曰。人在者裏。牛擡。師曰。覲面不相識。全體露堂堂。幻曰。雖然如是。頭角不全在。師曰。某甲今日山行困。幻復拈起竹篋曰。喚作竹篋則觸。不喚作竹篋則背。上座作麼生。師曰。有勞神用。幻曰。未在更道。師便進前奪竹篋擲於地。幻軒渠大笑。師曰。某甲罪過。便作禮。幻乃撫而印之。師菴居三十載。開法伏牛○僧問龐居士道。一種沒絃琴。惟師彈得妙。某甲今日請和尚彈看。師效[口*敕]一聲。僧曰。不會。師曰。鐘作鐘鳴。鼓作鼓響。僧曰。意旨如何。師曰。馬大師去世久矣○問如何是即心即佛。師曰。富兒易驕。曰非心非佛。又作麼生。師曰。窮坑難滿。曰某甲不會。師曰。若道即心即佛。大似好肉剜瘡。若言非心非佛。何異灸瘡加艾。直饒道不是心不是佛不是物。也是平地喫交。且道畢竟如何。坐來拭几添香火。粥罷呼童洗盂盂(月幻法嗣)。

曹洞宗

鄧州香巖滄拙文才禪師

平陽臨汾姚氏子。生有異質。見僧則合掌作禮。不類常童。長依絳明福巖普公出家。嘗讀證道歌。至幻化空身即法身之句。欣然契

悟（愚菴孟云若向者裏悟去披毛戴角有日在○龍唐柱云不離花下路便見洞中春會麼山僧借手行拳去也乃舉長蘆上堂云幻化空身即法身遂作舞云見麼見麼恁麼見得過橋村酒美又作舞云見麼見麼恁麼不見隔岸野花香且道香巖悟底與長蘆道底還有差別也無）○乃謁還源呈所解。源曰。祇如道君不見是指阿誰。師曰。覲面親呈。更無回互。源曰。墮坑落堑漢。作恁麼語。師曰和尚作麼生。源曰。汝口響。師曰。勘破了也。源可之○泰定甲子主祖庭。尋隱香巖。詮釋般若心經。并華嚴法界觀。僧問如何是理法界。師曰。虛空撲落地。粉碎不成文。曰如何是事法界。師曰。到來家蕩盡。免作屋中愚。曰如何是理事無礙法界。師曰。三冬枯木秀。九夏雪花飛。曰如何是事事無礙法界。師曰。清風伴明月。野老笑相親（崇先奇云香巖老人只知指疆畫界不覺通身水泥者僧會即會也是紙上富貴若是四法界未夢見在○白巖符云盡謂香巖老漢被者僧扯入葛藤窠裏東兜西搭殊不知善言者言滿天下無口過還知者老漢舌根不動處麼良久云切忌道山僧饒舌）○至正壬辰。師年八十。一夕沐浴更衣。呼門徒申誡教。且曰吾死火之。灰揚可也。翼旦吉祥而逝。葬全身於雪庭塔右（少室遇嗣）。

熊耳空相珪禪師

上堂。我若喝汝。便作喝會。到處信口胡喝亂喝。我若棒汝。便作棒會。到處胡棒亂棒。我若除却棒喝。教他向本分中道一句子。他便作女子拜。不是捏兩句鬼話出來。便如啞羊相似。如此等輩。皆是狂狗逐塊。何曾夢見有獅子奮迅的牙爪。驀喚云。者裏還有獅子麼。試弄弄爪牙看。一僧出。師便打曰。逐塊尋香。未為好狗。僧擬對。師又打曰。棒折也未放你在。曰恁麼則雲巖路絕也。師曰。是你上天無計。怎怪我雲巖路絕。乃連棒打逐出曰。寄與天下亂統漢（少室遇嗣）。

嵩山龍潭深禪師

上堂。山僧當年於般若經。顛倒夢想處。得箇究竟涅槃。然後知一切聖賢。皆以究竟涅槃。成了箇顛倒夢想。及乎見我遇老和尚。問他古塚不為家。如何是禪。老和尚曰。此是死語。山僧道。如何是活語。被老漢劈面一掌曰。得恁麼死即當。山僧擬對。又被老漢一掌。山僧當時不覺如暗得燈。乃大宣曰。此回不是夢。真箇是廬山。今日山僧不敢昧却本源。特為諸人也須恁麼親見一回始得。乃拍案一下云。噫。山僧今日太殺逗漏（少室遇嗣）。

嵩山龍潭端禪師

僧問如何是少林宗。師曰。九重淵底起神龍。曰如何是曹洞宗。師曰。百劫冤家狹路逢。曰如何是臨濟宗。師曰。無口人吞栗棘蓬。曰如何是雲門宗。師曰。手提寸鐵走西東。曰如何是滄仰宗。師曰。龜毛慣縛樹頭風。曰如何是法眼宗。師曰。喜把金樽勸醉翁。曰如何是千聖不傳宗。師曰。現鐘不打。何處鍊銅(少室遇嗣)。

洛陽天慶江禪師

僧問古鏡未磨時如何。師曰。鬼神茶飯。曰古鏡已磨時如何。師曰。魔外冤仇。曰銀碗盛雪時如何。師曰。眼見即瞎。曰明月藏鷺時如何。師曰。動即禍胎。曰不見不動時如何。師曰。推出者死漢。曰乞師更垂方便。如何轉身。師曰。路逢死蛇莫打殺。無底籃兒盛將歸(少室遇嗣)。

嵩山永泰祥禪師

堅上座典客。師曰。今日有甚客來。堅曰。憧憧不絕。不過是胡張李黑。師曰。你還揀擇得出麼。堅曰。一味教他喫茶去。師曰。儻侗漢。奴郎不辨。怎消得常住物。曰惟和尚命。師曰。吞鐵丸去。堅笑曰。和尚亦恁麼。師打曰。你亦恁麼那(少室遇嗣已上六人)。

盤山遇禪師

上堂。諸方尊宿。皆好舉話。接待衲僧。山僧今日效顰。也舉一則。供養大眾。良久云。莫怪空疏。便下座。復顧謂侍僧云。拄杖在。侍曰。在者裏。師曰。各各自領取一頓(寶應達嗣)。

太原斌禪師

上堂。以手屈指數之曰。西天四七。東土二三。算到一千七百。總出我者指頭不得。噫。罷罷。得歸去時且歸去。莫落他人指數中(寶應達嗣已上二人)。

金陵天界雪軒道成禪師

雲州趙王之遠孫也。父徙居保定。遂家焉。年十五。出家受具。已結三人為侶。在青州土窟中。密究單傳之旨。忽有老人貌甚奇古。謂曰。汝三人忘苦辛。甘澹泊。究明向上大事。他日必作法門棟

梁。師叱之曰。既作棟梁。乃居士窟耶。老人曰。未有常行而不
住。未有常住而不行。言訖而隱。師益自勵。聞秋江潔公。大弘曹
洞宗旨於齊之靈巖。遂往禮謁。潔問師何處來。師曰。青州來。潔
曰。帶得青州布衫來麼。師曰。呈似和尚了也。潔即肯之。俾參
堂。久之疑情冰釋。徑造丈室。潔曰。金鎖玄關。打開了也未。師
曰。千年桃核裏。覓甚舊時仁。潔頷之。囑曰。是汝本有之事。善
自護持。他日能弘吾道者必汝也○洪武十五年。天下郡縣開立僧
司。統領釋教。師應選。道契親王。睿眷尤篤。三十年秋八月。召
師至殿。命住天界。師奏不會佛法。上製詩一首。鑄於金榜。懸諸
法堂曰。不答來辭許默然。西歸隻履舊單傳。鼓鐘朔望空王殿。示
座從前數歲年○上堂。白雲萬頃卷舒。露劫外真機。紅葉千峯燦
爛。顯箇中妙旨。亘古今而不昧。經塵劫以常存。鳥道虛通。運步
玄關。絲密。獅絃錯落。接指古韻鏗鏘。直得石女點頭。木人拍手。
拈起金針玉線。穿過機先。截來兔角龜毛。發明向上。正偏獨露。
隱顯全該。所以物物頭頭。塵塵剎剎。未有一絲毫欠少。大眾還會
麼。夜來木馬雪中過。驚起南辰北斗藏○上堂。陰極陽回化日長。
梅花處處噴清香。箇中消息無多子。徧界何曾有覆藏。如是則明明
兼帶。百草頭上相逢。密密宣揚。萬象光中獨露。利名場上。薦取
無位真人。人我山中。顯示本來面目。影含宗鑑。心生則種種法
生。身是道場。心滅則種種法滅。石女高提寶印。文彩全彰。木人
暗度金梭。絲毫不昧。牽動劫外機輪。烜赫寰中歲月。潛通遐邇。
直得枯木生花。該括古今。解使寒冰發燄。雲籠古路。依依野色還
迷。月滿寒巖。皎皎神光徧照。六門機息。何須宛轉旁參。一色功
圓。切忌當頭印破。白牛運步。已蒙建化之緣。玉馬嘶風。總是利
生邊事。且道如何是向上事。咄。兔角杖挑潭底月。龜毛拂拄嶺頭
雲○元旦上堂。三陽交泰。萬物咸新。顯一真之妙用。總造化之淵
源。塵塵合道。處處通津。法筵大啟。覺苑弘開。國運與佛運齊
興。皇風共宗風并扇。祇如道舊歲已去。新年到來。未審去從何
去。來從何來。如斯評論。轉見誚訛。敢問大眾衲衣下一著子。還
有增添去來也無。於斯會得。便見臘盡陽和無影樹。春回花發不萌
枝○上堂。五月榴花照眼明。薰風啼鳥徧巖扃。機先一著無玄妙。
切忌當人認色聲。記得夾山會禪師示眾曰。目前無法。意在目前。
不是目前法。非耳目之所到。天童覺曰。夾山老子。解開布袋。將
差珍異寶。撒向諸人面前了也。正當恁麼時。又作麼生。路不拾
遺。君子稱美。大眾。且道夾山天童二老見處。一一揀點將來。總
成漏短。鳳山分上則不然。若是色見聲求。即非家珍。了知目前無
一法。頭頭物物總相應。其或未然。更聽末後一句。道泰不傳天子
令。時清休唱太平歌○三十五年七月。太宗嗣位。奉使日本。命師

往宣聖化。至永樂二年回。與同使官僚備奏。皇情大悅。恩寵有加。四年以僚佐譖繫囹圄百餘日。師坦然無慮。上知其非罪。宥之。○六年春。奉旨就鍾山建普度大齋。命師說法。聽者數萬人。○十一年。赴北京朝賀。奉旨於慶壽建齋。賜賚尤沃。○宣德三年。師年七十六。表辭歸山。宣宗憫其誠。遣內臣護送。南還天界西庵養老。○七年臘月八日示微疾。辭眾說偈。趺坐而逝。上製文遣官致祭。闍維之日。煙燄五色。仙鶴翔空。異香滿道。彩雲縹緲。四眾萬餘人。咸嘆希有。火後收舍利。圓紅者無算。塔於南畿安德門外。勅賜塔所為鷲峯禪寺(靈巖潔嗣)。

西京天慶息庵義讓禪師

真定李氏子。卅歲薙落。遍參宗匠。後往封龍。扣古巖就公。嘗作達磨得皮得肉等頌。就稱賞之曰。達磨皮內骨髓。皆被諸子得去。不如隻履西歸。者是甚麼消息。師曰。且喜和尚猶記得。就曰。是則是。我終有些疑你。師曰。恁麼則老胡賴也。就顧侍者曰。我眼何如。○出住天慶。次遷熊耳之空相。泰山之靈巖。雖之嵩少。僧問無功之功。還有偏正否。師曰。偏正歷然。曰如何是無功底偏正。師曰。石牛吐出三春霧。靈鳥不棲無影林。○問如何是直指人心。師曰。舌在口裏。曰如何是見性成佛。師曰。金屑雖貴。落眼成塵。曰如何是莫向言中取則。師曰。道火何曾燒著口。曰如何是句外明宗。師便打。曰因甚便打某甲。師曰。你要我句內明宗麼。○庚辰夏遭疾。乃命門人曰。斯疾不可起也。吾往必矣。至五月十二日。囑後事。書偈曰。來時本淨。去亦圓周。虛空作舞。任意優游。右脇而逝(封龍就嗣)。

泰山靈巖容禪師

初參萬法歸一。一歸何處有理會。但於青州布衫。與師子一吼。祖父俱盡語未透。偶與同參上泰山日觀峯。忽憶登東山而小魯。登泰山小天下話。驀地失足。跌得悶絕。同參扶起。良久乃甦。大叫曰。此是師子一吼。祖父俱盡時也。孔孟未必到恁麼田地。因謁封龍就和尚。呈所見。就曰更須知有向上關捩子始得。師喝一喝而出。就大喜。呼而印之(封龍就嗣)。

晉寧心菴主

常舉拳頭曰。天下衲僧。只用者箇殺活他。凡有僧來便打出。無能搆者。因是人稱為鐵拳頭菴主(封龍就嗣)。

白茅春菴主

常與心鐵拳往來。僧問和尚用何法接人。師曰。但將冷眼觀螃蟹。看彼橫行到幾時。曰恁麼則冷眼鐵拳。相結恨於天下也。師曰。衲子多好嚼屎蛆(封龍就嗣已上四人)。

續指月錄卷十一

續指月錄卷十二

六祖下二十八世

臨濟宗

金陵東山翼善海舟永慈禪師

按東山行實碑。載師為蜀之成都余氏子。(生於洪武二十七年甲戌)齟齬時。見僧輒喜。一日聞說生死事。遂發志棄俗。趨彭縣大隋山景德寺。投禮住持獨照月師剃染。後入西山。住靜八載。發志參方行脚。首謁太初和尚請益。開示父母未生前話做工夫。一日初問師曰。父母未生前。那箇是本來面目。師即從東過西。叉手而立。初曰。未在更道。師曰。兩眼相對。有甚相瞞。初大悅。制解起單。復參東普無際和尚。不契。乃出峽赴京。得度。(宣德二年)復還金陵靈谷掛塔。雪峯和尚請師充首座。制解。即詣古道山。參東明岳禪師。一見便問無相福田衣。甚麼人得披。岳下座擣一掌。師曰。四大本空。五蘊非有。汝作麼生掌。岳又一掌。師曰。一掌不作一掌用。速道。岳又一掌。師神色不變。曰老和尚名不虛播。復展具三拜而立。岳曰。我居古道山三十載。今日只見得者僧。乃留旬日。欲付袈裟。師曰。某甲不為衣來。堅不受。下山。自此聲譽叢林○金陵牛首。請師領眾三載。退隱天界山居。太監袁誠。(法名智海)欽師道德。請住翼善寺。開山說法○正統五年庚申。六月二十八日。岳和尚留囑明白庵曰。吾有衣法二物。待十年後。送至金陵東山。海舟和尚受納。付囑曰。字付慈海舟。訪我我無酬。明年之明日。西風笑點頭。明年如期果寂。白庵不違遺囑。限滿日。請首座法薦。(於景泰二年八月二十三日)持衣齎至東山。師祝香而受(東山岳嗣)。

杭州東明海舟普慈禪師

按師七世孫天童悟和尚傳云。蘇之常熟人。姓錢。世宗儒業。出家於破山。初至慧日寺。聽講楞嚴。至但有言說。都無實義處。乃曰。言說今日愈多矣。遂歸。日夜閱經。尋思實義。面顏日悴。有居士問曰。師顏色有病。師云。佛法不明故爾。非病也。士曰。佛法不明。何不往府中鄧尉山。問取萬峯蔚和尚去。師聞欣然。便詣鄧尉。見萬峯。峯問曰。沙彌何來。師禮拜。起曰。常熟。峯曰。到此何為。師舉前話。再拜求示。峯便劈頭兩棒攔背一踏。以脚兩踢曰。只者是實義。師有省。起曰。好只好。大費和尚心力。峯笑

而許之。付以偈曰。龜毛付囑與兒孫。兔角拈來要問津。一喝耳聾三日去。箇中消息許誰親。又曰。子當匿跡護持。莫輕為人師範。師自以為得。乃結廬於洞庭山塢二十九年○一日僧至。師問曰。上座何處來。曰安溪。曰安溪有人麼。曰盧白和尚。說法不異高峯。曰是誰弟子。曰寶藏。曰有甚言句。僧舉室中驗人語云。心不是佛。智不是道。三藏不是法是甚麼。下語者皆不契。舉畢。復問師曰。參寶藏否。師曰。我與寶藏同參萬峯。僧曰。當日有何所見。遂隱於此。就再不參人去。師曰。問但有言說。都無實義。峯便打。我從此得悟。僧曰。請言得之所以。師曰。但要人知痛癢的是實義。是妙心。言說盡屬皮毛。僧笑曰。若據此見解。生死尚未了。何得云悟。未了未了。不見道心不是佛。智不是道耶。師遂有疑曰。彼處眾中有真大徹者麼。僧云無○師即棄庵。渡湖往安溪。詣東明。適有人設齋。師至關前問明曰。今日齋是甚麼滋味。明曰。到口方知。說即遠矣。師曰。如何是到口味。明即打滅燈曰。識得燈光何處著落。味即到口。師無語。次日黎明。遣侍者請師。師即至。明問曰。曾見人否。師笑曰。見只見一人。說出恐驚人。明曰。假使親見釋迦。依然是箇俗漢。但說何妨。師曰。萬峯。明曰。為敘先後耶。為佛法耶。若敘先後。萬峯會下有千人。若論佛法。老闍黎佛法未夢見在。何驚之有。若親見萬峯。萬峯即今在甚麼見。師面赤罔然。明曰。若如此。不曾見萬峯。師歸客寮。三晝夜寢食俱忘。偶值香燈繩斷墮地。忽然大悟。詣關前呈悟由。明曰。老闍黎承嗣萬峯去。師曰。白公為我打徹。豈得承嗣萬峯。明乃笑。遂集眾出關。陞座曰。瞿曇有意向誰傳。迦葉無端開笑顏。到此豈容七佛長。文殊面赤也茫然。今朝好笑東明事。千古令人費唾涎。幸得海公忘我我。濟宗一脈續繇繇。乃擲下拄杖云。千舢擔子方全付。玄要如今拄杖談。以拂子擊三下。下座(隱元琦頌云痛領萬峰白棒痕洞庭搖拽小乾坤無端一陣業風起浪拍孤舟過海門)○師即入方丈禮拜。明曰。老僧不出月去也。至二十七夜辭眾。二十九日示寂。師仍欲遁歸洞庭。四眾苦留。乃繼其席○嘗舉興化問克賓維那。你不久為唱導之師。賓云。不入者保社。化云。會來不入。不會不入。賓云。沒交涉。化便打云。克賓維那。法戰不勝。罰錢五貫。克設堂飯。至來日齋飯成。興化自白椎云。克賓維那。法戰不勝。不得喫飯。即便趕出院師拈云。若為濟宗兒孫。必要明他家裏事。予昔蒙萬峯老人付我偈。便以為得。直至今日始知我錯。萬峯不錯。一遇東明和尚。乃明棒頭賞罰。言句亦然。果然悟在己而法藉師。豈曰一悟即為了當。如以一悟靈通。不求師法。正謂威音已前。無師可也。威音以後。師師相受者。此也。所以克賓識得父師苦心。策發已明向上關楸子。洞達閨闕中事。不在言宣。失錢喫棒。受罰出

院。骨碎身粉。也難酬報興化萬一。況打罰出院乎。海長老今日所以不嗣萬峯而東明者。亦此也。古諺云。養女方知娘受苦。生子乃識父辛勤。誠哉是言也。實有箇中大事。豈容草草。若與人抽釘拔楔。坐獅子座。為人天師。抉人眼翳。紹佛祖位者。必須一一透過。切莫以悟為是。將綱宗抹殺。置而勿究。何異天魔外道。莽蕩招殃悔乎○萬峯忌日。師拈香指真曰。我幾淹殺你甕裏。幸是普慈。若是別人。不可救也。爇此瓣香。堪酬接引。喝一喝云。只笑你護短沒投師。佛法當人情。展坐具禮拜。又拈香云。此一瓣香。供養東明長老。一片赤心鞭策。令余洞達宗源。連喝兩喝云。一言豈盡普慈心。千古兒孫贊報恩。又拈香云。此瓣香供養昔日師僧指南之力。若不蒙師。何有今日。他日到來。拄杖三十喫有分。堪報不報之恩。喝一喝云。受恩深處便為家。有乳方知是阿娘。禮拜起說偈曰。源頭只在喝中存。三要三玄四主賓。五棒當人言下會。四料還須句裏明。末後真機死活句。箇中消息在師承。碎形粉骨酬師德。將此身心報佛恩。慟哭歸方丈○臨示寂說偈曰。九十六年於世。七十四載為僧。中間多少譎訛。一見東明消殞。以拂子打圓相云。釋迦至我六十二世。有不可數老和尚。又打圓相云。多向者裏安身。咄。乃投筆而逝。景泰元年。全身塔於東明左側。得法十二人(東明岳嗣○師著拈頌一帙行世。花城弟子沈貫為之序。其略曰。海舟嗣岳公一事。自佛至今無有其人。人我四相些微未盡者不能為之師。誠古佛再現人間也。無奈師年邁臘尊出世無何而入滅。宗風未能大暢寰中。惟有拈頌古機緣百則。令慧日重開破暗千古。其頌或引人詩句出自手眼有合佛祖意者。採摭而成之。箇中意旨是非不敢固必。但見師之操履人品。為法忘形。去名存實。自無苟足。而其頌拈量不妄意測度謬為撰述者也。明眼人見之究之奉行有日在。嗟乎。今時魔熾法殘。拈花一脈寥寥不顯於世。真正宗師煨鑪山穴保養聖胎俟時待緣。暗流支派使兒孫布揚祖道雲興雨澍潤澤靈根。佛祖花開香浮震旦。觸聞其香咸令悟入者。舍師之裔其誰歟。時景泰丁丑三月九日○山曉哲禪師崇正錄云。潭吉五宗教中之說。總以未見永慈之碑誤之。天童先師翁闢妄中答潭公書云。老僧誠有意探討故刻小字印於語錄。之前數年竟不能得。邇來有法侄山茨將海舟寶峰二祖機緣刻行於世。蓋得之丹壑查居士家藏佛祖源流中者。然則萬峰蔚出寶藏持。持出東明岳。岳出海舟慈。慈出寶峰瑄。又得靜菴素禪師語錄。素為海舟二世孫敘聯芳圖。始自釋迦遞代相承。敘至東明岳海舟慈雲溪瑛。瑛與寶峰瑄為昆季焉。據是源流的的相承。海舟慈為東明岳祖之嗣無疑矣。當時潭公聞先師翁之言始得豁然。嗣後竟無餘議。但俱未見翼善之碑。誤以普慈為永慈耳○樂讀氏曰。海舟永慈翼善碑。按康熙元年大咸公住東山時始為刊布。四方一時名衲皆宗之。前人俱未之見焉。其東明海舟普慈傳乃悟老人作於崇禎年間山茨際公住東明時刊行也。不謂翼善一碑譎訛互異不得已而兼存之。所謂余生也晚。前不見古人。後不見來者。惟有多聞闕疑已耳。古今偽碑甚多。世

之譜牒造端恒有之。具戒衲子有是事乎。昔之天皇·天王。今之永慈·普慈。並載為是。知我罪我。我何畏焉)。

水心月江覺淨禪師

蘇之沈氏子。十五歲。往從古拙芟染。參峴山宗不契。後見東明岳和尚。親依最久○一日問岳如何是祖師西來意。岳曰。你那裏去來。師進前曲躬曰。那裏去來。岳便喝。師亦喝。岳便打○成化己亥正月十九日。戒飭徒眾。說偈而逝(東明岳嗣已上三人)。

邵武君峯大闡慧通禪師

建寧邵氏子。參雪骨中禪師。一夕有省。即說偈曰。手把清風斧。毗盧頂豁開。三千諸佛祖。一串穿將來。旦詣丈室求見。中曰。還我舌頭來。師復說偈曰。坐斷恒沙界。全心一物無。浮雲都散盡。獨耀一輪孤。中印可之。後住君峯○弘治十四年。二月十七日。集眾說偈曰。人生七十古來稀。更添一歲也希奇。若問老僧何處去。處空獨露笑嘻嘻。沐浴更衣。趺坐而逝(天界中嗣)。

金陵高座古溪覺澄禪師

蔚州人。從雲中天暉昶芟染。閱大藏。歷五寒暑。於大慧錄中無字話染指。參投子琦禪師。言下機契。親炙久之。得盡其旨。隱於固始之南山有年。後住金陵高座。結制小參。三條椽下座堆堆。把定身心若死灰。撥出爐中些子火。驚天動地一聲雷。還有不惜眉毛者麼。良入乃曰。有時三世諸佛。與火爐說法。覓火和煙得。有時火爐說法。三世諸佛諦聽。擔泉帶月歸。於斯會得。芥子納須彌也得。須彌納芥子也得。正眼觀來。兩箇火爐。三世諸佛。結住於青州布衫。一粒芥子。百億須彌。收歸於雲門胡餅。兩堂雲水。穿又穿不得。齧又齧不得。大眾正當恁麼時。畢竟作麼生。還會麼。眉間拶出金剛燄。露柱燈籠盡放光○成化癸巳八月九日。沐浴更衣。集眾訣別。端坐而逝。少頃眾泣。師復開目慰眾曰。不須如是。復瞑目(投子琦嗣)。

襄陽大雲興禪師

久侍楚山琦和尚。一日琦出郡歸。眾途迎。琦曰。我不曾下山。亦未嘗出郡。且道甚處去來。師曰。大眾久立。請和尚回寺。琦曰。

那裏是寺。師曰。鐘聲響得好。琦呵呵大笑。師便禮拜。後琦付偈曰。躬自西州定宗旨。親從投子付袈裟。他年出世提綱要。不立孤危是作家(投子琦嗣)。

涿州金山寶禪師

參楚山琦和尚。琦問曰。面南看北斗。且道明甚麼邊事。師曰。和尚合取口好。琦曰。未在。師曰。瞞別人即得。琦曰。如何是透關眼。師振聲一喝。琦曰。向上一機。又作麼生。師曰。青天日卓午。琦曰。未夢見在。師曰。木童拈玉線。石女度金鍼。琦曰。轉身一句。速道速道。師曰。雨添山色秀。風來竹影移。琦拈拄杖。師便喝。拂袖而出。琦曰。放汝三十棒。師轉身作禮曰。謝和尚慈悲。琦曰。子雖有滔天之浪。且無湛水之波。師俛首默然。琦深肯之(投子琦嗣)。

唐安湛淵齋禪師

參楚山幻叟琦和尚。親依最久。一日入室次。琦問如何是至理一言。師曰。有口說不得。琦曰。松風流水。為什麼却說得。師曰。為渠無口。琦曰。你道他說些什麼。師曰。和尚適來問甚麼。琦曰。祇如絕音響處。還有說也無。師曰。有則灼然有。只是聞不及。琦曰。聞即且置。你道他說箇甚麼。師乃豎起拳頭。琦曰。還有聞得及者麼。師以手指香爐曰。是渠却聞得。琦曰。因甚渠却聞得。師曰。為渠有耳。琦曰。汝亦有兩耳。為甚聞不得。師曰。雖然聞不得。瞞他一點不得。琦曰。放汝三十棒。師便禮拜(投子琦嗣)。

石經海珠祖意禪師

掩關次。一日楚山琦和尚。至關前。擊門一下曰。請關中主相見。師斂手鞠躬而立。琦曰。趙州無字作麼生。師曰。只為婆心切。肝膽向人傾。琦曰。不涉有無時如何。師曰。某甲到者裏却不會。琦曰。待汝出關。與汝一頓。師曰。某甲即今亦不在關內。琦指關門曰。爭柰者箇何。師便喝。琦曰。天氣炎蒸。善加保護。師便禮拜(投子琦嗣)。

長松大心真源禪師

三池張氏子。謁楚山琦。問曰。從上佛祖。言不及處。行不到處。請師直指。琦拈拄杖曰。響。師便喝。琦便打。師又喝。琦又打。師便禮拜。一日室中侍立次。琦曰。向父母未生前道一句來。師曰。道不得。琦曰。因甚道不得。師曰。他沒口。琦曰。又道沒口。師曰。謝師答話(投子琦嗣)。

松藩大悲崇善一天智中禪師

彭縣人。體貌奇異。年十二。從月光受業。具戒後。居松藩。一日楚山琦和尚過其廬。師述悟由。琦曰。如何是無字意。師曰。出匣吹毛劍。寒光射斗牛。琦曰。趙州因甚道無。師曰。波斯嚼冰雪。不覺齒牙寒。琦曰。拈過有無。如何湊泊。師曰。夜深誰把手。同共御街游。琦曰。向上奇特一句作麼生。師曰。秋夜家家月。春來處處花。一雙清白眼。何用撒泥沙。琦即印可之(投子琦嗣)。

石經豁堂祖裕禪師

成都巨氏子。久從楚山琦游。一日琦閱經次。師詣前曰。和尚看底是什麼。琦便喝曰。你道是什麼響。師亦喝。琦舉起經曰。百千三昧。無量妙義。皆從者一卷經流出。且道者一卷經。從甚麼處來。師彈指一下。琦便休去(投子琦嗣)。

三池月光常慧禪師

簡州李氏子。參楚山琦。琦曰。久聞上座嘗覽大藏是否。師曰。和尚莫謗某甲好。琦曰。白底是紙。黑底是墨。畢竟如何是經。師曰。和尚莫要不本分。琦曰。作麼生是不本分底道理。師曰。經響。琦曰。似即似。是即未是。師便禮拜(投子琦嗣)。

中溪隱山昌雲禪師

參楚山琦。琦問汝名甚麼。師曰。昌雲。琦曰。號響。師曰。隱山。琦曰。雲在山中隱。如何又出山。師曰。只因夜來鶴。帶過嶺頭關。琦曰。或為霖雨時如何。師曰。徧潤寰區。琦曰。忽被猛風吹散時如何。師曰。依舊青天白日。琦呵呵大笑(投子琦嗣)。

翠微悟空禪師

關西人。久依楚山。一日入室次。琦問踏翻大地無寸土。徹底窮源事若何。師曰。有星皆拱北。無水不朝東。琦曰。還假履踐功用也無。師曰。履踐則不無。功用即不可得。琦曰。只箇不可得處。亦不可得。子又作麼。師擬進語。琦震威一喝。師曰。恩大難酬。便禮拜(投子琦嗣)。

珪菴祖玠侍者

一日病次。琦往視。值心上座來。琦顧師問曰。如何是心。師曰。開口不容情。琦曰。未在。師返顧心曰。何不禮拜和尚。心便就禮一拜。琦休去。後病革。有痛苦聲。琦曰。平日得力句。到者時節。還用得著麼。師點首。琦曰。既用得著。又叫喚作麼。師曰。痛則叫。癢則笑。琦曰。只如三寸氣斷。向何處安身立命。師曰。雨過天晴。青山依舊。琦曰。從今別後。再得相見否。師曰。曠劫不違。今何有間。琦曰。恁麼則子不曾病耶。師曰。病與不病。總不相干。琦復執其手曰。者是甚麼。師便合掌曰。某當行矣。振身端坐而逝(投子琦嗣共十二人)。

五臺顯通大巍淨倫禪師

雲南康氏子。古庭堅和尚居浮山。師往叩。室中機契。後住顯通○上堂。無孔鐵鎚當面擲。黑漆崑崙攔路坐。莫有挨拶得入。拈弄得出底出來道看。僧問如何是臺山境。師曰。不是天晴。便是下雨。曰如何是境中人。師曰。金剛窟裏萬菩薩。曰未審尋常所說何法。師曰。清風吹幽松。近聽聲愈好。問如何是佛法的大意。師曰。今年調雨水。農家好春麥。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待飯僊山轉身即向汝道。乃曰。拈砒霜作醍醐。亦曾有也。撒珍珠如瓦礫。誰箇不然。開眼上樹。特地喪全身。夢昇兜率。也是揚家醜。未動情思轉魔女。盡成菩提寶器。不勞腕力指娑婆。便為妙喜淨邦。長水濬岳積而來。瑯琊覺冰消而去。信腳踏翻瑠璃甃。等閒擊碎珊瑚枝○上堂。三聖震威一喝。正法眼裏撒沙。南泉白刃高揮。古佛家風掃土。何必不必。探竿豈在人手。湘南潭北。塔樣脫體持來。不萌枝上放春回。烈焰堆中飛片雪。有斯作略。可謂其人。誰家井底無天。到處波心有月○冬至示眾。五頂瓊瑤堆。千松珠玉枝。盡臺山泉石煙雲。飛樓涌殿。總是文殊一隻智眼真光。是汝諸人常在於其中。經行及坐臥。還知從不曾動著渠一莖眉毛麼。若也與麼見得。便爾攝大千於毫端。廣塵沙於法界。其或未然。切忌東卜西卜。老僧為汝諸人真實告報。今朝冬至一陽生。珍重○示眾。山高

海闊。月朗風清。松蒼石白。夏暑冬寒。如是歷歷分明。一一成現。且道衲僧分上。成得箇甚麼邊事。莫有道得者麼。不妨出來道看。若無。老僧自道去也。拈拄杖。便下座○示眾。演祖道有則奇特因緣。舉似諸人。欲說又被說礙。不說又被不說礙。大小演祖。大似靈龜曳尾。一言既落人耳如何諱得。老僧也有一則奇特因緣。索性舉似大方。令他倚門傍戶者。一箇箇壁立千仞。便下座○示眾。老僧者裏也不說東村李大郎太儉。也不說西社王二姊太奢。也不會安角呼兔。也不會添足畫蛇。早起一盂白粥。午後一盃清茶。誰管他陳年爛葛藤。冷地開華。展兩手曰。汝等諸人。來者裏討甚麼乾木查。師有山居吟。無事山房門不開。土堦春雨綠生苔。此心將謂無人委。幽鳥一聲何處來(古庭堅嗣)。

夷峯寧禪師

參大岡月溪澄和尚。久而徹證。澄付以偈曰。祖祖無法付。人人本自有。汝證無授法。無前亦無後(藏本續續後二句云汝受無付法急著傳於後○月溪澄嗣)。

杭州天真毒峯本善禪師

祖貫鳳陽吳氏。父宦遊廣東雷陽而生。年十七出家。初遇源明和尚。示無字話。師當下便能領解。舉似明。明曰。我二十年看箇無字。如蚊子上鐵牛。子纔學做工夫。便有許知見。復曰。觀子根器。有異於人。切莫途中被人哄去作長老。悞汝大事。師蒙誨。即發願一味拍盲做工夫。自誓此生。以悟為期。慕無際道風。入川參叩。會際蒙召赴京。遂掩關不設臥具。惟置小凳。昏重并去凳。一日聞鐘聲有省。說偈曰。沈沈寂寂絕施為。觸著無端吼似雷。動地一聲消息盡。觸體粉碎夢初回。再往謁際。適際遷化。遂求證於月溪澄和尚。言下有契。後澄遣書。召師付囑。師適因事他出。澄臨委息。命送衣拂。師得法住山。凡四十餘載○成化初。掩關石屋。後住天真。僧問如何是和尚家風。師曰。前江潮急魚行澀。後嶺峯高鳥泊難○僧請益高峯和尚示眾曰。海底泥牛銜月走。巖前石虎抱兒眠。鐵蛇鑽入金剛眼。崑崙騎象鷺鷥牽。此四句內。有一句能殺能活。能縱能奪。若人檢點得出。一生參學事畢。未審是那一句。師曰。待汝悟即向汝道。僧曰。不會。師曰。不見道。你有拄杖子。我與你拄杖子。你無拄杖子。我奪却你拄杖子。普說略曰。寶劍全提日用中。高揮大抹肯從容。卷兮魂膽迎風喪。舒也觸體徧地橫。萬死萬生渾不顧。一鎗一騎便收功。趙州性命分明也。血刃參

天不露鋒。以拂子拂一拂。虛空廓徹無消息。萬里無雲天漢碧。拶得須彌入藕絲。彌勒釋迦齊叫屈。倒騎鐵馬逐西風。驚得泥牛從海出。諸仁者。若作奇特會。孤負己靈。不作奇特會。抱贓叫屈。且作麼生會。解藏天下於天下。始見林梢掛角羊○壬寅示寂於天真。塔於本山之崗(月溪澄嗣)。

五臺普濟孤月淨澄禪師

西河張氏子。首參月溪澄和尚。令看趙州無字話。三日有省。澄異之。復入蜀謁廣福。福問大死底人。却活時如何。師曰。眉毛眼上橫。鼻孔大頭垂。曰如何是無字意。師曰。風行草偃。水到渠成。曰大地平沈。虛空粉碎。汝向何處安身立命。師曰。雲消山嶽露。日出海天清○天順改元。還清涼。代王延詣內掖。問道尊禮之。令旨建寺於華嚴谷。額曰普濟○師住山後。嘗有山居偈曰。寰中獨許五臺高。無位真人伴寂寥。一任諸方風浩浩。常空兩眼視雲霄○甘貧林下思悠悠。竹榻高眠石枕頭。格外生涯隨分定。都緣胸次略無求○自住丹崖綠水傍。了無榮辱與閑忙。老僧不會還源旨。一任青山青又黃○深隱巖阿不記年。名韁利鎖莫能牽。七斤衫子重聯補。日炙風吹愈轉鮮○颯颯春風和鳥哀。清音直到耳邊來。爐燒柏子端然坐。對月殘經又展開○後坐脫於本山(月溪澄嗣已上三人)。

鳳陽槎山護國無用文全禪師

濟南商河劉氏子。年十九。投靈巖祝髮。初見月天。蒙示法要。次參別傳有省入。傳問虛空粉碎。大地平沈。汝在甚麼處安身立命。師曰。昨夜泥牛吞浩月。今朝木馬吐清風。傳曰。一歸何處響。師曰。一自白牛歸雪嶺。直至如今不見踪。傳頷之○復往金山謁無極。囑師見寶月。月問有草鞋錢麼。師曰。青山不露頂。月曰。如何是應物現形。師曰。孤光明月普天輝。萬象森羅全體現○一日月入堂坐次。叫曰。寒寒。師便搬火爐向前。月曰。如何是火爐邊事。師敲火爐三下。月微笑而出○入室次。月拈拄杖曰。者是拄杖子。且道主在甚麼處。師奪拄杖擲地。叉手而立。月曰。看者漢。撞却拄杖子了也。師拂袖便出。後蒙印可。出世槎山。上堂。舉古人道。扇子[跳-兆+孛]跳上三十三天。築著帝釋鼻孔。東海鯉魚打一棒。雨似盆傾。且道意作麼生。眾無語。師云。不識匡廬真面目。都緣身在此山中○上堂。法不孤起。仗境方生。道本無言。因言顯道。然雖如是。猶未是衲衣下事在。且道作麼生是衲衣下事。僧問三乘即不問。直指事如何。師曰。雙峯頂上鶴棲樹。九龍山上

鳥啼華。曰西來祖意蒙師指。東土相傳事若何。師曰。嶺上有風千古秀。澗邊流水萬年清。問如何是白水境。師曰。一片荒田堆四野。三間茅屋壯諸山。曰如何是境中人。師曰。白虎頭邊天子廟。黑龍潭上帝王基。曰人境兩忘時如何。師曰。蘇武不知青羝意。七郎常恨白鴉歸。僧禮拜。師拍案下。下座(廣善潭嗣)。

崇福大慧覺華禪師

維揚劉氏子。初見海舟有省。復參寶月於繁昌。遂蒙印證。住後上堂。舉拂子。威音那畔。只是者箇。如今目前。也只是者箇。若喚作拂子。瞎却人天眼目。不喚作拂子。瞎却人天眼目。大眾。畢竟喚作甚麼。若也直下見得。便知迦葉微笑。二祖覓心。了不可得。紹如來傳燈。續祖宗正脈。良久曰。千聖不能識。以拂子擊香案一下(廣善潭嗣已上二人)。

處州白雲無量滄禪師

示眾。二六時中。隨話頭而行。隨話頭而住。隨話頭而坐。隨話頭而臥。心如栗棘蓬相似。不被一切人我無明。五欲三毒之所吞噉。施為動靜。通身是箇疑團。疑來疑去。終日默椿椿地。聞聲見色。管取因地一聲去在(顯庵真嗣)。

明州用剛宗軟禪師

示眾。大凡做工夫。只要起大疑情。不失正念。千疑萬疑。祇是一疑。纔有間斷。即落空也。見汝等做工夫。未曾半月一月。打成一片。焉得不走作。果若真疑現前。撼搖不動。自然不怕惑亂。又不得起一念歡喜心。纔有絲毫異念。即打作兩橛。只管勇猛忿將去。終日如箇死漢子相似。到者般時節。那怕甕中走却鱉(和庵忠嗣)。

黔中正法雪光禪師

族趙氏。徧歷諸方。凡五臺峨眉普陀。諸名勝道場。及各祖開山處。無弗參訪。至靈峯度夏。聞舉嚴陽尊者問趙州公案。舉似寂照。照曰。無功用處。正好用功。莫認些子光影。有悞生平。復結冬於景德。一日於定中。聞巖瀑聲觸發。默舉從上佛祖機緣。一一透得○參潔空通禪師。從頭舉似之。通曰。不見道。莫謂無心云是道。無心猶隔一重關。道了便入寢室。師自是茫無意緒。懷疑不

決。一日見寒山子詩。吾心似秋月之句。凝滯頓釋。得蒙印證○後庵居古山。示眾。禪之一字。學者須真參實悟。纔知其中平坦捷徑。不可泛泛留心。或作或徹。須要死心用功。朝夕向三寶前。發大誓願。起大精進。將古人留下許多葛藤公案。盡皆丟下。萬萬不可將平日見聞。增大我慢。障我光明。遲則十年二十年。速則彈指剎那。自然有箇透脫處。直得千聖不傳之祕。不異繫珠衣裏。頓護故物。自有一種真切受用處。即所謂踏破鐵鞋無覓處得來全不費工夫者是也○師住古山。道風遐布。慈心接引。後學多增真實工夫。視師恩逾慈母。示疾之日。索筆書偈曰。如此而來。如此而去。欲叩真乘。如此而巳。遺命脫化後。七日封龕。香雲繞室。門下弟子及檀信千人。共覩掩龕。哀聲震谷云(潔空通嗣)。

性空和尚

嘗作顯宗歌曰。達此宗。無今古。拶破虛空還自補。聲色堆頭妙覺場。放去收來無間阻。體中妙。夜半木人臨鏡照。波斯南岸嚼寒冰。塞北兒童街市鬧。用中玄。石女吹笙碧樹巔。趙州葫蘆挂東壁。村中王老夜燒錢。玄中玄。妙中妙。寶絲網裏鬪明珠。須向暗中通一竅。海潮音。熾然說。師子筋琴彈白雪。兩岸青山笑點頭。百年狐兔形摧滅(雪峯瑞嗣)。

曹洞宗

南陽萬安松庭子嚴禪師

河南緱氏縣人。族姓樊。幼多疾病。父母許愿出家。九歲投少林霽雲師披剃。十八受具。博通內外典。詩古文辭。不學而能。更遞酬唱。下筆輒就。碩師鉅儒。無不以法器期之。初參江月照。息菴讓。皆有省發。後參淳拙才禪師。舉前所得質之。才曰。子不聞蠱毒之家。水莫嘗否。師曰。也須吞得入吐得出。始是好肚皮。才曰。蒼天蒼天。更添冤苦。師曰。謝和尚印可○復以參同契。寶鏡三昧。反覆徵辨。大豁疑礙。才曰。荷擔大法。盡在子躬。遂付以衣法。有五乳峯頭獅子子。光前耀後自超羣之句。時南陽萬安虛席。延師主之○洪武二年主少林。力田給眾。偈曰。亂後歸來自耨耘。生涯辛苦與誰論。晝拈塊石驅山鳥。夜坐巢菴逐野豚。腸斷秋風頻擊柝。目窺夜月以銷魂。近來始識農夫苦。一飯仍思施主恩○僧問地藏栽田博飯。與和尚是同是別。師曰。闌干雖共倚。山色不同觀。曰百丈開田說義。但展兩手。意旨如何。師曰。雖然無語。

其聲如雷。曰和尚又作麼生。師曰。晝拈塊石驅山鳥。夜坐巢庵逐野豚○問岩頭參洞山不肯洞山。嗣德山不肯德山。岩頭有甚長處。師曰。若肯二師。則孤負二師也。曰他道洞山好佛。祇是無光。却是如何。師曰。賺殺一船人。問和尚陞座。秦封槐因甚不來聽法。師曰。你還見秦封槐麼。闍黎若見。聽他說法有分○僧問達磨面壁時如何。師曰。早是魔魅了也。曰如何得剿絕去。師曰。倒搓芒繩縛鬼子(杖人盛贊曰。參了江月照。卻被松風吹。再謁息庵讓。臨機不見師。撞門淳拙鋪。毒蟲能吞吐。蒼天連叫冤。靈鑰真風度。五乳獅子兒。哮吼超羣去。岩頭何過師。不肯洞德老。賺殺一船人。煙波誰解討。秦槐不聽法。面壁已遺殃。左搓箇芒繩。秋草空斷腸)○十三年冬。周王為國母慈孝皇后悼資冥福。命師陞座說法。賜僧伽黎○後退老閒居。七十而化(香巖才嗣)。

佛巖稔禪師

上堂。英雄識英雄。豪傑喜豪傑。山僧非二者。一生友難結。獨有七尺藤。相憐還相悅。夜來忽反目。要打我腰折。諸兄弟。你道他為何如此。謂我太把達磨心髓。為人都漏洩。今早他又求懺悔。只為愛我之深。却乃悞了此祕訣。決然無人能辨別。山僧亦欲將他也拗折。豈不與彼成兩橛。乃卓拄杖曰。依舊兩生歡喜。閑非且拋撇(香巖才嗣)。

登封嵩山竹庵子忍禪師

鄧州內鄉王氏子。上堂。舉法鐙欽開堂曰。法鐙本欲棲藏巖竇。養拙過時。柰緣先師有未了底公案。出來與他了却。僧遽問如何是先師未了底公案。鐙便打曰。祖禰不了。殃及兒孫。曰過在什麼處。鐙曰。過在我殃及你。天童覺云。者僧若是箇漢。出來便與掀倒禪牀。不惟自己己有出身之路。亦免見祖禰不了。殃及兒孫。師云。山僧則不然。今日若有問如何是不了底公案。拈拄杖便打云。獅子咬人。韓獹逐塊(香巖才嗣)。

登封華嚴遇禪師

上堂。說到不如行到。行到不如忘套。如何得忘套去。靠拄杖曰。白雲不約來青嶂。綠水無心弄碧蟾。下座(香巖才嗣)。

陝州熊耳登禪師

上堂。達磨皮鞋一隻。不知是誰竊了去。尚有此話大行。莫道無可憑據。噫。若是一向恁麼去。則今日使箇全無些子興趣。乃拋下一隻鞋曰。者箇還當得麼。自笑曰。也祇要此話大行。下座(香巖才嗣)。

古蔡元禪師

小參。今夜不答話。僧出。師曰。討棒喫的漢。有甚了期。僧曰。何不使棒。師曰。賊是小人。拈拄杖。便歸方丈(香巖才嗣已上六人)。

天寧才禪師

上堂。山僧一生性急了弄成病。又因性急了弄去病。只因性急了多敗闕。又因性急了多補闕。如今垂老急不得。却又不急不得。如何是好。仔細看來。事到頭來不自由。汝等又作麼生。卓拄杖。便下座(空相珪嗣)。

南陽維摩懷禪師

上堂。僧問文殊問疾時如何。師曰。掬水月在手。曰維摩獨臥時如何。師曰。弄花香滿衣。曰三十二菩薩。說不二門時如何。師曰。穿花蛺蝶深深見。曰維摩文殊。互相激揚時如何。師曰。點水蜻蜓款款飛。曰和尚是僧。如今却演俗詩。師曰。一滴水墨。兩處成龍。曰和尚善讀唐詩。師曰。我知汝不善讀唐詩(空相珪嗣)。

雒陽天慶能禪師

示眾。一人有慶。兆民賴之。杖子有幸。麟鳳紛飛○僧問盲龜跛鰲時如何。師曰。好箇堂堂老大隨。草鞋覆却骨包皮(空相珪嗣)。

韶陽雲門愍禪師

參空相珪。問一見便去時如何。珪曰。太鹵莽生。師曰。深入堂奧時如何。珪曰。太穿鑿生。師曰。恁麼則節拍相應去也。珪命維那明窗下安排者杜撰衲子。維那曰。既是杜撰衲子。如何安排明窗。珪曰。你試杜撰看。那擬對。珪即逐出。師大笑。珪攜手親送入客寮。後出世雲門(空相珪嗣)。

陝州安國仁禪師

上堂。以手加額曰。日早晚也。侍者曰。老和尚照顧眉毛好。師曰。善哉。照顧眉毛去。遂下座(空相珪嗣)。

大都天寧壽禪師

上堂。驢事未了。馬事到來。茫茫大地。誰是放懷。阿呵呵。師去來。無根樹子清風起。不待春回花自開(空相珪嗣)。

遼州定禪師

僧問如何是西來意。師曰。胡地冬抽筍。曰若遇客來時如何。師曰。你莫思量我。別甑炊香飯供養你。曰何以克當。師曰。茅屋麤疏。聊喫一頓。便打。曰深感盛欸。師笑曰。小人偏捏怪(空相珪嗣)。

解州沿禪師

僧問。有一問犯尊諱時如何。師打曰。賞你一箇大膽。曰沿門乞丐。是何行履。師又打曰。賞你一箇小心。曰恁麼則小出大遇也。師曰。合眼跳河(空相珪嗣)。

曜州顯禪師

僧問打地和尚。被人撤去拐子時。如何只用口咬天。師曰。今日又咬者箇頑皮漢。又問。彼門人因人問。便拋柴在鍋中時如何。師曰。龍生金鳳子。冲破碧瑠璃(空相珪嗣已上九人)。

金陵靈谷潔菴正映禪師

撫州金谿洪氏子。幼入安仁三峯為沙彌。洪武丙寅。試經得度。謁靈谷巽中謙禪師。方入門。懷中香忽墮地。遂有省。謙命領維那。謙沒。往天界參雪軒成公。軒命典藏。會泉州開元寺虛席。乃鬻舉奉勅入院日上堂。僧問法筵肇啟。四眾具瞻。皇恩佛恩。如何普報。師曰。甘露泉開流大地。曰報恩一句蒙師指。西來祖意若為宣。師曰。庭前石塔聳寒空。曰恁麼則遍界不曾藏也。師曰。汝見箇甚麼。曰某甲終不敢自瞞。師曰。切莫眼花。問如何是和尚為人

一句。師曰。兔角杖挑天上月。龜毛拂散海濱雲。曰恁麼則龍天胥慶。僧俗歸仁去也。師曰。且合取口。僧禮拜。師乃曰。山僧蒙恩。點住此剎。親蒙天語叮嚀。付以清心潔已四字。此是傳佛心印。亦是順海明珠。既已頂戴南來。亦要普施大眾。須知世法佛法。落霞與孤鶩齊飛。古佛今佛。秋水共長天一色。天心罔測。山益高而海益深。聖語難窮。天普蓋而地普載。大眾作麼生會聖意去。莫是不染世塵麼。莫是不貪法味麼。莫是不飲無為酒。不坐涅槃牀麼。若恁麼會。非則不非。是則未是。山僧今日不敢久祕。未免當堂指出去也。木人舞出法堂前。一任炎天飛白雪。下座(永樂元年朝京回福州諸山舉住雪峯寺時殿宇老敗師一舉而新之人咸以為應雪峯再來之識)○後卒於金陵靈谷。有語錄名古鏡三昧行世(靈谷謙嗣○祖派圖以師嗣清遠渭者非是蓋誤以報國謙為靈谷謙也)。

陝州熊耳松溪子定禪師

偃師馬氏子。七歲禮古巖祝髮。迨巖遷化。往參息菴。命師主藏。因白事次。言下豁然大悟。出世熊耳山○小參。宗門中事。號曰單傳。一心之外。更無餘法。祇為此土眾生。好在言句中著脚。甘在道理中埋殺。於一心之法。轉增迷悶。所以初祖西來。打破舊日窠臼。闢開別樣乾坤。非是好奇立異。祇是見病與藥。非為得已。如初祖一到少林。三緘其口。九年面壁。坐斷一切枝葉。單提向上巴鼻。任你窺伺無門。鑽研不入。者裏不可以有言會。不可以無言會。不可向格內通。不可向格外通。直須忘情泯見。方可得其心髓。則諸佛之法印。列祖之慧命。無出於此。按一指而地轉天旋。行一令而山崩海竭。又安用割截虛空。巧立門戶。隨波逐浪。別生枝節哉。今日許多禪和。不知務本。祇尋枝摘葉過日。不知有甚用處。如洞山玉線金針。大似花前弄影。臨濟三玄三要。無非醉後添盃。諸人還看得破麼。良久曰。夜靜水寒魚不餌。滿船空載月明歸○師之勘辨學者。凜若秋霜烈日。隨機應酬。如盤走珠。一日示寂。謂門弟子曰。吾世緣已畢。化時至矣。汝輩勿以世情眷戀。有乖道誼。末後一句。聽吾分付。言訖。泊然而逝(天慶讓嗣)。

舜都宗禪師

僧問如何是長老家風。師曰。飢餐鐵釘飯。渴飲木札羹。曰作家到來。以此相待。遇著俗漢。又作麼生。師便打曰。聊當點心(天慶讓嗣)。

空杏偉禪師

僧問忽遇大蟲時如何。師曰。還見大空小空麼。僧作虎吼。師曰。者畜生[跳-兆+孛]跳作麼。曰如何得不[跳-兆+孛]跳去。師曰。空杏門下無弱將(天慶讓嗣)。

廣平實禪師

僧問九蠻十八洞中。是甚麼人教化得。師曰。拄杖子。曰他不曾鄉談。師曰。獨有此子伶俐。曰敢乞和尚借去為引導如何。師便打曰。他那肯與人作情面(天慶讓嗣已上四人)。
續指月錄卷十二

續指月錄卷十三

六祖下二十九世

臨濟宗

杭州東明寶峯智瑄禪師

蘇州吳江范氏子。在俗為木匠。因海舟和尚造塔院。斧傷自足。痛甚。索酒喫。舟聞之。往謂曰。適來范作頭傷足猶可。假若斫去頭。有千石酒與作頭喫。作頭能喫否。師恍然有警。遂求為僧。舟即與披剃。曰今日汝頭落也。師曰。頭雖落。好喫酒人。頭不落也。乃充火頭。一日負柴次。舟見曰。將荊棘作麼。師曰。是柴。舟便呵呵大笑。師罔然無措。舟曰。是柴將去燒却。師起曰。和尚畢竟是甚麼道理。故問我。我不能答。是日刻意參竟。不覺被火燎去眉毛。面如刀割。以鏡照之。瞎然大悟。作偈曰。負薪和尚喚為棘。火燄燒眉面皮急。祖師妙旨鏡中明。一鑑令人玄要得。乃呈於舟。舟便打。師奪拄杖曰。只條六尺竿。幾年不用。今日又要重拈。舟大笑。師又呈偈曰。棒頭著處血痕斑。笑裏藏刀仔細看。若非英靈真漢子。死人喫棒舞喃喃。舟曰。即此偈語。可紹吾宗。果是從緣入者。永不退失。從疑得者。妙用隨機。乃付偈曰。臨濟兒孫是獅子。一吼千山百獸死。今朝汝具爪牙威。也須萬壑深山止。從此名聞遐邇。學者雲集○一日天琦瑞參。師問甚處來。琦曰。北京。師曰。只在北京。為復別有去處。琦曰。隨方瀟灑。師曰。曾到四川麼。琦曰。曾到。師曰。四川境界。與此間如何。琦曰。江山雖異。雲月一般。師舉起拳曰。四川還有者箇麼。琦曰。無。師曰。因甚却無。琦曰。非我境界。師曰。如何是汝境界。琦曰。諸佛不能識。誰敢強安名。師曰。汝豈不是著空。琦曰。終不向鬼窟裏作活計。師曰。西天九十六種外道。汝是第一(石車乘拈曰寶峯應機縣密覲面活埋不是天琦和尚泊合失卻一隻眼雖然如是且如何是西天九十六種外道底第一良久云諸佛不能識誰敢強安名金粟恁麼道卻是黑豆換眼睛○法音[沆-几+桀]曰[沆-几+桀]上座仔細檢點將來三大老總不出九十六種外道內何故有舌無口)○琦拂袖便出。師以偈付曰。濟山棒喝如輕觸。殺活從教手眼親。聖解凡情俱坐斷。曇花猶放一枝新。時座下得法五人。琦居首焉○成化八年壬辰。十二月九日。師無疾而逝。全身塔於東明寺右(海舟慈嗣)。

廬山雲溪碧峯智瑛禪師

少未讀書。苦不識字。晚年信口成章。時多奇之。囑門人智素偈曰。見徹孃生親面目。從今保守者天真。爪牙養就崢[山*寧]日。哮吼一聲百獸驚(海舟慈嗣已上二人)。

邵武君峯清祥上座

大闡問曰。何者是有。何者是無。有無都不計。後作麼生。師曰。有即是生。無即是滅。有無都不計。非生亦非滅。故曰。佛性不生不滅。佛性即是自性。自性即是佛性。有無不計。獨露真如自性。更無別說。有即是幻。無即是化。有無不計。非幻亦非化。是名離幻即覺。常覺不住。故曰真如妙心。有即是惡。無即是善。有無不計。非惡非善。生死永斷。故曰菩提。故曰般若。故曰妙法。故曰妙心。故曰三世諸佛。故曰列代祖師心印。亦名自性圓通。倒去顛來。縱橫自在。無坐無禪。無修無證。無定無亂。望師慈悲。證其虛幻。復呈偈曰。法性空無礙。平等觀自在。截斷兩頭機。是名超三界。闡曰。宜深保養。不宜速說(君峯通嗣)。

杭州徑山天才英禪師

嘗曰。默堂和尚。平地上涌起波濤。虛空敲出木楔。中毒氣回來。剛道親見寶月。不知瞎却多少人眼睛。呀。泊合饒舌(天寧宣嗣)。

金陵碧峯天通顯禪師

玉芝問。碧峯寺裏有如來。莫便是和尚否。師曰。上座還見麼。曰縱見得。也是金屑落眼。師曰。這漢死來多少時。汝來為他乞命。轉身歸方丈。明日上堂。舉古德云。打破大唐國。覓箇不會佛法的也無。又曰。向南方走了一轉。拄杖頭上不曾撥著箇會佛法的。此二句甚有誦訛。試為酬一語看。芝曰。前不邁村。後不迭店。曰未在。再道。曰不遇知音者。徒勞話歲寒。師復問曰。汝向南參。有何言句。試道看。芝舉前悟道偈曰。湖光倚杖三千頃。山色開門五六峯。觸日本來成現事。蒲團今不鍊頑空。滿目風光足起居。有誰平地別親疏。縱令達磨傳心訣。問著依然不識渠。師曰。非非。芝曰。云何非非。師曰。子不非非。恁人非非。梁皇達磨。兩不見機。何勞折葦。又遣人追。古之今之。落人圈纈。曰如何得不落人圈纈。師打一掌。曰是落也。是不落也。芝聞師示。將平日所蘊。泮然冰釋。即展謝去○師遊西湖宗鏡堂。升法座曰。此處正好說

法。芝從傍唱曰。說法已竟。師便下座顧曰。何者是我說法處。芝曰。劍去久矣。師笑而頷之(東方裕嗣)。

杭州天目寶芳進禪師

參夷峯寧有省。付法偈曰。真性本無性。真法本無法。了知無法性。何處不通達○師臨終。呼門人問曰。有水否。從者以湯進。師叱曰。水以取淨。何用煖耶。汝等可易來。從者易水至。師[口*敕]口作梵唄聲曰。生如水濁。死如水清。清濁無定。是箇恁麼。大喝一聲而寂(夷峯寧嗣)。

荊州圓通夢菴懶牧湛覺禪師

長安曲江張氏子。幼慕禪悅。從藍田秀芟染。矢志究明生死大事。朝夕孜孜。至於寢食俱廢。一日有省。往見性空。求為決擇。遂蒙印證○成化丙戌。開法圓通。上堂。選佛場草深三尺。空王殿浪捲千尋。圓通有一句子。囀圖吐不出。吐出不囀圖。若有人檢點得出。許他具一雙眼(性空法嗣)。

曹洞宗

西京少室凝然了改禪師

嵩陽金店任氏子。自齟齬繫念空宗。依訓公剃落。知有己躬下事。遂依止祖庭。廿歲納僧服。初參月印於香山。涉歷寒暑。鮮克契入。會松庭嚴禪師主天慶。師往依之。每以己事咨扣。舉印示眾。路逢死蛇莫打殺。無底籃子盛將歸語。從此深明洞上宗旨。師乃問曰。這箇莫是背觸不得底意麼。嚴曰。笑破山僧口。師聞罔措。嚴呵曰。你在鬼窟裏討甚麼碗。師愈不安。一日嚴上堂曰。一言迴脫。獨拔當時。師當下釋然。舉似嚴。嚴乃印可。歸隱二祖菴○洪武二十三年。請主少室。上堂。祖師心印。不是有言。不是無言。不是有知。不是無知。豈可向言句下研窮。意識中揣度哉。昔日祖師初來。販得久遠滯貨。無人承當。祇得九年面壁。後來二祖。却似癡猿捉月。來問安心。這老漢也是憐兒不覺醜。向他道將心來與汝安。二祖便承虛接響。喚作得髓。看來也好與三十棒。何故。纔涉唇吻。便隔千山。諸人還會麼。咄。山僧今日與麼道。也好與三十棒○上堂。莫向言中取則。直須句外明宗。若能如是會。徹古徹今。自由自在。知麼○師嘗有山居詩曰。嵩山萬丈絕躋攀。長夏松

風儘日閒。自笑鼻頭雙孔大。氣通天地有無間○題石羅漢曰。巖頭一尊石羅漢。藤作髭鬚向風戰。千年從不化齋糧。身心如一無更換○趺坐山頭數百秋。也無歡樂也無愁。縱然血浸齊腰雪。羨爾惟將一默酬○永樂庚子。無恙。忽召眾敘別。說偈曰。壽年八十七。出息復入息。撒手威音外。縣縣與密密(五燈續作撒手威音前金烏叫天碧○杖人覺浪盛頌云香山月印再三撈還來松庭覓甚碗路逢死蛇盛將歸鹵莽卻來弄擔板笑裂山僧臭口門一言獨拔出行欸久販滯貨捉月癡猿句外明 宗大蟲紙裏得髓須教三十棒莫聽千峯啼杜鵑)○師平日行止端莊。王侯敬仰。周蜀伊三藩。登山供養。厚贈珍貝。師泊如也(松庭巖嗣)。

續指月錄卷十三

續指月錄卷十四

六祖下三十世

臨濟宗

竟陵荊門天琦本瑞禪師

南昌鍾陵人。父江堂。母徐氏。年二十。忽念色身無常。棄家遠遊。投荊門無說能薙髮。能示萬法歸一。一歸何處話。後遇高郵全首座。同往襄陽。途中偶聞婦人呼豬聲。全曰。阿孃牆裏喚哪哪。途路師僧會也麼。搗破者些關楨子。孃孃依舊是婆婆。師矍然汗下。一日染病甚劇。有暉禪者勉師曰。病中工夫。切不可放過。昔大慧和尚。在徑山患背瘡。晝夜叫喚。或問和尚還有不痛底麼。慧曰。有。曰作麼生是不痛底。慧曰。痛殺人。痛殺人。師於言下豁然○又一日聞山鹿叫喚。會得日用之中。無不是底道理。復往蜀中謁楚山。問曰。某甲閒時看來。了然明白。及至臨機。因何茫然。山曰。毫釐有差。天地懸隔。後遊金陵。途中。忽然如從夢覺。從前所得。一場懣懣。遂參寶峰瑄和尚於高峰。鍼芥相契。遂蒙印證○師一日對普照太初舉云。不論向上三玄。要了末後一著。初云。如何是末後一著。師曰。風吹牆畔柳。日曬澗邊榆。照云。青山低處見天闊。紅藕開時聞水香。初作噦聲云。正是弄嘴。師云。你作麼生。初云。如人上牆百無計。師作噦聲。起身歸位(石車乘拈曰一噦聲百無所計一噦聲起身歸位具眼的辨看)○示眾曰。世間無法。出世間無法。會得者箇無法。歸家穩坐(笑巖寶別曰若會得者箇無法且請上居門外○法音[沆-凡+桀]曰若會得者箇無法三生六十劫何也大似傍若無人)○一日舉金剛經滅度一切眾生話。師云。先聖先賢。皆要絕後再甦。我即不然。何故。松之本翠。柏之本蒼。去歲半斤。今年八兩。且道還有絕之與甦。若能會得。始是欺君不得。若然不會。切莫造次(笑巖寶拈曰堯絕老人貴要圖箇本分不知翻成分外)○示眾。祖師西來。不立文字。直指人心見性成佛。更無別法。若向者裏知箇落處。定也有分。慧也有分。宗也有分。教也有分。佛法世法。無可不可。腰纏十萬貫。騎鶴上揚州。其或不然。定也不是。慧也不是。宗也不是。教也不是。蓋為不識本心。名為狂妄。經云。虛妄浮心。多諸巧見。不能成就圓覺方便。諸佛諸祖。惟傳一心。不傳別法。汝等不達本心。便向外求。於妄心中。起妄功用。所謂如邀空華。欲結空果。縱經塵劫。只名有為。須知見性成佛。性乃不是見他人之性。佛乃不是成他人之佛。決定是汝諸人本有之性。與十方世界。秋毫不昧。人

人本具。箇箇不無。但向二六時中。一一之處。回光返照。看是阿誰。不得執定。祇在一處。須是於一切處。大起疑情。將高就下。將錯就錯。一絲一毫。毋令放過。行時便看者行底是誰。住時便看者住底是誰。坐時便看者坐底是誰。臥時便看者臥底是誰。見色時。便看者見底是誰。聞聲時。便看者聞底是誰。覺一觸時。便看者覺底是誰。知一法時。便看者知底是誰。乃至語默動靜。回頭轉腦。屙屎放尿。著衣吃飯。迎賓待客。周旋往返。一一返看。晝夜無疲。倘若一念忘了。便看者忘了底是誰。妄想起時。便看者妄想底是誰。你道不會。只者不會底又是阿誰。現今疑慮。你看者疑慮底又是阿誰。如是看來看去。不妨頭頭獨露。法法全彰。萬境不能侵。諸緣不能入。得失是非。都無縫罅。明暗色空。了無彼此。山河大地。日月星辰。盡聖盡凡。都盧祇是一箇誰字。更無別念。上下無路。進退無門。山盡水窮。情消見絕。豁然爆地一聲。方知非假他求。不是一番寒徹骨。爭得梅花撲鼻香(寶峯瑄嗣)。

匡山天池林隱淨菴智素禪師

東萊趙氏子。早年父母俱喪。年十五祝髮。謁雲溪瑛得旨。後住天池。上堂。體露金風光皎潔。一色明明無間歇。羚羊挂角覓無踪。海底蟾蜍吞却月○荆藩請住東山。上堂。在天天高。在地地厚。一毫端上。應時納祐。此猶是者邊事。且道那邊事作麼生。拊几曰。釋迦睡重。彌勒起遲。下座(雲溪瑛嗣)。

嘉興東塔野翁曉禪師

無趣空參。每呈見解。師皆不諾。一日謂趣曰。我有一言。要與汝說。空聳耳而聽。師但笑而不語。空再四懇請。師復笑。空始具威儀作禮。跽而哀懇。師乃曰。祖師西來。直指人心見性成佛。貴在直下體究。子若果信得及。可放下萬緣。參箇一歸何處。空從此死心看話頭。經三載。一日聞雞鳴有省。詣師求證。師反覆徵詰。後付衣拂。復示偈曰。非法非非法。非性非非性。非心非非心。付汝心法竟(寶芳進嗣)。

嘉興天寧法舟道濟禪師

郡之張氏子。年十八。猛省出家。父母難之。至二十一歲。投天寧為行者。祝髮。參吉庵祚。庵門庭孤峻。師朝夕咨叩。一日聞磬聲。豁然洞徹。庵印可之。未幾長安覺王寺。請居第一座。室中秉

拂。機用莫能湊泊○嘉靖初。住金陵安隱。僧問如何是安隱境。師曰。三山半落青天外。二水中分白鷺洲。曰如何是安隱家風。師曰。石虎山前鬪。泥牛水底眠。僧曰。不會。師曰。用會作麼○精嚴晚參。精嚴寺裏撞鐘。府譙樓上擂鼓。同時顯大神通。穿透千門萬戶。大眾還聞麼。若道不聞。爭柰鐘鼓分明。人人有耳。若道聞。將甚麼聞。即今鼓絕鐘消。聞底事作麼生。試道看。卓拄杖黃金自有黃金價。終不和沙賣與人○陸五臺居士。問畫前元有易不。師曰。若無。伏羲將甚麼畫。士曰。畫後如何。師曰。元無一畫。士曰。現有六十四卦。何得無言。師曰。莫著文字。士曰。請和尚離文字。發一爻看。師召居士。士應諾。師曰。者一爻從何處起(普明用拈云畫前畫後論有論無總與大易無涉直饒一喚一諾爻象分明也未是衲僧極則畫前原有易否天寧者漢何不當頭便喚五臺待他應諾卻好云元有易否陸公者裏必然別有所入且免後來許多周遮○玉林琇頌云倒垣破屋住幽林徹後通前不掩門轉北回南接影響可憐咫尺隔千層○一初元頌云義皇殿上話庖氏夫子庭前毀仲尼共住都因不相識卻教腦後擊金椎)○士又問。至人無夢。何也。師曰。常人於現前虛幻。分別境界。不知全體是夢。認為實有。而以昏昧想心。繫念神識。紛飛境界為夢。所謂夢寐俱夢。夢中復作夢也。至人於自心境界。如實而知。故於現前虛幻境界。妙用泠然。通徹無礙。而睡夢亦自明明而知。歷歷而覺。所謂寤寐一如者也。故至人無夢之說。非有無之無。乃是無夢無非夢。夢與非夢。一而巳矣○士又問。夢裏須臾。何以歷涉萬里。師彈指一下。曰千里萬里。只在者裏。問聖人有妄念不。師曰。無。曰既無妄念。何用兢兢業業。師曰。兢兢業業。故無妄也○問為政如何得無倦。師曰。榮辱得喪。毀譽是非。一切不管。但虛其心。行其所無事。則無倦矣○問終日吃飯。何故不曾齧著一粒米。師曰。吃飯底人。居士還曾見不○士問。四方上下有窮盡不。師曰。居士試返觀自己心量有窮盡不。士良久曰。實無窮盡。師曰。世界亦然○士又問。地獄實有不。師曰。人作了惡。歷歷自知。雖經久遠。憶持不忘。便是業境自心。明知自惡不能自釋。便是法王心地不空。地獄實有。心若空了。地獄隨空○示人偈曰。工夫不間四威儀。聽板聞鐘好下疑。打破未生時面目。好來爐畔受鉗鎚。道本無為豈屬修。有修頭上更安頭。虛空若使重加柄。野草閑花正好愁。將謂衣中有寶珠。衣穿方信寶珠無。前年尚有無珠說。今日無珠說也無。內不尋思外不求。大千沙界一毫收。塵塵剎剎蓮華藏。認著依然是外頭。人人心上古彌陀。末法人中不信多。念念他方求佛法。不知念念是彌陀○後遷弁山。晚年復退歸天寧。庚申秋示疾。或請說偈。師舉手搖曳而逝(吉庵祚嗣)。

湖州天池月泉玉芝法聚禪師

嘉禾富氏子。兒時每藉地趺坐。折草念佛。人皆為其親曰。此兒他日必為佛弟子。稍長。淹通經史。年十四。從資聖堅法師受業。苡染受具。矢志參學。夙夜匪懈○一日閱壇經有省。往謁吉庵祚。不契。復見法舟濟。多所啟發。偶會陽明王公於多士中。王拈袖中鎖匙。問師見麼。師曰。見。王復納入袖中。曰見麼。師曰。見。王曰。未在。師疑不決。一日聞僧舉僧問大顛和尚。如何是見性。顛曰。見即是性。不覺釋然一笑。述偈曰。湖光倚杖三千頃。山色開門五六峰。觸日本來成現事。蒲團今不鍊頑空○後往結制於漏澤之雲峰。忽憶雪巖和尚。問高峰正睡著時。無夢無想。無見無聞。主人公在甚麼處。便有見處。究未脫然。一日聞友人誦天通顯禪師。碧峰寺裏有如來之句。遂詣碧峰。纔見。便問碧峰寺裏有如來。莫便是和尚不。顯曰。上座還見麼。師曰。總見也是金屑落眼。顯曰。者漢死去多少時。汝來為他乞命。便歸方丈。次日顯上堂。舉古德曰。打破大唐國。覓箇不會佛法底也無。又曰。向南方走了一轉。拄杖頭不曾撥著一箇會佛法底。此二語。甚有誦謔。試為酬一語看。師曰。前不構村。後不迭店。顯曰。未在更道。師曰。不遇知音者。徒勞話歲寒。顯曰。有甚得力句。試舉看。師遂呈二偈。顯曰。未免落人圈襪。師曰。如何得不落人圈襪。顯便掌曰。是落不落。師豁然大悟。平昔所蘊。皆冰釋。已而侍顯過杭。遊南屏。至宗鏡堂。顯登座曰。此處正好說法。師曰。說法已竟顯便下座。顧師問曰。何者是我所說底法。師曰。劍去久矣。顯領之。遂蒙印可。後歸隱天池。衲子日臻。遂成叢席○示眾。至道無為。非有為無以造其深。絕學無學。非力學無以臻其極。譬猶玉之在璞。珠之在淵。非剖鑿探求。終無以獲。故雪山苦行六年。少林壁觀九載。以至斷臂求法。腰石負舂。趙州三十年。不雜用心。香林四十年。方成一片。孜孜矻矻。廢寢忘餐。惟欲究明大事。者皆參禪學道之榜樣也。柰茲禪林秋暮。法道荒涼。逐妄隨邪。無復自振。惟知粥飯現成。不愧虛消信施。或遊心異學。肆志便聰。或穿鑿機緣。馳求義解。是皆唐喪光陰。徒增業識。如舍父窮子。飄轉無據。可勝嘆哉。若是英靈漢。直須於生死岸頭。猛著精彩。一念純真。纖塵不立。如遇怨敵。單刀直入。不顧危亡。如墮深井。念念無他。但求出路。若能具如是深心。管取到家有日在○僧問金軀初降。九龍吐水。聖誕重逢。未審有何祥瑞。師曰。金鳳銜華呈瑞彩。錦鶯翻調奏新簧。曰周行指顧示真機。今日如何露消息。師拈拄杖曰。拄杖子。上透三十三天。築著帝釋鼻孔。下透十八重地獄。擊破閻羅王頂門。俯應羣機。萬象森羅咸稽首宣揚般若。大地山河側耳聽。僧曰。恁麼則昔時靈鷲。今日天池。師曰。一道神光輝宇宙。莫將今古較疏親。便下座○陸五臺居士。問東土一千七百善知識。即今

總在什麼處。師指庭樹鳴蟬曰。者裏也有一箇。士曰。聲響便是麼。師曰。喚作聲響。即蹉過也。士又指石問曰。無情說法。只如者箇作麼說得。師曰。居士喚者箇作什麼。士曰。石頭。師曰。又道說不得○師於嘉靖癸丑。五月十九日示寂(天通顯嗣)。

建寧雙峰古音淨琴禪師

本郡建陽蔡氏子。自幼卓犖不羈。每嘆曰。世間有求皆苦。不如早覓箇出身處。年二十五。從東峰祝髮。初見大闡。無所啟發。次謁性空關主。一日見座下尊宿靜晃閱古梅語錄。中有僧上方丈曰。某有箇入處。梅便打出。僧又進方丈。梅復打出。晃笑曰。者僧實有悟處。只是大法未明耳。師聆晃語。便起身設禮。求示入道旨要。晃曰。佛性雖人人本有。若不以智慧攻化。只名凡夫。今欲成辦此事。直須盡掃葛藤枝蔓。只將一句無義味話頭。自疑自問。自逼自拶。不肯求人說破。不肯依義穿鑿。決要命根頓斷。親證親悟。如此晝三夜三。迫勒將去。年深月久。忽然心華發明。如雲開見日。古人公案。一一洞了。始知無禪可參。無佛可做。頭頭上了。物物上通。如人到家。不問路也。師蒙示誨。即死心研究。看萬法歸一。一歸何處話。復過滇南參壽堂。抵雞鳴灘。忽然大悟。泊見壽堂。鍼芥相投。即承記莛。歸隱雙峰○正德壬申。遷瑞巖。示眾。學道人當截斷諸緣。屏息雜念。單提本參話頭。於行住坐臥。苦樂逆順。一切時中。不得忘失。凡靜中所見。善惡境緣。皆由不正思惟。但只瞑目靜坐。心不精采。意順境流。半夢半醒。或貪靜境。致見種種境界。若是正因衲子做工夫。當睡便睡。一覺便醒。起來抖擻精神。摩娑兩眼。齧定牙關。捏緊拳頭。專心正念。切切惺惺。疑來疑去。到水窮山盡時節。忽然疑團迸散。頓見自己一段本地風光。非從外得。到者箇時節。纔名入門得地。更要求明眼宗匠。決擇不可便休。一法不明。直須辨明。一理不通。直須通透。假使悟後不能通達化門。古人謂之坐在百尺竿頭。不能至於一切智海。懸崖撒手。自肯承當。絕後再甦。欺君不得。珍重(壽堂松嗣)。

杭州徑山萬松慧林禪師

郡之仁和沈氏子。從天目平舒。獲聞心要。後遊金陵。聞僧誦丹霞禪師上堂語。遂大徹。時伏牛空幻覺禪師寓廣德。師往謁。呈所見。即蒙印可。後往徑山。一日辭眾。書偈曰。七十六年。萍踪何倚。本無去來。應緣而已。書畢而逝(金臺覺嗣)。

曹洞宗

西京嵩山萬壽俱空契斌禪師

平陽垣曲人。族姓王。從重興院無相法師薙染。久而參方。謁凝然改禪師於嵩山。求示心要。改曰。你向達摩未西來時道一句看。師無以對。心甚疑之。一日覩秦封槐。豁然契悟。徑往丈室。擬舉似問。改遽謂之曰。契斌參得禪也。師便喝。改曰。喝作麼。師曰。和尚何得以脏誣人。然曰。趙州勘破婆子。婆子敗闕在甚麼處。師曰。一對無孔鐵鎚。然曰。趙州意又作麼生。師曰。荊棘林中。重加陷阱。然曰。石頭書亦不通。信亦不達。是何意旨。師曰。千里同風。然曰。青原垂足。又作麼生。師曰。禍事禍事。然曰。洞上一宗。密在爾躬矣○景泰四年。主祖庭。僧問如何是空劫已前事。師曰。烏龜向火(愚菴孟云料掉沒交涉且道過在主家賓家者裏明得方許你會空劫已前底事如或不明且看烏龜向火○龍唐柱云恁麼舉揚還當得空劫已前事麼天色稍晚各自歸堂參取好)○問如何是正中偏。師曰。夜半烏雞帶雪眠。曰如何是偏中正。師曰。老翁抱著石烏龜。曰如何是正中來。師曰。出匣吹毛寒逼人。曰如何是兼中至。師曰。公孫舞劍難思議。曰如何是兼中到。師曰。黑狗銀蹄無處討。曰五位既蒙師指示。少林直指事如何。師曰。沙裏無油。麥中有麩○僧問如何是君。師曰。誰能窺測九重深。曰如何是臣。師曰。萬里山河點墨痕。曰如何是君向臣。師曰。寶殿光含萬化新。曰如何是臣奉君。師曰。玉階仙仗龍顏近。曰如何是君臣道合。師曰。端拱無為天下平。曰向上還有事也無。師曰。闍黎珍重始得。僧禮拜。師微笑曰。山僧今日不著便。下座○景泰壬申。師示寂。塔於少林之西塢(凝然改嗣)。
續指月錄卷十四

六祖下三十一世

臨濟宗

隨州龍泉無聞絕學正聰禪師

邵武光澤人。族姓奚。母吳氏。髫年出家。二十受具。習止觀唯識論。一日有宿衲詰師曰。大通智勝佛。十劫坐道場。佛法不現前。不得成佛道。其意云何。師依文答之。宿譏訶而去。師從此激勵。疑情頓發。坐臥不安。經六載。一日聞馬嘶大悟。遂往見天琦瑞和尚。纔禮拜。瑞便打。師曰。某甲適來草草。觸忤和尚。瑞曰。老僧今日被上座勘破。師曰。和尚是在世忘世。在念念忘。某甲豈能勘破。瑞曰。在世忘世是如何。師曰。了物非物。曰在念念忘是如何。師曰。於心無心。曰心物俱忘時如何。師曰。華山高突太行峩。瑞頷之。遂蒙印可○住後。上堂。舉僧問雲門。如何是一代時教。門曰。對一說。龍泉則不然。若有問山僧。如何是一代時教。劈脊便打。曰合取狗口○僧問如何是本來面目。師曰。石香亭。曰便恁麼去時如何。師曰。喪却了也(笑巖寶拈云放去較危收來太速頌曰古雲峯頂人難覩偶被風吹映夕霞百鳥未歸天已晚夜深依舊宿蘆花○石車乘拈云聰和尚雖則不負來機和盤托出索者僧依語生解若問山僧如何是本來面目劈脊便打待者僧云恁麼去時如何復打云十萬八千且道與古人相去多少試簡點看)○僧問今朝四月八日。天下叢林皆慶如來降誕。未審如來何處降生。師於几上畫圓相示之。僧無語。(笑巖寶[仁-二+(?/下)]僧作禮云盡界普瞻)○師一日忽遁去。不知所之。門人蹤跡久而不得。越二年。師復歸山。七月朔夕。師謂眾曰。因心不了又遊方。吳越山川路渺茫。拄杖一條擔日月。龍泉寺裏話偏長。偈畢。以拄杖擲地。跌坐而逝(天琦瑞嗣)。

沔州古巖濟禪師

中年目盲。僧笑巖寶參。師問何處所來。寶曰。親從關子嶺來。師曰。無聞老兄好麼。巖曰好。師曰。如何見得好。巖曰。老來康健。師曰。爭見得康健。巖曰。著衣喫飯。坐臥經行。師曰。與麼則不出常情。巖曰。要且常情莫測。師仰面大笑。翌日巖入室。師曰。嶺頭老兄。先師嘗許他。悟處見骨。只是太朴無博學。巖曰。和尚博學乎。師曰。老僧亦非博學。巖曰。恁麼則一同也。師曰。亦有不同處。巖曰。如何是不同處。師曰。他有眼我無眼。巖曰。

和尚若無眼。爭見得無無博學。師又大笑。囑曰。子器非凡。宜深根固蒂。廣作利益。非汝而誰。惜吾衰老。不及見矣。巖拜謝而去(天琦瑞嗣)。

伏牛際庵大休實禪師

新鄭李氏子。幼嬰疾苦。甫數歲。父母慮其不育。命投寶珠受業。年二十。訪老宿古心。示萬法歸一。一歸何處話。尋入火場。打三有省。述偈曰。法身本無相。法相本來空。會得者消息。處處顯家風○後往謁天琦瑞和尚。途中遇天真月印二禪客。同至關子嶺。琦問你三人一路麼。師曰。雖然一路。來處不同。琦曰。如何是你本來面目。師便珍重。琦曰。未在更道。師便喝。琦曰。父母未生前。喝箇甚麼。師無語而出。自後數呈伎倆。琦皆不諾○一日侍琦於承天。琦問曰。藏身處。沒蹤蹟。沒蹤蹟處莫藏身。你作麼生會。師曰。當堂不正坐。那赴兩頭機。琦為助喜○住後陞座。須彌作舞。海水騰波。龍象交參。人天共聚。大地山河。同宣妙句。三賢十聖。共證菩提。眉藏寶劍起寒光。袖隱金鎚行正令。明殺活。顯金機。舉拂子。還有明眼衲僧。不顧危亡。向前一肩擔荷得麼。便下座○僧笑巖寶參。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豎起拂子。寶曰。此外更有指示也無。師擲下拂子。寶便禮拜。復敘問。參關子嶺話。師曰。怪道親見作家來。寶便喝。少頃。師又問曰。我那老兄別來四十年。未知今日鼻孔如何。寶曰。與和尚鼻孔一般。師曰。上座還見老僧鼻孔麼。寶曰。見。師曰。向甚麼處見。寶曰。兩眼下。口門上。師曰。有祕密句。曾向上座道麼。寶曰。曾道。師曰。試舉看。寶曰。合取臭口。師拈拂子。寶便喝。拂袖而出(天琦瑞嗣已上三人)。

襄陽大覺圓禪師

漢川人。儀貌豐碩。聲如洪鐘。參叩淨庵。默契。庵付偈曰。一枝正法眼。列祖遞傳來。付汝待時至。馨香徧九垓。師受囑後。隱居襄西○僧笑巖寶同爽庵參謁。求依侍。師曰。上座錯了也。老拙平生溫飽自適。別無所長。爽曰。某生死事大。語未竟。師約而笑曰。老拙亦有生死。何獨爾有。寶曰。某恨晚進。多無恒志。和尚豈拒人哉。師曰。出家兒。本自無為無事。爾等特來。反無事生事。少間。辭不獲已。方少允曰。與麼則粥飯自辦始得○師方便莫測。最惡時機不淳誠者。一日室中以數則因緣問寶。皆許可。乃曰。老僧以一則爛熟底因緣問你。昔外道問佛。不問有言。不問無

言。世尊良久。外道大悟。師曰。問既不涉有無。良久亦是閒名。正恁麼時。外道悟箇什麼。寶擬進語。師遽以手掩其口曰。止止。猶更挂唇齒在。寶乃釋然。曰可謂東土衲僧。不及西天外道。占偈呈曰。自笑當年畫模則。幾番紅了幾番黑。如今謝主老還鄉。那管平生得未得。師稱賞之。曰奇哉斯人。是從上果地中語也。寶侍四閱月。師一日無病而終。預前呼寶敘平生為僧始末畢。乃曰。今作沙門者。皆是波旬之徒。如來之仇讐。何止虎皮羊質而然也。重囑寶曰。當念從上付囑之重。子切勿易為人師。他日法門莫大之幸。不在吾多囑也。語畢。正午瞑然而逝。茶毗建塔畢。寶乃辭行(天池素嗣)。

嘉興無趣如空禪師

本郡施氏子。幼慕宗乘。留心體究。同法舟濟參訪數載。後見野翁曉和尚。徹法源底○嘗掩關禪定。一日啟關。示眾曰。自結玄關自活埋。自吾閉也自吾開。一拳打破玄關竅。放出從前者漢來○元宵示眾。畫角聲中薦得。觀音未是作家。彩燈影裏知歸。室利謾誇好手。恁麼告報與諸人。也須笑破虛空口。若也未瞥然。再看鼇山顛倒走○參。小參眾立定。師喝一喝曰。禍出私門。便歸方丈○示眾。舉脩多羅教曰。以思惟心。測度如來。圓覺境界。如將螢火燒須彌山。師曰。我且問你諸人。如來境界。既是測度不得底。畢竟如何合煞。喝一喝。還見教意麼。便下座○示眾云。言前薦得已天涯。句下承當路轉賒。一擊鐵圍如粉碎。雲天空闊雁行斜○除夕示眾。時窮何似日窮好。月若窮來歲亦然。三十六旬窮過了。東村王老夜燒錢。老漢並無一物。應箇時節因緣。拈拄杖。只有者箇無窮無盡。歷劫經年。今夜隨時送去。免教涉蔓相牽。擲下拄杖。歷劫得來今斷送。拍雙空手接新年○示眾。佛是眾生屋裏了事人。眾生是佛屋裏不了事漢。若要一樣。但佛與眾生。一時放却。則無了無不了。卓拄杖。但於事上通無事。見色聞聲不用聾。○端陽示眾。佳節端陽。何曾頂約。五月五日。年年撞著。風搖蒲劍碧楞楞。日照榴華紅灼灼。道在時節因緣。豈論正法末法向來著意馳求。通身是草。今日信手拈來。無不是藥。豎拂子。大眾且道此藥治甚麼病。擊拂子。不但老維摩。藥王藥上。也喫一帖○示眾。豁開頂門眼。照徹大千界。既作法中王。於法得自在○師一夕湖邊步月。適遇一僧。師曰。明月與清風。水天同一色。人人在箇中。只是出不得。僧曰。打草驚蛇作麼。師曰。上座又作麼生。僧曰。看脚下。師大笑曰。將謂胡鬚赤。更有赤鬚胡○萬歷己卯仲冬。師謂門人性冲曰。來歲中秋五六之間吾行矣。子宜知庚辰八月十六日。冲以前

期而至。師示微疾。集眾說偈曰。生來死去空花。死去生來一夢。皮囊付與丙丁公。白骨斷橋隨眾。阿呵呵。明月清風吟弄(佛日方曰皮囊既付丙丁白骨交歸斷橋畢竟將甚麼風甚麼弄月良久云為見煙霞生背因知星月繞簷楹)○語畢。端坐而逝。世壽九十(野翁曉嗣)。

隨州七尖大休宗隆禪師

青州益都賈氏子。依郡之石佛薙髮。寓成都北寺為典座。出街挑水。忽然有省。作偈曰。大地山河體性空。那分行走與西東。偶然撞著無私句。萬水千山總一同。就河南乾明寺無盡室中盤桓。針芥相投。印以偈曰。道高不假修。德重事理周。一枝正法眼。付與隆大休○出住隨州七尖峰。垂三關語以示學者。曰吹毛寶劍。被石人持去。挂在萬仞峰頭。四壁無路。如何取得。有一如意珠。被木人擎來。拋向大海波中。不假舟航。如何覓得。盡大地是箇火坑燒却了也。唯有一莖眉毛在。未審是何人見得○師在茄園茄瓜次。僧問如何是西來意。師指茄曰。黃瓜茄子。僧不契。再問。師曰。莫勞叨。黃瓜茄子。僧終不契。下山。別參一尊宿。宿曰。你在何處來。僧曰。七尖峰來。曰大休有何言句。僧舉前語。尊宿合掌曰。真大慈悲○嘉靖二十一年十一月八日。集眾。書偈曰。三際握來一拄杖。十方原是舊袈裟。泥牛石虎知消息。踏破虛空便到家。置筆。端坐而逝(石門海嗣)。

嘉興胥山雲谷法會禪師

本郡嘉善懷氏子。九歲芟染。於大雲寺出家。習瑜伽教。年十七。潛投天寧。時法舟濟禪師方閉關。屢策發之。一日問。師曰。圓覺經云。四大分離。今者妄身當在何處。師聞之猛省。却立巷側。至四更不動。濟呼與語。未契。未幾。被本寺追回鎖禁。越二年復出。至陽羨見古林。教參一歸何處。續入吉庵會下。庵問曰。汝參話頭時中。絲毫無不問否。師曰。不能。曰如此却是虛播光陰。師曰。雜念漸消。本念漸熟。或非虛度。庵曰。有消有長。盡屬代謝。非究竟法(汰如何法師補讀高僧傳云。師年二十受具。修天台小止觀。往郡之天寧問所修何時於法舟濟公。公曰。夫學以悟心為主。止觀之要不離身心氣息。何能脫然。子之所修流於下乘矣。因示以旨要。師力究之。一日受食。食盡而不知。碗忽墮地。猛然有省。恍如夢覺。公與印可)○師遊留都。止天界毗盧閣。閉關時。覺胸中有月照寒潭之狀。越三載。報恩諸老。迎於三藏殿。朝盂暮榻。蕭然適也。自謂足矣。偶有道者。被謁訪之。師因呈所見。道者訶曰。脫得見盡。一切皆是平常。汝所得。自以為

極玄極妙。不知皆是鬼窟中作活計。師擬進語。者厲聲喝曰。汝道平常是甚麼。玄妙是甚麼。不告姓名。拂衣而去。師因大省。二十年所得。消釋都盡。又三年。北遊燕。與徧融白雲相切磋。回南都。五臺陸公等。送住棲霞。結庵於天開巖○大洲趙公至棲霞。聽法師講楞嚴。自謂洞悉關竅。及入庵見師恍然喪其所得。問曰。師熟楞嚴耶。師曰。不會。趙嘆曰。真楞嚴矣○念菴羅公。荊川唐公。慕謁。羅問曰。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我者裏無此貨。臨別語羅曰。性海非遙。法流常注。纔有擬議。便隔萬山。荊川踊躍稱快。師曰。公勿便快活。茲事取不得。捨不得。若謂面前皆是。即執妄為真。若欲向上尋求。又是撥波覓水。唐拜之曰。不至棲霞。幾虛此生○復遊吳。了凡袁公訪師。師示以宗旨。袁聞之灑然(補續高僧傳云。了凡袁公未第時。參師於山中對坐之。晝夜不瞑目。師問曰。公何無妄念。公曰。我推我命無科第子嗣分。故安心委命無他妄想耳。師曰。我將以公為豪傑。乃一凡夫耳。聖人云。命由自作。福由己求。造化豈能拘人耶。乃委示以改過積德唯心立命之旨。公依教奉行。竟登進士有子嗣焉)○師復遊金臺。旋歸棲霞。鄉僧多潛奔之。袁復訪師。師問汝來作麼。曰專求佛。師曰。丹霞云。佛之一字。吾不喜聞。有所馳求。盡屬妄想。袁曰。我本是佛。求即無求。師搖首曰。未在。袁曰。長安無別路。曰然則任汝胡行。曰終不向師覓路。師曰。究竟如何。曰棲霞嶺上草青青。師休去○明年。了凡邀師歸嘉善之大雲。建立禪廬。禪道為之中興(憨山清禪師為沙彌時侍師彌謹。一日請曰說者為某甲壽不長奈何。師曰。壽夭乃生死法。參禪乃了生死法。若一念不生。則思神觀不破。造化何能拘之耶。第患不明道眼耳。清將北行。師言誡之曰。古人行脚單為提明己躬下事。爾當思他日何以見父母師友。即慎毋虛費草鞋錢也。達觀可禪師參方時。同平泉陸公思菴徐公謁師叩華嚴宗旨。師發揮法界圓融之妙。皆嘆未曾有。禪道草昧於時復有起色)○僧問如何是祖師意。師曰。有水皆含月。無山不起雲曰莫更有奇特否。師曰。不得將龜作鼈○萬歷戊辰冬。主三陳菴禪會。乙亥正月三日。起行香徧閱僧房。告眾曰。此地清淨。吾可觀化。明日遂端坐而逝。世壽七十五。塔於大雲之右(天寧濟嗣)。

嘉興精嚴東谿方澤禪師

郡之嘉善人。族姓任。首謁法舟濟禪師於天寧。一日室中舉龍潭見天皇公案。至何處不指示心要。言下有省。行蒙印可。解制秉拂。佛法雖徧。一切世間。而未嘗有絲毫透漏。作麼生結。雖未嘗有絲毫透漏。亦未嘗有絲毫囊藏。又作麼生解。故知百丈大師。曲引初機。為此方便誑誑之辭。其實莫能結。莫能解也。設使有箇孟八郎漢出來道。我能向百丈大師。結不得處。一結結斷。直使天下衲

僧。忘前失後。求出無門。亦能向百丈大師。解不得處。一解解開。直使天下衲僧。七狼八藉。竄身無地。却甚奇特。諸上座。彼既丈夫。我能不爾。良久擊拂子一下。曰吽(天寧濟嗣已上二人)。

浮峰普恩上座

山陰金氏子。十歲出家。至年十九。忽念生死事大。奮志尋師。初至大悲叩無際首座。示以心生則種種法生之語。師當下有所契入。有偈曰。返本還源便到家。亦無玄妙可稱誇。湛然一片真如性。迷失皆因一念差。復見法舟濟於天寧。呈所見。舟可之。又謁萬松休於烏石峰。松問何來。師曰。天寧。松曰。有何言句。師舉前話。松曰。是不是。師曰。天寧道是。和尚如何道不是。松曰。天寧則是。我則不是。師疑不決。後參玉芝聚禪師。復舉前話。聚曰。是與不是。未出常情。二俱喫棒有分。師曰。如何是出常情句。聚與一掌。師當下豁然。平昔礙膺。一時融釋。聚曰。汝既如是。當善護持。復以偈囑曰。莫學支流辨濁清。是非盡處出常情。鐵鞭擊碎珊瑚月。會看東山水上行(天池聚嗣)。

建寧斗峰天真道覺禪師

本郡建安張氏子。看萬法歸一。一歸何處話。久而有省。占偈曰。一手拍兮一手鼓。無位真人出格舞。口中唱出無腔歌。三千諸佛同一母。往見古音求證。音稱賞之(雙峯琴嗣)。

曹洞宗

西京定國無方可從禪師

雒陽許氏子。禮福先茆峰剃落。初參龍潭順。超化宗。入室請益。稍有契入。後參俱空斌禪師。斌問子參何人來。師曰。少室山前風悄然。斌曰。因甚一花開五葉。師曰。沒孔鐵錘百雜碎。斌曰。掠虛頭作麼。師曰。某甲祇見盡天下。祇解掠實。無一人能掠虛者。斌曰。不打自招也。師曰。老和尚慣用底。不妨勘破(杖人盛云龍潭未見龍超化卻將化空裏打箇筋斗來詐明道士鐵錘墮天下掠實無掠虛不打自招笑殺渠慣用老人今勘破何妨收拾者蠻驢末後關還透過百丈甘為野狐九峯不肯首座果能平地生波許你家中穩坐)○斌以綿密閫奧。重加煅煉。偶檢傳燈。見天衣以行者五人。俱召實上座因緣。師當下密契五位奧旨。遂承印記。隱於郊廓定國寺○示眾。佛祖宗乘。本無言說。但此段家風。非從外

得。須七處徵心。八還辨見。方得到家穩當。不涉程途。汝知九峰不肯首座。百丈墮在狐窩。足見得人為難。而得理為尤難。如上多方。切須珍重。成化十九年。壬寅六月示寂。塔於少室(萬壽斌嗣)。
續指月錄卷十五

續指月錄卷十六

六祖下三十二世

臨濟宗

北京柳巷月心笑巖德寶禪師

金臺之世族也。父吳門。母丁氏。早失恃怙。弱冠偶之講席。聽華嚴大疏。至十地品云。世尊因中。曾作金轉輪王。時有乞者。來化國城妻子。頭目手足。內外布施。王作念言。我今若不施與。向後百年。一旦空廢。全無少益。反招慳吝過失不若施與。空我所有。益我功德。師聞之不覺身心廓然。嘆曰。古今同一幻夢中。遂決志出家。纏絆歲餘。就於本境廣惠禪林。禮大寂能公披緇祝髮。明年受具。朝參夕叩。雖深信知有。不肯自休。務期親證。徧謁大川月舟古春古拙諸老宿。後至關子嶺。參無聞聰和尚。問十聖三賢。已全聖智。如何道不明斯旨。聰乃厲聲曰。十聖三賢汝已知。如何是斯旨。速道速道。師連下十數轉語。皆不契。遂發憤。寢食俱廢。一日攜籃到澗邊洗菜。一莖菜葉。墮水旋轉捉不住。忽有省。提籃喜躍而歸。聰立簷下。問是甚麼。師曰。一籃菜。聰曰。何不別道。師曰。請和尚別問來。至晚入室。聰舉玄沙敢保老兄未徹話。師曰。賊入空室。聰曰。者則公案。不得草草。師喝一喝。拂袖便出○復往見濟菴古巖大覺諸尊宿。皆器重之○後上關子嶺。再參聰和尚。一日雨寒。聰命烘爐。乃問人人有箇本來父母。子之父母。今在何處。師曰。一火焚之。曰恁麼則子無父母耶。曰有則有。只是佛眼覷不見。曰子還見麼。曰某亦不見。曰子何亦不見。曰若見則非真父母。聰曰。善哉。師遂呈一偈曰。本來真父母。歷劫不曾離。起坐承他力。寒溫亦共知。相逢不相見。相見不相識。為問今何在。分明呈似師。聰閱之甚喜曰。如是如是。只此一偈。堪紹吾宗。即說偈曰。汝心即我心。我心本無心。無心同佛心。佛心非我心(木陳忞頌云水裏拾來火裏燒出頭天外自逍遙翻思未會機前著有一豪兮是一豪○牧雲門頌云千山歷盡草鞋穿任運騰騰度好年平實商量田地穩靈山慧命一絲懸○箬菴問頌云一莖菜葉忽隨流喜躍歸來盡底酬父母徧身紅爛地瞎驢端許振宗猷)○復曰。佛如轉輪王。佛法如王命。佛子豎法幢。能令邪作正。囑曰。汝諦受持。遇緣熟者。智愚皆度。續佛慧命。須待其人。師蒙記莝。復侍聰年餘。乃禮辭去。後底金陵寓靜海牛首高座等處。數載。復還金臺。初居圓通。次遷南寺鹿苑慈光善果諸剎○端陽上堂。舉大慧和尚上堂曰。今朝又是五月五。大鬼拍手小鬼舞。驀然撞著桃符

神。兩手搥胸叫冤苦。師曰。大慧老漢。大似少箇禁方。向青天白日。見神見鬼。笑巖則不然。今朝正是五月五。雲從龍兮風從虎。山僧要與現前諸大聖凡賭箇賭。信手拈來百草頭。甜者甜兮苦者苦。拈拄杖。驀然突出者一條。穿過從上諸佛祖。是你現前諸人百樣具有。為甚麼只少者一箇。忽有箇見義勇為底。憤憤地向前道。和尚且莫壓良為賤。若論者一箇。敢道人人不欠分毫。放下拄杖曰。汝宛不知。何妨矢上更加尖。堆上重添土○上堂。男兒固奮冲天志。莫若從頭放下來。直把髑髏枯死盡。仍教死眼豁然開○上堂。舉南嶽讓和尚。一日問眾曰。道一為人說法也未。曰已為眾說法了也。尚曰。總未見人通箇消息來。乃密遣一僧去探。囑曰。待渠上堂時。便出問作麼生。看渠有何言句。可記將來。僧往一如所教。馬祖曰。自從何亂後。三十年不少鹽醬。僧回舉似。尚深肯之。師曰。山僧者裏三十年不曾見箇鹽醬。汝等在者裏討什麼盃。以拄杖一時趁散○上堂。當門一隻箭。來者看方便。擬進問如何。穿過髑髏面○上堂。拈拄杖曰。有麼有麼。時有僧出作禮。師劈脊便打。曰多口作麼。曰。某甲一言也未。何為多口。師復打曰。再犯不容(漢月藏拈云俊則太煞俊未免著忙在頌曰不須賓主會來親占得神機絕法人雪夜梅花〔頌〕春早滿園香草未知新)○僧問一言道盡。更不容其言時如何。師云。武陵谿畔杜鵑語。十里桃花血滿紅(遠菴體頌云武陵谿畔杜鵑鳴萬語千言無別聲回首若知歸去好天涯遊子盡回程○旅菴月頌云誰家桃李鬪芳妍杜宇聲聲喚客還曾踏武陵谿畔路洞中春色異人間○天岸昇頌云辭窮理盡舌頭乾海底珊瑚撐著月杜鵑聲裏落花紅多少阿師全漏泄)○上堂。趣庭露溼階苔滑。行道藤牽山徑迷。禪者多詢真祖意。夜來攜履獨歸西。拈杖指云。看看看。祖師又越山門而來也。喚行童與我即便逐出。良久云。是你諸人分上。著這等閒。家具不得○僧問如何是和尚昔年獲益事。師以拂子倒懸視僧云。會麼。僧云。某甲已識和尚做處也。師曰。你道荊州黃四娘禮佛。求箇什麼。僧無對。師乃打出(石車乘拈云僧問獲益師拂倒懸彼此分明誰知末後一撈如墮萬仞深坑至今起不得召大眾云還救得麼莫道賊過張弓好○雲巖持云黃四娘禮佛畢竟求箇甚麼乃吁一聲曰空中鳥跡原無見葉上風聲若有聞)○僧參。問從上千七百老凍餒。某甲今日一串穿來。獻與和尚。伏請判斷。時門外忽聞犬吠。師遽顧侍者。看是什麼客來。侍者出問話。僧罔措。師曰。上座適纔問什麼。僧擬重舉。師與連棒打出○僧問如何是文殊普見三昧。師曰。死人眼。曰如何是觀音普聞三昧。師曰。死人耳。曰如何是一言道盡底句。師曰。死人口○一僧請益金剛經為人輕賤話。師曰。汝有疑否。僧曰。有疑。師曰。有疑則為人輕賤。無疑則應墮惡道。僧沈吟。師曰。會麼。僧曰。不會。師曰。把出你不會底來看。僧曰。不會教某甲把出箇什麼。師曰。汝之罪業。劃然消矣。僧歡喜禮謝而去○問玄沙不出嶺。保壽

不渡河。落第幾機。師曰。總落第二機。曰如何是第一機。師曰。玄沙不出嶺。保壽不渡河。曰畢竟得箇什麼。師曰。灼然。畢竟得箇什麼。問如何是奪人不奪境。師曰。一文錢。一箇大燒餅。曰如何是奪境不奪人。師曰。喫在肚裏了。當下欣欣。曰如何是人境兩俱奪。師曰。你無一文錢。也只甘受餓。曰如何是人境俱不奪。師曰。雲門胡餅金牛飯。空腹而來滿腹歸○僧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曰。柳影橫塘魚上樹。槐陰罩地馬登枝。僧曰。與麼則形影兩分。曲直自顯去也。師曰。未曾飽食廬陵米。徒把蒲團認作天○僧參。問承聞諸佛出世。為一大事因緣。請問和尚如何是大事因緣。師曰。著衣喫飯。屙屎放尿僧不肯。不禮拜而出。師喚回。示以偈曰。諸佛出於世。唯為大因緣。屙屎並放尿。飢餐困打眠。目前緊急事。人只欲上天。談玄共說妙。遭罪復輸錢。僧慚惶作禮而去○一日有兩官人遊山。入門哦曰。茂松脩竹。回顧見師。便問如何是道家風。師曰。茂松脩竹。曰有何旨趣。師曰。自家觀不足。留與客來看○有士人閱師淨土偈。乃問佛說是經。則有六方諸佛。出廣長舌相作證。今吾師說偈。有何殊證。師曰。居士舌頭亦不短。又問何為不思議功德。師曰。前街人喚犬。後巷罵貓兒。又問老師今年高壽了。師曰。論年不見箇葷腥。作麼不槁瘦了○僧問處處入法界。念念見遮那。如何是遮那。師曰。淨地不須屙。舉趙州和尚問投子。大死底人。却活時如何。投子曰。不許夜行。投明須到。師頌曰。三十六物都灰燼。只遺一雙枯眼睛。置向九衢深夜後。無光明處作光明○舉世尊拈華公案頌曰。師資妙契芥投鍼。似海如山無處尋。石火光中曾著眼。始知佛祖不傳心○舉經題[米-木+八]字頌曰。黑白未分已墮徧。那堪擬議費鑽研。西乾此土諸賢聖。鼻孔撩天總被穿○示座主偈曰。荷鋤到處賣工夫。三兩文錢足可圖。鋤得他家田地淨。自家田地盡荒蕪○示僧。法中幽趣眼中醫。向上玄機境上塵。黑漆桶邊箍子斷。太平國內自由人。靜坐寒巖此病難。男兒爭肯自相瞞。轉身一步無多子。始信塵含法界寬○師嘗室中垂語曰。佛未出世。祖未西來。元無佛法世法之名。迴出黑山鬼窟一句。作麼生道○又曰。佛既出世。祖已西來。佛法世法。相為建立。不犯化門。道將一句來○又曰。佛生凡聖對待之門。世法佛法。名言強立。總拈過一邊。衲僧本分一句。試道將來○又曰。尋常間語言問答甚平易。甚不思議。剛被人問箇如何是汝本有底佛性。為甚麼却反眼豎口啞○又曰。既為佛子。志階佛地。因甚一箇佛字。最不喜聞○師晚年退居京城柳巷。於萬曆辛巳正月十六日示寂。奉全身塔於小西門外(無聞聰嗣)。

臺山龍樹寶應禪師

一日晨興。覩明星有省。述偈曰。日出東山。月沈西嶂。昨日今朝。曾無兩樣(天琦瑞下大川洪嗣)。

臺山楚峰和尚

獨居祕魔崖。十餘載。木食澗飲。人不堪其憂。師恬如也。一日聞火爆聲。豁然大悟。占偈曰。眼睛突出死柴頭。赫赫神光照四洲。觸處現成人不委。幾回春去又逢秋(大川洪嗣)。

玉堂和尚

僧問如何是道。師曰。看脚下。曰如何行履。師曰。驀直去(大川洪嗣已上三人)。

蘇州車溪無幻古湛性冲禪師

秀水張氏子。初以俗相謁無趣。遂有所契。尋棄家從趣芟染。趣一日問師曰。徑山頌三玄三要曰。徹骨徹髓道一句。三玄三要絕遮護。此二句中。山僧欲取一句為法。你道取那一句好。師曰。和尚適纔問那一句。趣瞋目叱曰。得恁無記性。師曰。祇為和尚徹骨徹髓。趣曰。不然。為汝一人即得。爭柰大眾何。師曰。取即不辭。孤負先聖。喪我後人。趣曰。如是如是○師往徑山結茅。集無趣語錄。一日歸覲。趣曰。一向作得些什麼事。師曰。某甲買得段田。收得原本契書。請和尚僉押。即將集本呈上。趣接得展看曰。者是我底。你底響。師曰。和尚不得攙行奪市。趣便將集本擲下。師便趨出。少頃呈偈。趣曰。者是你作底麼。師曰。某甲鼓粥飯氣。若謂有所作。孤負和尚不少。趣點首(金明進云我若作敬畏待云請和尚僉押便乃垂下一足他更如何但云念子遠來且坐喫茶不特不負來機要且主賓有禮若作徑山待云者箇是我底你底響遽好與一掌何故大丈夫捋虎鬚未為分外○古林如云我若作徑山待道者箇是我底你底響便與作禮云今日念和尚老大○天峯性頌云相逢各自展家風祖業兒孫用不窮大海無涯恣躍鯉長空萬里縱飛鴻)○住後示眾。三界唯心。萬法唯識。卓拄杖。昨宵時雨滴空階。一片綠苔俱打溼○示眾。大道體寬。長空絕跡。按下雲頭。別通消息。同生同死。風行草偃。且道把住為人好。放行為人好。乾坤一合地胡餅。日月兩輪天氣毬○示眾。明明百草頭。明明祖師意。笑殺老龐公。至今猶瞌睡。魯祖見人便面壁。不解寒溫。祕魔走到便擎叉。全無禮義。南山鼉鼻。不若死鱸。西院鑷刀。渾如鈍鋸。且道大悲如何為人。輪王總未拋三寸。徧界先聞刀斧聲○浴佛上堂。毗藍園裏曾呈醜。古佛堂前又

露形。不是日光三昧力。如何洗得你身清。大眾。釋迦老子。今日誕生。未審此時。還曾落地也未。一僧出曰。落地了也。師曰。你見甚麼人說。僧無語。師曰。杓卜聽虛聲。僧問清虛之理。畢竟無身時如何。師曰。道者合如是。曰向上更有事也無。師曰。雪隱鷺鷥飛始見。柳藏鸚鵡語方知。問和尚百年後。向甚麼處去。師曰。千株松下。百草頭邊○師燒火次。僧問如何是自在天真佛。師曰。與我般一束柴來。僧肩柴至。又問。師曰。者奴子好惡也不識。便打(介菴進頌云大富須還長者家天然隨處有生涯可憐不識囊中寶錯過真金在赤沙○牧公謙頌云脚下魚行總不知因憐[感*鳥][感*鳥]亦何癡幾多負義忘恩者徒有雙雙兩道眉)○僧問如何是最上一乘。師曰。藤穿篾縛。曰意旨如何。師曰。三十年後○僧參。師問何處來。曰廬山。師曰。古人道。不向廬山尋落處。象王鼻孔漫撩天。如何是廬山落處。曰請和尚尊重。師便低頭休去○示念佛偈。發心念佛循公道。念念無私佛即靈。念到公私俱不現。唯心唯佛更何論。念佛休論閒與忙。時時無間始相當。一聲喚醒慈悲主。剎剎塵塵是淨邦。真心念佛錦添華。功德難量等海沙。大處顯然全體現。同名同號更無差○火爆偈。團團無縫罅。緜密不通風。一點無明發。分身剎土中○示人。動口全拋一片心。擬思量處不知音。百千年外看家話。倒腹傾腸說與君。起念求心心既念。頓然無念念無心。九重之內常為主。徹古該今不動尊。盡心竭力作工夫。內外推尋實總無。正恁麼時無計可。忽聞村內一聲歌。即心即佛隔皮言。非佛非心亦是權。端的要知真實處。直須吐盡野狐涎○師菴居二十餘載。萬歷庚戌。受徑山請。不數月疾作。仍返車溪。辛亥冬示寂。茶毗塔於徑山(無趣空嗣)。

嘉興祇園古卓性虛禪師

繫籍儒門。潛心釋典。屢困場屋。遂禮無趣祝髮。力參數載。見紅日觸身有省。四方來者。多就師諮決○許司馬以名剎相延。師力辭之。萬歷乙卯九月晦日。謂眾曰。我將行矣。乃說偈曰。好去了。好去了。無生路上人知少。他年再有相逢日。大眾修行須及早。呵呵。寂然而逝(無趣空嗣已上二人)。

曹洞宗

嵩山萬壽月舟文載禪師

別號虛白。北畿通州人。世系蔚州廣寧王氏祖才。從太宗靖內難。官至武德將軍。父清。早無子。嘗禮廣濟白菴空禪師受戒。發願

曰。若生子。必命出家。一夜清夢老僧入室而師生。童時或結草為菴。或聚沙為塔。或塑泥為像。撮土為香。採花為供。戲作種種佛事。人皆異之。九歲入鄉較。讀書輒了了。年十三。父以夙願語之。師欣然。遂禮白菴落髮。年二十。詣杭納具。北遊掩關。因閱萬松拈提古宿機緣。若面牆者。久之忽省。乃曰。曹洞宗風。大播天下。有織錦迴文之妙。非針線細密。盤旋回互。不觸當頭者。不能與伊作主也。遂旛然出關。參無方從。問曰。某閱評唱。有言前露刃句裏藏鋒之妙。而大慧要劈碧巖之板。其過安在。方曰。祇這一片嵩山影石。老僧久欲推倒。爭柰病久無力。子試為推。師擬議。方曰。推不倒在。及親炙一年許。每呈語。方曰。驢年去。忽一日曰。山花開似錦。澗水湛如藍。此豈不是大龍底轉身句。方乃笑曰。這漢桶底脫也(百愚斯頌云春兩山花燦錦秋風落葉飛金夜靜幽人得意猿啼旅客傷心唳等閒若不登高望爭見東流海濤深○位中符頌云跳出葛藤窠窟裏玉線金針定文理門外剎竿拈轉時三十六峯齊立起)○正德改元主少林。示眾。達摩西來。以一乘法。直指單傳。令人見性成佛。至我少室如九鼎繫於單絲。汝等諸人。趁色力康健。打辦箇事。直須努力。莫閑過日○師住祖席一十六載。後退老於三十六峰之雲山深處○嘉靖甲申。師示寂。塔於少室祖塋。送葬之日。伊鄭徽三府。積香如薪。四眾雲擁。霞光萬丈。觀者歎未曾有(無方從嗣)。

續指月錄卷十六

續指月錄卷十七

六祖下三十三世

臨濟宗

宜興龍池幻有正傳禪師

初號一心。溧陽李氏子。(師自述云)兒時體肥。性好捕魚羅雀。靡所不為。八歲就鄉塾。十二三肌腹骨立。遂廢業。偶為母看誦香山卷偈語。乃知發念持齋。十六歲。父母強與婚合。未幾琴瑟不調。發心出家。又二年。病不戢。出家意始決。黎明起焚香。默對觀音像前。誓曰。某若再近女身。此身當若何若何。其夜即遯去。後婦將產。父命使徧覓。終弗獲。一日值父於途次。強歸不就。仍以母疾篤候侍。歸又一年。既歿。喪殯。乃辭父長往。入荊谿顯親寺。禮樂庵師薙染。示看父母未生前話。密自矢志曰。若不見性明心。決不將身倒睡。一夕聞瑠璃燈華燁爆聲有省。舉似庵。庵頷之○後庵遷化。師直造神京。謁笑巖寶和尚。於觀音庵。寶問上座何來。師曰。南方。寶曰。來此擬需何事。師曰。但乞和尚印證心地工夫。寶曰。若果識得心地。那更有工夫印證耶。師曰。雖然不得不舉似過。寶曰。參堂去。師珍重便出。至晚入室。方具述所以。寶驀踢出隻履曰。向者裏道一句看。遂把話頭一時打斷。慙懣而出。通夕不寐。翌旦寶出方丈。見師猶佇立簷下。驀喚上座。師回顧。寶翹一足作脩羅障日月勢。師不覺脫然悟旨(牧雲門頌云兩片唇皮正合開死蛇忽地觸人來天明毒氣方甦醒翹作修羅也怪哉○箬菴問頌云夜靜燈花啣一聲瑠璃殿上露全身巨靈分破華山色赤脚波斯絕路行○晦山顯頌云閃電為人機自別晴空霹靂太孤危回頭擲瞎頂門眼金鎖玄關當下灰)○師後辭行。寶乃書曹溪正派源流付之。復贈一笠曰。覆之毋露圭角。師受囑。出住臺山祕魔巖寺。居十有三載。入京師寓普照。後住龍池○上堂。無上法王。有大陀羅尼門。名為圓覺。驀豎拂子曰。會麼。鷄子^已飛天外去。默翁猶向月邊尋○上堂。一切法不有。一切法不無。若能如是會。水上按葫蘆○佛誕上堂。今晨四月八日。是我釋迦如來示生降誕之時。山僧忽然思量起來。二千五百餘年^已來。不知有多少路見不平之輩。務要別尋一箇人來。與我釋迦老子。比勝負。較優劣。殊不知我釋迦如來。是何等一箇面孔。汝諸人還知得我釋迦如來。脚跟立地處麼。還曾夢見我釋迦如來頂相麼。良久曰。舉手拔南斗。回身倚北辰。出頭天外看。誰是箇般人。驀豎拂子曰。雲門大師來也。擲拂子。便下座○上堂。老僧者裏。不問你久參晚進。貴要正知見。知

見若正。了生死如反掌。大抵不落斷常有無二乘偏見。更有甚麼商量。若有僧問作麼生是正知見。但向他道。老僧在你脚下。良久。喝一喝。下座○萬歷甲申。師講演法華於祕魔巖寺。時有萬融首座病目初愈。仍來座下。展本聽經師方陞座見之。言曰。且喜萬融首座。病眼重開。幻人有賴。彼悚身起立云。不敢。師曰。且問汝。即今日前所覩境界。與向未病眼時。同耶異耶。對曰。無異。師曰。然。正古人所謂三十年前。見山是山。見水是水。及乎中間。有箇入處。則見山不是山。見水不是水。老僧今日休歇得。見山依舊是山。見水依舊是水是也。師乃說經○上堂。師云。鄙人將謂今時佛法門頭。沒有可商量人。仔細檢點。也有一箇半箇。有僧出問。誰是一箇。師曰。即今如鬧市街頭。十字路邊。盤膝坐地。哇哇叫化錢者是。又問誰是半箇。曰即今認住客塵煩惱。確定以為主宰者是。或曰。若說佛法。原不曾許汝有商量處。烏用汝顛言倒語。有許多饒舌。師曰。我不怪你。雖然。說得儘是。你儘做得箇膾子手。何也。任他佛頭來。魔頭來。獅子頭。象頭來。牛頭。馬頭。人頭。狗頭。羊魚頭。鵝頭。鴨頭。既到汝案頭上。一一儘汝破除。打發一邊去。只恐汝把箇死猫兒頭。便不能破除得。打發不開去。於此打發得開去。纔是好膾子手也。或曰。將那死猫兒頭來著。師乃笑曰。果然。不識有人於斯。一似箇無尾巴底大蟲。且道順毛還勒得伊麼。有人於斯。一似箇生鐵搥子。有力者還拗得折伊麼。果乃順勒伊不得。拗折伊不得。只是有一人。搖頭不肯。何也。第恐將箇臭鶻突布衫。做了貼體衣。至死不肯脫。總有青州布衫。堆滿世界也沒用處。況今時善知識。都只要抱不哭底孩兒。不敢觸著伊。動著伊。只怕退了伊底道心。又恐斷絕往來了。不唯不我供養。反被伊生謗毀。作禍害。便不柰何。若是[拚-厶+去]捨性命善知識則不然。饒他是生鐵搥子。須要誘引伊一舉。舉到那天裏。沒割殺處了。始撒手。待伊自放下來。務要跌折了他底。又饒他是箇無尾巴大蟲。先須掘箇坑子。隱覆却。候待伊來陷入內。務要使伊跳不出去。直待伊計窮力盡時。且問他你還要活麼。待伊領首時。更曰且緩緩。直須教伊命根斷如死灰了。這臭鶻突布衫。方得卸下。始可謂我救得這死漢了也。不然。這畜生還[跳-兆+孛]跳在。雖然。說得也好。只可惜今時末法世中。無這等一箇知識。正所謂賢聖隱伏。遇而不遇也。怪伊說不得。呵呵。李孟曰。大夫問老師。修行多少年。方纔得悟。師云。貧道修行未久。亦無悟處。雖然。貧道自持齋出家學道以來。不過四十餘年。前二十年。止入得箇信位。於晝夜十二時中。猶不知其飢飽。雖寒暑亦莫辨。後二十年但醒得一一病痛。不從外入。俱是自己心中所發。近日又僧得箇歡喜處。始知得人人肚飢。都只是要飯喫。然又恰如人從半夜睡

醒了。只顧東摸西摸。信手摸著了自己底鼻孔。不覺失聲。呵呵一笑○有客問某等修行。當何用工。師提數珠曰。會麼。客曰。會得。師反詰曰。汝作麼生會。客曰。若恁掐著數珠念佛。有什麼不會。師曰。未也。客云。若更有別說。某便不會矣。師舉數珠掐曰。但恁麼一粒一粒撥過去○又有客如前問。師反詰曰。汝擬修行。圖箇什麼。客云。冀會道耳。師曰。果欲會道。直須放下。只要會道底念頭。便是真用工處。若此用工。自當會道。客云。柰要會道。這一念放不下何。師曰。去。汝正鬧在○屢有客問道於師。師或答。或不答。問嘗聞有如來禪。有祖師禪。作麼生甄別。師舒手班指數曰。余今年五十六歲矣。客曰。老師耳背那。傍有僧走過。師驀扯住。問今日是八月十五否。僧答云。今日是十四。明日是也。師撒手對客云。唯這僧記得端的。又有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忽云。好打好打。客作色曰。何只言好打耶。師豎起拳云。不是拳頭。定是巴掌。客揖之而去。客有再扣之。畢竟何以為道也。師乃從容諭之曰。道無方所。無有形名。指點伊不得。取舍伊不得。是非伊不得。向背伊不得。有無伊不得。增減伊不得。揀擇伊不得。動靜伊不得。好惡伊不得。逆順伊不得。可否伊不得。進退伊不得。語默伊不得。思議伊不得。垢淨伊不得。依倚伊不得。營為伊不得。對待伊不得。偏黨伊不得。閒忙伊不得。前後伊不得。難易伊不得。始終伊不得。人我伊不得。親疏伊不得。損益伊不得。寤寐伊不得。異同伊不得。男女伊不得。老少伊不得。得失伊不得。新故伊不得。迷悟伊不得。固必伊不得。高低伊不得。貴賤伊不得。果如是信得會得。則無往而非道也。客又曰。然則某意念不動時。還是道否。師驀以手插向腰間。摸得箇蟲子擲向地云。阿啞阿啞。跌殺我耶跌殺我耶更休○有客問西來大意。師指古鏡云。是這箇。客曰。柰某不會何。師云。為汝未曾用工磨得。客曰。某作麼生用工即得。師云。即目前古鏡。復急索曰。還我西來大意來。客省曰。我會也。我會也。師云。會即不無。試說來。客乃指古鏡曰。某既會矣。奚又止在是。師頷之○僧問九峰不肯首座因緣。師舉拳示之曰。為伊不識這箇。僧云。識得後如何。師云。石霜住持有分。僧又曰。聞毗陵孫太史亦曾問此。未知如何答伊。師曰。山僧但答為伊道眼未明耳。僧云。即如道眼明後。又作麼生。師云。則不見有休去歇去在。僧再擬開口。師叱曰。去。汝不會我語(李長庚居士敘師語錄後略云。余一日別師。師問余云。有何疑否。余舉九峯不肯首座因緣。問畢竟明何事。師豎起拳頭。余擬議。師曰。公不要開口。且細參去。越數年。傳歸荊谿。余再請益。師曰。向年舉的公案記得否。余曰。和尚今日拳頭在那裏。師厲聲曰。沒有。余曰。和尚拳頭失卻。鼻孔原止半邊。師遂變色轉向面壁。余即出至階下。聞師厲聲曰。這箇人放鬆了。不柰他何。且拿住索套

兒。不由他三年五年不來尋我。余曰。和尚大機大用。只怕我承受不來。無何余轉外籬。迄今為後序已越三十年矣。當日三年五年之語大負我師。不覺泣下云云)○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屋北鹿獨宿。僧曰。不會。師曰。溪西鷄齊啼(夾山豫云師翁答話雖則一椎兩當未免令者僧分西著北不肖孫則不然今日或有問如何是祖師西來意但向道面臨江水闊早晚看行舟更曰不會向道兩岸蘆花裏清風引白鷗)○僧問。如何是奇特事。師曰。蝦蟆捕大蟲。僧曰。恁麼則不奇特也。師曰。猫兒捉老鼠。僧禮拜。師便喝。僧曰。老和尚為甚麼放某甲不過。師厲聲曰。老僧有事。你且去(石車乘拈云龍池大開慈門手遣者僧爭柰者僧不諳來機龍頭蛇尾若當時待他道老僧有事你且去也與震威一喝可謂知恩有地何故只因漁父引始見浪頭高○天竺珍頌云萬仞龍門透者難金鱗擬躍點波瀾電雷相送重燒尾腥血空流石上斑)○居士訪師次。舉僧問雲門。如何是諸佛出身處。門曰。東山水上行。問師意作麼生。師曰。無孔笛。幾人解吹。士曰。弟子試問和尚得否。師曰得。士曰。如何是諸佛出身處。師曰西河火裏坐○士大夫從師遊。師每舉門前冷落車馬稀。老大嫁作商人婦二語。罕有契者○有山居偈曰。五峰雲頂古文殊。盡日跏趺總笑余。半點苦寒禁不得。躊躇未了又躊躇○萬歷甲寅二月十二日示寂。先一日有僧自臺山來。師與劇談宿昔。抵暮索浴。眾察師意。懇請遺訓。師舉所帶帽者三。眾無語。師撫膝奄然而逝。建塔於本山之麓(笑巖寶嗣)。

南陽靈谷曇芝禪師

參笑巖寶。問古人道打破鏡來相見。既打破鏡。擬向甚麼處相見。寶曰。慚愧殺人。師忽有省。頓領厥旨。遂忘禮拜。舞蹈而出。服勤數載。寶付以偈曰。微笑拈花第一機。相傳八八未知非。今將從上非非法。分付賢英力荷歸(笑巖寶嗣)。

五臺瑞峰三際廣通禪師

久侍笑巖。室中機契。付以偈曰。一念不生諸數滅。萬機休罷十方空。界空數滅漚澄海。諸佛眾生影現中。後居臺山。僧無明經參。問曰。某於古德機緣。尚有疑處。乞師指示。師曰。試舉看。經曰。臨濟大師道。佛法無多子。畢竟是箇什麼。師曰。向道無多子。又是箇甚麼。又問。玄沙謂靈雲敢保老兄未徹在。何處是他未徹處。師曰。大似玄沙未徹。又問。趙州云臺山婆子。我為汝勘破了也。勘破在甚麼處。師曰。却是婆子勘破趙州。經復請師頌之。師曰。知是般事便休。老僧不解恁麼。因即命經呈頌。經各具頌呈答。其頌臨濟曰。醍醐上味出放乳。滴水攪中便不成。三十棒頭開

正眼。何曾傳得祖師心○頌靈雲曰。見色明心。附物顯理。具眼宗師。許而不許。敢保老兄未徹。一隊閑神野鬼。不是焦面王來。受陷遭坑幾許○頌趙州曰。暗藏春色。明露秋光。有眼莫鑒。縱智難量。到家不上常安路。一任風花雪月揚。師然之(笑巖寶嗣)。

鳳陽正宗悟上座

久侍笑巖。室中機契。付以偈曰。此宗須信有真悟。莫學諸方平實禪。異日寒灰親爆出。紅爐又放一枝蓮(笑巖寶嗣)。

京兆高菴傑上座

久侍笑巖。室中機契。付法偈曰世出世間不二法。都盧祇在一塵中。俄然信手輕敲破。三世如來立下風(笑巖寶嗣)。

天台天常經上座

久侍笑巖。室中機契。付法偈曰。剝盡乾坤無實法。搜窮心佛有虛名。驀然黑白都翻轉。掌上新籌獨汝贏(笑巖寶嗣)。

武林素菴智上座

久侍笑巖。室中機契。付法偈曰。青蓮日瞬應時節。七七雄談非犯舌。識得文言義路空。何妨塵說熾然說(笑巖寶嗣)。

嘉興天寧幻也佛慧禪師

別號癩石。會稽人。南宋史相之後也。母戴。夢天台僧抵舍。孕師。及娠。鄰人共驚異。相見紅光蓋室如火。六歲入童子學。授經知大意。十四慕空宗。走天台見松谷法師於華頂之勝峰寺。求度不允。乃泛海求潮音僧度。復不允。遂發憤墜身魚腹中且死得救免。舟人愍之。為剪髮詣谷。谷始納為命今名。留習台教五載。一日晨課。中間豁然。不覺心吻俱開。告谷。谷奮挺逐之不得住。聞嘉禾有濟法舟者。走見之。會濟方屬續。於是一鉢煙村。孤筇天外。南詢。北訪參笑巖寶和尚。得受記莛○出住天寧之優曇苑。疾當世學者走聲勢輻煥。一徵之以枯澹。數十年門無宿客○嘗示眾曰。四大之軀孰不有。五味之食孰能無。白玉體箇箇分明。紫金身人人可得。爭奈食之不常而食。衣之不常而衣。八萬種魔。寧教易曉。四

百四病。以何遣除。諸仁者。不是祝髮了。叫做出家。披金襴。叫做出家。識文達理。叫做出家。能行苦行。叫做出家。避喧求靜。叫做出家。有人緣。叫做出家。感天供。叫做出家。緊要在著草鞵入釋迦腹裏。屙屎放尿。跨大步穿達摩心中。戴角披毛。枯草拈來。直得百花相鬪。鼓動含靈。喚起維摩。寂默十方如來密付汝印。一切天魔。自然傾膽。鳥噉春晝閒彌勒。華發東風見故人○又曰。一番相見一番新。好看鉢盂添柄。幾處行來幾處險。猶奇艇內藏輪。海不顧山頭月白。一任浮沈。空無柰兩脚風清。大家和會。參方衲子。講席高流。居士宰官。天仙魔梵。有情無情。生一乾坤。死一乾坤。聖一法界。凡一法界。何曾謾得諸人。若也謾得諸人。那討說箇是非好惡。賢善才能。尊卑異類。焯然些子。謾不得。欠不得。你道是什麼境界。會麼。滿目塵埃千聖眼。半身落魄五宗心○晚退多寶菴。足不越閭者。復十餘載。老且耄矣。忽思天台舊隱。即日拄杖還南。嘉禾緇素。遮止天寧○崇禎戊辰八月。師示微疾。簡歷示小師曰。後二日可。小師涕泣固留。師笑諾。為更留三日。仍涕泣固留不可。俗弟子聞之。趣置龕室。初五日工適報竣。師即以是日午。跏趺榻上而逝。僧臘七十八。世壽九十一。語音如鐘。足有輪紋龜畫。番番黃髮。齒落更生。皆其異相之著者。至若五臺睹文殊真境。司爨感天台聖僧。靈異可徵。茲不具述云(笑巖寶嗣已上八人)。

嘉興南明慧廣禪師

鹽官韓氏子。出家興善寺。謁無幻冲禪師。示趙州無字話。一日遊徑山。就地拈得片紙。有觀方知彼去。去者不至方之句。釋然有省。乃往見冲。遂蒙許可○住徑山。上堂。五峰頭卓朔。雙徑尾顛先。喝石巖一任[跳-兆+孛]跳。明月池覆地傾天。此四句中。有一句有殺人刀。無活人劍。有一句有活人劍。無殺人刀。有一句殺人刀活人劍俱有。有一句殺人刀活人劍俱無。伶俐衲僧。簡點得個儻分明。許你一生參學事畢○除夕示眾云。前年年。鼻孔無半邊。去年年。兩眼不完全。今年年。精骨獻青天。顧左右曰。廣上座禪已說了。汝等作麼生會。良久曰。參○一日茶次。有僧持餅趨過師前。師問云。這箇餅。那裏買來的。僧回身云。莫道無語好。師便舉手中半箇云。這半箇。那裏買來的。僧云。這却道不出。師云。情知汝道不出○師在皋亭進關時。有僧問云。師今進關。必待徹悟而後出關。師云。恁麼盡未來際。出此關不得○一夕下雪次。有僧推窗云。滿山都是雪。師云。隨聲逐色漢僧云。乞師離聲色道一

句。師云。滿山都是雪○泰昌改元。仲冬二十七日。奄然坐逝於祇陀庵(車溪沖嗣)。

曹洞宗

北京宗鏡小山宗書禪師

號大章。順德南和李氏子。其在童幼。異於常倫與羣兒戲。效作佛事。十歲學儒。已通大義。即掩卷嘆曰。此皆世法。非出世法也。遂往郡之開元菴落。聞月舟禪師法席之盛。入室請益。密踐八載。蒙付正宗。後少室疏請。師嘆曰。先師化後。三十餘年。曹洞宗風。迨乎湮沒。前輩有言。禪林下衰。弘法者多假。我偷安不急撐拄之。其崩隕跬可須也。某甲雖慚付囑。其柰付囑何。遂主之。時值亢旱。河井乾枯。既法席敷開。泉源復漲(南庵依頌云地缺東南水自寬波濤萬頃碧漫漫賺他無限癡男女按著泥阮砌礮磚○位中符頌云種就無根樹影長大鵬肯逐枋榆忙養堅九萬搏風翅一旦飛鳴天下揚)○嘉靖丙寅。師主宗鏡庵。遊履西山。至谷集山三學洞。美其幽寂。遂結夏焉。至冬忽染病。臘月十六日。索筆書偈曰。宗鏡宗鏡。心法成行。即日圓覺。鏡破宗正。偈畢。儼然坐脫。世壽六十八。僧臘三十六。茶毗身骨。分為三分。一分留宗鏡起塔。一分送順德祖塋。一分至少室起塔。其少室謝事之日。法堂中法鼓。無故墮地。得疾之初。秦封槐。摧一大枝。入寂之後。其樹無故崩倒(月舟載嗣)。

順德內丘金山德寶禪師

山東陽津人。姓劉氏。禮北京海眼寺惟安老宿出家。徧參天下叢林。至無念禪師會下。發明大事。後依侍月舟載和尚。久之。付以衣拂。出住燕南。說法二十餘年。後休老於表善觀音院○僧問如何是如來禪。師曰。師子吼時芳草綠。如何是祖師禪。師曰。象王回顧落花紅○隆慶庚午。師年八十五。忽誡諭法嗣祖通云。為法求人。寧勞毋逸。日盈月昃。吾將示寂。乃趺坐而逝。塔全身於舊隱之南崗(月舟載嗣已上二人)。

續指月錄卷十七

續指月錄卷十八

六祖下三十四世

臨濟宗

寧波天童密雲圓悟禪師

字覺初。宜興蔣氏子。甫離襁褓。便喜兀坐。儼然若有所思者。八歲無師訓。知念佛。長事耕穫。偶得六祖壇經。釋鋤觀之。始知有宗門向上事。遂快志參究。一日負薪入市。忽見柴堆突露面前有省。二十九歲棄妻孥。三十從龍池幻有傳和尚脫白。二六時中。一心究參。除傭作雜務之外。時時以己事參詢。莫喻傳旨。日遭詬詈。至病而汗不蘇者浹旬。殷勤四載。始納僧服。閱九載。究心未證。偶過銅棺山。豁然大悟。時傳和尚移錫燕都普照。師往省覲。傳曰。老僧離汝三載。還有新會處麼。師曰。一人有慶。萬民樂業。傳曰。汝又作麼生。師曰。特來省覲和尚。傳曰。念子遠來。放汝三十棒。師珍重便出(晦山顯頌云迸破銅棺險出頭煥然等現萬機休劈空獨握掀天棒塗毒聲騰四百州)○師訪汝登周海門居士。士以道學。門庭高峻。望隆一世。師與之本色相見。脫略窠臼。士為手舞足蹈。館師別業。晨夕諮證。因晤無念有禪師於陶宗伯望齡府第。大為賞識。天台有無擇者。嚮師名。欲以機辯相見。適師路次栽松。遽爾問曰。山有獅子。特來一弄。師舉起鑊頭便打。擇擬議。師直打趁○傳和尚再住龍池。師復往省。傳問汝到諸方。曾見甚麼人。師以脚踏地。以手拍膝。傳曰。汝許多時。一些氣息也無。師曰。和尚疑則別參。一日傳上堂。舉拂問曰。諸方還有這箇麼。師震威一喝。傳曰。好一喝。師連喝兩喝歸位。傳顧師曰。更喝一喝看。師即出法堂。傳便下座(牧雲門頌曰一番風雪一番寒寒盡春來暖氣寬只者何勞重舉出驛亭西去是長安)○師隨入方丈作禮云。適來某甲觸忤和尚。便出。傳即命師居西堂寮。一日撾鼓集眾上堂。付師衣拂。師辭再三。傳復命入室。囑累扶持佛法。師即畫圓相五位。呈傳曰。若據某甲扶佛法。任他五位圓相。都來聰與三十棒。莫道分明為賞罰。傳笑而頷之。遂得法(時師年四十八歲萬曆三十九年辛亥二月三日)○傳既寂。師守龕三載畢。始應眾請。繼席龍池。上堂。一葉落。天下秋。一塵起。大地收。今朝七月六日。無論一葉落不落而天下秋。眾兄弟已備知矣。舉拂子。一塵起也。作麼生是大地收底道理。擲下拂子。若知撲落非他物。始信縱橫不是塵。下座○普請上堂。據眾兄弟擔了飯米來。伴悟上座。各各冀明己躬下事。不合動靜眾兄弟。然而諺有

之曰。有例不可。滅無例不可。興百丈和尚創叢林。立規矩。有普請例。及諸尊宿。亦有普請說。所謂作則均其勞。飯則同其食。自今觀之。似乎不然。作者應當作。閒者應當閒。致令古風彫喪。法門澹泊。無他。蓋主法者不舉之過也。要且者般事。無處得藏竄。所以謂之大道。謂之公案。擔荷者般事。須是者般漢。若是畏刀避箭。躲懶偷安。不足為伴。雖然。却有箇驗處。且道以何為驗。良久曰。打鼓普請看○上堂。我覺洪師弟。募萬人緣。要往臺山齋僧。今日先從家裏齋起。悟上座無以報答。驀拈拄杖曰。不但洪師弟。設使釋迦老子。文殊普賢諸大菩薩。乃至獅象狐狼。泥豬疥狗。法界有情。總到者裏。悟上座。別無供養。總與他一頓。從教怨入骨髓。永劫不忘。擲下拄杖。將此深心奉塵刹。是則名為報佛恩。下座○上堂。六月日頭真箇熱。赤肉團邊如火逼。試問現前諸兄弟。無位真人徹未徹。若也徹。向無陰陽地上豎去橫來。若也未徹。未免明日熱如今日。下座○上堂。開方便門。示真實相。拈拄杖。擊香几一下。方便門開也。豎起拄杖。真實相示也。諸人還委悉麼。若也見得徹去。便可以拈拄杖作丈六金身用。將丈六金身。作拄杖子用。然後拄杖子。[跳-兆+孛]跳上三十三天。築著帝釋鼻孔。東海鯉魚打一棒。雨似盆傾。汝等諸人。切莫向古廟裏去躲。一棒打折你驢腰。莫言不道。下座○通玄解制上堂。八月一。結制畢。腰間包。頭上笠。通玄寺裏放門開。行脚衲僧攙先出。被人拶著要翻身。切莫隨人穿却鼻。復舉洞山曰。秋初夏末。將謂忘却。東去西去。亂走作麼。直須向萬里無寸草處去。坐斷路頭。石霜曰。出門便是草。奴見婢殷勤。大陽曰。直饒不出門。亦是草漫漫地。同坑無異土。者隊老漢。總被山僧折倒了也。諸人還知出身處也無。若也知得。日銷萬兩黃金。不為分外。其或未然。萬古碧潭空界月。再三撈攬始應知。喝一喝。下座○上堂。今朝五月五日。知事頭首。要老僧陞座應箇時節。老僧再三思量。無可計較。何也。雄黃燒酒。固是不宜。要且無箇銅錢買糯穀。思量到計窮力極。忽然得箇富不有餘。貧無不足底。平等法門。正好與世移風易俗。乃擎起兩拳曰。只將者兩箇大糲子。供養大眾。一任橫齧豎齧。忽然齧著自家底。管取人人飽足。免得窮廝煎。餓廝炒○上堂。僧問如何是過去佛。師曰。釋迦老子。曰如何是現在佛。師曰。大地眾生。曰如何是未來佛。師曰。莫妄想。乃曰。諸人盡道解制。殊不知天童之制。結解不結解。總不必論。只如老僧終日趁著大眾。不挑甕。便搬瓦。不運土。便擡石。見你們稍遲縮。不是喊。便是罵。汝諸人作麼生會。還知老漢為人處麼。良久曰。三生六十劫○因雪上堂。昨日青山。今朝白雪。眾兄弟。好消息。野鹿行人。步步成跡。唯有挂角羚羊絕氣息。從來獵犬難尋覓高著眼始

得○上堂。師不陞座。竚於座前曰。老僧氣喘不能說話。遂咳[口*
敕]吐痰於地曰。眾兄弟。試道看。良久無有出者。師以脚抹却。
歸方丈○上堂。當頭一著。坐斷要津。纔然側耳。喪却家珍。從來
佛法。不順人情。所以道。出羣須是英靈漢。敵勝還他師子兒○上
堂。默時說。說時默。大施門開無壅塞。怎如臨濟小廝兒。赤手全
提白拈賊。喝一喝○上堂。舉拄杖曰。舉一不得舉二。放過一著。
落在第二。擲下拄杖曰。老僧落二去也。且一又如何舉。便下座○
上堂。三世諸佛不知有。從空放下。狸奴白牯却知有。平地昇高。
從空放下。無眾生可度。從地昇高。超佛越祖。超佛越祖。眾生度
盡恒沙佛。無眾生可度。諸佛何曾度一人。雖然如是。忽若兩頭坐
斷。中間撒開。突出難辨一句。又作麼生道。披蓑側笠千峰外。引
水澆蔬五老前○上堂。未到天童。不妨疑著。已到天童。冰消瓦
解。何故聾。不見道。聞名不如見面。面既見矣。諸人分上。成得
甚麼邊事。一翳在眼。空花亂墜○上堂。禪不在參。道不在悟。直
下了然。超佛越祖。驀拈拄杖曰。即今莫有超佛越祖者麼。卓拄杖
曰。正好朝打三千。暮打八百。擲拄杖曰。為甚麼如此。撫掌曰。
這裏放過則不可○上堂。樹彫葉落。明明脫體全彰。雲散天空。杲
杲日輪當午。正恁麼時。霜風劈面來。諸人還覺寒毛卓豎也無。若
也覺得。如龍得水。似虎靠山。日用頭頭全體露。折旋俯仰沒遮
攔。喝一喝○上堂。六月初一正炎熱人人通體汗流出。忽然一陣涼
風來。箇箇仍前乾暴暴。且道乾暴暴底是汗。流出底是汗。流出底
是。則不應有乾暴暴底時節。乾暴暴底是。則不應有汗流出底時
節。恐悞賺諸人。老僧不敢道破。也須各各自悟。討箇分曉始得○
上堂。子規啼血滿花枝。口口聲聲祇叫歸。不耐時人猶不省。年年
三月又來啼。大眾還委麼。自是不歸歸便得。五湖煙景有誰爭。卓
拄杖一下○上堂。太白山中儘有柴。一株不許眾人搬。老僧不是多
護惜。為要諸人徹骨寒。雖然如是。祇如道三界無安。猶如火宅諸
人又向甚麼處迴避。若也迴避得。可以高超三界。獨步大方。其或
未然。各各照顧眉鬚始得○一日眾請上堂。師至法堂前。以手揖眾
云。已到為大眾上堂了也。轉身便歸方丈(二隱謚頌云八十婆婆不識羞涌身
畫閣賣風流深深揖下無人采只得慙懣歸去休)○一日挂牌入室。有僧纔跨
門。即曰不用拈提。請師便棒。悟曰。為什麼聾。僧無語。悟便打
(弘覺恣云者僧將成九仞之山尚虧一簣之土若是山僧待道為什麼聾但向道橫趨金殿過
定惹御爐香敢保先師拄杖子兩手分付)○僧問狹路相逢。觸體粉碎。當恁麼
時。無位真人在何處安身立命。師曰。天上天下。唯吾獨尊。曰恁
麼則萬里無雲。一輪迴照去也。師曰。脚跟下好與三十棒○僧問曹
溪一滴。直透龍池。如何是直透龍池底事。師曰。脚穿過觸體。曰
源遠流長一句。作麼生道。師曰。但與麼去○僧問如何是三寶。師

曰一頓胡餅兩頓粥。曰不問這三飽。師曰。老僧日日奉持(法音[沆-几+桀]頌云一頓胡餅兩頓粥衲僧千足與萬足慇懃說向參玄者六六原來三十六)○僧問虛空破了將何補。師云將你補(法音[沆-几+桀]頌云虛空破了將你補明眼衲僧休莽鹵剝剝觀音妙智力塵塵能救世間苦)○師於龍池。通玄。金粟。黃檗。育王。天童。凡六座道場。三十餘年。宗風大振。座下踰三萬指。海內宿衲。久已領徒匡眾者。嚮師之風。無不皈依座下○崇禎辛巳。國戚田公。為皇貴妃賁紫衣入山。請師陞座。復得俞旨。請住金陵報恩。師以衰老固辭○壬午春。拽杖歸通玄。七月三日示微疾。五日手書復護法祁侍御。六日有僧自都中來。問喝作喝會。棒作棒會。入地獄如箭射。畢竟作麼生會。師便打。僧禮拜。師曰。千句萬句。皆從自了。自己不了。喫棒不了。七日晨興。巡閱匠工如平日。及午歸丈室。語侍僧倦甚。登寢榻少頃。方起坐跏趺。泊然而逝。世壽七十有七。全身龕迎還天童。塔於幻智菴右隴。語錄題請入大藏流通(龍池傳嗣)。

常州磬山天隱圓修禪師

荊谿閔氏子。自幼失怙。鬻蔬奉母。恒持觀世音菩薩名號。弱冠聽講楞嚴。一切眾生。皆由不知常住真心。性淨明體。用諸妄想。此想不真。故有輪轉。惕然知有生死大事。遂往投龍池幻有傳和尚出家。二十四得度。參父母未生前話。久未有人。一日隨傳出窑運磚次。同事說四大名山。菩薩出現。神通廣大。傳曰。者裏也不少。師進曰。如何是者裏神通。傳曰。快度磚來。師於言下有得○一日偶展楞嚴。至佛咄阿難。此非汝心處。驀然打失本參。會傳北行。師掩關龍池。閱古人公案。復於雲門扇子話去不得。力究兩載。忽聞驢鳴大悟。乃曰。忽聞驢子叫。驚起當人笑。萬別與千差。非聲非色鬧。遂破關與同參密雲悟禪師。趨京都。覲傳於普照寺。傳曰。別來三載。各呈似看。師進曰。人說北地寒。我說南方暖。寒暖不知人。窮人知寒暖。傳頷之。次日入室。問歷歷孤明時如何。傳曰。待汝到這田地與你道。師便喝。傳曰。汝還起緣心麼。師拂袖便出○一日傳因事穿褊衫。舉椅子作女人拜。向師云。汝上坐。待我拜汝為師。師笑呈偈曰。木人提唱笑呵呵。更著衣衫誰識他。昨日覷來是男子。今朝還作老婆婆。傳覽畢。笑曰。此偈甚愜老僧意。即日命掌記室。久而印可○出住磬山。次遷法濟。後住報恩。上堂。禪非解會。道絕功勳。妙體湛然。真機獨露。不可以心思。不可以意想。不可以言宣。不可以默照。不可以色見。不可以聲求。一念回光。便同本有。恁麼則釋迦老子。睹明星時。見箇甚麼來。者裏透得頓越三祇。坐斷報化佛頭。隨時著衣喫飯。還有向上

一路在。驀豎拄杖曰。釋迦老子。在諸人眼睫毛上。放光動地。祇是不得動著。動著則三十拄杖。何故。不見道。丈夫自有冲天志。不向如來行處行○上堂。一塵不立。猶在半途。截斷眾流。尚居門外。且道誰是到家者。顧左右云。觀音菩薩。將錢買餠餅。放下手時。原來是饅頭。到者裏。直得如天普蓋。似地普擎。耳內藏得須彌山。眼內著得四大海。方有語話分。且道此人。渾身在恁麼處。委悉麼。數聲清磬是非外。一箇閒人天地間○上堂。拈拄杖曰。老僧有時拈拄杖子。不作拄杖子用。有時拈拄杖子。作拄杖子用。有時以拄杖子。行遍四天下。擲向壁角落裏。有時拋下拄杖子。獨自打頓去。諸人者裏見得。便會得我臨濟大師的賓中主。主中賓。賓中賓。主中主。雖然。切不得動著。動著。則打你頭破腦裂。莫言不道。卓拄杖○示眾。今朝正是臘月半。大事分明須了辦。莫待臨時有屈伸。解脫門開成大患。堂中箇箇老成人。著著拈來要方便。言言見諦剔祖燈。自古傳持吹毛劍。吹毛劍。有何驗。當陽拈出與人薦。驀擲拄杖曰。怕令停囚長智○示眾。靈源湛寂。智體自如。觸處洞然。隨方應用。目前無法。拈來物物全彰。箇裏無私。舉起頭頭成現。須是恁麼人。行得恁麼事。且道那箇是恁麼人。禾山打鼓。雪峰輓毬。趙州喫茶。雲門餠餅。到者裏總用不著。且道有甚長處。卓拄杖曰。偶然獨立千峰頂。閑看湖帆自往來○示眾。今時禪門大變。總是箇弄虛頭漢。教壞人家男女。不肯指點人做實地工夫。剛剛學些魔嘴說話。不顧本分中。黑漆漆地。老僧者裏不比諸方。容人打口令。謂之參禪。若要在住。須將從前學來的。盡情吐却。淨淨地本分參究一回。討箇分曉始得。若不如斯。唐喪光陰有何利益(玉林琇書記攜二猫上方丈問師。那箇好。師指曰。者箇好。琇便擲下而去。復入。見猫在地幾死。更與一踏。師拈拄杖打趁。琇轉身曰。和尚也掙命。師打曰。你不知鼠之害。只欲行祖師門下事。琇高聲曰。說甚祖師不祖師。師曰。與麼為甚踏殺猫。琇曰。和尚作者箇說話。入地獄如箭射。師乃低頭歸方丈。至晚小參舉前話曰。老僧到者裏性命幾合不存。眾中有人代得一轉語相救老僧麼。筓菴問出眾云。大眾。和尚今日普請。拂袖便出。師曰。過去了也。琇云。箭去西天十萬里。猶在自己國裏擬議亦出。師卓拄杖曰。雖然如是。不因漁父引。爭得見波濤)○問如何是法身邊事。師曰。黑漆桶。如何是法身。師曰。爛東瓜。如何是法身向上事。師曰。三家村裏酒帘子○師風儀磊落。賦性恬退。親炙龍池一十八載。累命分座說法。皆辭遜。初入磬谷。值雪深五十餘日。炊烟幾絕。師於飢禽野獸中。安之晏如。獨念法門衰晚。師道陵夷。力恢濟上綱宗。大闡別傳旨趣。痛呵穿鑿。嚴辯正邪。四方嚮道之士。承風踵接。競喧宇內。崇禎乙亥。九月二十三日。示寂。塔全身於磬山之右(龍池傳嗣)。

杭州徑山語風雪嶠圓信禪師

寧波朱氏子。九歲聞誦彌陀經。水鳥樹林。悉皆念佛念法。自此發心。至二十九歲出家。熱病幾死。夢神告言。明日愈也。飲冷水汗出果瘥。即便行脚。嘗自恨云。既出家。當作何事。每日癡呆。衣食多廢。隆冬骨露。遇無袴者。即解敝袴與之。赤體七日夜。冷氣攻腹。痛不可忍。如此兩載。苦無入處(或強師還俗飲酒啗螺一月後忽空中垂金色大臂掐斷鼻梁猶不悛數日後復垂大臂取喉內筋扯去數寸痛欲絕捫頸上筋結成塊即捲衣渡江其塊始消其痕不滅)○上秦望。訪妙禎山主。主舉昔有他心通僧住山。遇少林僧欲勘之。其僧早知。預過溪候。頃之少林僧至。他心通僧問何來。答云。天竺。他心通僧即負過溪。至急流問曰。我聞有三天竺。汝那一竺來。速道。速道。少林僧無語。還負擲溪邊謂之曰。饒汝家裏死。果如所言。禎令坐中。各轉一語。為少林出氣。各轉語竟。禎叱師曰。宗門中語。何得亂話。師惶愧不已。誓欲明此公案。至五更。聞報鐘。即捏拄杖躍大石上。高提那一竺來。自此通身是箇疑情。手指日輪曰。午時決要明白。石頭間跨上跨下。狠提。從前妄想俱掃。只此話頭不捨。猛跨上石。忽前後際斷。如空中迸出日光。又若山崩海裂。內中所有之物。一一洞見。無身相可得。復喝一喝。張三殺人。李四償命。明日返天台。求人印證。擡頭見古雲門三字。乃大悟。爾時發願弘雲門宗。途中說句云。一上天台雲更深。脚跟踏斷草鞋繩。比丘五百無踪影。見得他時打斷筋。乃走西天目禮佛。至活埋菴。僧請偈。有香爐一箇折隻脚之句。遂念蓮池宏大師。決為我印證。直走雲棲。到時天晚。次早大眾喧嚷云。法堂上香爐冷地爆碎。堂頭要這僧出來懺悔。封鍋不煮粥飯。師自念此讖。天目題香爐峰因緣。乃印證我也。入大禪堂跪曰。香爐是某甲打碎。特為懺悔。大眾即執方丈。宏曰。不是他。你去說與他。他是客。不是你打碎。師曰。打碎香爐。不分賓主。又遣問曰。打得幾塊生。師曰。贗物現在。旁一僧曰。何不去方丈前禮拜。求許開鍋。師往跪叩首數百。侍者傳語云。去開鍋也。少頃。僧又云。尚未開。汝再往禮拜。師復進跪叩數百。頭欲破。侍者曰。開也。師謝而出。宏命維那云。新到是菩薩行人。好生留住。師飯畢。堂中禮九拜。唱曰。某甲不學好。累及大眾。雨淋淋地竟去○後師再上雲棲。問如何得成佛作祖去。宏曰。問道於盲。師曰。道豈盲耶。宏曰。我盲。師打圓相曰。總在這裏。宏指圓相曰。盲。師曰。見婦不須重下淚。還他原是箇中人。宏曰。不是箇中人。師曰。却好。宏曰。好好。師禮拜。次日呈偈。宏為逐句著語。偈曰。不解西方不學禪(雲棲宏著云低聲低聲)偶來塵世祇隨緣。(宏著云解也學也)三間茅屋傍溪住。(宏著云溪深路滑)兩

扇竹窗關月眠。(宏著云春色滿園關不住)醉盡衲衣那有結。(宏著云怎似寸絲不挂)養長頭髮欲成顛。(宏著云成顛亦不惡)自從會得吾師意。(宏著語云胡餅裏討汁)白雪飄飄六月天。(宏云夏行冬令寒暑不正)復囑以頭陀行。住雙髻山。續佛慧命。(師初住時念高峰妙六年於此我亦六年及期滿石板自鳴師方腰包戴笠其房火起自燃後住徑山千指庵時年已六十矣)遂往參龍池傳和尚。室中機契。即獲心印。出住徑山。上堂。師云。咄咄咄。千年常住一朝僧。今日祖令當行。十方坐斷。且道還有祥瑞也無。鐘樓生耳朵。佛殿又懷胎。司理黃海岸居士出問曰。如何是鐘樓生耳朵。師拈生香示之曰。會取這箇。進云。如何是佛殿又懷胎。師曰。產下也。士禮拜。師乃曰。承命老人至此。理荒殘之祖席。這箇喚做狗尾續貂。那管家家門前火把子。釣魚船上謝三郎即不問。新婦騎驢阿家牽。道將一句來。還有人道得麼。一拂擊開金殿月。萬家無箇不光明。復舉疏山問為山樹倒藤枯公案。至明招處舉前話。招云。更使為山笑轉新。山云。原來為山笑裏有刀。師召大眾曰。要見為山笑裏刀麼。呵呵大笑。下座○黃海岸居士請上堂。師舉臨濟云。有一人論劫在途。不離家舍。有一人離家舍。不在途中。那箇合受人天供養。師曰。這箇語話。大似掩耳盜鈴。瞞人自瞞。諸人要識這兩箇人麼。餘杭紙貴。一狀領過○黃介子居士請小參。師舉古佛偈云。見身無實是佛身。了心如幻是佛幻。了得身心本性空。斯人於佛何殊別。徑山則不然。鱸魚水底聚。鷓鴣子貼天飛。會得此中意。成佛更無疑○小參。師陞座曰。有一人超出佛祖。千聖莫能窺。諸祖不敢正視。良久曰。諸人要識此人麼。只在汝等動用中。還會麼。會則不妨出眾道看。舉洞山掇菓桌話。師曰。當時首座恁麼下語。至今還有下語者麼。如無。徑山為伊下箇註脚。過在動用中。不得果子喫。洞山太無端。咄咄咄咄咄○黃海岸居士問云。入泥入水時如何。師曰。滑殺人。士云。久聞雪嶠。及至到來。不見一點。師曰。日頭大。士云。雪鎔後如何。師曰。春水滿溪流。士云。大師曾見甚麼人來。師點胸云。雪老。士禮拜○師舉三日前。夢室中火起。老僧喝兩喝。火燄漸微。自占曰。般若如大火聚。日來老僧舉揚家醜。莫非正應此夢。余集生居士云。早是大地火發了也。師曰。老僧甚麼處安身。一僧進云。請師再不註脚。師曰。向居士鼻孔裏。士云。打失鼻孔。救取眉毛。師頷之○嘉禾三塔僧慈雨。自負有得。師以婆子燒菴話扣之曰。正恁麼時如何。下一語看。僧云。感恩不盡。師曰。太煞露筋骨。僧乞師代語。師曰。大似商人落夜。僧禮拜(劉覺岸居士云今諸方訛傳感恩不盡是師語殊謬)○僧問高峰云。人人有箇影子。因甚踏不著。師曰。踏著即禍生○僧問路逢獅子時如何。師即震威一喝。僧無語。師打出○僧問如何是休糧方。師曰。兩粥一飯。進云。此理如何。師曰。不曾

嚼著一粒米。進云。若然。一切人皆相似也。師曰。不墮諸數○僧禮拜云。望師慈悲。佛法布施。師曰。窮。進云。大師用不盡的。師曰。慳。乃舉鳥窠拈布毛公案。師亦拈布毛吹之。問僧曰。會麼。僧云。這是鳥窠的。師曰。鈍根奴。明明示汝。又道是鳥窠的。即喝出○師真率不羈。詆呵諸方。無當意者。寡耦少徒。一筇孤往。後歸老徑山。一夕呼茶飲畢。唱自所書小兒曹。生死路上好逍遙。皎月清霜曉。一杯茶。坐脫去了。遂示寂。順治丁亥八月二十六日也。覺浪杖人為建塔雙徑。後弘覺忞公。復遷全身塔於雲門右麓(龍池傳嗣)。

湖州淨名抱朴大蓮禪師

杭之臨安駱氏子。年十五。投妙嚴祝髮。二十二往雲棲受具。初遊講席。一日自念數年以來。於教相旨趣。雖有理會處。生死岸頭。全用不著。遂更衣入徑山禪期。三七日中。廓然洞徹。述偈曰。自幼失親娘。徧覓於他鄉。驀然一相見。更不再思量。解制即往荆溪。參叩龍池傳和尚。傳曰。汝是何方人。師曰。古杭雲棲弟子。傳曰。雲棲說何法。師曰。雲棲不說法。傳曰。老僧這裏也不說法。師曰。某甲自遠瞻風而來。云何不說法。傳曰。老僧牙齒疏缺。師曰。道不在牙齒上。傳曰。不是這箇時節了。師云。道無古今。傳曰。上座明白了。師云。不知還許明白否。傳曰。已道過了。至夜。師曰。親切處更乞一言。傳據座而巳。師喚侍者點茶來。傳曰。上座不妨伶俐。師曰。某甲耳聾。傳休去○師一日禮辭。傳曰。老僧猶有語。言未盡在。師曰。和尚言雖未盡。其意某甲已知。傳曰。且道老僧意作麼生。師便喝。傳曰。再喝一喝看。師轉身便出。傳付以源流拂子○住後僧問佛是何義。師曰。覺義。僧曰。佛還迷否。師曰迷。僧曰。既覺。云何復迷。師曰。不迷。又問作麼。僧曰。也須問過。師拈棒打出。問如何是奪人不奪境。師曰。蛺蝶穿花影。曰如何是奪境不奪人。師曰。掀眉掃白雲。曰如何是人境兩俱奪。師曰。彼此無消息。曰如何是人境俱不奪。師曰。推窗看月明○魚山熊居士問萬法歸一。一歸何處。師舉茶盃曰。請茶。士曰。我在青州作一領布衫重七斤。作麼生。師曰。脫殼烏龜飛上天。問如何是麻三斤。師曰。斤兩分明○示眾曰。冷地裏聞人說著修行二字。不覺失笑何以故。心本無念。將箇什麼來修。亦復無形。又修箇什麼。且本是絕待。纔涉修行。便成兩橛。若有箇伶俐漢。一識破便放下。何等妥貼。何等自在。雖然。也須透過一番始得。不是說了便休。珍重○師於崇禎二年。八月示寂(龍池傳嗣已上四人)。

曹洞宗

西京萬壽幻休常潤禪師

別字大千。南昌進賢王氏子。幼背二親。從從父遊。常目攝羣優。灑然若有所創。知諸幻皆戲局也。無常謂何。乃入伏牛山。禮坦然平公祝髮。居三載。知攝心如按浮瓜。起滅相乘。茫無所措。質疑未決。南謁萬松於徑山。通所疑。松詰之曰。疑是何人。措者何物。師未決。退而至九華。一夕覺身同虛空。疑甚。乃聽講楞嚴。至圓明了知。不因心念處。忽爾有省。廓然如鏡中象。不落空有。乃知前境虛空。直塵勞一息耳。後參大方蓮公。問現鏡中象時如何。蓮曰。直須打破。師曰。打破後如何。蓮曰。亦未離心境。師未決。參小山書禪師。始至舉前話。書曰。何必打破。師曰。其柰鏡象何。書曰。鏡象安在。師有省。一日書問師曰。疇昔之疑決否。師舉掌。書曰。將毋以罔象問景耶。師曰。此外更無何有。書曰。試披衣檢之。力行二年。愈益精進。書舉洞山我今不是渠詰之曰。既不是渠。畢竟是何人。師領悟。以偈答曰。若要識此人。有箇真消息。無相滿虛空。有形沒踪跡。曾為佛祖師。嘗作乾坤則。龜毛拂子清風生。兔角杖頭明月出。書曰。子無勦說。更須自入悟門。師曰。尚不借緣。從何門入。書曰。既不借緣。何為至此。師曰。因不借緣。所以至此。書曰。就不借緣一語。於意云何。師曰。彩鳳翻風身自在。鐵牛奔吼意常閑。書曰。善哉。明日辭行。書付偈曰。定作人天主。當思少室秋。師曰。常潤是甚麼人。安敢當此。書囑曰。吾道不振久矣。豈宜袖手耶。師唯唯。逮書示寂。僉議繼席。非師不可。師執意謙退。再請再却。眾乃舉書付囑之偈。師遽墮淚。不復言辭。乃住少室。師體貌豐碩。聲若鴻鐘。與諸學人甘澹泊。而襟度夷曠。一力負荷大法。朝夕乾乾。無少倦色。告香入室者。二百七十人。○萬歷乙酉四月念七日。書偈告寂(宗鏡書嗣)。

建昌廩山蘊空常忠禪師

本郡人。為居士時。嘗講姚江良知之學。一日客遊鎮江鶴林。過一老宿。號古溪者。謂譚曾參月舟和尚。乃從剝落。老宿病。又謂之曰。子既出家。可徧參知識去。師遂往中州。聞小山書和尚道風。即謁之。書問來為何事。師云。為生死求出離法。書曰。生死在何處。要你出離。師無語。書曰。且去務下著。一日師又問。如何得見性成佛。書曰。你喫飯也未。師云。已喫了。書曰。舌在你口裏。還見麼。師云。畢竟如何得成佛。書曰。佛是乾屎橛。汝咬得

破麼。師擬再問。書搖手曰。不是不是。師益心疑之。乃辭書徧訪諸方名宿。久之有省。乃徹見書作用。因復返嵩山。適值書他出。師迎而問云。達摩面壁在甚麼處。書指曰。阿那青黯黯處。師云。東指西話作麼。書曰。南方杜撰禪和。如麻似粟。師云。切忌魔魅人家男女。書拈拄杖便打。師禮拜。書便偕歸。會書謝少林事。往住北京宗鏡。師隨行。服勤三載。深得玄旨。書每勘驗之。機鋒不讓。一日辭歸。書付以偈曰。宗鏡門下萬株松。長年占斷白雲封。人間未許閒相識。一枝迸出笑春風○師歸建昌。於從姑僻處。每危坐。人或問之。師搖手曰。汝不會去。或曰。師且為我說看。師云。這豈不是不會。人咸笑之。因到覆船山見紹隆大師故蹟。乃題詩於簫曲峰靜室壁間云覆却船兮賺雪峰。渠無生死太空空。玉簫聲斷千山冷。誰聽猿啼夜月中。蓋深有感也。盱江之新城有廩山。去郭二十里。八面秀拔。師遊喜之。因結茅棲止者二十年。不與人接。諸士紳故人。多來相訪。唯默坐而已。羅近溪鄧潛谷二公。與論性命之學。皆超出情見。及舉宗門向上事。人多未能領略○無明經公。嚮師道行高峻。特求出家授戒。師云。出家須出五蘊家。且待此事明著。尚不為遲。皈戒須皈自心法。豈必三壇為能圓。你知十六沙彌。繼燈成佛麼。出家如此。是真丈夫。經又問如何是入道法要。師云。汝但能精進不欺。便可徹頭徹尾。經一日與諸兄弟論金剛義甚快。師聞之笑云。宗眼不明。非為究竟。經大驚。便問如何是宗眼。師振衣而起。經益疑之。一日舉前話問師。師云。我不如你。你自看去。經後隱峩峰。因如大好山語下大悟。走廩山以偈呈師。師云。悟則不無。更要受用得著。若受用不著。祇用箇汞銀禪也。因舉南泉王老師賣身話勘驗之云。子試道南泉是何心行。經曰。這老漢沒蓋載。待你頭出角著。又問甘贄行者。請念誦南泉打破鍋子。意旨如何。經曰。拂袖便行鉤有餌。鍋兒打破玉無瑕。師奇之。乃云。他日子弘揚祖道。吾不如也○師生平言行縝密。如美玉在璞。非有真為法人。拒而不見。見人譚某於何處有省悟。何處有證入。輒勃然呵之云。汝何所見。敢以此證據人耶。打破大明國。尋不出幾人能真參實究。在你敢作大妄語。以未悟謂悟。未證謂證耶。有拈頌若干。超絕卓異。祕不示人(鄧徵君與師交最久嘗有詩寄師云入海泥牛不見踪龍山太煞露家風誰知別有深深意韻出新豐調不同師見之笑云公可謂知得山僧一半也)○一日師無疾忽告眾曰。我有一箇未了底事。汝等須知。眾無語。乃命澡浴整衣。遂端坐而瞑。茶毗頂骨不壞。塔於本山。後司理黃端伯居士。同壽昌謚公。復遷塔於廩山之麓(宗鏡書嗣)。

魏博大叡隱庵如進禪師

廣平永年人。族姓陳。得法於小山書公。養道於大伾之興國寺。影不出山。足不蹈閭者數載。凡尼姑婦女。不許入門。無容面謁。久之開堂說法。機如走珠。口似懸河。衲子肩摩接踵。趨謁如狂。一日應請北遊。途宿三教堂。主僧進曰。此中向有愍布袋像。供西壁。後為羽士居此。於頂上安雙髻。改呼為鍾離仙。遷供東壁。每每緇衣黃冠。爭衡代位。至今葷酒淫祀。妖孽一方。殊為怪事。求和尚除之。師以拄杖指其像曰。者塊泥團。變怪多端。不守本分。惱亂人間。髡頭佛祖。丫髻神仙。出乖現醜。魔魅閭閻。彼此搬弄。東那西遷。妄生喜怒。暮四朝三。不遇老僧行正令。多年冷地受牽纏。四大各復。返本還源。從此一方齊物論。即刻送汝上長安。咄咄。連棒粉碎。而妖孽從茲肅清(宗鏡書嗣)。

龍岡大方如遷禪師

陝西鳳翔岐山縣之李氏子。年十七。禮本郡無踪本公為師。首參悅菴喜和尚。授具指示向上一路。尋入青峰山。弔影單棲。有所開悟。謁大章書和尚於立雪庭。遂留依止。朝夕入室。陶鎔從上機緣。乃蒙印可。有針頭玉線。海底鐵牛。日夜辛勤。記伊保守之囑。師至懷慶。鄭世子讓國。潛修白業。聞師至。乃建精舍於龍岡。延師晏寂。慈聖皇太后賜大藏經。護勅御書大法寶藏四字。至龍岡。創寺安供。後師無疾端坐而化。塔於寺右(宗鏡書嗣)。

鄴下古風通玄禪師

本郡王氏子。齠年禮大妙師祝髮。甫壯南詢。與伾山進往謁小山書禪師。一見直以龍象期許。久之。乃付衣法。後聞帝闕。奉旨開堂於真定舍利寺。代王聘請開法於山西大同。僧問如何是道。師曰。何不問己。僧曰。自己云何是道。師曰。處處綠楊堪繫馬。家家有路透長安。僧曰。向上更有事也無。師曰有。僧曰。如何是向上事。師曰。青山低處見天闊。紅藕開時聞水香。未幾辭歸。效陳蒲鞋養親。建願王菴以休老。後無疾端坐而逝。塔於菴側(宗鏡書嗣)。

順德鵲山天然圓佐禪師

邑之范氏子。偕大方遷公。參小山書和尚於少室。機契。竟付衣鉢。歸里隱蓬鵲山石河菴。有請說法者。師辭甚堅。柱史吳公率四眾再三迎請。乃上堂。以拂子打圓相曰。會麼。向上一路。千聖不傳。學者勞形。如猿捉影。苟非忘形去智。喪偶息機。親到虛靈不

昧。了了常知底田地過來。要見他拈花之旨。面壁之宗。大似數他桃李宮牆外。終非己有。諸人還要知佛祖直指底消息麼。乃以拂擊案云。適來山僧已自告報了也。便下座○僧問拈椎豎拂。舉古明今。皆是止啼黃葉。如何是金錢。師曰。只見雷霆施號令。那知星斗煥文章。曰和尚自把火行。其如學人何。師曰。閉目中秋坐。却怨月無光○蓬巖吳柱史問如何是般若體。師曰。寂然不動。曰如何是般若用。師曰。感而遂通。曰如何是下手得力處。師曰。罔象到時光燦爛。曰如何是不得力處。師曰。離婁行處浪滔天。曰恁麼則儒釋未始有異。師指空曰。此儒耶。釋耶。同耶。異耶。公作禮曰。謝指示○萬歷乙酉十月。師預知時至。浴畢坐逝(宗鏡書嗣已上六人)。

續指月錄卷十八

續指月錄卷十九

六祖下三十五世

臨濟宗

潭州瀋山五峰如學禪師

關中臨潼任氏子。參密雲悟和尚。一夕茶話次。悟驀伸脚曰。你作麼生。師以脚踢之。悟笑曰。未在未在。師曰。和尚道看。悟倒臥。師曰。也只是困。悟曰。你又與麼去也。師乃禮拜○天敬丙寅冬。金粟眾盈五百。悟乃舉師為西堂(林皋豫見師於西堂寮問漢首座何如師云我也不知豫云宗師家具擇龍蛇眼為甚麼道不知師云兄眼何在豫便喝師默然豫又喝師云何不再喝豫云好不知痛癢師便休)○一日師辭行。悟握拂曰。喚作拂子則觸。不喚作拂子則背。不得拈起。不得放下。不得下語。不得無語。不得錯舉。若不錯舉。則分付汝。師則連跳兩跳曰。要不要。悟曰。猶是亂叫亂跳。更試舉看。師轉身曰。某甲去也。悟乃付源流拂子○崇禎庚午。悟住黃檗。師在西堂寮。僧隱元琦參。向師豎拳曰。識得這箇。天下太平。識得這箇。天下爭競。如何決斷。師便打。僧再喝。師又打。僧連喝兩喝。師又兩打。僧遂呈所得。師云。此子徹也。乃呼進寮云。汝有悟處。試道看。僧云。道即不難。只恐驚羣動眾。師云。但說何妨。僧打觔斗而出。師云。真獅子兒。善能哮吼○癸酉出瀋山之金陵祇陀林。忽示寂。龕歸建塔。所著五宗派敘。示衡州僧谷應。後黃龍牧夫。付梓行世(天童悟嗣)。

蘇州三峰漢月法藏禪師

無錫蘇氏子。年七歲就鄉塾。值湖水暴漲。家人徧尋不獲。即乘一大龜。衝濤而來。里人神之。十五出家。十九剃染。究心教典。精析儒術。嘗語人曰。十河九洛。象教總持。須從無文字處求之。乃著四書五經參同。一日憮然曰。宗乘中事。自問理會也理會得。說也說得。只一事未在。敵他生死不得。遂決志行脚。參萬法歸一話。徧扣名宿。皆不當意。遂隱虞山三峰。草屋蘿牆。不設榻座。會窗外二僧夾籬。拗折大竹。聲若迅雷。乃大悟。因閉關次。忽推窗見黃梅墮地。始得徹證。乃握一竹篋。亡曉夜開發學者。一時稱三峰鑪鞴。名重叢林○天啟甲子秋。禮悟和尚於金粟。悟上堂舉黃檗參百丈。丈舉再參因緣。黃檗不覺吐舌。丈曰。子以後莫承嗣馬

祖去麼。壁曰。不然。因師舉得見馬祖大機之用。然且不識馬祖。若嗣馬祖。已後喪我兒孫。丈曰。如是如是。見與師齊。減師半德。見過於師。方堪傳受。子甚有超師之見。故臨濟三度問佛法大意。三度被打。濟後出世。惟以棒喝接人。不得如何若何。祇貴單刀直入。師出眾便喝。悟曰。好喝。師又喝。悟曰。汝試更喝一喝看。師禮拜歸位。悟復舉僧問古德。朗月當空時如何。德曰。猶是階下漢。僧曰。請師接上階。德曰。月落後相見。且道月落後又如何相見。師便出堂。即日請師居第一座。次日悟上堂。師問海眾雲從。慈霖普霑。現躍飛騰即不問。如何是驅雷掣電底句。悟便喝。師曰。恁麼則金粟花開。寶林果熟去也。悟又喝。師禮拜歸位。未幾欲辭行。悟手書臨濟源流。并信拂授之○杭州安隱請師上堂。上首白椎未竟。師以拄杖橫截曰。千佛下口不得。列祖一場敗闕。今日直下拈來。依然是赤骨律。此事如干將莫邪。雙腕並運。如冰花。若火燄。向報化舌根下一截。正好銷兵鑄鑊。樂過平生。只今有恁麼漢子麼。不妨與安隱相見(初安隱請雲門澄禪師。澄云。吾年邁矣。汝若請三峰為首座。老僧即來。眾詣三峰白其事。師欣然許之。及至澄先一日化去。遺語曰。漢首座當世宗匠。佛法學識較我十倍。即請主之。眾遵遺命請師開法)○上堂。若論此事。如迅雷貫頂。掩耳不及。吐出清風。一條鎖鎚。向須彌頂上一鎚。金剛山下透脫。倒卷虛空。萬仞壁立。若是臨濟嫡骨兒孫。便解向獅子口裏敲牙。驪龍脊上揣骨。主賓互換。通身縱奪。末後句裏出身。威音王前過活。還有如是操路者麼。出來與老僧相見(安隱示眾機先一句是汝諸人安身處先機一著是汝諸人立命處其間左之右之或伸或縮是汝諸人踏脚處末後一句是汝諸人出頭處○此則法語諸方爭相傳誦稱為三峰五決旨確庵青頌云展開兩手任君看鑒徹機先也大難情與無情俱斷送收來一併葬桐宮○七百年來老作家撒開捏聚驗龍蛇饒君膽略能籠世到此如何敢劈牙)○上堂。頭上蔚藍天欲滴。脚底白雲千萬尺。手中拄杖腰下瓢。去去來來無順逆。好消息。踏破草鞵雙脚赤。三頭八臂腦後睛。日日相逢不相識○上堂。攀躋不住忽然翻。打破吾宗向上關。剩得一雙窮相手。始知無法向人間○法座成上堂。巖巖獅座涌堂中。老衲披衣坐法空。跨下狻猊忽翻擲。一聲哮吼見威雄。喝一喝曰。獅子踞地吼。佛祖倒身走。出頭天外看。只有萬峰叟。喝一喝○室中嘗垂三問。勘驗衲子。一曰。宅破家亡。阿誰是主。二曰。縱開楔棒。是何意旨。三曰。卷席挂拂。因甚不住。鮮有契其機者(西蜀劉道貞入山問道。既有省。答師三問頌。一·宅破家亡云。無錐真勝去年貧。剝盡皮毛見赤身。夢到千岳霜雪後。梅花隴外一枝春。二·縱開楔棒云。莫將言語溷綱宗。劍在眉間覲露鋒。領取機先第一句。虎頭虎尾絕孤蹤。三·卷席挂拂云。獅兒不戀舊時窩。躑過翻來雷影過。惟有蓮峰知此意。橫肩榔栗入煙蘿。師首肯之)○師嘗曰。黃龍有言。學者欺詐之弊。不以如來知見之慧。密而煅之。何

由能盡。且古人建立宗旨。千牢百固。尚有承虛接響者。混我真宗。若師家大法未明。無從辨驗。則胡喝亂棒。羣然而起。吾宗掃地矣(鐵壑溥頌云商周彝鼎存家貝俎豆斯文起草萊破竹聲中玄會得真宗繼響復誰來)○師初開三峰法席。歷主淨慈北禪。龍山錦樹。真如聖壽。復重興鄧尉聖恩祖席。一日上堂辭眾曰。心休不說法。骨瘦上堂艱。分明都說盡。湖水洗山顛○崇禎乙亥七月二十二日。將入寂。侍者問如何是身後事。師曰。牀頭老鼠偷殘藥。壁上孤燈照舊衣。侍者擬再問。師舉手曰。放下幔子著。至中夜。索浴更衣。泊然而逝。門人奉全身建塔於聖恩寺之右。曰天山塔院。著有八會廣錄。智證傳提語行世(天童悟嗣)。

四川夔州破山海明禪師

蜀之蹇氏子。年十九。出家姜家菴。聽講主說楞嚴。至一切眾生。皆由不知常住真心。詣主請益未決。遂出蜀。徧參憨山清。博山來。雲門澄諸老。不契。乃住破頭山。猛力參究。一日到萬丈懸崖上立足。自誓曰。悟不悟。性命在今日了。辰時立起。立到未時。眼前惟有一平世界。更無坑坎堆阜。舉意欲經行。不覺墮崖損足。至夜翻身忽痛。有省。天明叫曰。屈屈。一居士曰。師父脚痛麼。師劈面一掌。曰非公境界○參悟和尚於金粟。值猛雨轟雷。悟謂眾曰。假饒雷來打我。汝等如何支遣。師曰。用遣作麼。乃呈頌曰。因地雷聲意自悠。幾人歡喜幾人愁。吾師縱有分身法。血濺黃沙倒逆流。一日悟落堂。惟默然。師問正恁麼時如何。悟云。你可到恁麼地否。師震威一喝。悟便打。師復兩喝。悟云。你再喝兩喝看。師掀倒禪牀。拂袖便行。悟追上驀頭一棒。師曰。恁麼為人。瞎却天下人眼在○師入座。悟問內不放出。外不放入。正恁麼時。以何為界。師曰。竿頭絲綫從君弄。不犯清波意自殊。悟領之○出住禾之東塔。上堂。東風解凍。百草萌芽。行脚衲子。似粟如麻。拖泥帶水兮。草鞋寧似虎。混俗和光兮。拄杖活如蛇。向有佛處不可住。無佛處急走過。方稱英俊作家。切不可向萬里無寸草處坐。虛度生涯。大眾。且如山僧這裏。九旬禁足。三月調心。今日解制。臨行一句。作麼生道。摘楊花。摘楊花○上堂。金鋤削盡千峰雪。露出天涯星月孤。照得世間人廓徹。都來依樣畫葫蘆。大眾未審還有依樣畫得者麼。有則不妨好手手中呈好手。紅心心裏射紅心。其或未然。且待山僧自畫去也。以拄杖打圓相於中擲地曰。層落落。影團團。千古萬古與人看○上堂。福城東際煙水漲。大塔廟前樓閣開。千手大悲捫不住。無端放出善財來。大眾。且道善財來作甚麼。隨行踏斷流水聲。縱觀瀉出飛禽跡。卓拄杖下座○上堂。解開

布袋口。放出一羣牛。繞砌尋芳草。芒繩貫鼻頭。放去也東觸西觸。收來也山悠水悠。正恁麼時。不收不放一句。作麼生道。拏雲自可容收放。喝月誰能使去留○上堂。昨夜梅花香宇宙。今朝雪塊打長空。就中一點真消息。拈向諸人鼻孔中。驀呈拄杖云。未證據者向此嗅嗅看。是甚麼意旨。時一僧[跳-兆+孛]跳作舞而出。師以拄杖擲地云。穿過觸髅○朱婆子問。一切時參究念佛底是誰。師云。你這一問。從甚麼處來。婆云。朝夕不離。師云。不離箇甚麼。婆轉身繞一帀云。不離者箇。師云。也是赤土塗牛奶。婆子又問。弟子現是女身。父母未生前。還是男是女。師卓拄杖云。還識者箇麼。婆云。無去無來。師云。是甚麼所在。說來說去。婆云。即今如何抵敵。師云。好與三十棒○師住東塔三載。旋應銅梁之請。歷主岳岳。大峩。萬峰。中慶。鳳山。棲靈。祥符。無際。蟠龍。佛恩。雙桂。十剎。宗風遐播。後當蜀變。師以化導。不辭腥穢羣魔。救免僇殺者。億萬萬計○師無疾坐逝於康熙丙午三月十六日。是夕。夔太守夢師授一扇。守展讀其偈曰。屣聲滑滑響蒼苔。老去尋山一快哉。回首五雲堪一笑。澹然瀟灑出塵埃。覺即遣候。而師已化去矣。郡守驚異。刊布行世(天童悟嗣)。

寧波天童費隱通容禪師

閩福清何氏子。年十四。依三寶殿出家。一日聞指南墮指參禪。發心參壽昌經。示狗子無佛性話。因經上堂。與僧問答次。師在傍不覺身心奮發。話頭脫落。乃問經曰。今日看破和尚家風了也。經曰。汝有甚麼見處。師便喝。經便休○聞天童悟和尚寓吼山。師冒雨往謁。便問覲面相提事若何。悟以番菩提大素珠。照頭便打。師曰。錯。悟又打。師又喝。悟祇管打。師祇管喝。至第七打。所有伎倆知見。一時冰釋。悟問薰風自南來。殿角生微涼。汝作麼會。師曰。水向石邊流出冷。風從花裏過來香。曰離了此又作麼生。師曰。放和尚三十棒。曰除却棒又作麼生。師便喝。曰喝後響。師曰。更要重說偈言。悟休去。後悟住黃檗。上堂曰。還是衝浪金鱗麼。出眾相見。師以坐具覆頂出曰。和尚還會麼。悟打曰。一釣便上。師喝一喝歸眾。悟然之○崇禎癸酉。師充黃檗西堂。隱元琦問。大制從來無解結。如何特地起風波。師曰。被闍黎帶累。曰恁麼則翻騰去也。師便打。琦喝。師曰。亂作。曰打著昔年舊痛處。於今猶恨棒頭輕。請師末後一頓。師打曰。舊瘡癥上著艾。曰恁麼則徹骨徹髓去也。師曰。如何是徹底意。琦一喝。師曰。喝後響。曰時清休唱太平歌。師曰。祇引一半○上堂。今朝初一。好箇消息。若還不會。又是明日。所以道。舉一不得舉二。放過一著。落

在第二。山僧舉一了也。是汝諸人如何委悉。便下座○住金粟上堂。全身擔荷。赤體提持。要是夙有器骨英靈漢子。於尋常日用。活卓卓地。不將奇特言句。貼於額上。玄妙理致。蘊於底裏。專用格外鉗錘。獨距宗門牙爪。生擒猛虎。活捉獰龍。縱有言超佛祖。行過舍那。入此閬域。未免橫身拶出。其餘之輩。觀心作念。著意思惟。塵寂光生。而有神穎妙慧。自作去就。畢竟構他語脈不上。要有者等丁卓。始可別行教外單傳。主持棒喝。全行正令。而與從上瞎驢。蹄角相肖。且正當恁麼時。回機就位一句。作麼生道。本來不借修因得。那管心明與法通○住徑山上堂。舉臨濟祖師云。若第一句薦得。堪與佛祖為師。若第二句薦得。堪與人天為師。若第三句薦得。自救不了。徑山者裏不然。若向第三句薦得。石筍抽條。第二句薦得。種麻得豆。若向第一句薦得。漆桶不快。笑看臨濟。強分節目。將刀割水。無事望江亭上立。山河盡在座中圓○上堂。良久云。聲前一句子。欲要大家知。便下座○天章解制上堂。起期結制。依門傍戶。陞堂說法。起模畫樣。胡言漢語。攪亂衲僧。東扯西拽。轉不相應。山僧今日徹困。為汝諸人去也。遂拈拄杖。一時打散○田頭栽菜次。師云。菜栽完麼。田云。栽完了。師云。無根菜又作麼栽。田無語而笑。師云。開花了也○僧問如何是一喝如探竿影草。師云。要汝入門便道。又問如何是一喝如踞地獅子。師云。百獸林中獨步。又問如何是一喝如金剛王寶劍。師云。早已分身兩段。又問如何是一喝不作一喝用。師云。汝自理會○師示寂於順治辛丑三月二十九日。門人茶毗獲舍利如豆大。五色燦然。分建舍利塔於閩之黃檗。郢州之興陽諸處。晦山顯。著有舍利記(天童悟嗣)。

嘉興金粟石車通乘禪師

金華朱氏子。偶閱龐居士問石頭。不與萬法為侶因緣有疑。在家打七參究。至第四日。聞夜半風聲。覺有入處。二十六歲。棄室出家完具。聞僧舉六祖曰。不思善。不思惡。正與麼時。那箇是明上座本來面目。忽然有省。述偈曰。正與恁麼時。面目未嘗迷。善惡都不到。獨露兩莖眉。參天童悟和尚於金粟。悟問那裏來。師曰。雲門。悟曰。幾時起身。師打一圓相。悟曰。莫亂統。師曰。千里同風。今日特來親領痛棒。悟曰。既是千里同風。又來作麼。師翹左足。悟曰。者還不是。師翹右足。悟曰。錯也。師曰。又被風吹別調中。悟休去。入室次。悟舉世尊拈花。迦葉微笑意作麼生。師曰。白日穿針。悟連棒打出。師豁然。懷香禮謝。悟遂舉手曰。我手何似佛手。師拂袖便出。復呈偈曰。我手何似佛手。赤脚蓬頭便

走。直得透上玄關。管取合著狗口。悟問曰。內不放出。外不放入。正恁麼時。以何為界。師曰。家貧未是貧。路貧愁殺人。悟拈拄杖曰。早箇是出是入。師一掌。悟亦打。一日悟舉薰風自南來。問你意作麼生。師曰。白雲彌宇宙。薰風自南來。即呈偈曰。拂袖薰風宇宙清。園林殿角解翻身。相逢且說三分話。未可全拋一片心。悟云。那幾分怎麼不說。師云。留與和尚。悟云。不疑言句。是為大病。進云。天晴日頭出。有眼瞞不得。悟云。紅爐煨過始得。師侍悟七載。不惜勞苦。後悟赴黃檗。命師領眾。師一日問悟。設有人問和尚如何是禪。如何對他。悟打云。一棒打透觸體穿。更有問又如何。悟打云。足方頭頂圓。更有問又如何。悟打云。口裏舌頭尖。更有問又如何。悟打云。若喚作禪。入地獄如箭射○住童光上堂。喝一喝曰。大眾還知落處麼。三世諸佛。於此轉大法輪。真風不墜。歷代祖師。於此廣度羣迷。正脈流通。山僧於此為眾提持。只要眉橫鼻直。汝等諸人。赤肉團上有箇圓明妙體。徹頭徹底。佛眼覷不見。聖智難量。十方容不得。真機獨露。直得縱踪絕跡。塞却諸人咽喉。無處出氣。雖然如是。事無一向。更與諸人當場顯示。遂拈拄杖作釣勢曰。大眾還見麼。識取鉤頭意。莫認定盤星○住金粟上堂。諸佛出世。為一大事因緣。達磨西來。指人見性成佛。金粟不諳老婆禪。祇要諸人棒下見血。若也恁麼會得。觸處逢渠。纖塵不立。垂手人間。和光化物。既然觸處逢渠。且道渠是阿誰。毫釐有差。天地懸隔。喝一喝。下座○司理黃元公。參府吳升初請上堂。公禮起曰。謝和尚說法。師曰。那一句是法。速道看。曰人前不可吐露。師曰。也不可埋沒。曰請陞公道。師曰。各與一頓。乃曰。一句截流。全心即佛。萬機不到。全佛即心。到者裏心佛俱忘。復是何物。喝一喝曰。甜瓜徹蒂甜。苦瓠連根苦○上堂。少室真機。人天普育。直指父母未生面目。大眾。有眼曰見。有耳曰聞。且道作麼生是父母未生面目。良久曰。牆外鳥啼聲已碎。盡在搖頭不語中。喝一喝○僧問和尚。今日陞座。說甚麼法。師曰。松枝挑夜月。照盡世間人。孝廉唐祈遠問。經云。一切惡鬼。尚不能以惡眼視之。況復加害。憑箇甚得恁有力。師曰。天魔膽喪。曰恁麼則家家觀世音。師曰。還見觀音麼。曰雖然未見。却也叫得應。師曰。現三十二相看。曰今日親為學人陞座說法了也。師曰。且莫錯認○崇禎十一年二月十二日。將示寂。僧問。此後向甚處與和尚相見。師曰。徧界不曾藏。僧作禮曰。恁麼則向者裏與和尚相見去也。師曰。且莫錯認。泊然而逝(天童悟嗣)。

贛州寶華朝宗通忍禪師

常州陳氏子。年少披剃。遇異人授以仙術。至二十二歲。聞無生之說。往參天童悟於金粟。悟問那裏人。師云。常州人。悟云。是我鄉里也。曾帶鄉里物事來麼。師不能答。悟亦笑而已。次日入方丈拜問云。弟子要了生死。特來請問。不但無處下口。且無處著想。悟云。無處著想。便是好消息。師云。莫便是麼。悟拈棒連打云。未是在。師禮拜而出。胸中疑悶。每日入室。不下四五次。常至普茶時。亂問亂說。閨堂大笑。毫無慚色。悟亦笑云。你却有得說。說得好道理。只如大慧杲。參諸佛出身處話。後聞薰風自南來。殿閣生微涼。方得瞥地。你作麼生會。師茫然。參有月餘。忽有會處。述偈云。二十餘年染世塵。於今家業一朝傾。雙拳握著無他物。兩眼睜開沒半人。言路窮時無可說。義途絕處句難成。從此十年埋影後。如雲如雨徧乾坤。悟閱之。對眾稱賞。後入堂打七。力參三日。遂入方丈呈偈曰。翰林學士渾身濕。兵部尚書徹骨寒。晤對不須頻叫屈。一人有慶萬民安(孝廉黃居士問師云設使如今去見老和尚再索鄉里物事時如何師兩手捧起土無語便走師急叫云若是鄉里便拿了去次日至復敘前話士又問云如今再索鄉里物事時如何師云君子愛財取之有道)○一日悟問山中猛虎。以肉為命。何故不食其子。師被一撈。通身汗下。越兩日偶從外寮進。推入寮門。驀然除去礙膺之物。遂入方丈。通所得。悟舉前問。師曰。惟人自肯乃方親。悟曰。與麼下語亦未。在。師笑曰。和尚只做得大千兒孫。便出。三日後聞悟自答曰。自食肉不盡。更猛省得下語亦未之旨。翌日悟上堂。師出問直下知歸即不問。如何是大用現前一句。悟擬拈棒。師指曰。者老漢伎倆不忘。一釣便上。拂袖而出。即蒙印可○初住靈祐。屢遷名剎。崇禎辛巳。住曹溪。上堂。諸佛諸祖。唯以一大事因緣故。出現於世。據實論此一大事因緣。不用開口。不用動念。直下一一天真。一一明妙。祇貴直截契證。超越死生。不離見聞緣。超然登佛地。所以世尊於明星。祇得一覩。六祖於金剛經。直用一聞。諸公若也得恁麼一回。去。便堪傳佛心印。方為佛祖嫡骨兒孫。試問諸人。既是現成舊公案。又用舉作甚麼。迴機同本得。一舉一回新○小參。僧問明歷歷。路堂堂。更有甚麼。師曰。猶是鬼窟裏活計。僧打一圓相曰。脫體無依去也。師曰。依舊跳不出。僧一喝。師曰。三喝四喝後如何。僧又喝。師曰。野狐精○僧問倩女離魂。那箇是真底。師便打。僧無語。師曰。會麼。僧擬議。師又打曰。切忌私奔○晚參。師云。庭前草欲丈。扶疏樹亦濃。明年作境會。誰契古人宗。良久。震威一喝○順治戊子春。寶華兵警。師應慶雲之請。十月朔。陡示微疾。初八日上堂。舉洞山問雲巖云。百年後。忽有人問還貌得師真否。如何祇對。巖良久云。祇者是。復舉洞山因供雲巖真次。僧問先師道祇者是。莫便是否。山曰是。僧曰。意旨如何。山

曰。當年幾錯會先師意。僧云。未審先師還知有也無。山曰。若不知有。爭解恁麼道。若知有。爭肯恁麼道。師云。汝等諸人。若透得者兩則話。即無關不透矣。眾下語不契。遂索水盥浴更衣。復索滾水飲畢。端坐而逝。數日顏色如生。入龕時。紅光燭天。眾疑庵中失火。趨救。寂然。莫不驚異頂禮。闍維後。頂骨牙齒衣環鮮好不壞。建塔於西堂藏師昭穴。語錄三十卷。并迅雷指迷等集行世(天童悟嗣)。

宜興龍池萬如通微禪師

嘉興秀水張氏子。年十九。出家受具。謁聞谷大師。開發無字話。歷扣名宿偶閱楞嚴。至諸可還者。自然非汝。不汝還者。非汝而誰。恍有所得。往參悟和尚於金粟。棒下汗流徧體。打失從前伎倆。一日入城。聞路旁人家毆叱小廝云。看你藏在那裏去。師不覺躍然。口占一偈云。沒處藏。沒處藏。全身獨露在街坊。堪笑華亭擺渡漢。葛藤打得太郎當○悟七十誕辰。師懷香拜祝。入門便喝。悟云。胡喝亂喝。師又喝。悟又云。胡喝亂喝。師遂禮拜。悟打云。你再喝喝看。師云。蒼天蒼天。便行。悟呼曰。萬如。我直下疑你者兩喝。道道看。師云。歇歇與和尚道。遂出○一日悟在方丈經行。師見僧問悟佛法的大意。悟云。近前來。僧近前。悟便打。僧云。上根大器。直下承當。中下人來如何。悟云。老僧從來不曾眼花。僧罔措。師聞豁然遂蒙記莂。五更遣行○住莆之曹山上堂。前三三。後三三。箇中消息誰許諳。春風處處花成錦。秋水澄澄月一灣。喚作真如不壞法。此人曾未踏鄉關。喚作無常生死法。管教累劫受餘殃。敢問諸人。畢竟作麼生即是。以拂子打圓相曰。生佛未形消息在。不知幾箇肯擔當。擲拂下座○住龍池上堂。有一人在孤峰頂上。目視雲漢。把三世諸佛。一口吞盡。不見有眾生可度。好與三十拄杖。何故。事上不足。有一人在十字街頭。三頭六臂。合水和泥。隨機接引。亦好與三十拄杖。何故。理上不足。有一人不離高峰頂上。目視雲漢。嘗在十字街頭。和泥合水。有一人不離十字街頭。和泥合水。嘗在孤峰頂上。目視雲漢。二人到龍池門下。正未有語話分在。且道龍池為人在甚麼處。還委悉麼。時攜榔栗當門據。獅象狐狼一併敲○僧問如何是結制底意。師曰。澗深流水聚。曰學人則把住牢關去也。師曰。山峻鳥飛遲○問如何是破砂盆。師曰。風不來。樹不動○問樹彫葉落時如何。師曰。過蟻難尋穴。歸禽易見巢○問日落西山去。林中事若何。師曰。虎行樵子徑。鳥宿故枝頭○順治丁酉。十月二十九日示寂。龍池門人。奉全身龕於寺陽立塔(天童悟嗣)。

寧波天童山翁木陳道忞禪師

粵之潮州茶陽林氏子。幼有宿慧。因讀大慧杲錄。忽憶前身。雲水參方。歷歷如見。即日走匡廬開先。投明法師薙染。明以師志慕禪宗。為舉臺山婆子話。遂於言下薦得趙州意旨。自驗生死關頭未破。徧參憨山清黃檗有諸尊宿。終不自肯。後參悟和尚於金粟。機緣不契。直趨雙徑。謁語風信。信問曾到金粟否。師曰。曾到。曰曾問話否。師曰。不曾。曰你怕打那。師曰。某甲一向不曾置得問頭。請師處借轉問頭。信乃開示。師不肯。復回金粟。舉前話。悟曰。你喫飯還問人借口麼。師擬議。悟便打。後因參殃崛產難因緣。打破疑團。始明得從上古人關鍵。凡居侍司。掌記室。親炙悟者一十四秋。日臻玄奧○繼席天童。上堂。日擊道存。鋒鋦不犯。頭頭顯露。物物全彰。猶是因高就下。曲為今時。況復言中取則。句裏呈機。舉古明今。拈三播兩。大似鄭州出曹門。何異南轅而北轍。殊不知當人脚跟下立地一著。如天普蓋。如地普擎。抽一機則千機頓赴。展一日則萬日畢張。透聲色。絕遮攔。亘古亘今無處所。還生死得伊麼。還汙染得伊麼。還榮枯得伊麼。還推遷得伊麼。縱有德山棒如雨點。也則打他不著。臨濟喝似雷奔。也只無伊下口處。更說甚麼百問雲興。千禪瓶瀉。一毫端際。出現無盡身雲一舉步間遊歷無邊國土。正是泥裏洗土塊。蝦跳不出斗。諸仁者。從上既有如此廣大門風。穩密田地何不推他阿爺向後。放出渠儂一頭。與麼直截承當去。正恁麼時。接續流通一句。作麼生道。卓拄杖曰。天高羣象正。海闊百川潮○上堂。昨晚南嶽與匡廬兩山爭論佛法。一山道。南嶽讓和尚。乃曹谿嫡子。一山道。青原思大師。實寶林正宗。一山道。廬陵米價傳千古。一山道。磚鏡磨穿古佛心。互相競爭不已。羅浮山聞得。出來約住曰。莫爭莫爭。饒你青原思大師。南嶽讓和尚。少不得從我嶺南者裏去。山僧驀頭與羅浮山一棒。天台合掌道。善哉。和尚打者一棒。不妨透頂透底。暢快殺人。山僧遂與震威一喝。咄。縮頭去。於是四山各各慙懣而退。拈起袈裟角曰。還見麼。自從盧老收歸後。須信人人總有之○上堂。靈雲見底大家同。二月桃花在處紅。健羨不須從外覓。故園大有好芳叢。卓杖云。看看。擲杖云。擬著眼。落千差。一片何人得。流經十萬家○順治己亥。師奉詔賜號弘覺禪師。馳驛至京。萬善。愍忠。廣濟。三處結冬(召對法語別見三世奏對集)○示眾。真如凡聖。皆是夢言。佛及涅槃。並為增語。山僧一冬萬善殿。又且舉揚箇甚麼。只有清風來席上。更無閒語落人間○掃笑巖祖塔。黃金骨鎖玉玲瓏。鐵棘門栽不計重。佛眼難窺五祖意。兒孫若敢妄流通。拈香云。即此用。離此用。螭螟眼裏繡鴛鴦。烈燄爐中飛彩鳳○師

晚號夢隱道人。乞歸金粟。投老於會稽化鹿山之陽明洞天。乃自相山擇吉兆塔於黃龍峰下。康熙甲寅。六月二十七日示寂。世壽七十九。著有九會百城北遊等錄行世(天童悟嗣)。

寧波雪竇石奇通雲禪師

俗姓徐。家貧。就南廣寺脫白。見中峰垂訓。有蹭蹬不隨愚伴侶。蹉跎又恐落風塵句。乃往虞山住靜。刺血書經。後參金粟悟和尚。一夜黑地走出。因僧劈面撲破鼻子有省。呈偈曰。某甲今年三十二。向來鬼窟作活計。忽然撞破鼻頭時。但見鮮血流滿地。悟未首肯。後於棒下頓脫疑滯。時隨悟赴育王天童一十三年。值牧雲門同辭出山。得付衣拂。囑云。折箸無一隻。狗子無一隻。是你住處○住靈鷲上堂。爐鞴宏開烹佛祖。聖凡齊煅辣鉗錘。者回莫作尋常看。大眾應須高剔眉。當爐莫避。見義勇為。分明覷破真奇特。脫體風流更是誰。驀豎拄杖曰。還見麼。直得萬象光輝。乾坤獨露。縱橫殺活。總不由人。把住放行。全歸自己。如或不然。山僧不免重重指點去也。還委悉麼。杖頭有眼明如日。要識真金火裏看。擲拄杖下座○上堂。春山疊亂青。春水漾虛碧。寥寥天地間。獨立望何極。古德恁麼說話。大似在孤峰頂上。等箇人來。大眾。且道他要等箇甚麼人。以拄杖擊香几曰。還委悉麼。定光金地遙招手。智者江陵暗點頭○住雪竇上堂。當陽一著。獨露無遮。八面玲瓏。十方軒豁。明眼作證。豈敢囊藏。直得瓊樓玉殿。百草頭上全彰。千丈報身。瓦礫堆邊頓現。塵塵爾。剎剎爾。突出無位真人。發明現成公案。直饒三世諸佛。歷代老古錘到來。箇箇退身有分。正當恁麼時如何。水歸大海波濤靜。雲到蒼梧氣象間○上堂。澹蕩春風二月天。山花似錦碧巖前。深深古寺今來到。端的無如鼻祖禪。前是山門佛殿。後是臥室法堂。當陽坐斷一句且置。驀豎杖云。這箇喚作什麼。擊禪牀云。但見皇風成一片。不知何處有封疆○僧問一念無思時如何。師云。死水裏作麼。僧喝。師云。喝那箇。僧云。明月無私。師打云。猶在死水○僧問如何是安居樂業一句。師云。今日天寒。云向上還有事也無。師云。來日向汝道○順治辛丑。師返南廣。曰我老矣。當不忘本也。迨癸卯正月示寂。仍迎龕建塔雪竇(天童悟嗣)。

嘉興古南牧雲通門禪師

蘇州常熟張氏子。二十歲投破山洞聞乘和尚出家。原名契門。力事參究。便有省入。後參天童悟和尚於金粟。以偈呈方丈。悟略閱兩

行。問即今事作麼生。師擬議。悟以番菩提數珠便打。師禮拜。悟又向背築一拳曰。你若作打會。入地獄如箭射。異日悟舉薰風自南來。殿角生微涼驗眾。師呈三頌。悟看至末首曰。不親切。師曰。前二首豈。悟曰。此不親切。和前都不親切。師便問如何是親切處。悟便掌。師即豎一指曰。某甲也。悟曰。你未知落處在。師隱隱疑。後上天童。題萬松關偈曰。古路松陰廿里長。過時誰覺骨清涼。悟曰。何不道過時誰不骨清涼。師於言下有省。又作活眼泉偈。寮中思索。偶然停筆。右手將左臂一觸。忽然觸發。直下湛然。前所疑一掌落處。不言而喻。一時呈行由曰。詣實供通。悟曰。者些都不是實消息。你再供通實消息看。師進前展兩手。悟曰。不是不是。師曰。和尚如今瞞某甲不得。悟曰。瞞即瞞不得。且惑亂你一上。後乃付囑。住古南因華嚴會上堂。華嚴法界。理事無礙。懺罪消災。一彩兩賽。驀拈拄杖曰。大眾。杜順和尚來也。在拄杖頭上口喃喃道。懷州牛喫禾。益州馬腹脹。天下覓醫人。灸豬左膊上。諸人還見麼。若也見。未免頭上安頭。若不見。日日堂堂無蓋覆。本來同是遮那身○上堂。拋下拄杖曰。撲落非他物。復擎起作舞曰。縱橫不是塵。汝諸人還見山河及大地。全露法王身麼。復擊香几曰。一片榆楠木。敲來響殺人○上堂。靈樞密運。四序推移。天地之間。其猶橐籥。看看冬到來。即便春風至。長連牀上。學得底是第二機。若是第一機。天下老和尚。未曾提著。山僧又如何折合。舉拂子云。看看五彩畫頭黃金點額。復擊一下云。好好一隻春牛。被山僧一鞭粉碎了也。聞一知十。從他徧界分身。認影迷頭。一任眼[目*荅]眇地○上堂。向虛空中畫青畫黃。本無甚事。對無位真人說生說死。笑殺傍觀。卓拄杖下座○夜參次。一僧禮拜起拍手。師云。作甚麼。僧云。擦去地上塵。師遂對眾拍手云。我手中無塵。且道擦箇甚麼。眾無對。師云。者一隊漢。如生盲人相似。到此間來。只管相我口皮動。殊不知我與者僧。已作一場佛事了也。時有僧出擬問。師云。山僧手癢。試與一抓。僧便抓。師云。是甚麼。眾擬議。師便打○夜參次。師問一童子。如何是祖師西來意。童俛首。師云。汝諸人反不如者童子。遂歸方丈○師一晚入堂云。還有撞著壁底麼。眾無對○住天童。未幾。退隱京口之鶴林。久不陞座。檀護哀請說法。乃為說偈云。山僧一向說禪。而今口似木橛。為問以何因緣。年往精神銷歇。齒落髮白血枯。豈可不知時節。因而謝事天童。來到鶴林守拙。日用無別修行。一句阿彌陀佛。上堂說法領眾。讓與諸方賢哲。宗門日見滔滔。變態不堪言說。若是真正高流。目擊自當改轍。先佛河沙法門。進修無甚優劣。廬山蓮社清風。緇素不妨同結。今日檀護臨筵。大家飽餐禪悅。若論大事因緣。不怕甕中走鼈。夜來衲被蒙

頭。一任梅梢掛月。此後絕不執拂上堂。往來無定。即問道者。罕能一見矣（示誡法嗣條約十章其首章以饑荒薦臻人情蕭索稱和尚者盈衢塞路苟求糊口人皆生厭所施何來此亦甚不知時節者凡我會下人寧去徒眾煨鑪過日如其違背非我弟子等語切中時病）○康熙辛亥。預定逝期。於十一月望日。付最後弟子天樹植公。囑以大事。怡然坐脫於吳門之觀瀆恤廬中。弟子輩奉全身塔於京口黃鶴山。未幾而塔示斜側。門人啟墳茶毗。獲五色舍利無算。有七會語錄癩齋別集行世（天童悟嗣）。

蘇州遯村報恩浮石通賢禪師

嘉興平湖趙氏子。年十九。父母欲為娶室。將親迎。師乃潛芟染於普陀。返雲棲圓戒。看父母未生前話。初參雲門澄於東塔。尋上鷹窠頂。參七女遊尸陀因緣有省。偈曰。一池蛙鼓夜喧喧。歷歷明明到口邊。通報五湖林下客。從今不必更加參。往謁金粟悟和尚。問如何是即此用。悟打一拂子。問如何是離此用。悟亦打一拂子。師云。恁麼則僮僕不少。悟云。難道有兩箇。師禮拜出○一日悟問薰風自南來。殿角生微涼。汝作麼生會。師不能答。連呈數偈。悟俱曰未在。一日入室曰。某甲會也。悟曰。如何是你會處。師曰。鷄子過新羅。悟曰。未在。師呈偈曰。薰風自南來。殿角生微涼。我今看破處。也只是尋常。悟曰。不是不是。師曰。和尚自不是。禮拜而出（遯村報恩寺迎師開法寺額預有古佛重光之識且石佛浮海亦符師號乃留意卓錫焉）○上堂。烏飛兔走急如梭。明暗何曾昧得他。箇裏本來無可說。謂言無說已成多。豎拂云。大眾。且道是有說是無說。下座○上堂。心無自性。假境而彰。舉拂子云。喚作拂子則觸。物無自體。因心而現。不喚作拂子則背。心境俱泯。性體亦忘。畢竟喚作甚麼。若不會。更通一線。良久云。明月堂前垂玉露。水晶宮裏撒珍珠○上堂。假使頂戴經塵劫。身為牀座徧三千。若不傳法度眾生。畢竟無能報恩者。擲下拂曰。新報恩今日傳法了也。大眾一時擔荷○天童上堂。本是沒量人。一切難描摹。從出母胎來。將錯而認錯。合掌云。大眾會麼。我不敢輕於汝等。汝等皆當作佛○僧問。不是一番寒徹骨。怎得梅花撲鼻香。師曰。猶為貪餌客。未是絕求人。曰如何是絕求的人。師曰。衲被蒙頭睡正濃。此時山僧多不會○問如何是密移一步看飛龍。師曰。過得荊棘林。方名是好手○問三世諸佛。被我一口吞盡。何處更有眾生。自代曰。平地上死人多少○師居常以馬祖一喝。百丈三日耳聾公案勘學人。復垂語云。報恩水鄉。非舟莫至。還有不假舟楫而到者麼。脫有當者。卒無可否。人莫涯其旨趣○康熙丁未七月十九日。示微疾。力拒醫

藥。默然危坐。至二十四日中夜。門人請偈。師曰。吾無一字可說。乃怡然而寂。塔全身於徑山之臥石(天童悟嗣)。

台州通玄林野通奇禪師

蜀之合州蔡氏子。依黔之蓮峰出家。未幾出蜀。寓當湖掩關。偶檢天童悟和尚參禪偈曰。一念未生前。試看底模樣。疑情猛發。偶因失足墮樓。口占一偈曰。一念未生前。六戶絕消息。瞥爾揚雙眉。大似眼無力。即破關參悟於蘇之清涼。便問學人絕跡而來。特為親近和尚。悟曰。莫妄想。師曰。未審還有堂頭也無。悟曰。看脚下。師曰。不因漁父引。爭得見波濤。悟曰。莫錯會好○一日茶話。舉洞山與泰首座喫菓子因緣。命眾下語。師曰。食到口邊。被伊奪却。悟即首肯。後隨悟住育王。悟上堂。舉世尊初生下地。便解指天指地。汝等諸人。猶向老僧擬討甚麼碗。拽拄杖下座。一時打散。師自此全身脫落。結制日。師問今日四海衲僧雲集。各各壁立千仞。還許他諸人悟麼。悟曰。你還夢見麼。師曰。悟尚不悟。夢箇甚麼。悟打曰。你即今是迷是悟。師曰。學人不在迷悟裏。悟曰。且道打在甚麼處。師便禮拜。悟為首肯○通玄上堂。鼓已擊。座已登。爭柰無禪可說。無理可伸。幸喜時逢結夏。綠樹垂陰。水流碧澗。鳥轉幽林。歷歷無回互。分明沒兩人。所以昔日韶國師道。通玄峰頂。不是人間。心外無法。滿目青山。先師亦道通玄峰頂。別是人間。只緣不薦。錯認青山。此二老宿。與麼吐露。山僧與麼舉揚。大似熟處難忘。汝等諸人。還薦麼。若然薦得。方知不費纖毫力。便登解脫場。脫或未然。山僧不免再為顯示。玉竹高高揮驟雨。楊柳紛紛舞翠煙。喝一喝。卓拄杖下座○上堂。歷祖出興。各有施陳。拈拄杖曰。怎如山僧拄杖。敲几曰。信手擊開不二門。復舉召眾曰。者是山僧拄杖。且道不二門在甚麼處。若向者裏辨得出。不妨繫綳草鞋。如辨不出。莫道通玄山勢險。前頭尤有最高峰○上堂。第一義諦。迴絕安排。纔擬分疏。便成窒礙。所以道。心若不異。萬法一如。眼若不寐。諸寐自除。若是英靈漢。聞山僧恁麼道。向文彩未彰以前。直截擔荷。却較些子。苟若涉於塵思。未免困於途轍。祇如不歷程途一句。作麼生道。一氣不言含有象。萬靈何處謝無私○上堂。山僧二十年前。偶一日冷地裏。將三千大千世界。所有眾生性命。攝在一微塵裏。並無一人得知。所謂藏山於海。藏舟於壑。夜半有力者負去。寐者不覺耳。今日山僧普告大眾。還信得及麼。如信得及。見得徹。便好休去歇去。如信不及。見不徹。不妨朝參夕參。一朝參到無參處。遂顧左右云。始知無處不家山○師示微疾。遂掩死關。入室弟子。俱不易見。臨終別

眾。眾請偈。師瞋目曰。要去便去。害甚熱大。旁有赤冶禪人求更名。師援筆書行果二字。乃曰行果圓成。遂擲筆端坐而逝。塔全身於寺西。山翁恣為之銘塔○師於示寂前。囑上首二隱謚自閑覺。集諸法嗣。逐一勘驗。然後許令開法。故通玄門下。得人為盛云(天童悟嗣共十二人)。

京口夾山林皋本豫禪師

晚號晦夫。崑山陳氏子。十九脫白於姑蘇之堯峰。誦金剛經因無所住而生其心句有省。初參博山來。來曰。未入金籠。貯誰家野鳥兒。師曰。鶴有九皋翬碧漢。馬無千里謾追風。來曰。運斤非郢。未免傷痕。師曰。祇如諸方豎拂揚眉。又得甚麼邊事。來曰。片雲橫海嶽。樵子盡思歸。師曰。怪來巖下虎。特地暗驚人。次參密雲悟和尚。其日已晚。便問夜宿投人時如何。悟云。者裏歇不得。師云。豈無方便。悟拈拄杖。師接住一送云。看破也。便出。後參磬山修和尚。修問那裏來。師云。武林。修云。怎知我者裏。師云。臭名難瞞。修云。汙汝耳。師便喝。修云。喝後如何。師云。猶是不知。修云。老僧不知。汝知箇甚麼。師擬掌。修云。猶弄虛在。師禮拜。一日修云。今時學人。不肯著實用心。所以法門寥落。師云。雖然如是。大約過在知識。如黃龍南公。不得慈明和尚痛折。云何得知道出常情。修云。豈口傳耳授之所得耶。師吐舌。又一日入室。修云。我疑你不曾廓侍者與華嚴相會因緣。師云。不但和尚疑某甲。盡大地人疑某甲。修曰。盡大地人疑你則可。莫使老僧疑你。師曰。恁麼則某甲罪過。修曰。只如興化與旻德賓主四喝。化曰。適纔若是別人。三十棒一棒也饒不得。何故。為他會一喝不作一喝用。那裏是他會一喝不作一喝用處。師曰。放某甲別通箇消息。修曰。不要下語。師遂頌曰。賓主相逢縱奪家。喝下從雲見活蛇。棒頭突出通無犯豈作親承解撒沙。修然之○師開法中山石湫乃過報恩謝法。修將如意付曰。此是老僧四十年用不盡底。將去揩磨。不得有忘。師秉如意入堂曰。者箇是堂上老人。為豫上座作用不盡底公案。敢問有同相證用者。麼良久擊板頭一下。便出○上堂。諸佛心印。祖祖相傳。直指人心。見性成佛。大眾還信得及麼。若信得及。便可作一無事道人。水邊林下。渴飲澗泉。飢餐松柏。逍遙放曠。任運騰騰。逆順卷舒。縱橫自在。待因緣時至。坐曲肱牀。提持向上宗乘。乃喝一喝云。還會向上宗乘麼。若也會得。堪紹吾宗。其或未然。不見臨濟大師道。有時一喝如金剛王寶劍。有時一喝如踞地獅子。有時一喝如探竿影草。有時一喝不作一喝用。復喝一喝云。且道是金剛王寶劍耶。踞地獅子耶。探竿影草

耶。一喝不作一喝用耶。這裏明得。即會得雲門大師。函蓋乾坤句。截斷眾流句。隨波逐浪句。扇子[跳-兆+孛]跳上三十三天。觸著帝釋鼻孔。東海鯉魚打一棒。雨似傾盆。且道這是函蓋乾坤耶。截斷眾流耶。隨波逐浪耶。洞達此三句。便明得洞上宗旨。五位君臣。正偏回互。昔日洞山問曹山云。汝向甚麼處去。曹云。向不變異處去。洞云。不變異處。豈有去耶。曹云。去亦不變異。恁麼酬答。且道者是偏中正耶。正中偏耶。正中來。偏中正。兼中到耶。夜半烏鷄停雪上。天明石女鏡中分。透得麼。若透得這箇。便知得為仰父子。大用大機。不見仰山問為山。大用現前。請師辨白。為山便下座歸方丈。仰山隨後入。為山問子適來問甚麼話。仰山再舉前語。為曰。還記得我答汝否。仰曰。記得。為曰。你試舉看。仰便珍重出去。為曰。錯。仰回首云。閑師弟來。莫道某甲無語好。你看他投機暗合。子孝父慈。識得麼。若識得這箇。便識得法眼大師道。三界惟心。萬法惟識。不見僧問法眼。如何是曹源一滴水。眼云。是曹源一滴水。韶國師在旁聞之。忽然大悟。後住通玄峰。有偈曰。通玄峰頂。不是人間。心外無法。滿目青山。眼聞云。只此一偈可起吾宗。故悟心之士。在於明眼人前。一點也掩渠不得。所以從上五宗。機緣聯綴。料揀正邪。總不出一心之用。亦不別當處之旨。若定當得。便與三世諸佛。歷代祖師。把手同行。安邦定國。坐斷春風。唱無為大化。啟妙用真機。不是目前法。亦非目前事。無向無背。無回無互。輝古騰今。光天徹地。森羅萬象。法法全該。大地山河。頭頭俱現。不在思量。豈煩卜度。廓徹靈明。直超情謂。會即便會。設或未然。山僧拄杖子。更為諸人通箇消息。以拄杖卓一下云。謹白參玄人。光陰莫虛度。下座○上堂。若論此事。心不可求。智不可學。捏斷百巾千重。於中下機。一時颺却。突出孤危。方教峻峭。都盧收拾將來。非心非色。非如非異。要用即用。要舍即舍。要行即行。要藏即藏。擬思一毫地。便落生死關頭。到者裏作麼生相救得。復曰。五蘊山頭自在身。了然物物應天真。頓教直下無思議。玄要全分見本人。卓拄杖一喝○上堂。般若無知。假黃鳥而有聲。法身無相。應翠竹以彰形。爾時金焦二山。忍俊不禁。將海門一口吸盡。直教水泄不通。山僧拄杖子。款款問道。儘你神力喫怒。還知法身無為。不墮諸數麼。由是金焦二山。只得懨懨而退。依舊山是山。水是水。驀拈拄杖曰。你看山僧拄杖子。得恁麼奇特。千峰頂上挑明月。萬壑溪頭探水瀾。復卓拄杖下座○示眾。十五日以前。汝諸人放出山水。十五日以後。汝諸人坐斷柴頭。正當十五日。山僧看破汝諸人一著。要出出不得。要入入不得。出不得。入不得。火裏眉毛烏歷歷。自家鼻孔急須參。碧眼胡僧恒面壁○師一日開山次。握枯藤於手。謂僧云。此是曹家女。

僧云。却少箇謝家郎在。師云。但得有女。何愁沒郎。僧云也要完全始得。師度藤與僧。僧擬接。師即擲下云。却不相當○僧問三更月落後。古殿燈殘。有一箇沒面目人來。如何相見。師云。笑殺人。笑殺人。進云。和尚笑箇什麼。師咄云。你問頭也不識○僧問如何是諸佛出身處。師云。須彌倒卓半虛空。進云。如何是透法身事。師云。猢猻吞大象○僧問如何是虛空。師曰。你亦在裏許。僧曰。某甲不見虛空。師云。者瞎漢。好與三十棒○師歷主武林寶巖。姑蘇堯峰。京口竹林。雖日雜傭作。不間操_レ箸。不倚重外護。舉足為匡徒者法○順治丙戌冬。預計逝日。說偈辭眾。窆全身於山門之右。天童忞禪師銘其塔。著有宗門誠範四卷。并語錄行世(天隱修嗣)。

杭州南澗理安箬庵通問禪師

吳江俞氏子。參磬山修和尚得法。其自述云。父羨長先生。晚憂無子。建鷲峰寺無遮大會百日。應禱而生。幼失恃。病甚。飲酒不自好。年十六。始自驚曰。柰何使身心無措足之地哉。奮志讀書。一日偶過山寺。見楞嚴經云。此身及心。外洎虛空。山河大地。咸是妙明真心中物。有疑。特走謁磬山本師。教看父母未生前本來面目話。一日本師與客立澗邊。提金剛經。山僧多口。本師驚筭云。如何是其心。當時不覺自失。二十四歲。姻事苦逼。竟宵遁至武林脫白。嘗夜跪佛燈下。單提父母未生前本來面目話。不契。決計參方。聞金粟悟和尚在北禪。腰包趕入吳中。得蒙痛棒垂示。復上磬山。又遇山茨際兄。同在山中。五更聞得一陣風聲。疑情頓釋。目前淨裸裸地。了無一法當情。直是通身慶快。作偈云。千玄萬妙隔重重。箇裏無私總不容。一種沒絃琴上曲。寒崖吹落五更風。呈似本師。師云。玄妙即不問。如何隔底句。擬對被棒。這裏却又去不得。本師見我疑滯。示一頌云。千波萬浪隔重重。識得源源處處通。根境脫然全體用。拈來物物始從容。看頌亦自了了。却是臨機不得活脫自由。一日頌百丈併却咽喉唇吻云。併却咽喉唇吻。三人口闊一尺。夜半露柱相逢。橫吹無孔鐵笛。呈似本師。師云。露柱還有口麼。山僧云。熾然說。師云。道得一半。進云。和尚又如何。師云。此問復何來。當時被這一撥。直下如團熱鐵火相似。次日呈似本師。師云。不得燒却眉毛。山僧便喝。師云。燒却了也。山僧轉身云。看這老漢一場敗闕。方纔不受人瞞○上堂。望剎竿便橫趨而過。猶是不唧[口*留]漢。電影裏穿針。弓弦上走馬。也須是箇衲僧始得。匙挑不上底。如稻麻竹葦。千筭不回底。亦如稻麻竹葦。截斷天下人舌頭即不問。如何是汝諸人全身獨脫句。舉拂子

云。漫天網子百千重○上堂。我者裏禪。無你諸人歇足處。無你諸人依傍處。無你諸人計較搏量處。直下團熱鐵火燄相似。你纔擬歇足。燒起脚跟了也。纔擬依傍。燎却眉毛了也。纔擬計較搏量自己。早打失眼睛鼻孔了也。你若一總不恁麼。又有什麼氣息。湊泊也湊泊他不得。躲避也躲避他不得。除是你猛烈提取始得。道箇猛烈提取。已是蹉過多時也。到這裏你諸人作麼生。顧左右云。石火莫及。電光罔通。擲杖歸方丈○據室。天台來也從者裏過。南嶽來也從者裏過。四大部洲。盈衢塞路。無不從者裏驗行。放開也由我。捏聚也由我。卓拄杖云。今日不可戲論○雪嶠信和尚至。問你是那邊。為甚麼又在者邊。師曰。一點水墨。兩處成龍。信曰。不會興雲作舞在。師曰。今日放大師過。茶次。信曰。我平日只教人誦金剛經。師曰。多少人錯會大師意。信曰。直饒不錯會。大遠在。師曰。大師莫瞞人好。山門前行次。見狗子吠。信曰。者無佛性底東西。師曰。却搔著大師痒處。信呵呵大笑。大眾作禮次。信左右顧視。眾佇立。師曰。都是老實頭。信曰。獅子窟中無異獸。為甚麼却是老實頭。師曰。大師面前。誰敢出手○山茨禪師問釋迦掩室。淨名默然。盡屬化門邊事。不落今時。請師道一句。師曰。未問以前答了也。曰阿誰證明。師曰。十字街頭廖胡子。又問先師不了事。你我共知。作麼生與先師了却。師曰。蒼天中更添冤苦。曰非兄不委。師曰。逢人切莫錯舉。又問十年同學唱。拍板不相離。此去理安。兄還見我否。師曰。無人處斫額相望。曰渠無面目。望箇甚麼。師曰。草賊大敗。問拈椎豎拂即且置。斬新條句道將來。師曰。一掌一握血。曰須老兄始得。師曰。是我罪過。又問談玄說妙。先哲所訶。瞬目揚眉。今時禪弊。去此二途。如何是兄的為人處。師曰。我不教壞人家男女。曰忒煞婆心。師曰。龍蛇易辨。衲子難瞞○順治乙未夏。磬山解制後。師將方丈所有器皿。各具手書。分送諸方為遺念。乃杖錫出遊。至武康報恩掃塔。晤琇禪師。備托法門細大。預定遊期於九月二十七日。行至吳江。寓應天寺。如期坐逝。弘覺恣為之銘塔(天隱修嗣)。

湖州報恩玉林通琇禪師

蓉城楊氏子。童子時。一長者令諸晚學。各閉目一回。反觀念起。眾童子各言起念畢。師良久云。某甲反觀。無念可得○參天隱修和尚於磬山。命充侍司。隨堂坐香。一夕未開靜。即進方丈。修見云。今日香完何早。師云。自是我不去坐也。修云。見甚道理不去坐。師云。即今亦無不坐。修驀拈案上石屋錄問云。者箇是甚麼。師云。卻請和尚道。修云。你不道教老僧道。師云。情知和尚不敢

道。修云。石屋錄。我為甚不敢道。師云。隨他去也。修云。藏誣老僧。師者裏透不過。直得大淚如雨。一晚目不交睫。立修單側。意忘入寮。至五鼓。修呼云。不用急。我為你舉則古話。當初有箇龐居士。初見人時。也似你一般。孤孤迴迴。開口便問人。不與萬法為侶者是誰。馬祖當時為甚蹋向前一步云。待汝一口吸盡西江水。即與汝道。師云。某有一頌。修云。汝頌云何。師呈頌云。不侶萬法的為誰。誰亦不立始親渠。有意馳求轉睽隔。無心識得不相違。修云。不問你不侶萬法。要你會一口吸盡西江水。師於言下大悟。迺拂袖而出。自後凡有徵詰皆當機不讓。修深肯之○師掩關蓉城江干。修遷武康報恩。連書促師云。老僧在報恩。精神日不如前。當知我必不久人世。得書即來。有最要語分付。師得書。破關詣修。不作禮。近前叉手云。狂兒國土。父不容過者箇峰頭。還是老漢住處麼。修云。你且站下脚。與你道。師驀掀倒香案而出。修高聲云。將拄杖來。師遙應云。劍去久矣。次日修上堂。維那擬白椎。師喝住云。待我問了話白椎。便問云。昔日大唐國裏無禪師。而今國裏還有麼。修拈拄杖作打勢云。看棒。師便喝。修亦喝。師復喝一喝轉身云。不是狂兒多意氣。祇因曾透上頭關。便出。修喝一喝。師亦喝。遙聞維那重白椎。師迺高聲云。歎死氣○住報恩上堂。拈拄杖曰。奇特因緣。須奇特人拈出。驚羣句子。於驚羣處舉揚。今日既遇奇特人。有奇特緣。真是驚羣處。且道驚羣句作麼生舉。驀召大眾曰。吳中石佛大○示眾。舉道吾每執木劍因緣云。吠盧逐塊。韓盧齧著。半醒半醉漢子。終不免大家草裏輓。道吾若於者僧纔欲取劍。便一脚踢翻。儻其知非。不惟令彼頓易皮毛。自亦頭正尾正那堪不示本分草料。木劍竟成戲具○示眾。透脫末後牢關。雲庵正罵。洞達歷祖綱宗。妙喜猶呵。汝等諸人。趣向者箇法門。大須仔細。前谿水急魚行澀。後嶺風高鳥泊難○示眾。舉殃崛摩羅產難因緣云。且道世尊者兩語。是箇什麼道理。得恁麼靈驗。救得人家產難。驀喝一喝云。莫做夢。山僧為汝諸人。說箇譬喻。恰似人來買生薑。世尊迺與他一大把人參。其時將去竟作生薑受用。帶累人亂齧嚼。吞了吐不得。吐了吞不得。如今者裏有不亂齧嚼的出來。山僧與汝三十拄杖。何故。世尊當年折本。山僧今日與他上利○示眾。舉唐州大乘遵禪師上堂云。上來又不問。下去又不疑。不知是不是。是即也大奇。師云。其時無量大眾一時成道○僧問九峰看首座話。師云。富嫌千口少。貧恨一身多○僧叩門呈頌。師云。你門也入不得。如何呈頌。進云。早已呈頌了也。師不開門。僧久立慙懣而退○僧問某甲生死不明。師云。莫亂話。進云。求和尚開示。師云。莫妄想○僧問如何是奪人不奪境。師云。洪武門前紅檔中。進云。如何是奪境不奪人。師云。踢破鴻門樊噲怒。

進云。如何是人境兩俱奪。師云。推倒須彌山。捏殺恒沙佛。進云。如何是人境俱不奪。師云。一華一國土。一葉一釋迦。進云。四句已蒙師指示。末後一句事如何。師便喝○僧問如何是有拄杖子與拄杖子。師云。長安風月貫今昔。那箇兒童摸壁行。進云。如何是無拄杖子奪却拄杖子。師云。多少人飯籬邊餓死○問如何是有拄杖子與拄杖子。師云。世尊拈花。迦葉微笑。進云。如何是無拄杖子奪却拄杖子。師云。百萬人天。悉皆罔措○師問僧。正睡著。無夢無想。無見無聞時。主人公在甚處。僧喝。師作驚勢云。嚇壞我○師問行堂云。飯桶裏多少達磨眼睛。堂罔措。問火頭。三世諸佛向火燄裏說法。還端的也未。頭亦罔措。師指旁立一僧云。惟有者箇師僧解答話。便歸方丈○師問僧。樹影葉落時如何。進云。不隔一絲毫。師云。機不離位。墮在毒海。僧喝。師便打○師放生。僧問如何是西來意。師云。獵人捕我林中鹿。賴有檀那贖得歸○居士問。明知日用不離者箇。為甚麼道不得。師云。知之一字。眾禍之門○元昭居士。述前生是芙蓉悅山長老。并述山之行繇。師云。賈島有詩贈你。士云。其詩云何。師云。客舍并州已十霜。歸心日夜憶咸陽。無端更渡桑乾水。却望并州是故鄉○雪山成道頌云。家在深山別覓山。眼開何處著慚顏。殷勤為惜王孫醉。月滿荷衣霜滿鬢○婆子燒庵頌云。谿頭逐日飯王孫。臨岐咄咄好生驚。白眼阿婆能將將。夾路桃花風雨聲○順治庚子。師奉詔入都。說法內廷。有客問一冊世祖章皇帝勅大學士金之俊評註刊行。(機緣另見奏對集)未幾回山。再詔入都。路次槩辭參叩。過高郵。孫孝則居士。奉母姚宜人求見。師特泊舟。禮拜次。師問姚云。平日做甚工夫。姚曰。誦持。師曰。正誦持時。念頭淨盡無餘否。曰不能。師曰。為何不能。曰心中有兒孫事。師曰。兒孫要世世相見好。姚遽禮拜。師謂士曰。這裏還有做者事的麼。士又問師入京幾時回。師曰。兩三月。士曰。何速。師曰。止許一箇道場。士曰。恐和尚作不得主。師曰。作得主(師到京聞森首座為 上淨髮即命眾集薪燒森 上聞遽許蓄髮乃止 師奉 命結制畢即辭還山 上賜大覺普濟禪師金印師雖受歸並未一經展視)○龍池傳祖剃度師樂和尚塔。在宜興善權。傾毀日久。師往葺治。乃命豐首座督修。土人搆禍燬寺。豐罹回祿。師聞盡屏參侍。不食粒米。自荷衣單出遊。渡江而北。至孫居士家。改號無住。命士作偈。送隱東海(先是師初住報恩嘗作潛子傳以自識其略曰潛子不知何如人自得法磬山人不知而不愠其志潛值世危亂其時潛布袋和尚贈以偈曰一鉢千家飯孤身萬里遊青目睹人少問路白雲頭其行潛遂稱潛子士乃拈師自傳系以偈曰)○至清江浦慈雲庵。示微疾。室中不留一物。撤去牀褥。止留一竹椅。危坐。惟飲冷水。日與南谷說梵網經。每至夜半。輒笑曰。也大奇。我被孫居士算定了也。至第七日。索筆作霞表子第一書云。本是無生。今亦無死。

此是正說。餘為魔說。擲筆而逝。時康熙乙卯七月初十日也。先是師過江都。以後事囑黃于升居士。士以問疾至。值師已寂。急為治龕。送天目建塔(天隱修嗣)。

南嶽綠蘿山茨通際禪師

邗之通州李氏子。兒時父遇相師云。爾子骨格太清。年未必永。乃捨之出家。初侍東隱若昧法師。聽講有會。禮辭參方。謁金粟悟和尚一見便問客散堂空時如何。悟曰。是甚麼時節。師便喝。悟便打。師又喝。悟又打。師禮拜云。今日起動和尚○上磬山參修和尚。問昔日聞風。今朝覲面。覲面一句。請師分付。修云。你試道看。師便禮拜。修云。也當不得。師轉身便出○一日修問。只如百丈於馬祖喝下。得箇甚麼。師云。若有得。即鈍置馬祖也。修云。他道三日耳聾。師云。某不可更作野狐精見解。修乃休去○一日修問古人道。有句無句子如何會。師云。石長無根草。山藏不動雲。修云。如藤倚樹聾。師云。吾常於此切。修云。樹倒藤枯又作麼生。師低頭出方丈○一日修舉四藏鋒句問云。如何是就裏藏鋒。師云。梁皇殿上道不識。如何是就事藏鋒。師云。今朝雨落階前濕。如何是理事俱藏鋒。師云。行不出戶坐不當堂。如何是俱不涉理事藏鋒。師云。八角磨盤空裏走。修云。此四轉語。可紹先覺。雖然。也是搥七搭八○黃端伯司理。請住東明祖庭。師云。聞居士開先有省。推倒廬山是否。士云。還見廬山麼。師云。待你扶起。士云。乍喚東明。師云。作家作家。士休去。少頃。士問大師一向在甚麼處住。師云。居士道山僧即今在甚麼處住。士云。出此門不得。師云。居士還出得此門麼。士擬議。師云。却是居士出此門不得○上堂。舉翠巖真點胸。常罵雲居舜老夫。說無字禪。舜因而有頌曰。雲居不會禪。洗脚上牀眠。冬瓜直儻侗。瓠子曲彎彎。師云。山僧亦有一頌。東明不會禪。窮山住有年。朝來炊白粥。柴生滿竈煙。且道與古人是同是別○住綠蘿上堂。山僧這裏也不論玄。也不論妙。也不論禪。也不論道。只要你們生死心破。生死心若不破。便是閻老子面前。喫鐵棒的公招。所以云。參須實參。悟須實悟。閻羅大王。不怕多語。不勞久立。珍重○住南源示眾。諸方有玄妙禪。有性理禪。有細膩禪。有逐日常進禪。有休去歇去禪。有大法小法禪。與人理會。與人齧嚼。山僧此間。且無如許多禪。只有遠祖百丈大智禪師。留得一把鈍鐵鋤頭。逐日要諸人使用。使用得純熟。若到力忘於己。手忘於心。目前不見有可開之田。脚下不見有可立之地。忽然鋤轉山河大地。百雜碎。露出當人雙眼睛。大眾。即今把柄在阿誰手裏。驀擲拄杖云。當陽拈出大家看○僧問大

死的人。却活時如何。師云。喚來與山僧洗脚。如何是學人轉身處。師云。速禮三拜。如何是學人親切句。師云。分明記取○僧問。古人云。三千里外逢人。不審逢甚麼人。師云。不是別人○崇禎戊寅。師登南岳愛祝融之勝。止擲鉢峰下。結茅而居。蓋虎穴也。了不為意。桂林王聞而異之。親至問道。遣內臣侍候。不絕於路。願迎入宮。堅却之不得。輒密跡去。王不懌。而焚其庵祝庵前石榴樹曰。南來僧果有道耶。樹即冬實。未幾開花且結實。王乃益加敬信。訪師卓錫處。折節步行三百里。就見之。復為建庵供養○甲申春。流賊蹂躪三楚。山中日食不繼。採薇救飢。悞食野芹。同食二人。皆覓療解。師曰。何必爾。遂逝(天隱修嗣)。

陽山松際印中通授禪師

烏程嚴氏子。年十七。投道場山脫白。修和尚示狗子話。力參久之。一旦聞畫眉聲大悟。遂得法。繼席磬山。上堂。門對千峰。碧溪沿一逕幽。更求玄妙旨。撥火覓浮漚。遂下座○師性恬退。以應對繁。未幾辭去。深隱於蘇之陽山。僧問如何是和尚悟處。師曰。瞞人不得。又問如何是諸佛出身處。師曰。殿角鶉鳩啼○僧問雪峰陞座。輒出木毬。玄沙捉來。安在舊處因緣。師云。陽山不妨再輒。便入方丈○拈趙州狗子還有佛性也無。州云無公案。師云。趙州這箇無字。十人五雙。疑著。可憐自家性命且無知。猶向狗邊討非是○頌三玄三要云。第一玄。泥牛踏潑水中天。千星萬宿一時亂。明眼何能別正偏。第二玄。暘燄橫谿白似泉。笑看緣木求魚者。不顧忙忙去下筌。第三玄。坐看虛空駕鐵船。南北東西津莫問。送風還把藕絲牽。第一要。夜半月輪照。石女面私情。不比尋常貌。第二要龍吟并虎嘯。驚起夢中兒。頻把親娘叫。第三要。一曲無生調。不是箇知音。那識其中妙。總頌云。三玄三要祖師關。無限禪人到此難。畢竟問余玄要旨。清溪流出水潺潺○師山居深僻。問道者罕得一見。自澤侍者領去衣拂。並不再記一人。海內高之(天隱修嗣已上五人)。

福建建寧雲峰衡石鈞禪師

錢塘潘氏子。徧歷諸方。每有夙契。終不自諾。復謁佛日方。深得洞上微指。方與鴛湖用友善。用晚年多疾。以不得其嗣為己憂。方效道吾與夾山故事。遂指師參用於普明。洞徹圓常。一日用曰。化人問幻士。谷響答泉聲。欲識吾宗旨。泥牛水上行。意旨如何。師曰。夢見空花。用曰。臨濟有一句子。你又作麼生。師便喝。用便

打。師又喝。用又打。師禮拜。用曰。元來是瞎驢。師拂袖便出○
上堂。雲生寶樹。風敲翠竹。勘破鷄鳴。徧地塗毒。這是無趣老人
的落處。即今還有知落處的麼。有即出來通箇消息○順治丙戌四
月初六日示寂(鴛湖用嗣)。

續指月錄卷十九

續指月錄卷二十
六祖下三十五世

曹洞宗

北京大覺慈舟方念禪師

別號清涼。唐縣人。族姓楊。年十歲。矢願出家。投金臺廣德大慈老宿披剃。自念生死事大。受具參方。初遊講席。博探性相宗旨。於暹禮二法師座下。為唱導之師。一日偶聽古道法主講楞嚴經。至七處徵心處。頓悟緣生不實。法海深遠。乃心自愧赧。腰包直上少林。參幻休潤和尚於立雪庭。禮拜次。潤問甚處來。師曰。北方來。潤曰。北方道法。與此方如何。師曰。水分千派。流出一源。潤曰。恁麼則何用到此。師曰。流出一源。水分千派。潤可之。即命典維那(余集生云。二大老驀地相逢。如馬伏波陳師反正俱妙。似孫武子用兵進退合宜。如龍插翼。似虎帶角。直是攬他不得近他不得。然雖如此。回互處各見機宜。畢竟茫無涯畔。若據明眼人看來。各與拄杖三十。何故。急須著眼看仙人。莫看仙人掌中扇)○一日師至五乳峰前。隨喜初祖達摩大師九年面壁處。忽然契悟從上大法。亟詣潤方丈呈偈曰。五乳峰前。好箇消息。大小石頭。塊塊著地。潤即為印證。囑曰。從上佛祖。以自己所證。遞相承襲。欲令一切眾生知有此事。余得之小山先師十餘年矣。今將從上佛祖心印源流。付囑於汝。汝當上體佛祖之心為心。以續慧命。證燈相繼。毋令喪失。然雖如是尚宜晦跡林泉。乘時而出。師禮拜受囑。潤復付以偈曰。無上涅槃心。佛祖相傳付。吾今授受時。雲淨風頭露○師掩關五臺。晝則一食。夜則孤坐。久之。自念差別智不可不明。乃肆遊諸方。一切苦行。人所頌蹙者。師皆身親歷。後至石城。精厲過分。雙目忽盲。師曰。幻身非有。病從何來。將身心一時放下。硬坐七日。雙目復明○南遊普陀歸。由越之止風塗。眾請說法。湛然澄公來參。師問止風塗向青山近。越王城畔滄海遙時如何。澄曰。月穿滄海破。波斯不展眉。師復舉洞上宗旨。逐一問澄。澄乃說偈呈似曰。五位君臣切要知。箇中何必待思惟。石女慣弄無針線。木偶能提化外機。井底紅塵騰靄靄。山頭白浪滾飛飛。誕生本是無功用。不覺天然得帝畿。師閱曰。語句髣髴密。不落終始。真當家種草也。遂召入室印證曰。汝後開兩片唇皮。截斷天下人舌頭有分在。即付偈曰。曹源一滴水。佛祖相分付。至今授受時。大地為甘露。咄。五乳峰頭無鏃箭。射得南方半箇兒○師應請。住禾之東塔。豫之雲居匡廬。後欲投老臺山。越中

緇白。力挽師歸寶林道場。(汰如河法師續高僧傳稱師為清涼國師後身)示寂後。法嗣湛然澄公。迎龕塔於顯聖南山之麓(幻林潤嗣)。

嵩山少室無言正道禪師

豫章新建胡氏子。投上藍寺薙染。年十五。遇知休老宿。指示禪要。遂從休遊憩南嶽淨瓶崖。朝夕參叩。休曰。欲究明此事。須將宗教葛藤穿過始得。指參遜庵昂。昂語休曰。無言足稱法器。切不可以一知半解。入渠胸臆。第令南詢。自參自悟。休指張拙頌。勸其履踐。師曰。真如尚不可為。何頌之有。休指往少室參幻休潤禪師。潤上堂。師問如何是洞上宗風。潤曰。月下三花樹。峰前雙桂枝。師曰。和尚還別有否。潤曰。惟此一事實。無二亦無三。師言下大悟。即呈偈曰。雲攢絕頂。月鎖幽巖。石人撫掌。木女舒顏。潤頷之。乃印以偈曰。無言的旨不離言。玄唱玄提妙絕玄。今日單傳親印授。他年雙桂利人天○萬歷庚寅。嵩山四眾。請住少室祖庭。周藩國主。迎師說法。主大開悟。汝寧王聞之。亦迎師至。世子病足。倚杖而視。師乃引之周行七轉。汗流如注。而足即瘳○僧問外道問世尊曰。不問有言。不問無言。世尊良久。意旨如何。師曰。動容揚古路。不墮悄然機○問如何是新年頭佛法。師豎拂曰。會麼。曰不會。師曰。來年更有新條在。不假重重為指陳○老宿問如何是無言。師曰。四時行焉。一老宿又問如何是無言。師曰。百物生焉。師機鋒敏捷。襟懷平實。後逝寂。塔於少室祖塋(幻休潤嗣)。

內丘智空了睿禪師

本邑張氏子。弱冠出家。禮羅漢覺公祝髮。初事蓬山天然禪師。次歷燕都。徧訪禪伯。靡不升堂入室。深造其閫奧。復聞鄴下古風和尚。開法於真定舍利。摳衣座下。決擇六載。已而又值豫章大千潤和尚主少林。結同志五人往謁。潤一見。以大器期之。許入室。凡室中徵詰。皆迎刃而解。服勤五載。方領衣法頂像歸里。京城衲子。恭就廣慈蘭若。請師開法○僧問懷才抱德來時。和尚如何相見。師曰。看君好似南陽隱。不待茅廬三請來。僧曰。知音有幾人。師曰。還記得梁甫吟也無。僧無語。師曰。蝦蟇打鼓蚓吹簫○師名振長安。列剎相望。禮聘開法。日無虛席。後因見達觀憨山二大師。皆為弘法罹難。謂眾曰。大名之下。難以久居。直下抽身南還。就內丘結草庵。二十年足不踰戶○天啟四年十二月初五日。端坐而化。壽八十五。門人智融等。塔於本寺之後(幻休潤嗣)。

上黨宗教鰲谷妙銀禪師

邯鄲苗氏子。生有異相。宛如梵僧。父母知其非世俗中人。送本邑杜家庵剃度。一日看天童頌臨濟三聖。不得滅却正法眼藏機緣。有云。心心相印。祖祖傳燈。想佛祖授受之道。必肘後另有玄符。豈直熟讀禮誦。衣鉢束身。能荷佛祖之事乎。遂出參方。謁大千潤和尚。得法開堂上黨。道聞帝闕。說法內廷。辭歸鄴下。後遇流賊犯上黨。眾請入城避之。師曰。有何不了。乃避之耶。是夜無疾。笑談而逝。門人奉全身塔於宗教院之東北隅(幻休潤嗣)。

象城淨業無疑真信禪師

別號西巖。蓬山皇親劉氏子。禮城之中陽現公。出家受具。常書華嚴經。一夕書入法界品。至中夜無燈。金光滿室。緇素無不驚異。現公以若作聖解。即受羣邪語示之。勉其往參大千潤和尚。潤教看父母未生前話。力參數載。始得有省。呈似潤。潤急索曰。速道。師曰。狸奴今日翻觔斗。報道娘生鼻孔真。潤乃付囑(幻休潤嗣)。

南宮令于鍾英居士

字見明。河南鄴下人。生而胎素。長舉孝廉。屢上公車不第。謂同胞曰。人生各有夙懷。願隨所慕。今既不能遂志龍門。想選佛場中。心空及第。亦不可獨讓龐公。既就都門探蹟禪講。撥草瞻風。深得智空禪師切磋。深入少林閭闔○聞大千潤和尚奉命入都。駐錫大悲禪寺。士往咨決門下。凡三載。一日請益。如何是自己清淨法身。潤曰。四肢。百骸。九竅。六臟。備賅而存焉。又不許向這裏會取。限三日道得契。即為授記。一夜至五更。忽聞禪堂開靜鐘響。豁然省契。遂擊方丈告報曰。我會也。潤乃把住曰。速道速道。士呈偈曰。逃禪來扣少林風。末後鐘鳴一竅通。我做維那師便問。幾椎打破太虛空。潤囑之曰。竿頭進步。現宰官身。修菩薩行。無不可者○後士第進士。初知南宮。旋棄去。就鄴郡南北。創廣濟寶蓮禪院二處。開堂說法。嘗有偈曰。金榜慚將名姓傳。濫竽三縣小烹鮮。而今拋向雲霄外。蓮社虎溪度歲年。又曰。久歷叢林每自憐。為調心性不知年。寂光法爾周沙界。廓落無依笑普賢(幻休潤嗣已上六人)。

建昌黃龍壽昌無明慧經禪師

撫州崇仁裴氏子。誕時難產。祖父誦金剛般若經而婉。因名經。初生穎異。長貌蒼古。九歲入鄉塾。便問浩然之氣是箇甚麼。塾師異之。長依廩山忠和尚出家。常疑金剛四句偈。必有指據。偶見傅大士頌曰。若論四句偈。應當不離身。不覺釋然。遂辭廩山。隱峨峰。嘗登絕頂顧盼而作偈曰。踏上雲頭第一峰。眼中廣博小虛空。當時欲見無由面。今日相逢處處同。結廬三年。人無知者○閱傳燈。見僧問興善如何是道。善曰。大好山。師日夜提撕。至忘寢食。一日因搬石次。堅不可舉。極力推之。豁然大悟。即述偈曰。欲參無上菩提道。急急疏通大好山。知道始知山不好。翻身跳出祖師關(南庵依頌云廣州城外一片石多少刺史移不入老僧舉起示諸方孟嘗夜渡秦關黑神莫測鬼莫測三百年來大好山巍巍占斷大唐國○巨音選頌云處處春風草離離不堪悲處更堪悲巨靈劈破華山路虎勢龍威在此時)○遂往廩山呈偈。忠和尚即為印可。始許薙髮受具。自此服勤左右。日夕溫研。影不出山者二十四年。出住寶方。時師年五十一矣(師住山日有僧問師住山前曾見何人師曰總未行脚僧激之曰豈以一隅而小天下乎師善其言遂徧參蓮池宏達觀可憇山清諸大老語各投契名布叢林)○師至少室禮祖塔。會無言宗主。言見師舉揚奇特。乃與河南當道熊公尚父。請師就寺說法○峨峰入院日上堂。大眾會麼。此是三世諸佛用不盡的。一齊撒向娑婆世界。釋迦牟尼佛。猶用不盡。西天東土。歷代祖師。亦用不盡。山僧今日信手拈來。與大眾商量。還是教外別傳。經中玄旨麼。函蓋乾坤隨波逐浪麼。截斷眾流擡薦商量麼。大用現前探竿影草麼。當陽撒出金剛寶劍麼。據實而論。窮劫不盡。且要具眼者揀辦得出。白是白。黑是黑。即不匄圖打作一塊。始可定叢林之是非。驗學者之邪正。然後應聖應凡。自然不被詐明頭之所欺。舉措應緣。無不合轍。然此道離微。昧之久矣。眾中有大智者。當拌身命。盡力匡扶。以悟為期。自他兼利。一生不足。再拌一生。盡其三生。自然合得。古人云。不入生死大海。難得無價寶珠。此猶是鈍機。伶俐漢一聞便知妙。然雖如此。不得春風華不開。且謾道及至華開又吹落○上堂。臘月逢辰。叢林設粥。所為何緣。無非順俗。衲僧門下不必如斯。豈不聞三世諸佛不知有。狸奴白牯却知有。若恁麼。則三世諸佛已立下風。況迦文佛乎。且道狸奴白牯。有甚長於諸佛。首座曰。為他金烹大冶。玉出藍田。師曰。然雖如是。寶坊不免連狸奴白牯。一齊趕出三門下。何也。秉綱立紀振叢林。海晏河清正令行。好漢盡收歸寶所。化城推倒不留人。首座曰。和尚道化城推倒不留人。在和尚分上即得。某甲則不然。師曰。汝又作麼生。座曰。閒挑布袋渾無事。笑等街頭一箇人。師曰。也是閒弦子。下座○觀音誕日上堂。觀音大士。且喜來也。某甲有句話請問大士。實是今日聖誕耶。只知天無蓋。地無底。一切世界有情無情。從何而起。道得。

即共大士七十三八十四。道不得。未免拄杖饒舌。良久曰。先已告過。當仁不讓。念大士記正法明王。且放三十棒○上堂。揮尺一下曰。宗乘中事。難以措辭。大道門庭。爭容擬議。等閒垂一機。如太阿鋒離匣。逢之者死不移時。似塗毒鼓受槌。聞之者喪不旋踵。所謂妙峰峻仞。野獸難藏。寶樹晶光。靈禽莫泊。其用也。單趕金毛歸野窟。直追鐵額入深山。掃天下之攙搶。拂人間之擘屑。提墮坑落塹之類。揭迷封滯殼之流。其功也。使法界世界虛空界。一體同觀。俾佛道人道地獄道。萬法融會。雖然如是。猶未為向上事。且道出格限量外一句。作麼生道。咦。正令不行先斬首。大機一撥聖賢悲。久立珍重○上堂。拈起一著。佛祖一齊捉。放下一著。聖賢悉皆縛。轆轤飛上天庭。泥牛眠交地角。非惟九有霑恩。亦乃四生受樂。惟有八大金剛。弩力睜眉。橫拈倒卓。何則。不許眾生亂描摸○上堂。青山青。無山不藏雲。綠水綠。無水不生木。惟有衲僧心。調直無阿曲揮尺一下。下座○上堂。真正龍象子。有時提得起放不下。有時放不下提得起。不弄死蛇頭。要將生虎尾。有時跨上金毛背。自然足下清風起。會麼。水不涸兮魚自在。山青幽也鳥安詳○僧參。師問趙州道。臺山婆我為汝勘破了也。畢竟勘破在什麼處。僧曰。和尚今日敗缺了也。師曰。老僧一生也不柰何。好教你知。若實會。舉似來看。僧擬進語。師打一棒云。者掠虛漢（竺庵成拈云臺山一案拈却多少人鼻孔換卻多少人眼睛者僧也解詐明頭及手老漢拈出箇柴頭向他面前一吹直得退身無路且道者一棒他還知落處麼）○師問僧如何是佛。僧無語。師云。佛也不識。僧云。某甲初機。請和尚慈悲指示。師曰。野猿峰頂空哀哭。僧禮去○僧問和尚因甚不行脚。師云。木馬休鞭橫兩腿。鐵牛不索莽低頭。白鶴啄魚頸項直。斑鳩呼雨嘴頭鉤。會麼。僧無對。師云。行脚去○僧問經年不會。請師方便。師云。且將不會底來。曰鐵橛子。師云。未是不會底。曰和尚也不得拗直作曲。師云。老僧眼若摩尼。曰某甲不會。師喝出○僧問有人不通宗教。不達性理。和尚還接否。師云。不接。曰為甚不接。師云。為伊不通達。曰已通達者即接耶。師云。亦不接。曰為甚不接。師云。為伊已通達也。曰總不恁麼來時如何。師云。若得恁麼。老僧接之。曰請師接。師即打。曰情知和尚只會恁麼。師連打出○僧問未相見時如何。師云。今日不答話。進云。相見後如何。師云。向道不答話。僧又擬伸問。師即打云。鈍置殺人○僧問如何是壽昌境。師云。雲散晴空不露頂。如何是境中人。師云。天地清平海眾寧。如何得不被境風飄泊。師云。挂印封侯猶不樂。作麼生得大安樂。師云。不難碎。無繩自縛。曰和尚還安樂否。師云。你試看。僧喝。師即打○洞山五位君臣頌曰。正中偏。如意珍藏鑑眾賢。雖然萬派皆相應。宛爾無離玉座前○偏中正。應物現形

不涉定。但見千差共一宗。不分貴賤皆寧靜○正中來。九重勅旨徧天涯。發令通行寧朕兆。玄音利樂絕纖埃○偏中至。靈機廓運撐天地。一塵不控大慈威。唯克自心存利濟○兼中到。妙不拘玄玄契妙。親賢避惡悉無依。入聖超凡俱不要○師住寶坊峨峰壽昌三剎。別建庵院二十餘所。七旬尚混勞侶耕鑿不息。丈室蕭然。惟作具而已。益王嚮師道德。深加褒美。每歎曰。去聖時遙。幸遺此老○萬歷丁巳臘月七日。師自田中歸。謂眾曰。老僧自此不復砌石矣。眾皆愕然。除夕上堂曰。今年只有茲時在試問諸人知也無。那事未曾親磕著。切須痛下死工夫。復曰。此是老僧最後分付一著。大眾切宜珍重。新正十三日示微疾。遂不食。曰老僧非病。會當行矣。大眾環侍不憚。師以偈諭之曰。人生有受非償。莫為老病死慌。可笑無生法忍。將何業識消亡。一時雲淨常光發。佛祖聊安此道場。十四日書辭道俗。十六日作舉火偈曰。無始劫來祇這箇。今日依然又這箇。復將這箇了那箇。這箇那箇同安樂。復命侍者代為發火宣偈。次晨取水盥漱拭身。曰不必再浴。迺索筆大書曰。今日分明指示。擲筆端坐而逝。茶毗火光五色。頂骨諸牙不壞。即於本寺方丈建塔(廩山忠嗣○憨山德清禪師題師像曰。久嚮無明名。未識無明面。突出大好山。千里遙相見。生涯在鑊頭。說法如奔電。提張沒弦弓。慣用石鞮箭。只要射箇人。應弦早奔竄。忽撞頑石頭。鏃羽一齊限。拋出鐵渾淪。見者絕思算。此是吾師老面皮。相看只許言前薦。若問當陽向上機。雲山滿目難分辨)。

續指月錄卷二十(終)

續指月錄尊宿集

盧陵聶 先樂讀 編輯

濟陽江 湘郢上 參訂

尊宿機錄

饒州薦福承古禪師

操行高潔。稟性虛明。參大光敬玄禪師。乃云。祇是箇草裏陣。遂參福巖雅和尚。又曰。祇是箇脫灑衲僧。由是終日默然。深究先德洪規。一日覽雲門語錄。忽然發悟。自此韜藏。不求名聞。棲止雲居弘覺禪師塔所。四方學者奔湊。因稱古塔主○范公仲淹。出守鄱陽。聞師道德。請居薦福。開闡宗風○僧問大善知識。將何為人。師云莫。曰恁麼則有問有答去也。師又云莫○問青青翠竹。盡是真

如。鬱鬱黃花。無非般若。如何是般若。師云。黃泉無老少。曰春來草自青。師曰。聲名不朽。曰若然。者碧眼胡僧也皺眉。師曰。退後三步。僧曰苦。師乃云。吽吽○問臨濟舉拂。學人舉拳。是同是別。師曰。訛言亂眾。曰恁麼則依令而行也。師曰。天涯海角○上堂。夫出家者。為無為法。無為法中。無利益。無功德。近來出家人。貪著福慧。與道全乖。若為福慧。須至明心。若要達道。無汝用心處。所以常勸諸人。莫學佛法。但自休心。利根者晝時解脫。鈍根者或三五年。遠不過十年。若不悟去。老僧與你入拔舌地獄○冬至日示寂。書辭眾偈曰。天地本同根。鳥飛空有跡。雪伴老僧行。須彌撼金錫。恰逢冬至日。靈光一點赤。珍重會中人。般若波羅密。偈畢而逝。

嘉興聖壽宣翁可觀禪師

出家南屏。從車溪得省。住聖壽。遷當湖德藏。退隱竹菴。每自怡曰。松風山月。我無盡衣鉢也○宋乾道七年。丞相魏[木*巳]請主吳之北禪。入院適重九。指座曰。胸中一寸灰已冷。頭上千莖雪未消。老步只宜平地去。不知何事又登高。

臨安靈隱普覺淳明禪師

因奉旨斷還九里松。上堂。山前一片閑田地。曠大劫來無界至。今朝恢復又歸來。坐斷腳頭并脚尾。東也是。西也是。南北東西無不是。畢竟酬恩作麼生。十里荷花九里松。直指堂前香一炷。

和州淨戒守密禪師

為薦福古嗣法上首。僧問如何是佛。師曰。稽首稽首。曰學人有分也無。師曰。頓首頓首。僧作舞而出。師曰。似則恰似。是即未是。

青州佛覺禪師

頌仰山師子曰。一色無過指示人。白銀世界裏頻申。超然推倒還扶起。爭似東風煦日新○一日佛日堯禪師。詣師道場。自撾鼓上堂。抑揚雲門臨濟宗風。平分半座。不辭而去。

圓通善國師

佛日自江右至燕。寓大聖安。一夕與佛覺晦堂夜話次。時師年方十二。座右侍立。日曰。山僧自南方來。拄杖頭不撥著一箇會佛法者。師叉手進曰。自是和尚拄杖短。日大驚曰。可乞此子。續吾臨濟一宗。師曰。雲門臨濟。豈有二邪。日稱賞不已○金世宗幸聖安瑞像殿。問師曰。禮則是。不禮則是。師曰。禮則相敬相重。不禮則各自稱尊。帝大悅○得法後。住延聖。示眾。舉洞山云。秋初夏末。兄弟或東去西去。直須向萬里無寸草處去。又曰。祇如萬里無寸草處。作麼生去。石霜曰。出門便是草。大陽曰。直道不出門。亦是草漫漫地。師曰。且道諸人即今脚根下一句作麼生道。若道無寸草。許你參見洞山。若道出門便是草。許你參見石霜。若道不出門。亦是草漫漫地。許你參見大陽。若總道不得。許你參見延聖。何故。惟有好風來席上。更無閑語到人間。

燕山慶壽玄悟玉禪師

金世宗令中使持紙一張。書心佛二字問師曰。者是甚麼字。時圓通在座應聲答曰。不是心。不是佛。稱旨。次日賜長短句曰。但能了淨。萬法因緣何足問。日用無為。十二時中更勿疑。常須自在。識取從來無挂礙。佛佛心心。佛若依心也是塵。師答謝曰。無為無作。認著無為還是縛。照用同時。電卷星流已太遲。非心非佛。喚作非心猶是佛。人境俱空。萬象森羅一境中。

黃山趙文孺居士

為圓通善入室弟子。記薈後。常作頌曰。妄想元來本是真。除時又起一重塵。言思動靜承誰力。仔細看來無別人。

高郵定禪師

初參玄悟。室中舉僧問玄沙。如何是清淨法身。沙曰。膿滴滴地。師於言下有省○僧問透網金鱗。以何為食。師曰。乾屎橛。

為山太初禪師

字子愚。溫陵人。世為儒者。師倜儻有大志。所為詩文皆不凡。士大夫多推目之。一旦棄去。選佛於尊勝。以律自檢。盡去豪舉之習。出嶺徧參叢林有聲。久之罷參歸閩。會南劍報恩虛席。郡守陳宓聞師名。命主之。未幾真德秀西山居士。延師主大為二十餘載。

日繞萬指。師說法縱橫博大。不讓古尊宿。西山既致政。每與師游。從容論道。莫不心醉。大抵師以平實接人。故諸儒雅重之。

中觀沼禪師

海雲印簡之受業師也。常誨海雲曰。汝所欲者。文字語言耳。向去皆止之。令身心大死一場。休有餘氣。到那時節。瞥然自省。方可與吾相見。後同海雲為元兵所劫。北渡至朔方。元國主署師慈雲正覺大師之號。及師將示寂。有羽客楊至慎求偈。師命執筆代書偈曰。七十三年如掣電。臨行為君通一線。泥牛飛過海東來。天上人間尋不見。客曰。師幾時行。師曰。三日後。時五月二十七日也。至六月初一果無疾而逝。

雪峰樵隱悟逸禪師

懷安聶氏子。屢叩名宿。後得法於雪峰佛海禪師。郡帥舉住雪峰。凡七載。退居西菴○皇慶二年。復奉旨再住。賜佛智之號。凡六年謝去。至泰定二年。仍奉旨補前席。又居七載。師三住雪峰。百廢具修。大為法門盛事。嘗序雪峰錄。有曰。老真覺自德山一棒桶底脫後。直得鰲店月寒。象峰雪霽。攬醍醐於一杓。彰大用於三毬。譬之轟百億雷霆於四天之下。曠數百世。真聲愈宏。所有垂示流出胸襟。蓋天蓋地。廣陵一奏么絃。下里不復聲矣○元統二年示寂。塔於佛海塔傍。

五臺鐵勒院子範慧洪大師

因閱楞嚴。至一人發真。十方銷殞。忽悟。遂造河朔汶禪師。陳所見。汶可之。臨終偈曰。六十春光又八年。浮雲收盡露青天。臨行踢倒須彌去。後夜山頭月正圓。更衣坐脫。

建寧獎山慧空元模禪師

古田蘇氏子。修習禪定。遐邇皈依。一日於定中游獎山。至玄獎禪師道場。有老人迎謁曰。吾為師守此山五百年矣。言畢化黑龍而去。既寤。乃曰。吾當還此山也。遂往卓菴。一日謂眾曰。吾今化緣已畢。即當入滅。復說偈曰。四十餘年寄俗塵。如今卻顯箇中尊。巖頭一夜東風起。吹得花開滿樹春○鐵船無舵亦無蓬。撐入金蓮性海中。末後一機今說破。白雲元不離長空○大地山河覽無跡。

虛空撞破見端的。縱教鐵輪頂上旋。本性圓明常不失。復曰。西天第三代商那和修尊者。隱象白山。現龍奮迅三昧。說法調伏諸外道。然後化火自焚。吾今往象鼻巖前。亦當如是。乃入龍奮迅三昧。時雲霧四起。雷雨大作。繼而化火自焚。眾收靈骨。塔於菴之西。

鄭州普照佛光道悟禪師

蘭州寇氏子。偶宿灣子店。聞馬嘶。豁然大悟。歸告母曰。某於途中拾一物。母曰。何物。師曰。無始來不見了的。母掌曰。何喜之有。遂辭母參方。母曰。將何之。師曰。水流須到海。鶴出白雲頭。往參白雲海禪師。遂承印記○元泰定二十四年。出主普照。身著白衣。跨黃犢。吹短笛。游於雒中。嘗曰。道我凡耶。曾向聖位中來。道我聖耶。又向凡位中去。道我非凡非聖耶。却向毗盧頂上。別有行處。泰和五年入滅。

鴈山羅漢寺證首座

目瞽。見道明白。晨朝躬自汛掃。或問者片田地掃得乾淨也未。座豎起苕帚示之。又問真淨界中。本無一塵。掃箇甚麼。座亦豎起苕帚示之。嘗題九牛山偈曰。四五成羣知幾年。春來秋去飽風煙。清溪有水何曾飲。綠野不耕長自眠。箇箇脚跟皆點地。頭頭鼻孔盡撩天。尋常只在千峰頂。大地人來作麼牽。

溫州靈雲省菴思禪師

台之寧海人。兄弟四人。師居長。同時發心出家。祖父遺業。悉散眾親。徧叩諸方。後出世靈雲。結夏上堂。以大圓覺。牛角馬角。為我伽藍。瓜籃菜籃○上堂。舉趙州狗子無佛性話。頌曰。狗子佛性無。狗子佛性有。猴愁撻拽頭。狗走抖擻口○晚年退居靈雲之前山○至正甲申。空室偕數衲往謁。時師年踰九十矣。龐眉皓髮。頽然清聳。拽履而出。且行且問曰。何處來。空室曰。江心。師曰。深幾百丈。室曰。謾老和尚不得。師曰。且坐吃茶。

文獻公黃潛居士

字晉卿。婺之義烏人。元天歷初。詔天下僧儒善書者。會集杭州淨慈。泥金書大藏尊經。士亦預焉。每食必與眾僧共處。若別為治具

則不樂。甚至詬罵不食而去。嘗題懸崖墨蘭曰。嫋嫋春風一樣吹。託身高處擬何為。從他自作顛倒想。要見懸崖撒手時○題東坡像贊曰。五祖禪師世外人。娑婆久已斷生因。誰將描邈虛空手。去覽他年身外身○題山谷像曰。笑殺當年老晦堂。相逢剛道桂華香。披圖面目渾依舊。鼻孔何曾有短長。

块北和尚

姓蔣。不知何許人。年十五。涉獵經史。言辭簡邃。髻首垢面。動靜不羈。至正初。抵松江沈氏家園。常題詩曰。萬紫千紅總是春。何須饒舌問東君。啞人得夢向誰說。豎起空拳指白雲○又曰。不偏不倚立於中。不著西邊不著東。超出東西南北外。一毫頭上釣蒼龍。一日謂眾僧曰。吾垂化盡矣。若等勉之。言絕而蛻。

奉化雪竇常藏主

不諳文字。專習禪定。儕輩呼為常達磨云。所作偈頌。事理圓融。音律調暢。其頌鐵牛曰。百煉爐中輾出來。頭角崢嶸體絕埃。打又不行牽不動。者回端不入胞胎○頌海門偈曰。業風吹起浪如山。多少漁翁著脚難。拌命捨身挨得入。方知玉戶不曾關○頌苦筍偈曰。紫衣脫盡白如銀。百沸鍋中轉得身。自是苦心人不信。等閒嚼著味全真○又息菴偈曰。百尺竿頭罷問津。孤峰絕頂養閒身。雖然破屋無遮蓋。難把家私說向人。

台州黃巖濠頭丁安人

法諱覺真。號竺心。初見絕田耕於委羽山。有省入。遂棄家築室自居。復參涌泉古愚。泉曰。良家子女。東奔西走作麼。安曰。特來禮拜和尚。泉曰。者裏容你不得。安乃拍手一下曰。三十年用底。今朝捉敗。泉便休去○往鴈山春雨菴謁無際。纔入門。便曰。春雨如膏。行人惡其泥濘。際曰。是不是。安擬進語。被際喝出。晚年就邑中明因寺側開接待。一僧提包笠直入臥內。安問是什麼。僧曰。行脚僧。安遽指其足曰。草鞋[糸*爽]斷。為甚不知。僧無語。安便將包笠擲出曰。者裏無汝措足處。一日明因奎禪師相看。安曰。聞說長老夜來生得兒子是否。明曰。且道是男是女。安曰。鷄銜燈盞走。鼃齧釣魚竿。

慶元育王勉侍者

送同事僧遊台鴈。偈曰。鳥窠吹布毛。侍者便悟去。雖不涉言詮。早已成露布。天台嶺上雲。鴈宕山中樹。此去好商量。莫觸當頭諱。臨終偈曰。生本不生。死亦非死。祕魔擎杈。俱抵豎指。

鑷工張德道者

鄞之下水人。一日大雪。沙彌團雪作佛像。眾皆述偈詠之。德亦隨後占偈曰。一華擎出一如來。六出團團笑臉開。識得觸體元是水。摩耶宮裏不投胎。

永福靈江浩首座

依古林於饒州永福。居第一座。結夏秉拂。僧問進一步時如何。座曰。撞牆撞壁。曰退一步時如何。座曰。墮坑落澗。曰不進不退時如何。座曰。立地死漢。

天歷老素首座

生平一關深隱。罕有識之者。有僧得其山居述懷三偈曰。傳燈讀罷鬢先華。功業猶爭幾洛叉。午睡起來塵滿案。半簷斜日落庭華○尖頭屋子不教低。上有長林下有池。夜久驚森掠黃葉。却如蓬底雨來時○浮世光陰自不多。題詩聊復答年華。今朝我在長松下。背立西風數亂鴉。

淨慈元菴會藏主

臨安人。修涅槃堂偈曰。涅槃一路盡掀翻。觸處工夫見不難。洗面驀然摸著鼻。繡鍼眼裏好藏山。

杭州天目一山魁菴主

蘇州人也。天資敏捷。通內外典。與平石砥友善。棲遲巖谷。不與世接。僅有山麓洪氏子弟。往來送供。一夕洪氏婦夢主乘肩輿至其舍。覺而產一子。翌旦登山候之。果化去矣。因名應魁。字士元。幼讀書補邑庠。娶妻生子。年三十。一旦忽自猛省。遂棄家。縛茅於東峯絕頂。晝夜精勤行道。一日空室和尚。因避寇自徑山過其廬。見其舉止閒雅。應對從容。叩其所以。乃知其為一山後身也。因謂之曰。公前身與平石翁為莫逆交。翁今年垂九十。尚耳目聰

明。何不通箇信息。亦見一夢兩覺。而夢覺一如乎。主欣然揮毫作偈寄之曰。寄語天童老平石。一念非今亦非昔。欲聽寒山夜半鐘。吳江依舊連天碧。

溫州壽昌絕照輝禪師

嘗坐夏於淨慈東園寮。壁間有水墨大士像。師朝夕禮拜。懇禱甚切。一日忽見淨瓶水從壁涌出。通身慶快。從此智鑑日明。嘗有偈曰。工夫未到方圓地。幾度凭闌獨自愁。今日是三明日四。雪霜容易上人頭。

明州育王盧菴實首座

寄臥雲菴主偈曰。黃金園裏馬交馳。徑寸多成按劍疑。月曬梅華千樹雪。臥雲一枕夢回時。

明州天童幻菴住首座

禮應菴塔祖偈曰。眈眈睡虎管窺斑。便把中峯作靠山。不得破沙盆一箇。兒孫乞活也應難。

明州天童默中唯西堂

詠蠶偈曰。桑空柘盡始心休。繇密工夫一繭收。爐炭鑊湯拌得入。為人只在一絲頭。

佛隴宜興可上座

聽雨偈曰。簷頭滴瀝甚分明。迷己眾生喚作聲。我亦年來多逐物。春宵一枕夢難成。

瑞州九峯壽首座

臨終偈曰。七十二年。者邊那邊。喫十方飯。參達磨禪。今朝一擲翻身去。笑破傍觀[此/束]半邊。

天台雲峯無盡祖燈禪師

四明王氏子。參日溪詠公於天寧。問曰。生死事大。無常迅速。乞賜指示。溪曰。十二時中。密密參究。忽然觸著。却來再問。師抗聲曰。無常迅速。生死事大。語未終。師便喝。師遽禮拜。溪曰。見何道理。便爾作禮。師曰。開口即錯。溪頷之。出參諸方。尋卓錫上雲峯。影不出山者五十年○洪武二年二月八日。示微疾。夜將半。顧左右曰。天向明乎。曰未也。或曰。和尚正當此際如何。師笑曰。昔德山疾。僧問還有不病者麼。山曰有。僧曰。如何是不病者。山曰。阿唧阿唧。師良久曰。如此喚作病得否。眾無語。師曰。色身無常。蚤求證悟。時至吾將去矣。侍者執紙乞偈。師曰。終不無偈。便未可死耶。侍者請益堅。乃書曰。生滅與去來。本是如來藏。撈倒五須彌。廓然無背向。投筆端坐而逝。

徑山傑峯英禪師

金華人。初為徑山首座。歸鄞。楚石琦有偈送之曰。凌霄峯頭第一座。摩訶衍法皆明破。百非四句俱已離。白雪陽春誰敢和○上堂。衲僧行履豈尋常。出匣吹毛不隱藏。奪食驅耕全正令。東西無復鬼分贓。又偈曰。清平世界罷干戈。無柰兒曹籍甚何。急水灘頭拋直釣。錦鱗不遇枉哆囉。尋常持金剛般若經。一日持經畢。即泊然而逝。

徑山敬菴莊禪師

台州人。自幼厭葷穢。薄世塵。父母捨廣慈菴出家。久之徧參知識。了徹宗源。會於越中主二剎。稍不如意。即辭去。往依全室於天界。全處以二座。未幾推主徑山。道化隆盛○永樂十二年。奉詔入京。同修大典。寓天界三載。少師姚公等。交章薦師住持。堅辭不受。歸徑山示寂。塔於水嶺小池上。

淮南祐上座者

久歷叢席。儕輩重之。客鼎州天王寺。以道自牧。人不得而親疏。居無何。語眾曰。吾去矣。或謂其戲也。迫之求頌。即索毫楮大書曰。來不入門。去不出戶。打破虛空。更無回互。拍手呵呵歸去來。白雲散盡青山露。乃趺坐奄化。主事僧亟呼撼之。師復張目舉手謝曰。不致上累。善為保重。是時郡守蘇公亦往致敬。撫其遺體曰。可謂了事衲僧也。

佛妙禪師

昆明人。出家於天華寺。洪武十六年。赴京。賜衣鉢。杖錫遊浙之徑山。宣德四年十二月。沐浴更衣書偈曰。去年七十九。今年滿八十。萬里為參尋。世緣今已畢。擲筆端坐而化。

杭州仙林雪庭禪師

杭之仁和桂氏子。毀齒喪父。患痘風。因雙目短視。數求出家。謁休休於仙林。一見契合。閱楞嚴。至一毫端現寶王刹有疑。後在江陰乾明寺。忽覩萬佛閣。金碧崢嶸於眉宇間有省。後因除夕聞鐘聲。不覺數年行履。忽爾浩脫。偈曰。圓響心非聞。大千同一照。抹過上頭關。更不存玄妙○師自號梅雪隱人。又曰幻寄。嘗曰。夫幻即寄之踪。寄乃幻之跡。幻起寄亡。全寄是幻。幻逐寄生。全幻是寄。翳目生華。山河大地。華翳不生。空真實際。幻之寄之。誠哉兒戲。

吉州武功山白雲明星禪師

閩之長汀張氏子。落髮受具。專修止觀。忽歎曰。大丈夫道業未就。如生死何。遂徧叩名宿。緣機有契。隱瀟峯二十餘年。太守汪公。勉師出世。師復移茅深入。學侶嚮至。漸成精藍。一日辭眾曰。吾去矣。眾問何往。師示偈曰。明月落波心。白雲橫嶺上。欲識本來機。鐵牛吞大象。語畢端坐而逝全身塔於本山。

杭州徑山月林鏡禪師

本郡人。少穎異。釋齡出家。間扣名碩。俾參本來人。久而有省。作偈曰。本來人。本來人。無腦無頭作麼尋。驀然揪著箇鼻孔。試看元來是白丁。

金陵永寧古淵清禪師

聞鷄鳴有省。偈曰。喔喔金鷄報曉時。不因它響詎能知。三千世界渾如雪。井底泥蛇舞柘枝。

伏牛無礙明理禪師

汾州和氏子。參松竹大方和尚。隨眾打七。有一聲虛空碎。獨露法中王之句。後同月菴大圓入終南。一日菴舉高峯銀山鐵壁話。師頓悟述偈。有一覺心空疑便消。拈來放去自逍遙之句。過方求證。方曰。伏牛打七即不問。終南靜室意如何。師曰。伏牛打七。泥團土塊。終南靜室。放大光明。方喝曰。即今光明何在。師向前一掌。方大笑曰。如是如是。

杭州雲棲蓮池祿宏禪師

郡之仁和沈氏子。年十七。補邑庠。每書生死事大四字於案頭。一日失手碎茶甌有省。作七筆勾見志。投西山性天和尚祝髮。北遊參徧融。後謁笑巖於柳巷。求開示。巖曰。阿你三千里外來開示我。我有甚麼開示。師恍然。辭歸。過東昌。道中聞譙樓鼓聲。忽悟。偈曰。二十年前事可疑。三千里外遇何奇。焚香擲戟渾閒事。魔佛空爭是與非○住雲棲。侍郎王公宗沐。問夜來老鼠唧唧。說盡一部華嚴經。師曰。貓兒突出時如何。王無語。師自代曰。走却法師。留下講案。遂頌曰。老鼠唧唧。華嚴歷歷。奇哉王侍郎。却被畜生惑。貓兒突出畫堂前。牀頭說法無消息。無消息。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第一○銓部虞公淳熙。問慧日點五百病僧因緣。師曰。慧日自甘窮子。捨己從人。西院屈陷平民。將生就死。可惜五百僧。只解點著便行。曾無一二高臥不起。令慧日顯異惑眾。禍及兒孫。郡主深切民瘼。我山僧急趨時難。倉卒中失帶了竹杖子。不免奮空拳。向居士癰腫上劈地一下。敢保沈疴潰散。毒血淋漓。萬派流通。百骸舒暢。雖然如是。云何一人能令眾起。不見道陽回片葉。春滿千林。者事且止。祇如終日把竹杖子。東指西揮。不如一直在木頭上朝持暮守。守來守去。忽然枯木重花。便是死人再活。說甚麼竹木。管取盡大地草木叢林。悉皆成佛去也。何以故。青青物外虛空體。即是如來堅實心○題自像曰。十畫九不像。惱殺丹青匠。庶幾此近之。權留作供養。若道這便是。依然成兩樣。不兩樣。三十棒○問參禪念佛。可得用融通否。師曰。若是兩物。用得融通著○問世尊默然良久。外道謂開我迷雲。空生宴坐不言。帝釋云善說般若。師曰。良久處欲望開迷。陰霾萬里。宴坐邊擬聞般若。說竟多時。雖然如是。鞭頭得旨。空裏飛花者。畢竟見箇甚麼。新春日示眾。今日賀新春。歲時重換却。昨日作麼生○萬歷四十三年七月初四日。師將示寂。預別眾曰。半月後。吾將他往矣。人皆莫測。至期。示微疾。面西而逝。

徑山紫柏達觀真可禪師

吳江灘缺沈氏子。年十七。剃髮遊方。聞誦張拙偈。至斷除妄想重增病。趨向真如亦是邪。大疑。一日齋次忽悟。乃曰。使我在臨濟德山座下。一掌便醒。安用如何若何。遂遊江南。居無定所。後住燕山。有居士言及金剛經應無所住而生其心句。師曰。如何是應無所住而生其心。士惘然。師曰。汝問我。我為汝說。士遂問。師忽擊案曰。聞麼。曰聞。師曰。此非而生其心麼。又曰。汝是有心聞。無心聞。曰無心聞。師曰。此非應無所住麼。復說偈曰。木魚打得頻。怕痛忽生嗔。汝若知痛處。禹門度金鱗○萬歷癸卯秋。忌師者以他事陷師罹難。先是神宗皇帝手書金剛般若。偶汗下漬紙。疑當更易。亟遣近侍質於師。師以偈進曰。御汗一滴。萬世津梁。無窮法藏。從此放光。上大悅○師被逮日。上見章奏。意甚憐之。在法不能免。因逮及。旨下曰。著審而已。拷訊時。神色自如。備嘗笞楚。抵死以傳燈未續。則我出世慧命一大負。餘無他言。始終不屈。至十二月初五日入獄。十七日法司定案欲死師。師說偈曰。一笑繇來別有因。那知大塊不容塵。從茲收拾娘生足。鐵櫬花開不待春。又曰。世法若此。久住何為。乃索浴罷。囑侍者性田曰。吾去矣。幸謝江南諸護法。侍者痛哭。師叱之曰。爾侍予二十年。仍作此去就耶○時有吳生者。侍問大法。復為說偈曰。事來方見英雄骨。達老吳生豈夙緣。我自西歸君自北。多生晤語更冷然。語畢端坐而逝。御史曹學程聞之。急趨至。無之曰。師去得好。師復張目笑而別。獄中香雲不散。待命六日。顏色不改。及出浮葬於慈恩寺外。後迎龕建塔徑山。著有紫柏集行世。

瑞州黃檗無念深有禪師

黃州麻城熊氏子。年十六。患痘垂絕。叔兄議許出家乃甦。祝髮蕩山。有老僧謂之曰。十方一粒米。重如須彌山。若還不了道。披毛戴角還。師聞悚然。即事參訪。聞僧舉僧問大休。如何是西來意。休曰。黃瓜茄子。師大疑。徧參江浙名宿。謁廬山大安禪師。安問曰。汝號甚麼。師曰。無念。安曰。那箇是無念。師茫然。一夕聞哭笑二聲相觸。猛然開悟。偶見麪一盆在當路。掇起送入櫃中。見有果籠。將手推開。不覺失手。櫃蓋打頭。渾身汗流。笑曰。徧大地是箇無念。何疑之有。將前疑滯。一齊打破○萬歷辛巳。往龍湖同李卓吾居士至駟馬山。有講主至。士問主曰。清淨本然。云何忽生山河大地。僧依文講訖。士曰。無念你說看。師將開口。士將師膝上一推曰。這箇響。師忽猛省。乃知十地菩薩。夢見眾生。身墮大河。欲救度故。起勇猛心。發大精進。人法兩空。始得入門。全無干涉。有偈曰。四十餘年不住功。窮來窮去轉無踪。而今窮到無

依倚。始悔從前錯用功○僧問道果有耶。果無耶。師曰。說有說無。二俱成謗。曰如何即得。師曰。無求即得。曰如何是道之體。師曰。滿口道不著。曰四大離散時如何。師豎起拳曰。者箇不屬四大○問古人迸却咽喉唇吻。道將一句來。者一句如何道。師曰。我不迸却咽喉唇吻。你且道一句看。僧無對。師曰。你被音聲塞却口○問見性成佛是否。師曰是。曰性是無形底。如何得見。師曰。性是有形底。只你不見。曰請和尚指出我看。師曰。我說汝不見○問如何出離生死。師召僧。僧應諾。師曰。從者裏出。曰和尚說底話。某甲不曉得。師曰。等你曉得。堪作甚麼。

夔州白馬儀峰方彖禪師

達州羅氏子。參如何是鬼神覷不破之機。三年有省。出峽。徧謁知識。結茅雙溪○一日午炊。聞甑中作聲。忽大悟。作頌曰。三玄三要沒來繇。用盡機思無處求。窗前移步竈門下。白雲青峰齊點頭。齊點頭。南嶽天台共一籌○又曰。二八女子嫁新郎。績麻捻線一如常。稱家豐儉隨時過。嬾插堂前者炷香。無幻聞之曰。此人曾作細密工夫來 萬歷壬辰秋歸達州。中興白馬寺。僧問如何是西來意。師曰。兩頭燒火一頭煙○師平昔手中常執一鼗鼓。一面書轟字。一面犇字。凡答話。多舉而搖之。示寂。塔於龍神山。

廣信鵝湖養庵心禪師

郡之上饒朱氏子。偶過戚屬。會道者譚四生之義。師於言下洞了物我平等大意。往雒之太平落髮。南歸焦山度臘。聞江中推船聲有省。偈曰。夜靜江空闊。推船怱怱聲。不知何所住。擔子半邊輕。謁華山。聞山拈一段生涯六不收話。有疑。猛提七日。身心脫然。尋歸故里○住靈山。畫大圓相於壁間。題曰。內寫莫教塗黑。外寫勿使傷白。有人向圈裏圈外下得註脚者。許汝學道無疑。不然。總是懣懣○後住鵝湖。十年不立座元。博山參。以趙州無字話相契。請居厥職。贈以偈曰。鵝湖十載虛元位。一旦緣何立少年。兩道眉毛八箇緹。須知佛祖不容前○師嘗以無門鎖置丈室以驗諸方。偈曰。上古留傳鎖。憑君智鑰開。若無開鎖法。相見不須來○萬歷丁卯二月晦日。上堂說法。置齋作別。復示偈曰。八十餘年幻夢中。鐵牛耕破太虛空。臨行一句相分付。半夜金烏帶日紅。端坐而逝。

杭州真寂聞谷廣印禪師

嘉善周氏子。母夢玄武神仗劍率諸甲士擁護其門而生。七歲常瞑目端坐。父母送之杭州開元寺。剃度後。師歸省親。母誡之曰。三朝新婦。一世禪和。子其勉之。師每述其兩句。終身受用不盡。一日見壁間法界圖。問其師曰。十界從心生。心從何處去。其師不能答。時儀峰和尚結茅清平。往叩之。峰曰。汝要會。須妙悟始得。師曰。如何得悟去。峰乃教看雲門露字。師一聞便信。直下挨拶。至忘寢食。尋上雙徑。結茆白雲峰下。看亮座主參馬祖因緣。疑不能釋。一日見黃瑞香花。忽大悟曰。却是虛空講得經。碌磚瓦礫正堪聽。向來扭捏娘生鼻。錯認葫蘆作淨瓶。於是往雲棲。盡得蓮大師之益○次參龍池傳和尚。適傳負暄階下。師問曰。和尚在那裏。傳曰。恰好不在。師即展禮。人事畢。傳出所著德山托鉢頌示師。且曰。汝別頌看。師即頌曰。末後之句有也無。德山父子太譎訛。同條生不同條死。活得三年恨轉多。傳喜甚。謂師曰。何不承當此事。共相唱和。師不自肯。傳曰。更欲如何。師曰。視圓悟大慧為多愧耳。傳憮然曰。當今學者。未會先會。那能得不自肯如子者乎。老僧當避一頭地矣。瀕行。傳送至門外。撫師背曰。老姪。我還疑你在。師曰。甚處疑某甲。傳曰。如何是密啟其意。師曰。今日不打宜興轉。傳呵呵大笑。師頂笠便行。北遊五臺。還真寂。四眾懇請開堂。師堅持不肯。遂南遊。隱建州廢寺。及自閩歸。司理黃端伯復以為請。師曰。某孀居久矣。豈更適人耶○師生平滴水滴凍。不肯一念外馳。雖洞透祖關。而挽回流俗。終不以悟自居。教律三宗鼎立。師皆能洞晰其微。時或為眾演說。聞者靡不心服○崇禎丙子臘月。辭眾告寂。塔全身於孔青之陽。

海虞破山洞聞法乘禪師

別號雪柏。吳江李氏子。少從華山剃度。單身行脚。參紫柏可尊者。可問一句中具三玄即不問。一玄中具三要如何。師屈指曰。也是死蛇當頭。可大悅。以禪虎稱之。一時名重叢林○師住天目中雲庵。雪嶠信參次。師坐火箱口喃喃地。信即跳入火箱同坐曰。口喃喃地作甚麼。師笑曰。汝從何處來到此天目。信曰。從無陰陽地上來。師默然。信即跳下火箱○林皋豫參師。適在山門相遇。師曰。那裏來。豫展兩手。師曰。這裏天。王殿倒却還知麼。豫曰既是天王殿。為甚麼倒却。師曰。賊○師一日謂嚴天池曰。穹窿山昨夜點頭矣。不知居士道箇甚麼。勿謂三世諸佛口挂東壁也。如居士灑灑落落。不妨我多多和和○師住破山。舉漢月藏為首座。每言近日禪病。往往搏量公案。註解因緣。磨楞合縫。稱斤度兩。不惟自隔千生。更復陷人無算○天啟三年七月。臨示寂。呼侍者至。即為坐

脫。供全身三七日。儼然如生。世壽七十二。塔於破山寺南。牧雲門禪師刊師語錄十卷行世。雪嶠信和尚為之敘。

達澄受昭禪師

通州人。不言姓氏。嘗參天童悟。充西堂。未幾忽棄去。人莫測其意。或嚴寒履冰。或深夜陟巘。或俗其頂。或民其衣。獨語咄咄不休。或談鬼幻事。聞者疑駭。遇眾環拜。視如路人。輒叱之曰。我不識汝。或反拜之。林和尚迎師。住天童丈室。禮敬甚恭。少頃。所有牀坐。一時擊碎擲階下。眾愕不知所謂。更為陳設。師即掩戶不語。粥飯從牖入。徒眾每隔戶稱名禮拜。師皆不內。忽一日逸去。不知所之。四眾悲戀。牧雲門為師立師行道。

江陰黃毓祺介子居士

晤費隱容於金粟。自敘到過天童。容云。曾住幾時。士云。七八日。容云。還得天童意旨麼。士云。不得。容云。既不得。莫是蹉過麼。士云。若有得。則真是蹉過。容云。今日識得居士也。士乃休。士久依悟和尚。大有入處。悟化後。同門法嗣請士結集悟和尚語錄書問行世。後鼎遷。士被執石頭城獄。留題山翁忞像云。憶自黃巖。嗣席天童。踞先覺堂。卓卓孤風。楔以楔出。毒以毒攻。蛇吞鼈鼻。虎齧大虫。正令全提。孰敢嬰鋒。出語成詠。百折不窮。佛果衙官。大慧附庸。糠粃之導。往來愚衷。國難以來。蹤迹西東。兄遊天外。我戲園中。世出世間。皆大英雄。不負先師。舊衲蒙茸。眉毛結供。鼻孔氣通。曹谿正脈。臨濟真宗。是木上座。亦號山翁。粵三日將決矣。復作絕命詩曰。劍樹刀山掉臂過。長伸兩脚自為摩。三千善逝原非佛。百萬波旬豈是魔。潦倒不妨天亦醉。掀翻一任水生波。夜來夢作脩羅手。其柰雙丸忽跳何。以一破簪書寄牧雲門禪師。然後坐脫園中。

明州白雲延祥鹿門西師太

楚之襄陽人也。姓氏未詳。早歲博通教典。至濠泗間。士大夫皆尊禮之。不啻蓮社遠公矣。於壽霍適中之地。營塌房化城二剎。後聞密老人唱導天童。師易服腰包。即詣座下。悟一見契重之。深錐痛筭。盡捐寶惜。未幾呈偈曰。幾度喫棒最親切。歷劫狂心當下歇。不用擬議問如何。觀體分明皮破血。悟印可。久之。密老人過通玄遷化。師聞白雲相距不遠。即往觀之。曰吾夙緣在矣。有一虎出林

伏師前。眾皆驚愕。師曰。莫驚。乃護三寶神也。即廬其址。虎乃為侍。人皆言為之常禪師再來也。郡伯韋公嚮師風。訪於廬。果見其道行精嚴。容貌雍肅。虎侍之異。曰予與龐公霄壤之不侔。而有同然也。即捐資贖產。聿成梵宇。為白雲之中興也。師於順治戊戌臘月一日辰刻。集眾囑曰。本寺當作十方叢席。無違我願。闍維後。將吾骨為粉。散於東湖。令水族得利。切勿營塔。言畢書偈。跏趺而逝。當晚侍虎非嚎。三日亦終。弟子奉師全身三年。顏貌不變。後闍維。舍利無數。弟子將半骨散湖中。尊師之願。半骨塔於本山右麓。

青林如鑑老宿

侯官林氏子。十八矢志慕道。出嶺禮雲棲宏。又參顯聖澄和尚。看無字有省以偈呈曰。趙州狗子無佛性。脫下袴子來遮面。面子未曾遮得全。半身露出令人厭。澄撫而印之。師不自當。後以省親歸閩。及祝髮。復出嶺侍澄。久之歸鼓山。居東庵。及博山無異和尚開法茲山。宿傾心事之。遂稱得旨。自是深埋頭角。潛修密煉。至年八十七。示寂於石林舊隱。閱七日荼毗。火光金色。香氣馥郁。平日所持木念珠不壞。

優曇頤和尚

湖廣人。族姓甯。十九投顓愚衡祝髮。後參天童悟和尚。依侍久之。悟一日見師擡石。遽喝云。翻轉石頭來。師於言下有省。悟深然之。次日辭去。結茅深隱。後住靜江都。參徒日集。師終不自肯。口喃喃梵唄不歇。凡有請益。皆叱之曰。參方去○康熙壬子五月朔。示微疾。至初八日。命諸參徒入室。問汝等還知老僧去處麼。恩侍者云。月明照見夜行人。師云。套語。進云。師意如何。師云。壬寅年不生。壬子年不死。汝再道看。進云。壬寅年却生。壬子年却死。師振聲大喝云。得恁麼塗汙老僧。進云。畢竟如何。師示偈云。咫尺雲程九十州。脚跟任意把拳揉。門前柳色開金眼。檻外諸峰笑點頭。偈畢。問甚麼時候了。侍云。午矣師乃索茶嗽口。跏趺擲盞而寂。

太史蔣超虎臣居士

江南金壇人。謁鐵舟海禪師於金山。問山河大地。俱有壞時。且道金山壞不壞。海伸一足云。向這裏下得一轉語。便見端的。士云。

下語也不難。祇恐與師隔一層了也。海云。恁麼道又爭得。士云。和尚又如何。海云。切莫當面錯過。士諾諾。又問蘇長公與佛印禪師玉帶機緣。請師代一轉語。海云。山衲若代語。玉帶又要還了也。士云。畢竟下甚麼語。方得相應。師云。莫謂山衲無語好。士云。將謂別有。海云。今日方始瞥地那。士一日舉似同年孫孝則。孝曰。何不道是語何有。是坐何處○士寓孝則居士園久之。孝問曰。邇來不見兄有禪。士曰。禪可見麼。孝曰。試道看士曰。想不必道。次日孝謂士曰。大悲閣記。是兄的。是古人的。士曰。是我的。孝曰。兄忘却了也。士點首。後入都。寄書云。此行良苦。幸蚤為我賦招魂也。孝復曰。安得便心動。北風有何惡。士請告歸。道經高郵。乃別孝曰。予將浪蕩了此一生。孝曰。何處去。士曰。過得廬山。又峩嶺矣。後果終於峩眉伏虎寺。臨寂。留詩一律云。翛然猿鶴自相親。老衲無端墮業塵。直向鑊湯求避熱。又從大海去翻身。功名傀儡場中物。妻子骷髏隊裡人。只有君親無報答。生生一念祝能仁。題畢趺坐。擲筆而逝。

寧波天井天壽鏡宗新禪師

早參。拈拄杖曰。大眾。米裏有虫。飯裏有沙。總是尋常事。為甚麼須菩提咬落拇指。良久曰。有些脚酸○示眾曰。欲識佛性義。當觀時節因緣。高聲曰。且道是甚麼時節。買帽相頭○早參。卓拄杖曰。老僧祇解這箇。諸人又作麼生。又卓拄杖曰。上山擒虎易。開口告人難。

明州天井秀峰敢禪師

本郡邵氏子。因僧問諸佛妙理即不問。向上宗乘事若何。師一喝。僧一喝。師曰。且道那一喝是賓。那一喝是主。僧又喝。師曰。那裏學得這虛頭來○因僧問如何是未生前本來面目。師曰。這問最親切。僧曰。學人不會。再乞方便。師打云。正好向者裏會去。

金陵紫竹林卉堂旋煥禪師

楚之武岡羅氏子。心慕內典。棄儒入釋。禮圓照佛語和尚披剃。歷有年所。遂傳心印。建峩山。住五臺。弘演教律。道風遠振。江南諸護法請住紫竹林。除夕示眾。月月有箇三十日。惟茲三十休兒戲。閻羅老子算飯錢。試問諸人何所敵。若敵得。炎炎火宅清涼域。若敵不得。二六時中須著力。且道如何是著力一句。紅爐燄裏

翻身轉。那怕閻君面似鐵○著有祇園小集。藥師法懺。清磯集說。楞嚴綱旨。法華提綱。紫竹集等書。盛行於世。

江南興化蘆渡大威權禪師

本邑程姓。投五台祕魔巖徧融老宿雜染。參憨山清。達觀可。笑巖寶。最後謁龍池傳。時值密雲悟繼席。執侍最久。嘗發願云。如今生不明此大事因緣。誓不倒單。晝夜端坐。如一座泰山相似。悟見師如此行履。一日悟問汝在此多少時。師曰。三年。悟曰。三年前在甚麼處。師打一掌曰在這裏。悟曰。這是三年後的事。如何是三年前的事。師又打一掌。悟曰。一掌不作一掌用時如何。師曰。今日被和尚一問。只得嘴挂壁上。悟曰。如何是日用中事。師曰。飢則喫飯。寒則添衣。即呈偈曰。一拶通身冷汗流。全然放下任悠悠。西來祖意何須問。魔佛從今一筆鉤○師一日請悟沐浴次。師曰。清淨法身作麼生浴。悟便打。師曰。本來無一物。又打箇甚麼。悟痛打曰。這漢若不打。三十年後罵老僧去在○師一日告眾送信檀樾曰。老僧某日去矣。侍僧問曰。和尚往甚麼處去師以手指西而逝。世壽九十九。僧臘八十八。

古徐州龍山容止量禪師

興化王氏子。參山茨際和尚於東明。際問曰。汝是何鄉人。師曰。江北。際曰。可曾帶得鄉里物來麼。師豎起拳頭。際曰。我不識這是甚麼東西。師曰。非但和尚不識。三世諸佛亦不識。際曰。不識箇甚麼。師一喝。際便打。師拂袖曰。今日識破這老漢。師於康熙壬子。忽示眾曰。吾行矣。言畢泊然而逝。

續指月錄尊宿集(終)

CBETA 贊助資訊

[. \(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CBETA 成立於 1998 年，於 2023 年 8 月 7 日轉型成為基金會。成立多年來，一部部佛典在嚴謹控管中轉換為數位典藏，不只數量龐大，而且文字校訂精確可信，又加新式標點方便閱讀。「CBETA 電子佛典集成」不僅獲得國際學界的重視及肯定，也成為大眾廣為運用的公共資源，如此成果都是在廣大信眾及有識之士的支持下才得以實現。

對一個從事佛法志業的非營利團隊，能夠長期埋首理想、踏實耕耘是非常不容易的。如今，CBETA 運作經費日漸拮据，但「佛典集成」仍有許多未竟之功。因此，懇請大家慷慨解囊、熱情贊助，讓未來有更多更好的電子佛典。

您的捐款本會皆會開立收據，此收據可在年度中申報個人或企業的綜合所得稅減免。感恩諸位大德的善心善行，以及您為佛典電子化所做的一切貢獻。

信用卡線上捐款

本線上捐款與 netiCRM 及 NewbPay 藍新金流合作，資料傳送採用 SSL (Secure Socket Layer) 傳輸加密，讓您能夠安全安心地進行線上捐款動作。

不管您持有的是國內或國外卡，所有捐款最終將以新台幣結算，所以我們所開立的捐款收據也將以新台幣計。

線上刷卡支持定期定額與單筆捐款。（銀聯卡不支援定期定額）

[前往捐款](#)

劃撥捐款

郵政劃撥帳號: 5 0 4 6 8 2 8 5

戶名: 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

欲指定特殊用途者, 請特別註明, 我們會專款專用。

線上信用卡 / PayPal 捐款

PayPal 是一個跨國線上付款機制的公司, CBETA 引用其服務, 提供網友能在線上使用信用卡或 PayPal 帳戶贊助 CBETA 。

PayPal is an online system of a global payment solution. CBETA uses its service to provide the uses to donate by using the credit cards or PayPal account to support the CBETA project .

相關收據開立事宜, 由於付款幣別為美元, 我們除了會依您所贊助之美元金額開立收據外, 另我們會依捐款當日公告匯率開立台幣收據, 此收據為國內正式合法報稅憑證。

Since the donation made is in US currency, hence all the receipts will be issued in the US dollars consequently. However for the domestic donators, a Chinese official receipt will also be made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the purpose of tax deduction.

[線上信用卡 / PayPal 贊助](#)

支票捐款

支票抬頭請填寫「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

For donations by check, please write the check to
"Comprehensive Buddhist Electronic Text Archive
Foundation".
